

# 이스라엘의 첫 세 왕

사울 - 다윗 - 솔로몬



윌리엄 브루스 지음/ 배제형 옮김

도서 출판 벽옥



**"Dark sayings of old"**

Psalms 78:2,3,4



Speak what is high! high!  
Let what is ancient come out of your mouth.

1 Samuel 2:3



성경 해설

# 이스라엘의 첫 세 왕

THE FIRST THREE KINGS  
OF ISRAEL  
by the Rev. William Bruce

윌리엄 브루스 지음  
배제형 옮김



Whoso readeth, let him uderstand

Matt 24:15



# 차 례

## 사울의 통치

입문-----사무엘상 8장-----	11
이스라엘이 왕을 바라다	
제1장-----사무엘상 9장 1-14절-----	19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사울	
제2장-----사무엘상 9장 15-27절-----	30
사울을 대접하는 사무엘	
제3장-----사무엘상 10장-----	36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워지다	
제4장-----사무엘상 11장-----	49
사울이 암몬을 쳐이기다	
제5장-----사무엘상 12장-----	59
왕의 권력에 관해 사무엘이 충고하다	
제6장-----사무엘상 13장-----	65
사울이 예언자의 직능을 빼앗고 왕국을 몰수 당하다	
제7장-----사무엘상 14장-----	76
요나단의 용맹으로 블레셋군이 참패하다	
제8장-----사무엘상 15장-----	88
사울이 아말렉을 쳐부수려 보내지다	
제9장---사무엘상 16장---	107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붓다	
제10장-----사무엘상 17장---	117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다	
제11장---사무엘상 18장-----	132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제12장-----사무엘상 19장-----	141

요나단이 모함을 당하는 다윗을 변호하고,미같이 그를 사울의 분노에서 구해주다

제13장----사무엘상 20장----151

다윗의 도망과 요나단의 도움

제14장----사무엘상 21장----158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다윗

제15장---사무엘상 22장----166

아들람의 동굴에 있는 다윗; 사울이 사제를 학살하다

제16장----사무엘상 23장----172

다윗이 크일라를 구해주다

제17장----사무엘상 24장----180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제18장----사무엘상 25장----187

야박한 나발이 아비가일의 슬기로 죽음을 모면하다

제19장----사무엘상 26장----196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그의 창을 가지고 오다

제20장---사무엘상 27장----201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하다

제21장----사무엘상 28장----208

사울과 엔도르의 무당

제22장---사무엘상 29-30장----217

전쟁 준비-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다- 다윗이 되찾다

제23장----사무엘상 31장----225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의 죽음

## 다윗의 통치

제24장-----240

서문

제25장---사무엘하 1장 -----244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다	
제26장----사무엘하 1장 17-27절---	248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통곡하다	
제27장---사무엘하 2장---	260
헤브론에 있는 다윗이 유다 가문의 왕으로 기름부워지다	
제28장---사무엘하 3장---	268
아브넬이 죽다	
제29장---사무엘하 4장---	278
이스보셋이 죽다	
제30장---사무엘하 5장 1-5절-----	281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어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제31장---사무엘하 5장 6-25절-----	285
다윗이 견고한 성 시온을 점령하다	
제32장-----사무엘하 6장-----	293
하느님의 궤를 거룩한 성으로 모셔오다	
제33장---사무엘하 7장---	301
다윗이 주님의 궤를 모실 집을 짓고자 했으나 금하여졌다	
제34장----사무엘하 8장--	305
가나안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다	
제35장---사무엘하 9장---	314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소중히 하다	
제36장---사무엘하 10장---	322
양갓음으로 되돌려진 다윗의 우정관계	
제37장----사무엘하 11장--	331
다윗의 큰 죄	
제38장---사무엘하 12장--	339
하느님의 메시지와 나단의 비유	
제39장---사무엘하 13장--	345

	암논과 다말
	제40장---사무엘하 1장--353
드고아 여인의 비유 속의 과부와 압살롬의 귀환	
	제41장--사무엘하 15장 1-5절--358
	압살롬의 반란
	제42장---사무엘하 15장 10절--366
	피신하는 다윗
	제43장---사무엘하 18장---373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
	제44장----사무엘하 19장---382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다
	제45장----사무엘하 20장----389
	세바와 이스라엘의 반란
	제46장---사무엘하 21장---396
사울의 후손 일곱 명을 기브온족에게 넘겨주다	
	제47장---사무엘하 22장--402
	다윗의 감사 찬양
	제48장----사무엘하 23장 1-6절----412
	다윗의 마지막 말
	제49장---사무엘하 23장 8-29절---418
다윗의 용사들; 세 용사가 베들레헴의 샘에서 물을 가져오다	
	제50장---사무엘하 24장 1-15절---425
	병적을 조사한 다윗의 죄와 벌
	제51장----사무엘하 24장 16-25절----431
	백성을 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남겨두다
	제52장----열왕기상 1장 1-5절-----437
	수넴 여자 아비삭이 다윗의 시중을 들다
	제53장----열왕기상 1장 5-31절-----442

아도니아의 반역

## 솔로몬의 통치

- 제54장---열왕기상 1장 32-40절----447  
솔로몬이 기름부워지다
- 제55장----열왕기상 2장 5-10절---453  
다윗이 솔로몬에게 훈계하고 죽다
- 제56장---열왕기상 3장 1-4절---462  
솔로몬의 선택
- 제57장---열왕기상 3장 27절---468  
솔로몬의 첫 슬기로운 재판
- 제58장---열왕기상 4장 21절---473  
솔로몬의 통치 아래 강력한 안전을 즐기다
- 제59장---열왕기상 5장---478  
성전 건축 준비
- 제60장---열왕기상 6장---483  
솔로몬의 성전
- 제61장---열왕기상 7장 1-22절---488  
솔로몬의 궁
- 제62장---열왕기상 7장 13-51절---494  
솔로몬의 성전의 집기들, 히람이 만들다
- 제63장---열왕기상 8장---501  
성전 봉헌과 솔로몬의 기도
- 제64장---열왕기상 8장 62-66절---507  
솔로몬이 두 번 째 제물을 바치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다
- 제65장---열왕기상 9장 10-14절---512  
가불
- 제66장---열왕기상 9장 18절---516

	솔로몬의 성읍들-광야의 다말성
제67장---	열왕기상 10장 1-10절---520
	솔로몬의 명성-세바의 여왕의 방문
제68장---	열왕기상 10장 18절---527
	솔로몬의 보좌
제69장-	열왕기상 9장 6-28, 10장 11,12절-533
	솔로몬의 상선대
제70장---	열왕기상 10장---538
	솔로몬의 군대
제71장---	열왕기상 11장 1-13절---543
	솔로몬의 우상 숭배
제72장---	열왕기상 11장 14-27절--550
	솔로몬의 적들
제73장---	열왕기상 11장 42,43절---554
	솔로몬의 죽음과 매장
제74장---	열왕기상 11장 29-35절---561
	예견된 열 지파의 반역
제75장---	열왕기상 1장---567
	유다와 이스라엘의 두 왕국

사울의 통치  
입문  
(INTRODUCTORY)  
사무엘상 제8장  
이스라엘이 왕을 바라다

저자가 오랫동안 바랬던 것은 사울의 통치로부터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 보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끈기가 필요하고 아마 모험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자 자신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자의 할당 부분은 역사적 의미의 설명과 역사적 주변 환경을 실지 응용해보는 데에 한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의 이해를 흡족하게 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성서의 내적 의미를 다루는 성직자로서 저자의 제일 가는 목적은 성서의 해설을 독자에게 공급해 주는 것 이상의 어떤 것에 두고 있다. 말씀은 그 안에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인바, 저자의 제일 가는 목적은 말씀의 곁(글자)을 벗겨 그 속 뜻을 응용해보는 것이다. 성경의 글자적 의미는 학식 있는 해설가나 경건한 주석가들의 시선을 받아 왔었다. 따라서 글자적 의미를 취급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위와 같은 선배들의 노력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취급해야 할 경우 위와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다. 그래도 우리는 위대한 해설자, 스웨덴뵉(swedenborg)의 저술을 통해 세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 계시록의 경우는 아주 세세한 주석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책들의 경우도 많은 문단에 걸쳐 설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응학(the Science of Correspondence)의 응용으로 말씀의 천국적 신비를 소유하고 있다. 이 학문을 통해 우리는 글자라는 구름 너머에서 찬란히 빛나는 태양의 빛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스웨덴뵉의 방대한 저술에 흠어져 존재하는 많은 문단들은 마치 태양이 구름을 뚫고 비추듯 천국과 지상을 연결해주고 있으면서 구름을 뚫은 빛이 특별한 장소를 비추듯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를 통해 빛을 발하고 있다. 스웨덴뵉을 통해 얻은 많은 지식들이 있다 해도 본 주제에 정확히 접근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아마 어떤 독자가 이 책의 어느 한 부분 만을 읽어보아도 신성한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의 속을 펼쳐보는데 얼마나 더 많은 상응 지식이 있어야만 할 것인지 가능될 줄로 본다. 따라서 명백하게 씌어진 의미들이 계발되는데 비해 자신이 소유한 상응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도 절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자도 소견을 독자에게 제공하지만 이는 주제들의 난이한 점들을 과장하려든다거나 그 난이점을 해결하고자 애쓴 노력을 추켜세우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다. 단지 그런 문제점을 나타내줌으로서 독자의 판단이 관대히 있어지기를 바래고, 독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에 비해 저자의 부족한 학식을 너그럽게 보아줄 것으로 기대할 뿐이다.

연설자와 청중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위의 사항들 외에도 저자와 독자라는 수준에서 하나 더 첨가해보고 싶은 게 있다. 경건하고 공손한 영을 지니고 이 책 속의 주제들에 접근한다면 주제들 어느 것 하나에서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다. 이 땅을 딛고 서려면 거룩한 경외함과 심오한 겸손함이 절대 필수조건이다. 이 위대한 광경을 보고 싶은 열망을 지녔다 해도 통상적인 생각이나 일시적인 흥미로 인해 너무 성급해져 다른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밭에서 신을 벗지도 않은 채 신성한 영광의 현존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위험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감각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피상적인 껍질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제거해야만 하는 일이다. 영적 진리는 영적인 빛이 아니고서는 보여질 수 없고, 영적 힘은 영적인 사랑의 영향이 없고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위의 모든 것을 설비해주기를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하리라 믿는다.

이 책의 역사 속에 있는 세부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검사해 가기 전 그 사건들이 연결되어지는 역사적 측면에서의 말씀 속의 다른 부분들을 참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본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을 점유하는 특별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일반적 배경과 의미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거룩한 기록은 몇 가지 다른 정부 형태 아래 살고있는 백성들을 표본적으로 연출시키고 있다. 이런 정부 형태는 열조들, 사제들, 판관들, 왕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국가 형태로 발달해 가는 자연적인 단계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교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각기 다른 정부 형태의 연속은 보다 단순하고 순수했던 데서 보다 더 피상적이고 불완전한 상태로 하강하는 이스라엘 교회를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상적인 표현을 써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근원적으로 신권 정치에서

신성한 통치자라는 직접적인 통치의 영향을 더욱 적게 받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조나 사제라는 통치 형태 밑에 있었을 경우 그들은 신성한 사랑과 정의의 온순하고 부드러운 영향에 기꺼이 종속하려는 교회 상태를 표현했다. 그 반면 사법적이고 입법적인 통치 형태 아래 있었을 경우 그들은 신성한 진리와 판결의 권위적인 법에 강제로 순종하는 교회의 상태를 표현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이스라엘 역사의 내적인 역사적 의미에 해당된다.

그 역사가 영적 의미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영적 삶의 역사를 말해 주는바, 연속적인 이스라엘 통치 형태의 변화는 더 높은데서 더 낮은 상태로 이어지는 인간의 하강을 기술하고 있다. 유아 시기와 어린 아이 시기 동안 인간 존재는 사랑에 의해 통치되어지지만 이 시기(상태)가 퇴조하면서 더 강한 열정과 추론이 증가한다. 이 증가에 따라 마음은 진리가 통치하는 상태에 더욱 진입한다. 그러므로 인간 삶의 초반은 마치 교회가 하강하는 것과 유사하다. 각 개인의 경우 상태가 높은데서 낮은 데로 하강한다는 것이 도덕적, 영적인 것이 고갈되고 마는 과정을 통과한다고 억측해서는 안된다. 아마 그 반대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하강을 하는 동안 재 승강을 위한 지적 능력과 수단의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달콤한 영향력이 통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스스로 여겨지게 될 때 진리가 통치하게되면 고집불통인 열정에 재갈을 물려주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교회와 인간 모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질서로 빠져 회복될 수 없는 파멸로 완전히 끝장을 내고 마는바, 진리의 통치 역시 신성한 섭리의 자비와 지혜로 있어지는 단계인 것이다.

위에서 살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명확히 추적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엘의 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다. 사무엘을 주님이 들어 세우신 것은 엘리의 부패된 집안으로 인해 형성된 부패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있어졌다. 엘리의 아들들은 백성들이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탐닉을 일삼았다. 관관이 된 사무엘의 아들 역시 엘리의 아들과 매우 흡사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잇속만 차려 뇌물을 받고는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제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잃었고 관관들도 자기들의 권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줄거리이다. 이런 부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질서대로 보존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그 국가가 계속해서 표현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 왕의 등극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더 높은 힘을 더 낮은 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건의하였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을 사무엘이 듣고 마음이 었잖아 야훼께 기도하니 야훼께서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 밑에서 그분의 교회와 자녀들이 살고, 진리는 사랑에 종속되어 사랑의 도구가 되어 주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사항이다. 이것만이 완전한 질서이다. 이 질서 안에서 인간은 창조되어져 있다. 아직도 이 질서 속에서 인간은 그의 유아기와 어린 시절이 통과하도록 섭리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여기는 두 능력은 창조자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에 가장 걸맞는 조건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신성한 사랑은 그 사랑이 창조한 그릇들의 심정과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 자체가 재생산되기를 바래신다. 인간이 처음 사랑의 법칙을 이탈하였을 때 그것은 자기 위에 군림하는 사랑의 하느님을 가지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랑의 법칙보다는 진리의 법칙으로 통치되기를 인간이 바라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인간에게 진리의 법칙을 수여하신 것은 영원한 조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 일시적인 법칙으로, 그분이 바라시는 사항이 아니 할 수 없어 허용하는 수준에서 있게 되는 것들이었다. 그렇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선함 또는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진리가 하는 일이요, 진리는 선함의 종이요, 진리의 속성은 사랑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왕을 세워 주라고 허락하시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신 것이나 다른 성서 부분에서 그분이 화가 나신 가운데 백성에게 왕을 주셨다 라는 언급이나 그분이 분노하심에 그를 거두셨다 라는 등등의 대목들은 교회나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상태의 품질이 하락됨으로 신성한 마음이 불유쾌하게 여기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당연한 것은 하느님의 속성에서 성내심은 없다는 것이다. 신성한 존재의 성내심이 표현되는 성경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 표현은 신성한 마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상태가 표현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된 언어들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꺼져 갈 때 그 사랑 대신 성냄의 불이 켜진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성내신다고 불리지는데 그 이유가 인간이 타락해 가도 하느님의 사랑은 계속 인간의 마음 안으로 흘러드는데 이 때마다 그 사랑이 정반대로 변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본 상태의 변화는 정죄되어야 하는 것, 지존하신 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런 이의신청의 바탕들이 백성들 자신이 처하게 될 조건에 관련하여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열거되고 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의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천인 대장이나 오십인 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자기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서 부려먹고 양떼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 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한 마디로 백성이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내키면 왕의 것으로 삼게 된다는 말이다. 어떤 원리가 인간 마음이든, 교회가든, 세상이든 통치하게 되면 그 원리는 모든 것을 자신 밑에 종속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이스라엘에 군림하는 왕권적인 통치는 애정적 측면보다는 지적 측면이 우세해져 통치하는 원리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종교가 지적 측면을 거세게 강조할 경우 말씀 속의 선과 진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보다는 인간을 추켜 세우는 쪽으로 흘러가고 만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왕의 병거대나 기마대를 위해, 왕의 전투를 위해, 왕의 행차를 화려하게 하기 위해 착출 되듯이 이 백성들로 표현되는 진리들 역시 지적 인간이 자기의 지적 싸움이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을 보조하는데 착출되고 만다. 백성의 딸들이 요리나 과자를 굽는데 착출되듯 백성의 딸로 표현되는 선의 애정들은 지적 인간의 감각적 바램들을 충족하게 해서 그 인간의 열정과 입맛을 돋구는 것을 도와주도록 남용되고 만다. 왕의 일을 하기 위해 남종, 여종이 착출되듯 과학 속의 진리나 애정들은 지적 오만이 추켜세워 원리로 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정의라고 증거 되게 하는데에 고용되어진다. 이런 것이 교회나 인간에 속한 상태일 때 그 속에 남아 있던 선함과 진리까지도 지적 우월감에 추종 당하게 되는바 이는 이타애가 믿음에 종속 당하는 것과 같고 이것이 곡식과 포도, 양떼에서 십분의 일을 거둬 가는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말씀 속에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 그것의 일반적 의미 뿐만 아니라 세부사항까지도 한 개인이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노예 상태에 처하게 한다. 그 이유가 위와 같이 왕이 집권해 가면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종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해가고 있는 것들은 절대적 비질서가 아닌 상대적 비질서 상태이다.

절대적 비질서는 해체된 상태, 혼란한 상태이어야 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되는 상태는 완전한 자유인 사랑을 법칙으로 하는 것 대신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힘이 훨씬 강한 진리를 법칙으로 삼는 질서의 상태, 따라서 더 완전한 질서 대신 덜 완전한 질서 상태이다. 진리의 법칙, 이로부터 있게 되는 조직 형태, 비록 이 형태가 절대적인 최상의 것은 못되지만 그들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최적의 것인 셈이다. 이런 사실은 최고도로 중요한바, 인간의 업무들,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완전한 법이 있어 그 법에 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완전한 질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법을 우리 앞에 놓아두고 그 법에 도달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가장 뛰어나게 우수한 어떤 이상향을 갈망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달성해보고 싶었던 이상향에 매우 미흡해 있을 경우 그것이 실패라고 단정해서도 안된다. 사랑의 법칙이 지상의 국가나 가족들을 통치하는 원리로 실시되고 있다면 인류의 상황은 무척 달라져 있을 것이다. 땅 위는 평화뿐이고 인간 사이에는 선한 의지만 실행되고 있을 것이다. 악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제거하느라고 소비되는 에너지와 각종 수단들이 선을 행하는 데에만 쏟아진다면 현 사회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지리라. 그러나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법을 폐지하거나 침범한 타 국가의 포로를 풀어준다고 전쟁이 평화로, 범죄 없는 사회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을까? 서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수단들이 더욱 복잡해져 가는 것은 인류가 타락해 간다는 증거가 될는지 모른다. 그렇다 해도 그런 법전 없이 어떻게 인류가 현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범죄, 무정부 같은 혼란 상태 등등은 모두 지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배되는 것조차도 짧은 어느 기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가 해체되고 인류는 멸해지고 말지 모른다.

따라서 인간의 심정 속에서 사랑의 법칙을 발견 할 수 없을 때 진리의 법칙이라도 그 안에 자리를 잡게 한다는 것은 비록 전자보다는 품질이 떨어지지만 그런데로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고로 해서 탁월한 예언자 사무엘이 타국가 처럼 왕을 세워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불쾌하게 여겼을 때 그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지시 사항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선함과 지혜를 한꺼번에 보게된다. 왕의 등극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질서이다. 사제 직분은 실패했고, 판관 직분도 그 힘을 잃었다. 모든 백성 각각은 제 눈에 옳게 보이면 그것이 정의가 되어 있다. 각 사람의 눈에 올바른 듯 나타난 것들은 많은 경우에서 비뚤어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적은 그들 앞에서 쭉쭉 자라나 강세해져 있다. 따라서 새로운 힘, 더 강력한 권능이 아니면 그들을 건져줄게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사무엘이 왕의 등극에 따른 결점을 백성들에게 낱알이 말해 주었지만 백성의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였다.

이 말을 듣고 주님께 아뢰는 사무엘에게 내린 신성한 명령,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는 이 백성들이 더 타락되는 것을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승강 되는 수단을 설비해주려는 섭리까지 담겨 있다. 사실 첫 세 왕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더 위대해지고 더 많은 진보를 이룩하여 더 부유해지고 더 강력해진 통일된 국가를 형성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첫 세 왕의 통치 역사에 있는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종교적 삶이 영적으로 진보하는 상태를 기술해주고 있다.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은 위쪽을 향한 진보, 이 진보를 수단으로 하늘 왕국이 인간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 마음의 세 가지 수준, 자연적, 영적, 천적 상태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 위 세 상태의 적용, 거듭나는 삶의 단계들을 밝혀 보는 것이 저자의 제일 가는 목표이다.

그런데 위 사항보다 훨씬 더 높은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첫 세 왕과 관련을 갖고 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상당한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감지 안 되는 사항에 속한다. 거룩한 말씀의 내적 의미(interior sense)는 인간의 거듭남을 취급하고 있다. 이보다 더 깊은 의미(inmost sense)들은 주님의 영화하심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그분께서 인간을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 신성한 주제, 비록 우리에게 너무나 높은 주제인지라 계속 그 주제에 관심을 갖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영혼의 거듭 나아가는 것을 확실히 알려면 그분의 영화하시는 단계와 어떤 연결이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만 하는바, 그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만큼은 잊지 않아야 하리라 본다.

이스라엘의 첫 세 왕의, 최소한 두 명은 주님의 왕권적 품성 측면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징(type, 표본)이 되었다는 것, 그들의 역사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 주님의 내적 삶과 경험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런 의미가 지상에서의 우리 본성 속에서 명백해질 때 우리도 약간은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 인성을 영화시키는 한편, 그 과정들은 인간

구속이라는 일을 결과되게 하신다는 말이다.

스웨덴볼의 저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주님께서는 영화해 가시는 진보 단계의 처음, 그분은 인성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로 만드셨고 그 다음 신성한 진리(Divine truth)로, 마지막으로 신성한 선(Divine good)으로 만드셨다(A. C. 7014 참조).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영화 단계가 이스라엘의 첫 세 왕에 의해 표현되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사울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되시는 그분을, 다윗은 신성한 진리로서의 그분을, 솔로몬은 신성한 선으로서의 그분을 표현했다. 이러한 세 단계를 보다 정밀하고 충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세 왕들의 통치 역사이고, 이 역사들은 그분께서 인성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 신성한 진리로, 신성한 선으로 만드시는 동안 있어지는 주님의 내적 삶과 체험에 관한 모형이다.

우리가 먼저 살펴계 되는 것이 사울의 통치이다. 사울의 통치 역사는 다윗의 초기 역사, 그가 기름부어진 후까지 포함되어 두 역사는 짜 깊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표현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와 다윗이 표현한 신성한 진리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신성한 진리와 구별되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천국 위에 있는 진리가 천국 안에 있는 진리와 구별되는 것과 같다.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신성한 진리의 유한한 상태, 즉 천사를 포함해서 유한한 마음이 납득해서 받아들인 진리들이다. 엄격히 말해 신성한 진리는 유한한 존재의 납득력을 초월하고있다.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스웨덴볼의 저서를 보면 신성으로부터(from Divine)의 진리라고 자주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신성인 진리(which is in itself Divine)와 구별된다. 저자는 신성 안에 있다(which is in the Divine)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신성한 진리를 최대한의 납득력 있는 의미로 볼 때 그 진리에는 신성 자체인 모든 진리 즉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유한한 마음들로부터 유한한 마음 사이에 있어지는 간격이나 등차, 영적 기운 등등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까지 포함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수단으로 해서 무한한 신성한 진리는 천사나 인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적합해지도록 만들어진다.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또는 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육을 입으시기 전의 주님의 인성을 구성했다. 주님의 신성한 진리가 천사들의 마음 안으로 흘러들 때 그 진리는 그들의 의지와 이해성 안에서 인간 형체를 취했다. 이러한 인간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강림하시기 전까지 인류에 작용 하셨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상의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면 언제든지 천사라는

개인 앞에 계셨었다. 그러나 그분이 늘 나타나시던 방법 즉 천사를 통한 인성이 주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인간의 마음 안으로 흘러들었지만 많은 세월이 경과하면서 인류가 천국에서 멀어지자 그 방법은 효력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처녀의 자궁 안에서 인성을 입으셨다. 이렇게 해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인성을 분리된 존재로 만드시고 그 존재를 영화시키시어 그분 자신의 것, 무한하고 영원한 신성과 하나되도록 들어 세우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천국 위에, 천국 안에 구원의 매개체를 설비하셨다. 영화하신 인성 측면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스스로 되셨던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빛은 아직도 천국을 통해 인간 안으로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매개체적인 유입(influx)외에도 지금은 주님 자신의 인성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유입까지 존재한다. 이를 수단으로 인간 마음은 내면적으로 영향받아질 수 있고 계발될 수 있어 내면적으로 거듭나질 수 있게 되어 있다.

특별한 의미에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하는 사울은 욱을 입으시기 전 천국 안에 있는 주님의 인성을 표현했다.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는 다윗은 욱 안에서 명백해지신 이후의 주님의 인성을 표현했다. 그분께서는 인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셨는데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인성을 영화하시기에 앞서 먼저 인성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듭나는 동안의 주님의 인성을 사울이 표현했고 영화하시는 동안의 주님의 인성을 다윗이 표현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안에 있는 진리 즉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 그분의 인성을 만드실 때가 주님께서 인성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천국 너머에 있는 진리, 어느 인간도 도달할 수 없는 빛으로 들어가신 것 즉 신성한 진리로 인성을 만드실 때가 그분이 영화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온 것들이 이스라엘의 첫 세 왕의 역사에서 취급되는 영적인 신성한 주제들이다. 이 왕국들의 지속적인 통치에 관한 영감된 기록은 신성한 도움을 받아 추적해 간다.

# 1

## 사무엘상 제9장 1-14절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사울

신성한 존재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에 동의 하였고, 신성한 섭리는 왕을 선택하는 쪽으로 인도하시어, 신성한 지혜는 그 시대와 그 백성에 가장 적절한 왕을 보았다. 높은 의미에서 볼 때, 표현적 특성을 가장 잘 수행해낼 인물을 보신 것이다.

사울,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키스의 아들인데, 그는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가 없어져서 찾아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울은 나귀를 오랫동안 부지런히 찾았지만 헛수고를 하여 종에게 그만 돌아 가자고 제의 하자, 종은 이를 선견자에게 물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한편, 사무엘은 사울이 오고 있다는 것, 사울에게 해야 할 일들에 관한 신성한 명령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사무엘은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으로 사울을 기름 부었다.

위의 간단한 줄거리는 매우 단순하지만 그 곳에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태도나 수단들로 섭리가 그 목적을 결과하게 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 우리의 흥미를 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신성하고 영적인 사항들이 특징지워지도록 성경 이야기의 바깥 사건을 지휘해 가심으로 하느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교훈적이면서도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영적 빛은 우리로 하여금 앞에 놓인 구절들을 꼼꼼히 생각해 보겠끔 제안하고 있다.

주목해 볼 첫 번째 사항은 이스라엘의 첫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뽑혀졌다는 것이다. 둘째 왕의 경우는 유다 지파로부터인바, 두 지파는 이스라엘 후손을 출생 순서가 아닌 계급별로 분류할 경우, 계시록 7장 3-8절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둘째 왕은 첫째에, 첫째 왕은 마지막에 해당되는데, 이 두 지파는 하느님의 왕국을 구성하는 원리들의 첫째와 마지막을 표현하게 되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볼때, 주님이 입으신 처음의 인성과 나중의 인성, 즉 영화하신 인성을 표현한다. 첫째와 마지막 사이에 놓이는 모든 원리들은 첫째와 마지막을 거론하게 되면 일괄해서 포함되어 진다. 그러므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모두를

망라하는 바, 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된 모든 원리들은 주님이 세상에서 입으시어 영화시키셨다. 왜냐하면 선함과 진리에 속한 모든 원리들이 인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은 분의 형상을 만드는 자신의 품성에 따라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육을 입으셨을 당시, 인간 본성들은 하느님의 형상을 잃고 있었다. 다시말해 인성을 구성한 원리들은 거의 뒤집혀 있는 상태였다. 육을 입으심으로 주님은 최말단에서의 인간이 되신 것인데, 그분이 입으시고 영화하신 최말단에서의 인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사울로,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뽑혀진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주님의 왕국의 기반이 선함과 진리의 가장 낮은 수준에 놓여진 뒤, 차츰 승강되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신성한 역사는 단번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도록 사울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먼저 키스라는 사람에게 친숙해지게 하고 있다. 이는 후에 다윗이 소개될 때도 아버지 이새를 먼저 소개받고 나서 다윗으로 이어졌듯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과정이다. 고대 시대 때는 아버지를 통해 아들이 소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거기에도 영적 이유가 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선함과 진리를 의미한다. 그 외, 쌍으로 언급되는 경우에서도 같은 뜻을 지닐 때가 많다. 단지 그 연결이나 수준의 상황은 다르다. 아버지는 선을 뜻하는데, 이로부터 진리가 파생되고, 아들은 진리를 뜻하고, 이로부터 선이 파생되어진다. 이는 주님 자신에 관련시켜 생각해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아버지는 신성한 선함, 아들은 신성한 진리이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오듯, 진리는 선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 외에 신성한 아버지와 신성한 아들에 관한 의미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먼저 소개되는 이유는 사울로 표현되는 진리가 파생되는 것은 선으로부터 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거론되는 자연적인 이름에서 영적 의미를 찾아 본다는 것은 언제나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 사람을 특징지워 묘사하는데서 그 의미의 파악에 대한 실마리를 가질 수는 있다. 키스는 세력있는 사람, 즉 유지였다. 힘이 있다함은 종종 부유함까지 덧붙여 뜻할 때가 많다. 한 단어가 힘이 세다는 것과 부유하다는 것을 함께 의미할 때도 하나는 선의 힘을, 다른 하나는 진리의 힘을 뜻한다.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하나만으로는 어떤 힘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둘이 연합할 경우만 힘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힘이 없고, 진리는 그 근원을 선에 두지 않고서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둘은 언제나 따로 따로 구분되어진다. 힘에는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의지의 힘(power of will)과 지성의 힘(power of intellect)이다. 그런데 의지는 지성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지성은 의지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어찌됐든 이 둘 각각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의지가 지성보다 강할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지성이 의지보다 강할 경우, 판단에 약점이 나타난다. 지성이 의지보다 강할 경우, 양심적인 것, 즉 성실도에 흠집이 생긴다. 이 둘의 균형과 하나된 행동이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 이 균형과 하나됨이 세력있는 유지, 키스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키스 당사자만 본문에서 언급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사 대 선조까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네 선조 역시 키스의 묘사에서 표현된 균형과 하나됨을 다시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넷은 돌처럼 결합(conjunction)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네 선조들에 관해 관심을 더 가지고 시간과 지면을 할애한다면 그 이름들은 본문의 영적 의미를 위해 기초를 제공할런지도 모른다. 최소한 한 사람의 이름만은 우리가 언급해 보아야 할 줄로 생각된다. 키스의 아버지는 아비엘(Abiel)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이 이름은 두 단어, 아비(Abi) - 아버지, 그리고 엘(EI) - 하느님의 합성어이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선함의 원리는 아버지로 의미되어지고, 진리의 원리는 신성한 이름 엘(EI)로 의미되어진다. 구약 성서에서 신성한 존재를 말하는 두 개의 일반적인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Jehovah)와 엘로힘(Elohim)이다. 여호와는 영어 성경에서 주님으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친숙해 있고, 엘로힘은 하느님으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친밀해진 단어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거룩한 이름은 신성한 본성의 두 가지 필수 요소, 즉 사랑과 지혜, 또는 선함과 진리를 표현한다. 엘(EI)은 엘로힘의 단축형이다. 이 엘이 사람이나 천사들의 이름의 한 부분을 구성할 때, 이 단어는 힘을 뜻하게 되는 바, 아비엘은 세력있는 아버지(powerful father)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름이 글자에서 아버지 + 하느님으로 구성되지만 영적 의미에서는 연합된 선과 진리, 진리를 수단으로 있게 되는 선의 세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뿌리였다. 이와같은 내용을 전혀 의식치 못하는 키스의 아들이 2절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 생긴 사람이 없을만큼 끼끗하게 잘 생긴 아들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이렇게 본문은 사울을 묘사하고 있다. 끼끗하게 잘 생겼다(choice and goodly)라는 말은 보통의 잘 생긴 것 이상이라는 말이다. 이 서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하고 좋은 것이 서로 묶여 있음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 생긴 사람은 없었다. 천국과 교회에 있는 모든 진리에서 주님이 떠맡으시어 영화하신 선함에 필적되는 진리는 아무 것도 없다. 사울은 끼끗하고 잘 생겼을 뿐아니라 키도 컸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큰 용모를 뜻하는 성경 용어로는 교만함 (high-minded)이 있는데, 이는 영적 의미에서 곧 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오늘 본문의 키가 크다는 것에 포함되어질 수는 없다. 후에 사울은 정말로 교만해져 버렸다. 그는 왕으로 추대된 후 자신의 짧은 시야에 의지하려고 했다 (사무엘 15:17). 그러므로 키가 큰 사울의 용모는 높이를 수단으로 영적으로 표현되는 것, 즉 높고 낮은 등차에서 높은 선함과 진리, 감지할 수 없는 점진적 변화로 작아지거나 커지지 않는 선함과 진리, 그러나 뚜렷한 경계선을 가지고 서로 서로 구분되어 서로 오갈 수 있는 선함과 진리를 표현해 주고 있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전 천국은 세 개의 특별한 천국으로 구별되어진다. 이 세 천국은 분리되지 않으나 그들은 서로 서로 구분되어진다. 세 천국 각각은 자체 속에 감지 안되는 점진적 변화로 건너가게 되는 등차들을 지니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자연계의 무지개일런지 모른다. 거기에는 몇 개의 구분되는 색깔들이 있다. 천국은 무한한 숫자의 다양한 색조로 되어 있고, 그 색조는 계속적으로 변화해서 희미해져 서로 구별되는 등차로 건너간다. 그리하여 각기 다른 색깔을 나타낸다. 사울이 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 다시 말해서 세상에 오시기 전의 주님의 인성을 구성하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곰곰히 생각해 본다면, 사울의 용모에 관한 주변 상황에서 좀더 뾰족한 의미를 볼 수 있을런지 모른다. 천사들의 지성으로 흘러들듯 주님의 신성한 진리는 인간 형체를 입으셨다. 인간 마음 속에서 신성한 진리는 유한해져 있고, 진리의 의미 역시 불완전한 개념일 뿐이다. 이것은 천국을 통해 하강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입으시는 천국에 있는 진리 측면의 신성이었고, 이렇게 그분이 신성한 진리를 이루시되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신성한 선을 이루셨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지금 있는 천국과 같은 세 개로 구분되는 천국은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천국에 해당되는 천국 하나만이 실지로 존재했다. 이 천국은 아담적 교회(Adamic Church)를 구성한 이들로부터 있어진 천국이다. 다른 천국들, 비록 그 천국들이 실지로는 존재 못했고 잠재적으로 존재했다. 가장 높은 천국, 천적 천국 (celestial heaven)은 태고 교회(the Most Ancient Church)의 타락 이후 천국으로 올려진 이들이 천적 천국의 외곽을 형성하여 존재했다. 이들은 둘째 천국, 즉 영적 천국(spiritual

heaven)의 핵심을 구성했다. 그러나 영적 천국,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천국, 첫 천국(the first heaven)이 계속 뒤를 이어 구성되어 존재하면서 영들의 세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주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영화하시기 전에서는, 영적 천국은 천적 천국의 외곽을 정식으로 형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영적 천국과 영들의 세계 역시 서로 구분되는 왕국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다. 위의 이야기를 상술한 것은 앞으로 있게 될 과제인 이스라엘의 분단, 즉 여로보암 지휘 아래 열 지파가 갈라져 나가게 되어 생기는 두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을 살피게 됨을 미리 예상하여 오늘 과제에서 그에 대한 유용한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그 과제 속의 어떤 사항은 사울의 용모에 관한 것이 소개 하는 수준에서 언급될 것이라 본다. 사울은 진리 측면에서의 신성, 또는 실지로 형성된 천국에 존재하는 주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반면, “이스라엘 사람” 또는 “백성”(구번역 참조)은 영들의 세계에 있는 이들, 즉 실지로 존재하는 천국의 한 부분을 아직 형성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표현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들의 세계를 구하시기 위해 오셨으나, 영들의 세계 뿐만 아니라 자연계 까지도 구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천국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광대한 사람(the Grand Man), 즉 가장 완전한 신성한 사람의 형상이다. 이 사람 속에서 가장 높은 천국은 머리를 형성하고, 둘째 높은 천국은 몸 부분을, 가장 낮은 천국은 팔 다리를 형성한다. 낮은 천국이 실제 형성되어 존재되기 전에 이미 그와 똑같은 광대한 사람이 완전하게 존재해 왔었다. 머리 없는 몸체만 있는 형상같은 천국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비록 낮은 천국이 실제로는 없었다 해도 이미 말했듯이 잠재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그 외에도 각각의 미세한 천국 역시 사람 형체로 존재하는데,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 천사 한 사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가 천국은 전체로서도, 세분된 미세한 부분으로서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존재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더 완전하게, 더욱 많아지게 변화해 가게 한다. 천국의 형성과 성장은 인류의 시작과 발전에 유사하게 있어왔고, 아마 거의 동시에 있었을런지 모른다. 그리고 천국과 인류, 모두는 개개인의 시작이나 발전과 비슷하다. 따라서 일반 주제에 관한 어떤 생각도 세부적인 것을 공부함으로 획득되어질 수도 있다. 태아로서 시작되는 인간 존재의 형성의 경우도, 처음에는 주축을 이루는 높은 부분들이 형성되고, 다음에 낮고, 외곽을 이루는 부분이 형성되어진다. 그럼에도 모든 부분은 시초에서부터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형태를 구성시키는 어떤 힘이 잠재성으로부터 실제의 존재로 놓여지기까지 미 발달된

채로 놓여있던 것 뿐이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는” 사울은 천국의 형상을 표현하되,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그분의 인성을 형성한 천국을 표현하는데, 이는 중간 상태 수준에 있던 이들보다 위에,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주기를 바라고 왕을 달라고 요구한 백성들 같이 육을 입으신 하느님에 의해 구원될 때를 기다렸던 이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어깨는 힘을, 머리는 지혜를 상징한다. 사울이 지닌 남다른 키와 외모에 관해 표현된 용어들은, 비록 주님께서 우리같은 본성을 입으셨을 때도, 그분께서는 권능과 지혜에서 모든 인간을 초월하신다는 것, 그분의 인성이 여느 천사들 사이에도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이셨을 뿐일 때도 모든 인간이나 천사를 초월하셨다는 것, 그 이유가 어떤 진리도 인간들에게서는 존재가 중단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등등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있어진 용어들이다.

사울의 족보나 특성, 그의 개인적 외모에서만 보아도 그는 왕의 직무를 맡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섭리가 향하고 있는 목적으로 그가 인도되도록 조성되는 주변 환경에 관해 살펴기로 하자.

“하루는 아버지 키스가 기르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 오라고 하였다.” 사울은 그가 암나귀를 찾고 있을 때 왕국이 발견되었다. 다시 사울과 다윗을 비교 고찰해 볼 경우 특이한 점은, 사울은 그가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던 중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리웠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중 보좌로 불리웠다. 같은 왕권으로 불리우는데 있어 두 사람이 표현하는 특성이 그들이 불리울 때 하고 있던 일의 차이점이 잘 나타내 준다. 성경 비유를 따라 생각해 보면, 나귀는 자연적 생각(natural thought)에 관한 것을 상징하고, 양은 영적 애정(spiritual affection)에 관한 것을 상징한다. 서양의 경우, 나귀는 무시 당하고 업신여겼지만, 고대 동양의 경우는 존경되고 추켜 세우는데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족들 사이에서 판관의 아들은 나귀를, 왕의 아들은 황소를 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런 행동들 모두는 예언의 주제가 되어 오기조차 해 왔는데, 이런 행동들은 주님의 인성에 속한 것 중 자연적인 것들이 합리적이고 영적이며, 천적이고, 신성에 속한 것들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순종하도록 해야 함을 표현한 것이다. 사울의 경우, 그는 나귀를 잃어 버렸다. 즉 나귀들이 표현해 주는 영적 사항들은 주님이 세상에 오시어 잃어버린 것을 찾아 주실 때까지, 즉 그분이 타신 나귀, 어린 나귀를 발견하심으로 표현된 것들을 회복하실 때까지

잃어버려져 있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그분은 매여져 놓여 있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도록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셨고, 그 제자들은 주인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 마디로 끌고 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잃어진 것은 양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가 계속 찾는다는 이유에서 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잃은 것(the lost)이란 어떤 개인 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리들을 잃었을 경우에도 그렇게 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가지 동물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 각 동물들이 암시하는 원리나 품질을 두고 말하여질 때, 즉 “곰같은 자”이라든가 “여우같은 여자” 등등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위의 말에 대한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말해 어떤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를 구할 수 있는 그 사람 속의 미덕이나 품위를 잃어 버렸다는 말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구원해주신다. 그분은 나귀나 나귀 새끼로 표현되는 지식과 믿음, 양으로 표현되는 이타애(charity)를 그분의 백성에게 도로 갖다 놓으심으로, 즉 구원이 가능해지는 미덕이나 품위(the graces and virtues)들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 버린것(that which was lost)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절의 “잃어 버린 것”에서 “것”이란 중성을 표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사물(things)까지 포함하여 언급되고 있다. 사실 사람을 구해주는 게 그분이 오신 목적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어야 할 품질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불가결한 수단이다.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 사울은 에브라임 산악 지대를 넘고 살리사 지방도 가보고, 다시 사알림 지방을, 다시 베냐민 지방으로 건너갔지만 보이지 않았다. 사울의 나귀를 찾는 노력은 에브라임, 단, 베냐민 지파들의 구역을 연속 연결하여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들을 표현했다.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 거쳐간 세 지파는 선의 측면 보다는 진리에 관련을 가진 지적인 것에 속하는 것을 표현했다. 유다의 경우는 선에 관한 가장 높은 원리들을 표현 하지만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사울이 통과한 세 장소 중 두 장소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홀로 언급된 적이 없는 장소이다. 첫 장소와 마지막 장소는 에브라임 구역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단 구역에 해당된다. 사알림은 여우들의 장소, 살리사는 삼각 형태, 수브란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 혹은 달콤함이란 의미를 각각 지니고 있다. 사알림은 자연적 의지, 살리사는 자연적 이해성, 수브는 자연적 기쁨, 또는 자연적 인간이 선과 진리라고 부르는 것, 그로부터 결과되는 쾌락을 말한다. 이런

곳에서 나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말해 자연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들 속에서는 구원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말이다.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 수브 지방을 통과 했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 단지 그가 수브 지방에 들어 가면서 그의 종에게, “아버지께서는 암나귀 생각보다 우리 걱정을 더 하시겠다” 라고만 언급된다. 어찌됐든 그는 예언자의 성으로 가겠끔 섭리적으로 인도되고 있다. 그 다음, 종은 자기들이 어떻게 나귀를 찾아야 할지를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 보자고 제안했다. 자연적 기쁨이 종결될 때, 영적 기쁨이 시작된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려는 자연적인 노력들이 성공적이지를 못했다는 것이 입증되고야 말 때, 우리는 새롭고 더 높은 방법에서 우리의 노력을 방향지워 가도록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 자연적인 것이 실패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더욱 잘 귀환한다. 우리의 총명과 신중성이 자기가 바랬던 것에 대해 불만족한 상태로, 자기가 대상으로 삼은 목적물의 획득이 달성 안된 상태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와 지혜에 의지해 보려 한다. 그리고 우리도 도움과 행복의 진정한 근원으로 자신의 방향을 바뀌게 할 친근한 목소리, 그 소리가 속에서 이든, 밖에서 왔든 상관없이 오로지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는, 더 가치있는 대상을 추구하는 동안 그 소리에 순종하려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다. 이 지식은 우리의 이해성에 별 도움을 주지 않을 듯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지식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시어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 선한 동기를 지닌 모든 이들은 신성한 영향 하에 행동되는 것이고, 그들은 조만간에 선견자가 있는 성으로 도착한다. 그리고 선견자는 그들이 어떻게 신성하게 인도되어 졌는가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해 왔던 선함보다 더 높은 선함으로 어떻게 인도되는 가를 밝히 알게 해준다.

사무엘에 대한 종의 논평은 진정한 예언자에 관한 것이요, 모든 진정한 예언자가 표현했던 유일한 한 분에 뚜렷하게 응용된다.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 맞는다고 하더군요...” 진리의 사람일 때 하느님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일 때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예언자, 또는 선견자인 것이다. 선견자(seer)는 미리 내다보고 설비하는 사람이요, 예언자(prophet)는 미리 말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예견과 설비는 앞서 오지만 미리 말해주고 가르치는 것 속에 항상 존재한다. 마치 내적인 것이

앞서 있되 외적인 것 속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상의 것이 진정한 예언자, 이 예언자만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종이 선견자에게 가보자고 제안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릴 복채가 없으니, 무엇을 드리면 좋겠느냐?” 예언자를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선물은 하느님의 총애를 구하고, 그분의 축복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예물과 같은 것이다. 그 예물이란 선한 애정들과 진정한 생각들이다. 이것들이 하느님께 바쳐지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통로와 같은 것이어서, 이를 통해서만 하느님의 선물이 그것을 바친 자에게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 예물들 중 첫째가는 제일 좋은 것이 제단에 놓여지는 빵으로, 번제물로 표현되어 있다 (레위기 1-3장 참조). 다윗이 사울에게 처음 소개될 때 그가 사울에게 내 놓은 선물도 빵이었다 (사무엘상 16:19). 그런데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시기에 각자의 그릇 속에 지녔던 생명의 빵은 탕진되고 말 때가 아주 흔하다. 그리고 우리가 신성하게 현존 하시는 그분께 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알고 걱정한다.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의식함은 사실 그 자체로만 보면 미덕이다. 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게 아무 것도 없음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잘난 것(merit) 역시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 완전한 결핍은 아니었다. 종은 은 사분의 일 세겔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선(빵)이 다 소비되었다 해도, 아껴두심(remains)은 진리 속에 언제나 존재한다는 말이다. 한 세겔은 이십 게라이다 (출애굽기 30:13). 인구조사가 있을 때 반 세겔을 모든 이스라엘 족이 내놓도록 명령받았는데, 이는 십 게라(반 세겔)를 가진 이들 외에는 주님의 영적 이스라엘로 세어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표시이다. 다섯, 뿐만 아니라 열은 남은 것(remains)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수준은 낮은 평면이다. 만일 어떤 이가 다섯 게라, 또는 사분의 일 세겔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선견자의 집에 입장하는 허가를 얻는 수단이 될 것이다.

사울과 종은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 그 성으로 가다가 물을 길으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한 분 계시는지?’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오늘 산당에서 이 성의 제사가 있어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성으로 들어 가시면 그분이 산당으로 음복하시러 올라 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다음에야 손님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 가시면 곧 만나실 것입니다.” 위 구절은 그 시대의 단순한 방법들을 실감나게 그려놓은 인상을 갖게 해 주고 레위인의 법에서 결코 서술하지 않은 제물을 바치는 잔치의 사회적인 성격을 알게 해 준다. 그렇다고 그 속의 영적 의미가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훈적이다. 처녀(maidens)란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진리의 애정들을 말한다 (이사야 12:3). 이 샘은 거룩한 말씀 안에 있다. 진리를 순수하게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 삶에 충당될 생명수를 말씀 속에서 길어 올릴 수 있다. 신성하게 명령되어 이루어지는 본문 속에서, 처녀들은 이미 약정된 목적을 포획하기 위한 설비된 수단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선견자가 있는 곳을 묻는 것은 과녁을 정확히 맞추는 물음이다. 그 처녀들로부터 오는 정보는 선견자가 언제 어디서 발견되리라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제공되고 있다. 먼저 처녀들은 사울이 서둘러야 한다고 타이르고 있다. 서둘러 행동함은 재빠른 노력, 열심히 바라는 것으로 그 의도의 바닥에는 진정한 모든 발전, 최말단에서의 성공의 싹이 놓여 있기도 하다. 이 바빠 서두름이 나타나 있는 이유는 선견자가 사울보다 앞서 가고 있다는 것, 그분이 음복하러 산당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견자가 성을 방문한 것은 백성들의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였다. 공동체가 주관하는 제사는 백성과 주님이 서로 서로 결합하는데 대한 것을 표현했다. 이는 사랑과 이타애의 영적 잔치,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의 영적 잔치인 것이다. 이런 잔치에서 새 왕이 영접되고 취임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가 백성의 통치자로서의 주님을 표현하며, 사랑으로부터의 진리로 백성을 통치해야 함이 왕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절호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잔치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 선견자에게는 손님이 되는 초대된 사람으로서 참석해야 하는 사람이었는 바, 잔치가 벌어지기 전, 사울이 사무엘을 보는 것, 그 다음 미래의 왕과 백성이 예배와 더불어 하나됨을 상징하는 종교적 잔치를 축하하는 것은 필수 조항이 될 수 밖에 없다. 제사가 있게되는 산당(high place)은, 우상숭배로 모독되기 전일 경우, 높은 관점과 느낌을 상징하는 장소였고, 이 상징적 의미로부터 신성한 존재는 지존하신 자(the Highest)라고 불리웠고, 그분은 높고 거룩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으로 알고 산당에서 그분을 예배드렸던 것이다. 사울은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 바빠 서두르면서 선견자가 가는 방향인 산당 쪽으로 가는 중에 성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제 선견자의 안내 하에 사울은 선함과 진리에 대한 사랑을 교리로 삼음으로서 승강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

## 2

### 사무엘상 제9장 15-27절

#### 사울을 대접하는 사무엘

사울과 그의 종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은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선견자, 그는 전날 사울이 올 것임을 미리 하느님께로부터 통보 받은 터인지라,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울부짖어 호소했던 것, 불레셋의 수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내도록 기름 부워질 사람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제 신성한 존재가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 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를 본문에서 배우게 된다. 왕을 세우는 이유는 백성들을 흡족하게 해 주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해 주려는데 있었다. 이 적들 또한 그 적과 맞붙도록 왕을 요구한 것과 같았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각 나라들은 교회가 맞서 싸워야 할 각기 다른 악과 거짓 원리들을 표현한다. 그 중에서도 아주 끈질기게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인 불레셋 측은 교회가 대대로 싸워야 하는 적, 그러면서도 쉽게 그 적에 노출되고 마는 적, 즉 가장 질긴 거짓 원리 중의 하나를 표현했다. 이 거짓 원리 또는 거짓 신조란, 사랑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원리, 아주 간략히 말하면 믿음만(faith alone)으로 구원된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의 본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만이라는 것은 악에 바탕을 둔 거짓 신조인데, 그 이유가 그 원리는 거짓 신조 안에 뿌리를 박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원리를 끌고 가기 때문이다. 이런 거짓의 반대는 선함에 바탕을 둔 진리인데, 이것이 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판관 시대부터 불레셋 측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다. 그래서 그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웅인 삼손까지도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 채, 붙잡혀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연자맷들을 굴리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노리갯감이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는 믿음만을 신봉하는 교인들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 주는 진리에 눈멀게 하고, 자신들을 안내해야 할 이해성의 눈이 뽑히게 하며, 오류를 좋아하도록 추론을 비비꼬아 밀어붙임으로 지성이라는 연자맷들을 돌리게 만들면서, 부패된 애정들을 탐식하는 노리갯감이 되게 하고 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삼손은 단독으로 불레셋에 맞섰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의 수령이 되어 전투에서 그들을 이끄는 대장이 되었다. 이런 구조적 차이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왕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지도자를 지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그들 국가로 표현되는 반대되는 것과 대비를 이루게 된다.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예언자 앞에 서게 된 “사울이 성 문간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 선견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댁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과는 아주 달리 키스의 아들은 계시를 받은 적이 없었는 바, 그는 자기가 묻고 있는 상대방을 알아 볼리 만무이다. 영적 상황 속에서 더 높은 것은 비록 더 낮은 것이 더 높은 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더 낮은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차이가 서로간에 있다. 그 이유가 유입(influx)은 마음의 안쪽에 들어간 다음 바깥쪽으로 건너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너감이 있어지는 곳은 합리적 마음이라는 문간이요, 이곳에서 영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과의 쌍방간의 교통을 수단으로 해서,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문을 열게 되어, 영적인 것은 바깥쪽을 둘러보고, 자연적인 것은 안쪽을 살필 수 있게 되면서 서로 접근이 가능해져 만나는 중간 구역, 이 구역이 문간(gate)으로 여기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난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접근하고 싶을 때, 특별히 내적인 진리가 거하고 있는 선을 알고 싶어 할 때, 이것이 본문에서 사울이 예언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묻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면 내적 인간은 즉시 스스로 밝혀 준다. “바로 내가 그 선지자요.” 자신에 관한 간단한 사실과 교통을 이루면서, 사울은 사무엘에 앞서 산당으로 올라간다. 그 이유가 그 날 사울은 사무엘과 더불어 잔치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고, “내일 아침에 그대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다 일러준 다음 떠나도록 해 주리이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일로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오. 나귀는 찾았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 어깨에 걸쳐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적 같은 지식이 영적 진리를 상징한다. 영적 마음은 자연성에 속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사람 속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어 인간 속에 있는 영을 구해줄까?” 사흘이란 시간과 상태 모두가 충만해졌음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이는 잃었던 것이 회복되었음을 보게 한다. 그래서 진리 측면의 신성은 그 진리에 소속된 모든 선과 더불어 마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원리의 바램, 마음을 통치하는 힘이 되어 간다.

암전하고 겸손한 표현으로 사울은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영예를 사양한다.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납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높은 지위와 자신을 비교해 보건대 자신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의 족보 역시 신성한 선택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 내노라 하고 우쭐대는 것들을 좌절시키는데 약한 것을 선택하신다. 육에 속한 것 치고 그분 앞에서 자랑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하느님 자신의 권능을 과장해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차지할 영광을 인간이 강탈하려 드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함은 더욱 아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오만함이 신성한 역사를 방해하려 들기 때문이고, 그런 인간이 애쓰는 최대의 노력 역시 진리와 정의를 위해 패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기 지파나 가문에 대해서 사울이 말한 서술에는 어떤 동양적 스타일이 담겨 있는 듯하다. 이런 말투는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된다. 사실 판관 시대 때에 베냐민 지파에서 있었던 참혹한 학살이 그 지파를 세력 없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9장 첫 절에서 언급된 키스에 관한 묘사는 유지, 즉 힘있는 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울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 중 가장 초라한 가문이었다고 생각되지 않게 해 준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식당(거실, parlour)으로 데리고 들어 가 삼십 명 가량 모인 손님들의 상좌에 앉혔다. 이들이 음식을 먹으러 들어간 방은 본문에서 사용한 식당이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특성을 지닌 방이었을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이 단어가 식당으로 번역된 것은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 일 뿐이다. 그러나 번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깊은 방, 중요한 방, 즉 침실, 회의실(chamber)에 상당하는 단어들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성전 속의 방으로 나타난다. 에제키엘에게 영감을 넣어 보여준 성전의 방 중 하나는 제단의 관리 임무를 가진 당직 사제나 봉직자를 위한 방이었다 (에제키엘 40:45,46).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느 방의 경우, 율법에 의거 백성들이 사제나 레위 지파 사람, 합창 대원을 위해 가져온 예물을 저장하기도 했음을 배운다 (느헤미야 13:5). 사울이 들어온 방은 제물이 바쳐지고 먹게 되는 거룩한 장소에 있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거룩한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의 이 방에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초대된 손님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방이고, 어느 누구도 그 방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방, 오로지 거룩한 교제만이 거행되었던 방이었다. 이 방은 내적 인간 안에 존재하여 이 방을 어떤 악도 결코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는 거룩한 애정과 생각들만 있는 곳으로 주님이 소개되는 방이요, 그분이 내리시는 사랑 속에서 기뻐 뛰며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방이다. 우리가 이 방에 자의식을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때란 오로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넘어설 때만이 가능하다. 본문에서 표현되는 이 방의 경우, 우리 속의 모든 애정과 생각들을 통치하는 애정과 생각, 더욱이 내적 인간 속의 애정과 생각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에 있는 애정과 생각들을 말하고 있다. 사울이 앉은 자리는 삼십 명 가량 되는 손님의 좌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좌석이 배정되어 있다. 말씀 속에 있는 여느 숫자들처럼 본문의 숫자, 삼십 역시 상징적이다. 삼십은 보다 높은 충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이 숫자에는 새로운 상태의 시작과 시작된 상태의 본성 - 싸움 후에도 또다른 싸움을 위해 남아 있는 것이 충분함을 뜻한다. 20세 이상 된 남자가 군인으로 전쟁에 나갈 의무 기간(warfare)이 삼십 년이듯, 레위인의 만남의 장막에서의 임무 수행 기간은 삼십 년이었다(민수기 8:24,25). 다윗이 통치를 시작한 것도 삼십 세 되어서였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그분의 공생애에 진입하시는 데까지 삼십 년이 걸리셨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경우는 삼십 년간 준비된 후 투쟁에 들어가는 삼십에 관한 사항이다. 본문의 경우, 삼십이란 숫자는 햇수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에 관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란 새로운 애정들과 생각들이고, 이것들의 획득은 진실로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 더욱 확실한 것은 전투가 뒤따라 있게 된다는 것이다. 좌우지간, 현재의 사울은 새롭게 승강되고 있다. 사울이 대접받지 않도록 손님들에게 미리 통보해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아껴둔 넓적다리를 가져와 사울 앞에 차려 놓도록 명령하였다. 그 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사울 앞에 차려진 고기는 양로나나 질로나 볼 때 특별히 구별된 손님임을 명시하는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 과거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야곱을 모시러 그들이 떠날 때, 베냐민에게 내 준 옷은 타 형제들 것보다 다섯 배나 많이 준 것도 위와 비슷한 예에 해당된다(창세기 46:22). 특히 사울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넓적다리 고기는 아주 구별되는 고기 부위에 해당된다. 레위인의 규정에 의거, 넓적다리는 쳐들어 바치는 예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고, 가슴(갈비)고기는 모세의 몫이었다(출애굽기 29:26-28). 이렇게 된 이유는, 넓적다리는 결혼적인 사랑(conjugal love)을, 가슴은 이타애(charity)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사울 앞에 놓여진 고기는 성직자의 몫에 해당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위의 설명 외에 특별한 상징성이 담겨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통치가 사제로부터 왕으로 이전되는 것을 표현한 징조였던 것이다. 사울과 더불어 식사를 한 사무엘은 동석한 손님들에게 자신의 권위가 이전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어야 했다. 사무엘은 판관이자 예언자였다. 이제 그는 사제로서의 직책만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실지로 비친 셈이다. 우리가 역대기서의 역사적 기록을 인정한다면, 사무엘은

비록 사제 계급에는 속하지 않았다 해도 최소한 레위 지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대기상 6:16,28 구번역).

잔치가 끝나자,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에서 성으로 내려왔다. 마음이 하느님께로 승강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일상 업무에 내려오는 것을 수반한다. 산당에서 성으로 내려감은 성에서 산당으로 올라감만큼이나 필요한 행동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로 인간에 대한 의무감이 더 강해지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너희가 작은 것에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배가 진실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 비록 사무엘과 사울이 산당의 방으로부터 성으로 내려왔다 해도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거기서 앞으로 개시될 왕국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친밀하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수준 높은 주제들을 다루었을 뿐 아니라, 더 높은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다. 고귀한 동기나 높은 관점들은 백성들의 복지라던가, 주변 국가들의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순수성을 간직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하느님의 은총으로 건립되는 나라에 관한 높은 주제들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는 데 적합한 상태이다. 사무엘이 자기 심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울에게 말했다는 것이고, 그가 진리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인간을 다루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진정한 왕이요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주님을 어떻게 모시어야 하는지 등등의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 마음 속에도 적용된다. 우리 심정과 지성 안에서 주님의 왕국이 통치되는데 대해 신성한 예언자, 말씀, 또는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를 훈육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비밀스런 생각들에 관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대한 하루가 마감되었다. “날이 새자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일어나 길을 떠납시다’ 하고 사울을 불렀다. 사울은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성읍의 끝까지 걸어 내려갔다.” “날이 새서... 일어났다”로 번역된 본문에 대해 어떤 성서 번역자의 경우, 이는 어깨에 짐을 놓는다라든가, 여행을 위해 짐승에 짐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전 날 밤 대단한 결심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본문의 날이 새서 일어나 길을 떠나는 사울과 사무엘의 심정 상태를 헤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울은 전 날 깊은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오늘 그는 새로운 것을 받게 되어 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선택된 자임을 알았고, 오늘 그는 주님이 기쁨 부을 자임도 알고 있다. 아마 높은 업무를 맡도록 하는 취임식 자체가 최소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 이 새로운 날은 진실로 새로운 상태의 시작인 것이다. 이 날에 관련된 본문 구절의 단어가 새로움을 암시하고 있다. 사무엘과 사울은 일찍 일어났다. 아마 어둠이 채 가시기 전인 새벽이었을 것이다. 이른 아침, 또는 새벽은 신성한 빛이 마음을 새로워지게 흔들어 깨우면서도 새벽 자체가 통상 의미하는 것, 내향의 고요함과 평화가 깃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측면에서 새벽은 주님 자신인 정의의 태양을 의미한다. 그분은 일찍 일어나셔서 그분의 종, 즉 예언들을 보내신다고 말해지고 있고, 그분의 오심은 언제나 아침과 연결되어 있고, 새벽에 비교된다. 낮은 의미를 포함하는 넓은 측면에서 새벽은 새로운 교회의 개시(commencement)이다. 그리고 세부적 측면에서 볼 때, 새벽은 거둢남인데, 그 이유는 한 인간 안에 있는 주님의 왕국이 새롭게 만들어져, 그가 하나의 교회가 될 때를 말하기 때문이다. 아주 세세한 측면에서 볼 때, 새벽은 사랑과 믿음의 선이 인간 안에서 실행될 때와도 같다. 그 이유는 이 선 속에서 주님의 오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게 한 천사와의 씨름이 승리로 끝난 때도 새벽이었다. 이는 기독교의 제자가 시험을 극복했을 때이다. 이런 씨름에 승리한 새벽에 우리는 자연적 상태를 넘어 영적 상태가 된다. 이런 새벽에 사무엘은 승강된 마음을 표현하는 옥상으로부터 사울을 불렀다. 이 때 사무엘은 사울과 담화를 한 게 아니라, 그를 멀리 떠나 보낸다. 즉 그를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되, 왕의 직무를 맡는다는 입장을 지참하게 해서 서둘러 보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외적인 것으로 진행되는 것, 또는 내향의 원리를 외향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들은 성읍의 끝까지 걸어 내려갔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렀다. ‘종을 먼저 보내고 그대는 잠깐 여기에서 있으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리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난 곳은 성문 근처였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해고시켰던 곳도 성문계였다. 그러나 두 상황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취임과 해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지나갔는지! 삶의 회전은 언제나 원 위치한다. 그러나 삶의 시작과 끝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사무엘과 사울이 성문의 끝에 당도했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으니 멈추어 서 있으라(stand stil)라고 말했다. 이는 이스라엘족들에게 명령하신, “멈추어 서서 하느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간곡히 권유하는 말씀, “멈추어 있으라. 그리하여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 위 말씀은 자아에 근원을 두고 있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존하라는 뜻이다. 이 뜻은 그분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 “너의 힘은 조용함과

신뢰 안에 있다.” 그리고 그들에 관해 예언자가 말한다. “그들의 힘은 멈추어 앉아 있는 것이다” (이사야 30:7,15). 앉아 있다는 것은 의지 또는 사랑의 상태와 관련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은 이해성 또는 믿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위와같은 서 있음(stand still)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적 이기심의 활동이 멈추어 서 있을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것, 이 신뢰야 말로 자신에게 신뢰를 두고 활동할 때 보다 더욱 잘 활동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지적 이기심을 멈추어 서게 하는 것은 예언자에 의해 사울이 기름 부워지는 것으로 표현된 성별(Sanctification)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멈추어 서 있으라는 요구에 사울이 응한 것이 그로 하여금 왕으로 기름붓게 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주제는 다음 장에서 취급되어진다

### 3

## 사무엘상 제10장

###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지다

사울이 잠깐 서 있을 때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시는 것이요.’” 의식 행위인 기름 붓는 것은 특별한 공직에 어떤 사람을 취임하게 한다는 표시, 또는 어떤 것을 특별한 용도에 헌납하는 것을 표시했다. 통상 사제나 왕들이 기름 부어졌는데, 그뿐 아니라 성전의 집기들, 전쟁의 무기까지 기름 부어지기도 했다. 이 기름 부음, 또는 기름을 바름(unction, 도유)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고안되어져 있었다. 기름은 성경에서 사랑을 상징한다. 기름이 사랑을 상징하는 성경의 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 하면, 아마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복음서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 일 것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더불어 기름도 준비해 두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한 밤중, “저기 신랑이 온다. 마중 나가라” 라는 소리가 들리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불을 켜 들고 마중 나가 그분과 함께 결혼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을 등불이 꺼져 그분을 따라갈 수 없었는 바, 결혼 식장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 기름이 불꽃의 생명이 되듯, 사랑은 믿음 속의 생명이다. 사랑이 없을 경우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의 등불은 꺼졌고, 그들은 단지 지식만을 상징하는 텅빈 등만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교회에서의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거룩한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요, 하느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심정에 들어가 그 영향력 하에 행동함으로써 거룩한 목적에 헌신되는 것을 표현했다.

유대 교회라는 하느님의 처방 속에서 거행되어진 기름 부어진 모든 것, 특히 왕이나 사제에게 기름 부어진 것은 왕이나 사제 측면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기름 붓는 것에 관한 표현이었다. 이런 표현적 행동 측면에서 이런 의식은 주님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의식은 그분에게 메시아와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주기도 했다. 그분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은 순수한 신성한 행동이었다. 그분은 신성한 사랑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지셨다.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셨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이다. 신성한 진리는 아들로, 신성한 사랑은 아버지로 나타내 보여 주셨다.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그분은 기름 부어진 자가 되시어 그분의 인성 안에서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가 하나를 이루어 존재하시는데, 그분의 인성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유한한 형체가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신성한 인격(person)이 되시고, 아버지와 아들 양쪽에서 존재하신다. 그리하여 그분 안에서 육적으로 신성이 충만해 있으신 것이다.

주님의 영화 하심은 인간 거듭남에 관한 모형이다. 그분이 신성한 사랑과 지혜를 그분 스스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인성을 신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을 영적으로 만드시는 것도 그들의 마음과 삶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결합시킴으로 이룩하신다. 그들이 획득한 진리는 계시, 즉 없음으로부터였다. 그들이 획득할 수 있는 사랑은 영감 (inspiration, 숨을 들이 쉼)을 수단으로 되었는데, 이는 위로부터, 또는 안으로부터이다.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진리 역시 참으로 필요한데, 그 이유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 사랑해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가 진리를 획득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거룩하게 되려면 사랑이라는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 성별 되어야만 한다. 또는 진리가 거룩한 용도에 실지로 사용되어야 한다. 주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사람의 즉위식에서 일 경우, 기름 붓는 의식은

더욱 필요한 바, 그 이유는 교회를 통치하는 진리, 교인의 마음을 통치하는 진리는 반드시 사랑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신성한 질서의 법칙이 그 의식에 의해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 사랑을 처음 받는 것은 영적 생명이 영혼(soul) 안에서 실지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심정이 주님의 뜻을 행해 보겠다고 진정으로 바라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바람을 실천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해준다. 말씀의 글자에서 획득한 진리가 사랑과 결합될 때, 우리는 육신이 된 영화로운 말씀을 받는 것이 되고, 시편 기자의 다음과 같은 영감된 말씀, “땅에서는 진실이 돌아 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이 선포가 이렇게 실제로 이어지는 바,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를 실감하게 된다.

입을 맞추는 키스는 사랑을 수단으로 결합하는데 대한 성경적인 상징이다. 가장 적절한 의미에서 키스는 진리와 사랑의 결합이다. 이 결합을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 그에게 증여한 것이다. 그 이유는 기름 붓는 사제로서의 사무엘, 기름 부어진 왕으로서의 사울은 이타애와 믿음, 사랑과 진리라는 인척 관계인 두 원리들을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결합이 계속되어 더욱 단단하게 결합되어 갔더라면, 사울이라는 왕과 왕국은 더 번성되고 행복해져서 늙은 예언자, 사무엘이 통곡하는 쓰라림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을 가로질러 버리고 마는 불행한 변화, 사울 통치의 일그러진 모습은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 있는 흥망성쇠에 꼭 들어맞는 모습, 즉 주님의 초기 경험들, 그분의 양상이 여는 사람보다 더 보기 싫은 상태였을 때, 한마디로 우리가 그분께 바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의 너무나 인간적인 초기의 그분의 상태 동안의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분을 충직하게 그려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할 것은, 주님을 표현한 표본적 인물들이 죄를 범했고, 때로는 아주 비통한 죄들까지 범했지만, 그들의 죄들은 그분의 시험을 표현했을 뿐, 표본적 인물이 범한 죄 자체를 주님의 시험에서 범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악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너무나 깊은 곳에 있는 악들이어서 유한한 마음으로는 납득되지 못하는 악, 인간 악의 근원이 되는 악들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험들은 우리의 관념을 넘어서는 깊이와 밀도를 가졌다.

사울을 떠나 보내기 전, 사무엘은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 백성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신 표시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 표시는 믿는 이들에게 따라 오는 표시로 존재하는 바, 우리는 이 표시의 내용에도 시선을 모아 보자.

사울이 떠났을 때 그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났고 그들은 사울이 찾던 나귀를 발견했다고 말해 주었다. 이 징조는 사울 자신에게 그 진리가 인정되는 것이나, 그것은 사울이 표현한 것들과도 관련되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라헬은 사울이 소속된 지파의 아버지인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였다. 그 여자가 야곱을 제일 먼저 사랑했는데, 비록 그 여자가 야곱의 첫 아내는 아니었다 해도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다. 이 여자는 진리에 대한 영적 애정을 표현했고, 이 여자의 언니인 레아는 자연적 애정을 표현했다. 라헬은 야곱이 바탄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도중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다. 베들레헴 - 유프라테, 이곳은 아주 의미 심장하고 감동적인 사건이 전개된 곳, 즉 세상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로 거룩한 예언과 역사에서 따로 분류해져 있는 지역이다. 유대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문으로 그분을 죽이려고 두 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대량 학살하는 모습이 “라마에서 들려 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 구나”로 표현되고 있다. 이 예언은 주님께 의하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는 순진, 그 파괴된 순진에 교회가 자포자기하여 슬피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베냐민이 출생하면서 라헬이 죽고 매장되는 것은 그 여자가 표현했던 애정이 거절되어 소멸함을 말하는게 아니라, 그 애정이 삶의 새로운 형태로 부활함을 뜻하는 것이다. 육체가 죽어 매장 될 때 그 영혼은 존재의 새로운 더 높은 상태로 진입하는 바, 죽음과 매장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인 부활은 생명으로의 진입인 거듭남이기도 하다. 라헬의 무덤에서 발생한 사울의 첫 징조는 거듭남이 진전되는 첫 단계, 즉 진리의 영적 애정은 먼저 옛 사람을 중단시키고 새 사람을 입혀 준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준다. 이런 단계의 상태는 베냐민 지역 쉘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에 사울이 왔을 때 첫 징조가 있게 되었다는 말로 더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베냐민 지역, 이는 베냐민 자신 같이, 진리의 선, 즉 행동에 놓여 있는 진리를 표현했다. 그 이유가, 지극히 중요한 종교에 진입한 사람이 사랑으로부터 온 진리의 삶에 실지로 들어갈 때, 그는 새로운 상태, 천국 상태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쉘사에 관해서 우리는 그 위치나 이름 정도밖에는 알 도리가 없다. 그 이름이 지닌 뜻, 태양열로부터의 그들은, 사무엘이 새벽에 옥상에 있는 사울을 떠나 보내기 위해 그를 깨울 때의 새벽으로 표현된 업무 개시가 이어지는 상태를 표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상태는 빛에 속한 상태라기 보다 사랑에 속한 상태, 또는 선이 진리에 더해져 가는 상태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사울에게 주어진 징조 자체는 사무엘이 선견자임을 사울에게 또

다른 증거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표현된 영적 진보 단계에 관련되는 영적 진리의 표현이다. 사울은 두 사람과 만났는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그대가 찾아다니던 암나귀를 찾아냈으므로 나귀 걱정은 놓았지만 그대들이 걱정되어 ‘내 아들이 어찌 되었느냐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했다. 잃은 나귀를 찾는 사울의 모습은 잃었던 것을 찾기 위해 오신 주님을 표현함은 이미 살핀 바 있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찾으시는 가운데 그분은 왕국도 발견하셨다. 그러나 사울 자신이 잃었던 나귀를 발견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울이 추구한 것과 구세주가 추구한 것 사이의 유사성이 있는 듯 여겨지지 않고, 또한 구세주가 추구했던 것이 사울이 추구했던 것을 회복시켰다고도 우리에게 말해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거룩한 말씀 속에 있는 모형(type)과 그 반대의 모형(anti-type)사이에는 외형상의 상응 뿐만 아니라 심오함도 존재한다. 거기에는 내적이어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외적이어서 눈으로 발견되는 것이 존재한다. 신실한 자들은 그들이 아들을 수단으로 충분하게, 마지막으로 구속되기 전, 내적으로 회복되어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주님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질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분의 인성을 영화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내적 인간은 그분의 외적 인간에 앞서 영화 되었다. 이것은 서로 구분되는 불연속적인 행동들이다. 이에 대해 참고가 되는 구절로서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주님의 인성이 내적으로 영화하심과 동시에 인류와 천적 천국의 내적인 구속이 있었다. 그리고 중간 상태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즉각적으로 주님의 내적 인간, 또는 아버지와 내적으로 결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님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기 전, 아버지의 소유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 10:28-30). 이 때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됨은 오직 내적 측면에서였을 뿐이다. 마치 사울과 그의 아버지 키스의 관계처럼 그들은 내적으로 하나였으나 외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다. 아버지와 아들, 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시험, 즉 십자가의 고통 같은 것을 수단으로 결과되어졌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슬피하셨다. 예수는

슬픔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슬퍼한다고 성경에서 읽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슬퍼한다고만 읽는다. 오직 페트리페시안(patripassian)들만이 신성이 고통 한다고 상상했다. 이런 모습들은 인성에 대한 신성의 동정심, 고통 속에 있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동정만을 표징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인간의 거듭남에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나귀는 아주 수준 낮은 진리들, 즉 기억에 속하는 진리들을 의미하는 반면, 사울은 나귀보다 높은 진리, 즉 이해성에 속하는 진리들을 의미한다. 키스의 들판에서 길을 잃어 배회하는 나귀란 사울 아버지로 표본이 되는 것, 즉 가장 낮은 진리들이 소속되어야 할 선과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나귀를 찾았다는 것은 그것들이 소속되어 섬길 수 있는 선과 재연합 또는 그 선이 회복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사울에게 주어진 세 번째 징조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과 마주친다는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자루를 메고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 인사로 나눈 뒤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은 진리로부터 진리의 선까지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 삶이 거듭 나아가는 진보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하느님의 계가 있는 곳에서, 아마 성막에서 예배드리려고 갔을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그리고 염소 새끼, 빵, 포도주는 그들의 예물이었는 바, 염소 새끼는 순진이 든 믿음, 빵은 영적 선, 포도주는 영적 진리를 의미한다. 사울은 그들로부터 빵 두 덩어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성막에서 사제로부터 제사 떡을 건네 받는 모습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 모습의 본성이나 표징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두 빵들은 성전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물이었는 바, 어느 정도까지는 거룩한 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것을 선물로 받는 것, 물론 사울이 받는 빵은 아직 성별된 빵은 아니었다 해도, 이 빵이 사울에게 건넵었다는 것은 성직자 측면의 속성 중 어떤 것을 그는 소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직자적인 기능의 어떤 것을 그는 발휘해야 할 것이라는 것, 성직자를 위해 설비된 거룩한 빵을 수단으로 그의 영혼은 버티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는 징조였던 것이다. 거듭 나아가는 사람의 측면에서, 이 빵은 영적 선 즉, 이타애의 선과 사랑의 선인데 이것이 심정 속에 있는 사랑을 생명 있게 해준다.

세 번째 징조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하느님의 언덕에서 사울은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언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영적 의미에서 마음의 어떤 상태를 함축하는데, 하느님의 언덕이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 통치하는 원리를 의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는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 원리가 다 제거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이유가 거짓 원리가 블레셋 수비대에 의해 의미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 정복해야 할 악 중의 하나를 볼 수 있게 데려와진 셈이다. 이와 같이 해서 기독교인들은 훈육되고 상기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속 사람에게 있는 진리의 사랑이 바깥 사람에게 있는 거짓의 사랑에 의해 묵시적으로 이든 공개적이든 반대되는 방식,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느님을 신뢰함이 믿음만의 근본 바탕인 자아를 신뢰함과 대립함으로써 훈육된다. 사울이 자기들 영토를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한 기념물인 수비대를 본 후 만난 예언자들의 무리는 블레셋 수비대와는 정 반대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종교 속의 순수한 진리들, 즉 이타애의 믿음을 가르치고 삶을 선한 쪽으로 인도하는 진리들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앞의 세 사람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고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예배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산당에서 내려오는 중이었던 바, 그들의 찬양은 관, 현악기로 소리를 냈다. 이런 악기들은 선함과 진리에 대한 애정, 또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도록 고안되어져 있다. 올라감과 내려옴은 상태의 반복을 표현하고, 그 반복의 결과로 있게 되는 진보를 말한다. 이런 진보는 거듭남을 꾸준히 추구해 가는데서 있어지는데, 이런 상승과 하강을 야곱은 이 지역에서 자던 중 그의 꿈 속에서 보게 되었기도 하다. 이리하여 그는 이 지역을 베델, 즉 하느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가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비한 사다리가 지상에서 하늘까지 놓여져 있고 그 사다리에서 하느님의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 바, 인간이 하느님과, 하느님이 인간과 연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애정과 생각들은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위쪽인 하느님께로 향하게 되고, 다시 아래쪽인 생활 속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성별 되고 용기를 준다. 예언자들의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의 독특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주님의 기운이 사울을 내리 덮쳐 그도 예언자들 사이에서 예언하게 되었다. 본문에서의 예언하는 선물이 미래 사건을 예견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단지 예언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선견자나 계시자로 만들었던 것이고 자신들을 황홀해지는 상황으로 집어 놓고서는 정상적인 생활 영역을 넘는 말을 하거나 몸짓으로 나타냈던 것이다. 예언하는

선물이 무엇이었던지간에 사울은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 때 주님의 영이 사울 위에 내려 그도 그들과 더불어 예언했다. 예언하는 선물, 또는 영은 다른 사항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느님이 또 다른 심정에 주시는 영이 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다. 의지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이해성은 새롭고 더 높은 진리들을 보도록 계발되어 진다. 이것들은 지적인 진리 뿐만 아니라 심정 속의 진리들이다. 그 이유는 그 심정의 소유자들은 선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을 일으켜 세워 알고 믿는 통상적인 상황을 넘어서 진리를 보고 사랑하는데 까지 이르고, 모세의 간절한 소원, “차라리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을 이 백성에게 주시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실감하기까지 한다 (민수기 11:29). 상태의 변화가 이런 위대함이고, 어떤 경우에는 인격의 개선으로 아주 명확해지는 바, 이런 상태를 진리의 영은 생산해 준다. 그래서 사울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신들린 것을 보고는 수군거리기를 “키스의 아들이, 저게 어찌된 일이나. 사울도 예언자들 중의 하나던가” 라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예언자 키스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네 집 아들이냐?, But who is their father?” 로 적절하게 대답해 줬다.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자녀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요한복음 1:13). 하느님이 그의 아버지이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던가?” 라고 속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마치 나타나엘의 예수님에 관한 질문, “나자렛에서 무슨 신기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묻는 것과 같다. 예언자는 예언자의 계보에서만 와지고, 위대한 자는 남들과 다른 족보, 중요한 장소에서만 태어난다고 우리는 자칫 생각해 버리기 쉽다. 그럼에도 성경 이야기나 교리가 꾸준히 가르치는 바는, 신성한 섭리는 낮은 것, 인간이 보기에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수단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신다.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는 예언자들이 내려온 산당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쓸모 있는 수단으로 위대해지게 인도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높은 상태의 상징인 산당으로 올라감으로 해서 그의 뜻깊은 진보는 막을 내린다.

사울이 집에 오는 광경은, 그가 아버지에게 갔다는 말로 읽지 않고 그의 삼촌으로부터 듣고 있다. 삼촌(uncle)은 아버지로 표현되는 같은 종류의 선을 표현하나, 아들로 표현되는 진리와 연결이 되므로 이는 관계성이 아닌 유사성과 연결된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으로

진입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지식을 통치하는 힘은 없다.

사울을 기름 부은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 놓았다. 본문의 미스바는 과거 라반과 야곱이 돌무더기를 세워 서로의 증거로 삼았던 장소는 아니다. 이 장소가 미스바로 명명된 것은 라반이 “우리가 헤어져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시하실 것이다”(창세기 31:49) 라고 말한데서 비롯된다. 이 미스바는 요르단 건너쪽 길르앗에 있고, 본문의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 구역 안에 있다. 그럼에도 이 두 장소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 같은 일반적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다. 미스바란 라반으로 표현되는 이방인들 속에 있는 선 안에 야곱으로 표현된 주님의 신성한 자연성이 현존함을 영적으로 의미한다. 본문의 경우 라반과 야곱 대신,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해 있다. 예언자이자 판관인 사무엘은 말씀 측면에서의 주님을, 왕으로서의 사울은 말씀 측면의 주님에게서 오는 진리를 각기 표현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놓는다면, 사무엘은 신성한 진리(Divine Truth)를, 사울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이다. 본문의 미스바는 주님의 인성 속의 신성한 자연적 원리에 영적인 것의 현존, 즉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에 신성한 진리가 현존함을 의미한다.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그들의 왕이 이미 기름 부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따라야만 하는 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지파들을 집합시켰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하느님이 임명한 통치자에 관한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그는 온 지파를 내세우고 제비를 뽑음으로서 뽑히는 사람이 왕으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신뢰가 가도록 했다. 제비뽑는 관습은 이스라엘 족들이 신성에 직접 호소하여 그 결정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말했다. “이제 지파별, 씨족 별로 여호와 앞에 나와 서시오.”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된 교회란 지파별, 씨족별로 표현된 선함과 진리라는 두 개의 큰 원리로 나뉘어 배열되어 진다. 이 큰 원리가 계속 갈라져서 주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비가 떨어질 때까지 이어진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내 세우고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갈래별로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마드리 갈래가 뽑혔다. 다시 마드리 갈래를 한 사람씩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이 모습은 일반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어서 세부 사항 중 하나 하나로 갈라져 가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베냐민 지파가 표현한 일반적 원리는 이미 살핀바와 같이 최말단 형태, 또는 행동에 있는 진리의 상태이다. 기둥 되는 나무에서 출발하여 배열되는 세부적인 진리들, 부모라는 가지에서 선이 뻗쳐 나오는 모습이 마드리

갈래로 의미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지로 부터 있는 한 개 한 개의 진리, 즉 최말단의 진리가 사울로 의미된다. 이것이 지상에서 드러나지게 되는 천국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이다. 그러나 이 진리는 수많은 변화를 통과하게 되고, 이 변화는 진리가 완전해지기 전, 수많은 고통을 통과하여 결과된 변화를 거쳐, 결국 정의로 건설되는 왕국 속의 완전한 통치자가 된다.

그런데 새롭게 뽑히는 왕과 연결되는 또 다른 신비한 주위 환경이 있다. 제비가 키스의 아들 사울에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그렇다, 저기 짐작들 틈에 숨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가 그를 데리고 나왔다.” 사울이 자신을 숨겼다는 것은 그가 매우 양전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그 주변 환경에는 더 깊은 의미, 더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사울이 표현한 진리는 백성들로 표현된 교회가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진리는 과학물이라는 것들 속에 그 자체를 숨기고 있다. 짐작(stuff)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더 직바로 번역한다면 그릇들(vessels)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릇은 과학에 속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고, 이는 진리를 담은 그릇(receptacle)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 도 이 진리는 그 진리를 찾아 헤매던 이들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진리는 과학에 속한 사항 속에, 종교적인 과학물 아래에 숨겨 놓여 있으면서 오로지 하느님께 물어 오는 사람에게만, 신성한 안내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었다. 이와 똑같은 처지가 표본이 된 백성의 역사에서 또 다른 사실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여 제물이 된 아들을 칼로 찌르고자 손을 들어올린 순간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그를 저지시켰을 때, 그가 뒤를 돌아보니 수양 한 마리가 그의 뿔이 덩불에 걸려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던 성경 줄거리가 있다. 덩불에 걸린 수양과 그릇들 틈에 숨은 사울은 똑같은 일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양은 진리의 상징물이다. 그리고 뿔로 말미암아 잡혀 있게 한 덩불(thicket)이 과학물(scientifics)이다. 주님에 의해 해방될 때까지 진리는 덩불에 서로 얽혀 있거나 속박되어 있다. 역사의 내적 의미 안에 구속의 역사와 연결된 사건들이 취급되는데, 이 차원에서 수양은 주님이 인성을 영화 하시어 해방시켜 줄 때까지 중간 상태에서 감금된 채 있던 영적 사항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악의 잠재적인 제물로도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의미가 각 개인과 관련될 경우, 그 사건의 영적 의미는 원리들에 관계된다. 사실 영적 마음에 있는 원리는 그 자체가 과학물에 포로가

되어 얽혀져 있다. 그러나 그 원리들은 주님이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희망 있는 죄수 같은 것이다.

사울이 숨은 곳에서 끌려 나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 중 가장 키가 컸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뽑으신 이를 보아라. 이 나라에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 하고 선포하자 온 백성이 ‘우리 임금 만세’ 하고 외쳤다.” “임금 만세, live the king” 라는 표현은 환호하는 표현 중 더 의미 있는 표현에 속한다. 이는 왕이라는 진리가 생명을 가지기 위해 그 안에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소원을 표현하는 형체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생명인 바, 진리가 사랑을 담아야만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요, 믿는 자들이 자기 믿음을 사랑의 수단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야 그 믿음은 확고 부동한 믿음이 된다.

사울에 관한 두 개의 선거, 하나는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제비 뽑는 방식이지만 이 둘 모두 주님에 의거한 방식으로 하나는 내적 인간, 또 하나는 외적 인간에 속한 선거이다. 이 선거 방식은 왕과 왕국에 관한 마지막 정착지는 아니었다. 또 다른 사항은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다.

환호하는 갈채로 사울이 왕으로 승낙되어졌을 때, 사무엘은 백성에게 군주제도를 말해 주고 책에 기록하여 주님 앞에 보관해 두었다.

모든 미래가 현재에 존재하는 신성한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바랄 것이며, 그들이 선택할 왕도에 관하여는 모세의 법에서 주어지리라는 것을 보셨다. 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으면, 이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골라 주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같은 동족을 임금으로 세워야지,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세우면 안된다” (신명기 17:14,15). 교회의 상태가 사랑이 지배하지 않고 진리의 지배를 받는 상태일 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통치하게 되는 진리가 순수해야 하지, 걸치레식의 진리이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 진리는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있어야만 되고 그 외의 것에 근원을 두어서는 안됨을 위 구절은 말해 주고 있다. 한가지 더 필요한 것은, 이 진리는 선함과 관련되어 있어서 교회 속의 믿음이 이타애로부터 파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사항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왕을 세우도록 하는 명령 속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형제란 이타애의 은총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이타애만이 형제 관계로 묶어 주는 결합력이 있기 때문이다.

위 구절의 뒤를 이어 더 명령되는 것은,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기르는 일만은 하지 못한다. 백성을 에집트로 다시 보내어 군마를 많이 얻어 오게 해도 안된다... 왕은 또 많은 후궁을 거느리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것이다.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도 안된다” (신명기 17:17). 이 절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진리는 에집트의 말(horse)로 의미되는 자연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에 의해 부패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진리 자체는 영적 마음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진리와 연결되는 과학, 애정, 지식들은 자연적 마음에 속해 있는데, 이 마음 자체가 에집트이다. 그래서 왕은 군마를 불릴 목적으로 백성을 에집트로 되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고 있으시다. 그 이유가 위와 같은 짓은 기껏 해방되었던 마음의 상태에서 되돌아가,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에 종속되는 것, 다시 말해 진리를 과학 밑에 두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서간문에서 사도들에 의해 잘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느님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신데 왜 또 다시 그 무력하고 천한 자연승배로 되돌아가서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갈라디아 4:9)

군주 제도를 백성에게 말해 준 것 외에, 사무엘은 그것을 책으로 써서 주님이 현존하시는 곳, 성막의 주님 앞에 보관해 두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막, 또는 성전은 거듭나는 마음들이다. 군주 제도란 주님 왕국의 원리들이요, 이 원리들은 거듭나는 마음 안에 씌어져 보관되고 있다. 심정에 새겨질 때 신성한 현존 안에 놓인다. 비록 군주 제도를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이 미래 행동을 의심하지 않게 했다해도, 이 행동과 기록된 사건들과는 영적 연결이 있다. 왜냐하면 왕국의 법칙이 내적 인간 안에 새겨질 때, 왕국을 형성한 모든 진리들은 나아가 각자의 선 안으로 들어간다. 마치 사무엘이 온 백성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 사울도 역시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일 게다. 두 장소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유다 지역에 있고 본문의 경우는 베냐민 지역에 있다. 유다에 있는 것은 오랫동안 퀘가 머물러 있던 장소로 유명한데, 이 장소로부터 퀘는 다윗의 시대 때 예루살렘인 위쪽으로의 진보를 시작했다. 퀘의 진보는 최말단에서 가장 깊은데로의 진보, 마치 이 천국에서 저 천국으로, 가장 높은 천국까지 전진하는 교회의 진보를 표현했다. 퀘의 진보가 개시된 곳인 기브아는 교회의 최말단, 즉 교회의 자연적 원리를 의미한다. 두 기브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유다의 기브아는 올라가는 상태가 시작되는 가장 낮은 것, 베냐민의 기브아는 내려가는 상태가 끝나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의미들도 최말단 수준을 표현하는 사울과 관련되어 한 목소리를 내듯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브아를 글자대로 뜻을 보면 작은 산(hill), 즉 언덕이다. 본 장 10절의 경우에서 이 뜻에 대한 예를 찾아 볼 수도 있다. 언덕은 선을 의미하는 바, 최말단의 선은 사울이 표현한 최말단 진리의 집이다. 사울이 기브아로 돌아갈 때, 그를 따르도록 마음을 내키게 한 군인들도 함께 따라 나섰다. 이 군인들이란 거짓에 대항할 각오가 선 진리들, 진리를 열심히 바라는 이들, 영적 삶을 강건하게 해 보겠다는 것, 이런 강건은 신념 측면 뿐아니라 진리를 사랑함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지적 측면 뿐아니라 심정 측면에서도 주님이 사랑의 불로 건드려 주신 심정으로 강건해 지게 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추상적 의미에서 볼 때 이런 군인이란 진리 자체를 말하고, 이런 것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진리에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요, 신실할 마음에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진리가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행동하게 되면, 그로 인한 결과의 하나는 그것에 속하는 악들이 흥분된다는 것이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이 있는 반면, 그를 멸시한 자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면서 앞잡아 보고 선물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을 표현한 역사물은 세상에 계셨을 때의 주님과 꼭 같다. 하느님께서 마음을 건드려 주신 자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랐고, 그 반면 유대인, 특히 성직자의 경우, 이 사람(예수)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불평했던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멸시해서 어떤 선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 마지막 절과 같이 잠잠해 하셨다(held peace). 아마 이를 더 직바로 표현해 본다면, 그분은 귀머거리 같았다 라고 말해진다. 이사야 42장 19,20절을 보면, “내 종과 같은 소경이 또 있으랴? 내가 보낸 심부름꾼과 같은 귀머거리가 또 있으랴? 나의 사명을 띠고 가는 자와 같은 소경이 또 있으랴?...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다.” 주님의 귀는 그분의 자녀들이 외치는 것에는 열려져 있으나, 방자한 자를 향해서는 닫혀져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읊고 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시편 130:3,4). 왕은 백성들의 심정 안에 진리와 정의를 새김으로 통치하여야 할 것임이 왕으로서의 주님을 맨 처음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선거에 요약되어 있다..

## 4

### 사무엘상 제11장 사울이 암몬을 쳐 이기다

주변에 널려 있는 강력한 적들로부터 백성을 건지고자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새로운 왕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터졌다. 나하스가 아베스 길르앗을 공격, 포위하였던 바, 아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살리고자 굴욕적인 조약인 자기들의 오른쪽 눈을 빼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조건은 그 주민들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포위된 성읍의 주민들을 구해 줄 수 없다는 수모까지 겹친 표시에 해당되었다. 이런 마당에 칠 일간 여유를 주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구원을 요청하는 특사를 보내도록 나하스가 허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 상태는 매우 미미하고 비조직적인 것이 주변 국가들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된다.

이런 소식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전달되었는데, 길르앗 주민들은 자포자기로 인해 목놓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 본문의 이야기에 담긴 섬세한 부분들과 일치를 이루게 하고 있다. 그는 본래의 직업으로 되돌아가서 소 때를 치던 중 귀가하면서 위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비통한 자기 백성들에 관한 소식을 듣는 중에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 왔고, 백성들로 전율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그는 대 군대를 소집해서 포위 공격당하는 성읍을 건져내고 있다.

이런 역사의 주변 상황들은 말씀이 씌어진 목적의 하나인 기독교인의 생활과 체험의 여러 상태 중의 하나를 표현적 방법으로 묘사하여 우리 앞에 놓임으로서 흥미를 갖게 해 주고 있다.

인간 생활의 면모 중 하나가 전투 행위이다. 육은 영에 반대되는 것을 열망하고, 영은 육에 반대되는 것을 갈망한다. 두 반대되는 것들은 자주 다투기 마련이고, 우리 본성 속에 든 악이 우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그것을 잘 감시하여 언제나 그것이 종속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일 게다. 이런 악들은 아주 다양하고 무수하며 강력하기도 하다. 이런 악들이 이스라엘에 적의를 품는 주변 국가나 백성들로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다. 악들의 각 하나 하나는 어느 정도 서로 떨어진 상태에 속한 악들이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에 대한 이타애에서 솟아나는 선에 직,간접으로 반대된다. 이런 악들 중 하나가 암몬족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 이제 우리는 그 악의 본성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모압과 암몬은 롯이 자기 딸들과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두 아들이었다. 그들과 그 후손들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양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좋은 의미일 경우, 모압과 암몬은 자연적인 선함과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나쁜 의미일 경우, 그들은 선함과 진리를 뒤집고 모독하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다. 과거 이스라엘 족들이 출 애굽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롯의 후손이 거주하는 지역에 당도했을 때, 모압과 암몬 후손들과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되고 그 지역을 점령해서 피해를 입히지 말라 고 명령되어 있었다. 그 이유가 그 지역을 그 후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명령한 이유는 그들이 거인족들을 무찌르고 난 뒤 거주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선함과 진리, 그것이 자연적 수준의 것이라 해도, 그것들에게서 악과 거짓이 제거되고 각기 제 위치에 있을 경우, 주님은 그것들을 혼란케 하시거나 상속을 박탈하시지 않으신다. 그 반면 자연적 선함과 진리는 자칫하면 영적 선함과 진리에 반대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쉬운 게 흠이다. 이런 모압과 암몬이 표현한 의미들에 관한 예를 오늘날의 경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비록 자연적 수준이지만 선함과 진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악과 거짓에 속한 것을 몹시 싫어하여 금하고 있는 이들임에도 영적인 모든 것에는 반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 즉 적대감이 있는 반대 세력이 없을 경우에는 평화 속에 묻혀 있을 수 있다. 그들의 선함과 진리, 마치 롯의 후손이 자기 딸을 통해 이어졌듯이, 그것들은 허위의 애정들의 증거나 영향으로 중독된 지적 행동을 야기 시키기까지 한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때, 특별히 그들이 영적인 것을 뒤집고 모독할 때, 그들은 적으로 간주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와 예언자를 통해 발표될 경우, 결국 그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선함을 모독한 이들이 영적인 모압이요, 진리를 모독한 이들은 영적인 암몬이다. 이를 우리 마음이라는 논제에 적용해 볼 때, 암몬은 모독된 진리 자체, 그 모독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짓 추구나 죄악된 실지 행동을 표현해 주게 된다. 그런데, 진리를 모독함, 그 모독으로 인한 거짓 추구나 죄악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진리를 모독한다는 것은 진리의 의미를 뒤집고, 진리의 가르침을 왜곡시켜 악을 좋아하는 쪽으로 유도해 버리는 것이다. 진리는 선함의 선생이요 목사이다. 선함과 관련이 없는 진리는 엉터리 선생, 속이 없는 이름뿐인 진리이다. 이 진리는 어떤 품질도 나타내지 않고 쓸모 있는 목적에 방향을

두고 있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어떤 대상, 주제에 관련되는 것 없이는 거의 생각될 수 없는 바, 진리만의 발견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일 진리가 선함에 관련이 없다고 하면, 대체로 그것은 악에 관련을 가진 것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 때의 진리는 뒤집혀진 상태로 발견된다. 그렇게 뒤집혀진 상태에서도 그 진리는 아주 높게 경외 받고 있을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오로지 악할 뿐인 사람 자신 속에 있는 진리, 그래서 진실로 선한 어떤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런 진리가 뒤집힌 채 계속 유지될 때, 선한 일이라 불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것도 정작 그의 구원에는 아무 기여도 해주지 못한다. 이리하여 등장하는 것이, 인간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이다. 이런 진리가 한 걸음 더 진전된 모독을 하게 되면, 즉 전적으로 부패될 때, 인간은 악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그러므로 악은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 이들을 단죄 못한다는 원리를 붙잡고 늘어진다. 사실 인간 스스로 선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한 말이다. 그러나 그 말과 대등한 것은, 인간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힘을 주시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뒤집혀진 진리가 옷 입고 있는 교리 형체, 자기들 위에 놓인 진리가 억제하려는 데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바람과 노력 속에서 심정 속의 악들에서 부상한 교리적 형체들 외에도, 일상 생활을 작동시키는 마음 속도 거의 동시적으로 위의 형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인간 본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공존함을 알고 있으리라 본다. 한 부류는 자기가 안 원칙에 자신의 실체가 접목되게 하려고 분투 노력하는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는 자기가 안 원칙을 자신의 실체에 갖다 맞추려고 끊임없이 골몰하는 부류이다. 전자에 속하는 이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믿어지는 것을 양심적으로 채용해서 자기 삶에서 그 진리를 실현해 보려고 분투하는 이들인 반면, 후자에 속하는 부류는 그것이 올바른 원리라고 알고 고백은 하면서도 관습이나 필요성 등 현실을 구실로 삼아 원리가 실체에 맞춰지게 하는 바,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부류이다.

암몬의 특성을 각 개인의 마음에 응용해 보려고 할 경우, 또는 하느님의 진정한 교인일 경우, 그들에게 암몬이 표현하는 악이 실제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리라 본다. 즉 거듭나는 삶 안에 실지 진입한 이들이 진리의 모독자로 행동한다고 가정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럴 때도 있는 바, 더욱이 진리를 모독하는 큰 죄를 범하도록 유혹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것에 의해 실지로 범하여졌던

악들은 모든 것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생활 안에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예방되는 것은 신중한 생각이나 진리의 교정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거듭나는 삶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 본성 속의 악들은 없는데서 끌어내는 행동과 연결되어 우리 속에서 꿈틀대는 악령의 영향으로 흥분되어 진다. 즉 기독교인들은 타인들이 대수롭지 않는 듯 넘어가 버리는 것들로부터 오는 시험에 고통 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기독교인의 생활에서의 완전은 악이 저질러져서도 안될 뿐 아니라, 악에 기울려 하는 경향성을 극복해야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악이 성경에서 뾰족하게 돌출 되어 주제로서 많이 거론되는 이유, 선을 행하기 보다 악을 금해야 할 필요성을 성경이 더욱 많이 돌출 시켜 놓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의 논지에서이다. 어찌됐든 선이 행하여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악이 범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심정 속에 악이 근절 안된 상태에서도 선은 실시될 수 있지만, 악의 근절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결과가 확실해 진다. 악이 제거되기 전에 행해진 선은 오로지 바깥 측면에서의 선일 뿐이고, 악의 제거를 수반한 선은 안쪽 측면에서의 선인 바, 구원에 필요한 요소이다.

위와 같은 특별한 의미로 본 장에서 서술된 역사를 재음미 해 보자. 진리를 모독하는 시험이 암몬의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쟁취하려 드는 것으로 표현되면서 장소, 백성, 주변 정세 등 모든 것이 본문의 주제 속에 빛을 던지고 나하스를 습격하는 결과 등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담아 주고 있다. 그 이유가 시험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요, 시험하는 쪽이 나하스이기 때문이다.

길르앗은 요르단 강 건너 쪽이다. 그곳은 므나세 반쪽 지파에게 상속으로 주어진 땅이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땅 입구에 다다랐을 때, 2½ 지파에게 강을 건너기 전의 땅을 그들의 상속분으로 허락한 곳인데, 그 이유는 소 떼를 키우기에 적절한 목초지가 풍부했던 까닭에서였다. 그런데 므나세에 관하여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 그 지파 반쪽은 가나안에 자기들 몫을 할당받았고 나머지는 길르앗에 체류했기 때문이다. 가나안에 자리잡은 반쪽 지파는 인간 안쪽에 있는 교회의 원리를 표현하고, 가나안 밖인 길르앗에 체류한 반쪽은 인간 바깥쪽에 있는 교회의 원리들을 표현한다. 그래서 므나세는 인간의 안과 밖을 결합하는 매개체를 표현한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은 영적인 선함과 진리 또는 이타애와 믿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가나안 밖의 므나세 반쪽 지파는 자연적 마음에 있는 이타애나 선함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므나세 반쪽 지파에 속하게 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자연적 마음, 또는 외적 인간에 있는 이타애, 또는 상호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이들이 성안에 있었다는

것은 교리를 의미하는 바, 아베스 길르앗은 상호적인 사랑 또는 이타애에 관한 교리를 표현하게 된다. 교리는 교리가 함유하는 원리들에 대한 방어 벽이다. 마치 성벽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 아베스가 의미하는 것, 그런 이름으로 불리운 것은 그 지역 위에 있는 태양의 열 때문인데, 그 까닭은 그 지역이 산 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이전 이 성이나 주민들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꼭 한번 있었다. 그래서 이 언급은 영적으로 생각되는 위협의 본성과 원인을 살피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사항이 오늘 본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항들이 판관기에서 단 한번 취급되어(판관기 21장) 연결을 이루고 있는 바 아래와 같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던 레위인이 밤을 맞아 베냐민 성읍 중의 하나에서 목계 되었는데 그 성읍의 무뢰한 자들이 그의 첩을 잔인하게 욕보여서 죽게 만들었다. 레위인은 그녀의 시체를 열 두 조각 내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끔찍한 범죄자를 처단하고자 하나로 뭉쳐 일어났다. 그리하여 동족간의 비참한 살육이 감행되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이 죽게 되었는데 그들끼리 서약하기를, 다시는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내 이 백성들은 뉘우쳐 통곡했는데, 그 이유는 딸을 주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 하나가 자기들 지파에서 사라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아 도망친 베냐민 젊은이들이 있어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이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들끼리 한 맹세는 그들에게 여자를 보내는 것을 허용치 않았었던 바, 그 지파의 사멸은 피할 수 없는 듯 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 딸을 베냐민 가문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빠진 지파가 하나 있었음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아베스 길르앗 주민이었다. 만 이천 명의 군인이 아베스로 떠나 그 주민을 칼로 쳐죽이고 사 백 명의 처녀를 찾아내어 살아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의 아내가 되게 했던 것이다.

레위인의 아내에 대한 사악한 베냐민 사람의 끔찍한 위법 행위는 모독이라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 중대한 불법을 처단하는데 협력하지 않은 아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이 범죄를 묵인한 결과가 되므로 그들도 이 범죄에 가담한 자로 처단되었다. 그리하여 사 백 명의 처녀만 제외하고 모두 죽고 말았다는 것은 실로 중대한 악의 거짓에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 되지 않은 애정들만이 보존될 수 있고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베냐민 지파, 그것에 동의했던 아베스 사람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죽은 뒤, 그 지파의 잔류민과 또 다른 지파의 잔류민인 여자들이

보존되어 새롭게 지파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영적 측면에서 똑같다. 종교의 행로와 원리에서의 이탈은 아주 심각해지게 되면 진리에 대한 모든 지각과 선함에 대한 모든 애정이 거의 소멸 상태에까지 치닫고 만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에 의해 그들 중 나머지가 보존될 수 있는데, 그것은 회개와 수정이 거행될 때인 바, 이 때 선하고 진정한 것들의 나머지가 서로 모여 삶의 새로운 개시를 하도록 하나가 된다.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을 살벌하게 위협하는 조항에 있는 모독과 판관기에서의 야베스인들의 범죄는 똑같은 성질이어서 비슷한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또는 그것이 실제로는 똑같지 않더라도 최소한 표현적 특성 면에서 본문의 공격을 받는 근거를 이루고 있을 것이라 본다. 사실 판관기 시대의 야베스 사람과 본문 시대의 야베스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현하는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다. 본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나하스가 공격 포위하자, 그들은 나하스에 굴복하여 암문을 섬기겠다고 제의했다. 그들은 자기들을 강요하는 어려운 조건만에 의해 제지될 뿐인데, 이런 조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에서 살펴보자.

육체의 눈은 마음 속의 이해성과 상응한다. 오른쪽 눈은 선을 이해하는 것, 왼쪽 눈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상응한다. 눈에 관한 어떤 의미, 특별히 오른쪽 눈에 관한 의미도 신성한 언어의 방식으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데, 이를 신약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네 눈이 병들었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마태 6:22,23). 마음은 영적인 몸이다, 그리고 물질로 말해지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도 진정한 것이다. 눈이 병들면, 병든 눈, 또는 눈 속에 든 병(evil)은 제거되어야 육체 자체가 보존 될 것이다. “눈(right eye)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붙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마태 18:9).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 보고자 오른쪽 눈을 뽑는 것과 하느님의 적과 같은 인간의 의지에 복종하겠다고 오른쪽 눈이 뽑히는 것은 정반대이다. 전자는 선함을 지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을 이해성에서 제거하는 것이고, 후자는 선함이 지각되어지는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파괴는 진리를 모독한 결과이다. 이것은 선함을 지각하는 힘을 강탈하는 것이고, 이것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오른쪽 눈알을 뽑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족에 치욕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선함에 대한 이해성이 파괴될 때, 온 마음이 어두울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에 관한 사항에 있는

실수는 이해성을 흐리게는 하나, 심정을 부패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실수들이 눈에 있는 티끌이다. 이 티끌은 눈이 물체를 명확하게 보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시야를 완전히 가려 버리는 눈 속의 대들보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오른쪽 눈을 뽑힐 경우, 이는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 우리 심정 속의 악, 우리 영혼 속의 적들과 싸워 가시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없게 하고 만다.

이런 악이 주님의 백성의 대장으로서 사울이 행동을 개시하게 되는 첫 목표물로 등장되고 있다. 그가 아베스 주민이 처한 곤경, 굴욕을 강요당해 온 소식을 접했을 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와서 그의 분기가 치솟았다. 진리의 영으로 생동하는 진리가 그에게 열정을 불어넣은 것이다. 이것은 진한 감정으로서의 분노 같은 것이다. 고결한 분노가 열정(zeal)이다. 이는 잘못된 것에 대한 이타적인 의분(indignation)이요, 불법 행위에 대항해서 순진을 옹호하겠다는 열렬한 바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열정은 통상적인 분노와 다르다. 열정은 그 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으나, 분노는 그 안에 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바깥쪽 형태에서는 아주 비슷하나, 안쪽 상태에서는 아주 다르다. 분노와 열정 사이에 있는 외관의 유사성으로 인해 분노가 성경의 글자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인 듯 여겨지게 만든다. 그 이유가 성경의 글자적 의미는 외관에 나타나는 대로 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영적 의미에 있는 것, 즉 진정한 진리는 주님이 성내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언제나 열정만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이다. 진리의 영 그리고 그 열정이 구원이라는 결과를 갖기 위해서 마음 속의 생각과 애정들이 행동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마음 속에서 번성하여 퍼져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울은 곤경에 빠진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이 즉각 일어서도록 진행을 맡았던 것이다. 그는 황소 한 쌍을 끌어다가 각을 떠, 온 이스라엘에 보내어 아베스 주민을 구출하는데 협력치 않는 자는 이 황소 조각 같은 취급을 받으리라고 위협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훈육시켜 주는 것은, 모든 이, 특별히 겨러 아래 있는 이들은 부름에 기꺼이 순응해서 신성한 진리의 깃발 아래 악하고 거짓된 것들과 대적해야 한다는 것, 진리가 명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진리는 그들을 산산조각 내는 칼이 된다는 것, 자연적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지각과 애정들은 찢기어 훔날리고 말리라는 것 등이다. 본문의 경우 이 부름에 널리 응답되고 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그들 위에 내려앉았고, 그들은 한 사람같이 뿔뿔 뭉쳐졌다. 이 두려움은 사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요, 사울이 으름장 놓는 표시에 두려워 한 것도 아니라, 신성한 사랑의 표현인 신성한 이름, 여호와를 두려워 한 것이다. 그들은 사랑으로부터 순종했

다. 왜냐하면 사랑으로부터의 순종이 거룩한 두려움(경외함)이기 때문이다.

베룩에 집합한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삼십 만, 유다 사람이 삼 만이었다. 베룩은 유다 성읍 중의 하나였는데, 이 성은 과거 가나안 왕 아도니 베룩으로부터 빼앗은 성이었다. 그 당시 이 왕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면서 포로가 됐는데, 그 때 그가 인정한 것은, “내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한 왕이 칠십 명이나 되더니, 하느님께서 내가 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는 구나” 이었던 것이다 (관관기 1:4). 이와 같이 잔인한 처벌, 수족을 절단하는 관습은 악이 악을 저지른 자 위에 가져오는 힘의 박탈에 대한 상징이다. 보복이라는 법칙, 성경 시대의 경우 부지 중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해도, 우리가 타인에게 행한 대로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서 똑같이 우세한 영원한 법칙의 결과인 것이다. 위와 같이 유다의 적에게 가해진 형벌과 본문에서 므나세히의 적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형벌은 그 본성과 의미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외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지파들이 한군데 모여 점호를 받고 있다. 온 지파를 일컬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할 때가 성경에서 많은데, 오늘 본문의 경우 성경에서 처음 등장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후 이 두 이름이 거론될 때는 대체로 두 개의 보편적인 교회의 원리, 즉 선함과 진리, 또는 사랑과 믿음을 표현해 준다. 이 두 원리가 주님의 왕국과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백성을 점호하는 것, 이것이 신성한 뜻과 지혜에 따라서 행해질 때, 교회의 원리를 올바른 질서에 따라 배열하여 종속되어 그 모든 원리는 주님 자신이 머리가 된 그 밑에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을 표현한다. 숫자 자체는 원리들, 즉 은총과 미덕들, 교회와 종교를 구성하는 원리 속의 품질이 서로 짜집기된 모습을 표현한다. 1000은 선함과 관계되고, 3은 진리와 관계가 있다. 진리의 법칙에 의거 그들 사이에 있는 질서의 일반 원리가 삼군으로 군대를 편성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는 의지와 이해성, 그리고 행동, 또는 사랑, 믿음, 그리고 일이라는 삼위일체에 관계된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의 원리들은 충만해지고 능력을 지닌다.

도움을 구하려 왔던 특사들은 햇볕이 한창 내리 쬐는 이튿날 아베스 사람들이 구원되리라는 소식을 듣고 떠났다. 그들의 심정을 기쁘게 한 이 소식,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이튿날 항복하러 가겠다고 적들에게 통보 가능하게 했다. 이 날은, 추측해 보건대, 칠 일의 여유 기간 중 마지막 날이었을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통보는 암문족들로 아베스 사람들이 자기들 동포에 도움을 호소했지만 결국 허사가 됐다는 억측을 하게 꿈 만들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내일은 새로운 전황이 초래되었다. 새벽녘에 사울은 군대를 삼군으로 나누어 적의 진지 한복판으로 곧장 쳐들어가서 햇볕이 내리 쬐 때까지 암몬군을 분쇄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다. 이른 아침 시간이란 새로운 상태의 새벽, 시험에서 건져지는 상태이다. 빛의 상태는 사랑의 상태로 진보한다. 아침으로부터 대낮에 이르면서 암몬족은 완전하게 흐트러져 하나도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 학살이 수반된 적의 파괴란 어떤 악과 거짓도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는 완전한 단절이다. 선과 진리가 단합되면 정의의 힘이 솟구치듯, 악과 거짓도 합세하면 사악이라는 권세를 드날리는 바, 이 연결이 분쇄되면 그들의 권세는 사라지고 만다.

전투가 끝나 지도자로서의 사울의 인품이 건립되었을 때 승리로 흥분된 백성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됨을 경시한 자들을 끌어내 죽여 버리자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고상한 상태의 진정한 사울은 말했다. “안될 말이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 주신 이 날에 사형이 웬 말이오?” 이 말은 보통이 아닌 말이다. 그럼에도 진정한 것은, 한가지 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때로 또 다른 시험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시험을 극복해 버렸다고 생각하는 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시험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공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 우리는 또 다른 것도 부정해 버린다. 사울의 말은 위의 이중적인 악을 바로 잡고 있다. 그는 이날 이스라엘이 구원된 것을 주님에게 돌리고, 가장 높은 이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명백히 보여진 이 날, 사람이 죽음에 놓여서는 안된다고 선포하고 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이 진정한 영적 승리의 상태를 특징 지워 준다. 그러므로 선의 무한한 근원에 모든 능력, 모든 공적을 돌림으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보다 낮은 생각들은 꾸짖어져 교정 받게 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자, 길갈로 가서 즉위식을 올립시다” 하고 말하자 백성들은 모두 길갈로 올라가 사울을 야훼 앞에서 왕으로 모셨다.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던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사무엘이 기름 붓고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해서 그는 임명되어 확증되었었다. 세 번씩 그가 왕임을 재 천명하는 것에는 사울이 표현하는 특성과 관련되어 뭔가 의미심장한 점이 분명히 있다. 처음과 두 번째의 경우, 사울은 백성들의 자발적 행동, 또는 어떤 직접적인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왕으로 선임되었었다. 백성들은 제비뽑는 방법이 하느님이 임명하시는 것으로 아무 의심 없이 인정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그들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잘 생각된 후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영적으로 주님의 백성도 이와 같다. 이

백성들은 진리를 볼 수 있고 그 진리가 주님으로부터임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와지고, 법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으로 진리를 증거 할 때까지, 특히 말씀 속의 진리로 악을 극복하여 구원을 획득할 때까지, 그리하여 자신 스스로 진리가 진리임을 확증하면서 자신의 심정과 삶을 통치하게 할 때까지 실지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위식이 새롭게 거행된 장소 역시 확실히 해주는 행동으로 그 속에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족의 역사에서 두 개의 매우 중요하고 의미 심장한 행동이 있었던 관계로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기억되는 곳이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요르단 강 한복판에서 열 두 돌을 가져다 기념비를 세운 곳이고, 거룩한 땅을 밟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온 남자가 할례를 받은 곳이다. 이 장소가 길갈로 불린 것도 할례와 관련되어 나온 지명이다. 즉 “아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에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 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는 진정으로 영적 새 삶의 시작, 영적 가나안의 삶으로 자연적 에집트의 삶과 분명히 구별되는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길갈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고 일하는 자연적 진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거듭남의 질서에서 첫 번째에 있던 것은 마지막 번째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번 살렸던 바와 같이, 영적 삶, 그 안에 있게 되는 세부적 상태들은 최말단(ultimate)에서 시작해서 끝을 맺기 때문이다. 사실 첫 번째에 있던 상태와 마지막에 있는 상태는 매우 다르다. 마지막 상태에서의 마음은 지식과 경험이 쌓여 첫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에게 획득된 것이 무엇인지 첫 상태 속에서 확증됨을 발견한다. 길갈에서 새롭게 즉위하는 것은 거듭나는 마음이 신성한 진리를 확증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를 수단으로 각자의 생각과 애정이 통치된다. 사울의 즉위식이 끝난 후 백성들은 주님께 제물과 친교제를 드렸다. 그리하여 왕과 백성 사이에는 상호 기쁨이 넘쳤는 바, 이는 거듭나는 마음 속의 왕국에 질서가 건립되고, 그 속의 모든 원리들, 즉 통치하고 통치 받는 원리들이 서로 관련을 갖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함께 기뻐할 때 결과되는 주님과의 결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 사무엘상 제12장

## 왕의 통치에 관해 사무엘이 충고하다

관관의 기능이 중단되어질 때, 사울의 왕권 체제는 더욱 단단하게 건설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전하고 있다. 긴 세월 동안의 직무 수행에 있었던 그의 자세, 그리고 그 직무를 벗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 그 직무 수행 동안의 자기의 성실함에 대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동의를 얻어 입증하고 있다. “보아라”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를 다스릴 임금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이분이 임금으로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늙어 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젊어서부터 이 날까지 너희를 이끌어 왔다. 이제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거든 야훼께서 계시는 이 자리, 그가 세우신 임금 앞에서 털어놓아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다 갚으리라.” 이런 직접적이고 엄한 호소에 백성들은 응답했다. “우리를 억압하신 적도, 착취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무에게서도 무엇하나 빼앗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다짐한다. “너희는 내 손에서 아무런 부정도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 날 야훼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셨고,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도 증인이 되셨다.”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사무엘은 거룩한 역사(관관 시대)에서 언급되는 공적 지위에 있던 사람들 중 빼어난 인물 중의 하나요, 악한 시대에 개혁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들어 세워 사용한 도구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등장했던 때의 사회는 풍기 문란했고, 사제 역시 방탕했었다. 공정해야 할 재판도 썩어 있었는데, 사무엘은 이를 성실하게 원상복귀 시키고, 주님께 바치는 예물 역시 매우 혐오하도록 되었지만, 이 예물 역시 귀하게 여겨지게 회복시켰다. 그는 백성들의 타락해 가고 불순한 우상 숭배에서 진정한 하느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되돌아오게 했다. 세상적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물과 기도 만으로, 이스라엘을 멸종시키려 든 싸움에서 백성을 구해 내었다.

사무엘의 역사는 위와 같은 그의 성격과 행위에 못지 않게 그의 일생 자체가 표현해 주는 것 역시 우리로 주목하게 한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카나는 두 아내를 거느렸다. 야곱의

두 아내 같이 한 아내는 자식을 낳았는데, 정작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었다. 똑같은 진리를 두 쌍의 아내들이 표현하고 있다. 거듭나는 삶의 초기 단계에서 자연적 애정은 열매가 풍성하나, 영적 애정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해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영적인 것이 나중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영적 애정이 비록 결실을 못 가지고 있다 해도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렬한 바람은 있어 언젠가 이 바람은 아이로 축복되어진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는 그녀의 서원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의 요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헬의 아들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여 그는 구원자(Saviour)라는 특출한 형태로 되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 역사와 성격은 주님 자신의 역사나 성격과 유사한 대목을 많이 지니고 있다. 주님의 초기 삶은 성전과 관계를 갖고 있고 그분의 선교 중 하나는 거룩한 구역에까지 침범한 장사꾼들을 추방하는 것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사무엘의 나이 12세 쯤에 그는 신성한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달했다는데,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가 성인으로 이스라엘 후손들 앞에 예언자로 등장할 때까지 더 알려진 사항은 없는 것 같다. 그 후 그의 삶은 뛰어난 순수성과 유용함으로 일관되고 있다. 사무엘이 표현한 진리, 주님 자신이 표현한 진리 모두는 교리를 위해, 재 보증을 위해, 교정을 위해 정의에 관한 훈육 등등을 위해 매우 유익한 것뿐이었다. 그리하여 이 하느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들로 철저히 완전하게 점철되고 있었다. 본문 이후의 사무엘은 진리 측면보다는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현하게 된다. 그 이유가 이제부터 그는 사제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왕권적 기능은 분리되어 사울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판관이라는 그의 특성, 뿐만 아니라 사제요 예언자로서 지금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그가 백성에게 한 질문들을 주님의 백성의 영적 삶이나 교회 속의 규율에 따른 행동 지침과 관련해 볼 때 매우 의미심장하다. 주님의 백성에서는 영적 선들이 있고, 거기에 백성으로서의 특전과 권리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잃는다면 그들이 지닌 유한한 것, 일시적 소유물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되고 만다. 그들은 선하고 참된 것에 관한 지식을 획득해서 소유하는 능력이 결핍되어진다. 소나 나귀를 그들로부터 빼앗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경작하고 풍부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결여된다는 말이다. 자신들의 부함이 경건한 용도만을 위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들이 자신들을 구해 주지 않는다고 설득 당함으로 그들은 제한된 자기들 노력의 결실을 속아 빼앗길는지 모른다. 믿음과 실제에 관한 문제에서 자신들 스스로 생각하여 뜻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함으로

그들은 억압되어질는지 모른다. 종교적 경건이나 자선 같은 특별한 행동은 신성한 판단자로 그분의 영원한 판단의 법칙을 뒤집게 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어 천국에의 입장을 허용하게 해 준다고 믿도록 유도해서 뇌물을 바치도록 유인될는지 모른다.

모든 이스라엘의 눈에 정당한 사무엘은 그들을 불러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의 그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권능에 대해 추론하고 있다. 에집트로부터의 구원, 가나안 땅에서는 시스라, 블레셋, 그리고 모압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경험을 사무엘은 간략히 다시 더듬고 있다. 위와 같은 것들로부터 받은 억압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멤버들에 닥치는 각기 다른 시험들을 표현한다. 이런 시험들은 거짓 과학이라는 에집트로부터, 블레셋이라는 왜곡된 믿음으로부터, 모압이라는 왜곡된 선에 발생된 악들로부터 있어진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국가들에게 복종 당함은 그들이 하느님을 잊은 결과요, 그들이 해방됨은 그분께 다시 돌아간 결과이다. 모세와 아론을 수단으로 주님은 에집트에서 이 백성을 건지셨고, 여룹바알, 바락, 입다, 사무엘 등등은 가나안 땅 내의 적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도구로 들려졌던 인물들이다. 이를 수단으로 교회 속의 멤버들도 잘못된 믿음이나 행동에서 건져진다. 입법자 모세로부터 판관 사무엘까지에서 간략하나마 우리가 보는 것은, 진리는 우리를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 진리로 판단함으로 종결짓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세와 사무엘 사이에 사제인 아론, 미디안을 쳐부순 여룹바알, 바락(구번역, 배단)과 암몬족을 쳐부순 입다가 있다. 아론은 진리로부터의 선을 뜻하는데, 이로부터 진정한 예배가 솟아난다. 선으로부터의 진리, 이를 수단으로 세상적 사랑과 이기적 사랑의 예배가 극복되는데, 이것을 여룹바알이 표현한다. 이 이름은 과거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물었을 때 받은 이름이다. 위 진리로 획득되는 선을 배단(바락)이 표현하는데, 이는 기름(fat), 또는 건전함(robust)을 뜻한다. 그리고 진리를 모독하려는 것을 극복하게 하는 사랑으로부터의 진리를 입다가 표현하고 있다. 입다는 심정 속의 순수한 애정을 주님께 바침으로 구별되는 원리이다. 과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달라는 서원의 약속 이행에 그의 딸이 기꺼이 응낙함에서 입다가 표현한 원리를 살필 수 있다.

위와 같은 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들은 암몬족의 왕, 나하스가 공격하여 위협받자,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안되겠습니다. 차라리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여 주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을 잊고 있었다. 그들이 바랬던 왕, 그래서 주님께서 세운 왕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엄중히 경고하여,

“만일 너희가 야훼를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 뿐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야훼 너희 하느님의 뒤를 따르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야훼께서 손을 들어 너희와 너희 왕을 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 우리가 보다 높은 선으로 통치 받기를 거절할 때 보다 낮은 선으로 규율하심으로 우리의 허약 한데까지 그분의 손길을 뻗으신다. 그러나 통치의 어떤 종류이든, 형태에서이든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조건, 이 조건의 충족에서 그분의 보호와 축복은 존재한다.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엄중한 경고 외에 사무엘은 하늘로부터의 징조를 백성에게 주고 있다. “지금은 밀 거두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님을 불러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시리라.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서 왕을 세워 달라고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자 그 날로 주님께서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셨다.” 본장에서 사무엘에 몇 번씩 다시 상기시켰던 사항과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놀라운 일”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불쾌감에 대한 장엄한 징조라고만 생각하여야 할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는 장엄한 징조, 놀라운 사건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표본이 된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든 사항은 하나의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주는 충고인 바, 때 사건의 줄거리에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지상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추수(harvest)는 선한 삶을 거두어들이는 것, 즉 진리의 씨가 정직한 심정이라는 선한 마음(땅)에 뿌려져 60배, 100배로 생산된 선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한 표현적 상징이다. 그러나 추수는 심판도 상징하고 있다. 수확하는 때는 선을 위해서뿐 아니라 악을 위해서도 있기 때문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둘 때, 그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두게 된다. 동시에 밀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듯 추수(심판)때는 의로운 것과 사악한 것이 분리된다. 좁은 의미에서 추수는 각 개인의 지상 삶의 끝에도 있게 되지만, 또한 지상 생활 속에서의 마음 그 자체 속에서 선과 악이 분리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심판이다. 이 심판은 시험의 상태에서 흔히 거행되는데, 이 때 선과 악이 각자의 마음과 삶에서 영적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시험의 상태가 앞 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싸움으로 표현되고 있다. 영적 이스라엘이 미워해야 할 적을 극복하고 소탕해 버린 날이 “밀 거두는 때”인 것이다. 영적 의미에서의 밀은 사랑과 이타에로부터의 선이고, 밀 거두는 때란 사랑과 이타에 속에 있는 상태이다. 이 절에서 표현된 상태는 시편의 다음 구절과

같은 상태이다. “아, 나의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이스라엘아, 나의 뜻을 따라 걸어다오. 나 당장 너희 원수들을 쳐 부수리라. 나 당장 너희 압제자들에게 손을 대리라...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리라...” (시편 81:13,14,16).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백성들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분의 길을 걷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주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도 그들은 왕을 갖는 쪽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랑보다 진리로 통치되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어찌됐든 주님은 진리로부터 싸우는 이들에게도, 사랑으로부터 싸우는 이들에게도 공히 승리를 주신다. 그러나 진리로부터의 정복은 사랑으로부터의 정복에 비해 악의 뿌리를 뽑는 데는 훨씬 약하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지파를 향해 꾸짖는 “불쾌한 것”이요, 이를 그들에게 더 인상깊게 해주기 위해 밀 거두는 때에 천둥과 비를 주님께 구하게 된 데 대한 의미이기도 하다.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이 값진 선물로 간주한 구절을 잠언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어중지 않다. 여름에 눈 내리고 추수 때 장마드는 격이다” (26:1). 성서에서의 미련한 자란 약한 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불쾌한 자, 사악한 자를 일컫는 말이다. 사무엘이 하늘로부터 내려달라고 한 천둥과 비는 그들에게는 좋고 값진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것에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 상태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무엘은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 관해 말해 준 것이다. 천둥은 하느님의 소리라 불리고, 왕의 아들이란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인 바, 이렇게 말해진다. “그분은 풀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오시리라”(시편 72:6)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힘써 그분을 알려 한다면, “단비가 내리듯 봄비가 촉촉이 뿌리듯 그렇게 오시리라” (호세아 6:3).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 이에 대한 상징물이 천둥과 비인 바, 이는 사랑과 진리에 거슬러 죄지은 자에게 내려올 때의 모습이요, 백성들이 주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듯 두려움을 자극한다. 그럼에도 이 자극은 단지 노예적인 두려움만 수반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사랑이 있는 두려움도 있다. 천적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 안에서 명백해질 때, 비록 우리의 상태가 성숙되고 결실이 풍부한 상태라 해도, 마치 천둥과 비가 밀 거두는 때에 이스라엘에게 내려 왔듯이, 그분의 사랑과 진리는 두려움, 또는 경외심, 즉 사랑과 두려움이 혼합된 상태를 불러 일으켜 주고야 만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분부대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이 상황은 그에게 예수님을 드높여 부르도록 해주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게 하여 그는 이렇게 소리내어 말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가 주십시오”

(누가 5:8). 각자의 심정과 지성에 오게 된 강한 인상이 자신으로 주님을 더 완전하게 신뢰하는 쪽으로, 더 높은 상태를 더 열렬히 호흡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게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 기도 드려, 당신의 종인 우리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도 모자라 왕을 세워 달라는 못된 짓을 더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죄는 사무엘에 의해 그 백성들에게 자주 통고되어 왔던 바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리하여 사무엘이 본 장에서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반복해서 거론한 목적이 성취된 것이다. 사도 요한이 에페소 교회에게, “...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빛나갔는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라고 말했듯이, 회개는 이 백성들에게도 지금 과거 행실을 되새겨 보게끔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예언자는 그들이 죽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는 일을 소원 받고 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함으로부터 사무엘은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너희가 못할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야훼를 떠나지 말고 성심껏 야훼를 섬기도록 하여라. 허수아비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들은 너희를 도울 수도, 건져 줄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였다. 당신의 높으신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야훼께 짓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그가 백성들을 위로하여 용기를 북돋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이렇게 첨부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좋고 바른 일인지를 가르쳐 주리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해 보이셨으니,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며 거짓없이 성심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만일 여전히 못된 짓을 한다면 너희와 너희 임금이 모두 망할 것이다.” 이것들이 진정한 예언자의 말들이다. 그는 죄를 확신시켜 주어 회개 쪽으로 인도해 준다. 그러면서 그는 죄를 뉘우치는데 신성한 호의를 약속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친다. 이 모든 사항은 메시아를 표현하는 사무엘의 특성과 면밀히 일치하고 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 입증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가르치셨다.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분은 그분의 영광 말씀으로 위의 사항들을 섭리해 주신다. 이에 더해 교회 내에서 진정한 예언적 특성을 잘 해내는 이들을 통하는 원격 조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 6

### 사무엘상 제13장

#### 사울이 예언자의 직능을 빼앗고 왕국을 몰수당하다

사울은 암몬족으로부터 아베스 사람들을 구해 냈고, 이제 그는 또 다른 적과 대진했는데, 이 적은 암몬보다 더욱 강한 적이었다. 암몬 후손은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에게 전쟁을 걸어 온 것이지만 불레셋은 전 지파를 자기들 지배 아래에 두고 있었다. 사울의 손은 이제 억압받는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강력한 적과 얼굴을 맞대야 했다. 우리가 역사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 사울이 치러 가야만 하는 적들의 특성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불레셋”이란 사랑과 분리된 믿음을 표현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라 불린다. 이는 영적 사랑이 없는 상태, 오로지 자연적 사랑만 가지고 있는 상태, 종교에 필요한 요소가 없는 것, 더욱이 교회에 필요한 요소는 더더욱 전멸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종교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신성한 존재, 천국, 영적 삶과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이 사항들은 영적 사랑 외의 다른 것과 결합되어질 수 없다. 영적 사랑이 없는 자연적 사랑은 인간 속의 이기심이요 그 자체만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악 밖에는 더 다른 구성 요소가 없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불레셋과 치러야만 했던 모든 전쟁들은 영적 인간과 자연적 인간과의 싸움, 또는 선과 결합한 진리가 선과 분리된 진리, 진리라기 보다는 거짓뿐인 것과의 싸움을 표현했다. 선에서 분리된 진리는 선에 관한 생각에서부터 왜곡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진리에 어떤 증거를 제시해 주는 생각 안에 어떤 영적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타애에서 분리된 믿음만에 거하는 이들의 경우, 그들의 언어나 설교 속의 말씀을 빼다면, 어떤 진리도 가지지 않은 셈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생각한 것을 실습하려 들면 즉각 진리에 관한 사상은 소멸되고 만다. 이런 종류의 종교가 교회 안에서 자연적 삶을 살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늘 붙어 다닌다. 그러므로 불레셋은 가나안의 여타 민족들 같이 이스라엘에 종속 당하지 않았는 바, 이제 많은 전투가 그들과 있게 된다. 말씀에 있는 역사적 환경은 교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가나안 땅 내의 나라들은 사랑 속의 악들, 믿음 속의 거짓을 확증하려 드는 이교도적인 것을 표현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은 믿음 속의 진리와

사랑 속의 선, 따라서 교회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 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타 국가에 정복당하여 넘겨지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넘겨졌던 기록 중 일부를 보면, 어떤 경우 그들은 18년, 40년간이나 타 국가를 섬겼다(판관기 10, 13장). 이것은 그들의 예배가 사랑의 선과 믿음의 진리로부터 사랑 속의 악과 믿음 속의 거짓으로 퇴조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이 사무엘상에도 관련되어 그들은 불레셋에 정복당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4,13,28,29,31장). 그러나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므로, 즉 사랑의 선들과 믿음의 진리로 돌아 왔을 때, 그들은 불레셋을 쳐부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과 열왕기서의 여러 곳에 있기도 하다.

“사울이 한 해를 다스렸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이 년 다스렸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그 가운데서 이천 명은 자기가 몸소 거느려 므마스과 베델 산악 지대에 주둔하고, 천 명은 요나단에게 맡겨 베냐민 지방 게바에 주둔시켰다. 나머지 군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 해를 통치한 사울은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이스라엘을 두 해 통치함은 선과 진리의 하나 됨이다. 이 사형은 암몬이라는 원리를 정복한 뒤에 수반되는 특별한 상태임을 말할 것도 없다. 그 이유는 영적 삶의 진보는 특별한 상태들을 통과하는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과 진리의 결합이 없으면 어떤 한 가지 상태가 완성될 수 없고, 또 다른 진보, 더 나은 상태로의 출발도 있을 수 없다. 이 특별한 상태의 연결은 사울이 삼천 명의 군인을 뽑고 나머지는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구절에서 더 암시하고 있다. 이 구절은 진정한 질서로 마음 속의 공통된 원리들을 배열하는 것, 보다 더 내면에 속하는 본성들을 통치하는 원리 밑에 배치하고, 보다 외면에 속한 것들은 일상 업무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새로운 인물(agent)이 소개되고 또 하나의 구분이 그와 더불어 연결되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해 있는 인물 요나단, 사울의 영웅적인 아들, 다윗의 헌신적인 친구가 처음 등장하고 있다. 뽑힌 군인 삼천 명 중 이천 명은 사울과 더불어 므마스과 베델 산악 지대에, 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방 게바에 주둔했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요나단의 특성이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울 통치라는 연극 중 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의 표현적 성격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은 중요할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그가 표현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하자.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은, 사울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을, 다윗은 신성한 진리(Divine truth)를, 솔로몬은 신성한 선(Divine good)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울의

통치는 주님이 계셨던 생애 중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 만드시는 때를, 다윗의 통치는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신 때를, 솔로몬의 통치는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선으로 만드시는 때를 각기 표현하고 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인성을 신성의 자연적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그리고 천적 상태에 이르도록 계속 만들어 가셨던 것이다. 위의 주님에 관한 사항을 말씀의 이해에 적용한다면, 각 사항은 말씀의 자연적 의미, 영적 의미, 천적 의미로 구분된다. 현재의 공부와 관계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은 자연 안에 있는 진리, 또는 말씀의 자연적 의미에 있는 진리이다. 그러나 말씀의 글자는 두 종류의 진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진리(apparent truth)와 진실된 진리(real truth)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글자적 의미가 어떤 부분에서는 외적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지도록 나타나는 신성과 영적 사항을 묘사하거나 표현한다. 또 다른 부분에서 글자적 의미는 그 글자에 진정 있어야 할 것에 관해 말하고 있기도 하다. 주님이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 만드셨을 경우, 그분은 먼저 인성을 눈이 볼 수 있는 진리로 만드셨고, 그 다음 진정한 진리로 만들어 가셨다. 여느 모든 인간 존재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애당초 말씀의 글자에 나타나는 진리들에 소개되었다. 그 다음 눈에 나타나는 진리를 통과하시어 진정한 진리들로 진입하셨다. 그분도 말씀의 글자 속의 진정한 진리를 획득해서 음미하시고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자연적 진리로 만드시지 않고는 말씀의 영적 의미로,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영적 진리로 만드실 수 없으셨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지만 어느 누구도 순수한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속의 영적 의미에 소개될 수 없다. 그분이 인성을 영화 시키신 과정도 그분이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과 비슷하다. 말씀의 글자에 나타난 진리를 표현하는 동안 그는 글자 속의 진정한 진리보다는 글자상에 보이는 진리들을 표현했다. 말씀 속의 진정한 진리, 순수한 진리가 요나단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표현해 주는 위와 같은 성격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삶이 영적으로 특징짓고 있는가, 그리고 다윗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다윗은 인간 속의 영적 원리, 말씀 속의 영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과 비교 생각해 보라.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는 인간 안에서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증오함, 말씀의 글자와 그 속의 영과의 모순, 글자상의 진리 안에만 있을 경우의 모순을 보여준다. 그 이유가 생명을 주는 영과 글자의 불일치는 영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요나단을 생각해 보자. 그는 질서 있는 마음 상태에서의 자연적 마음, 순수한 진리 측면에서의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 이런 특성들이 그의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그의 삶에 나열되고 있다. 애당초부터 요나단의 영혼은 다윗의 것과 밀착되어 있었다. 그는 우정 관계의 바른 길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사울의 분노가 왕위에 대한 적수로서 다윗을 향해 터트려졌었다. 그 반면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운명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뒤에도 그의 영혼은 그 일에 대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윗에 대한 그의 애정은 한 군데도 흠집이 나지 않았다. 동시에 요나단은 비합리적이고 변덕스럽기까지 한 아버지에게도 슬기롭고 헌신적인 아들이 되어 주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쪽에서 방향이 바뀌도록 아버지 곁에서 노력해 보면서 사랑의 특성인 친화력과 은덕의 법칙으로 아버지의 분노심이 묶여지게 하려 노력했다. 그리하여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그는 말씀의 글자 속의 순수한 진리를 표현해 준다. 이 진리는 눈에 나타나는 글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 사이에 서있으면서 두 의미가 재회하도록 애써 주고 말씀의 영과 글자가 대결하는 순간을 피하도록 해서 대결하려는 글자를 영과 조화되게 한다.

이상 살핀 내용이 요나단으로 표현되는 일반적 의미인 바,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의 삶과 연결해서 있게 되는 의미를 명확히 알게 되리라 본다. 특히 다음 장에 등장하는 블레셋을 쳐부서서 이스라엘에 승리의 신호를 알리는 요나단의 특성과 사울의 특성과를 비교해 보게 됨으로 더욱 두 사람의 표현적 특성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만을 위해서 말씀의 눈에 보인 진리로 어느 정도 용모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말씀 속의 순수한 진리와는 직접적인 반대 속에 놓여 있다. 요나단의 첫 도전적인 행동은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다. 기브아(Geba)는 제 10장에서 언급된 언덕과 수비대이고, 이곳은 사울이 기름 부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던 코스에 있다. 그 땅의 중심 위치인 언덕 위 레위인 성읍을 블레셋은 군대 진영지로 삼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진지를 세웠을 것은 의심할 여지없다. 이 모습은 마치 블레셋이 표현하는 거짓이 인간 속의 더 높은 애정에 자기들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그 인간이 가질 순수한 예배를 더럽히면서 거짓의 세력이 온 마음을 지배하는 듯 자찬 해대는 것과 같다. 사울의 통치에서 블레셋에 대한 첫 공격은 수비대를 목표로 삼아졌고 그것이 요나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중요한 승리임에는 틀림없다. 그 이유는 이 공격은 두 적대 관계의 왕국들의 온 힘이 일어나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히브리인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편 사울은 나팔을 불어 방방곡곡에 소집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온 국민은 사울이

불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불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 합세하였다. 불레셋 군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병거가 삼천, 기마가 육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불레셋 군은 이스라엘 군을 숫자로도 압도하고 전쟁 무기도 훨씬 더 나은 듯 보이고 있다. 불레셋 군대에 대한 위의 서술은 불레셋이 표현하는 원리의 품질과 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마치 계시록 9장에서 기술될 큰 군대와도 같이 불레셋의 군대는 믿음만을 고집 하는 원리를, 그들의 병거는 그 원리의 교리들을, 그들의 기마란 그 교리의 추론을, 보병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는 것은 과학물로 자기들 원리를 끝도 없이 확증해대는 것을 말한다. 에집트의 수모를 벗기고자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던 길갈,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불레셋의 수모를 벗기고자 사울과 합세하여 운집했다. 과거 이스라엘은 과학이라는 에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그들은 믿음만(faith alone)이라는 원리의 굴레 아래 있어 온 터인 바, 이 굴레는 자연적 인간에는 적절한 원리이나, 영적인 것에는 만만찮은 적이다. 불레셋이 진을 친 곳은 베다웬 동편 믹마스이다. 믹마스란 보물이란 뜻이고, 베다웬은 허무함의 집 또는 우상의 집이란 뜻이 있다. 자연적 인간의 보물은 지식이요, 그 인간의 우상은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이다. 이 인간의 노력이 집중되는 두 사랑은 허무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자연적 인간은 그들의 에너지와 정신적 소유물을 그쪽을 목표로 방향 잡고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역시 있게 된다.

위 구절과 같은 두 군대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군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저마다 굴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고, 더러는 요르단 여울을 건너 가드와 길르앗 지방으로 달아났다”는 이야기에는 하등 이상할 점이 없이 당연했을는지 모른다. 이 비열한 두려움은 실로 그들이 얼마나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믿음을 소유했었는지 여실히 알게 해 준다. 그들은 이 약속, 주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싸워 주시고 자기들 아래 적들이 짓밟히게 해 주겠다고 한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위와 같은 약속 역시 조건이 붙은 약속이다. “만일 너희가 내 규례 가운데서 걸어가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 중 다섯 명이 백 명을, 너희 중 백 명은 천 명과도 맞설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그분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 주시고 있다.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치켜올릴 수 있는 힘을 잃어, 우리의 불성실함을 이용하는 가공할 적 앞에서 기가 죽어 도망칠 수밖에 없다. 이 주제를 각 개인의 체험에서 찾아보자.

거짓 원리들이 우리를 제압하는 힘을 획득할 때, 그것들은 스스로 힘을 과시하는 바, 이 원리에 맞붙고자 나선 진리들은 대결을 피하고 우리 속 어두운 곳, 즉 거짓 생각들이나 이기적이고 세상적 애정들 안에 숨고, 급기야 자연적 의지나 이해성으로까지 도피하려 들고 만다. 거듭나는 삶에 대한 기독교인의 경험에 관한 표본으로서 위와 같은 것, 또는 위와 비슷한 시련이나 투쟁들 모두 시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내향적 곤란이나 쓰라림, 말단적으로는 싸움에 관한 것이다. 마음의 이런 상태에서 악과 거짓들은 더욱 흥분되고 적극성을 띄워 그것들이 너무 강력하고 수효가 셀 수 없이 많아 자신으로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듯 여기고 만다. 최고의 인간이 있다면 그는 최고로 심한 시험을 가졌었다는 말이고, 어느 누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짜로 선택될 수 없다. 주님 역시 가장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도 했다. 길갈에 있는 사울, 전쟁에 질 것이라는 걱정으로 덜덜 떠는 군인들을 거느린 사울이 바로 위와 같은 시련에 빠진 상태이다. 이런 비상 사태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대군을 이룬 블레셋은 자기 눈 앞에서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은 어떤 도움도 없다. 이런 곤경에서 이스라엘은 실패 않는 근원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다. 국가적 이익 관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함에서 꼭 필요했던 것은 우림과 둠뫼(출애굽기 28:30)을 수단으로 하던가, 제물을 수단으로 그분께 나아가 상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여쭙어 보는 것은 사제 직분을 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만나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기를 칠일간 기다리라고 말해 둔 터였다. 당장이라도 불붙을 것같은 작전 지역에 있는 사울이 자기가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해도 기다리는 그의 심정은 너무나 암담해 있었을 것은 충분히 납득된다. 그런 데로 사울은 칠일을 지체하다 싶어 보냈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당도 안했고, 군인들은 그로부터 자꾸 빠져나갔던 바, 사울은 깊은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틀림없다. 이런 그의 상태는 참으로 암담한 시험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도 있다. 그러나 시험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뢰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만일 신성한 약속이 실패된 듯 여겨지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각 와지지 않는다 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것을 깜박 잊으셨다고 결론지어서는 안되리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되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악을 행할 어떤 생각으로 안달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울은 이 원리를 충실히 해내야 함을 망각했다.

그는 시종들에게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가져오도록 했고, 즉각 그는 사제의 직분을 행사했다.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그를 마중 나가 인사했으나, 사무엘은 사울이 범한 죄를 알아채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라고 꾸짖었다. 사울의 변명은, “군인들은 하나 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 데다가 불레셋 군은 므마스에 집결해 있어 야훼의 노여움을 풀어 드리기도 전에 불레셋 군이 길갈로 쳐내려 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꾸짖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 길이 세워 주실 터인데,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대가 야훼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우실 것이요.”

위의 여건이 신성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마음에 품어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위의 사건이 역사 자체를 알려준다고 말하기보다는 더 깊은 신성한 의미를 이 역사 줄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 외의 어떤 다른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사무엘이 늦게 당도한 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의도적인 것이다. 그는 사울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수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그 왕위를 계승할 또 다른 인물이 이미 선택되었음을 그에게 암시하기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유대인의 사회 질서에서 사제의 직분을 찬탈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였다. 그 이유가 그 행위는 큰 모독을 표현했기 때문인데, 사제로서의 특성을 소유하지 않은 채 사제직을 수행함은 자연적 인간 속의 기능이 영적 인간의 기능을 찬탈하는 것을 표현하고, 이는 영적 인간과 천적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마치 예복도 입지 않고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모습인 것이다.

이 신비스런 본문의 여건은 주님의 영화 하심과 인간의 거듭남, 양쪽에 관련되는 더 높은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 고안되어져 있다. 이 줄거리에서 사울이 표현한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의 작용과 심판, 그리고 다윗이 표현하는 신성한 진리의 정부 형태를 위해서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통치하는 원리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거절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있다. 이 거절의 첫 원인이 된 것은 거룩한 예식을 드림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대신 사울이 제물을 바치는 불법 행위이다. 주님의 영화 하심을 묘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에 관한 아름다운 해설에서 사울의 행동에 있는 심각한 결말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한다. “인간을 훈육하는 과정은 처음에 과학물로부터 합리적 진리들로, 그 다음 지적인 진리들로, 마지막으로 천적 진리들로 진보해 간다. 만일 이 진보가 과학물과 합리적 진리로부터 지적 진리의 중개 없이 천적 진리로 만들어진다면, 이 천적 원리는 위반되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합리적 진리는 지적 진리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으면 천적 진리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문의 경우가 위의 말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해도 최소한 거의 유사할 것이다. 사울이 표현한 잘못은 결합시켜 주는 매개 없이 낮은 원리가 높은 원리를 추구했다는 데 있다. 이것은 더 높은 원리에 위반된 것인 바, 더 낮은 원리는 피해를 받아 파괴되고 만다. 이는 마치 믿음의 이타애라는 매개를 통과함도 없이 사랑으로 단번에 건너뛰려 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말이다. 사울의 생애가 주님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가장 높은 의미의 측면에서 본문을 생각해 볼 경우, 사울의 잘못들을 주님이 그분의 생애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경험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악한 행동들은 그분의 행동들이 아니라 그분이 받은 시험들이었다고 이해해 두어야 할 것이다. 주님의 진보가 인간의 거듭남과 유사하다고 말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하갈에게서 첫 합리적 원리를 표현한 이스마엘이 출생했다. 이 하갈이 지적 진리를 표현하는 그녀의 여주인 사리를 경멸한 줄거리가 창세기에 있다. 이에 대해 스웨덴북은 말하기를, “주님에게 합리적 원리가 처음 잉태되었을 때 그것은 진리 자체가 아닌 진리의 가상(나타남)이었다. 이때 그분의 합리적 원리들은 지적 진리들을 경시했었다. 그러나 합리적 원리들이 신성이 되면서 가상이라는 구름들이 계속적으로 흐트러지고 지적 진리들이 진리 자체의 빛 속에서 그분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이사악이 성장하자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실 주님 자신이 지적 진리를 경멸하신게 아니라 합리적 원리는 지적 진리를 경멸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지각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런 본성을 꾸짖으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과 사울은 주님을 표현하되 주님의 인성 측면에 있는 따로 따로 구분되는 부분이나 상태들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것은 주님의 인성 중에서 더 높은 원리가 더 낮은 원리를 꾸짖은 것으로 이해해 두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사무엘은 말씀으로서의 주님을 표현했다. 주님은 말씀, 또는 본질적으로 신성한 진리이셨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 속에서 주님의 본질 되는 진리는 갖가지 수준들, 천사나 인간, 심지어 가장 낮은 진리의 가상(appearance)까지 포함되

는 모든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예언자로서의 사무엘은 내적 인간에 속하는 지적 진리를 표현했고, 사울은 외적 인간에 속하는 진리의 가상을 표현했다. “주님은 지적 진리의 원리로부터 생각하셨다. 이 진리는 합리성 위에 있는 진리요, 내면의 원리로부터 합리적 속성에 있는 것을 보고 지각할 수 있다. 주님이 이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은 다음으로부터 나타날는지 모른다. 내면의 원리는 외면에 있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 또는 더 높은 원리는 더 낮은 원리에 있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양심을 가진 이들도 이를 할 수 있어 실습되기도 한다. 그 이유가 양심에 반대되는 어떤 것이 생각 안으로 흘러들 때 또는 의지 속의 경향성에 들어올 때 그것을 통각(apperceive)할 뿐 아니라 그것이 범죄에 속한다고 꾸짖는다. 게다가 이런 자극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통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었지만 자기 스스로 슬퍼하기도 했다. 우리는 진리의 가상들을 통하여 시험으로 인도될 때도 있다. 그 이유가 악마는 성경의 가상적 진리(apparent truths, 눈에 보여진 대로의 진리)를 통해 우리를 계속 시험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도록 충동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깥쪽 악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비난할 수 있고 유혹에 약한 자신, 시험만 오면 넘어지는 자신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며, 심할 경우 현재의 자기 마음의 통치 형태를 제거하고 또 다른 형태의 정부를 필요로 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실지로 통치 형태가 전환되는 때나 상태는 곧바로 오지 못한다. 이런 대 변혁이 거행되기 전, 심각히 생각해야 할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 이런 가르침 중 일부가 본 장 안에도 게재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을 계수 하니 육 백 명 가량이었다.” 더 높은 것은 언제나 더 낮은 것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 영향력이 언제나 느껴지고 지각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인 것은, 더 높은 원리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더 낮은 원리에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낮은 원리는 실험실의 시약같이 더 높은 것 그 자체인 양 행동한다. 만일 더 낮은 원리가 더 높은 원리의 실존을 언제나 지각하여 자기 행동의 힘과 생명을 더 높은 것에 기대고 있다면, 더 낮은 원리의 자유는 언제나 중단되고 있을 것이다. 가끔 경우에 따라서 더 높은 진리가 그 진리의 집을 떠나 더 낮은 진리가 지각할 수 있는 데로 내려오기도 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지독하게 필요로 할 때였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떠나고 있다. 사무엘은 평지에 있는 성에서 언덕(산)위에 있는 레위인의 성으로 올라갔다. 의심할 것도

없이 그는 자기가 견책했던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 때문이었으리라. 사울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백성의 수를 세어 본다. 남아 있는 군인은 겨우 육 백 명이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이 당해 왔던 궁궐(strait)을 암시하고 있다. 숫자 6은 땀흘림, 또는 슬픔을 표현해 준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 군과 대진하였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소집령이 내리기 전 있어 왔던 장소나 상태로 되돌아 와 있다. 이 상태에서 “기습 부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를 굽어보고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다.” 수알이란 여우들의 집, 벳호론은 깊은 동굴이 있는 곳, 스보임은 썩은 고기를 먹는 곳 등으로 이 지명들은 야만적인 광야를 암시해 주고 있다. 이 암시에 한가지 예외가 오브라인데 그 뜻은 새끼 사슴이란 뜻이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새끼 사슴같이 무방어적 상태, 벌벌 떠는 상태, 추격자로 인해 바짝 얼어붙은 상태이다. 기습 부대가 포위하려 들고 있는 광야에는 동굴, 웅덩이, 바위투성이, 가파른 지역들로 이루어진 지역인 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블레셋이 두려워 도망가 숨은 장소들이다. 이제 그들은 블레셋의 먹이가 될 판이다. 적에 대한 공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해질 때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이 된다.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은 실로 자아 파멸의 수단이 될 뿐이다.

일련의 주목해 볼만한 서술이 본문 끝 문단에 등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방어할 힘이 없고 언제나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이유, 강력한 적이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이 사는 데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값은 삼분의 이 세겔이었고 도끼를 버리고 낫을 가는 값은 십분의 일 세겔이었다.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었다.” 블레셋의 위와 같은 정책은 그 이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열왕기하 25:14, 예레미야 29:2). 이와 같은 정책은 서로 비슷한 조건 속에 있는 고대 국가들에게 있어 특이한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되리라 본다. 비슷한 시대에 있던 두 국가, 바빌론과 블레셋의 정책에 관한 영적 상응을 이해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정복한 나라가 정복당한

백성이 다시 방어 태세를 못 갖추게 하려는 것은 당연한 수법이나, 그렇다고 그들의 생활 수단까지 강취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어찌됐든 전쟁 무기나 농기구 모두 교리와 상응된다. 두 기구는 방어와 경작을 위해 우리가 고용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교리들은 진실이거나 거짓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교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지혜에 일치하느냐, 인간의 의지와 지혜에 일치하느냐에 따라 그 교리는 전혀 달라진다.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는 교리를 만드는 수단인 총명이다. 그런데 이 총명은 자아나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진다. 자아 총명은 혀로 일을 치르는 대장장이이다. 이들은 숯불에서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모양을 잡는다(이사야 44:12). 모루에 대고 두드리는 자를 칭찬하여 “그 쇠 참 잘 붙였다”라고 한다(이사야 41:7). 천국에서 파생된 총명에 관한 가장 완전한 예를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창세기 4장 22절의 두발카인일 것이다. 그는 구리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라고 서술되고 있다. 두발카인은 태고 교회에서 진정한 총명으로부터 구리와 쇠가 의미하는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타인들에게 가르친 이들에 대한 이름이다. 이스라엘 온 땅에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것, 히브리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리려면 불레셋 사람들에게 가야만 했다는 것, 등등의 자연적 사실에 포함된 영적 사상은 이렇하다. 믿음만으로 만사가 해결된다는 원리가 널리 퍼져 강세를 떨치면 교회 속의 사람들은 진정한 총명, 이 총명으로 가능할 건전한 교리까지 모두 빼앗기고 말아 악이나 잘못과 싸울 때 긴요하게 이용될 무기가 없게 된다는 것, 게다가 선하고 진정한 것을 자신 속에서 함양시키는 것 마저 삶과 아무 관련 없는 원리들에 지휘 받아 이리저리 흔들린다. 종교의 원리가 삶에 응용될 수 있는 종교만이 진정으로 살아 있는 종교이다.

마지막 문단에서 묘사하는 서술은 교회의 마지막에 거행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교회의 끝이 오는 것은, 사랑이 차가운 상태로 되고 믿음이 지상, 즉 교회에서 더 이상 발견 안될 때이다. 진정한 사랑이 소멸되고 진정한 믿음이 힘을 잃을 때 거짓 사랑과 겉치레의 믿음이 자리를 차지하는 바, 이것이 이스라엘이 불레셋에 종속 당하고 유다가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런 모습의 첫 상태가 오늘 본문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처지로 표현되고 있다. 전쟁시에 이 백성들은 칼이나 창이 없었다. 이들은 병거나 기마,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적인 거짓 교리나 추론들을 당해 낼 재간이 없었다. 그 이유가 적들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백성들의 누구에게서도 칼이나 창이 발견

안되고 있지만 사울과 요나단에게서는 발견되고 있다. 왕 계열에 속하는 이 두 사람의 수중에 있는 무기가 믿지 못할 정도의 위력을 다음 장에서 발휘해 주고 있는 바, 이를 두고 시편은 이렇게 노래한다. “허리에 칼을 차고 보무도 당당하게 나서시라. 진실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시라. 당신의 오른팔 무섭게 위세를 떨치시라. 그 날카로운 화살이 적의 심장을 꿰뚫으면, 만방은 당신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45:3-5). 그리고 이사야 63장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다.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아야 했다. 나의 백성 가운데 나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 7

### 사무엘상 제14장

#### 요나단의 용맹으로 블레셋군이 참패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의 역사를 세세하게 검사해 보려 노력해 보았다. 그럼에도 그 설명들은 영감된 말씀이 포함하는 것에 비추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어느 부분의 경우는 아주 희미한 의미 파악에 그치고 만 경우도 많이 있었다. 아마 성경의 단원과 그 단원에 대한 설명에서 임의적인 경우도 없지 않았다. 첫 세 왕에 관한 전체를 세세하게 살펴 간다면 아마 몇 권의 두꺼운 책이 요구될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윤곽만을 파악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장에서 우리는 부적절한 수단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을 제압하는 사건을 공부하게 된다.

사울은 육 백 명 가량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게바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블레셋군의 전초 부대는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석류나무 그들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과 아주 걸맞는 장소이다. 그 이유가 석류는 선과 진리에 관한 과학물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과학물은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 안에 있는 기억에 든 말씀에서 온 교리들을 말한다. 이사야서의 한 문단이 위 본문에 관한 설명의 실마리를 갖게 해준다. “아얏에 이르고 미그론을 거쳐 미그맛에서 짐을 풀고 골짜기를 건너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으면 라마 사람은 놀라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은 달아나리라” (10:28,29). 그리고 다음 장에서 위 인용 구절이 이렇게 이어진다.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돌아난다” (이사야 11:1). 이 세 절은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그론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울, 그는 어떤 큰 돌과구가 있어 불레셋의 심장을 관통해 버리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감을 주고 싶어했다. 요나단은 자기 무기 당번과 함께 아버지 곁을 슬쩍 떠났는데, 그들의 목적은 불레셋 진영을 섬뜩 놀라게 해서 혼란에 빠지게 하여 싸움의 기득권을 쥐고자 하는데 있었다. “자! 오랑개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야훼께서 손을 써 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수가 많은 적은 무슨 상관이겠느냐?” 사실 주님께서서는 이 백성들이 위급해졌을 때 많은 수에 의존해서 구원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적은 한 두 명의 사람을 선택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펼쳐왔다. 그분의 역사는 양에 의존하지 않고 품질에 의거하시어 승리를 가름하신다. 한 개 만의 순수한 진리, 진정한 진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면, 많은 가상적인 진리, 입술만의 진리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지니게 된다. 사실 잘못된 행위나 죄를 야기시키는 악들의 힘은 가상적인 진리에 의해 발휘되고 있다. 이런 악이나 잘못된 우리의 것들은 오로지 진짜 진리, 실제 속의 진리 하나만으로도 능히 깨트려 진다. 이런 실상이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에 의해, 이후 다윗이 골리앗을 자갈돌 하나로 쳐부수는 것으로 예증되고 있다.

완전한 성공으로 마무리된 요나단의 대담한 계획은 불레셋 초소로 건너가게 했고 무기 당번의 조력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보였던 불레셋군을 과감히 공격해 버렸다. 그들이 불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야 하는 길목 양쪽에는 날카로운 돌기둥이 둘 있었다. 하나는 북쪽에서 므마스르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를 향하여 서 있었다. 그리고 하나는 보세스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고 하였다. 불레셋이 보다 더 확고한 고지로 므마스르 선택했음은 의심할 여지없다. 그리고 므마스르와 게바 사이에 놓인 통로는 매우 위험한 길임은 두 바위가 양쪽에 버티고 서있는 것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두 바위의 이름, 여느 히브리 이름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탐지가 곤란하다. 권위 있는 어떤 학자에 의하면, 보세스는 빛남, 또는 미광을 발함을 뜻하고 세네는 가시가 많음이란 뜻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바위의 뜻과 이 길을 통과함에는 아주 유사하다. 양쪽에 서 있는 이 길을 통과해야 하는 곤경은 영적 싸움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표현해 주고 있다. 우리 길의 오른쪽, 왼쪽, 남쪽과 북쪽에 장진된

거짓들은 이타애와 맞서고, 믿음에 대항하여 버티고 서는 거짓들이다. 그러나 이타애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말씀 속의 순수한 진리로 무장된 사람, 이들 모두에게는 구원을 위해 자기들이 지닌 진리가 많은 적든 관계치 않고 마음속 요새인 심정과 이해성에 버티고 있는 악과 잘못들을 과감히 공격한다. 영적 싸움은 내적 싸움이요, 육과 영 또는 영과 육의 싸움인 것이다. 육(flesh)의 또 다른 이름은 자아(selfhood)이다. 이 안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거주하지 않는다. 자아는 두 개의 따로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발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 또는 자발적인 행동과 지적인 자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읽는 가운데 반대적 의미를 적용할 경우 위 둘은 하나의 육만을 만들뿐이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 성경의 언어에서 영(spirit)으로 의미되는 이 본성 역시 두 개의 부분, 즉 자발적 측면과 지적 측면이 있고 이 둘은 한 개의 영 또는 하나의 영적 인간을 만든다. 이 둘은 서로간의 관계적 연결에서 다양하게 묘사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 둘은 남편과 아내, 형과 동생, 주인과 종, 본문의 경우 용사와 무기당면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짊어진 젊은이는 의지와 이해성으로서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 의지와 이해성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다. 요나단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 오랑캐 놈(할례 받지 않은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그러자 젊은이가 답한다. “생각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저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이 둘, 심정과 지성,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사이에는 완전한 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위험 천만한 이 모험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요나단은 젊은이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쳤다. “그럼 좋다. 놈들이 볼 수 있는 데로 건너가자.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계셨거라’ 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놈들한테로 올라가지 말고, 만약 자기들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 치자. 바로 이것으로 이미 놈들은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를 삼자.” 적에게 올라가는 것과 적이 내려오는 것 사이의 차이는 자연적 상태에서 만큼이나 마찬가지로 영적 차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악과 거짓은 극성을 부리는 동안 선과 진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이는 패배의 징조가 되고 그 반대는 성공의 표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 위 두 조건 중의 선택은 적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불레셋 수비대의 양자 택일은 자기들이 배짱을 내보이기 위한 것, 혹은 두려움에 대한 암시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는 요나단의 예상에 대담한 것이 되어 면민한 판단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을 때 불레셋이

말한다. “저 보라. 히브리 놈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기어 나왔다.”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표시가 명확히 보여주는 바는, 겁쟁이들이 군대가 되어 공격자가 된 히브리인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부름에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올라갔고 그의 무기당번도 그를 따라 올라갔다. 진보에 있어서 이런 모형은 진보가 승강하는데 있는 경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습은 또 다른 교훈, 더 높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이유는 손과 발은 자연적 양 측면에서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 내는 능력은 큰 장애물을 극복하여 더 높은 성취라는 데까지 부상하게 해준다. 그래서 불레셋은 요나단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무기당번도 그렇게 처신했다.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은 첫 대전에서 하루같이 밭을 반이랑 갈아 짓히듯, 이십 명 가량 죽였다.” 영적 의미에서 숫자들은 품질을 표현해 준다. 좋은 측면에서 이십은 마음의 내면에 저장된 선과 진리라는 아껴두신 것에서 결과되는 거룩한 상태를 뜻한다. 아껴두신 것(remains)란 초기 시절의 삶에서 마음에 형성된 상태들이다. 이 상태들은 20세 전 후 합리력이 완성될 때 거절되거나 확증되어진다. 이 아껴둔 것들은 불신앙 또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일뿐인 삶을 옹호하는 신앙에 의해 파괴된다. 다시 말해 이론적 믿음이 진실이 되든지 거짓이 되든지 하는 것은 오로지 실제의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합리적 상태에 도달치 못한 이들은 설사 자기들 삶이 일찍 끝나든, 혹은 계속되고 있던 심판의 상태에 설 수 없다. 그 이유는 진리가 내적 삶의 상태를 생산해 낼 때 만이 언제든지 심판이 거행되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적을 죽인 첫 대전은 영적으로 볼 때 시간상의 “첫”이 아니라 중요도에 있어서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싸움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항들은 첫 대전에 이어 연속되어진다. “첫 대전”은 불레셋 군대를 갈광질광하게 하여 서로 치고 박게 만들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제압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런 상태는 “하루같이 밭을 반이랑 갈아 짓히듯 이십 명 가량 죽였다”는 표현에서 더 많은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밭(land)”이란 마음 자체를 상징하고 “반 이랑”이란 그 밭의 품질을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숫자 절반은 두 곱이라는 숫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반대적 의미에서 볼 때 선과 진리가 나뉘게 한 것들은 악이나 거짓과 하나를 이룬다. 믿음과 이타애를 따로 따로 구분하는 이들은 실지 무신앙과 무자비와 하나를 만든다. 밭의 범위는 황소 한 마리(a yoke of oxen)가 갈아 엮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더 특별히 묘사해 놓고 있다. 고대 시대 때에 흔히 사용했던 위와 같은 측량치는 영감된 책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의미의 출처는 황소와 멩에(Yoke)로부터이다. 황소는 자연적 애정 중의 한가지

모양새이다. 이 애정을 조절하는 것이 멩에이다. 멩에를 맨 황소란 적대 국가이든 동맹 국가 사이던 간에 어느 국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 흔히 그리고 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주님께 관해 예언적으로 말해지기를, “당신께서는 그들이 짙어진 멩에와 어깨에 맨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9:4). 그리하여 그분이 오셨을 때, 구속된 자의 축복된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멩에를 떼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멩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28-30). 본문의 경우, 살피고자 하는 것은 멩에 맨 황소 한 마리가 하루동안 갈 수 있는 땅의 면적이다. 이에 대한 의미는 또다른 본문을 찾아 읽으면 쉽게 알게 된다. 좋은 측면에서 찾아보면, 엘리야를 만나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황소 열 두 쌍에 겨리를 지워 밭을 갈면서 열 둘째 겨리를 부리고 있었던 모습이다 (열왕기상 19:19). 그 때 엘리야는 자기 겹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이는 엘리사가 예언자의 직분을 맡게 된 데 대해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 자연적 애정보다 더 높은 애정을 발휘함으로 더 고상한 선용의 분야에서 일하겠다는 표시인 것이다. 나쁜 측면을 찾아보면, 주님의 “큰 잔치”의 비유 속에 있는 둘째 사람이다. 그는 잔치에 참석 못하는데 대해 이렇게 변명했다. “나는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려 가는 길ियो. 미안하오.” (누가 14:19). 이 구절 속의 겨릿소 다섯 쌍이란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자연적 애정들을 의미한다. 하루같이 밭을 반 이상 갈아 짓히듯 하여 요나단이 죽인 군인들이란 선과 진리 또는 믿음과 이타애를 분리시킨 결과, 그 각각이 악과 거짓에 하나되게 만드는 이들, 결국 자기들의 자연적 애정들을 천국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이들을 말한다. 따라서 죄 있음에 자신을 허용하는 이들인 바, 그 이유가 그들은 죄라는 멩에 밑에 자기들 목을 스스로 밀어 넣고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 이 원리에 진리의 능력이 발휘되면 갈팡질팡하고 서로 죽이는 원리임에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인 듯 전체 체계를 입증하려드는 오류들을 표현한다. 이 오류에 대해 적군이 자기 편끼리 칼로 치고 찌르는 수라장이 된 모습으로 한번 더 묘사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광경이 관관기에서도 읽어 볼 수 있다. “삼 백 명 군대가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동안 야훼께서는 적으로 하여금 저희끼리 마구 칼로 찢러 죽이게 하셨다” (7:22). 위와 같은 요나단의 용감무쌍한 행위는 이스라엘의 시선을 모으게 했다.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보초를 서던 사울의 군인들은 불레셋군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았다.” 영적인 보초들(watchmen)이란 교회의 상태와 그 변화를 감시하는 것들, 그것들이란 마음으로 진리를 지각 가능하게 하는 변화와 상태에 관련되는 진리들이다. 이 진리 자체가 보초자로서 마음이 총명할 수 있게 감시기능을 발휘한다. 마음 속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종류와 상태에 있는 진리들 간에는 서로 연결이 있다. 더 높은 진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진리를 통해 더 낮은 진리와 교통한다. 그리하여, 더 높은 진리는, 더 낮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각한다. 그러나 더 낮은 진리는 안에 들어와 있는 더 높은 진리가 스스로를 밝힐 때까지 더 높은 진리를 지각할 수 없고 더욱이 더 높은 진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불레셋 군대가 혼란해진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사울은 결론을 지었다. 그래서 사울은 함께 있던 군인들에게 “인원을 점호하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내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 당번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느님의 궤(에봇)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 당시 하느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진리들이 질서 있게 배열을 이룰 때, 어느 진리가 나갔는지 지각되어진다. 선의 애정을 통해 어떻게 되어갔는지 주님께 상의해 보게 된다. 사제를 통해 주님께 여쭙어 보는 것은 과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수여된 특전이었는데 사울도 자신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절 민수기 27장 21절을 읽어보자. “그가 나에게 무엇을 묻고 싶을 때에는 엘르아잘 사제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잘은 우림을 써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의 지시를 따라 백성을 거느리고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해야 한다” (민수기 27:21). 그러나 사울은 신성한 지시를 받는 데까지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사울이 사제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불레셋 진영은 점점 더 소란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사제에게 “그만 두어라”하고 말했다.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사제를 통해 물어본데 대한 답을 받은 적이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주님의 인간성 안의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신성한 진리를 위한 진정되고 항구적인 기초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영화 하심을 수단으로 그분은 유한했던 모든 것, 즉 그분의 어린 시절을 시작하게 한 진리의 허상(가상)을 벗으셨던 것이다. 이는 유한한 측정치만을 지닌 인간의 거듭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상이 아닌 진짜 진리만이 영적 진리를 세우는 진정하고 항구적인 기초를 놓게 한다. 이런 이유로 사울이 행했던 모든 것은 불완전했다. 본문의 경우만 해도 사울은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전군을 거느리고 소리치며 싸움터

에 다다라보니, 적군은 제 편끼리 칼로 치고 찌르며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이제껏 불레셋에 붙어 그들과 같이 싸우러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에 가담하여 싸웠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불레셋 수비대를 쳐부숨으로 불레셋 진영에는 큰 혼동을 일으켰던 반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새로운 용기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속의 악과 거짓의 정렬된 모습이 서로간의 다툼과 분열, 공포가 증가해갈 때, 우리 속의 선하고 진정된 것들은 더욱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용기를 생산해 낸다. 그러므로 시련의 날들 속에서는 자신 속의 악한 세력을 도무지 극복해낼 수 없을 듯 보이겠지만 주님의 신성한 섭리에 있는 사랑은 우리의 어두운 시간들 속에서까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가운데, 전혀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희망의 문과 구원의 길을 여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신실해 있으면서 그분과 협동하고 있다면, 본문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것 같이 오늘의 우리 영혼에도 영적으로 해주신다. “그 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주셨으므로 싸움은 벳호론 건너편까지 번져 갔다.” 주님에 대한 믿음, 악에 저항하고자 하여 그분과 협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상태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실 없는 믿음에 합당한 결과인 벳호론, 즉 허영, 무상함까지 극복하게 해준다. 이 전투와 관련되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위협 당한 적으로부터 승리의 영광이 안겨지도록 자신을 희생물로 삼은 자,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 구원이 역사 되게 했던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다.

사울은 전군에게 맹세를 시켰다. “해 떨어질 때까지는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이니 그 때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전군은 아무 것도 먹지를 못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전군에게 다짐을 준 말을 듣지 못한 터이라, 꿀을 조금 찍어 맛보았다. 이로 인해 그는 군인들의 간척이 없었던들 죽었을까 모른다.. 어찌됐든 이 사건에도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이 담겨 있다.

본문에서 사울이 저주하는 말투는 과거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유사하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야훼께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수아 6:26). 이런 맹세, 강경한 명령은 매우 엄하게 백성들을 얹어매는 것인데, 그 명령 자체가 슬기롭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입다의 서약에서도 한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판관기 11장). 사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사울의 목적은 승리로 진전되어 가는 전투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도 있지 않게 하려는데 있었다. 이런 자연적 의미 안에 놓인 영적 의미란, 악이 다 정복될 때까지는 어떤 선도

자기 것으로 삼아질 수 없다는 것, 영적 전투자는 새로운 상태로 진입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적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군인들은 숲(들)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거기에는 꿀이 든 벌집이 있었다. 자연적 마음에 속하는 상태는 희미한 상태지만 거기에도 그 나름대로의 자연적 기쁨과 쾌락이 있다는 뜻이다. “군인들은 벌집 가까이 와서 꿀이 푹푹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가락으로 짚거나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맹세한 일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들은 꿀을 먹고 싶었지만 맹세시킨 사항이 두려웠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진정한 자아부정을 연습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요나단, 맹세시킨 줄을 몰랐던 그는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짚어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였다. 이런 여건 주위에도 주목할만한 어떤 것이 있다. 이는 법을 모른 채 법을 어겼음에도 요나단은 자기가 죄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이다. 무지해서 죄를 지은 사람도 법 밑에서 죄가 있다하여 그 죄를 받기 위해 속죄 제물을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 이유가 악을 행동에 가져다 놓는 것은 설사 그 악이 가져오는 죄가 되는 행동을 몰랐다고 해도 어찌됐든 그 행동은 악한 습관을 형성케 하는 것을 부채질 해 주기 때문이다. 이 습관은 행동을 일으키는 우리 속의 경향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설사 무지에서 행동된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고백하는 제물과 행동을 수정함으로 속죄 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어찌됐든 요나단은 죄를 지었음에도 그의 눈은 밝아졌다. 그의 눈이 밝아진 것은 그가 꿀을 먹었을 때였다. 그 이유는 꿀은 자연적 선과 그 기쁨에 상응하고, 이 선은 총명을 주고 계발시켜 줌으로 그가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아담과 이브의 눈은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열려졌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보다 본문의 경우와 더 닮은 구절은 둘째 아담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에 있다. “그 아기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택할 줄 알게 될 때는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요...” (7:15). 첫 아담은 감각적인 과학을 자기 것 삼음으로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을 획득했다. 두 번째 아담은 자연적 기쁨과 상응되는 천적 선을 자기 것 삼음으로 악을 거절하면서 선을 선택하는 힘을 획득했다. 요나단의 눈은 밝아져서 사울의 명령이 슬기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았다. 군인 중의 하나가 요나단에게 왕의 명령이 이리이러했다고 말해 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은 손도 못 대게 하시다니, 꿀 한번 짚어 먹고 나는 이렇게 눈이 다 번쩍 뜨였는데 오늘 적군한테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었던들 지금쯤은 불레셋군을 더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울은 군인들로 고통을 받게 했다. 그들이 인내심

있게 참지 않았다면 그 날의 전과는 그나마도 이루지 못했을는지 모른다. 한 방울의 꿀이 한 사람을 위해 큰 일을 해 주었다면, 아마 적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을 자유롭게 사용토록 했더라면 더 많은 전과가 있게 되었을는지 모른다. 합법적인 경우에서 전리품을 먹는다는 것은 선 자체인 것을 선을 수단으로 자기 것 삼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악이 악한 용도에 충당했던 것이 선에 의해 선한 용도에 충당되도록 돌려지는 것이다. 군인들은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지만, 그들은 블레셋을 므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며 쳐죽였다. 아얄론은 단 지파에 소속된 장소이다. 그리고 단 지파 경계에서 블레셋의 영토가 나뉘어지는데, 단 지파 외에도 시므온 지파 역시 블레셋과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시므온 지파는 의지에 있는 믿음을, 단은 선한 일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행함도 없는 지적인 믿음을 표현한 이들을 대신해서 들어맞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아얄론은 과거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운 장소로 유명하다. “그 때,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시던 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야훼께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그러자 원수들에게 복수하기를 마칠 때까지 해가 머물렀고 달이 멈추었다...” (여호수아 10:12,13). 이 구절에서 달은 믿음을, 기브온 위에 머물렀던 해는 사랑을 상징화 해서 표현하고 있다. 므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면서 블레셋을 분쇄한 것은 흠 없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싸움은 생활 속의 선에 관한 지식으로 생겨진다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블레셋을 쳐부순 나머지, “군인들은 허기지고 녹초가 되어 약탈에 나서 양, 소, 송아지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피째 먹어 버렸다.” 전투로 인해 몸이 녹초가 되는 것은 시험후의 정신적인 피로를 표현하는 말이다. 매우 피로해져 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쉬고 있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상태에 해당하는 상태이다. 시험의 씹씹이는 악과 거짓된 것을 마음에서 몰아내어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 선하고 참된 것을 마음이 확증하는데 있다. 그러나 시험이 있는 직후, 마음에는 흔들림이라는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는 악과 거짓의 영향력이 완전히 말살된 것도 아니고 선하고 참된 것이 전적으로 확증된 것도 아닌 바, 두 측면이 혼합된 상태, 이것과 저것이 교체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군인들이 약탈에 나선 것, 피째 고기를 먹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지자, 그는 전군에 명령해서 각자 소나 양을 가져다 큰 돌 위에서 잡아먹도록 했다. 자기 속이 악과

뒤섞여 있는 줄을 지각할 때, 마음의 상태가 더럽혀져 있음을 인정하면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 분리가 완성되면 선과 진리가 확증되어 자신을 비난해야만 했던 원인은 벗겨진다. 그리하여 마음은 단순함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제 사울은 주님께 제단을 세우고 있다. 이 제단은 그가 주님께 세운 첫 제단이기도 하다. 악이 종속 당하고 선이 확증 될 때의 심정 자체가 제단인 것이다. 사울의 역사에 있는 이 사건을 주님과 관련되는 가장 높은 의미와 연계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영화 하심에 관련된 신성한 진리를 그 사건 안에서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 유대 교회에서의 제단은 주님 자신을 상징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성은 우리의 제물이 놓여지는 제단이요, 그 제단은 우리가 바친 예물을 깨끗하게 해준다. 제단은 성막이나 성전 앞에 설치되어 있다. 사실 성막과 성전은 제단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제단에서 번제와 제물이 바쳐지는 바 여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첫 제단의 건축이 성막과 성전의 첫 기초를 놓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성막과 성전은 제단이 거주할 수 있게, 또는 일종의 덮개로서 제단 주위에 건축되어진 썸이다. 성경에서 대하게 되는 첫 제단은 노아가 쌓은 제단이다. 이 제단은 천적인 것들이 거짓이라는 대 홍수에 의해 살아있는 모든 원리가 끝장을 보면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형성하도록 몇몇만이 구원되었을 때 세워졌다. 이 교회의 예배가 시작되는 모습이 제단을 쌓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영적인 상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분은 인간 본성을 입으신 뒤 그것 모두를 영화 시키셨다. 이 섭리는 타락된 인류와 접촉될 수 없는 신성과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에 접근 가능케 하는 매개체이다. 이는 마치 예배드리는 제단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으로 하느님께 접근할 수 있게 장치된 것과 같다. 표현적 교회의 아버지 격인 아브라함 역시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에 그는 이사악을 바쳤다. 이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제단 뿐만 아니라 제물로서 나타나신다. 그 이유가 제단이 주님께 대한 제일 주요한 표본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단만이 주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천적 수준에서 자연적 수준으로 하강하시는 첫 단계의 주님을 표현하고 있고, 사울은 자연적 수준에서 천적 수준으로 상승하시는 첫 단계의 주님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세 열조들같이 첫 왕인 사울도 제단을 세운 것이다. 사울이 세운 첫 제단은 영화하시는 과정 중 첫 기초를 표현한다. 그리고 영화하심의 완성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저녁때까지 불레셋을 추격했던 사울은 오늘밤에 더 추격해서 모두 때려잡자고 제의하였다. 군인들은 대체로 그의 말에 동의했으나 아히야 사제는 우선 하느님께 여쭙어 보라고 제의했다. 그래서 사울이 하느님께 여쭙었더니 아무 응답도 없으셨다.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것을 안 사울은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모으고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설사 그 죄가 자기 지식 요나단에게 있다 해도 죽이겠다고 하느님께 맹세했다. 그런데도 군인들 가운데 입을 여는 사람이 없자 사울은 이스라엘 군을 한편에 세우고 자기와 요나단은 다른 편에 선 다음, 올바른 제비가 뽑혀지기를 주님께 기도했는 바, 백성들은 아니고 사울과 요나단이 걸렸다. 그리고 두 번째 제비뽑기에서 요나단이 잡혔다. 아버지의 책임 추궁에 요나단은 말했다. “막대기 끝으로 꼴을 좀 짚어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을 사형시키라고 선언할 때 군인들이 사울에게 간청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번 대승을 안겨준 요나단을 죽이시다니 안될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아훼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리하여 요나단은 군인들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 번 등장하는 사실 중의 하나는, 누군가 한 명이 명령을 어길 때, 오늘 본문의 경우같이 비록 당사자가 명령을 모르고 저질러진 위반이라 해도 그 행위는 하늘 문을 닫히게 하고, 때로는 지옥을 불러 재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는 그 사실보다 더 깊은 교훈적 의미가 놓여 있다. 그 의미나 교훈이 사도들의 다음 말이 표현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누구든지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한 조목을 어기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 2:10). 하느님의 법칙은 이와 같은 연결을 갖고 있어서 전체에 대한 위반 없이 한 계명만을 위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천국과 지상,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계명이라는 10개의 황금 고리 중 한 고리가 빠질 경우 둘 사이의 연결은 끝장나고 만다. 만일 우리의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둘 사이의 하나됨, 하나로서의 행동은 중지되고야 만다. 만일 마음이 분단되어 있다면 기도의 응답은 없는 채 침묵 속에 처박혀 있게 된다. 그리고 적들은 다 정복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사도가 가르치는 경우 이러하다. “사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16,17). 사실 요나단의 명령 위반은 죽을 죄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의 위반은 글자상의 위반일 뿐 영의 차원에서는 위반한 게 아니다. 비록 사울이 천명하는 바대로 그는 글자상의 위반을 범했는지 몰라도

일반적 증거와 명령 속의 영은 군인들 전체가 호소했던 바와 같이 방면 조치하라고 말하고 있다.

사울은 불레셋군을 더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가고 불레셋군도 자기 고장으로 물러갔다. 전투 상태가 끝났을 때 전투하던 원리들의 휴식이 있게 된다. 그러나 어느 쪽이 상대쪽을 점령해서 있게 된 휴식이 아님을 위 구절은 넉넉히 암시해 주고 있다. 사실 사울은 불레셋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적대 국가를 정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울은 모압, 암몬백성, 에돔, 소바왕, 불레셋 등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어 이스라엘 왕위를 굳혔다.” 신성으로부터의 진리가 통치 형태를 갖출 때, 갖가지 종류의 악과 거짓에 실제로 대적하게 된다. 그리고 비록 악과 거짓을 정복 못한다 해도 그것들을 매우 고달프게 만든다. 점차 악과 거짓의 역류가 느껴지게 하여 더 흔들거리게 하면서 언젠가 종속시키고야 만다. 이 종속은 정복하는 힘이 획득되어야 가능하다. 어찌됐든 이말렉과 불레셋은 이스라엘의 적들 중 가장 중요한 적에 해당되는데, 이말렉은 내면의 악에 바탕을 둔 거짓을, 불레셋은 외면의 악, 즉 믿음만으로 된 실제의 형태에 바탕을 둔 거짓을 표현한다. 이 원리(불레셋)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으로 표현된 선에 바탕을 두는 진리와 더욱 직접 반대되는 원리들이다. 그래서 “사울은 평생 불레셋과 격전을 벌였다.” “믿음만”이라는 원리와 격전에는 이타애와 일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진리들의 획득이 꼭 필요하고 그 진리로 이끌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이를 본문은 이렇게 그리고 있다. “그래서 용감하고 힘센 사람은 눈에 뜨이는 대로 등용시켰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저자는 사울의 가족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사울의 아들과 딸이란 사울과 그의 아내로 표현된 진정한 이타애와 하나를 이룬 올바른 믿음에 의해 생산된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들이다.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이란 은총의 형제라는 뜻이다. 군대 사령관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이후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살피게 될 것이다. 군대란 거짓에 대항하여 싸우는 교회의 진리들을 의미하고, 그 군대 사령관이란 진리들 중 제일 가는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 진리를 수단으로 작은 진리들이 배열 정돈되는 것이다.

## 사무엘상 제15장

## 사울이 아말렉을 쳐부수려 보내지다

신약성서가 지니는 두 번째 가는 중요한 축복이라면 그것은 구약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처방에 살아있는 특전의 두 번째 가는 것이라면 기독교 출발 이전에 있던 교회의 진정한 본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교 처방과 기독교 처방의 차이점, 그리고 각 처방에 속해 있게 된 성경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독교는 유대인이 행했던 실제의 일을 채택하기도 하고 그 영을 흡수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족들이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분의 총애를 받은 백성이라고 가정해버리면, 그 민족들이 했던 것은 전부는 아니다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느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어 신성한 권위 아래 있다고 간주해버리면서 그들의 행동들은 하느님의 허가로 하느님의 뜻을 모방한 듯 여기고 만다. 어떤 이들은 가상하기를, 유대인의 성경은 유대교의 처방이 끝남과 더불어 그것도 중단되어야 하는바, 기독교를 위해서는 유대인이 말하는 성경은 어떤 권위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까지 잘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빛으로 비쳐본다면, 구,신약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런데도 두 성경은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유대인의 성경과 기독교의 성경은 바깥쪽 형태에서는 폭넓게 다르나, 안쪽인 영적 의미에서는 완전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다. 두 처방은 같은 게 없지만 그들은 서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대칭 되는 형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자연적인 것들은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것이 되고 있다. 유대인에게 에집트는 그들의 세계였고, 사막을 횡단한 뒤의 가나안은 그들의 천국이였다. 번성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요, 장수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멸에 해당되었다. 그들의 적이란 자기들의 일시적일 뿐인 세상적 성취를 가로막고 서는 이들이요, 그들의 전쟁이나 무기는 육욕인 것, 세상적인 것뿐이었다. 이런 그들 역사를 영적으로 통역해놓는다면, 그들 역사는 기독교인의 체험을 언어로 묘사해놓은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읽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신성하게 훈육되는 어떤 것, 영적인 가르침을 보게 되리라 확신한다. 가나안의 일곱 나라를 멸절시키는 전쟁은 깊은 도덕적 원인을 가지고있었다. 그 이유는 한 나라가

통째로 부패될 때 지상에서 제거되어야 마땅한 그 민족이 보존되고 복지를 되찾으려면 그 도덕적 결함의 제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교전한 나라들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구성하는 선함과 진리의 원리에 상반되는 악하고 거짓된 원리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유대인이 치른 전쟁에 어떤 영적인 교훈이 우리를 위해 담겨있게 된다. 유대인의 적대 국가들은 감각, 특별한 어떤 악이나 거짓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암몬족이나 블레셋 족이 표현하는 것들은 이미 앞 장에서 살핀바 있다. 이제 또다른 악의 성격, 아주 유한한 것 중의 하나를 이제 살피고자 한다.

아말렉은 가나안 땅 경계선 주변에 거주하는 흉폭한 민족들이다. 이스라엘은 흥해를 건넌 뒤 그들로부터 처음 공격받았다. 이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매우 목말라 허덕거리고 지쳐있는 기회를 틈타 공격을 감행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심히 범죄 하였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위반한 악에 상응하는 속성을 지닌 국가들에 의해 처벌되어졌다는 것이다. 갈증으로 고통받을 때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신성을 부정해버리는 정도까지 불평했다. 불평해대는 이스라엘과 그에 앙갚음하듯 공격하는 아말렉 사이에는 표현적 유사함이 있다. 스웨덴봄은 이스라엘의 세 왕을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히 아말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다. “어떤 종류의 인격이 아말렉이 표현하는 내면의 악에 근거를 두는지 살펴보는 것이 보다 쉬울 것이라고 본다. 내면의 악(interior evil)은 인간 안에 내향으로 감추어 놓인 것, 그 사람의 의지 안에 축적되어 있는 악, 그로부터 생각 안에도 있게 되는 악, 언어나 행동, 용모 같은 바깥쪽에서 전혀 추적되지 않는 악이다. 이와 같은 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특히 정직이나 정의, 이웃 같은 사랑의 가상(겉질)속에 그 악을 감추어 숨겨놓는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악행만을 생각하고 가능하면 타인을 수단으로 그 악을 행하여 자신으로부터 악을 행하지 않았던냥 한다. 그들은 악 자체를 변장시켜놓아 악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이들 삶의 큰 기쁨은 어떤 음모를 꾸미는데 있고 계략도 은밀하게 감행한다. 이것을 우리는 내면의 악이라 부른다. 이 악 가운데 있는 이들은 마귀(genii)라 불리고, 저 세상에서 이것들은 영(spirit)이라 불리는 외면의 악과는 분리되어있다. 이 악귀(evil genii)는 사람 뒤쪽 즉 등쪽에 그들의 지옥을 가지고 있고 그 곳에는 다양한 동굴이 있다. 그러나 악령(evil spirit)은 인간 앞쪽 또는 옆쪽에 그들의 지옥을 가지고 있다. 큰 사람(grand man)측면에서 이 마귀들은 소뇌(cerebellum)의 영역에 소속되고 있고 또한 무의식 부분에 신경과 섬유질을 내보내는

척추 부분에도 있다.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악에서 비롯되는 거짓은 악령들에게서 비롯되는 거짓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이다. 이 악 가운데 있는 이들은 진리들을 공격하지 않고 믿음의 선들을 공격한다. 그이유가 그들은 타락한 애정들을 수단으로 행동하여 선한 생각까지 뒤집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악들은 거의 인지할 수 없는 방법 안에 숨어있다. 이런 특성을 지녔으므로 그들의 지옥은 악령과 완전히 분리되어 거의 어떤 고통도 있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는 영적 교회의 사람들로 부터 격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이 악이 그들 지옥에서 흘러나온다면 영적 교회의 사람들은 지독하게 썩어지고 마는데 그 이유는 이 악들이 영적 교회인의 양심에 비밀리 작용하기 때문이고, 타락한 애정들을 흥분시킴으로 양심을 뒤엎기 때문이다. 이 지옥적인 악귀는 인간을 공개적으로는 결코 공격 않는다. 더구나 인간이 그것에 저항할 경우도 절대 공격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굴복하던가 양보 할 것 같은 지점에 다다른 것 같을 때 모습을 드러내어 그 인간을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 아말렉이 공격하는 모습이 이런 악귀의 공격 수법을 표현하고 있다. 민수기 14장 4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가나안 국가들에게 겁을 먹었을 때, ‘그 산에서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 내려와 호르마까지 쫓아오며 그들을 무찔렀다.’ 위 구절로부터서도 아말렉이 표현하는 이들의 성격은 명백해지리라 보고, 아말렉에 내린 주님의 심판에서 그들과 항구적으로 싸워야한다고 왜 그러셨는지, 그들은 천국 아래서부터, 일찌감치 기억 속에서까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셨는지를 납득하리라 본다.” 이상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하였을 때 섭리하시는 하느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시험에 빠졌을 때 이들을 공격한 아말렉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시험은 이 세상과 인간 만사에 하느님의 통치가 있음을 부정할 때만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이 악은 불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우리들 속에 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천상천하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부정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진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신성한 통치인 하느님의 섭리에 진정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느끼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사이에 이 악이 거점을 확보하는 형체이다. 이 형체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부정하는 것보다 더 내향적이고 더 사기성이 강한 형체이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 표현한 내면의 악에 바탕을 둔 거짓 원리인 것이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빠진 시험의 본성 역시 이러한데 뿌리를 두고있다. 이 때 아말렉의 공격은 여호수아에 의해 격퇴되었다. 그런 다음

신성한 판단은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늘 아래에서 전멸시키겠다...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출애굽기 17:14-16). 사울은 지금 이 구절을 실행하도록 위촉되고 있다. 사무엘은 먼저 그에게 상기시키기를 야훼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소리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진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즉, 에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러니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 떼와 양 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 사실 사울에게는 아말렉을 위와 같이 해치워야 할 특별한 건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의 사건은 하느님의 기억 속에서 사백여 년 간 남아있던 죄악상들이다. 하느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분은 과거와 미래 모두가 현재 일 뿐이므로 뉘가를 마음에 되불러 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 표현은 인간의 상태와 관련시켜 신성을 이해해야 한다.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할 때의 경우란, 그분의 진리를 우리 기억에서 새삼 떠오르게 하실 때 사용된다. 지상에 계셨을 때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다. 이 성령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 기억에 모두 가져다주게 된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과거의 말들을 재 수집하게 해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전의 상태를 재생산 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영적으로 기억함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내적 삶에 받아들여졌던 것만이 내적 기억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기억함이란 내향에 있는 것을 바깥쪽 삶에도 산출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전에 획득된 원리의 재생산밖에 더 다르게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행동과 노력이 주님께서 과거 사막에서 아말렉이 했던 짓을 기억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말렉은 거의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격퇴되었다. 그러나 이제 명령은 그들을 참혹하게 파괴하라는 것이다. 이 파괴가 지금 시도되어지는 이유는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왕은 선함에서 파생된 진리를 표현하는바, 이는 악에서 파생된 거짓에 정반대 된다. 완벽하게 극을 이루는 원리, 즉 극과 극이 대치하지 아니하면 상대쪽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한다. 악과 거짓이 선함과 진리에 정반대 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함으로 전투의 원인이 되는데 이는 반대되는 악과 거짓이 시험에 의해 흥분 될 때 발생된다. 그리하여 전투는 상대 쪽을 처절하게 파괴하도록 거행된다. 사울이 이러한 하느님의 위탁된 업무를

충실히 집행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은 대과업에 합당할만한 자격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한 의지를 표현한 하느님의 명령은 부분적이 되었긴 해도 일부 성취되었다. 이 명령을 미숙하게 처리한 탓에 사울은 자기 왕위를 잊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성취해야 했던 것은 다윗의 통치와 권력에 의해 더 쉽게 더 확실하게 아말렉의 완전한 정복을 이루게 된다. 이제 사울의 행동사항들에 시선을 모아 보자.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는 총동원령을 내려 델라임에서 점호해보니 보병이 이십만 이었고 유다 측에서도 일만이 가담했다. 진리와 선함에 속한 원리들을 다 모아 신성한 질서의 법칙에 의거 정렬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요, 델라임에서 수를 세는 모습이다. 지역 이름 델라임은 성경에서 두 번 언급될 뿐인데, 오늘 본문과 이사야 40장 11절에서이다. 이 구절에 연결되어 그 단어가 지닌 의미는 이 본문의 영적 의미에 대해 좋은 착상을 주고 있다. 단어 자체는 아주 어린 양, 새끼 양(young lamb)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주님의 강림에 관한 아름다운 예언과 연결되어 언급되고 있다.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대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저기 오신다. 주 야훼께서 저기 권능을 펼치시며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는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lamb)들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물고 오신다.”(40:9-11) 여호와께서 권능을 가지고 오시고 그분의 인성인 팔을 휘둘러 통치하신다. 그분은 원수들 가운데서도 왕권을 행사하실 정도로 강력한 사람으로 오시지만 (시편110:2) 한편 그분은 목자처럼 오시어 새끼 양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어주시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영적 싸움에 종사하고 사랑의 영에 감화 받기도 한다. 이 사람들은 델라임에 자기 힘을 모아 계량해야 한다. 델라임은 유다의 땅인바, 그 지역은 지혜의 순진을 상징하고 있다.

사울이 자기 군인들과 함께 아말렉 성이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먼저 이들과 섞여 사는 켈족들에게 전갈을 보내어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이스라엘의 옛 적을 칠 때 불상사를 입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켈족이 다치지 않도록 의도한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에게 베푼 친절 때문이었다. 켈족은 미디안 족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기도 했다(판관기 1:16).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러 왔었다(출애굽기 18:1). 이스라엘이 사막에 진입한 후 아말렉은 그들을 공격한 첫 민족이 된 반면, 켈족은 이스라엘 편을 든 첫 민족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즉각 뒤따라 켈족의 언급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사울의 친절한 연락으로 켈족은 아말렉의 궤멸에서 유보되어졌다. 위와 비슷하게 두 민족이 붙어있는 모습이 관관 기도온 시대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모든 동방의 백성들이 메뚜기 떼처럼 거기 평지를 덮고 있었다”(7:12). 이렇게 많은 군대들이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횡겨 먹은, lapped) 삼 백명의 군대에 의해 무찔러졌다는 것은, 악은 병렬상황에서 극복될 뿐 아니라 그 반대상황에서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아말렉이란 이름 자체는 개처럼 핥다(lick up)라는 뜻이다. 켈족을 미디안 족과 비슷하게 간주해본다면, 선한 자연적 기질을 지녔으나 그 자체로서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이들을 표현한다. 그러면 왜 이들이 날카롭고 뒤집혀진 이해성을 가진 아말렉 사이에서 발견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단순히 선한 것은 교묘한 추론에 쉽게 빨려들고, 계획적인 설득에 쉽게 녹아들고 마는 약함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명칭한)선함은 선보다는 악에 더 쉽사리 끌려갈 수 있는 성향이다. 그 이유는 악은 비둘기의 순진(해가 없음)은 없고 오로지 뱀의 지혜만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은 그 씹씹이에 있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어 “설마 인간이 그럴 리가,” 라고 말하는 단순한 선함의 기대를 쉽게 유혹해내지만, 선은 재촉하여 뭔가를 하도록 독촉하려 들기보다는 뭔가를 확신시키려는 쪽에서 더 강하게 작용할 뿐이다. 위 두 민족이 거듭나고 있는 마음 안에서 표현하는 원리까지 생각해보자. 마음 속에 위 두 원리들이 서로 모여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두 원리가 뒤섞이지 않게 설비해 놓으시어 장차 싸움이 있을 경우 선이 악과 더불어 멀해지는 일이 없게 배려하신다. 그러므로 마음은 그 둘을 식별할 수 있게 훈육된다. 켈족이 떨어져 나오자 사울은 아말렉을 공략해서 “하월라에서 시작하여 에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까지 따라가며 쳐죽였다.” 수르 광야는 과거 하갈이 자기 여주인의 얼굴을 피해 달아날 때 고생한 장소이다. 지금 아말렉이 거주하는 이 구역은 창세기 25장 18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절을 읽어보면 이 구역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이 소유했었던 곳임을 알게된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월라에서 수르에 이르는 지방에 퍼져 살았다. 수르는 에집트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있다.” 이 지방은 과학과 추론 사이에 놓이는 표현적 특성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과학, 지식, 추론은 등급별 시리즈를 형성한다. 과학은 기억 속에, 지식은 생활

속에, 추론은 이해성 속에 각기 존재한다. 과학과 추론 사이에 놓인 것이 지식이다. 달리 말하면, 기억과 이해성 사이에 놓인 것이 생각이다. 하빌라와 수르는 에집트와 아시리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차이점은 에집트와 아시리아는 넓은 측면인 반면 하빌라와 수르는 좁은 측면 즉, 세부측면에 한정된다. 아말렉을 하빌라에서 수르까지 쫓아가 쳐부순다는 것은 내면의 악에 바탕을 둔 거짓 위에 진정한 진리의 판결이 집행될 때, 과학이 기초를 둔 기억에서부터 추론이 자리를 두고 있는 이해성까지 이르러 판결은 집행된다는 말이다.

넓은 측면에서 볼 때 아말렉이 쳐 부셔지긴 했지만 완전한 하느님의 목적은 덜 성취된 채 남아있다.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은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 기름진 짐승과 새끼 양들과 그밖에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리기가 아까워 그대로 살려두고 쓸모 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렸다.” 싹 쓸어 없애야 하는데 뭔가를 남겨둘 때, 사울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될 것은 생각해 볼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그 죄는 그를 심각하게 벌할 만큼 확대되어 부각되고 있지 않은 듯 보여지고 있다. 이럴 경우 죄는 행동의 본성에만 반드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명령의 위반에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죄는 행동이 무엇이든 간에 똑같게 된다. 그러나 이 원리는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 원리는 말씀의 글자에 국한된 것만을 받쳐 줄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아담이 금지된 과일을 먹은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에게는 불순종이라는 것 외에 악은 없는 듯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모든 예들은 글자가 표현하는 것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신성한 정의는 너무나 순수해서 해를 주지도 않는 본성 속에 있지도 않은 것을 죄 있는 행동으로 만들지 못한다. 만일 사울의 죄가 영원한 결과를 수반하는 영적 행동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면 그의 죄는 그렇게 심각하게 견책되고 처벌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각을 살려둔 채 잡아 놓고, 기름진 가축 떼를 살려둔 것, 이런 것이 그 소유자의 도덕적 부패나 죄와 관계되지 않은 이상 탐욕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자체 악에 속한 성격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파괴하라는 명령 역시 아예 없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울에게 주님이 내리신 행동 강령은 미래의 모든 세대에 있게 될 교회 소속인들에 대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영적 진리를 탐사할 수 있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있어진 명령이다. 몰살시키라고 내린 명령에 포함된 진리, 가르치시고자 의도된 교훈들에 대해 이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에서 따온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일이 있을 후 야훼의 말씀이 사울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주님이 후회하신다는 것, 그분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인간이 후회한다면 그것은 견해가 바뀐다던가 목적이 변하는 것, 그것이 이해성에 속하든 의지에 속하든 어느 쪽이 변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다. 이해나 의지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후회(회개)로 성경에 두루 있다. 이 변화들은 불완전한 존재, 죄 있는 존재에게만 있어지는 후회일 뿐 하나님에게는 하등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항을 명백해지도록 주님께서는 사울로부터 왕국을 찢어내서 동쪽 가운데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을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 시작에서 끝을 이미 보시는 그분은 결코 실수를 만드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회할 건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할 수도 없는 분이라도 해도 성경에서 후회의 뜻을 그분께 돌리는 듯 기록되어 있는 구절에도 우리를 가르치는 의미는 가득 차 있다. 그분을 위협해대는 악에 대해 주님이 후회하신다고 말해 질 경우, 이 후회는 자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분이 행하신 것들, 예를 들면 인간을 만드신 것,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들을 후회하신다고 말해질 경우, 거기에는 자비 외에도 어떤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다. 가장 깊은 측면, 천적 의미에서 말씀 전체는 육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취급하고 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일부 살핀바 있듯이, 사울의 역사는 그분이 입으신 인성이 신성한 진리(Divine truth)로 만드시기 전에 있던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으로서의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인성을 입으셨으며 타락한 본성에 든 인간 공통적인 약한 부분까지 입으셨는데 대해 후회할 수 없으셨다. 그럼에도 인간 후회와 아주 비슷한 어떤 것이 일어나는 항목들이 그분의 어린 시절 상태나 경험 안에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주님은 여느 사람들처럼 죄의 상태에서부터 의로운 상태로 건너가지 않았고 따라서 회개(후회)가 있으신 적도 결코 없었다. 그러나 회개와 거의 닮은 인간 상태나 그 상태의 변화를 통과하셨다. 참으로 주님은 그분이 영화하시는 과정에서 통상적 인간이 거둬나가는 과정의 모든 단계들을 거치셨다. 인간은 자연적, 영적 양면에서 상태의 변화를 거친다. 그분도 유아, 어린 시절, 젊은이 시절, 성인시절이라는 상태들을 통과하셨다. 더욱이 그분은 삶의 자연적 상태에서부터 영적 상태로, 영적 상태에서부터 천적 상태에 이르는 더 큰 과정들을 통과하셨다. 게다가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날로 지혜와 총명을 더 하셨다. 그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똑같이 자라셨다.

그래서 신성한 자연적 존재로부터 신성한 영적 존재와 천적 존재가 되었다. 통상적으로 인간은 자연적, 영적 삶의 낮은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건너가면서 자기가 털고 일어선 그 자리(수준)에서 자기의 불완전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시험이나 시련 속에 있는 동안 그가 체험하는 것은 고작 그 시련이나 시험의 피상적 본성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거듭나는 삶의 초기 상태에서 있게되는 시험은 악의 더 낮은 깊이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더 낮은 깊음은 초기 상태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느껴지거나 눈치 채이지 않고 더욱이 흥분시킨 악의 진정한 속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악은 일반적인 것일 뿐 세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자신이 생각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 일반적 사항에 해당될는지 모른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왕 아각은 살려져 있었고 좋게 보이는 것도 그대로 보존했었다. 이런 것들과 상응되는 상태를 주님은 통과하시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경험을 가지셨다. 이런 사항들이 그분의 모형을 그려내는 이들의 행동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사울은 이런 모형들 중 더 부각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사울과 그의 군인들의 죄들은 그분의 시험을 표현하고 있다. 여느 사람들과 달리 그분은 악의 권세나 악과의 싸움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초기 삶에 있던 시험이 그분을 공격하는 악의 가장 깊음에까지 접근되었던 것은 아니다. 주님의 영화하심과 인간의 거듭남은 서로 닮음 꼴을 형성한다는 내용을 취급한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위 사항을 잘 알게 해 준다. “모든 사람은 지식으로 자기가 획득한 선과 진리에 의해 우선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버터간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 그는 악과 거짓들을 판단해 간다. 모든 사람들, 그가 영적 전투에 처음 임하게 될 때 자기를 버티게 해준 선과 진리들이 자기 것, 즉 그것들이 제 잘난데서 비롯되었다고 상상한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저항해낸 힘이 자기에게 근원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거듭나기 전, 선과 진리는 자신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함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임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악이나 거짓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악령이 악과 거짓을 흥분시키고 주입한다는 것, 더구나 악령을 수단으로 자신이 지옥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 지옥은 전력을 다해 자신을 누른다는 것, 마치 파도에 부딪치는 모든 것에 파도가 밀어붙이는 힘과도 같은 악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는 지독하게도 없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어찌됐든 거듭나기 이전일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고 있다고 상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상상하도록 허용되지만

그 후에 차츰 그는 계발되어진다. 선함과 진리가 자신으로부터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항하는 힘 역시 자신의 힘이라고 여기면서 선과 진리를 수단으로 악과 거짓에 맞서는 상태에 있을 경우, 비록 그에게서 선과 진리가 나타나 보인다고 해도 진정한 선과 진리는 아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이기심이 그들 안에 있고 그는 승리의 공적을 자신에게 돌리고, 주님만이 싸워 정복해 주실 수 있는 악과 거짓에 대한 싸움을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로 떠벌린다. 이런 경우에 있는 진리는 시험에 의해 거듭나는 이들에게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주님의 아주 어린 시절 그분이 가장 비통한 악과 거짓의 싸움에 소개되었을 때 그분도 위와 같은 상상을 마음에 품을 수밖에 더 다른 도리가 없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간성은 계속적인 전투에 소개되고 그분의 신성은 계속 승리해 가서 서로 하나되는 것이 신성한 질서이기 때문에 선과 진리를 수단으로 그분 역시 외적 인간에 소속되어 있는 악이나 거짓과 싸워 가셨던 것이다. 이런 선과 진리들이 모두 신성은 아닌 까닭에 가상적인 선과 진리들이라고 불린다. 그분의 신성 측면이 정복 할 수 있도록 인성 측면에 소개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분의 첫 전투에서 가지고 싸우셨던 선과 진리들은 어머니 쪽에서 받은 유전적인 것의 얼마로 얼룩져 있는 한 그것들은 신성은 아니다. 그러나 점차로 악과 거짓이 정복되어감과 동시에 그것들은 완전해져 신성을 만들었던 것이다. 가상의 선과 진리들을 신성 같이 착각되는 선과 진리들일 뿐 신성한 선과 진리는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신성으로부터 존재할 뿐 그 자체 스스로 신성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들은 천사나 인간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서 유한한 자질 안에 받아들여짐으로 유한한 그대로 이다. 이와 같은 것이 주님의 초기 싸움에서 어둠에 맞서졌을 때 가졌던 선과 진리들이고 이를 신성한 진리로 만드시는 준비물로 삼으셨는 바, 이를 수단으로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 만드셨다. 이 유한한 것, 즉 눈에 보이게는 선과 진리 같은 것은 어머니 쪽에서 얼마 정도가 유전되어 얼룩져 있었는데, 이것이 사울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는 그의 바둑판 같은 역사를 통해 믿기 어려운 정도인 현실 자체를 봄으로서 주님의 내적 삶과 경험 중 초기 부분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게된다. 주님의 초기 시절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은 그분의 인간적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불완전을 벗고 그분의 신성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무한한 완전을 입으셨을 때와 비교한다면 보다 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왜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백성은 죽였는데 왕은 살려주었는지, 왜 하찮은 것은 다 없애면서 좋은 것은 아껴두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늠하리라 본다. 악과 거짓의 넓은 측면의

원리들, 백성들은 파괴되었지만, 왕 같은 통치하는 원리는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시험과 승리가 결국 악의 뿌리 까지 뽑는 마지막 까지 달성하는 것은 이상형일 뿐 아직은 그 뿌리에 접근도 못하고 있다. 내적 인간에 있는 것, 본문의 하찮은 것들, 눈에 보이는 악과 거짓은 무엇이든지 다 없애버렸지만 선하고 진정한 듯 눈에 보이는 것은 보존되었던 것이다. 이제 더 살펴볼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데 대해 후회하신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사울이 표현한 그분에 관련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다. 후회는 어느 경우라 해도 신성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치 않는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경우에서 주님의 신성과 인간본성 사이에 하모니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본문에서도 주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하모니가 있기를 원하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과 가상적인 것 사이에 있는 선과 진리는 비록 주님 안에 있다해도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이었을 뿐 아직 하느님-인간(God-man)은 아니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후회하시는 신성한 존재란, 연약한 인간성을 입지 않았던 것이 더 나올 뻔 했지 않았을까 라던가, 약한 인간성 속의 불완전함이 악의 권세에 맞서 그분의 초기 싸움부터 명백히 드러나야만 하신데 대한 후회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 속의 불완전함은 신성한 완전함과 도저히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것, 달리 말해 본다면,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은 영원할 수 없고 단지 주님의 인성 앞에서 일시적으로 통치하는 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머니 쪽의 인성에 있는 이기심은 통상적 인간 존재 같이 어린 예수 안에서, 즉 그분 속의 유전적 악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자체는 명백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정신 발달의 과정 중에 흥분시켜주는 매체에 의해 깨어날 때까지 아담의 모든 아이들의 가슴 안에서 휴면 상태에 있다. 그런고로 해서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후회하시는 데에는 불일치 같은 게 우리에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 사울이 왕이 되는 초기에는 그에게 없었던 듯 보인 악한 자질들이 드러나기 전까지에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데 대해 주님이 후회하신 것은 아니었다. 이를 풀어 말하면, 유전적 악이 주님의 어머니 쪽 인성 안에서 그 자체로 전개될 때까지 신성과 인간 사이의 대비되는 사항들은 신성한 존재가 후회하심으로 표현되는 실체가 지각되는 것, 그 자체는 드러내어지지 않았었다.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아뢰게 부르짖었다.” 주님의 초기 상태와 경험에 관해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분을 상상해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분은 선과 진리를 수단으로 악과 거짓에 대항하는 전투를 수행하였고, 이 수행의 결과로 나오는 능력으로 그분의 도구인 선과 진리들은 그분 자신의 것이 되어 외적 인간 속에 있었다. 이제 본문은 내적 인간 쪽으로 향하면서 외적 인간의 조건을 감지하게 해주고 있다. 그 결과는 내적 비통함, 그러므로 신성 자체와 더욱 가까운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더욱 강한 바람이 오고 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는바, 주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시어 하느님께 밤새 기도하셨다. 사람의 아들을 수단으로 경험되는 정신적 고난의 어두운 상태가 본문에서 사무엘이 애가 타서 밤새 울부짖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와 상응되는 주님의 말씀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 내적 담화는 더 간절한 기도로 더 강화되어 외적인 것에도 가져다 놓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상태라는 새벽에 내적 인간에 전달된 진리는 바깥쪽에도 역시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 ‘사울 왕은 오는 길에 가르멜에다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놓고 그 곳을 떠나 길갈로 내려갔읍니다.’” 본문의 가르멜은 그 이름 자체에서 파생되는 열매 풍성함이나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이름은 아니다, 산으로서의 가르멜이라기보다는 성읍으로서의 가르멜로 참작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뜻은 이해성에 있는 원리는 의지에 있는 원리와 같은 것을 가진다는 것이 되고 자연히 내적인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를 뜻한다. 사울이 승전비를 가르멜에다 세운 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사무엘하 18장 18절에도 있다. “그런데 압살롬은 살아 있을 때 자기 이름을 이어 갈 아들이 없다고 해서 왕의 계곡에 돌기둥을 세운 일이 있었다. 그는 그 돌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는데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 부른다.” 사울의 상태나 그가 표현하는 것은 승리로 자기를 추켜세우는 어떤 것에 관한 생각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사울은 가르멜을 떠나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은 아말렉의 수모를 “벗기기” 위해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위의 성경 줄거리를 가장 깊은 의미, 즉 인성 가운데 계신 주님에 관련하여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 관련되는 내적 의미, 그분의 영화하심의 형상인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좀 더 실감 있게 알게 되고, 그분이 연약한 인간 본성, 타락된 인간 본성을 입으신 목적은 인간이 고통받고 겪게되는 것을 거쳐가심으로 그분이 이룩하시는 영화하여 가심에 우리도 참가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더 확실히 알게 된다. 말씀 안에 담긴 가장 깊은 의미를 관조하게되면 더 심오한 가르침과 영향을 받을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육을 입으신

상태에서 주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자비로운 일들 하나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한 원형이요, 근원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지에 다가가거나 그 안에 머물기에는 너무 멀고 원대하다. 인간 거듭남의 거울 안에 비쳐지는 모습같이라도 주님의 영화하심을 관조해간다면 그 정도 만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충분해지리라고 본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나자 사울은 이렇게 말했다.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야훼께서 시킨신대로 다 하였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였다. 사무엘이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일이요? 또 소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사울이 ‘군인들이 아말렉에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 온 것입니다. 그밖의 것은 모조리 없애 버렸습니다.’ 사울의 즉각적인 응답에서 보여지듯 자기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치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주님의 명령을 잘 이해했다는 것이 저절로 보증되도록 사무엘을 만나자 야훼께 복을 받으시라는 말과 자기 행동의 결과를 결합시키고 있다. 사무엘이 묻는 말, 양이나 소가 우는 소리는 어찌된 것이요 라는 질문에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도록 교묘하게 대답하고 있는바, 빼앗아 온 것은 군인들의 짓이고 모조리 없애라는 명령의 말에는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자연적 수준의 인간이 댓가를 얻어내느라 열심이듯, 사울은 책임을 피하려고 분주하고 있다. 그가 선에 대한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악에 대해서는 책임지기를 거절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도 영적 진리가 있어 우리를 가르친다. 거듭나는 삶의 초기 수준에서 자연적 마음은 공적과 책임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피상적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는 모른다는 말이다. 종교적 가르침 중 가장 쉽고 가장 먼저 있게 되는 것 중 하나는 하느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바 자신의 선함을 자기 공로로 돌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악을 행할 경우 그 죄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 그럼에도 자신의 미덕은 자랑하려 들고 악덕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른다는 것 등등이다. 이 주제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용적인 교회의 교리가 있다. 만일 모든 선을 천국으로부터, 모든 악은 지옥으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선을 자기 것 삼지도 않아야 하고 악에 대해 죄의식도 없어야 한다. 선이 자기 것이라고 간주함으로써 해서 우리는 자신 속의 선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악이 자기 것이라고 간주함으로써 해서 우리는 악을 정당화시키려들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그 속에서 발생하는 죄과는 거절된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자연적 마음을 사울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영적

마음을 통해 주님의 빛이 들어 올 때 이런 상태는 드러나져 이런 상태가 어떠한 것들인지 자연적 마음 자체가 밝혀진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늘어놓자, 사무엘은 지난 밤 야훼께서 내리신 말씀을 전한다. “그대는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야훼께서 그대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소...” 거듭나는 삶의 초기 과정에 있는 마음은 의지가 이해성의 방향 아래 조절되게 하려드는 것이다. 이 의미가 위의 구절 “사울은 본래 하찮은 사람” 이라는 것에 담겨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임을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그가 얼마나 불완전하게 임무를 마쳤는지 꼬집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주님이 시킨 대로 다 수행했다고 빼기면서 아말렉왕 아각만 사로잡고 나머지는 다 파괴했다고 우긴다. 단지 군인들이 길갈에서 주님께 바치기 위해 양떼 소떼 중 좋은 놈만 남겼다고 핑계 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우리에게 기억되는 다음의 말을 해주고 있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낫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의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의무는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힘을 더 얻으려는데 있다. 하나님은 자비를 요구하시지 제물이 아니다. 그리고 번제를 바치는 것보다 더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이다. 정규 축제에 관한 율법은 정신적인 율법을 위하여 주어져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구약 시대의 것보다 신약 시대에 주어졌던 예배는 정신적 법에 관한 의미를 수행하는데 더 도움을 주고 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유일한 일임은 틀림없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그분께 경청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더 나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순수하고 거룩한 상태의 예배가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보조해 주는 두 번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에 기초한 예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예배드림으로 때움질 할 수 있을까? 뉘우침이 심정 속에 존재하면서 기도가 입술에 담겨져야 순서가 맞는다. 그 이유는 심정 속에 든 것이 입으로 말해지기 때문이다. 바쳐지는 제물 자체도 순수해야 한다. 율법 아래의 제물들은 흠없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단 위에 바쳐지는 동물들은 인간 마음 속의 선한 애정들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런 제물들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얼룩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느님께 바쳐져야 할 것이다. 아말렉의 양과 소들은 순수하고 순진한 애정들을 표현할 수 없는 동물들이다. 그 동물 자체만을 두고 생각한다면 얼핏 보기에는 흠이 없는 듯 여겨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의 소유주들은 이미 도덕적인 부패 속에 있어 왔다. 따라서 소유주와 그들의 동물 모두는 완전히 파괴했어야만 했다. 어떻게 그것들이 주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단 말인가? 탐욕으로 물든 옛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한다. 새 애정의 새 사랑만이 주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은 영적 삶의 최말단에 있어야 할 조건이요, 영적 싸움에 있어야 할 두 개의 큰 목표물이다. 이것들은 주님 자신의 지상 삶에서의 목표물이기도 했다. 그분은 옛 사람, 마리아로부터 상속받은 연약한 인간성을 십자가에 처해지게 하시어 신성으로부터 오는 인성, 새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셨던 것이다. 이와같은 완전한 영화하심, 이와 상응되는 인간의 완전한 거듭남이 위와 같은 사울의 행동에서 표현될 수 없고 더욱이 그의 통치로도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거절한 사울을 향해 주님께서도 그가 왕으로 있는 것을 거절하셨다고 사무엘은 발표하고 있다. 이 발표는 처음이 아니다. 예언자가 그의 왕국을 몰수하리라는 발표는 두 번 째에 해당된다. 처음의 경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칠 일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여 제사장이 해야 할 제물바치는 거룩한 임무를 가로챈 죄를 범했을 때였고, 지금의 경우, 그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올리라고 건의함으로써 주님을 혐오하게 하고 있다.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사무엘의 발표가 있자, 그는 갑자기 자신을 낮추어 빌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야훼의 명령과 선생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지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 사울의 말은 왕의 뜻이 군인들에 의해 위압받은 두 번째에 해당된다. 왕의 성급한 명령 때문에 야기된 명령 불복종의 죄에서 요나단을 살리고자 하여 있어진 군인들의 탄원은 옳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한다는 명령을받고도 쓸만한 것을 유보해둔 본문의 경우는 잘못되었다. 이는 더 낮은 원리가 더 높은 것을 통치할 경우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또는 열정이 지성을 통치할 경우와 바람이 의무 측면을 제압할 경우를 말해주고 있다. 본문의 경우에서 야각 왕과 가축떼를 살려두는 결과가 사울에게서 발견된다.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 또는 첫째가는 것과 최말단에 해당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두 개의 양 극에 있는 원리가 파괴해버려야 할 것을 남겨둘 때 검증하는 작업이 제아무리 정밀히 있어졌다 해도 거기에는 지독하게 불완전한 게 남아 있기 마련이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같이 갈 수 없소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내실 것이요.”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서 가려고 하자, 사울이 도포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일렀다.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내시어 동쪽 가운데에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 사울이 사무엘의 도포자락을 찢듯이 자기의 심정을 찢었다라면 그의 죄는 용서되고 왕국 역시 그에게 계속 유보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뒤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그의 회개는 깊지 않았고 자기 죄를 느끼는 정도는 그가 지은 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죄를 용서 받게 해 달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한번만 보아 주십시오. 내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생께서 저와 함께 돌아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갔다. 사울은 야훼께 예배를 드렸다.” 이상의 구절에서 우리는 사울이 표현하는 진리의 외적 특성, 그것이 영화하시는 주님의 과정에 관련해서 이든지, 거듭나는 인간의 과정에서 이든지 양 쪽 모두에 있게 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측면에서 후회라 불리는 것에 관한 예를 사무엘을 통해 보게 된다. 그는 처음에 사울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애원하는 바람에 응낙하고 있다. 이 모습은 자비에 관한 표시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간구에 대한 결과였는바, 이는 인간 마음에 있는 상태의 변화는 신성한 마음에 있는 의도가 바뀐 듯 인간의 눈에 비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된 진리는 이러하다. 주님은 자비 자체이시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인간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듯 사무엘이 사울과 같이 간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각 처리되었어야 할 일이 미결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말렉왕 아각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아각은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다고 생각하며 좋아서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그러자 사무엘이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네 어미도 그 여자들 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 하며 야훼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 하였다.” 아각은 아말렉으로 모형화된 내면에 있는 것, 내면의 악에 바탕을 둔 거짓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아각을 난도질 했다는 것은 악 또는 거짓 원리는 그것에 정반대 되는 선 또는 진리에 의해서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면 그 왕은 아말렉의 왕과 정반대되는 것, 내면이 차있는 외면을 표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아각을 살려두고 있었다.

이상의 줄거리는 오늘날 또 다른 양상으로 늘 나타나고 있다. 옛 것을 다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기독교의 제자들, 그런데도 한쪽 부분은 아껴두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하느님과 세상 것 들을 함께 섬기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에게서 위의 성경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지 않을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바침으로 신성의 비위를 맞춰보려고 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해버리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 자신이 하느님과 화해하려 않고 하느님이 자기와 화해하도록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려 드는 일, 얼룩진 죄에서 깨끗해지려 하기 보다 죄를 면제 받으려 그분께 묻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등등에 더 추가하고야 마는 것은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찬양되게 부추키는 행위들일 것이다. 이런 결과의 발생은 성경을 글자대로 마구잡아 사용하는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글자 속에 내재하는 영적 의미를 살필 때, 우리는 성경 역사의 세부사항들에서 영적 전투에 있게 되는 마음의 작용이나 상태를 추적해 볼 수 있게 된다. 깡그리 파괴하라고 명령된 심정 속에 든 악들은 교활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정을 얼마나 썩게 하는지 모른다. 이런 악들이 본문에서 모조리 없애라는 것들, 즉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젓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로 의미되고 있다.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젓먹이는 안쪽 인간 속에 있는 애정과 생각들이다. 양떼와 소떼, 낙타와 나귀는 바깥쪽 인간 영역에 있는 애정과 생각, 지식, 과학들이다. 이보다 더 격렬하고 몰인정한 듯 생각되는 명령을 주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서에서 부과하시고 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26). 율법과 복음서 양 쪽에 의해 부과된 영적 의무는 옛 사람에 속한 애정이나 욕망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새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무를 실제에 응용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자기를 즐기게 해줄 것같은 생명, 자신이 생각할 때 참 생명인 듯 여겨지는 것을 내던지는 것보다 더 하기 싫은 것은 없을는지 모른다. 이렇게 포기해야만 하는 생명, 부패된 이기심이라는 생명은 거듭남으로 받게 된 생명과 정반대되는 생명이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얻게 되는 생명만이 현재이든, 미래이든 진정한 행복을 붙잡게 해준다. 우리 속의 자연적인 의지나 이해성이 자신을 철저히 검증 못하도록 유인하던가, 자신이 은근히 좋아하는 어떤

특질을 아껴두거나, 더욱이 자연적인 사랑이나 기쁨을 흠모하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어떤 영향이나 암시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은 과히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편리주의나 자기에게도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자연적인 애정이나 생각의 영향에 자연적 마음은 쉽게 누구러뜨려지고 흔들거려 같이 춤춘다. 이것이 소떼, 양떼를 다 죽이지 않은 군인들에 은근히 동조하는 사울의 모습이다. 그러나 영적인 마음, 내적 인간은 사무엘 처럼 더 높은 수준에서 사물을 직시하므로 낮은 수준의 자연적 애정이나 생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바 흔들거리는 연약한 자연적 마음의 행동지침에 슬퍼한다. 바깥쪽 인간이 불완전에 허덕이고 연약함을 노출하지만 안쪽 인간은 완전무결 속에 남아 있다. 그래서 안쪽 인간을 통해 주님은 바깥쪽 인간에게 말하시어 그 인간의 무력함이나 불쾌해지는 결과를 말해준다. 이런 마음의 진짜 본성과 그 작용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동물적 본성과 구별되게 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동물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동물적 마음은 설사 그 마음이 어떤 능력을 지녔다 해도 반사적 행동(반성하는 행동)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본성이 지닌 신성의 창조 구성은 우리 자신을 꼼꼼히 반성해 볼 수 있게 장치되어 있어 자신의 수준 낮은 경향이나 상상등을 판단하여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사울의 애원을 받아 들인 사무엘은 그를 따라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 제물은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더러운 것일 수는 없었으리라. 그 제물은 진정한 예배에서 바쳐지는 진정한 애정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가축떼에서 조달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과 사울,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 하나로 움직였을 때, 한 가지 덜 완성된 것, 미결의 행동 하나가 있었다. 예배를 마친 후 사무엘은 아말렉왕 아각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아각은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다고 생각하며 좋아서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그러자 사무엘이 ‘네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네 어머니도 그런 여자들 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 하며 야훼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 하였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절에 대해 우리의 해설자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아각에 대한 사무엘의 말 속에는 아말렉에 내려진 신성의 저주에 대한 그 원인이 깊게 감추여 놓여 있다. 즉 주님은 그들과 영원히 싸우실 거라는 것,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서 삭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각이 좋아하며 앞으로 나오는 모습은 아말렉이 표현하는 악의를 품은 영들이 타인들 앞에서 실지로 해대는 외적인 매력이나 유혹이다. ‘네 칼이 많은 여인들을 자식 없게 만들었다’ 는 사무엘의 말은

위의 악령은 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로부터 파생되는 악한 애정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무엘이 주님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 하였다는 것은 지성으로부터 파생되어 악의 거짓 속에 있는 자들을 따로 분리했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마귀(genii)가 영들로부터 분리되어 졌다.” 위 인용문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정작 자신에게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찾아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다. 내면의 악, 그것이 인간에게서 제아무리 감추여 놓여 있다 해도 그 악의 원리는 하느님의 보좌에 정반대 된다는 것, 주님은 그 악에 영원히 맞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 역시 그것이 절멸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그 악은 우리 속 아주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한번의 투쟁으로 뿌리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이 뿌리뽑혔다 하여 한숨 돌릴 때, 그 즉시 그 악은 고개를 쳐든다. 따라서 그 악을 계속 발바닥 밑에 두고 밟고 있으려는 끈질긴 노력만이 그 악의 힘을 약화 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 거듭나는 마음의 천국에서 그 이름조차 모두 삭제되어 지리라 본다.

사무엘과 사울은 이제 서로 제 갈길로 갔고 다시는 육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각자는 자기 출생지로 되돌아 갔다. 두 사람 각각이 표현한 진리들은 각 진리가 소속된 영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 속에서 은거하게 된다. 비록 그들 사이에 바깥쪽 왕래는 중단되었다 해도 동정적인 연결까지 완전히 절단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통곡하여 마지 않았다. 내향에 있는 애정과 생각은 외향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통곡은 그치지 않는다. 통곡한다 해서 외향에 있는 상태가 개선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외향의 연약함으로 잃는 것 때문에 내향의 것들은 통곡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사무엘이 주님 앞에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에 대한 후회를 계속하시고 있다. 어머니쪽 인간성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사울이 표현한 이 진리는 신성한 사랑의 선과는 일치 않는 가운데 있어 신성한 사랑이 거할 영원한 거주지를 제공하지 못한다. 더구나 천국을 정돈하며,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여 지상에 천국을 건설해줄 매개체 역할은 더더욱 힘들다. 항구적인 거주지와 매개체가 또다른 원리, 더 수준 높은 원리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원리를 주님 스스로 설비해두시고 계신다. 이 원리의 취임식이 다음 장에서 거론되는 주제이다.

## 9

### 사무엘상 제16장

####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붓다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진지 16년이 지나면서 한 메시지가 주님으로부터 예언자에게 내려와 말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꺾어버렸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이미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표현하는 차이점, 사울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다윗은 신성한 진리를 표현해준다는 것을 살펴 본 바 있다.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은 근원 측면에서 신성이나 그릇이라는 차원에서는 유한한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신성한 진리는 근원 측면이나 그릇 차원의 양 측면에서 신성한 진리이다. 이에 더해 살았던 것은,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에서 볼 때, 사울의 역사는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 만드시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고, 다윗의 역사는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시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항목은 같은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라는 독특한 여건에 대해서이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주님께서 박탈하시고 그 대신 다윗이 기름 부어졌음에도 상당한 세월동안 사울의 통치가 있도록 허락되고 있다. 이 상황은 사울이 죽는 때까지 계속되는 역사 부분에서 주목할만 하면서도 감미롭기도 한 사건들의 발생을 야기시키고 있다. 사건 하나 하나는 사울과 관련을 가지면서도 다윗의 능력이 더욱 부상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인간 본성의 진정되고 교훈이 되는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 각각은 거듭나는 삶의 어떤 상태를 통과하는 때의 경험들을 표현적으로 묘사하고, 주님 자신 측면에서는 그분의 인성이 영화되시는 단계와 상응을 이루고 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왕의 직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울은 실제적인 왕이고, 다윗은 잠재적인 왕일 뿐이다. 두 왕의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 사울은 다윗의 적이요, 박해자였던 반면, 다윗은 사울의 친구요, 보호자였다.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실제의 왕이 되게 하는 사건의 경우에서도 다윗은 가장 슬픈 애정과

감정이 넘치는 탄식을 할 정도였다.

사울의 통치 기간에 다윗이 선택되어 기름 부어진 이유,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왕이 될 썩 있게 된 이유는 인간 거듭남에 관한 신성한 경륜, 특별히 다윗과 연결을 갖고 있는 사울의 역사에서 거듭남의 발전 단계를 찾아봄으로 알게 된다. “인간이 거듭나는 과정 동안 그 사람은 주님에 의해 중개 역할을 하는 선들 가운데 있게 된다. 이 선은 순수한 선과 진리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런 선과 진리가 소개된 후, 중개한 선은 순수한 선과 진리들로부터 분리된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 아주 다를 것이라는 정도는 거듭남에 관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누구나 납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새 사람은 영적이고 천적인 사랑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새 사람은 천국에 목표를 두고 옛 사람은 세상에 목표가 있다. 이로부터 명백해지는 바, 새 사람은 옛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이 옛 사람의 상태에서부터 새 사람의 상태로 인도되려면 욕욕을 벗고 천국의 애정으로 입혀져야 한다. 이런 과정은 무수한 수단들에 의해 결과되어지는데, 이 사랑은 주님만이 아시는 사랑이다. 이에 관한 것 중 일부는 주님으로부터 천사에게 알려지기도 하지만 인간이 아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단의 각각이나 모두는 말씀의 내적 의미 안에서는 자체를 명백히 드러내놓고 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은 한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 년의 세월, 전 인생 기간을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각자의 욕적 욕망이 폐기되어 가면서 천국적 애정들이 그 사람 속에 은근히 심어져 그는 이전에 가지지 않았고, 아마 생각에도 없었을는지 모를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 삶의 상태가 위와 같이 크게 바뀌게 될 때 그는 중간 층의 선함, 즉 세상의 애정과 천국의 애정 양쪽에 다리를 걸치는 선함에 한 동안 머무를 필요가 있게 된다. 이 중간의 선에 당사자가 보관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천국적 선과 진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천국적 선과 진리를 중간의 선이 섬길 때 끝이 있게 되면서 서로는 분리된다. 이상의 원리는 인간의 상태가 유년에서 소년으로 변하는 것을 살핌으로 예증해 볼 수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인간은 유아에서 소년, 청년, 성년, 그리고 노년의 상태를 거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세대는 서로서로 구분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각 인간은 소년기로 접어들 때 유아기를 벗는다. 이렇게 벗어감으로 우리는 노년기까지 통과해 간다. 위 서술이 간단하지만 그것을 잘 숙고해 보면, 더 알게되는 것은 각 세대는 그 세대 나름대로 기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쁨이 수단이 되어 그는 뒤를 잇게 되는 세대에 소개되어진다. 따라서 그 기쁨은 그를 다음 세대로

가져다 주는데 섬김 역할을 하게된다. 그리하여 마지막 노년기에는 총명과 지혜의 기쁨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로부터 명백해지는 바, 전자는 후자가 옷 입혀 질 때 뒤에 남게 된다는 것이다. 거듭남에서 기쁨은 수단으로 사용되어 인간이 계속 이어지는 다음 상태로 들어갈 때 전 상태는 뒤에 남기어지면서 전자와 후자는 각기 다르면서도 모두 함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자연적 방법에서 인도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인도되어 진다. 어느 누구도 위에서 말한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선을 수단으로 하는 것, 또는 주님만에 의해 설비되어지는 거듭남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상태에도 도달할 수 없다.

위의 긴 발췌는 본문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서술은 아니지만 본문 역사에 있는 내적 의미를 살펴보면 명백한 빛을 주고 있다. 자연적 애정과 영적 애정, 진리에 대한 지각, 보다 낮은 것이 보다 높은 것에 반대하려는 상황이 마음 안에서 동시에 존재함은 말씀의 여러 부분에서 주제를 달리하면서 취급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시악의 두 아들, 야곱과 에사오로,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표현되고 있고, 본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과 다윗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함께 있는 두 왕이 표현하는 것은, 거듭나는 마음에서 영적 수준의 마음이 열리어 진리가 영입되지만 영적 마음이 자연적 마음보다 우세하지 못하여 자연적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나 가상적인 진리와 분리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행동은 영적 인간에 대한 자연적 인간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적들을 쳐 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어진 왕임을 알았을 때 다윗을 적으로 간주했다. 자연적 수준과 영적 수준이 같은 의견에서 행동하는 동안은 서로 동의하고 있지만 자연적 수준의 우위성이 영적 수준에 의해 위협되는 듯 여겨지면 전자는 후자와 싸우게 된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모습은 자연적 인간이 영적 인간의 통치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한다. 그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중요하고 그를 죽이려 계획한 것들 모두의 발생 원인이 다윗이 기름 부어졌다는 것과 그가 왕이 되도록 작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데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가서 주님께서 사울 대신에 왕으로 점지해둔 그의 아들 중 하나를 기름 붓도록 명령받았다. 불순종한 왕 때문에 심히 슬퍼하던 사무엘이 지금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텐데 어떻게 겁니까?” 라는

그의 물음에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도록 지시 받는다. 글자적 의미에서만 보면 이 제사는 어떤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꾸며진 제사인 듯 여겨진다. 그럼에도 영적 의미에서 살필 때, 암송아지와 제사가 표현하는 것은 사무엘이라는 원리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장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암송아지(heifer)는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이타애와 순진의 선을 의미한다. 암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는 순진의 선을 가지고 주님과 결합함을 표현한다. 그러면 내적 진리가 보존된다. 이는 또한 영적 선과 그 선으로부터 나오는 진리가 주님과 결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것이 목욕재계하고 제사에 초청되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로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새의 아들 하나가 사무엘에게 소개되었다. 맏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이어져 소개되었다. 그러나 가장 어린 아들이 올 때까지 모두 거절되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었다.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의 용모를 보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 했다. 그러나 신성한 말씀이 내려와 그의 결정을 점검시켜 주었다.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 본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모두가 차례로 사무엘 앞에 섰었지만 그들 중에서 주님이 뽑으신 아들이 없다고 사무엘은 말할 수 있었다. 이밖에 아들이 또 있느냐는 사무엘의 질문에 이새는 막내가 하나 있기 한테 양을 치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불러 데려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하고 일렀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 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 앞을 지나 간 이새의 일곱 아들들은 거절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거룩한 진리들을 표현하고 있다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모형이 되는 메시아의 인격에 있게 되는 모든 충만과 거룩함인 신성한 진리 자체를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거절의 근거는 사무엘이 맏아들의 신장이 큰 이유로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 했을 때 그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본다” 이는 눈으로 헤아린다는 말이고 이는 지성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님은 심정을 보신다” 이는 의지에 의거 판단하신다는 뜻이다. 이것이 다윗을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된 주님의 방법이기도 하다. 다윗은 볼이 붉었다(ruddy). 붉음(red or ruddiness)은 사랑을 나타내는 색깔이다. 그리고 그는 지적이었는데, 눈이 반짝이는(fair of eyes, beautiful of countenance) 아이라는 표현이 이를 뜻하고 있다. 위 두 요소가 바깥쪽 선택과 한데 묶여있었

는바, 잘 생긴(good to look to, goodly) 아이라는 표현이 이를 뜻한다. 다윗의 바깥쪽에서 보여준 이 품질은 주님에 있는 내적 품질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주님의 속성을 다윗이 모두 표현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이에 더해서 다윗이 표현한 속성은 그의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뜻은 가장 사랑함(beloved)이다. 진리는 선함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진리안에 선함이 들어있을 때, 즉 진리가 선함을 그의 생명이요 본질로 여길 때만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것이 다윗이 표현하는 진리요 주님이 있으셨던 진리이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분은 무한하고 영원한 진리이셨고, 그 안에는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이 말씀이 육이 되신 것, 메시아, 기름 부은 자이다. 사울 편에서 이미 살핀 바 있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다.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던 중에 사무엘의 인도를 받아 왕으로 기름 부어졌고, 다윗은 양떼를 지키던 중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도록 데려와졌다. 사울은 기브아에서 태어나 이름도 없는 어떤 성에서 기름 부어졌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기름 부어졌다. 베들레헴은 주님의 탄생지 일 뿐 아니라 야곱과 라헬의 둘째아들 베냐민의 출생지요 베냐민은 이스라엘 지파의 한 우두머리가 되어있다. 사울을 기름 부을 때 사용된 것은 단순한 기름병이었다. 다윗의 경우는 뿔에 기름을 채워 부어졌다.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진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동시에 뿔은 힘을 상징하는 고로 사랑으로 가득한 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모든 힘은 선함으로부터 파생된 진리 안에 존재한다. 사울이 기름 부어진 것은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있을 때 실시되었다. 다윗이 기름 부어짐은 그를 형제들 한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형제(brethren, 종교상의 형제)란 훌륭한 이타애(good charity)를, 한가운데서(in the midst)란 가장 깊은 측면(in the inmost)이라는 뜻이다.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누구겠느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 아이 같이 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고 말하신 적이 있었다. 이는 주님께서 위대함이라는 말의 중심 되는 품질이 순진(innocence)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에서 였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보여주시므로 제자들 모두는 서로 같은 형제들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어머니요, 자매요, 형제들임을 훈육하실 때는 신중하셨다(마태18:1-5, 12:46-50).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하느님을 사랑함이라는 성스러운 상징인 거룩한 기름을 부었을

때, 주님의 영이 그 날부터 내려왔다. 율법 시대에 사람에게 주어진 주님의 영이나 복음 시대 이후의 성령은 거듭나는 영에게는 필수 사항까지는 아니다. 이 영들이 심정에서 좋은 품위를 언제나 생산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성스러운 직능이 수여되는 이들에게 접합되는 초자연적 영향이다. 비록 왕이나 사제들에게 오는 영(the Spirit), 고위직에 임명될 때 받게 되는 영이 거듭나는 영이 아니다 해도 하느님에게 왕과 사제로 만들어지는 이들,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통치를 받을 이들에 의해 주님의 영이 내향적으로 영접될 경우 이 영은 거듭나는 영까지 표현하게 된다.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어오자 주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고 주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이 주님에게서 이탈된 상태에서 그에게 와지는 영적 조건에 대해 우리는 본문에서 매우 간단한 묘사를 보게된다. 선에 속한 영은 정의의 길을 고수하는 이들과 더불어서는 계속 머무른다. 따라서 선에 속한 영이 그들을 떠날 경우 악에 속한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온다. 사울 안으로 들어온 악령은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는 하느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는 것을 눈에 비치는 대로 표현한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이 말은 틀리지 않는다. 하느님께 근원을 가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뭔가를 창조하시되 악이 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선이 되게 창조하셨었다. 존재하는 모든 악은 어떤 선이 뒤집혀진 것이다. 악령도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그들 스스로 악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사울에게 온 악령은 하느님으로부터 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것은 가상적인 진리(apparent truth)이다. 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진정이기도 하다. 주님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지옥도 그분의 통제 하에 있다. 그분은 악령을 보내시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가 훈련(실습)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이 오는 것을 허용하신다. 그럼으로 악령도 어떤 유용한 목적에 이바지되도록 만들어 질 수도 있다. 현재 상태에서 인간은 악령과의 연결 없이 존재할 수 없었고 악령의 개입 없이 거듭날 수 없었다. 악은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으면 제거되어 질 수 없다. 또한 악이 흥분을 일으키지 않으면 보여지거나 느껴질 수도 없다. 또한 악령의 작용 없이는 어떤 악도 흥분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현존하는 악령은 선한 이들의 사용에 충당된다. 그렇다고 악이 현존하는 것 자체가 어떤 유익을 창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악이 악령과 저희들 스스로 연결을 유인해 낼 때 주님의 섭리가 그렇게 작동 못하도록 발휘되어 인간 의지의 자유의 힘에 비해 인간 의지를 과잉 지배하려 드는 악령의 힘이 초과치 않도록 조절해 주신다.

신성한 허용의 법칙 역시 사랑과 지혜의 법칙이요, 이 법칙은 이리하다. 주님께서는 더 큰 악을 방지하시기 위해 보다 작은 악을 허용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을 송두리째 소유하여 구속을 넘어 노예가 되게 하려는 악을 예방하시기 위해 덜 유해한 속성을 지닌 악령을 허용하신다. 마치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는 것보다 유사할는지 모른다.

주님이 인간과 더불어 악령이 현존하도록 허용하시는 한편, 그 인간과 함께 하도록 선한 영과 천사들을 설비해 주시어 악한 천사가 되는 것이 방해되도록 조장하신다. 가능한 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해서 인간 속의 악이 선으로 돌려지게 해주려고 애쓰신다. 이와 같은 영이나 천사들은 수금을 타는 다윗과 같다. 선한 애정이 일으켜지고 힘을 얻어 악한 애정을 억누르어 약화시킨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악한 애정에 불을 붙이고 흥분시키던 악령을 몰아낸다.

다윗이 사울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덕을 보게 한 것은 그의 음악적 재능, 그의 오른손이 수금을 노련하게 잘 타는 솜씨 때문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덮칠 때마다 수금을 타면 마음이 개운해 질 것이라는 간청에 사울도 동의했다. 신하 중 하나가 이새의 아들을 추천하기를, 그는 노련한 연주자요, 씩씩하고 날쌌던 용사이고,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데다 야훼께서 함께 해 주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전갈을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하였다.” 이새는 왕에게 바칠 선물을 들려 아들을 보냈던 바, “다윗은 사울을 찾아와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의 무기당번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새에게 전갈을 보냈다. ‘너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허락하여라.’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사울과 다윗의 첫 연결이 있는 이 역사에는 로맨스 같은 어떤 것이 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모임에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발하듯 두 사람의 결합에는 어렴풋한 형상이 드리워 있다. 그러나 이는 신성한 섭리가 영원한 목적을 수행해내는데 모든 것이 동원되어 참가하고 동원된 각 사람은 선을 위해 일해지도록 불리고 있을 뿐이다. 사울의 신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진리와 선이다. 이를 수단으로 해서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연결을 맺고 한 군데로 모아지면서 보다 높은 것이 보다 낮은 것에 있는 비질서를 교정해준다. 다윗이 이새로부터 사울에게 선물로 가져온 빵과 포도주, 그리고 새끼 양은 선과 진리, 그리고 순진이다. 이를 수단으로 영적 인간은

자연적 인간의 비위를 맞춘다. 그리하여 사울의 마음이 흡족해 하면서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되었고 다윗을 몹시 사랑하게 되어 무기당변으로 임명했다. 이는 영적 인간이 올바른 생각과 따뜻한 애정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인식한 자연적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적 인간은 자기 적과 싸우는데 사용하는 무기인 교리적 진리를 영적 인간에게 맡겨둔다. 그러나 그의 악한 기분 상태 속에서는 자연적 인간은 사울처럼 그의 친구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윗의 중요한 직책, 사울을 가장 크게 받드는 직책인 음악 재능은 그에게서 악령을 몰아낼 수 있게 했다. 이 악령이 음악의 영향을 받아 몰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억측이나 요행을 거는 주제가 되어왔다. 이스라엘 교회라는 처방에 담긴 본성이 이를 설명해준다. 모든 결과들은 상응을 수단으로 생산되어져 있다. 신약성서에서 악령이 인간을 육체나 마음 모두를 점거한 기록이나 본문의 사울의 경우나 그 본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주님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로부터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사항이나 다윗이 악령을 몰아낸 것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다윗이 사울의 영을 깨운해지게 한 수단은 위에서 말한바 같이 상응으로부터이다. 사울의 경우와 주님의 경우 달랐던 것은, 주님은 연속적인 악령의 공격과 그로부터 지속적인 해방을 이루어 가셨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육하시는 바 중 하나는, 악령이 사람 밖으로 쫓겨 나다가도 되돌아 올 때는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영과 더불어 들어온다는 것이다. 위에 대한 예증으로 사울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악령은 더욱더 그에게 영향력을 휘둘렀다. 악령에 점유 당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숨을 돌리는 해방이 번갈아 있게 되는 것, 마치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는 상습적인 행위는 심정을 딱딱하게 하여 양심이 더욱더 무뎠게 해서 결국 별경계 달구어진 쇠덩어리같이 마비되고 마는 지경까지 이른다. 선이 있던 곳에 악이 들어오는 교차는 아예 선이 없던 곳에 악이 들어오는 경우보다 더 독성이 강하다. 인간이 점점 더 큰 불법을 끌어당기면 더 맹렬한 고통이 따르다가 결국 사울같이 패배와 자기 과멸로 막을 내리고야 만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부분이 표현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악은 실지 위촉받아 진 게 아니고 악을 범하려는 시험일 뿐이고, 주님의 영이 내적 인간 안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령은 바깥 사람 또는 자연적 마음의 육육에 들어가 흥분시키는 것일 뿐임을 알게된다. 사울을 점유한 악마에 의해 부추겨진 행동들은 자연적 인간이 기울게 되는 악으로의 경향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제자들도 악령에 의해 시험되어진다. 그러나 다윗의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이 사울의 불건전한 마음을 돌보는 모습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시험을 피하거나 극복하는 수단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악에 속한 생각, 선에 속하지 않는 것들로 번민할 때, 슬픔과 걱정이 우리의 영을 무겁게 짓누를 때, 이런 상황은 때로 자연적인 경우도 있고, 영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쪽에서 발생하더라도 영적 애정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악, 이를 통해 천국은 천적사람과 평화의 멜로디를 쏟아 부어서 음침한 분위기를 흐트려 주고 번민하던 영을 고요하게 해주면서 평온과 기쁨으로 마음을 회복되게 해준다. 지상 쪽을 좋아하는 자연적 마음, 땅의 목적이나 영향에 쉽게 작동되고 미는 자연적 마음은 바깥쪽 세계에 속한 것들로 형성 되어지는 상태의 변화에 쉽게 복종하고 만다. 자연적 마음도 자연계와 같이 마음의 낮과 밤, 춥고 더운 것, 여름과 겨울, 빛과 그림자, 폭풍과 고요함 등등을 다 가지고 있다. 어둡고 번민하는 상태에 있을 경우 자연적 마음은 악령의 노리개가 되어 가는데 악령은 자기와 동질 요소를 이 마음 안에서 발견한다. 우리가 악령의 영향 하에 있을 때, 즉 악령이 마음을 흔들어 댄다던가, 선량한 상대방을 위협하려드는 행위가 폭발되려 할 때, 그 치료약은 언제나 우리의 내적 인간 안에 현존하는 천사의 부드러운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자신을 놔두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향이 바깥쪽 인간에게 내려가 더 나은 애정과 생각이 더 담대함을 얻어 이로부터 악령의 영향을 수그러 들게 하여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 사실 이 영향력의 근원은 사랑과 믿음의 하나됨에서 발생하는 하모니로 조율되는 영혼 자체 안에 존재한다. 이 하모니란 천국의 분위기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고 거듭나는 마음의 가장 깊은 속에 기회를 두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설비 해주신 우리를 섬겨주는 영들 외에, 그분의 영도 주신다. 성령, 진리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 부어 주시고 있다. 이는 마치 하늘로부터 내리 비치는 햇빛이나 소나기와 같다. 이 영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이든 똑같이 오고 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빛과 영향을 잘 받을 수 있게 심정과 지성을 활짝 여는 일뿐이다. 아마 우리는 이를 거절할는지 모른다. 아마 그것에 반대하도록 심정은 닫을는지 모른다. 그리고 악령이 하는 확실한 규율에 자신을 노출시키고야 말는지 모른다. 하느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강제라는 단어 자체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그분의 영을 받기를 바래신다. 그리하여 노예의 영인 악령을 던져 버리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으시다. 그 이유는 악마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 의심, 불만, 자만, 미움, 원한 등등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내던져야 만이 건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정착되는

게 가능하여 우리 마음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한 심정을 건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악령의 소유권은 한번에 모두 박탈되지 않는다. 그 영은 떠났다가도 거둬거둬 되돌아온다. 주님께 관해 이런 기록이 있다. 광야에서 악마가 그분을 시험한 것이 모두 끝났을 때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누가4:13). 이 점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리 만무하다. 그러면 악령이 되돌아 올 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다윗이 했던 것로부터 배울 수 있으리라 본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곤란의 때, 더욱이 공포의 순간, 이것들은 시험을 뜻하는 바, 우리는 주님께 재빨리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영혼에 평화를 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고 빛나는 샅별이시다.” 혼란과 어둠의 시기에 그분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심정에서 부상하는 샅별인 주님을 발견할 것이다. 천적인 영들은 은총에 이마지하는 영들이어서 잠잠하게 해주는 사랑을 심정 속에 불어넣어 주는바, 우리는 그 사랑의 그릇이 되고, 거둬나려고 노력하는 종교적 형제들에게까지 사랑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게 해준다. 이리하여 천적 영들은 우리의 모든 상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와 언제나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리므로 해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게 되고, 모든 인간 영혼의 새 출생에서 새벽 별들은 함께 노래하고 하느님의 자녀들은 기뻐 소리치게 된다.

마음을 변민케하는 곤경들은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 마다 각기 특별한 원리에 원인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는 각기 특별한 원리에 반대되는 법칙이 채택되어야만 한다. 사울의 공포로 표현된 시험은 “악령”들로부터 발생된 것 중의 하나, 거짓된 것을 사랑함에서였다. 이 악령을 몰아낸 수단은 진리를 사랑함이었다. 진리의 애정을 다윗의 수금이 상징하고 있다. 말씀가운데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악기 중에서 관악기는 선에 대한 애정을, 현악기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의미한다. 수금(harp)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상징한 악기 중 가장 두드러져 지상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영적 천국의 천사들에 의해 주님이 예배될 때, 또는 진리에 대한 영적 애정으로 예배될 때, 이 예배는 그분을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 같이 영계에서 들려진다. 이 예배는 주님과 천국을 더 가깝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악령을 몰아내 주어 어둠의 왕국의 기운을 걷어낸다. 말씀 자체는 수금이고 말씀 속의 진리들은 수금의 줄이어서 수금을 탐으로 신성은 황홀한 소리를 생산하여 마음 속에 미워하는 힘을 발휘하게 조장하는 악령을 몰아 낸다. 인간 마음 속의 애정 가운데서

응답하는 느낌을 발견할 때는 언제든지 신성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다. 말씀 속의 진리들은 그 진리가 정신적인 지각이나 애정의 대상이 될 때만이 능력을 가진다. 이 때만이 진리들은 시험 속의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가 진리를 진실로 믿고 사랑할 때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거듭나는 삶을 통과하여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진보의 단계를 거친다. 한편으로는 악령에 시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령이 기숙하지 않도록 진리와 선함이 하나를 이루는 하모니로 공존한다. 우리 인간의 바깥쪽 측면, 외적 인간은 쉽게 부패되거나 악한 영향에 너무나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신성과 천국의 영향이 내적 인간 속에 있어 마음 아래로까지 내려오는 상태에 있게 될 때, 악과 성공적으로 대화 될 수 있고 결국 악을 쫓아낼 수도 있다. 기독 생활의 진보 속에서 이런 작용들은 각자의 경험이 되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악령을 늘 재회하고야 말 것이다. 악령의 영향을 느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 재빨리 돌아서라. 온 우주를 조화되게 조율하시는 그분께서 인간 마음 안에 죄를 생산하게 하는 불일치를 제거해주시면서 창조의 다른 부분, 근원적으로 기쁨과 상통하는 부분과 하모니를 이루도록 섭리해주신다.

## 10

### 사무엘상 제17장

#### 다윗이 골리앗을 쳐죽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도하는 대상 중 하나는 큰 사건에 비해 보기에 작고 부적당한 방법일지라도 그것을 수단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의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 “한 사람이 천 명을, 두 사람이 만 명과 싸우리라” 이 사상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 글자대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고린도전1:27). 이 구절이 가르치려는 교훈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모든 능력은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 그분에게 만사는 가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이에게는 만사가 그분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본문에서 갑옷으로 무장한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비무장한 나이 어린 베들레헴의 목자가 쳐 눕히는 사건 속에도 담겨있다. 이 대결의 결과로 블레셋 군대가 제압당하여 이스라엘은 강력한 적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고 있다. 위의 간단히 열거한 역사적 사실은 그 자체가 지닌 비범하고 흥미를 주는 내용 말고도 선택된 국가의 행동에서 인간 능력보다 더 높은 중재 역할의 증거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있다. 본문의 줄거리는 대결과 승리라는 상황 속에 교회의 역사 과정에 있는 상태와 거듭 나아가는 인간 마음의 과정을 표현하여 진실된 영적인 품성과 그 품성을 우리로 잘 탐사하도록 해주고 있다. 교회나 교인이라는 차원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살아 있는 하느님의 군대에 당당하게 도전하는 갑옷으로 무장한 블레셋 대장, 이에 맞서게 되는 목자 지팡이와 돌팔매 끈과 돌 몇 개,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할 수 없게 보이는 무기들, 등등을 발견 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믿는 자들의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그러나 이 요소들을 믿음 자체만에 관련된 수많은 원리들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이스라엘 군대가 살아 있는 하느님의 군대라고 불릴 경우, 그들은 선함 자체시요 진리 자체 이신 하느님으로부터 파생된 교회 속의 선함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 그리고 이 원리들이 하느님의 질서로 잘 배열되어 있는 교회의 상태를 표현해준다. 그리고 이 배열 상태가 군대를 암시하는 전투적 생각을 포함하게 되므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군대들이 진정한 교회 속의 사람들에게 도전해 오는 원리에 대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살핀바 있지만, 블레셋의 일방적 의미는 어떤 설득이나 그 설득의 근원인 바램, 즉 행복이란 것은 생활의 거룩함과 심정의 깨끗함에서 기인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빠른 지름길로 쟁취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설득시키는데 실제보다는 허울로, 행동보다는 생각 속의 믿음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가 종교측면에서 작용할 경우, 도덕적 차원의 율법의 실천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교리의 틀을 만든다. 이 틀이 옳다는 착각으로 인해 실제에 놓여지면 아무 능력도 없는 신성의 틀이 되고 만다. 이런 틀이 비록 교회 내에서 발견된다 해도 이 교리는 진정한 교회의 가장 큰 적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생명 있는 종교에 반대되기 때문이고 생명 없는 교회일 경우 그 교회는 이름과 껍질만 있는 교회일 뿐이다. 이런 블레셋으로 의미된 원리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나 그 원리를 실제화 하는 이들만이 상기해보아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원리를 실제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신조가 무엇이든 간에 실지로 그 원리를

답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에 잘 기울어지려는 경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유전적 속성이고, 그런 원리에 쉽게 넘어가는 시험에 누구를 막론하고 노출되어있다. 이 적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여 끝장을 보기 아주 힘든 골치 아픈 적에 해당된다. 이 적은 정복된 듯 보여도 또 다시 강성해져 우리와 대적하게 된다. 따라서 늘 경계함으로 그 적이 우리 속에서 강성해지는 것을 미리 감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된다.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위 교리를 간직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불레셋이 되어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군대와 대치하게 된다. 위 교리가 마음속에서 자칫하면 노골화 되는 양태 중의 하나는 지적 오만이다. 이 오만은 아주 발달된 변증적인 기술인데 그런 기술을 연습한 이들이 위 교리를 사랑과 이타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접합시킬 때 창출된다. 교회의 모든 신학 중 한 분과의 경우 사도 바울의 서술 중 한 구절을 잘못 이해한 그 위에 기초를 놓고 있다. 즉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 신학의 모든 체계 밑에다 중요하다는 표시인 밑줄 긋기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이 교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셨고, 율법의 깨뜨림을 위해 우리들 대신 죽으셨는 바, 우리가 육을 입으신 그분의 삶과 죽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상에 접목되어있다. 인간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를 추켜 올리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경향성이 비록 당사자의 무의식 세계에 있다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본성 속에 존재하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자아 찬양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 오만이 불레셋 장수 골리앗이다. 이 오만이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군대에 당당히 싸움을 걸어와 자기와 맞설 자를 내세우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과 투구, 그가 들고 나온 무기란 논쟁들을 말한다. 이를 수단으로 지적 오만은 자신을 방어하면서 자기와 맞설 논쟁을 목사발 되도록 하는데 사용한다.

거인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은 성경 역사에서 특별히 흥미를 갖게 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거인의 특성이나 그 근원에 대한 암시가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홍수 전에 있었던 큰 영적 부패가 인류에게 있었을 때이다. 그리고 거인들은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의 적들로서가 아니면 결코 말해진 적이 없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표현적 교회였었다. 그래서 그들의 내향의 상태는 신체라는 표현물에서 명백해졌는데, 마치 우리의 도덕적 결과들이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 표현적 교회에 속한 사람 중 신체가 큰 사람은 지적 오만의 표현물에 적합했다. 이 거인들이 타인들의 마음에 미치는 공포란, 진리를 이해하고

확증하는 지성의 올바른 기능과 이런 기능이 뒤집힌 것, 즉 진리같이 보이는 이론으로 골격을 짠 가짜 이론을 식별할 수 없는 삶 위에 덮치는 허무맹랑한 총명의 힘과 똑같은 것이다. 교회 내에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종교에 관한 잘못된 교리들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기초하면서 확증되고 있다. 이런 교리들은 종교적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그들의 주장이란, 자기들의 교리가 성경의 글자에 기초하는바, 자기들 교리도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다고 자연스럽게 돌려대고 있다. 진리의 성경이 잘못들의 골격을 만드는데, 그 잘못이 정당하다고 확증하는데 제공될 수 있을까?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거의 대부분이 가상적 진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에 신학적 오류들이 있고, 이 오류들은 인간 마음에 근원을 두고 있으면서 인간 마음이 그 오류를 받치고 있다. 성경의 가상적 진리들로 기반을 만들고 종교적 교리들을 검사하는 방법을 취하면 정작 종교적 교리들을 끌어내며 그 위에 건설되어야 할 성경의 진정한 진리들을 가상적 진리들은 아무 효력 없게 만든다. 가상적 진리에서 뽑아낸 교리에 권위를 더 하는데 있어 인간 지혜는 추론을 수단으로 해서 확증하는데 있어서 결코 짚짚매지 않는다. 이런 추론들이 갑옷과 무기들이다. 이를 수단으로 거인은 이스라엘이 내보낼 장수와 맞서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가 입은 무장의 세세한 묘사는 교회의 적들이 교회의 원리를 죽이는데 고용되는 영적 전투의 도구들이 무엇들인지 우리로 잘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골리앗의 갑옷에 관한 몇 가지 부분들, 성경에서 언급하는 완전한 옷 한 벌로서 그에 대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묘사한 이사야와 그리스도인들의 갑옷을 묘사한 바울 서간들에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에 관해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한다. “몸을 감싼 갑옷에선 정의가 뻗어나고 머리에 쓴 투구에선 구원이 빛난다. 몸을 감은 속옷에는 응징이 숨어있고 그 걸친 겹옷에선 열성이 훔날린다” (59:17). 사도는 기독교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에페서6:11-17).

이외 데살로니가전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대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구원의 희망으로 투구를 씁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쟁의 사람으로 지상에 오셨다, 그 이유는 그분의 백성에게 평화를 줄 수 있으시기 전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을 입으셨을 때 무한하신 분의 갑옷과 투구란 무엇일까? 말씀에서 언급하는 주님의 머리, 가슴, 발은 그분의 신성한 천적 측면과 영적 측면 그리고 자연적 측면, 또는 세 천국의 천사 안에 담겨지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 천사들과 교통되는 지상의 사람에게 담겨지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이다. 그분이 쓰는 구원의 투구는 진리요, 이를 수단으로 그분은 천적인 것을 방어하시고, 가슴에 무장한 정의는 영적인 것을 방어하는 진리들이다. 몸의 아래 부분을 위한 무장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주님의 인성에 있는 진리 같은 자연적인 것들은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험자들과 싸우게 되는 차원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로 표현되면서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 “나는 너(뱀)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짓밟히리라”(창세기3:15). 그리고 주님의 고통받으심이 묘사된 다윗의 고백에서, “그들은 내 손과 발을 찢었다.” 진리적 자연성, 이것은 주님의 어머니 쪽 인간성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글자도 이와 같아서 진리가 가상으로 옷 입혀져 있어 말씀의 글자는 사악하고 왜곡을 즐기는 해석에 의해 찢림을 받고 상처받을 수 있다. 또한 복수나 열정이라는 단어들이 내포되어있는 것이다. 그 다음 기독교인의 갑옷과 투구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의미는 구원의 대장이 되신 분의 것을 유추해 보면 될 것이다. 기독교인의 투구는 기독교인의 가장 높은 품위, 즉 주님을 사랑하는 품성을 방어하는 진리이다. 기독교인의 가슴받이판은 그 다음 높은 품위, 이웃을 사랑하는 품성을 방어하는 진리이다. 믿음은 악이 직접 공격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미덕을 가장 폭 넓게 보호하는 방패이다. 성령의 검인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에 반대되는 모든 것, 그리스도 복음의 정의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무기이다.

이제는 불레셋 거인 장수가 지닌 갑옷과 투구들에 대한 상징적 특성들을 살펴보자. 오류의 원인을 존속되게 하는 수단들은 비록 본질 면에서는 진리가 떠받쳐지는 것과 다르다고 해도 형태에서는 유사한 데가 많다. 모든 오류도 진리라고 주장한다. 오류가 지니는 공격이나 방어를 위한 무기도 진리를 방어하고 존속되게 하는 무기와 같은 종류들이다. 성경책들은 종교적 증거들 모두의 공통된 근원이다. 그러나 이교(heresy)는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뒤집어 놓는다. 그리하여 자기들 원리가 요구하는 대로 책 속의 진리들을 왜곡해 버린다. “오류(error)속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말씀 자체를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자기들 거짓을 확증하되 글자만으로 이해해서 이기 때문인데, 글자의 어떤 부분은 이교적 견해를 확증할 수도 있게 표현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들을 대체로 감각적이고 눈앞에 나타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젊은 층이나 단순한 자들의 납득은 합당하게 여긴다. 글자에서만의 말씀은 위와 같아서 생활의 악으로부터 거짓 가운데 있는 이들과 말썽을 가지고 자기 거짓을 합리화 시킨다. 따라서 말썽이 왜곡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과 이타애를 분리한 이들은 말썽을 왜곡한다. 예를 들면, 말씀 속에서 행동이나 일에 관한 언급이 수많은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 단원들을 거쳐갈 경우, 그들은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건너뛰는 방식을 사용한다.” 거인의 투구, 비늘 갑옷, 정강이 받이 등등은 말씀의 가상적 진리들로부터 껴매어 맞춘 거짓들이다. 이것들은 말씀의 진정한 진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이타애, 선한 일에 관한 말씀 속의 참 진리를 뒤엎으려 한다. 방패는 왜곡된 믿음의 방어 수단이고 이 수단으로 진짜 믿음에서 자신을 방어한다. 이런 방어용 장비 외에도 골리앗은 창, 표창, 칼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무기들은 표창(target)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창(spear, lance)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무기들은 상당히 무겁다고 말해지고, 세 가지 방어용인 투구, 가슴받이판, 정강이 받이판의 세 가지 종류에 응하는 것들이다. 방어용은 낫으로 되어 있고 공격용인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다. 낫과 쇠는 자연적 선과 진리에 상응하는데, 여기서 반대적 의미로 사용되므로 자연적 악과 거짓을 의미한다. 한가지 특이하게 묘사하는 것은 창대가 베틀 용두머리만큼 굵었다는 것이다. 글자적으로 이 표현은 창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고 마는 듯 여겨지나 영적으로는 창을 본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베틀은 천적 원리, 또는 의지에 관련되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의지가 이해성 안으로 흘러가 의지의 모양을 만들기 때문인데, 마치 이해성 안에 있는 것들이 의지로 깊어지는 것과 같다.” 나무와 철로 창대와 창날을 만드는데, 일반적 의미에서 이것은 선과 진리에 상응되나 반대 의미로는 악과 거짓에 상응된다. 의지 안의 악에 모양을 주는 이해성 속의 거짓들이 골리앗의 창날이요, 베틀 용두머리 같은 창대이다. 이 거인의 무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 중 특이한 점 하나는 무장에 대한 무게의 언급이다. 그리고 숫자를 다루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인의 상징이다. 그의 신장은 6 큐빗 한 뼘이었다.

그의 비늘 갑옷은 오 천 세겔이고, 창날은 육 백 세겔이었다. 무게와 키는 선 또는 악에 관한 것의 상태에 상응하고, 키나 무게를 표현하는 숫자들은 그 상태의 품질을 의미한다. 6이란 전투를 표현하는 숫자인데, 그 이유는 거듭남에 관련 될 경우 안식일에 앞에 선행되는 노동의 육일은 기독인이 쉼의 상태로 들어가기 전 통과해야만 하는 노력과 다툼의 모든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거듭나는 사람은 악과 거짓에 맞붙어 싸워야 하지만 타락하는 사람은 선함과 진리에 대적한다. 이것들은 전투인바, 이 거인의 키는 여섯 큐빗으로, 창날은 육 백 세겔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 거인의 키는 여섯 큐빗 한 뼘이었다. 큐빗은 팔뚝으로, 한 뼘은 손바닥으로 측량되는 길이 이다. 따라서 이 장수의 키는 나의 팔, 나의 오른 손이 나를 불리하게 했다고 말하는 오만을 표현해놓고 있다. 비늘 갑옷의 무게는 오 천 세겔이다. 둘과 셋으로 구성되는 다섯은 각 숫자가 의미하는 선함과 진리의 연합을 표현한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 반대 의미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악과 거짓의 연합을 표현하고 있다. 100과 1000은 거기에 딸린 숫자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을 더 강화해줄 뿐이다. 그러므로 악과 거짓이 연합된 힘이 얼마나 큰 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힘은 선함과 진리의 천국적 결혼에서 믿음과 짝을 이루는 이타애의 원리 자체에 얼마나 크게 반대되는지를 표현하여 우리로 실감케 해준다.

위와 같이 따로따로 명시해서 나타낸 것들은 거인 같은 이교, 구원의 희망과 바탕을 믿음 한쪽만에 둔 원리들이다. 위 문단의 세부사항들은 단지 교리 측면으로 말해지는 게 아니라 원리 측면에서도 이해해야 옳을 것이다. 교리란 악의 원인과 결과 양 쪽이다. 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실지로 할례 받지 않은 군대들, 그리고 거인 장수에서 표현되어진 것들이다.

이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가 들으라고 날마다 고향친 도전이란 자기와 맞서 싸울 자를 내보내라는 것이었으나 응답이 없었다. 사울, 그의 키도 이 거인의 키와 비등했는지 모르지만 용감성이나 싸움 기술에 있어서는 매우 모자랐다. 아마 왕 단독으로 싸움에 붙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을는지 모른다. 확실한 것 하나는 이스라엘 군과 사울이 불레셋의 무시하는 고향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벌벌 떨었다는 것일 게다.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정도에 비례해서 인간의 두려움은 증가된다. 군인들과 왕 모두 이런 처지에 있는 셈이다. 어찌됐든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시기는 아직 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로 구원받게 할 당사자가 아직 이스라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이제 다가 오고 있다. 다윗, 왕으로 기름 받았으나 즉위하지 않은 자, 그가 이제 나타나 도전을 받아들여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듯 여겨진 적의 정복자가 되고있다.

이제부터는 긴 서술이 따르고 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사울과 함께 전투에 참가한 형 셋을 만나러 이스라엘 진영에 오고 있다. 그리하여 적 장수가 매일 나와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로 인해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에 질려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우리 왕께서는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부마로 삼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모든 징발을 면제 해주신다더군” 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다. 그리고 그는 경멸하는 표현으로,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다윗의 이 말이 퍼져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그는 다윗을 불러 들었다. 양치기 출신인 다윗은 즉각 왕에게 이렇게 고한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보고 맞붙기에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네가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우다니,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단련해온 자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목자로서 단련된 그의 경험은 전쟁의 용사와 맞서 싸울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다윗에게 불어넣었다. “소인은 아버지의 양을 쳐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새끼를 한 마리라도 물어 가면 소인은 한사코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그 아가리에서 양 새끼를 빼내곤 했습니다. 그놈이 돌아서서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블레셋의 오랑캐 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윗의 직업, 그의 체험, 자기 힘에 대한 확신들은 모두 다윗의 주님에게 있는 속성들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셨다. 이 양떼는 실로 아버지의 것이었으나 아버지는 양떼를 예수께 주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요한복음10:28,29). 사자와 곰과의 다윗의 싸움, 어린 양의 구출은 주님의 어둠의 권세와의 전투, 먹어 삼키려는 이빨에서 인류의 해방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으르렁대며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사자의 모습이 악마이기 때문이다. 사자와 곰은 악마와 사탄을 상징한다. 이를 수단으로 주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시험되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말해지고 있다(마가복음1:13). 들짐승을 만나고 죽이는 다윗의 이야기에는 좀 더 특이한 대목이 있다. 마치 들짐승이 한번에 그의 양떼를 공격한 듯 말해지면서 다윗은 한 마리(him)를 죽였다고 말하는 듯 보여진다. 어린 양이 사자의 아가리에서 빼내어졌는데도

어린 양은 마치 생생하게 살아 있는 듯 우리로 느끼면서 본문을 읽도록 해준다. 다윗이 짐승의 턱수염을 잡아서 쳐 부셨다는 것은 삼손과 맞먹는 힘을 연상하게 한다. 이런 세부사항들 어느 하나에도 의심간 것은 없고 단지 한 개의 싸움에서 보여진 모양새는 악마와 사탄에 의한 주님의 시험을 더 정확히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린 양을 살아 있게 구출함은 사탄이 포로로 만들고 집어삼키려는 죽음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모형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있다.

먹이를 잡아채는 강한 힘을 소유한 짐승을 붙잡아 때려눕히는 힘을 지녔던 무장도 하지 않았던 목자는 그 싸움의 승리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 계속해서 다윗이 말하였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내신 야훼께서 저 불레셋 놈에게서도 소인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승리의 바탕을 이루는 대목이다. 주님께서 말하신 바,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요한복음5:30).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요한복음 14:10). 주님의 확신은 그분 안에 아버지가 현존 하시는데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한10:30). 인성 속의 신성은 그분의 능력의 근원이자 승리의 원천이셨다.

다윗의 용기, 더욱이 자신의 승리를 하느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다윗의 말에 흡족해한 사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나가거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젊은이가 비 무장한 상태로 사자와 곰과 대결했듯이 거인 장수와 대결시키고 싶지 않았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놋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주었다.” 그러나 사울의 무장은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다윗은 이런 것을 입어 본 일이 없으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것을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모두 벗어 버렸다.” 이런 대목은 비록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예상된다해도 비유적 측면에서 씌어진 성서 구절 중의 하나이다. 영적 의미는 성서 구절에 우연히 있어진 의미가 아니라 본래부터 내재된 의미요 가르침이다. 그 의미는 영감 속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 그 자체이다. 우선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은 가장 높은 표현적 속성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성한 진리(Divine truth)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으로 무장을 하고 전투에 나갈 수 없다. 신성으로

부터의 진리의 차원에서 주님은 말씀의 가상적 진리를 가지시고 천국과 교회의 적들과 싸우셨다. 그분은 가상적 진리를 수단으로 한 때나마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셨다. 즉 그들이 거둬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러 열 두 보좌에 앉게 된다고 약속하실 때의 경우가 그러하다. 사울의 무장은 말씀의 가상적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 진리도 골리앗의 무장이 표현하는 부패되고 뒤집혀진 상태의 진리에는 반대된다. 이 무장은 사울이라는 인격에는 어울리지만 다윗이라는 인격에는 적합치 못하다. 사실 다윗이 사울의 무장을 입은 것은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사울이 입혔던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렸다. 불완전한 모든 것, 가상적 진리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다윗에게 온 것인바, 그는 내부로부터 오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그것을 벗어 던졌다. 어찌됐든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하고 싸울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가 그것들을 입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성한 진리 차원의 주님은 전투 시에 신용할만한 무장으로 가상적 진리를 입으신 적이 없으시다. 사울은 무장을 갖추고 있었지만 불레셋과 위협을 무릅쓰고 맞붙지를 못했다. 그러나 불레셋 장수와 대적하게되는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하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걸맞지도 않는 듯 여겨지는 것, 그러나 사울의 무장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도구를 선택했다.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집어 들고 개울가에서 자갈 다섯 개를 골라 목동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돌팔매 끈을 가지고 그 불레셋 장수 쪽으로 걸어갔다.” 엄청난 장수와의 결전에 비해 이 도구는 얼마나 단순한가! 그 결과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 간단한 무기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다. 주님께서도 훨씬 더 강한 적들과의 싸움에서 위와 같이 알고 계셨고 그분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적에 대한 싸움이셨다.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위와 같은 것, 즉 잘못이나 죄의 속박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자신의 적과 싸워야만 할 때, 진리가 자신을 자유롭게 하게 만들어 보려 할 때 위의 다윗같이 느끼거나 최소한 줄거리의 의미에 신뢰를 들것이라 본다. 목자의 막대기에 대해서는 본문 이후 이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시편 23:1-4). 다윗은 자신의 능력에 의존치 않고 신성의 능력에 신뢰를 놓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의지와 신중성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선함과 지혜에 만사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다윗은 적극적인 공격 수단을 마련하여 스스로를 준비시켜 두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개울가에서 자갈 다섯 개를 집어들었다. 여기서 번역된 개울(brook)이라는 단어는 때로 개울의 바닥을 암시하는 말인 계곡(valley)으로도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울(brook)이 가장 근원적 차원에 해당되리라 보는데, 아마 어떤 이들의 경우 그 돌들은 산골짜기의 급류가 흐르는데서 취했는가, 아니면 그런 개울물이 마른 상태에서 개울바닥에서 주었는가 하고 추정해 보기도 하지만 이는 모두 불확실한 생각일 뿐이다. 다윗이 선택한 돌들은 최소한 개울에서 물의 작용으로 마모된 돌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매끈매끈해진 돌(자갈)은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명백한 진리들을 표현한다. 개울, 시내, 그리고 강들은 샘, 연못, 호수, 바다와 같이 거룩한 말씀을 상징한다. 이 말씀이란 하나의 책으로 있는 말씀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말씀까지 포함된다. 이런 물에 두 가지 구별되는 양상이 있다. 하나는 흐르는 물과 흐르지 않는 물이다. 흔히 흐르는 물(running water)은 때로 살아있는 물(living water)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물은 이해성과 삶 안에 있는 진리를 의미하고, 고여 있는 물(standing water)은 기억 속에 든 진리를 의미한다. 다윗이 개울에서 선발한 다섯 개의 자갈은 말씀인데, 뽀족히 말해서 총명과 살아있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말씀, 그러므로 전통적인 믿음, 죽어있는 믿음과 반대된다.

이 돌에 관해서는 우리로 좀 더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다. 이 돌들은 매끈매끈한 돌이었다. 총명하고 실용성 있는 믿음은 진리를 위해 일하되, 특히 믿음을 방어하는데 고용되는 진리를 위해 일을 한다. 개울의 물들이 흐르면서 돌에게 작용하는 것, 돌의 못난 형태와 꺼칠꺼칠한 형태를 벗겨 둥글고 매끈매끈하게 하듯, 실제에 사용되고 있는 믿음은 진리에 선함의 품질과 형태를 나누어준다. 이 돌이 다섯 개였다는 것은, 이런 진리들이 선함과 진리의 품질들을 스스로 하나되게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 돌들을 선발했다는 것은, 진리들을 삶의 각 용도에 알맞도록 식별하여 잘 골라야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돌을 목동 주머니(보따리, scrip, shepherd's bag)에 담았다는 것은, 진리들은 삶이 사용해야겠다고 요구할 때까지 교리 속에 놓여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보따리(주머니, scrip)에 관련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평화로운 선교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대(scrip)를 지니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나 과월절 밤 세상의 권세와 싸우게 되는 때가 가까워 올 때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그러나 지금은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식량자루(scrip)도 가지고 가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겹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 가지고 가거라”(누가22:36). 이 구절을 참작하면 주머니(scrip)는 싸움이라는 상태와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따라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주머니는 악과 거짓을 파괴시킬 진리를 담아 운반해주는 교리적인 형체를 의미해준다. 이 주머니와 더불어 그가 집어 담은 돌과 더불어 사용될 도구까지 지참하고 있다. 돌팔매끈(sling)은 활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활은 싸우는 교리를 의미한다. 교리는 두 가지 주요한 용도가 있다. 그 하나는, 성경 내에 산재하는 다각적인 진리를 한 가지 주제에 관련하여 모아놓고 병합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돌이 모여있는 주머니나 화살을 담고 있는 화살통과 같은 쓰임새이다. 다른 하나는, 진리에 방향과 힘을 주는 경우이다. 진리가 악이나 오류와 싸우는데 고용될 경우인데 활과 돌팔매끈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무장한 다윗은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불레셋에 더 가까이 접근했다. 불레셋 장수도 다윗에게 가까이 접근했다. 불레셋 장수가 다윗에게 말한다. “막대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개란 말이나?”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위엄을 역설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그려 내줄 때가 있다. 이 경우가 골리앗에 해당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할례 받지 않은 자란 감각적인 자를 표현하기 때문인데, 이것 또한 개에 대한 성경적 의미도 된다. 이 불레셋 장수는 자기 신을 불러 다윗을 저주함으로 자기의 표현적 품성을 더 적나라하게 나열해주고 있다. 심정과 지성이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불러대고 있다. “나오너라. 네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이는 진리의 선을 찢어 버리고 욕욕적 마음의 욕망과 생각으로 먹어치우겠다는 말이다. 이 거인의 함성에 대한 다윗의 응답은 고상한 단순함의 하나요, 전적으로 하느님을 신뢰함이고, 그분에게 예상되는 승리의 영광을 다 돌리는 응답의 소리이다. “네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 주셨다. 나아말로 네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네 시체와 불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네 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응답의 소리는 싸움에 대한 확신성만을 표현한 게 아니라 예언의 언어에 속한다. 이런 방식으로 말한 사람은 단지 그것을 밝히 알게 해준 삶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 “살과 피는 너에게 그것을 밝혀주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해주시리라.” 이 말씀은

더 높은 견지의 예언적 말씀이다. 그 이유는 다윗은 오시는 구속자의 모형으로서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주이심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제 진행되는 줄거리 속에서 다윗의 말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될 것이다.

불레셋 장수가 한걸음 한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대열에서 뛰어나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팔매질을 하여 그 불레셋 장수의 이마를 맞혔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돌팔매질의 결과는 대단했다. 믿지 못할 정도이겠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힘과 기술면에서 있게 된 이와 같은 묘기는 표현적 처방이라는 측면에서 초자연적 원인과 초자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인들의 세계인 영계는 원인들을 밝히 알게 해주는 빛이 오는 세계이기도 하다. 말씀의 영적 의미라는 빛 속에서 볼 때, 간단한 수단으로 다윗이 쉽게 승리하는 것은 악과 오류에 대적하는 기독교인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게 해준다. 그 자체 만만찮은 적, 성경을 낭용했음을 알면서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추론들, 이것들은 순수한 교리를 수단으로 말씀의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를 적용하면 즉각 타파할 수 있다. 오류의 복잡성에 대한 특효약은 진리의 단순성 외에는 어느 것도 없다. 종교의 필수가 되는 원리들은 성경 안에서 명백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아주 단순한 마음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만일 기독교인이 다음과 같은 확신, 싸움은 주님이 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 오류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밝혀지는 신성한 진리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안주할 수 있다면 만사는 해결된다. 다윗의 주머니에 든 돌들 중의 어느 하나, 어느 한 개의 진리만 가지고도 “믿음으로만...”이라는 오류에 대적해 낼 수가 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그 이유는 모든 이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육체를 가졌을 때 있었던 행위대로, 그것이 선했든, 악했든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진리들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오류의 앞머리를 관통시킬 수 있다. 이마(forehead)는 가장 깊은 마음, 가장 높은 마음과 상응된다. 그러므로 진리 중에서 으뜸 되는 원리, 또는 오류 중에서 으뜸 되는 원리를 말하게 된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짐승도 불레셋으로 표현된 것과 같은 거짓 신앙을 상징하는데, 이 신앙(종파)의 추종자들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있다(계시록13:16).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거짓 신앙을 삶이라는 바깥쪽으로, 이마는 마음이라는 안쪽으로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거인의 이마란 거짓의 내면을, 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것은 진리가 거짓의 깊은 속을 관통해서 그 힘을 꺾었다는 말이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응용할 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경험은 삶의 행동이나 말 속에서 뿐 아니라 심정 속의 의도나 생각 속에서까지 가능하다.

다윗의 승리는 돌이 이마에 박히는 것으로 끝내지는게 아니다. 거인이 쓰러지자 그는 달려가서 거인의 목을 밟고 서서 그의 칼로 목을 잘랐다. 거인의 칼이 거인의 목을 스스로 자르도록 되돌려지는 방법을 주님의 말씀에서 또 한번 찾을 수 있다.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마태복음26:52). 이는 분명한 영적인 법칙인바 그 작용은 언제나 불변한다. 진리를 꺼꾸러트리려고 거짓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칼로 멀해지고 만다. 거짓이 진리를 뒤집고자 정면 대결을 요구해 올 경우 죽음만이 놓여진다.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칼이다. 글자에 있는 진리의 가상에 기초를 둔 어떤 교리적 오류들, 그것들이 단순성과 신실함을 견지하고 있다면 영적 생명을 파괴 시킨다고 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정교한 추론이 오류를 확충하면서 진리를 무효화 시키려는데 고용될 때 영적 생명의 파괴는 야기된다. 오류는 악을 좋아하고 진리는 악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록치 못한 싸움을 지속하려드는 이들은 칼을 빼어 쳐든 사악한 자들과 같은바, “제 칼에 염통이 터지고 활은 부러지고 만다”(시편37:15).

다윗의 승리는 불평등한 대결의 구경꾼이었던 양 진영의 군대에 당연한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불레셋군은 저희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불레셋군을 추격하여 갓을 지나 에크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하라임에서 에크론에 이르는 길에는 불레셋군의 시체가 뒹굴게 되었다.” 사하라임은 유다의 성읍인데 그 이름의 뜻은 두개의 문이다. 갓은 골리앗의 출생지로 포도주 틀이라는 뜻이다. 에크론은 불레셋 신들 중의 하나가 있는 불레셋의 우두머리가 되는 성읍으로 뿌리째 뽑음(uprooting)이라는 뜻이다. 이런 세부사항들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바, 주도하는 원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그것과 상통하는 원리들은 새 활력을 얻거나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본문의 경우 진리와 선들이 생각과 애정 속에서 승강되어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가 내면으로 침공한 악과 거짓을 축출해내면서 그것들이 점령하여 우상 신들을 모셨던 최말단 바깥 부분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에크론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이었다. 비록 불레셋이 아직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해도 그 지역은 어떤 상태, 즉

악이 외적 인간으로부터는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 그러나 그 외적 인간 속의 악까지 뿌리째 뽑혀야 하도록 운명으로 정해져 있고, 이는 지식이라는 문을 통하여, 시험이라는 포도주 틀을 수단으로 하여 가능하도록 운명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반격하는 진리의 칼들이 악과 거짓을 무력하게 만들고야 한다.

이스라엘 군대가 당황해진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 동안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부스족이 점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자기의 전승물을 왜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어 왔다. 훗날 다윗은 예루살렘의 정복자가 되었다. 장차 나라를 통치하게 될 왕국의 수도에 이스라엘의 강적에게서 취한 전승물을 운반해 놓아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이 될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거인의 무기를 다윗은 자기 천막에 보관하였다. 골리앗의 무기는 무기라는 자체로만 보면 선하고 진정한 것들을 표현한다. 그의 무기도 말씀으로부터 획득되었던 것인데 악한 용도에 충당되었을 뿐이다. 이것들이 선을 더럽혀지게 했을 때, 그것들은 반드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져야만 한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선을 방어하는 데만 사용되고 악의 방어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들은 마음 속에 간직될 수 있는바, 다윗이 자기 천막에 골리앗에게서 취해온 것들을 보관하는 것과 같다.

블레셋 장수와 대결하러 나가는 것을 본 사울은 다윗에 대해 궁금하여 사령관 아브넬을 시켜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도록 명령한다.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그의 손에는 블레셋 장수의 목이 들려 있었다. ‘이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임금님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대목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른 이해하기에 곤란한 것은, 다윗은 사울의 무기당번을 지냈고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했던 기록으로 보아 사울과 다윗은 서로 낯이 익은 사이일텐데 어떻게 이 구절의 경우 서로가 전혀 모르는 듯 대화가 오가고 있느냐는 것일 게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안하는 것은 이 줄거리의 한 부분이 생략되었다거나 위치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다. 그렇다고 이 줄거리의 어떤 부분에 이의를 달게 하는 어떤 비평적인 것도 없다. 단지 불일치한 듯 여겨지는 것뿐이다. 더구나 거룩한 문서의 한 부분을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도 있을 수 없다. 이 줄거리에도 이 대목을 계속 유지 존속하게 하는 더 높은 이유들이 있으리라 본다. 사울에게 처음 알려지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되어 있는 데에는 영적 원인이 있다. 다윗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무기당변이 아니라 큰 대결의 영웅이다. 그는 보기만 해도 떨리게 했던 장수를 죽이고 적의 군대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다윗 앞에서 누구도 대결이 불가능하다는 힘의 표시로서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사울 앞에 서있는 모습은 사울 자신의 가슴까지 흔들리게 하고 있다.

## 11

### 사무엘상 제18장

####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구약성서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를 사랑했던 즐거움을 제외하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만큼 순수하고 고상한 품성은 발견하기 힘들다. 요나단의 경우는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했던 것과는 달리 상호간의 사랑이었다. 두 사랑의 품성 중 유사한 점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고 국가적 해방을 성취하는 일로 인해 밖으로 돌출 되면서 서로는 더 가깝고 더 오래 지속되는 우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유사점 중에서도 헌신적인 친구들 중의 하나로서 요셉에게 근사한 것이 요나단에게 있다. 도덕적 차원에서 수행이 가능한 자기 희생의 가장 고귀한 행동들 중의 하나는 요나단의 따뜻하면서도 관대한 사랑일 것이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가 패하여 도망치는 전쟁터로부터 다윗이 귀환하고 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애국심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영웅의 애국심과 사귀어지고 있는바,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다 내주었다.” 이 행동은 이스라엘의 영예를 스스로 입증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주님의 원인(cause)을 유지 존속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행동이기도 하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역사는 드높은 애국심, 사리사욕 없는 우정 관계에 관한 아름다운 실례를 꼭 하나 공급하고 있는 반면, 이 아름다운 우정관계에 천박하게 무례하고 악의에 찬 행동을 대비시켜 그들의 우정이 더 인상 깊어지게 하고 있다. 사울, 자기 영예가 존속되게 해주었고 그의 왕국도 건져준 사람은 사실 다윗이다. 그래서 그는 한 동안에 불과하고 말았기는

했지만 젊고 용감한 용사로 다윗을 환대하고 호뜻하게 여겼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숙명의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어찌됐든 사울과 다윗이 만난 초기에 그들은 전쟁터에서 예기치 않은 승리를 이스라엘에 가져오곤 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 노래는 사울의 귀를 거슬리게 하여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날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날로부터 다윗의 수금 소리도 사울의 마음 속에 있는 악령을 몰아 낼 힘을 잃었는 듯 여겨진다. 그래서 악령이 덮친 사울을 위해 수금을 튕는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릴 생각으로 창을 던졌던 것이다.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모든 것, 다윗을 이배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윗을 죽이려는 쪽으로 치닫기만 하고 있다. 그는 그의 아들과 신하들에게도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의 불의한 행동이나 명령이 철회되도록 간청도 했지만 자기까지 다윗과 한패로 몰리기도 했다. 궁지로 몰아가는 상황에서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하느님의 보호로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였다. 결국 두 친구들은 우정을 맹세하면서 마지막 작별을 하고 말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품성과 행동의 차이점들로부터 매우 유익한 교훈들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관심도는 똑같았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생각과 행동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두 사람 모두 다윗이 기름 부어진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건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왕국은 주님의 것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겸손히 따라가야 마땅한 것일 게다. 요나단은 그렇게 행동했다. 그는 하느님께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의 우정으로 행동했다. 그 반면 사울의 개인적 성격, 아버지라는 그의 입장에서의 감정 모두가 두 젊은이들의 주장에 반감을 품고 있다. 요나단의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바 각자의 개인적 느낌은 하느님의 의지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사사로운 관심사항은 공적인 선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 자아를 떠나 타인의 장점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반면 사울의 행동들로부터 무례함, 시기, 질투라는 악덕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주고 있다. 이 정도의 사항은 본문의 역사 줄거리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사항일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 줄거리 속에서 빛나는 영적 의미는 우리로 한층 더 높은 교훈을 받게 해줄 것이다.

성경의 역사물들에 빛이 드리워짐으로 우리는 내적 의미 안에 있는 신성과 영적 의미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스라엘의 세 왕은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각기 주님을 표현하되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을 만들어 가시는 세 단계 즉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 신성한 진리(Divine truth), 신성한 선 (Divine good)을 표현한다. 사울은 그분께서 인성을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 만드시는 단계, 또는 유사한 인간의 이해에 와 닿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즉 천사들이나 세상의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진리를 표현한다. 엄격히 말해서 신성한 존재 안에서가 아니면 절대적 진리는 존재 않는다. 순수한 진리는 제아무리 높은 총명이 있다 해도 그 총명의 납득력을 초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순수한 진리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무한과 유한 사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 않는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언제나 상응(correspondence)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유한한 진리의 등차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 영적, 천적 등차이다. 이 등차 안이나 이 등차 너머에 순수하게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비록 유한한 존재에게 절대적 진리 또는 순수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그 안에 순수한 진리와 유사하거나 그 진리와 관계되는 진리는 존재한다. 천국 안에는 진리의 가상(appearances, 외관)들이 존재한다. 가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진짜 가상들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순수한 진리가 감각의 대상으로서 진리 자체를 표현할 경우 진짜 진리들이 입고 나타나는 것이 진리의 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수한 진리들은 그 진리를 생산해 주는 상태와 연결되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리들이 표현하는 실재와 틀리는 일이 결코 없고 상반되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상에서 의 상황은 다르다. 지상에 있는 가상적인 진리들은 인간 마음 안에서 순수한 진리와 똑같은 주제와 연결되어 존재하거나 그로부터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상의 가상적인 진리들은 변함이 없어 그 진리가 이 상태와 있든 저 상태와 있든 똑같다. 예를 들면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가상들은 변함이 없고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존재한다. 이런 사실(가상적 진리)은 진짜 진리를 아는 이에게나 모르는 이에게나 똑같이 존재해 준다. 지상에 있는 만물이 지니는 이런 속성 때문에 말씀의 글자나 자연적 진리는 아주 많은 가상적 진리 (apparent truth)들을 내포하고 있다. 자연적 진리조차 가상으로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진리들이 자연계로 내려오고 인간의 자연적 마음에서 그 진리가 스스로 표현하려 할 때 얼마나 더 두껍게 가상이라는 옷을 입을까 는 짐작되리라 본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울과 요나단은 말씀의 가상과 실상을 표현한다. 글자적 의미도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관점에 의거해 보면 왜 다윗이 사울의 무장을 입고 전투에 나가는 것을 거절했지만 전투에 승리한 후 요나단의 옷과 무기는 기꺼이 입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천국 너머에 존재하는 진리,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신성한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은 말씀의 가상적인 진리를 입으시고 싸우시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 그분은 다윗이 전투에 나가기 전 사울의 무장을 입어보았듯이 가상적인 진리들은 입어보시고 평가만 해보셨을 뿐 다시 그것을 벗으시고 그분의 단순한 무기만을 취하셨을 뿐이다. 이 무기야말로 인간 자신의 도구로 들어올릴 수 없는 무기요 인간 총명으로 결코 다듬어지지 않은 무기이다. 비록 주님께서 말씀의 가상적인 진리를 입으시고 싸우시지는 않으셨다 해도 싸움이 끝나고 승리하셨을 때 말씀의 진짜 진리를 입으셨고 신성한 진리로서의 그분 자신과 하나되심으로 모든 것을 드높이시고 영화되게 하셨던 것이다. 이런 관점은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증오해 왔는데에 대한 원인, 그것들에 대한 영적 의미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이유가 주님이 더 완전해져서 그분의 인성이 더 신성한 진리로 되어 가면 갈수록 신성한 진리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사이의 간격은 더욱 크게 벌어져 양쪽의 차이가 분명해져 가서 결국 가상적인 진리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되어 결국 끝장을 보고야 만다. 위 내용을 토대로 우리에게 관련되는 상응에 속한 것이나 보다 낮은 영적 의미들로 초점을 맞추어보자.

이제 개개인의 경험이라는 범주에 성서 역사를 가져다 놓는 해석의 원리에 관점을 맞추어 보자. 사울, 다윗, 솔로몬은 거듭나는 삶으로 진보해 가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 거듭나는 마음은 자연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다시 영적 수준에서 천적 수준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진리를 지각하거나 사랑해 간다. 사울 통치의 역사는 자연적 마음, 마음의 자연적 수준이 거듭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연적 마음 자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요나단과 관련시켜 생각할 때의 사울은 자연적 마음의 거듭나는 상태 중에서 첫째에 해당되고 요나단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그렇지만 이 둘은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순수한 진리에 관련을 갖는 가상적 진리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거듭나야 가는 진보 과정에서 인간 마음은 계속 완전해지는데, 이 완전해 가는 과정은 계속적인 단계들 또는 우리가 지각 할 수 없는 어떤 등급을 밟아 결과된다. 더불어 보다 더 완전한 등급은 보다 덜 완전한 등급을 발판으로 해서 생산되어진다. 첫 단계에 있는 자연적 마음은 주님과 천국에 속한 사항보다는 세상과 자아에 관한 것들로부터 오는 애정과 생각들을 영적 사항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이 마음은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마음은 정의의 왕국에 속하는 새롭고 더 높은 동기들이 마음에서 진정한 질서로 건립될 때까지 마음이라는 왕국의 왕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연적 마음, 첫 단계로서의 자연적 마음이 사울로서, 둘째 단계는 요나단으로서 간단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리의 가상들로 규율되는 자연적 마음의 첫 단계가 사울로 적절히 표현되고 둘째 상태 즉 순수한 진리의 방향 아래에 오게 될 때의 상태는 요나단으로 표현됨은 지당할 수밖에 없다. 첫 단계의 자연적 마음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대우했던 모양대로 영적 마음에 적의를 품고 있다. 그러나 둘째 단계의 자연적 마음은 요나단이 다윗을 대우했던 것 같이 영적 마음과 하모니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있다. 마음의 계속되는 상태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왕들의 역사 부분에 있게 되는 주변 여건에 담긴 의미도 명백히 보게되어 그 의미 또한 유용하게 응용되리라 믿는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서 보고를 마치자마자 요나단의 영은 다윗의 영과 한데 깊어졌다. 미혹하는 영, 기만하려드는 추론인 골리앗, 즉 천국이나 행복은 하나님을 우러르는 신앙의 힘과 실제 생활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 추론을 타도하고 나면, 자연적 수준에 있는 것과 영적인 수준에 있는 것은 서로 깊어져 절대 풀어 질 수 없는 끈으로 하나되게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복음14:23). “사랑은 율법을 완성되게 한다.” 사랑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 없는 믿음이다. 그 이유는 일이 없는 믿음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죽은 믿음이 내다보는 천국은 일하다가 쉬는 장소가 아니라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장소인 줄 착각한다. 아마 이런 삶이 천국이라면 오히려 김빠지고 지루한 영원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삶일 경우 그 삶은 유용한 것도 행복한 것도 실상 되지 못한다. 정의로웠던 사람이 들어가는 사후의 쉼이란 그들이 자연계에서 필히 부딪쳐야 했던 자연적 생각, 악에 잘 기울려는 경향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잘못과 악들을 물리쳐 승리했음으로 획득되는 평화의 상태를 말한다. 또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아마 위의 쉼의 상태는 이 세상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라도 획득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외향의 시련이 있는 동안에도 내향의 평화는 존재할 수 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경우가 그 실예이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수여하시면서 동시에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과 짜깁어질 때, 두 마음 사이에 내적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설사 자연적 마음에

있는 악들이 다 제거되기 전이라 해도, 핏박을 당하고야 말 처지가 눈 앞에 있다 해도, 거기에는 내향의 평화가 존재한다. 영적인 것에 조화되도록 자연적인 것들을 가져다 놓는 것이 일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 가장 필요한 첫째가는 일은 두 마음 사이에 적대감을 형성시켜 분리를 시도하고 있는 악과 거짓의 정복이다.

요나단의 영과 다윗의 영이 짜집어졌을 때, 그리고 사울의 상속자가 이스라엘 왕국의 합법적인 미래의 왕에게 그 표시로 그의 옷과 무기를 주고, 띠를 매어 주었을 때, 그 둘은 서로 약속을 맺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기들 속에 존재했던 사랑과 그 둘이 하나님에 대해 실제의 결과로 나타나게 했다. 이렇게 언약된 우정은 이후 사울의 푸대접과 쓰라린 경험을 겪는 동안에도 다윗의 영에게 위로와 달콤함을 느끼게 했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모습은 기독교인에게도 여지없이 적용되는 사실들이다. 내향의 인간과 외향의 인간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져 하나되어 내면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 언약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박해에서 견뎌내게 하고 이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를 맞보게 해준다. 이 내향의 상태야말로 박해에서 버티고야 말게 해주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영적 고난은 내향의 인간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 즐거워하는 이들에게만 있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의 이런 법칙에 자꾸 도전해오는 또다른 법칙도 존재한다. 이런 또다른 법칙이 다윗의 경우에서 발견된다. 내향적 인간의 애정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높이 찬양하는 모습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보고서는 다윗을 사울보다 더 칭송하는 줄거리에 담겨있다. 그런데 이 칭송은 외향의 인간을 불쾌하게 만들고 분노를 치밀게 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 내에서 왕이라고 여겼던 자연적 인간은 그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게 된다. “이 자연적 인간(사울)은 왕국이라는 것 외에 더 나은 무엇을 더 지닐 수 있을까?” 의지에 있게 되는 사울의 상태는 즉각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 경계 태세에 골몰하게 한다. 마치 사울이 그 날로부터 다윗을 점찍어 주목하게 된 것과 같다. 이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된 나쁜 상태가 즉각 뒤따르고 있다. “이튿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 내리 덮였을 때이다.”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갖게 될 때 악령들은 우리 안에 재빨리 들어와 우리를 규율하게 된다. 이 악령들은 의지 속의 악들을 은밀하게 흥분시켜 이해성 안에 거졌던 생각을 던지시 귀땀해준다. 의지가 은근히 심으려 드는 거짓들이란 진리의 가상을 뒤집어 쓰려고 의도하는 것, 한마디로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것이다.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도 사탄은 말씀 속의 진리를 가지고 유혹했었다. 유혹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오고 있다. 우리는 진리의 가상을 통하여 시험받아진

다. 이런 진리의 가상들 모두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구부러져 있으면서도 자기 것이 상대방의 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받으려 한다. 결론적으로 악이 선인 듯 나타나게 하려든다. 사울 안에 들어온 악령은 그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들었다. 악령이 예언하는 능력을 선물로 증여한다는 것은 기묘한 일인 듯 여겨질지 모른다. 비록 점쟁이 이긴 하지만 발람도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외의 어느 것도 예언할 수는 없었다. 예언자들은 닥쳐 올 사건을 예보했을 뿐 아니라 선생이기도 했다. 거짓 예언자들이 때로는 진정한 예언을 발표 할 수 있듯이 거짓 선생도 진정한 교리를 가르칠 수도 있다. 사울이 예언한 것들의 본성이나 주제가 무엇이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악령에 사로잡힌 그의 영혼이 예언한다는 사실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계발되어졌거나 훈육 받은 이해성일 경우라면 불순한 심정과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이유는 뒤쪽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앞에서는 올바른 소리를 내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은 슬기로운 용도를 위해 허용되기도 한다. 인간의 정상적 상태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하고 자기가 뜻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일 게다. 이것이 인간의 근원이 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심정이 타락되었을 때, 필요한 작업은 의지의 절대적 지배에서 이해성은 이탈되게 하여 인간이 자기 심정을 똑바로 들여다 보고 그 상태를 가늠해서 무법천지 같은 동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참다운 선물 역시 남용 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인간은 자기 의도를 감추기 위해, 또는 자기 의도가 더 큰 재주를 발휘하기 위해 생각이라는 자기 능력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 예언을 중얼거리면서도 한편으로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궁리했고 과거 다윗이 수금을 타을 때에는 악령이 가셔져서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는데 본문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 다윗이 두 번이나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이해성에 선한 심정이 결합된 결과로부터이다.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수준에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야훼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두려움은 사랑에 앞서 있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다. 그의 두려움은 사랑을 책략을 써서라도 사랑 대신 자리를 차지하여 앉겠다고 골몰하는데서 오는 두려움이다. 그리하여 마음의 중심을 점령하고 사랑을 밖으로 내몰겠다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궁에서 내보내어 천인 부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지휘관으로 배치한 것은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 가운데 올라가게 해주어 다윗의 용감성을 입증되도록 하려는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명령이 담긴 위 구절은 거듭나는 마음 안에서 자연적 수준을 증가하는 영적 수준들이 힘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 부분에서 표현되는 상태는 영적 수준이 자연적 수준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 그러나 그 상태에서 자연적 수준이 제 스스로 자기가 빠질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마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잘 발견된다. 이를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인간의 분노는 당신의 영광을 더 할 뿐이요 당신의 진노에서 살아 남은 자들이 당신의 축제를 지키리이다”(시편76:10). 신성의 뜻에 인간이 반대하는 것,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신성과 영적인 것을 강하게 만들고 더 드높여 줄뿐이다. 다윗은 번영해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어 만사를 슬기롭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를 사랑했다. 그는 앞장 서서 싸우러 나가고 돌아와서는 그들 품에 다시 안겼기 때문이다. 가장 높으시면서 가장 낮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 오리오? 우리 속의 인간, 내향의 인간이 모든 일에서 슬기롭게 있어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떤 악도 우리 앞에서 나가 떨어지고 오로지 선함만이 우리 안을, 우리 주위를 감싸주리라,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게 될수록 다윗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은 더한층 깊어져 갔다. 그리하여 또 하나의 음모가 다윗을 죽이려고 꾸며지고 있다.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제안했다. “내 맏딸 메랍을 네 아내로 줄 터이니 나를 위하여 야훼께서 앞장 서시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워다오.” 그러나 이 말은 “자기의 손을 쓰지 않고 불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속셈이었다.” 사울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이 줄거리에서 상기되는 성경 줄거리는 라반에게 있던 두 딸 레아와 라헬이다. 야곱과는 달리 다윗은 두 자매와는 결혼하지는 않았다.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시켜주마고 했던 맏딸의 경우에는 부마로 삼는데 대한 특별한 과제가 할당되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둘째 딸을 주기로 하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 결혼이 성사되는 조건으로 불레셋 사람의 포경 백 개를 잘라 오라는 것이었다. 둘째 딸 미갈은 라헬처럼 진리를 사랑하는 내면의 마음(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갈이 표현한 애정이 라헬이 표현했던 애정과 똑같은 영적 수준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곤란하다. 그 이유가 미갈은 사울의 품성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갈이 표현한 애정은 내면에 있는 자연적 애정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 같다. 더구나 성서는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 야곱을 사랑한 상호적인 사랑이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미갈을 신부로 맞는 조건을 쾌히 승낙하고 있다.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이 쳐 놓은 함정에 빠진 듯 했지만 그 덫을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왕이 요구한 백 개보다 두 배나 더 많이 잘라다가 바쳤다. 하는 수 없이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삼게 했다. 사울은 다윗 스스로 죽음의 함정을 파게 하고 싶었으나 이제 그는 나라 안에서 자기 지위보다 더 확고한 위치로 부상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 오고 있었던 셈이다. 아마 포경 이 백 개를 받은 사울의 표정을 영화 장면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어떠했을까? 이 포경들은 사울의 심정 역시 할례 받지 못했음을 뜨끔하게 가르쳤을 것이다. 그 반면 다윗은 훗날 그에게 주어지는 명령을 내다보면서 순종한 셈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의식 규례에 늘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한 구절을 찾아보자. “유다 국민들아 예루살렘 시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받아 네 심정의 표피를 벗기고 나에게 속하라” (예레미야4:4). 이와 같은 한 개의 명령 속에도 두 개의 대립되는 상태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눈으로 똑똑히 보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 별 의심을 갖지 않게 하지만 자기 딸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끝까지 그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는 대목의 경우에는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자기 딸과 다윗이 결혼한다면 장인 어른이 되는바 자기가 겁먹을 이유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 글자대로 사울이 표현하는 것은 육욕적인 마음이다. “육적인 마음(carnal mind)은 하느님을 원수로 여긴다. 그 이유가 그런 마음은 하느님의 법에 종속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코 종속 될 수도 없다.” 육에 속한 마음은 바뀌어 영적 마음이 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그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 육적 마음은 썩어짐, 쇠퇴함이라는 자연스레 있어지는 붕괴 과정에 의해서가 아닌 싸움이라는 충돌에 의해 잘라 내진다.

## 사무엘상 제19장

요나단이 모함을 당하는 다윗을 변호하고, 미갈이 그를 사울의 분노에서 구해준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한 시도나 블레셋의 손을 빌어 죽게 만들려 했던 계략 까지도 좌절되었을 때, “그는 아들 요나단과 온 시종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구절만 보아도 사울이 불행을 더 크게 확대시키고 그의 마음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 사울이 자연적 인간을 표현하는바, 그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상황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많은 이들이 악령에 휘말려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정신이상으로 미치광이가 되어 있기도 했다. 사울의 불건전한 마음은 미래에 있게 될 그의 행동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정신이상의 초기 단계 중 하나는 어떤 때는 올바른 이성으로 일을 처리하지만 곧바로 이전의 망상 상태로 빠져들고 하는 상태이다. 사울의 미래 역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은 자연적 인간의 상태 중 두개의 다른 단계를 표현한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사울은 외관에 의거 외향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이고, 요나단은 외관에 의거 내향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이다.

외관(appearance)에 의거 판단할 경우, 영적인 수준은 자연적 수준에 상반되는 듯 여겨진다. 세상적인 사람은 종교는 자기들의 최상의 이익에 반대만 한다는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판단한 것은 공의로운 판단이었다. 그 이유는 그 판단은 진짜 진리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아뢰고 있다. “아버님, 아버님의 신하 다윗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아버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 해 드린 것밖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 주신 것을 보시고 아버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다윗을 죽여 죄없는 피를 억울하게 흘리게 하시렵니까?” 그의 감동적인 호소는 설득력이 강한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호소는 왕의 이해성 뿐만 아니라 심정까지 움직이는데 실패할리 만무하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경청하고 ‘야훼께서 살아 계시는 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귀뜸해 준 것은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내일 아침은 숨어서 꼼짝 말고 몸조심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고 나서 자네에게 알려 주겠네”이었다. 이와 같이 위험한 시기에 영적 원리들은 은밀한 장소에 숨는데, 숨는 수단은 마음의 내적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외적 감시의 반경을 벗어난다. 그 뒤 새로운 상태인 아침에 요나단은 자기가 명상한 좋은 결과를 말해줄 수 있고, 그런 다음 사울에게 다윗을 데려오게 된다. 그리하여 예전과 같이 그는 사울의 면전에 있다. 이렇게 매개체적 원리를 수단으로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서로간에 재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재회도 단 기간일 수밖에 없는 게 흠이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자,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불레셋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찔러 쫓아 버렸다.” 겉으로 보아 좋게 여긴 것, 좋은 해결책으로 사울을 확증케 한 것도 사울의 옛 습관인 증오심만을 더 섬기게 했을 뿐이다. 다시 “사울이 궁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야훼에게서 온 악령이 그에게 내렸으므로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탔다. 그 때,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으나 다윗이 왕의 창을 피하는 바람에 창이 벽에 꽂혔다. 다윗은 도망쳐 나왔다.” 그래서 그는 그 밤을 피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두 번 시도하였고 다윗은 두 번이나 그의 면전을 피해야했다. 이는 사울이 자기 속셈을 드러내는 더 결정적인 노력일 뿐이다. 그 이유는 창이 비록 다윗을 비꼴다 해도 벽에 박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하여 그 밤을 피하면서 결코 사울 앞에서 수금을 쳐지 않게 된다. 벽에 박아 버린다는 것은 죽이려는 것 뿐만 아니라 품위를 격하시키겠다는 것까지 포함된다. 영적으로도 이 모습은 그에 상응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벽은 집 자체의 의미 중에서 외부 측면에 해당된다. 이 집은 사울의 집이고, 사울 자신이 자연적인 인간을 표현하는 바 그 집의 벽이란 자연적인 마음을 의미한다. 다윗을 그 집의 벽에 박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자연적 것의 외부로 바꿔 못박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된다면 생명에서 영적인 것이 박탈되고 게다가 개혁하고 거듭나질 수 있는 자연적 능력 자체까지 결여되고 만다. 이런 현상이 모독의 죄를 표현하고, 이는 영성을 불순한 자연성에 폭 잠기게 하고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연결되어 결국 회복이 가능한 참 능력마저 파괴되고 만다. 따라서 벽에 다윗이 박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세 번씩이나 사울이 죽이려 시도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진 다윗은 이제 도망하고 있다. 비록 그가 사울로부터 달아났다 해도 그의 안전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 달아났을 때 그는 부하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경계 하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남자다운 지혜를 발휘했던 것 같이 미갈은 여자다운 책략을 사용했다. 물론 요나단이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비해 그녀가 그렇게는 못했다 해도 어찌됐든 자기 남편의 목숨을 구해주고 있다. 왕가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은 어쨌든 이상한 것이 아닐까?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말하신 대목에 적합한 모형이 아닐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을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마태 10:34-36). 주님은 갈라지게 하는 무고한 원인이시다. 마치 다윗이 사울의 집안으로 하여금 갈라지도록 하는 원인이 된 것과 같다. 주님의 경우도 다윗의 경우같이, 그분을 미워하고 반대해댄 것은 옛 사람 이었고 그분을 사랑하여 친구가 된 것은 새 사람이었다. 본문의 다윗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마태 10:37) 는 구절을 미리 예상하도록 본보기로 우뚝 서고 있다. 요나단과 미갈이 사울을 덜 사랑했던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은 다윗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 사울이 자식들을 자기적인 듯 여겨지게 한 원인은 사울 자신의 행동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 앞을 피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도망자를 경계하기 위해 보내진 군졸들을 보고 그들의 의도를 알아맞히고 있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남편에게 ‘목숨을 건지려거든 이 밤으로 도망치세요. 그러지 않았다가는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하고 말하였다.” 시련과 시험의 밤, 즉 세상과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동안 영적 진리의 원리들이 몰살되려 하는 때 그 원리들은 마음의 내면에 있는 그 원리의 고향으로 은둔한다. 그 곳은 천국적 결혼으로 하나된 선함의 원리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자연적인 마음과 분리되어있는 이 선, 이 애정으로부터 영적 마음은 자연적 마음을 살살이 뒤질 수 있다. 적들로부터 야기되는 위험한 것뿐 아니라 음험한 책략을 피할 방법까지 찾아낸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 보내어 빠져 나가게 하였다.” 집에 설치된 창문은 육체에 있는 눈과 같고 마음에 있는 이해성 같은 역할을 한다. 창문은 빛이 들어오게 (admit)하고 집안과 밖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네 눈이 병들었으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누가11:34). 주님께서서는 상응을 통해 마음의 눈이 이해성인 것을 묘사하시고 있다. 게다가 성경은 창문 자체만을 예로 들어 위의 의미를 전달하고도 있다. 즉 예레미야(9:21)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이다.

“죽음이 창을 넘어 들어 왔네. 궁전에까지 들어 왔네, 거리에서 놀던 아이들을 모두 잡아 갔다네. 장터를 거닐던 젊은이들을 모두 끌어 갔다네.” 예레미야는 유추법을 사용해서 이해성을 통해 의지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악, 이 악이 순진과 총명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것을 묘사해놓고 있다. 정탐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파견되어졌을 때 예리고의 왕은 스파이들이 투숙한 라합의 집에 특사를 보냈다. 그 뒤 정탐원들은 라합이 내려준 밧줄을 타고 창문으로 해서 탈출했다. 그리고 라합은 분홍 줄을 그들이 탈출한 창문에 매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군이 예리고를 함락할 때 그녀의 집을 열른 알 수 있게 하여 그녀의 집안이 구원되도록 하는 표시였다(여호수아 2장). 이 줄거리도 역시 창문은 이해성과 총명을 상징하고 있다. 이를 수단으로 해야 사악한 자들의 음모가 좌절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선한 것이 악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군이 예리고 성을 공격하는 동안 창문에 분홍색 줄(scarlet thread)이 놓여 있는 상태란 이해성에 이타애가 있는 것, 또는 진리 안에 선함이 있는 것, 믿음 안에 사랑이 놓여 있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는 심판의 때, 결정해야 할 순간에 보호와 구원이 항상 뒤따른다.

그런데 다윗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직 실시되어야 할 것이 더 있다. 다윗이 도망친 줄을 사울의 부하들이 알게되면 그를 잡으러 추격할 것임을 미갈은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안 수호신을 가져다 침대에 누이고 염소털로 짠 것을 그 머리에 씌운 다음 옷으로 덮어 놓았다. 사울이 보낸 군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그가 와병 중이라고 하였다.” 사울의 군졸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수호신(the image)은 아마 인간 형태를 한 우상일 것으로 여겨진다. 테라빔(teraphim), 이 단어는 번역하지 않고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쳤던 우상(image)과 같은 말로서 그 구절에서 그 형상을 자기들 “신들(gods)”이라고 부르고 있다 (창세기 31:19,30). 그리고 판관기를 보면, “미가는 그 신상을 집에 모셨는데... 레위인이 그것을 훔쳐 달아났다...”(17:5, 18:20). 위의 인용한 구절이나 본문의 구절에서이든 이 형상들에 존경을 표하는 상태가 암시 되도록 말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말씀의 다른 부분들의 경우 미신에 사로잡힌 존경의 대상으로 말해지고 있다. 예제키엘이 말한다. “바빌론 왕이 두 갈래로 갈리는 길목에 멈추어 서서 점을 칠 것이다. 화살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수호신(teraphim)들에게 물어 보기도 하고 간(liver)으로 점쳐 보기도 할 것이다”(21:21). 즈가리야가 말한다. “그런데 우상(teraphim)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들은 허깨비를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10:2). 부패된 유대 교회 안에서

이런 형상들이 언급되는데 열왕기하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 “요시아는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도깨비나 귀신을 불러 물어 보는 자들과, 가문의 수호신과 온갖 역겨운 우상들을 눈에 띄는 대로 쓸어 버렸다”(23:24). 스웨덴북에 의하면, “테라빔은 하느님에게 물어보고자 할 때 상의하거나 조회해보는데 응용한 우상들이다. 이 백성들이 받은 응답들은 그들에게 신성으로부터의 진리이었는데 고로 그 진리들이 그것들에 의해 의미되어지게 되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것처럼 오랫동안 왕도 대신도 없고 희생제물도 석상도 없으며 에봇도 수호신도 없이 지낼 것이다’(3:4). 에봇과 테라빔(수호신)은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명시하는 말이다. 이것을 그들은 응답으로 여겼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느님께 문의 할 때 에봇을 걸쳤기 때문이다.” 질책의 말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테라빔의 경우, 그것은 주로 순박한 상태의 사람들, 즉 라반이나 미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졌다. 이럴 경우 테라빔은 가상적인 진리들을 표현하도록 등장되고 있다. 이런 진리들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진리와 비슷하다. 이 글자적 의미는 단순한 사람들의 이해력이 신성한 진리를 채택한 경우의 수준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쉽게 진리가 뒤집히는 결점이 있다. 총명이 더 진전된 상태에서도 테라빔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우리는 위의 사실을 입증 받을 수 있다. 스웨덴북이 사용한 어구 “신성으로부터의 진리, truth Divine”은 위에 살핀바 같이 가상적인 진리(눈에 나타난 대로의 진리, apparent truth)를 뜻한다. 이 진리는 진짜 진리, 절대적인 진리 즉 신성한 진리(Divine truth)와는 매우 다르다.

위에서 살핀 사항을 기초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것은 미같이 취한 행동 즉 다윗의 침대에 테라빔(수호신)을 눕히고 염소털로 짠 것을 베개로 놓고 (머리에 씌운 다음) 옷을 덮어 놓은 모습이다. 다윗이 표현하는 신성한 진리가 그 진리를 파괴하려드는 이들의 시야에서 섭리적으로 옮겨져질 때 가상적인 진리가 신성한 진리의 자리에 들어앉게 된다. 이것은 교회 자체의 기능(agency)에 의해 결과되는데 가장 깊은 의미에서 미같이 그 교회의 기능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이 말씀 속의 진짜 진리(real truth)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때 진짜 진리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슬기 있게 그리고 자비롭게 감추어진다. 그 결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허용되는 진리는 오로지 가상적인 진리뿐이다. 그 이유는 그 수준의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전부가 그 진리뿐이기 때문이다. 만일 위와 같은 수준, 자연적 수준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볼 수 있게 허용된다면 그들은 영적 진리를 모독하고 파괴할 것이다. 마치 사울이 부하를 보내 다윗을 죽이려 한 것과 같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영적 진리를 슬기롭고 신중하다는 이들에게는 감추이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밝히 알게 하신다 (마태 11:25). 교인이 악 속에 있게 될 때 주님께서는 허용의 섭리로 그들이 거짓 추구에 몰입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 이유는 올바르게 진리를 붙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짓말을 믿는 게 그들에게 덜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미갈은 다윗을 죽이려 보낸 사울의 군졸들에게 그가 와병 중이라고 둘러댔는데 이것이 위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 딸 미갈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원수 놈을 도망치게 했다고 문책했을 때 그 여자의 대답은 ‘빠져나가게 해주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는 데 어떻게 합니까?’에서도 위 원리가 표현되고 있다. 이런 미갈의 비진리적인 것이 신성하게 명령된 사건이라 말할 필요는 없고, 또한 거기서 영적 생각을 탐사할 수 있도록 영감되어 있다고 굳이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그 여자의 말들은 그녀에게서 자발적으로 나온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영감된 필자에 의해 씌어져 있고 이 줄거리 역시 거룩한 역사, 즉 신성한 지혜가 천국적이고 신성한 진리의 본토라 할 수 있는바, 그 줄거리 역시 새롭게 다른 품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런 대목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종류의 서술은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런 대목이 진리를 위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또한 그 시대에 대한 하느님의 처방 밑에서 양심을 넘어 섰다는 식으로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악의 있는 거짓말과 인정 많은 비진리 사이, 다시 말해서 악한 영향을 일으키려고 말해진 거짓말과 악한 영향을 예방하겠다고 말해진 거짓말 사이의 구분은 어느 시대에서나 폭 넓게 존재한다. 진리에서의 이탈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허용될 수 없다고 어떤 이들은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진리의 원인은 진리를 절대적으로 고수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모든 해악된 거짓말과 사심에 쏠린 사기들이 실제의 거짓말인바, 이것들이 지상으로부터 추방되어 질 때에야 진리는 어떤 불평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비난적인 판결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본문으로 되돌아 가보자. 미갈의 수호신에 관한 것 중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세부사항이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가상적인 진리가 순수한 진리의 자리에 대신 들어 앉을 때 말씀 속에 있는 가상적인 진리는 순수한 진리의 형상(image)밖에 안되는데 순수한 진리가 없는 가상적 진리는 더 이상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 진리는 자기들의 방법을 교회의 교리에서 발견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미갈이 침대에 다윗 대신 수호신(image)을 놓혀

놓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해석의 근거는 성경에서 침대는 교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욱체가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듯 마음은 교리에 머무른다. 다윗 스스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자리에 들어도 악한 짓만 궁리하고 나쁜 길에 버티고 서서 악을 고집한다” (36:4). 교리에 관한 거짓 원리를 궁리해 낼 때 위 시편 구절 같은 짓을 인간은 행한다.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말아라”(4:4). 인간이 진정한 교리를 표준삼아 자신의 심정을 검증할 때의 모습을 위 구절은 표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진정한 교리의 가르침을 수단으로 더욱 자기 심정이 고요해지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다. 한 때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신 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시기도 했다 (마태9:6).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비록 제대로 교리를 이해 못했다 할지라도 병든 상태에서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었던 그 교리는 건강한 상태에서까지도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 이는 그 병든 상태가 욱체이었던, 마음이었던 모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심정 상태가 어떠한지를 결정짓게 하는 것은 병든 상태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 것들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심판의 때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누가17:34). 즉 하나는 구원되고 하나는 구원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교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들은 구원을 상실하나 교리에 따라 살고 있는 이들은 구원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비록 교회 마지막 때에는 순수한 교리 역시 없겠지만 만일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선한 생활을 동반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구원이 가능해진다. 교회의 교리가 순수한 진리 대신 가상적인 것만을 포함하게 될 때 다윗이 드러누웠던 침상에 테라빔(수호신)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필수로 대두되는 이유는 순수한 진리의 파괴를 방지하면서 빛에 반대하여 죄짓는 결과로 초래되는 정죄에서 인간을 구해주시려는 주님의 자비로운 섭리 때문이다.

미갈은 다윗 대신에 그의 침대에 수호신을 놓았을 뿐 아니라 염소털로 짠 것을 베개로 놓고 옷으로 덮어놓았다. 말씀에서 염소, 이 구절에서 이해해 볼 염소털은 믿음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양의 경우 이타애와 관련을 가진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진정한 교인은 양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가 믿음 뿐만 아니라 이타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 거짓된 교인은 염소라 불리는데 그 이유가 그가 이타애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수양을 짓밟아 버린 수염소(다니엘 8장), 심판의 날 심판자의 왼편에 자리잡은 염소란 믿음을 고백하였으나 이타애가 요구되는 이들,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그분이 말한

사항을 행치 않은 이들도이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쪽에 자리잡은 이들은 믿음의 목적이자 생명이 되는 이타애를 실지 행했던 이들도이다 (마태24:31-46). 위의 사항은 염소의 나쁜 의미이다. 그러나 염소도 좋은 의미로 성경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진정한 믿음(true faith)은 이타애(charity)를 당연히 내포하기 때문이다. 마치 진정한 이타애가 당연히 믿음을 내포하는 것과 같다. 염소와 양은 제물로 바치도록 지시되고 있다 (레위기1:10). 염소털과 수양가죽은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고 있다.(출애굽25:4,5)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품위로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고집할 경우 진정한 믿음이 중단 될 뿐이다. 염소털로 된 베개(the pillow of goat's hair)가 테라빔의 머리 밑에 있다는 것은 믿음 또는 믿음으로 구원됨이 교회 교리의 일면 순위를 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인 모든 잘못들이 성경에서 축출되어 나올 경우, 그것은 성경의 가상적인 진리로부터 있게 되고 믿음은 그들을 떠 받혀주는 수단으로 존재되고 만다. 그런데 이 수호신(image 우상)은 머리에 베개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천으로 덮여 있었다. 천 (형짚, 옷, cloth)이 신체를 위한 옷이나 침대를 위한 덮개로 사용될 경우 선을 덮거나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진리를 상징한다. 이사야를 보면 “침대는 짧아서 길게 눕지 못하고, 이불은 좁아서 (narrow) 몸을 덮지 못한다” 라는 구절이 있다(28:20). 이는 교회의 신조(creed)가 너무나 조이고 있어서(짧아서) 마음의 능력들이 충분히 뻗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그 신조의 증언 역시 웅색해서(narrow) 합리적인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종교의 상태에 대해 예언자가 탄식하는 말이다. 영적 의미를 엄격하게 취급해보면 길이와 넓이는 선함과 진리에 관계되고 있다. 따라서 침대가 너무 짧고 이불이 너무 좁다는 말은 교회의 교리가 선함에 대한 의지의 요구도, 진리에 대한 이해성의 요구도 만족하지 못할 때를 말한다. 미같이 수호신을 덮은 천이란 말씀의 글자에서 확증하는 진리이고 이 진리가 가상적인 진리에게 진짜 같이 나타나 보이도록 돕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은 도망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저지른 일을 고하였다.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인 아버지였다. 그가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다윗에게 기름 부었었다. 극도의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자기의 모든 애로점을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다 털어놓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 사람만이 상의하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지당한 일이 아닐까? 자신의 고향마저도 안전을 보장 못 받는 다윗으로서의 예언자의 품성이 지닌 신성만이 자기 주위를 막아 주는 후원자인바 거기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안전하다고 여긴 성소의 거룩함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인물이 아니다. 다윗이 나옴에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울은 그 곳에 군졸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거룩한 장소는 아예 침입할 수 없었고 성소의 거룩함은 제단의 뿔로부터 온 박해의 순진한 희생자가 뿌리는 눈물로 더럽혀 지지도 않았다. 사울의 목적은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예상 밖의 방법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한 가지 것은 이 경우의 상황과 전적으로 일치되고 있다. 파견된 군졸들은 적으로서 싸워진 게 아니라 한 순간에 친구같이 되었다. “그들이 와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신이 들려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군졸들에게도 하느님의 신이 내려 그들도 신들린 상태에 빠져 버렸다.” 이 소식을 접한 사울은 다른 군졸을 보냈으나 그들 역시 그렇게 되었고 세 번째로 보낸 군졸 역시 신들린 상태에 빠져 버렸다. 인간이든, 신성이든, 사울 앞에는 보이는 게 없는 듯 그는 직접 나섰다. 그가 “세구라는 곳에 있는 큰 물웅덩이(샘,well)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라마에 있는 나옴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세구(Sechu)와 나옴(Naioth)이란 지역의 이름은 말씀에서 이 부분 외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관해 알려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지역 이름 자체의 의미는 성경적 품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착상을 갖게 해준다. 세구는 망대(watch tower)라는 뜻인바 진리와 관련을 갖는다. 그리고 나옴은 거주지(habitation, 주택)라는 뜻인바 선함과 관련을 갖는다. 본문의 줄거리에 있는 것과 같은 펍박 속에서 영혼(Soul)은 진리라는 망대 안에 있는 것보다 선함이라는 주택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사울이 당도했던 큰 샘(큰 웅덩이), 거기서 사울은 사무엘과 다윗에 관해 문의했는데 이 샘이 세구라는 장소에 있다는 것은 특유한 사항이다. 구약성서에는 일반적으로 우물같이 보여지는 두개의 단어가 있다. 하나는 물줄기를 지닌 우물이고 또 하나는 물줄기가 없으나 물이 있는 상태 즉 일종의 작은 저수지(cistern, reservoir)같은 우물이다. 사울이 당도해서 자기가 찾고자 한 대상을 물어 볼 때의 우물은 후자의 것 즉 큰 물웅덩이에서였다. 마음 자체에서 솟아오르는 진리는 이해성을 그릇으로 삼고 있고 이해성이 없는 데에 집합되어 있는 진리는 기억을 그릇으로 삼고 있다. 기억 속에 신성과 영적 사항에 관한 지식이 제아무리 많다해도 선함과 진리에 대한 진짜 사랑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함과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할 경우가 많다. 큰 물웅덩이라는 말 중 크다(great)는 순수한 의미로는 선함을 표현하나 나쁜 의미로는 악을 표현한다. 사울이 직접 나옴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도 역시 그가 보낸 군졸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내려 라마에 있는 나웃까지 줄곧 신들린 상태로 걸어갔다. 사울도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 신들린 상태에 빠져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들 중의 하나더냐?’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내린 한 가지 결과, 즉 하느님의 사람의 거룩한 기운 속에 있게 되는 것은 신약성서의 또다른 사건, 즉 사울 같이 악의를 품은 어떤 이들이 하느님-인간의 거룩한 기운 속에 있어 느꼈던 것과 비슷하다. “성전 경비병들이 그대로 돌아 온 것을 보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하고 물었다. 경비병들은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요한7:45,46). “이렇게 굳은 예수 때문에 서로 갈라졌다. 몇 사람은 예수를 잡아가고 싶어하였지만 예수께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요한 7:30.46).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대사제의 부하를 몰고 온 그날 밤에는 더욱 적극적인 결과가 생산되었다.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소’하자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요한18:6). 이런 비슷한 결과는 저 세계에도 있다. 죽을 듯하게 느끼고 있는 악령이 천사들의 기운 속에 오게 될 때 그들은 마비되어지고 종종 천국과 지옥의 기운이 매우 상반된 사실 때문에 숨이 막힌다. 이를 더 높은 주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님이 세상에서 통과하신 상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창피함(humiliation, 굴욕)의 상태와 영화하시는 상태이다. 이 두 상태는 서로 교차되어 발생된다. 시험받는 상태는 그분께서 창피를 당하시는 상태이고, 그 시험에 승리하는 상태는 그분께서 영화하시는 상태이다. 주님께서 이겨내신 모든 시험에는 승리가 꼭 수반된다. 그 이유가 그분은 정복자 그 이상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시험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다른 등차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으로 표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거기서 그분은 악마에게 유혹 받아지도록 영(Spirit) 속으로 이끌리셨다. 세 번이나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를 보냈으나 그 때마다 굴복 당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상태로 변했고 자기들을 정복한 힘에 대한 증거자만 되고 말았다.

극도의 시련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천사들 사이에 있는 천국의 신성을 가지시고 적의 박해로부터 안식처를 구하였다. 본문의 다윗이 사울의 박해로부터 예언자 무리들이 있는 나웃에서 사무엘을 찾아 피신했던 것과 같다. 거기서 그는 안전했다. 그 이유는 비록 시험하는

권세가 천국까지 올라갈 때, 마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왔다 해도 그들의 힘은 끊겨지고 오히려 그들이 예언자의 영향을 받아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스웨덴북은 우리에게 말한다. 악인과 악령은 천국의 빛 안으로 들어가 천사들 같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승강 될 수 있고 더욱이 그들의 의지가 진리에 일치되기까지도 허락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태를 오래 지탱할 수 없어 그들 고유의 자연적 조건으로 붕괴되고 만다. 사울의 상태는 그의 부하들보다 더 완벽했었던 것같이 보인다. 그가 옷을 벗어 던지고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의 옷은 지적 생각들, 그것이 진정한 생각이든 거짓 생각이든 지적인 사상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옷들을 벗어 던질 때 마음은 알몸으로 나타난다. 사울을 끌어안지 않게 해주던 덮개를 벗어 던지면 알몸으로 있는 사울이 되는바 자연적 이기심은 감각적인 것, 지옥적인 것인 땅 위에서 뒹굴 수밖에 없다.

## 13

### 사무엘상 제20장

#### 다윗의 도망과 요나단의 도움

본 장의 주제는 침통하면서도 흥미있고 다정다감한 정서를 생산해주고 있다. 정의에 관한 가르침과 마음을 고치기 위한 영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여느 다른 장과 다름 없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비해 보다 넓은 측면에서의 관찰만이 가능할 것 같이 보인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이미 앞에서 살핀 바 있으므로 생략할 것이다.

사무엘을 찾아 가려 했던 사울의 역사 이야기는 단지 그가 접신되어 벌거벗은 미치광이 상태로 앞 장에서 일탈되고 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다윗에게 알려졌다 해도 다윗으로서는 그것만으로 자기의 신변이 안전하다고 생각될리 만무했으리라. 본 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뭇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 가 향의하였다. ‘내가 무슨 짓을 했던 말인가?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는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내 목숨을 노리신단 말인가?’”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분노를 피할 방도를 궁리하다 못해 자포자기해서 이렇게 말을 내뱉고 있다. “나는 한발만 까닥해도 영락없이 죽을 몸이야.

이것은 하느님도 아시고 자네도 아는 일 아닌가?” 영혼의 쓰라림은 다윗의 주님의 영에 있었던 무기력한 형상 즉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마태 26:38)와 같은 모습이다. 이는 매우 격렬한 영적 시련에 의해 생산되는 마음의 상태를 적절히 표현해주고 있다. “시험에는 황폐함, 황량함, 자포자기됨, 그 결과 슬프고 외로운 느낌이 늘 동반되어진다.” 이와같이 시련과 시험은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악들이 악령에 의해 흥분되는바 기독교인에게 자신의 자연적 수준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찬스를 주게 된다. 이럼으로 해서 자연적 수준의 본성이 유전적으로 받은 악과 자신이 벌어들인 악이 거하는 곳임을 알게 해준다. 이런 것들은 위와 같은 쓰라린 느낌을 생산해주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 속의 이런 악들을 통해 시험이 오고 있다. 악들이 우리 본성을 흥분시킴으로 해서 우리는 자신 속을 보아 왔고 보고 있어 그 악을 정죄해왔고 정죄하고 제거할 수 있기 위해 시험이 우리에게 오도록 허용된다. 우리 속에 든 악을 보고 혐오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 인간(inner man)이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상태가 사도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고도 있다. 기독교인 속의 내향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반기지만 한편 기독교인 속에는 마음의 법칙에 반대하여 싸우려 하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법은 그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종이 되게 한다 (로마서 7: 22,23). 이를 예수님의 측면을 놓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내향의 인간에 의해 하느님의 법을 반기셨을뿐 아니라 그분의 내향적 인간은 법 그 자체이시고 이 법에 반대하는 마음 속의 법은 단지 자연적 수준의 마음일 뿐이다. 이 마음은 그분의 창조물과 공통되는 것으로 그분의 인간 부모로부터 상속되어 있었다. 우리와 공통되는 속성을 상속받은 결과 그분께서도 우리처럼 갖가지로 시험당하셨다. 우리와 차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분은 죄없이 시험을 맞이하셨다는 것이다. 주님에게 있었던 악한 경향성들은 악행으로 는 결코 결과되지 않았다. 그 악들이 시험의 원인은 되었지만 적극적 상태로 이어지지 않았다. 마치 예방주사로 앓는 것과 직접 병을 앓는 차이를 덧붙여 생각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거둬나고 있는 경우라 해도 그들은 자기 속의 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뿐 아니라 죄로 까지 결실을 맺기도 한다. 살아 있는 인간치고 죄짓지 않는 자가 없고, 시험동안에 그리스도가 받아 이긴 수준의 시험에 노출된 자 역시 아무도 없다는 것 또한 진정한 추론이다. 본문의 다윗은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너희 중 누가 자신이 죄없다고 나를 확신시켜 줄 자 있느냐?” 라고 단언하실 수 있다. 그분의 죄없음은 다윗의 죄없다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다윗의 순진함은 현재의 역울함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를 감안해도 그의 순진은 장차 있게 될 실체에 관한 그림자로서는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해도 사무엘의 보호를 받았을 경우 앞 장에서와 같이 그의 생명은 전혀 위협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그가 안전 지대를 택하지 않고 다시 사울의 식탁으로 되돌아 오는 모습은 조금 이상한 듯 여겨질 수도 있다. 그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일이 초하루, 내가 임금님의 정찬에 나가야 하는 날이 아닌가?” 이 말은 사울의 폭력이 반복될 것을 예상하여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다윗은 삼일 저녁 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고 요나단은 다윗이 문중의 주년제가 있어 속히 고향 베들레헴에 다녀오기 위해 휴가를 청하더라도 사울에게 핑계를 대도록 약속했다. 초하루 행사는 이스라엘 교회의 지정된 축제일로 명령되어 있었다 (민수기 10:10). 초하루는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면서 은나팔을 불었다 (10:10). 이는 믿음이 이타애의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임을 말해주고 있다. 어쨌든 다윗에게는 초하루 행사가 기뻐할만한 날일 수는 없었다. 이 은나팔이 그에게는 믿음과 사랑을 말해줄 수 없고 그 반대인 불성실과 미움만을 느끼게 할뿐이었다. 사울 속의 악은 평화롭고 환호를 올리는 이 날을 전쟁 소리와 경보를 울리게 하는 날로 바뀌게 하고 만 것이다. 이런 초하루 행사는 다윗으로 사울의 만찬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다윗을 만들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품은 적개심은 자연적 수준의 인간이 영적 수준의 인간에게 품는 적개심을 표현한다. 따라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적개심이라는 악으로부터 일어나는 시험 속의 다툼을 표현하는바 이런 특이 사항들은 기독 생활에 관련된 어떤 것과 그 체험으로부터서도 배울 수 있다. 더구나 우리 믿음의 저자되시고 마무리지으시는 분인 예수님의 체험에서도 발견된다. 이분은 자신 앞에 장진되어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 조롱함을 참아내셨고 하나님의 옥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히브리 12: 2-3). 이 사도 외에 또다른 증거자 스웨덴북이 전하는 용기와 경고도 있다. “인간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내적 측면인 영적 인간은 천사를 수단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나 그의 외적 측면 즉 자연적 인간은 지옥의 영들의 지배 아래 있다. 이 둘의 대결이 인간에게 시험으로 감지된다. 저항은 자연적 인간으로부터 발생된다.”

만일 다윗이 사무엘에게 있을 때와 같은 안전 지대를 떠나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되돌아 간 것은 아마 의무감 때문이다. 예수님 역시 그분의 생명을 노린 이들로부터 피하시기도 했다. 그러나 투쟁의 장소로 되돌아 오셨다. 그 이유는 유익한 쪽을 선택하시고저 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독교인의 경우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뻔히 보이는 위험일 경우 거기서 빠져나와 그분의 천사들 사이 거룩한 성소으로 피신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의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다시 위험한 곳으로 뛰어든다.

되돌아 간 다윗이 행한 첫일은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울인데도 그를 왕으로 잘 섬겼다는 것을 요나단에게 인정시키는 것이었다. 본 장과 이 후 이어지는 대목들을 보면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착실하게 책임을 수행해 가고 있다. 이런 줄거리에서도 주님과 인간에 관련되는 또다른 진리에 관한 본보기를 살필 수 있다.

요나단, 그는 자기 친구에게는 격려를 보내고, 자기 아버지의 분노는 누구러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가 중매자로서의 품성을 지녔다는 것은 사건 줄거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불일치되는 것들이 재회할 수 있게, 특히 내향의 인간과 외향의 인간이 재회하는 것, 각각이 한 쌍이 되어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해주는 것이 중매자이다.

이제 위 본문을 간략히나마 꼼꼼히 생각해 볼 차례이다. 종교에 관한 섭리, 자연계와 영계의 모든 섭리에 관해서이다. 진공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행동할 수 없듯이 우주 인력도 우주의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 매개체는 온 공간에 확장되어 있는 에테르를 수단으로 공급된다. 그리고 땅과 물을 관통하면서 땅 위의 것이든 물속의 것이든 모두 하모니를 이루게 하고 그 하모니가 규칙적으로 교차되도록 해주고도 있다. 태양은 대기라는 매개체 없이는 열과 빛을 땅 위에 운반해줄 수 없다. 이와 똑같은 법칙으로 영계도 통치된다. 영계에서도 매개체를 통해 따로 구분되는 것들끼리 연결을 갖고 서로 일치 안되는 것들이라 해도 매개체를 통해 재회한다. 이 법칙은 가장 낮은 것에서 가장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공통된다. 주님께서도 인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이 재회하고 하나를 이룬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분의 처방이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에페소 1: 10),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그분께 일치되게 하신다” (골로사이 1:20). 본문의 경우에서도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 연결되게 하고 일치시켜 주는 매개체가 있다. “내적인 것은 매개체 없이 외적인 것과 어떤 교류도 할 수 없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중간에 내면 또는 합리적 인간이 있는데 이를 통해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으로 흘러든다. 이 합리적 인간이 없다면 위 둘 사이에는

어떤 교류도 있을 수 없다.” 거듭나야 가는 일, 즉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 일치되어 가는 일,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일치되어 가는 일에도 매개체는 언제나 존재한다. “거듭나야 가는 인간의 과정은 중재 역할을 하는 어떤 선 안에 주님께 의해 보존되어진다. 이 선이 거듭나는 사람에게 순수한 선과 진리들을 소개한다. 거듭남에 관한 지식 또는 새 사람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새 사람은 옛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이유가 그는 자기의 기쁨과 축복됨을 구성하는게 영적인 것 내지 천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 반면 옛 사람은 세상적 내지 지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고 이것이 옛 사람의 기쁨과 만족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천국적인 것에 목적을, 옛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로부터 명백해지는바, 새 사람은 옛 것과는 전혀 딴 판이라는 것이다. 옛 사람의 상태에서 새 사람의 상태로 인도되기 위하여 그는 반드시 세상적 욕망을 벗어 던지고 천국의 애정으로 옷입어야 한다. 이는 무수한 수단으로 결과되는데 이 수단은 주님만이 아시고 그 중 일부는 주님으로부터 천사들에게 알려지고 극히 일부가 인간에게도 알려지지만 이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 모든 사항들이 말씀 속 내적 의미로는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또는 거듭나는 것이 어떤 이들이 착각하듯 어느 순간에 바뀌는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속의 과정, 전 생애 아마 죽는 마지막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 이유는 그의 욕망이 폐기되면서 천국 애정이 그대신 은근히 심어져 전에는 그가 전혀 지니지 못했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 이리하여 그의 생명의 상태는 수많은 변화를 겪어 가는데 이때마다 그는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승강할때마다 단계와 단계 사이에 있게 되는 매개체적인 선, 즉 세상과 천국이라는 양 쪽에 걸칠 수 있는 선 가운데 보존되어야 한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는 모습 속에서 영적 인간의 영향력에 저항하려는 자연적 인간의 양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영적 수준에 적개심을 품는 자연적 수준을 제거해 주려는 진정한 진리의 매개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활개치고 있는 무가치한 우리의 목적들, 이 목적을 떠받드는 각 종의 오류들을 제거하려는 중간 매체의 역할을 말한다. 그러나 자연적인 목적이 우세하여 세력을 떨치고 있는 한 사울의 창이 길 듯 거짓 원리는 오랫동안 버티고 서 있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진리가 오든, 그 진리가 무슨 종류이든 모두 내팽개칠 적개심으로 꽂차 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에 대한 요나단의

분노는 단지 영적인 것과자연적인 것이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형태에 불과하다. 이는 아끼는 자식에게 어머니가 화를 내는 수준이다. 이런 분노가 하느님 측면에서 언급될 경우가 성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이럴 경우 이는 신성과 인간 마음 사이의 불일치를 표현하고 있다.

사울 앞에서 화가 난 채 밖으로 나온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그를 사랑하면서 찾아 갔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다윗에 대한 기분을 확인 할 때까지 다윗은 숨어 있기로 두 친구는 약속하고 있었던 터이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이르러 요나단은 세 번 활을 쏘았다. 시종에게 미리 화살의 방향을 정해 놓음으로 다윗은 자기가 안전하려면 도주해야 한다는 것을 눈치채었다. 무기고인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들, 날개 달린 특사(천사)가 상징적으로 보여 주듯 이 진리는 사물의 조건에 관해 우리 마음을 가르치고 그 여건이 진리를 승인하거나 요구할 경우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또는 열심히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충고를 제시해 준다.

이제 화살을 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다윗은 요나단과 미리 약속한 장소인 에셀 바위 옆에 가서 숨어 있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 두었다. “내가 과녁을 맞추는체 하고 그 쪽으로 활을 세 번 쏘고 시종을 시켜 화살을 집어 오게 하면서 그 시종에게 ‘화살이 이 쪽에 있다. 집어 오너라’ 하면 주님께서 살아 계신바와 같고...‘화살이 저쪽에 있다. 집어 오너라’ 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떠나가게 하는 것일세...” 위협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놓고 다윗이 읊은 구절이 시편에 있다. “...이 재난이 지나기 까지 당신의 날개깃 그 속에 이 몸을 숨기렵니다” (57:1). 이는 이사야가 말한 것과도 매우 유사하다. “내 백성아, 어서 너의 골방으로 들어 가거라. 들어 가서 문을 꼭 닫아 걸어라. 이 분노가 가실 때 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26:20). 우리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애정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거나 또는 안쪽으로 돌아가게 해야만 한다. 그 이유가 우리 속 천국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 밖의 천국을 찾아보는 쓸모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내면은 자연적 인간의 분노가 가셔질 때 까지 영적 인간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밀실이다. 말씀 역시 안전한 장소이다. 그이유는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현존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에셀 바위,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머물어야 하는 곳이다. 또한 말씀은 시금석 (touch stone)과 같아서 이를 수단으로 우리의 상태와 운명은 결정지어진다. 요나단이 돌을

과녁으로 삼아 쏘았다면 이는 안전함을 표시하지만 돌 넘어를 과녁으로 삼아 쏘았을 경우 이는 위험함을 표시하게 된다. 이 바위 안쪽은 말씀의 영이고 바깥은 말씀의 글자이다. “글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고린도후 3:6). 말씀은 에셀이라는 말의 뜻처럼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준다. 설사 이 방법이 떠나라는 말일지라도 그 말은 우리로 위험을 벗어나게 해주고 악으로부터 탈주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요나단의 시종이 화살을 모아 성 안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그곳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일어나 세 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서로 열싸 안고 실컷 울었다.” 남쪽을 향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빛과 총명의 상태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땅에 얼굴을 대고 세 번 절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humiliation)을 깊이 느끼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서로 키스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이다. 서로에게 공통되는 끈경으로 슬피 울고 외압에 못이겨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연적 인간과 영적 인간 사이에 놓인 불일치에 대한 통탄을 표현한다. 이로 인해 선함과 진리가 분리되는 것, 천국과 행복을 구성하는 하나됨 내지 일치함이 깨지는데 대한 슬픔 까지 포함한다. 이 절단은 모든 통탄함의 기초이다. 이는 모든 인간의 눈에서 눈물을 생산하게 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기쁨이 벽차거나 슬픔이 북받쳐 올게되는 사실 역시 위 진리와 무관하지만은 않다. 또한 눈물을 생산하는 느낌 역시 분리의 어떤 종류와 연결되어 있다. 심정으로부터 솟아 눈을 통해 흘러 나오는 격렬한 기쁨이라 해도 그것 역시 오래 장진되었던 슬픔이 봉인된채 있다가 터지는 샘줄기일 뿐이다. 예수께서 슬피 우셨다. 그분의 눈물은 통탄과 사랑, 슬픔과 기쁨 모두를 표현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파멸이 다가온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고, 라자로의 무덤에서도 우셨다. 거기서의 눈물은 기쁨 뿐만 아니라 깊은 동정심에서 나온 슬픔 까지 표현해주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께서는 죽은 자로부터 라자로를 이제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한편 라자로의 죽음으로 슬피 우는 자매들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자로의 부활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교회를 일으키는데 대한 모험임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라자로의 무덤에서 우신 것은 그분 앞에 장착된 기쁨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본문을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잠깐 더 정리해 보자. 우리 속의 다윗은 이렇게 권고한다. “그분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그 아들에게 키스하여 진노로 인해 멸망하지 말라” (시편 2:12). 다시 말하면 사랑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하려고 애쓰라고 권고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받는 고통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며 동정하신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동안 그분은 슬피

우신다. 우리가 죄로 슬퍼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안에서 함께 우신다. 우리가 회개한 후 기뻐서 울 때도 같이 우신다. 구세주와 구원받는 자 사이에 있는 이 동정심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몰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그분의 존재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히브리 4:15). 게다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시되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한 즉 “한껏, exceed” 우시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감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느님 다운 슬픔, 천국 같은 기쁨은 그분만으로부터이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은 공급해 준 모든 것 안에 공급된 것 보다 더 많게, 더 크게, 더 높게 계신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동정하실 뿐아니라” 그분께서는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 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하리라 (히브리 2:18).

지독할 정도로 서로를 염려해 주는 두 친구가 헤어지기 전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우정을 맹세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이 약속은 두 사람의 후손 사이에서도 언제까지나 서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님과 기독교인의 언약은 각 사람의 심정과 이해성 안에서 계속적으로 잉태되는 사랑과 믿음의 모든 상태에 고루 퍼져 삶 안에서 태어난다. 이런 삶. 거듭나는 삶은 영원히 이어진다.

## 14

### 사무엘상 제21장

####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다윗

주님을 내향으로 신뢰하기 위해 기독교인은 저항이라는 외향의 수단과 하나가 되어야 할 때도 있다.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골리앗의 칼을 지참했다. 때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 칼이 수호 역할을 했던 다윗의 진짜 적군에게 돌아 설 수 있다. 그는 이제 사울의 분노를 피할 은신처를 찾아 거인의 출신지인 블레셋 성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다윗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로서 조명해보면 그분이 참아 내신 박해와 고통에 관해 미미한

착상이라도 우리 마음에 부상되게 해주고,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그것 넘어로 일어나신데 대한 상상 까지 우리로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준다. 기독교인의 제자들에게 말하셨고 지금도 말하시고 있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일 것이다 (요한 16:33). 본문의 역사 속에서도 역시 순수함과 더없는 기쁨으로 인도해주는 섭리를 보리라 생각된다. 이 길은 어둠과 고통만이 그 전부는 아니다. 어둠과 고통 만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영들 모두는 실패 뿐이고 그들에게 응당 돌아 가야 할 상급 역시 잃어지고 말는지 모른다. 영계에서도 자연계의 삶 처럼 환난이나 어둠 보다 평화와 빛이 더 존재한다. 영적 측면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에게는 고통만 있는게 아니다. 거기에는 위로함이 부가적으로 언제나 존재한다.

이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해도 우리가 천국의 삶으로 더 높이 부상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내향적으로는 덜 괴롭힌다. 언제나 내일이나 영원히 똑같은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정착된 평화와 영원한 빛의 고요함 안으로 더욱 진입될 수 있다.

어쨌든 시간에 제약받는 이세상 삶 동안 위쪽을 향한 노력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마지막 것이 있다. 고난은 현재의 삶에서만 끝날 뿐 그 속에 있던 각종 우리의 원리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고부동해져 영원히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상태에 대해 성경은 상징적 언어로 매우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본문의 역사는 고난이라는 그 자체에 직접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영혼이 내향으로 오는 박해를 일시적이거나 피하고저 할 때 그 길을 발견하는 어떤 안정제 같은 역할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에 관한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티스베 사람 엘리야의 줄거리이다. 아합의 죄로 인해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단혀 가뭄과 기근이 그 땅에 내렸는데 그 때 이 예언자는 요르단 강 그릿 개울로 가서 개울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도록 명령받았다. 그 뒤 개울물 마저 마르자 그는 사렘다 과부에게 가도록 명령받았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 공급한 양식으로 지탱해 갔다. 또 다른 엘리야의 줄거리도 있다. 그가 이사벨의 분노를 피해 목숨을 부지하고저 도망쳐 거친 들로 나가 싸리덤불 아래 누워있었을 때 천사가 그를 깨웠다. 그리고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엘리아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 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이외의 예들이 성서에 더 있지만 그 중 놀랄만하게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 주 예수께서 아기이셨을 때 헤로데의 분노를 피해 보존되시도록 에집트로 운반되었고 거기서 그분은 헤로데의 위협이 사라질 때 까지 머무셨다.

이와 비슷한 행동 강령이 주님의 가르침에도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성읍이 박해하거든 다른 성읍으로 피신하여라.”

몇 가지 성경 기사를 살폈는데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방향 설정과 위로를 위해 씌어져 있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위협에 빠졌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비해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가르쳐 주고 있다.

엘리아의 경우가 가르치는바, 내적 인간의 하늘이 닫히고 영적 진리라는 비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영적 총명이라는 개울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 게다가 마음마저 지독한 고뇌에 파묻혀 허덕일 때, 그러면서도 내향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순종과 평화가 깃들 때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분에게서 원조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이다.

하늘의 창문이 닫혀 높은데서만 내려올 수 있는 축복이 끊겨 우리 마음이 사막으로 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축복을 하늘 위쪽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 바깥에서 찾으려는게 악이 아닐까? 불변하는 축복을 영적 측면에서 구하기 보다는 자연적 측면에서 추구하고 영원한 것에서가 아닌 한정된 것들에서 구하려는 것이 악이 아닐까? 자아를 신뢰하는데 뿌리를 둘 경우 그것이 악이 아닐까? 주님을 신뢰하는데 뿌리를 둔 것이 선이 아닐까?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참으로 내가 먹여지리라.” 이런 신뢰를 배우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실까?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다.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하느님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이런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느님께서 까마귀를 먹여주실 뿐 아니라 예언자를 먹이시기 위해 까마귀를 보내신다. 그리고 까마귀가 우리의 선생 노릇을 하게해서 가르치시기도 한다.

현재 필요한 것과 미래에 필요할 것 까지 포함해서 준비한다면 내일을 위해 곡간에 모아 들이지 않는 공중의 새들 보다 더 만족스러울 듯 여겨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어떤 걱정이나 어떤 불안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을 새들로부터 배워야 할 때도 있다. 특히 영적 태도나 영적 사항들 속에 있으면서 바깥쪽인 기억이라는 지상적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 두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인간에서 우러 나오는 사랑의 애정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오는 진정한 양식, 즉 그분의 살로 먹여져 의에 굶주린 우리 영혼은 날마다 채워질 것이다.

위에서 살팍듯이 배고픈 때, 기근의 때에 추구하는 안전함이나 생명을 유지 존속 시켜주는 물건들의 중요도는 당사자인 고통받는 자가 당한 처지 보다는 덜한 편이다. 불레셋이나 에집트 같은 지역이 체류지로서 성경에 드물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사악은 불레셋 땅에, 야곱은 에집트에 체류했었다. 야곱의 경우 가나안의 가뭄을 피해 요셉의 도움으로 그 가문 전체가 에집트에 체류했다. 그 곳에 야기 구세주가 보존되기도 했다. 이렇게 체류한데 대한 이유는 각 지역이 표현하는 품성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불레셋은 총명을, 에집트는 지식을 표현한다. 그 곳으로 내려감은 종교 생활의 진보를 위한 수단으로 지식과 총명을 받는 것을 표현한다.

사울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은 과거 골리앗의 출신지이기도한 불레셋 성읍, 갓다라 왕 야기스를 찾아 갔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유다 지역으로 다시 건너와 안전한 피신처로서 아둘람 동굴을 발견했다.

야기스를 찾아 가던 도중 그는 사제 아히멜렉에게서 성소에 놓는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었다.

이 역사 부분은 마태복음 12장의 사건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는 것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고 예수께 비난하자. 오히려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일행과 함께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제들 밖에는 다윗도, 그 일행도 먹을 수 없는 빵이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확실히 선포하셨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게 내버려 두심으로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 주셨다면 제사떡을 먹는 다윗의 행동은 그분이 성전의 주가 되심을 표현하도록 의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가 최상의 측면에서 다윗은 주님을 표현했고 다윗의 일행은 그분의 제자들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성전은 가장 거룩한 장소요 안식일은 가장 거룩한 날이었는데 이 둘은 거룩한 분으로서의 그분을 상징한다. 사실 실제의 성전은 다윗 시대까지는 건축되지 않았었고 단지 성막만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 두 성소 모두 하느님의 집으로 거룩한 의미를

지냈는데 오늘날 정식으로 주님이 예배되는 장소가 있다면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리라 생각한다. 성전과 안식일이 그분을 표현하는 만큼이나 성전의 제사떡이나 들의 밀도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분으로서의 그분을 표현해준다. 주님을 한 분 인격자로서 생각해본다면 그분은 사제되실 뿐 아니라 왕이 되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사제와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는 수준에서 그분은 사제이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릇이라는 수준에서 제자들도 사제이다. 진리를 나누어 주신다는 수준에서 그분은 왕이 되시고 그분의 진리를 받는 그릇이라는 수준에서 제자들도 왕이다.

사제만이 먹어야 할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 그분의 제자들에게 교회의 거룩한 사항들을 알려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영적 선함에 관한 원리를 제자들이 먹도록 하신다는 미래의 사항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공급되는 거룩한 선함은 본문에서 다윗이 처한 것 같은 영적 삶의 상태에는 말할 수 없이 귀중하다. 자기 나라도 아닌 땅에서 보호를 받고자 사울의 영역을 벗어나 탈주하는 다윗이나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예언자 엘리야가 도중에서 음식을 제공받아 힘을 얻어 안전한 곳 까지 달려간 것은 영적 상황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건들이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 받게된 음식은 발버둥치는 고난의 시기 동안 내향의 인간이 힘을 얻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자양분이다. 주님 스스로도 이런 양식으로 지탱하셨다. 이런 양식을 가리켜 주님 스스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이란 신성한 선이요 이것을 그분은 안에 계신 아버지로 부터 내향적으로 받으셨다. 어느 누구도 알았을리 만무하다. 이 양식이야말로 거룩함을 입은 빵인바 그분 외에 어느 누가 먹는다는 것은 타당치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다. 그분 자신 외 어느 누구도 신성의 층만, 거룩함 속에서 이 빵을 받을 자 진정 없으리라.

다윗만 거룩한 떡을 받은게 아니라 그의 일행 까지 그 떡을 받아 먹었다. 주님의 추종자도 성별된 떡을 받아 먹는다. 그러나 주님과 매우 다른 수준에서 떡을 받을 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받았던 떡을 제자들도 받게 해주셨다.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분을 통하여서만 가능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들 외에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다. “아들에게만 그분을 밝히시리라.” 이는 경건함의 신비, 하느님이 육 안에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신비이다.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소리를 들은 자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자도 없다.” 아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영원히 보지 못한채, 듣지 못한채, 알지 못한채 있을 뻔 했다. 필립보에게 하신 이 말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나?” 는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위로에 넘치고 축복으로 가득해 있는지!...납득이 불가능한 신성이 인성을 수단으로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육을 입은 영광이다. 이리하여 신성은 내려와 기독교인의 체험 안에서 언제나 함께 계신다. 그 이유는 그분의 인성이 인간의 모든 체험을 통과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도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멸해 질 빵을 위해서도 아니고 떨어질 물을 위해서가 아닌 영혼을 먹일 수 있는 거룩한 빵을 위해서였고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그분에게서 솟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려는 배려 때문이었다. 이런 빵과 물 때문에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시어 잡수시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 요구를 채워 주실 수 있었다.

이런 떡이 고뇌 속에 빠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되는지 모른다. 영혼이 진통을 겪는 동안 성소의 떡으로 채워 주신다. 보통의 수단으로 버티기 힘들 때 생명의 떡을 수단으로 내향적으로 버터내시면서 이 양식이 주는 힘으로 우리는 사십 일 광야 여정을 끝낼 수 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칼이나 창이 없느냐고 물었다. 영적 삶도 자연적 삶 처럼 버터내기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어도 필요하다. 이 방어의 수단이 전쟁 무기로 의미되고 있다. 본문의 대화체가 암시하는 세부적인 질문은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얻는 모습 속에 들어 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일대 일로 대결했던 앞 장의 사건에서 우리는 거인의 목을 자른 거인의 칼에 관한 의미를 살폈었다. 무기는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순수한 상태의 진리나 왜곡된 상태를 상징하는데 이 진리를 수단으로 원리들은 존속되고 방어도 한다. 악이 선에 대항하려고 고용하는 무기라고 해서 절대적인 거짓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구분해 보면 절대적인 거짓들은 선에 맞설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곡되어 응용되는 진리들이 맞서는 힘을 갖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여 오류가 일어나 선을 현혹시키는 만큼에서 왜곡된 진리는 선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골리앗의 칼이란 왜곡된 말씀 속의 진리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 당사자의 생명 상태가 어떠한든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도 구원이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원리가 그럴듯해서 부추키는 진리를 표현한다. 이런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 들러 골리앗의 목을 자르게 되었을 경우, 이는 왜곡된 진리였지만 이 진리는 진정한 제

모습을 회복해서 골리앗이라는 악을 파괴하는데 고용되고 선을 지지하는 편에 서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칼이 성소에 뉘여있는바 이제는 하느님을 섬기는데로 성별된 상태가 되어 있다. 이 칼이 아히멜렉 사제를 통해 기름부어진 왕 다윗에게 건네졌다. 이는 어둠을 정복하고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그 수단으로 취할 때의 진리를 표현한다. 이런 높은 의미를 기독교인들에 관계시켜 생각해보면 성소로부터 얻은 이 칼은 선으로부터 나오는 진리, 충만함과 권능이 있는 생명이 나오게 하는 진리를 표현한다. 아히멜렉이 이런 칼밖에 없다고 다윗에게 말했을 때, “그만한 무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다. 왜곡됨을 당한 진리가 악에서 해방될 경우 그 진리는 어느 다른 진리 보다 더욱 선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 가장 강력한 적, 세상과 자아 사랑이라는 가장 깊은 악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변혁된 진리 임을 뜻한다.

이 본문이 가르치는바, 우리가 궁핍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성소으로 나아 간다면 필요로 하는 치료제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을 존속시켜주는 빵과 방어해주는 칼은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을 위해 성소에 놓여져 있다. 이방인의 영토로 들어 가고, 심각한 시련에 폭 빠질 수밖에 없었고, 하느님의 사랑과 빛이 더 이상 마음 안에 없는 듯, 그분을 신뢰하여 얻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듯 하여 통곡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해주시는 영적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다시금 평화로이 본향을 찾을 수 있게 배려하신다.

고난을 견뎌내 보겠다는 결심으로 노력하고 간구할 경우 관대한 섭리가 우리에게 수여하는 각종 수단을 긴요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역경의 시기는 개선의 계절이라 말할 수 있다. 역경은 변영의 계절에 앞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기이다. 전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것이 고난의 시기이다. 주님께서는 받으신 고통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분의 평화와 쉼을 이룩하셨듯이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 인도해 가심으로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배려하시고 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우리의 심정을 강건하게 하신다.

다윗이 피신했던 이방인의 땅 역시 자기 동포가 내몰았던 위험이나 마찬가지로여서 그로서는 거기서도 안전을 찾지 못하였다. 골리앗의 칼을 얻고 음식을 먹은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그 날로 갓나라 왕 아기스를 찾아 갔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나라의 왕 다윗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춤추며, ‘사울은 수 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 만을 치셨다네’ 하며 찬양하던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 다윗의 두려움은 다시 일어났다. 아기스 왕을

두려워한 다윗은 “일부러 미친 시늉을 하고 발작을 일으키고 성문쪽에 글자를 되는 대로 써 갈기기도 하며 턱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다.” 그의 연극이 성공하여 그는 아기스 왕을 안심시켜 위험을 모면했다. 이런 성공적인 다윗의 연극과 결맞는 성서 구절이 서간문에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주어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결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 5:12,13). “떨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고린도전 1:18). “...그러나 자연적 수준의 사람은 하느님의 영에 속한 것을 받지 않는다.그 이유가 그에게는 그것들이 어리석게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이유가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만 식별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 2:18). 심정이 할레받지 않은 자, 즉 영적 불레셋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이 어떻게 비쳐졌을까? 요한복음을 읽어보자. “...그는 마귀가 들렸소. 그런 미친 사람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듣는 거요?” (10“20). 성경에 등장하는 자연적 수준의 인간이 진리에 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수준의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것을 아무렇게나 갈겨쓰고 있는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죄진 여인을 기소하는 위선자들을 정죄하시는 표시로서 예수께서 쪼그리고 앉아 땅 위에 글을 쓰셨을 때, 소경의 눈에 바르시기 위해 땅에 침을 뱉아 흙을 개셨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진리의 올바른 사용법과 그 진정한 의미를 주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본문의 다윗이 미친 시늉을 하여 아무렇게나 글을 써 갈기고 턱수염에 침을 흘린 정도로만 나타났을 뿐이다. 이후 우리는 이 본문과 대조되는 부분 즉 사울의 분노를 피해 또 다시 아기스 왕을 찾을 때 그에게서 환대 받는 장면에서 다윗의 둘째 방문에 대한 의미를 본문과 비교하여 살펴보게 된다. 어쨌든 주님께서 기름부은 자, 미래의 왕은 현재로서는 어떤 은신처도 없이 날고 있는 산 속의 새와도 같아 사냥자의 표적만 되고 있을 뿐이다.

시편 56편은 본문의 다윗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 시편의 다윗과 본문의 다윗은 상황이 다른 듯 여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가 박해와 곤경에 빠졌던 상황은 공통되고 있다. 이 상황 속의 다윗은 기독교인의 고난이나 위험에 대한 표본이어서 영적 측면에서의 고통자들에게 많이 읽히기도 한다. 이 시편에 대해 스웨덴북은 이렇게 설명해준다. “이 시편은 주님이 겪으신 시험을 취급하고 있다. 이 시험 속에서도 그분께서는 아버지에게 그분의 신뢰를

두셨다. 또한 이 시편은 주님께 신뢰를 둔 기독교인의 시험도 취급하고 있다.” 신성한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는 신성한 보호로 그 확증을 갖는다. 56편을 직접 읽어보자. “하느님, 이 몸을 붙잡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들볶습니다...이렇게 무서울 때 나는 당신만을 의지하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찬양하오며 하느님을 신뢰해 두려운 것 없사오니 인간들이 감히 이 몸을 어찌하오리까?” 신뢰로 가득한 기도의 효력이 본문의 다윗의 체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다. “...내가 부르짖는 날 나의 원수들은 물러가고 나는 하느님께서 내 편인 줄을 알 것입니다...하느님, 당신께 서원한 것 갚아 드리려 감사의 제사를 바치려 하오니, 이는 내 목숨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이 넘어질까 붙드시어 생명의 빛 받아 하느님 앞을 거닐게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이 시편은 각 개인의 체험에도 매우 적절히 응용되리라 확신한다.

## 15

### 사무엘상 제22장

#### 아들람의 동굴에 있는 다윗; 사울이 사제를 학살하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쫓겨난 다윗은 자신의 은신처를 찾아 들로 나가 외딴 동굴로 가고 있다. 이후 이 굴은 아들람의 동굴로 유명해졌다. 이 동굴은 유다 지역 아들람 성읍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지금 이 곳은 다윗의 출신 지파와 그 가문의 거주지가 되고 있다. 이 동굴은 사 백 여명의 사람을 수용했을 것으로 미루어 꽤 큰 굴이었을 것 같다. 어쨌든 다윗의 추격자들은 그의 은신처인 이 동굴에 까지 즉각 따라 오지는 않았다. 이 때로부터 그는 방어 뿐만 아니라 공격 자세 까지 취하게 된다. 한편 그의 형제 친척들이 그에게로 왔다. “또한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빛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밖의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 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사 백 명 가량이나 되었다.” 다윗의 집안이 그와 합세해서 불행이든 행운이든 그와 동행하게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 교훈은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거듭나야 하는데 있어서 영적 원리들은 순수해지기 위해 고뇌의 용광로를 통과해 간다. 이 때 이

원리들은 더 광택있고 더 강해져 그만큼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영적 애정이 감각적 탐닉을 절제함으로 순수함을 획득하고 성소의 빵을 먹어 더 힘이 세지고 진리의 칼로 그 자체를 무장함으로 더 강력해질 때 이 애정 주위에 자연적 애정들이 몰려와 복종할 자세를 갖춘다. 마치 다윗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 백명 같다. 다윗의 형제나 그 가문의 친척들이란 영적 애정에 보다 가까운 자연적 애정을 말한다. 그 외 다윗 주변에 몰려 든 억눌렸던 자, 빛을 진 자, 불평있는 자들은 약간 의심이 가는 외형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사울이 자기 성미로 자초한 일들로 미루어 보아 그의 통치는 지혜롭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바탕이라면 위와 같은 무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 바탕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부 무리가 동굴에 머무르는 다윗에게로 갔다는 것은 과히 놀랄 일은 아니다. 사실 이돌람이라는 이름은 백성의 정의 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가 장차 옥좌에 오를 기름부워진 왕이라는 확신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비록 실지의 권력자는 아니지만 진짜 권력자로서 간주했는지는 모른다. 다윗 주위에 모인 무리들을 영적으로 이해해본다면 그들은 자연적 수준의 목적물만을 추구해대는 규율에 불만족하고 맥이 빠지고 곤궁해진 자연적 수준의 생각이나 애정이다. 이것들의 바램은 영적 목적을 지향하는 통치, 영적 대상물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뜻한다. 자연적 수준의 마음이 통치함으로부터 영적 수준의 마음이 통치함에 이르는 각종 상태나 변화는 인간 전체에 해당된다. 억눌림은 의지 측면의 상태, 빛짐은 이해성 측면의 상태, 불평있음은 생활 측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의 수령이 되었다는 것은 왕의 표시라기 보다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수준이고 기꺼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을 함축할 뿐이다. 영적 수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과 진리의 결합 또는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 수준과 영적 수준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이 상태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다. 다윗의 부하는 사 백 명밖에 안된다. 이 숫자는 완성과 결합을 표현할만한 숫자에는 도달 못하고 있다.

다윗의 불완전한 상태는 부모를 위해 현재의 어둡컴컴하고 안락하지 못한 동굴보다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장소를 물색하도록 그를 충동했다. 그래서 그는 “모압의 미스바로 가, 모압 왕에게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 까지 내 부모를 맡아 주십시오’ 하고 청하게 되었다. 모압 왕은 이 청을 받아 들여 다윗의 부모를 맡아 다윗이 그 은신처에 있는 동안 줄곳 곁에 머물게 하였다.” 본문은 다윗과 모압 왕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 유대가

어떠했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혈연적 측면에서의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자기 부모를 모압 왕의 보호 아래 있게 했는바 혈연 관계가 지닌 내용은 살펴볼만 하리라 생각된다. 이스라엘족과 모압족은 두 형제 아브라함과 롯의 후손이다. 물론 모압족의 혈연은 롯과 그의 장녀 사이의 근친 상간의 열매인바 그 가치는 손상되어 있다. 어쨌든 이 두 계보는 팔 백 년 동안 따로따로 내려왔었는데 이새의 아버지 오벧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이유가 오벧은 모압 출신인 롯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오벧의 아버지요 롯의 남편인 보하즈는 다말이 낳은 계보에 속한 유다의 후손이다. 불순하게 흐른 모압의 계보를 포함해서 위 계보들은 메시아에서 결국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인간 속에 흐르는 성향들, 가장 나쁜 것에 이르는 모든 성향이 그분의 인성에 흐르게 되었다. 이런 불순함들이 그분에 의해 추방되어 인성의 완전을 이룩하시어 인간의 완전을 이룩하신 것이다. 모압이란 자연적 수준의 선함을 원리로 삼는 이들을 표현한다. 이 선함의 원리도 좋게 사용될 경우 내면의 선함과 진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한 몫을 한다. 마치 모압 왕이 다윗의 편의를 봐주는 것과 같다. 다윗의 부모에 관해 언급되는 성서는 이 본문이 마지막이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압 왕이 그들을 죽였다고 말하나 성서에 그런 언급은 없고 이런 죽음이 다윗 부모의 운명이었다고 암시하는 대목 조차 없다.

시기함으로끓는 사울의 행동과 모압 왕의 친절한 행동이 본문에 나란히 등장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예언자 가드는 다윗에게 동굴에 머물지 말고 유다 지방으로 들어 가라고 일렀다. 컴컴하고 칙칙한 동굴로부터 다윗은 나왔지만 단번에 환히 트인 지역으로 건너 뛰지 않았다. 그는 하룻 숲으로 옮겼다. 그는 지독하게 희미한 상태에서 덜 지독한 상태로 옮긴 셈이다. 거기는 동굴보다 더 생명이 있고 희망도 더 있는 곳이다.

다윗의 행방을 잃어 버렸던 사울은 그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기브아 산등성이 큰 나무 아래 앉아 있던 사울은 신하들을 이렇게 호되게 꾸짖고 있다. “...너희 중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놈과 결탁한 것을 알고도 나를 위해서 귀뜸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 내 아들놈이 내 신하를 충동하여 지금 반기를 들고 잠복하고 있는데도 귀뜸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다.” 그때 에돔 출신 도역이 말했다. “이새의 아들이 놈으로 아히톱의 아들 아히멜렉을 찾아 와서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야훼께 알아 본 다음에 성소의 떡과 골리앗의 칼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제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사제 까지 모두 불러 들여 문책했다. 그 문책 죄목은 다윗을 도와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항의했다. 다윗은 왕이 신임하는 부하였고 그 부하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해서 도와 주었을 뿐 그가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울은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고 싶은 기분도 내키지 않았다. 그저 그는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해 허덕거릴 뿐이었다. 사울은 호위병들에게 주님의 사제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으나 모두 주춤했다. 그러나 그가 도엑에게 명령하자 그는 선뜻 나서서 “에봇을 모시는 사람 팔십 오 명”을 처죽였다. 게다가 “그는 그 사제들이 살던 놈의 성민 까지 칼로 처죽였다. 남자, 여자, 아이들, 젖먹이, 소, 나귀, 양 까지 모두 칼로 처죽였다.”

이 끔직하고 무차별한 살육은 사울의 잔인한 기질,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있는 무자비한 영이 어떤지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1-33절에 있다. 즉 “내가 네 기운, 네 가문의 기운을 꺾으리니 이제 네 집안에 늙은이 하나 남지 못 할 날이 오리라. 그 날이 오면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번영을 보고 속이 뒤틀릴 것이다. 그러나 네 집안에서는 두 번 다시 늙은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네 후손 가운데서 하나만 남겨 내 제단 일을 보게 하겠지만 그도 기운이 다하고 그의 후손마저 모두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으리라.” 이 구절은 사제 엘리의 가문에 선포된 형벌이다. 아히멜렉 사제 가문의 파멸을 집행하도록 사울을 보낸 신성한 심판에 관해서는 본문에 국한해서 살펴보자. 그 이유가 한 가문 또는 인류 안에 근절될 수 없는 악이 있을 경우 이 사상은 진정한 섭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악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깊은 본성 측면에 관련된다. 성경에 기록된 경우와 우리가 역사 안에서 발견하는 경우 사이에 유일하게 다른 점은 성경의 경우는 하느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역사는 그 권능을 우리로 발견해보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밝히 알게 하고 역사는 우리로 그 연결을 추적하게 한다. 어떤 가문이나 국가의 파멸에 대해 성경에서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 중 일부는 종교적 바탕에서 도덕적인 것이 그리 부각되지 않고 단지 역사 사건으로 나타나는 듯 여겨지는 것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모든 도덕적 조건들의 뿌리는 영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 있는 영적 상태는 그 사람의 본성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잘 견뎌내지는 부분에 해당된다. 이것은 영원에 속하나 그외 다른 것은 모두 일시적일 뿐이다. 그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결과로 있게되는 영원한 조건은 제일 중요한바 이것만이 하느님의 보호 대상이다. 엘리의 경우

종교적 측면을 소홀히 한 결과 큰 도덕적 부패를 초래케 했다. 그의 아들들은 스스로 고약한 냄새를 풍겼고 엘리는 그들의 비행을 제지하지 못했다.

사제 가문이 몰살 당한 것과 그들을 몰살시킨 사울의 표면상의 이유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우리가 본문 줄거리를 글자로만 살핀다면 그 글자들은 인간 본성의 부끄러운 모습만을 표현해 줄 뿐이다. 다윗은 대 사제에게 자기가 사울의 명을 받들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서 사제 아히멜렉에게서 도움을 얻었다. 사울은 사제를 죽였는데 그 이유는 다윗에게 협조했기 때문이다. 비록 사제가 다윗을 도와 준 것은 다윗이 사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 이라는 호소가 있었지만 막무가내였다. 위 세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하고 참변을 당한 것은 사제였다. 이런 사항으로부터도 도덕적 교훈이 있을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다. 이쪽 측면에서는 사기로, 저쪽 측면에서는 과립치한 이기심으로 야기된 비참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은 비록 본문과 완전히 공존하지 않는 듯 여겨질지 모르지만 위 교훈 보다 더 높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본문의 상황에 대한 영적 이미의 열쇠는 시편 52편이 가지고 있는 듯 여겨진다. 이 시편 머리에 “에돔 사람 도역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일렀을 때 지은 시” 라고 써있다. 이 시편 자체가 도역에 관련된 것인지, 사울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분분하다. 그러나 본문의 줄거리에서 사제를 죽이라고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했지만 누구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들이 주님을 모시는 사제였기 때문이다. 이 명령이 도역에게 떨어지자 그는 선뜻 나서 사제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놉의 성민 까지 닥치는대로 더 죽였다. 시편 52편이 읊는 해악의 장본인은 도역일 것으로 저자는 생각한다.

이 도역은 에돔 출신이었다. 성경에서 에돔은 좋은 의미 내지 나쁜 의미 양쪽으로 언급되고 있다. 에돔은 말씀 안에서 여러 사건이나 여러 사람들에 적용되는 여건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가 교회 속의 선하고 참된 것이라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섞임(간음)으로 약해지고 왜곡되어 타락하기 때문이다. 좋은 의미에서 에돔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선, 이 선에 진리의 교리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나쁜 의미로 사용될 경우 자아 사랑, 이 악에 거짓 원리들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에돔 출신 도역이 본문에서 표현하는 품성은 나쁜 의미의 측면일 것은 의심할바 없다. “사울의 목부 중 힘센 자”인 그는 양의 가죽을 두른 늑대여서 아차하면 주님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뒤돌아 덩벼들어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을 즉각 수행한 자가 바로 도역이다. 더욱이 그 명령이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도 도역이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증오하는데 대한 수단이 되어 준게 도역이었는데,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모든 사제를 향한 분노가 도역 속에서 불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도역은 자아 사랑의 악이요 이 악이 거짓을 수단으로 자연적 수준이 영적 수준을 시기하는 본성을 더욱 휘저어 들끓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내적 진리를 부양하는 내적 선을 파괴하도록까지 유인해낸다. 비록 사제의 몰살은 과거 엘리 가문에 내렸던 심판과 엇비슷하다 해도 어쨌든 사제 직분 자체는 거룩하고, 설사 이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불순해 있다 해도 사울이 사제를 반역죄로 몰아 부친 것은 사제의 불순함보다 그 악의 심도가 더 독한 상태이다.

절멸 당할듯한 사제들의 살육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몰살되지 않았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에비아달이 그 곤경을 빠져 나와 다윗에게로 달아 났다. 한 사람의 탈출로 완전한 전멸을 면하는 모습은 말씀 안에서도 몇 군데 더 발견된다.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을 살해할 때 가장 어린 요담만은 어딘가에 숨어 살아 남았다 (판관기 9:1-6).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혈육을 모두 죽일 때 요하스 만은 그의 고모에 의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열왕기하 11:1-31). 이상의 사건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사건은 과거 헤로데가 두 살 이하의 사내를 살육 할 때 아기 예수가 피신해 살아 남은 것에 비하면 조그만 사건에 불과할 뿐이다. 한 인간이 정신이 뒤집힌 듯 완전한 끝장을 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씨가 살아 있게 보존하신다. “만군의 야훼께서 조금이라도 살려 두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모두 소돔 같이,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으리라” (이사야 1:9). 이 구절 같은 경우가 아기 구세주의 경우이다. 또한 이는 인간 마음 안에서나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도 진정한 사실이다. 인간 의지에 의해 결과될는지 모를 각종 파괴, 영적이고 영원한 삶의 원리가 파괴되는 경우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비로 “조금이라도” 살아 남아 있게 해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해지고 말 것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수준에 있는 마음 속의 원리들을 본문의 도역 같이 파괴하려 들 때 주님께서 그의 영적 수준의 마음 안에 그 원리의 열마를 보존되게 하시어 멸종을 면하게 하신다. 다윗이 에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당신 목숨을 노리는 자는 내 목숨도 노리고 있소. 내가 당신의 신변을 보살펴 주리다.” 다윗은 사제 가문의 몰살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영적 원인들은 때로 자연적

원인들이 죽을 정도 까지 활동한다. 이와 똑같은 의미를 지닌 대목이 예수께서 겪으신 시험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는 성령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의 원인(occasion)이라고 언급하는 셈이다 (마태 4:1-11). 이런 특별한 원인(occasion)은 영적인 것과 함께 존재하고, 평범한 원인(cause)은 자연적인 것 안에 존재한다. 영은 인도해서 끌어 올리고 육은 끌어 내린다. 그래서 영과 육 사이에는 다름이 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승리(victory)는 사탄이 차지한 듯 여겨졌으나 부활은 승리(triumph)가 고통받은 자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읊고 있다. “네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 속임수의 명수로구나...하느님께서 너를 박살내어 영영 없애 버리시리라. 장막에서 너를 끌어 내어 인간 세상에서 뿌리째 뽑아 버리시리라...나는 하느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이 한결같은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히 영원히 믿고 살리라. 당신의 해주신 일 고마워 항상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당신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어지신 당신의 이름을 기리이리다 (시편 52편).

## 16

### 사무엘상 제23장

#### 다윗이 크일라를 구해준다

다윗이 은거한 아둘람의 동굴은 그의 비상 수단이 발동되기 시작한 거점으로 보인다고 앞장에서 거론한 바 있다. 이후 다윗은 더 이상 피신하는 쪽에 있지 않고 때로는 활기에 넘쳐 그의 용맹이 사울에 까지 미치도록 발휘하고 있다.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협조한 아히멜렉에 대한 처벌로 사울이 사제들을 살육한지 얼마 안 되어 “불레셋군이 크일라를 치고 타작마당을 닦치는 대로 약탈해가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 왔다.” 여호수아서를 참조하면(15:44) 크일라는 유다 지분으로 낙찰된 성읍 중의 하나이다. 이 성읍은 아둘람의 동굴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가 불레셋의 약탈 소식이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빨리 알려졌기 때문에서이다. 불레셋이 타작하는 곡식을 강탈해가는 상황은 시급을 다투는 결정이 있어야 했다. 게다가 다윗이

이 성읍을 구출한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크일라 사람들은 유다 지파 소속이라는 것, 그들이 자기 지파에 속하는 다윗에게 원조를 요청했고 다윗 역시 한 지파여서 동정심이 더욱 빨리 발동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한가지 보다 높은 이유도 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적과 싸운 작전 지역은 유다 지방 외의 다른 곳에서만 수행되었다. 유다 지파가 지닌 영적 의미는 아주 높은바 이를 표현하는 사람의 구출은 그와 대등한 의미를 표현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다윗은 현재 군림하여 세력을 쥐고 있는 사울보다 더 높은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내적 인간 속에 있는 생각과 애정들은 적의 습격, 그 적이 악이든 거짓이든 어떤 공격으로 부터서도 내적 선함과 진리의 힘으로만 구원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안쪽에 있는 영적 생각과 애정들을 볼 수가 없어 오로지 영적 빛을 수단으로 해야 한다. 이 빛 없이 우리는 반대 세력이 지닌 원리들을 밝히 볼 수 없다. 이 반대된 원리들은 우리 삶의 수단과 수고함을 강탈해 가고 끝내 우리로 포로가 되게 한다. 영적 수단만이 자연적 수준을 꿰뚫어 보아 자연적 수준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자연적 수준은 영적 수준을 어떻게든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 상태와 필요함이 무엇인지 알아서 원조할 능력이 없게 자연적 수준인 사울인 것이다.

크일라 주민이 곤경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 왔지만 사실 그에게는 그 주민을 도우기에는 너무 부족한 병력을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그 주민을 돕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했을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더 높은 권능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께 자신의 결정을 맡겼다. “야훼께 ‘제가 가서 이 불레셋군을 칠까요?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 ‘가서 불레셋을 치고 크일라를 구해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이와같은 하느님의 명령 앞에서 어떤 주저함도 있을 수 없을 듯이 보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안됩니다. 이 유다 지방에서 있는 것만도 가슴조리고 있는 처지인데 불레셋군을 치러 크일라로 가다니 말이 됩니까?’ 하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야훼께 재차 여쭙자 야훼께서는 ‘어서 크일라로 내려 가거라. 내가 불레셋군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고 분부하셨다.” 다윗의 부하들이 불레셋군을 두려워 하는 모습은 그것과 상응되는 상태 하에 놓인 우리의 느낌과도 정확히 같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신 대목,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 26:41)에서 표현된 상태와도 같다. 자연적인 것에 비중을 둔 우리의 수준 낮은 애정은 보다 높은 애정이 인도해 가는 곳, 더욱이 신성한 말씀이 직접 가르쳐 준다 해도 그 뒤를 선뜻 따라 나서기를 거절할 때가 많다. 자기 주위에서

보여지는 어떤 사건을 해결해 주려 참견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피하기려는 경우,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격려를 주님께 찾아야만 하는 경우일 것이다. 다윗이 두 번째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일어나 크일라로 내려 가거라”는 명령에 네 손에 불레셋을 붙이겠다는 확증까지 더해 주셨을 때 다윗의 부하들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이는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끈덕지게 물는 태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신성한 약속이기도 하다. 두 번 여쭙듯이 반복함에는 이런 장점도 있다. 즉 목적을 강화시켜 주어 저항하고 있는 생각과 느낌들로 목적에 복종하게 하고 협동하게 한다. 행동이 두 번 있어짐은 어떤 힘이 있다는 말이다. 창세기 41장 32절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씩이나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지체없이 그대로 하시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두 번 말씀하신 것, 나는 들었사옵니다” (시편 62:11). 진리는 내적 측면의 인간 편에서 확증되어야 할 뿐 아니라 외적 측면의 인간 안에서도 확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윗이 두 번째 주님께 문의해 얻는 결과에서 위 결론은 쉽게 이해된다. 즉 첫 번째 문의는 자신에게 확증을 받았고 두 번째 문의는 그의 부하들에게 확증을 주었다. 특히 두 번째 명령에서의 “일어나라, arise”는 자연적 수준의 인간 측면에 대해 하시는 말씀인바 자연적 수준의 것에 비중을 두는 생각 너머로 마음을 들어 올리려면 두려움을 제거하고 용기를 흡입할 필요가 있다는 훈계가 담겨 있다.

불레셋군의 무차별한 독식 행위를 쳐부수게 하리라는 하느님의 보증을 받고 “다윗은 부하를 거느리고 크일라로 가서 불레셋을 치고 가축을 몰아 왔다. 불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크일라 주민을 살려냈던 것이다.” 크일라는 그 이름 자체의 말 그대로 빗장 성문이 있는 요새화된 성읍이어서 그 곳을 정복하려면 강한 군대의 힘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육 백 여명의 부하만 거느린 다윗이 이 성읍에 진입한 불레셋을 타도했다는 것은 심정이 하느님을 향해 올바를 경우 작은 수단만 가지고도 어떻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더불어 승자는 적군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덕분에 더욱 넉넉해진다. 이는 악이 극복될 경우 우리 마음은 선으로 더욱 윤택해짐을 가르치고 있다. 크일라 주민을 구해냄은 다윗의 진취성이 성취한 결과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관심을 쏟은 만큼 과업도 더 완성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크일라 주민만을 때어서 생각해 본다면 생명을 건진 그들인데도 만족함과는 거리가 멀어 있다. 즉 그들은 구조받았음에도 고마움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다윗이

자기들에게 베푼 은덕에 보답하는 그들의 태도는 본문 중간 짚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위 구절에 이어 말해지는 내용은 다윗에게 피신해 온 아히멜렉의 아들 에비아달이 에봇을 자기 손에 들고 왔다는 것이다. 앞장의 끝 문단에서 아히멜렉 사제 가문이 도역의 칼에 몰살당하는 가운데 에비아달만이 칼을 피해 다윗에게 도망쳐서 살아 남았다는 것, 다윗은 그를 영접해서 보호해 주겠노라고 그에게 약속하고 있다. 이 사제의 아들이 이 문단에서 소개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표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저 하는 사향이 있기 때문임은 의심할 바 없다. 즉 영적인 정복, 그리고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원리에 모든 것을 의지해야한다는 거짓으로부터 구원되면 사제로 표현되는 것, 즉 사랑과 선함의 원리가 우리에게 놓여진다는 것이다. 이 사제, 에비아달은 자기 손에 에봇을 들고 있다고 본문은 강조하는 듯 우리에게 비쳐지고 있다. 이 에봇은 현 구절에서 중요한 점ियो 영적 의미에서도 그러한바 이제 에봇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에봇(ephod)은 사제의 옷 중에서 가장 바깥 부분이다. 이 옷 위에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지칭하는 열 두 개의 보석이 박힌 가슴받이판이 있다. 사제는 선을 표현하는바 사제의 옷은 선을 옷입히는 진리, 또는 선을 표현하는 수단인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제가 업무를 집행할 때 입는 가장 바깥 옷인 에봇은 가장 바깥쪽의 진리(outermost truth)를 표현한다. 이 진리에 모든 내적 진리가 종결되는바 이 진리 안에 모든 내적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런 이유로 에봇은 사제가 입은 어느 옷 보다 더 거룩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은 안쪽에 있는 것 보다 더 거룩하다. 그 이유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포함하는게 바깥 측면이기 때문이다. 바깥 측면은 형체와 연결이라는 모두를 함께 간직한다. 그러므로 만일 바깥 측면이 제거되면 안쪽의 것들은 흩어지고 말 것이다. 이 사향은 인간이 뜻하고 생각하고 행함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뜻하는 것이 순서상 첫 번째이고 생각함이 두 번째, 행함이 마지막이다.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만큼 거기에는 그의 생각함과 뜻함이 포함되어 있듯 내면에 있는 것들도 형체와 연결됨 안에 모조리 간직되어진다.” 이런 사실로부터 인간은 그의 일에 따라 심판되어 진다고 성경에서 말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향은 일함이 빠진 믿음을 수단으로 구원된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 걸림돌은 그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표면상으로 반대되는 듯 여겨지는 두 서술이 일치되도록 편법을 시도하는 쪽으로 치닫게 해주었다. 그 편법이란 인간이 자기가 일한 것에 의해 의로워지고 자기의 일함으로 심판된다 라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가 일한 것에 의거 판단받아진다는 말은 그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판단되어 진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일한 것은 의지와 생각이 체현된 형체 그 이상의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에봇의 의미가 위와 같은바 불레셋을 쳐부순 구절에 곧 이어서 사제가 자기 손에 에봇을 들고 있다고 서술되고 있다. 행위 없는 믿음을 표현하는 게 불레셋군이고 이런 믿음은 각자 자신의 선한 일, 노력의 열매를 거두는 타작 마당을 강탈하는 바 이를 타도해 버리는 게 다윗 즉 신성한 진리임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적군을 무찌른 승리의 열매인 평화를 다윗은 오래 즐기지 못했다. 그의 승리의 소식, 즉 그가 크일라에 입성했다는 소문 때문이다. 사울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느님께서 그놈을 내 손에 넘겨 주셨구나. 빗장 성문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제 발로 함정을 찾아든 격이군...” 그래서 “그는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크일라로 쳐내려가 다윗의 부대를 포위하려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크일라로 진격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계책을 눈치채고 사제 에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다음 주님께 소문대로 정말 사울이 내려 올 것인지, 그럴 경우 크일라 주민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길 것인지를 여쭙어 보았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래 그가 온다.” “그래 넘겨 준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 다니는 것은 과히 놀랄 사항은 아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는 전능하신 분의 선포는 약할 뿐인 인간 본성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과 상반되지 않는다. 자아 본성의 첫째가는 법칙은 자기 보존 (self-preservation)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 법칙의 영향 밑에서 가장 크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면 아마 희생으로 바치는 것, 즉 제단에 자기 희생을 바치는 것일는지 모른다. 크일라 주민들이 사울의 권세에 다윗을 넘겨 준다고 생각해 보아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대 사제의 부하에게 사로 잡히시자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 보다 더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사실 크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로 잡아 사울에게 내놓기 까지 테스트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는 없고, 베드로의 경우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맹세한 이후 세 번 부인하고 깊은 통회에 빠지는 상태를 이 주민들로부터 추측해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 준다는 예상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의 타락된 본성 속에는 크일라 주민 같은 경향 내지 악함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다행히 자비로운 그분의 섭리 덕분에 무르디 무른 인간 본성이 시험에서 보존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자신의 복지 향상에 일관되어 모든 시련과 시험을 피할 수 없다 해도 거기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하느님의 응답이 다윗의 기도에도 도달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크일라를 벗어나 전에 다니던 곳으로 가서 돌아 다녔다. 다윗이 크일라를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은 출동을 중지하였다.” 하느님의 증재는 크일라 사람을 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큰 죄를 범하는 일도 예방해 준 셈이었다. 물론 다윗도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들은 갈 데가 없어 이리저리 헤메고 있었다. 따라서 “다윗은 광야에서 살았다.” “다윗이 지브 광야 산 속에 살고 있는 동안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았지만 하느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사울이 사냥하듯 그를 찾고 있을 즈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까지 와서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요나단의 이 격려는 인간적 차원의 동정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해 놓으신 운명, 하느님께서 다윗의 안전을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을 표현한 것이다. “걱정말게. 아버님의 손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네.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일세. 그때 나를 자네 버금가는 자리에 앉혀주게. 아버님도 그리될 줄로 아신다네.” 요나단으로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확인 못하고, 또 자기가 나라의 둘째 자리에 앉는 것도 당장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다. 그럼에도 요나단의 심중에서는 기정 사실로서 굳혀져 있는 듯 보인다. 어쨌든 이런 대화는 과거 둘 사이에 맺은 약속의 일부로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요나단이 표현하는 영적 진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볼 때 다윗으로 표현된 영적 진리에 버금가는 진리이다. 말씀 글자 속의 순수한 진리는 말씀의 영에 있는 순수한 진리에 둘째 간다. 진리의 이런 서열은 주님의 교회에 있는 진정한 교인의 마음 내지 그 나라의 원리에서도 같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마지막 만남에 해당된다. 마지막 대면치고 두 사람이 대면하는 분위기는 과거 사울이 다윗과 요나단 모두를 죽이겠다고 시도했을 때의 두 사람의 분위기 만큼 다정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두 사람 간의 약속은 둘 사이에 무르익어온 헤어져서는 안 될 하나됨에 대한 엄숙하고도 마지막에 해당되는 추인이다. 게다가 이 둘의 하나됨이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표시도 되고 있다. 이제 다윗은 호레스(鎗)에 남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 갔다. 요나단은 집에서의 편안한 생활로 되돌아 갔지만 다윗의 경우는 계속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넘겨야만 했다. 사실 다윗은 블레셋 같은 적들로부터서 곤경을 당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가문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갖가지 일에 있는 섭리의 방법이기도 한데 이런

섭리를 본문의 역사 속의 인물을 통해 체험되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

다윗이 지브 광야 숲 속에 은신하는 것도 과히 길지 못했다. 지브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여시온 남쪽, 험준한 하길라 산 위 호레스에 있습니다.” 지브 광야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지브 성읍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지브 성읍은 원래 유다 지분으로 할당된 산 중에 있는 열 성읍 중 하나이다. 지브 사람들은 다윗을 앞의 크일라 사람보다 더 적대시하고 있다. 그들은 사울의 수중에 다윗이 잡히도록 하려고 단단히 버리고 있는 듯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언제든지 그를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에게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칭찬하며 이르기를 “이제 가서 분명히 알아 보아라. 숨을 만한 데는 살살이 뒤져 알아 오너라...그가 이 지방에 있는 이상 유다 부락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고야 말리라.” 지브 사람들은 사울에 앞서 먼저 갔는데 그 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온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나섰다는 소식에 다윗은 마온 광야의 바위 틈에 내려가 숨어 있었다. 다윗이 몸을 숨긴 요새는 산 속의 동굴이었는데 그는 이런 동굴을 안식처로 삼고 있었다. 하윌라(hachilah)란 그 이름이 지닌 뜻과 같이 어두운 산이어서 자칫하면 발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산이다. 거기서 빛을 바라는 동안 그 빛이 변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되는 위험에 빠지고 있다 (예레미야 13:16). 이 사막에서 저 사막으로 도망 다니는 다윗, 시험과 외로움의 이 상태에서 또 다른 그런 상태를 견뎌야 하는 다윗, 적도 아닌 자기 동포가 적이 되어 피신하면 또 다른 동포가 적이 되어 공포로 몰아 넣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은 시편 54편에서 이렇게 읊고 있다. “하느님, 당신 이름으로 나를 구하소서. 힘을 떨치시어 내 울음을 밝히소서. 하느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 귀담아 들으소서. 하느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거만하게 나에게 달려들며 포악하게 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러 오시고 주께서 나를 돕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저 원수들로 하여금 제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야훼, 진실하신 이여, 저들을 없애 주소서. 진심으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웁니다. 당신의 어지신 이름을 찬양하웁니다. 온갖 어려움에서 이 몸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패망을 보게 하소서.”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이 시편은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 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해준다. 다윗의 고뇌는 다윗으로 표현된 그분의 고뇌인 것이다. 역사 자체에서 다윗은 기독교인이 당한 박해, 그리고 행복한 결과 즉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는 내향의 영적인 박해이고 이 박해는 악을 제거해주고 선함을 끌어내 확증되게 한다. 그래서 곤경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움을 한껏 더 깊게 맛보게 한다. 우리의 시련이 때로 더 심각해지고 우리가 당하는 박해가 더 지독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당장은 아무 희망도 없는 듯 여겨질지라도 결국 그분은 우리를 구해주신다. 다윗이 마온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사실 마온이란 이름의 뜻은 피난처인데 아마 다윗은 이곳에 숨어 사울의 위협을 피해 안전하기를 바랬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예상치 못했던 지브 사람들의 밀고로 되려 더 위태로워진 것이다. “사울이 그를 추격하여 마온 광야로 들어섰다. 다윗은 자기가 부하들과 함께 있는 산의 맞은 편 산에 사울이 나타나자 사울을 피하여 도망쳤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를 거느리고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 전령이 보고한다. ‘빨리 돌아 가십시오. 블레셋군이 전국에 밀어 닥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블레셋군을 맞아 싸우려고 발길을 돌렸다.” 하느님의 섭리는 어떤 악의 작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 악에 반작용하는 악을 허용하시기도 한다. 사실 이 악이 저 악을 제거할 수는 없다. 마치 사탄이 사탄을 던져버릴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데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악들이 다른 돌파구를 찾도록 해서 한동안이라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떼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속의 세상 사랑이라는 악은 자아 사랑이라는 악을 일시적으로나마 떼어내거나 좀 더 완화되는 쪽에서 이용되기도 한다. 품위를 갖추어 맛을 보려는 악은 조잡하고 파렴치한 욕망을 자제시킨다. 예를 들면 명예를 사랑함이라는 악은 자아 사랑이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르려 할 때 체면을 내세워 도덕적 품위를 어느 정도라도 갖추게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저런 것들이 당사자들의 행동 내지 지침을 변경되게 해줄지라도 그 근본이 바뀐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근본되는 원리가 변화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되질 않는다. 사울이 다윗의 추격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추격하러 돌아섰다고 해서 다윗을 중요하던 마음 상태가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곳의 바위를 갈림 바위 (the rock of division, sela-hammahlekoth)라고 불렀다. 바위, 바위 같이 튼튼함, 다윗이 은신처로 사용한 바위는 영원한 바위, 즉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 이 바위는 박해 동안 기독교인의 안전 장치이다. 시험이나 시련이 끝날 때 신성한 진리는 갈림 바위가 된다. 악과 선이 분리되고 갈라지는 결과가 있어진다는 말이다. 사울의 포위 작전이 해체되자 다윗은 거기를 떠나 엔게디 근방의

험준한 산에 머무른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다윗의 곤경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다.

## 17

### 사무엘상 제24장

####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지금 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도망쳐 달아나는 모습 뿐이었다. 그래서 언제인가 무자비한 사울의 추격에 결국 붙들리어 죽을 수 밖에 없는 다윗만을 생각해볼 수 밖에 없지만 본 장 부터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기는 마찬가지지만 사울은 다윗의 능력에 섭리적으로 점차 압도되고 있다.

사울은 블레셋군을 쫓아낸 다음 추격하다 되돌아 갔던 다윗을 다시 쫓아가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뽑은 삼 천 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다는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그곳 길 양 옆에는 양우리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근처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거기 들어가 뒤를 보았는데 때마침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야훼께서 장군의 원수를 장군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시던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겂옷 자락만을 잘랐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일 마저 불손한 행위라고 자책했다. 사울이 동굴 밖을 나섰을 때 다윗이 따라 나와서 외쳤다. “오늘 야훼께서는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 주셨지만 야훼께서 기름부어 성별해 세우신 저의 상전을 아끼는 마음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임금님의 겂옷 자락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임금님을 해치거나 반역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알아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잘못된 일이 없는 데도 임금님께서서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 다니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의 보다 높은 양심에 호소한 다윗의 이 말에 그의 마음이 녹지 않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는 아마 악인 중의 악인이었을는지 모른다. 어쨌든 이 사건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보다 다윗이 더 정의롭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게 했다. 다윗이 장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그의 손에서 건설되는 것을 막으려고 자신이 억지로 발버둥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끊어버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가문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비겁했던 사울의 태도에 대한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관대하고 고상했는가에 대해서는 부인할 자 아무도 없으리라 본다. 다윗의 행동 속에 담긴 감정은 자연적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것 까지 더 스며있다. 이 감정은 하느님을 경건히 모시는 마음에서만 우리나라 사울에게 까지 전달되고 있다. 이 감정은 유혹에 약하고 실수 쪽에 쉽게 기울고 마는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출발되지 않는다. 이는 기름부는 자의 태도로 부터만 가능할 뿐이다.

위 두 사람의 비교는 종교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행동할 경우와 무르디 무른 인간 본성의 자극만으로 행동할 때의 차이에서 늘 발견된다. 아마 다윗의 역사 속에서 그가 보여준 각종의 상반된 품성들, 즉 관대함과 보복적 행위, 자비로움과 잔인함, 순결함과 불순함이라는 정 반대되는 품성들이 한 인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속성을 진열해 줄 사람은 거의 없다.

어느 인간도 하느님과 천사의 시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어느 인간도 죄있는 육체라는 약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진실로 영적인 사람과 단지 경건할 뿐일 사람은 본성 측면이나 수준 측면에서 폭 넓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연적 경건함과 영적 경건함의 차이는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존경하는 느낌과 실지 순수하고 거룩한 상태가 구별되는 것과 동등하다. 경건하되 영적 상태가 아니거나 존경심을 갖되 거룩한 상태에서가 아닌 것은 모두 부드러울 뿐인 감정의 민감함 만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경건과 존경은 외적 조건이 허락되는 경우에서만 가능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 내향의 원리로부터 규율되고 영감된 게 아니라 바깥 조건에 의해 충동된 느낌으로부터 오는 행동 표현일 뿐이다. 위와 같은 품성은 감정 차원이든 행동 차원이든 극히 상반되는 정도 까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 속의 부패된 본성이 자아 부정이라는 종교적 품성에 의해 제압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강한 충격이 있게 될 때 쉽게 밖으로 돌출되고 만다.

인간의 삶에서 극히 상반되는 품성이 발출될 때면 언제든지 두려움이 있게 되는 그 이유는 제이무리 경건이 흠양되고 있다 해도 영적 차원이 너무 적게 함양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영적 차원의 마음이 잘 작동되는 인격의 소유자라고 해서 그가 인간의 허점에 근원을 둔

행동이나 느낌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 어쨌든 영적 마음이 자연적 마음을 얼마나 제압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늠된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본성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세상적이고 육에 속한 옛 사람의 품성만이 발출하는 행위들을 고의로 저지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행위들을 저질렀다. 흔히 다윗은 하느님 자신의 심정을 따라 만들어 졌다고 말해진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이런 사실로부터 야기되는 혼동에서 보호되도록 뭔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다윗 그리고 구약 성서의 특성을 신약 성서와 비교해 보면 구,신약이라는 두 개의 처방에는 전적으로 다른 품성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구약 성서 속의 인물들은 진정한 교회의 그림자 내지 모형이라는 차원인 반면 신약 성서의 인물은 실체요 실재였다. 그래서 유대 교회 속의 인물이 특출하다 해도 성인(saint)의 모형이 되어 주는 것 이상의 수준은 필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 속의 특출한 사람은 실재의 성인이었다. 다윗은 유대교 안에서 하느님의 심정을 따라 된 사람이지만 기독교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그의 개인적 내지 영적 품성 측면 보다는 공적이고 표현적 측면에서 그분의 심정을 따라 되어진 사람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 이 사랑은 표현적 차원이 아닌 실지적 차원이었다. 그 이유가 그는 자기 안에 예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특별히 가졌었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 누군가가 다윗의 특징을 지녔다고 우리가 상상해볼 수는 없다. 그 이유가 다윗 자신은 기독교인의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없고 오로지 유대교인의 측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을 유대교 측면에서 가늠해 볼 수 없다. 가장 엄격한 종교 분파에 속한 사람이든, 유대 종교의 가장 걸출한 사람에 해당되든 그들의 정의가 하느님의 정의에 걸맞지 않으면 누구도 하느님의 나라에 입장할 수 없다.

다윗의 역사에 있는 유대교적 경건이라는 실체는 벗어야겠지만 본문에서 보여준 다윗의 행동, 즉 자신을 죽이려 드는 가장 강한 적수를 죽일 기회를 맞이 했으면서도 적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건을 살펴보자. 다윗의 이 행동은 기독교인의 미덕 중에서 배워야 할 매우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에게 죄지은 이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본문의 사건은 더 생생한 사실 묘사로 더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시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5:44-45). 계발된 기독교인의 이타에는 유대인에게 내려진 처방 아래 행해진 태도와는 어느 측면에서 아주 다름는지 모른다. 우리가 실시해야 하는 이타애가 옛날 보다 덜해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더욱 부드럽고 더 용서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말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유대 교회의 제도 아래에서 본문 같은 다윗의 행동은 자신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되 얼마나 더 큰 호의였을까는 짐작되고도 남는다. 본문의 줄거리가 되새겨 주는 주님의 가르침이 더 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위 가르침, 그리고 관용과 사랑의 실시가 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 본문과 같은 다윗의 호의적인 행동에 대한 사울의 보답은 비합리적인 잔인성만을 차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어쨌든 잠깐이지만 본문에서는 사울의 그런 태도가 다윗의 관대함에 의해 부드러워져 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끊는 대신 그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 옷자락을 든채 사울에게 호소했을 때 완악한 왕의 심정도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이 사울의 심정을 관통했다. “그는 울음을 터트렸다.” 그리고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너를 못살게 굴었는데도 너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일에 대해 주님께서 상을 내리시기를 빌었다. 더욱이 이렇게 스스로 복종하고 있다. “너야말로 임금이 될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통치 아래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런 사울의 심정, 더 나은 마음의 구조는 사실 단 기간밖에 유지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 과거 언급한 적도 있지만 진리의 놀랄만한 본보기를 보게 된다. 즉 영적 원인이 결여된 상태에서 야기된 보다 수준 높은 원인은 그 느낌의 원인이 눈 앞에 당장 있는 경우에만 지속될 수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울의 마음은 옛날로 되돌아 갔다. 회개했던 그의 마음은 옛 조건 속에 파묻혔거나 더욱 나빠졌을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그를 인도하고 지탱시켜 주는 내향의 원리가 없는 까닭에서이다. 이제 본문의 사건에 놓인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볼 차례이다.

이스라엘 왕국의 상태에 대한 표현은 이스라엘 교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사울의 도포가 다윗에 의해 잘리우고 그 옷자락이 다윗의 손에 있었다는 것은 왕국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넘어 간다는 것을 표현했다. 사울 역시 이를 인정해서 실토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이스라엘 왕국은 네 손에서 번영하리라 ”

본문의 주변 여건들은 한층 더 높은 의미 즉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의 왕국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사울과 다윗은 각각 자연적 수준과 영적 수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줄거리의 세부 항목들은 각 자의 경험에 있게 되는 영적 상태들을 묘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을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게 된다.

다윗은 영적 인간 내지 영적 수준의 마음을, 사울은 외적 인간 내지 자연적 수준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게 되면 다른 면모에서 보게 되는 아름답고 놀랄만한 진리의 예증을 발견하게 된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연적 수준의 마음은 영적 수준의 마음을 적으로 여긴다. 그 반면 영적 수준의 마음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과 다시 만나 화합하려고 꾸준히 애쓴다. 이런 모습이 다윗과 사울 각각의 성미와 행동 속에서 늘 풍겨 나온다. 더구나 본문에서 다윗의 말과 행동에서 더 세부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광야는 시험을 상징한다. 따라서 시험의 특성은 그 시험을 표현하는 광야에 의해 암시되어진다. 엔게디 광야로 표현되는 엔게디 자체의 영적 의미로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문 말고 성경에 있는 엔게디라는 단어는 명확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제키엘 47 장에서 엔게디는 새로운 성전, 신비로운 성전, 즉 성전 동쪽 문턱에서 나와 흐르는 생명수의 강과 연결되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이 물에 관해 8절에서 이렇게 언급된다. “이 물이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 내려 사해로 들어 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물마저 단 물이 된다.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이 번창하며 살 수 있다. 어디로 흘러 들어 가든지 모든 물은 단물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득실거리게 된다. 이 강의 물고기 종류는 지중해의 그것 만큼이나 많아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에 이르기 까지 그 언덕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치놓고 들어 서있으리라. 그러나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 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짠 물로 남아 있으리라.”

이 생명수는 유다의 사막 벌판으로 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 간다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유다 광야는 세레자 요한이 나타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맨 먼저 전파한 곳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명수에 관한 에제키엘의 환상이 외적으로 표현되어 성취되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 생명수의 강이 흘러 생명을 되찾아 과실을 맺게 되는 사막과 바다란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의지와 이해성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물이다. 자연적 수준의 마음 자체만 생각한다면 이 마음은 황량하여 죽은 상태이다. 그러나

신성한 진리가 그 마음에 흘러 들면 생명이 있어져 열매를 맺게 되는 옥토로 변한다.

이 유다 광야가 엔게디 광야이다. 사해와 인접한 이 광야 근처에 엔게디 성읍이 서있다. 에네글라임은 요르단 저 쪽 모압 땅,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거주했던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위 두 장소는 가나안 땅 내에 거주하는 지파와 요르단 강 건너에 거주하는 지파를 연결지어 준다. 사해 바다를 치료해주는 물 안에는 고기가 득실거리고, 어부들이 엔게디에서 에글라임에 이르는 강 독에 늘어 서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 속에서 언급되는 고기란 생명있는 진리를 말하고 그 고기를 잡는다면 영적 삶을 위해 그 진리를 획득함이요, 어부란 진리를 추구하여 획득하는 합리적 자질을 뜻한다.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 까지란 가장 깊은 마음으로부터 자연적 마음이라는 가장 바깥 마음에 까지를 뜻한다. 이런 해석은 두 지명 자체가 지닌 뜻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엔게디란 아이의 샘,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샘이라는 뜻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지역 모두 외적 인간 안에 있는 순진의 선을 뜻하는데 아이는 내면에 있는 순진의 선을, 송아지는 보다 외면에 있는 순진의 선을 뜻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생명수가 흘러 드는 엔게디 광야는 아직 거둬나지 못한 자연적 수준의 마음, 그러면서도 유다로 표현된 영적 마음 속에 있는 가장 높은 애정과 관련 있는 듯 여겨지는 자연적 수준의 마음을 상징한다. 특히 본문에서는 유다 광야 라는 말 대신에 엔게디 광야라는 말로 언급해서 우리로 위와 같은 영적 의미를 숙고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엔게디 광야로 표현된 시험이란 자연적 마음의 내면에 상주하고 있는 순진을 공격하는 시험을 뜻한다. 사실 이 순진은 우리의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 주님의 섭리로 저장된 선이다. 성인이 되어 이타적인 사랑과 이타애가 발휘되어 거둬나는 과정에서 이 순진은 더욱 증가된다. 자아욕을 어린 아이 같이 잊은 채 초기 인간 삶에 구원을 위해 섭리적으로 주님의 보물로서 저장된 순진이 더욱 배가되면서 드높여진다. 그러나 어떤 심정 상태도 시련없이 개선되거나 확증될 수 없다. 순수한 은은 호된 시련이라는 제련 과정의 불도 없이 불순물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시련이 다윗의 역사 속에서 그가 참아 내고 극복해야 할 사건들로 표현되고 있다.

사울과 다윗을 매우 밀접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해준 부하들의 간청, 즉 그의 자아 사랑과 자기 유리함이 주는 충동적 느낌 등등이 사울을 죽이도록 유혹했다. 특히 이 동굴은 시련의 상태에서 흔히 야기되는 마음의 희미한 상태를 적절히 상징해두고 있다. 동굴 속의 분위기는

어둑어둑한 상태이다. 즉 일시적 고뇌이든 영적 고뇌이든 이런 것들이 마음을 싸잡을 때 조차에서도 자비와 진리의 법칙에 충직해야 한다는 원칙이 영혼 속에 남아 호소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상태인지 모른다.

비록 사울이 개인적으로는 못됐어도 아직은 주님의 기름부은 자임은 틀림 없다. 그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 진리는 다윗이 표현한 신성한 진리에 의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수단으로 체로 쳐내 꺾질이 날려지겠지만 밑알은 보존된다.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선한 원리가 파괴되는 것은 구원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아니다. 선한 원리가 악한 원리에서 분리되어 보존되는 게 그분의 섭리이다.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 대결하게 되는 원인은 외적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결국 내적 인간의 승리로 이어지는 게 신성한 섭리의 목적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천국적 정부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자연적 마음은 지상 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즉각 넘어 들리워질 수 없다. 아마 들리워질 여건을 만드는 것조차도 어렵다. 어쨌든 자연적 인간이 영적 인간의 통치에 계속 반역하여 그 밑에 소속되기를 원치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복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일 영적 인간이 자연적 인간 전체를 종속되게 할 수 없다 해도 최소한 자연적 인간의 옷자락을 그의 수중에 잡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을 만졌어도 그녀의 병은 말끔히 나았다. 이 기적은 말씀을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붙드는 자는 누구이던지, 설사 그 진리의 최 하위 수준 만을 붙잡고 있다 해도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지혜로부터 흘러 나오는 미덕을 획득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선함의 사랑과 진리의 믿음을 내적 인간이 확증해 가는 것 외에도 영적 시련의 한 가지 큰 작업은 외적 인간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 즉 내적 인간이 왕이 되는 것, 내적 인간의 수중에서 왕국이 건립되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확실히 보게 해서 인정하게 해준다. 비록 단 기간이라 해도 이런 결과가 사울, 또는 사울로 표현되는 자연적 인간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하여튼 권력의 승계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영적 마음이 자연적 마음을 통치함에 있어서 평화로운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사울의 역사는 말하고 있다. 우리의 주님 역시 그분의 지상 생애 마지막 까지 싸워가셨다. 결핍된 그분의 상태는 본문의 다윗의 상태와 매우 흡사하다. 이를 두고 말씀하신 게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 조차 없다.” 본문의 다윗이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듯이 주님께서도 그분의 박해자들에게 악을 선으로 되돌려 주셨다.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적들을 살라 버리시라고 간청했을 때의 모습은 본문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도록 간청한 것과 비슷한데 주님께서서는 그들은 자기들의 영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라고만 대답하셨을 뿐이다. 사울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보인 다윗이 주 예수의 신실된 모형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지 하는지에 관한 것도 자연스레 포함하고 있다.

한 가지 구분해 두어야 할 게 있다. 다윗의 적으로서의 사울과 다윗과 사울 모두에게 적이 된 이들,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왕국이 옮겨지는 것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체가 몰락되기를 바랐던 이들과의 구분이다. 이 적들 모두는 진정한 질서에 반대되는 것들이다. 마치 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적들과 다를 바 없고, 성전을 더럽힌 환전상들 같이 모두 척결되어야 할 참 질서의 적들이다. 자연적 마음 자체는 마치 왕들에게 포로가 되었던 롯의 신세 (창세기 14장) 같이 반드시 포로됨에서 구원되어 자유의 상태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자연적 마음 속의 생각과 애정이 영적 마음의 생각과 애정과 차이가 있어 과거 아브라함과 롯의 목부들이 풀밭을 놓고 다툰 때와 비슷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언제나 아브람 같아야 한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다.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 18

### 사무엘상 제25장

#### 야박한 나발이 아비가일의 슬기로 죽음을 모면하다

사무엘이 죽었다. 그는 그 당시 위대한 예언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라마에 모여 들어 슬퍼하면서 그의 고향에 안장하였다. 자연적인 죽음과 매장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영적 삶과 부활이다. 따라서 사무엘의 죽음은 사무엘 자신에게는 생명과 불멸을 암시하고 보좌와 제단에는 더 견고함을, 왕국에는 새롭고 더 높은 건설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다.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곳에 다윗이 나타나리라고는 상상해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는 사건 뒤에 즉각 다윗이 거론된다. 그는 바란 광야로 내려 갔다. 바란은 가나안 땅 밖에 있다. 바란 광야는 이스마엘의 고향이었고 (창세기 21:21), 에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쉬었던 곳이다. (민수기 10:2).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스파이를 보냈다 (민수기 13:3). 이 광야의 의미는 모세와 하박국이 말한 의미로부터 알 수 있다. 모세가 말한다. “주님께서 시나이에서 오시고 시날로부터 일어 나시어 바란 산에서 비추신다. 그분은 일만 성도와 함께 오셨고 그분의 오른 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 같은 법을 공포하셨다.” (신명기 33:2). 그리고 하박국이 말한다. “하느님께서 데만에서 오셨다. 거룩한 이가 바란 산에서 오셨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땅은 그분의 찬양으로 가득 찼다 (3:3). 시날과 데만은 천적인 사랑과, 바란 산은 영적인 사랑과 관계된다. 시련의 때에 도피하는 곳으로 바란 광야를 생각할 경우 이 산은 영적 사랑과 관련된 시험을 의미하고 거주지로서의 바란 광야는 성에 관련된 영적 인간의 삶을 뜻한다. 영적 측면에서 바란 자체는 주님의 신성한 인성으로부터의 계발을 뜻한다. 주님의 한 모형되는 다윗을 생각해본다면 “그가 바란 광야로 내려 갔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를 위해 어떤 깊은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 이를 수단으로 그분의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신 것,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이 천국을 덮고 그분의 찬양이 이 땅에 가득한 것,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오른 손에서 그분의 사랑이라는 불 같은 법이 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모세나 하박국의 말씀들은 모두 주 예수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이 본문의 세부 사항과 연결을 이루고 있다.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기업은 가르멜에 있었다. 그는 양이 삼천 마리, 염소가 천 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그가 가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아비가일은 재색을 겸비한 여자였으나 그 남편은 갈렉 가문 출신으로서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었다. 거룩한 성경 기자는 위 줄거리와 다윗을 관련시키고 있다. 다윗은 나발이 가르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거느리고 있던 젊은이 열 사람을 보내면서 일렀다. “...이 다윗을 택의 아들처럼 여겨 소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 주십시오.” 이 요구사항은 다윗과 그의 부하가 광야에서 그의 목자들을 보호하였고 그의 재산을 지켜준데 대한 대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발은 이런 정중한 부탁을 모욕적으로 거절했다. 이 응답을 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 사백 명은 나발과 그의 재산을 다 없애 버릴 작정으로 노기에 차 올라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비가일은

다윗 일행을 위한 물품을 가득 지니고 모욕받아 격앙된 다윗 부대를 만나러 갔다. 그 결과 다윗의 노기는 수그러 들었고 아비가일도 평화로이 집에 되돌아 갔다. 집에 돌아온 아비가일은 나발이 마치 왕의 잔치나 되듯 흥겹게 잔치를 벌인 것을 본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신중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침에 다윗을 만난 일을 말했다. 그 순간 나발의 심장은 돌 같이 굳어졌고 열흘 뒤 죽고 말았다.

이상은 긴 대화체에 대한 일부 줄거리에 불과하다. 이 줄거리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직접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의 저서 “천국의 신비”에서 일부는 찾아볼 수 있다. 메시아가 다윗으로 표현되고 유대 백성은 나발로, 고대교회와 매우 흡사한 표징적 교회가 아비가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교회가 다윗으로 이해된 메시아와 결혼해서 나발로 의미된 이들을 구원하고 있다. 한 가지 더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은 하늘의 교회 처방이 바뀌어 가고 있어도 주님의 교회 (The Church)는 언제나 똑같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주님의 교회 자체는 불변의 두 원리, 하느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교회는 위 두 사랑이 어떤 진리와 하나되느냐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존재해온 주님의 교회들은 마치 남편들에 계속적으로 결혼한 여인 같다. 물론 여인 쪽의 특성은 남편과 하나되어도 본질적으로 남아 있으나 남편 쪽의 지혜에 따라 여인 쪽의 사랑은 수식되어 진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함이라는 원리는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이 원리의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교회라는 처방에서의 이해와 고대 교회라는 처방에서의 이해가 달랐고 이스라엘 교회와 기독교의 경우도 달랐다. 어쨌든 이스라엘 교회도 신성한 질서에 따라 존재했는데 비록 그 수준은 낮을지언정 고대 교회의 형체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것은 아니다. 만일 이 교회의 설립이 신성한 질서에 따르지 않았다면 표징적 교회가 되어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어느 어떤 교회도 표현할 수 없었으리라. 어쨌든 계속 있어온 이 처방들은 타락되어 가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유대 백성은 나발 처럼 되어 있었다. 이 백성들은 본문의 다윗 같이 목자의 목자요 양떼를 지킨 자라는 그분의 주장에 욱설만 퍼부었다.

나발은 양이 삼천 마리, 염소가 천 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유대 백성은 아내 등급에서 표징적 교인이 되도록 처방되어 있어서 그들은 주변 국가에 비교해볼 때 영적 사항에서 큰 부자였다. 이 백성들은 나발의 양과 염소로 의미되는 것, 즉 이타애와 믿음에 관한 원리를 풍부히 지녔지만 그들은 그 원리를 영의 측면 보다 글자 측면에서 풍부히 지녔을 뿐이다.

이 백성의 소유물을 중시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백성의 특성은 나발의 재산 내역에 이어지는 묘사, 그가 가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다는 묘사에서 암시를 주고 있다. 양털을 깎는 모습이 지닌 의미에는 좋은 측면과 그 반대되는 의미도 있다. 그 이유가 양떼보다 양털에 더 관심을 지닌 목자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악한 목자도 있다. “그들은 젖이나 짜먹고 양털을 깎아 옷을 해입으며 살진 놈을 잡아 먹으면서 양은 돌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에제키엘 34:3). 이 구절은 통상 목자나 목사 직분을 지닌 이들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종교를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닌 명예와 욕망 충족을 위해 악용하는 모든 이들을 하는 말이다.

나발은 가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가르멜은 이 산의 풍부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칭송되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등장하는 가르멜과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르멜은 그곳의 포도원 때문에 영적 수준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 풀밭이 널리 깔린 이 산의 어떤 장소를 두고 언급되는 바 아마 위의 의미와 비슷하나 그 수준은 하급일 것으로 여겨진다. 나발이 이 산에서 양털을 깎았다 해도 그가 이 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는 가르멜 사람(30:3, 사무엘하 2:2)이라고도 불리지만 본문에서 그는 가르멜에 자기 재산을 두고 있는 마온의 사람으로 서술되어 있다. 나발이 가르멜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아비가일이 가르멜 출신 여자였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7:5). 표징적 교회와 인접된 유대 백성은 흡사 마온 사람 나발이 가르멜 출신 여자 아비가일과 결혼한 것과 같다. 유대 백성이 소유한 이타애의 애정과 믿음의 직관이라는 속성은 마온 광야보다는 가르멜 산으로부터 근원되고 있다. 마치 나발의 출신에 관한 언급이 아비가일로부터 근원된 것과 같다. 이와같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교회(the Church)의 원리들을 소유한 자들이라기보다는 관리자 내지 보관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감추어 놓인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놓여지고 베일이 벗겨지는 때인 주님의 강림 때까지 그 원리를 껍질 측면, 즉 표징적 차원에서 보존해 왔다.

아비가일은 재색을 겸비한 여자였으나 나발은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었다. 주님의 교회가 선한 이해성과 아름다운 용모를 동시에 지닌 아비가일로 묘사되는데 이는 태고 교회와 매우 흡사하다. 이해성(good understanding)이란 교회의 원형되는 것으로 이해성이 구성된 상태이고 아름다운 용모란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 즉 선함이요 가장 깊은 내면에서는 거룩함이다. 남편의 인색함과 무례함은 유대 백성의 기질과 품성을 묘사하고 있고 이런 본성에 아비가일로 표현된 주님의 교회가 그의 아내로서 결합되어 있다.

다윗은 부하를 나발에게 보내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아들로 여겨 그들에게 손에 무엇이 닿든 집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그의 종들을 포도원을 맡긴 농부에게 보내 소출의 얼마를 받아 오도록 명령하는 비유와 비슷하다. 그러나 유대 백성은 마치 나발이 다윗의 젊은 부하를 대했듯 주님의 종들을 취급했다. 나발이 다윗을 인정하기는커녕 되려 모욕했듯이 이 백성도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계속 따라다니며 그분을 호되게 매도했다. 마치 포도원의 소작인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 까지 상속자인바 아예 죽여 없애 포도원을 차지하려 들었던 것과 비슷하다.

다윗은 무장한 부하와 함께 올라가 나발과 그의 식솔들을 죽이려 했다. 이 모습도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청종자들에게 물었던 질문,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고 제 때에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손에서 받아 가야 하는 처벌인 것이다. 정말로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넘겨졌다. 누가 유대인들을 죽인게 아니다. 나발의 목숨이 제 스스로 끊어지듯, 후에 가롯 유다가 자결했듯, 제 스스로 파괴되어졌다.

나발의 인색한 행동의 결과로 빚어진 위기 속에서 그의 젊은 일꾼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고한다. 다윗이 광야에서 특사를 주인에게 보냈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욕을 퍼부었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들과 있을 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지켜 주었다는 것, 이런 점을 헤아려 처신해야 온 집안이 화를 입지 않을 것 같다고 아뢰고 있다. 이 대화 역시 유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 교회는 메시아에 의해 보존되어 불명예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적들로부터서도 구원되어 왔다는 것,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 어떤 것도 잃지 않았고 부족했던게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 그 이유가 그들이 주님이라고부르고 있는 이상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아내라는 측면에서의 이 교회가 화를 당한다고 목자에 의해 훈계되고 있다. 그러나 나발은 타락자의 후손이다.

아비가일은 그의 종이 일러준 경고를 듣고 “떡 이백 개, 술 두 부대, 요리한 양 다섯 마리, 붉은 밀 열 말, 건포도 백 몽치, 말린 무화과 과자 이백 개를 서둘러 마련하여 나귀에

실었다. 진지하게 성실함을 지닌 아버가일로 표현된 교회가 다음과 같이 의미되고 있다. 이 교회는 빵과 포도주로 의미된 영적 선과 진리, 양과 건포도로 의미된 영적 선과 진리, 무화과로 의미된 자연적 선, 나귀로 의미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과학물들을 성급히 마련하고 있다. 아버가일은 자기보다 앞서 시종들을 보내 다윗을 만나게 하고 있다. “그녀는 나귀를 타고 산굽이를 돌아 내려가다가 부하를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는 다윗과 마주치게 되었다....아버가일은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급히 내려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다.” 깊은 겸허와 자기 부정을 표현하는 위의 동양적 인사법은 주님 덕분에 교회가 살아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발의 아내이지만 그녀가 다윗에게 애원한 말로 미루어 보아 그녀가 얼마나 총명한지 짐작되게 하고 있다. “나으리,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녀의 변론은 인간적 어느 웅변보다 더 높은 뭔가가 있다. 그 이유가 지금 그녀가 하는 말은 주님의 영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말은 신성한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그녀는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는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한다. 더불어 자기 남편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라고 평가한다. 미련과 미친 짓이 같은 것임을 주지 시키고 있다. 이런 미친 짓을 한 미련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암시한다. 그리고 그녀는 은총을 베풀라고 간청한다. 아버가일은 다윗의 특사가 남편에게 뒷자맞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도 변론하고 있다. 이 표징적 교회는 태고적 교회 같이 순수했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그래서 아버가일이라는 교회는 표징적 교회의 외형물을 구성한 곡식 예물, 번제물, 제수, 속죄 제물, 친교 예물 등등의 영적인 것들을 선물로 가져오고 있다. 아버가일이 다윗에게 바치는 선물은 교회가 메시아에게 바치는 영적 사항이다.

아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의 하녀가 위반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탄탄하게 만드시고 그는 주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 어떤 재난도 한평생에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진실로 메시아에 관한 것, 그분 만이 해당되는 그림이다. 그분 만이 죄를 제거하심으로 용서하실 수 있다. 그 이유가 그분 만이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도 그분은 인간 심정에 있는 악들과 대적하시고 뽑아 내시어 그분의 교회를 심정 안에 확실히 세우신다. 삶 속에서 악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은 주님 뿐이다. 그분 만이 죄 없는 삶을 사셨다.

그녀가 말한다. “설사 나으리를 쫓아 다니며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다윗이 싸운 주님의 적들과 사울과는 여기서 구별된다. 그 이유가 사울이 다윗과 싸웠지 다윗이

사울과 싸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의 전투를 수행했다 해도 다윗의 경우는 내적 투쟁을 견뎌내야 했다. 이에 관한 것은 여러번 살핀 바 있는데 앞으로도 더 살핀다. 즉 성경의 글자와 영이 대립된 듯 보이지만 그것은 모순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글자에 놓인 가상적인 진리들을 통해 시험이 오고 이 시험은 영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이란 시험하는 악령 자체이고 이것은 사울이 소유했던 악령과 같은 것이다. 아비가일이 말을 잇는다. “그러나 나으리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으리 목숨을 보물처럼 감싸 주시고 그대신 원수의 목숨은 팔매돌처럼 팽개치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약속하신 온갖 복된 일을 이루시어 나으리를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우실 터인데 이런 실수를 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야훼께서 나으리의 운을 터주시는 날 이 계집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줄거리는 사후의 삶과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스웨덴복음말하고 있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주 하느님과 함께 있는 생명 꾸러미 안에 꾸러지나 그분의 적인 사악한 자의 영혼은 팔매질하듯 내팽겨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에 관해 말하셨던 좋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다. 나발의 집안에 대한 아비가일의 청원은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한 청원과 비슷하다. 즉 순진한 사람들이 죄인들과 함께 멀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비가일의 부탁 중 마지막 짚의 것, “주님께서 나으리를 드높혀 주실 때 이 계집종을 기억해 주십시오”를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는 백성의 죄 때문에 그 백성과 하나되어 있는 교회 까지 파멸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도, 파멸이라는 하늘의 처방이 있다 해도 주님의 교회는 남아 있어야 한다는 기도이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청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다윗은 자기를 만나도록 그녀를 보내신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했다. 또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릴뻔 했던 실수를 그녀의 충고로 막아주신데 대해 더욱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선물을 기쁘게 받고 평안히 돌아 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청원이 다윗의 마음을 바뀌게 했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 줄거리의 다윗과 아비가일을 주님과 그분의 교회 관계로 이해해 보면 이 주제는 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성서 글자대로 고집해 보면 주님께서 백성의 죄 때문에 그에 대한 양값을 하시기로 결정했으나 참회하고 간절히 애원해옴으로 해서 분노를 거두시고 자비와 온화하심 쪽으로 마음을 돌리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하느님에게는 성내심도 없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서 순간이라도 돌아서게 하는 어떤 그림자 조차도 없으시다. 또한

하느님의 분노가 죄인에게 나타남은 일종의 참담한 실체를 표현한다. 이는 거룩함과 죄있음, 하느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 사이에는 양립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표현한다. 한편 주님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여겨지는 경우, 그래서 양갓음 대신에 자비가 들어 앉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용기를 주는 진리, 즉 참회는 적개심을 제거하는데 결코 실패 않는다는 것, 언제나 재회의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윗은 아침까지 나발의 집 안에 살아 남은 사내가 없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아침이란 심판의 때이다. “다윗 왕실에게 나 야훼가 말한다. 바른 판결을 내려라. 억울하게 착취 당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 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괴씸한 소행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불태우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21:2). 다윗의 양갓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있었어야 했다. 그래야 다음 날 새벽에 나발의 집안이 폐허로 발견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 맞추어 보면 이 장의 주제는 유대주의의 끝장과 기독 처방 사이의 중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재자가 세례자 요한의 등장이고 그의 설교와 세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유대인 어느 누구도 주님의 면전에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다윗의 말과 같이 아침이면 처절한 황폐함 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나발 집안을 썩밭으로 만들려 했던 다윗의 분노가 가시운 반면 나발은 제 스스로 그것을 자행했다. 아버가일이 집에 와보니 나발은 잔치를 벌여 놓고 흥에 겨워 취할대로 취해 있었다. 영적으로 보건대 이런 잔치, 왕이나 차릴만한 이런 잔치는 선함과 진리를 모독함이다. 따라서 시대의 종말을 묘사하고 있다. 심판하러 오시는 사람의 아들의 날은 마치 홍수가 덮칠 때가 되도록 먹고 마신 노아 시대 때와 같고, 불과 유향이 하늘에서 쏟아지기 까지 먹고 마셔덴 룯의 시대 같다. 양 시대 모두에서 아껴두셔야 하는 것들 만이 구원된 것도 같다. 아버가일이 나발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자 그의 심장은 굳어져 돌 같이 되었다. 열흘 지나 나발은 야훼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의지의 생명인 사랑이 꺼질 때 심정은 죽는다. 생명 있는 믿음, 사랑 있는 믿음이 종교에 남아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심정은 돌 같이 된다. 나발은 마치 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듯 돌이 되었다. 이는 진리의 생명이 소진된 것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의 전복 까지를 표징적으로 담고 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 아내가 되어 달라고 청하였다. 아버가일이 다섯 시종을 거느리고 다윗에게 오는 모습은 결혼하기 위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림이다. 그래서 이는 교회가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이다. 다섯

시종이런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를 섬기는 영적 애정과 품위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과 결합되어 있었던 교회가 유대주의의 처방의 끝장에서 주님의 신랑과 아내라는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 이유가 사람되어 오신 주님이 그분의 교회 속의 신랑이요 남편되어 완전한 의미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육을 입으심으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교회와 그분 자신을 하나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존재했다. 이 교회가 다윗이 아내로 맞은 이즈르엘의 아히노암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모두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시집보냈던 딸 미갈을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발티에게 주었다.” 이미 살핀바와 같이 사울의 딸 미갈은 자연적 애정을 표현한다. 이에 대한 예증은 앞으로 더 가질 기회가 있다.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시집보낸 것은 다윗을 울가미에 넣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미갈이 그런 것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자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넘긴 것이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자식을 부모의 재산 같이 여겼던 것 같이 보인다. 마치 삼손의 아내의 경우 같이 부모의 마음 내키는대로 상대방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보내졌다. 사울도 삼손의 아내의 부모가 변론한 것과 비슷한 정의를 내세운 듯 여겨진다. 미갈은 다윗이 도망쳐 피신하는 동안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지 못했다. 사울은 이것을 빌미로 미갈이 더 이상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고 정당화한 것 처럼 여겨진다. 보다 높은 관점에서 볼 때 미갈의 역사는 다윗의 배우자로서 보다는 사울의 딸이라는 측면에서의 교회를 더 표현한 듯 보인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신성한 요소에 속한 것 보다는 단지 인간적인 것, 신성한 진리 보다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성한 진리가 하나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것과 하나를 이루고 있다. 미갈은 이제 다윗을 떠나 발티와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발티는 다윗에게 미갈을 되돌려야 했는데 나중에 살핀다.

## 사무엘상 제26장

##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그의 창을 가지고 오다

본 장의 주제는 그 특성이 앞 장의 주제와 매우 비슷해서 이 장에서 추론될 주요한 교훈의 얼미쫘은 예상되리라. 도덕적 어조가 달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려고 한다. 그 이유는 그 사건에 신성이 덜 하거나 덜 교훈적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사건을 이끄는 모양새가 앞 장과 동일하기에 생략할 뿐이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시키는 성서 역사의 부분들이 인간 본성의 밝은 측면, 즉 우리로 할 수 있게 격려하는 것 보다 덜 교훈적이라고 생각해선 안되리라. 아마 인간 본성의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두운 쪽이 부각되어야 더 실감할는지 모른다. 어쨌든 성경의 역사적 줄거리를 읽어 가되 우리의 영적 진보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곳, 더 밝고 새로움을 주는 줄거리에서 머뭇거리는데 더 유쾌하고 유익할는지 모른다.

성경을 단순한 글자로만 읽게 될 때 많은 부분에서 인간 본성의 타락되고 추잡한 것들과 마주치게 되면 고통스런 암시만 던져주지만 이런 부분들은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를 더 확신되게 해준다. 인간의 심정은 그 어떤 것 보다 쉽게 현혹되고 거의 절망적으로 사악해지기 까지 하지만 그런 틈바구니에도 인간 본성의 고귀한 면모의 회복 가능성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거듭남, 새창조,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연적 수준의 인간들도 전쟁 중이든, 승리했을 때이든, 평화 시기이든, 창피를 느낄 때이든 인간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시해주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모습은 신성이 인간의 근원이 됨을 밝히 알려준다. 설사 당사자가 자기 심정에 하느님이 있으심을 인정 않는 때일지라도 마음이든 인간 사이이든 거기에 하느님의 계심이 있다는 말이다. 자연적 수준에서 선한 것들, 설사 사악한 자에게 남은 선한 것들 까지도 영적 수준이나 의로운 자에게 있는 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원을 가지고 있다. 선한 분은 한 분 하느님 밖에 없다. 창조물 속의 좋은 것은 창조자로부터 인바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은 창조자의 것이다. 장미의 향그러움과 수줍듯 피어나는 장미꽃은 자연계의 태양에 절대 의존되어 있다. 인간의 갖가지 느낌과

생각은 천국의 태양에 의존하고 있는데 장미보다 의존도가 더 강할 것이다. 어쨌든 이것들 모두는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비추시는 그분의 태양에 그 시작을 연유하고 있다. 시작은 같을지라도 영적 인간과 자연적 인간은 폭넓은 차이가 있다. 한가지 차이점만을 살펴 보자. 영적 인간은 자신이 지닌 선한 것 모두는 그것을 주신 분께 자기 소유의 원인을 둔다. 그러므로 그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수여하신 그분과 받은 선물을 수단으로 연결을 이루고 있다. 자연적 인간은 자기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공적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함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과 상호 결합되는 연결 고리를 자른다. 자연적 인간은 자기가 지닌 게 매우 특출하다 해도 그는 자연적 수준에만 남아 있다. 그 이유가 그는 자연을 넘어 있는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의 덕행은 제 잘남으로 가득 차 있어 그의 내향적 인간은 자연적 부패들로 색칠되어 있다. 영적 인간의 덕행은 영적이다. 그 이유가 주님의 영이 그 행동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덕행은 영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어 영원한 존재로 남게 된다.

위와 같이 인간 행동 안에 있는 아름답고 선한 것의 진부를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면 이에 관한 좋은 예를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지닌 선한 것의 근원이 되는 참 존재에 그것을 되돌려야 할 것이다.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은 우리들의 세계에 드리운 그분 날개의 그림자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거룩하지 못한 열정의 불이 우리 마음에 뿌린 창백한 빛을 경감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듯 너희도 완전해져야 한다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듯 인간 품성의 모든 것은 신성의 어떤 것을 반사하는 바 우리는 완전한 분이 거하실 곳, 그분의 모양을 닮도록 자신을 가꿔가야 한다.

본 장의 사건은 24장의 사건과 세부 사항에서 다른 게 있다. 다윗은 바란 광야를 떠난 뒤 지브 광야에 처소를 두었다. 그러나 다윗의 피를 원하는 사울은 다시 정병 삼천을 거느리고 그를 찾아 나섰다. 지브 광야는 유다 지파의 영역에 있다. 하길라 지역은 과거 사울과 다윗이 마주 섰던 엔게디로부터 그리 먼 곳은 아니다. 사막은 시험의 상태를 그리고 있다. 특히 하길라는 어두움, 음침함이라는 뜻이다. 다른 세부사항도 암시하듯 여기서의 시험 상태는 의지 측면보다는 이해성 측면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해성과 의지라는 두 여건이 표현되는 말씀의 여타 부분에서도 서로 비슷하다 이것이 의지와 관련되면, 저것은 이해성에 관련되는데 마치 사랑과 믿음이라는 두 원리가 마음의 자질인 의지와 이해성에 거처를 두는 것과 같다. 이것들은 거듭남으로 따로따로 완전해진다. 다윗을 추격해온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친 곳은 하월라의 어두운 언덕이었다. 이곳에서 관대하고 참을성 많은 다윗의 모습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부각되고 있다. 광야에 거하던 다윗은 사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진을 친 곳에 접근했다. 사실 신성의 어떤 소리를 들었다거나 신성의 어떤 자극도 없이 삼 천 명의 군사로 에워싼 사울의 중앙 진영에까지 다윗이 감히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말로 사울의 진영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정상적인 군대 진지가 아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상태, “야훼께서 그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초자연적인 작용이 다윗에게도 있어서서 그로 하여금 감히 사울의 진영에 진입하게 했다. 그리하여 자기를 지겹게 추격하는 사울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고 추격자로 하여금 감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평화로운 승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고상한 사건으로 매듭짓게 된 것 역시 신성한 영향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모습, 조건, 상황은 기독교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위급한 때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분은 안전을 설비해 주신다. 다윗 스스로 기독교인의 언어로 그가 당한 환난의 때에 대해 말한다. “비록 많은 무리가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내 마음은 두려울 게 없다. 비록 나를 죽이고자 일어선다 해도 내 믿음은 굳건하리라.” 우리의 순진을 끝까지 추격하는 사울과 그의 부하같은 적들이 우리 가슴에서는 어떻게 발견되고 있을까? 우리 심정에서의 전쟁은 육이 영에, 세상이 천국에, 자아가 하느님께,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에 반대하는 것이다. 자연적 마음이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영적 마음은 자연적 마음에 내려와 복된 일을 수행한다. 이 일이 사울의 진영에서 일어나는 다윗의 일로 표현되어 있다. 잠들어 있다는 모습으로 표현된 마음의 특별한 상황은 자연적 마음의 욕구나 열정이 무활동의 상태에 놓일 때이다. 병고나 불행이 인간 위에 덮쳐 괴로움에 시달릴 때, 그러면서도 아직 그가 자연적 상태에 머무르고 있을 때 자연적 마음은 압박되어져 자아충족의 욕구나 세상적 추구에의 열정이 온순해진다. 이럴 때 영혼을 위해 과거 자기가 집요하게 요구해왔고 충족된 세상적인 것의 얼마를 포기하거나 영혼의 잘됨을 위해 맞바꾸고 싶은 바람이 일어난다.

돈, 명예, 학식같은 자연적 매체로 맞바꿀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잠이 자연적 마음을 덮칠 수도 있다. 죽음과 심판의 공포는 종교적 조건을 지닌 마음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 종교적 조건이란 천국의 사랑이 아닌 지옥의 공포이다. 그래서 그의 양심은 변명을 들이대기 보다는 차라리 그를 질책한다. 이런 사람에게 성경이 심판을 말하면 전율을 느낀다. 이

때 그들 속의 반역적 움직임은 한 동안 꿈쩍못한다. 자연적 욕구나 열정이 더 심오하게 깊은 잠에 빠지면 처벌의 두려움보다 더 깊은 수준, 즉 죄지은 자라는 느낌과 확신이 그의 마음을 내려누른다. 어떤 원인에 의해 생산된 열망의 잠들은 주님으로부터이다. 그 이유가 인간을 이런 상태로 가져오는 게 그분의 섭리요 그분의 영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이런 상태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 마치 본문의 사울같이 이전 상태로 환원될는지 모른다. 설사 통회함이 일시적이라 해도 무용지물이지만은 않다. 게다가 거듭나고 있는 사람에게 조차에서도 이런저런 수준의 상태가 교차된다. 거듭나는 것은 죄짓고 회개하는 식의 삶은 아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자들도 혼란과 고요의 때들, 잠들고 깨어있는 때, 기쁨과 슬픔의 때는 가지고 있다. 영적 마음을 가진 이들은 참으로 자신들에 특유한 상태나 체험들, 상반되는 두 삶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 여겨지는 때들을 가진다. 다시 말해 외향으로는 환난에 종속당하고 있는 반면 내향으로는 평화를 즐기고 있다. 바깥쪽 세계에서는 명암이 흐린 상태이지만 내향으로 밝은 빛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감각적 본성은 깊은 잠에 빠진 반면 영적 본성은 완전히 깨어 있다. 이를 광야에 머무르는 거듭나는 사람과 관련해보면 위 상태가 본문의 역사적 풍경으로 우리 마음에 그려져 있는 셈이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 진영의 한가운데 까지 깊이 침투해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갈취하고 있다.

자연적 인간의 반역적 욕망이 소진될 때, 또는 주님의 섭리적 조치나 영적 어떤 작용으로 주님으로부터의 깊은 잠이 자연적 인간을 덮을 때 영적 인간은 그 마음 아래로 내려가 자연적 생각과 애정의 가장 깊은 속까지 조사해서 영적 생명에 피해를 입히는 어떤 것의 능력을 박탈하거나 자연적 마음과 하모니를 가져올 방도를 검증한다. 이런 기회에서 우리는 개선되지 않을까? 바깥쪽 즐거움이 거두어질 때, 동물적 수준의 영들이 압박당해 있을 때, 어떤 영적 원인이 자연적 마음의 악질인 것을 깊이 잠들게 할 때, 우리는 어두운 침묵 속에서 어떤 두려움 없이 자기 검증을 성실히 하는 기회를 잡지 않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자기 반성이라는 우리의 의무가 성실하고 편견 없이 수행된다면 우리 영혼이 위를 향해 일보 전진하는 결과를 맞이한다. 사울의 분노,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다윗의 용감성과 슬기와 자비로 인해 거두어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자신의 삶이 보존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앞 사건의 경우 같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원수를 갚을 기회라고 부하가 권면했지만 그는 사울을 기름부워진 자로서의 존경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서도 앞의 사건 같이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을 능력이 있음을 과시할 필요는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떠받쳐 주는 창과 물병을 집어 왔다. 이 두 가지는 사울의 목숨을 전쟁에서 받혀주는데 대단히 긴요한 도구이다. 사울이 깨었을 때 다윗은 가져온 이 두 가지 물품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비를 베푸는 증거로 보여 주었다.

위의 줄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자기 검증(self-examination)이 성실하게 있어진다면 자연적 인간의 모든 능력이 영적 능력으로 바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더불어 자연적 인간의 생명과 모든 수단들은 영적 인간에 소속된 것임을 자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울의 도포자락을 자를 때의 경우같이 본문의 다윗의 행동은 왕권의 미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게하는 예언적 행동이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와 상응되는 행동들은 상존한다. 영적 마음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계속되는 행동들로 해서 자연적 마음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해간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왕국의 전체가 소유될 때까지는 지배권을 확실히 확보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영적 마음의 모든 행동들은 영적 마음의 능력을 자연적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고 인정하기 까지 만들어 어느 정도는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종의 길을 준비하여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한다. 창과 물병은 방어와 지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진리를 상징한다. 현재 자연적 인간을 지지하고 방어해주는 수단이 되어 있지만, 영적 인간에게도 방어와 지탱의 수단이 되어준다. 따라서 창과 물병의 진정한 소유는 영적 인간이다. 다시 말해 자연적 마음이 지닌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은 영적 마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소속에 대한 인정 내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늘 싸우는 두 인간 본성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되기 까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이 진실로 하나되어야 가능하다.

위와 같은 이상적인 결과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환난을 예상해야만 한다. 우리는 고난이 무엇이든 시련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되 존경과 인내심, 성실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해야만 한다. 한가지 상상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시련들이 엄청난 재난인듯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날들이 날마다 그런 시련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마다 우리의 특질, 인내심, 이타애, 관용, 견딤 등등의 특질에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준다. 그리하여 우리의 원리들은 그 시련으로 테스트받아 그 본성이 명백히 드러나고 많은 경우는 아니라해도 때로 중요한 듯 여겨지는 문제도 발굴된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도 될 작은 사항들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 작은 일을 성실히 처리하는 자가 큰 일도 성실히 처리한다는 말씀을 상념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루라는 삶속에

놓인 자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은 인생 전체에 놓인 의무도 성실히 수행할 확률이 높다. 미미한 것이라 생각되는 자기 생각과 행동에 관심을 놓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자신의 생각과 행동도 같은 비중으로 처리할 것이다. 어쨌든 시련과 시험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작든 크든 얼마나 성실하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다. 그 결과는 평화이리라.

## 20

### 사무엘상 제27장

####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하다

앞 장의 사건을 생각해보면 이젠 다윗의 시름이 끝난 듯 여기게 한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되돌아 갔기 때문이다. 그는 다윗을 아들이라고 불러 마치 제 상속자로 우대한 듯 보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본 장은 다윗의 비탄, “나는 언제고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는 옛시름으로 시작하고 있다. 사울이라는 왕은 자기가 지닌 좋은 감정을 험사리 않고 자기가 엄숙히 약속한 것도 얼마나 빨리 취소해 버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의 옛 적개심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어쨌든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은 앞 장과 본 장에 기록된 사건이 분리되게 한다. 시간의 경과가 길었던 짧았던 사울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언제나 인상적이다. 사울이 다윗을 통해 느껴야만 했던 책임감은 제아무리 세월이 지난다해도 지워질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바, 사울이 받은 감명은 매우 강했지만 피상적이었고, 그가 받은 느낌은 강렬했지만 금새 수그러 들었다. 강한 분위기로 휩싸여 있어진 그의 결심은 새벽 이슬 같고 돌밭에 떨어진 씨와도 같아 흙이 많지 않은고로 싹은 나왔지만 태양이 강하게 비치면 뿌리가 깊지 않아 시들어버리고마는 것과 같다. 정직한 심정이라는 옥토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확신이나 정감은 자아 사랑이라는 태양이 솟아오르면 계속 생존하기가 매우 힘들다. 자연적 수준의 느낌이라는 천박한 토양은 진리의 씨와 덕행이 빠르게 성장하게 해줄 수 있을는지 모르나 매우 빠르게 죽어지고 만다. 사울은 돌밭에 떨어진 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간 모형이다.

악령이 사울을 다시 덮치면 더 격양된 추격을 받아 애꿎은 희생자가 될 자기임이 내다보이는 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다. “불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 안에서만 찾다가 결국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다윗은 불레셋의 영토로 피신해서 갓나라 왕 아기스와 대면했던 때도 있었다. 그때 다윗은 이쪽에서의 위협을 피하려고 저쪽으로 도망했지만 거기서도 위협은 여전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친절할 대우를 받고 시글락 성읍까지 그에게 맡겼다. 그런 연유로 이 성읍은 이 날까지 유다 왕실에 속하게 되었다. 처음에 다윗이 불레셋으로 피신하였을 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아둘람의 굴에 숨어있을 때 모여든 군인들로 구성된 육 백 명의 군인까지 합세해 피신하고 있다.

불레셋지역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난 첫 장소이자 마지막 장소이었다. 불레셋은 에집트처럼 신앙자의 여정 중 어떤 한 단계, 즉 바둑판 무늬같은 거듭나는 삶의 체험을 통해 진보해 갈 때 있어지는 어떤 단계이다. 어쨌든 이 단계는 수준 낮은 단계는 아니다. 에집트로 의미된 단계보다 더 진전된 단계, 즉 자연적이 아닌 천적이고 영적인 단계에 속한다. 아브라함과 이사야도 불레셋에 체류했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불레셋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새 삶에서 자연적이 아닌 영적 단계는 불레셋에 소속된 것으로 표현되는 체험들이다. 이 단계의 시련은 과학 수준이 아닌 믿음 수준에 관한 것, 지식에 관한 게 아닌 신념에 관한 것, 글자가 아닌 영에 관한 것이다. 다윗의 체류지가 이런 단계인 것은 그가 영적 인간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불레셋은 다윗에게 시련의 장소일 뿐아니라 은둔지이기도 했다. 다윗의 두 번째 체류지와 관련된 사항 중 얼마를 이제 살피게 된다.

다윗이 갓으로 망명하면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망명의 가장 중요한 효과이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은 이제 끝장났다. 그렇다고 사울의 포기는 다윗을 추격하고 싶은 욕망이 죽어져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권 체도를 희망한 목적의 하나는 불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울은 불레셋의 골리앗을 죽여 불레셋의 압제에서 백성을 해방시킨 불레셋의 정복자를 자기 왕권의 적수로 삼아 군대를 백성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사용해왔다. 게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친구를 가장 강한 적의 수중에 넘긴 셈이 되었다. 불레셋을 정복해야 할 사람이 되려 정복되어 있는 꼴이다. 불레셋은 자기들 땅에 다윗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다윗을 구하고 사울의 추격도 저지해주었다. 지금 불레셋은 사울의 어떤 추격에서도 다윗을 보호해주게 되었다. 이런

조치로 불레셋은 자기들을 압도할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지켜주고 그의 세력이 더 강해지게 해준 셈이 되었다. 이것은 은혜로운 목적을 향해 섭리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자연적 인간의 힘, 자연적-합리적 인간의 능력도 영적 인간의 힘으로 결코 정복될 수 없다. 서로 다투는 두 열정은 서로를 자제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자제되는 결과에는 진정한 개혁은 없다. 따라서 그것들 모두를 억제하고 진압해서 자기 스스로 복종하여 하위 서열에 서게 만드는 더 높은 힘이 있어야만 한다. 이 힘이 얼마나 높은 지가 수많은 신성한 수단들, 각양각색의 허용과 설비해두심으로 결과되어 진다. 주님께서는 어떤 인간이 깨뜨려지지 않을 경우 구부리신다. 또는 사랑으로 인도될 수 없다면 두려움으로 인간을 억제시킨다. 때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의 이기적 사랑을 도구로 삼으시기도 한다. 우리가 처음 갖게 되는 종교적 자극 안에는 천국의 사랑 보다는 지옥의 두려움이 더 많다. 그래서 두려움안에 사랑이 존재한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파멸로 가게 하는 넓은 길을 피하고 대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도록 재촉할 수 없다. 초기 믿음 속에는 자기 과신이 있다. 마치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베드로와 같다. 사실 초기의 믿음이 자기 확신 안에 있지 않으면 베드로 같이 순교도 불사하겠다고 마음먹어 보는 순간 조차 가져볼 수 없다. 처음 지니는 정의 속에는 그 공적의 주인이 자기라는 느낌이 있다. 그럼에도 이런 공적 없이 정의가 그 사람 속에 심어질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의 초기 종교 안에는 자아라는 재료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이기심이 가득한 재료에 호소하신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이들을 향해 장차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는 옥좌에 앉게 하리라고 약속하신다. 주님은 수준 높은 동기가 더 발달될 때까지는 수준 낮은 동기라 해도 그것을 수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저 자신을 낮추시어 다가 오신다. 그 이유가 언젠가 우리가 진지한 종교를 지니게 되면 수준 높은 동기는 수준 낮은 동기 안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나비가 풀썩기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수준 낮은 것이 죽을 때 수준 높은 것은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의 초보적 두려움 안에 사랑이 있고, 자만심 안에 신뢰가 있고, 자기 공적 자랑 안에 무욕이 있다. 시련과 환난을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인내와 버텨므로 하늘나라가 점차 우리 안에 건설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느님과 하늘 아버지에게 왕과 사제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이해성을 통치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정을 통치하는 수준에 이른다.

블레셋에 있는 다윗은 이미 기름부워진 왕이 되어 장차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를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되고 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지상에서 고통받으심으로 완전해지신 그분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다. 그분은 기름부는 자요 거룩한 하느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승천하시어 옥좌에 오르시어 천상천하의 통치자가 되시기 까지 고통받는 삶을 통과해 가셨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 나가서 자기가 거주할 지역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왕이 사는 지역 외 다른 곳을 원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다. 그러므로해서 오늘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실에 소속되었다. 시글락이라는 성읍의 역사에는 흥미있는 줄거리가 있다. 이 성읍은 원래 유다지파의 몫으로 할당되었었다 (여호수아 15:31). 그러나 유다 지파의 몫이 너무 많았으므로 시므온 지파의 몫은 유다 지파의 몫에서 떼어 주었다 (19: 1-9). 그래서 시글락은 유다 지파로부터 시므온에게 넘겨진 것이다 (19:5). 그 결과 시므온 지파의 몫은 유다 지파 영역 안에 있어졌다. 이 두 지파는 서로에게 의지와 이해성이 되어 있다. 천적 수준의 인간의 이해성은 의지 안에 있고 의지로부터 파생되어진다. 마치 시므온 지파의 몫이 유다 지파 안에 있고 이 지파로부터 할당된 것과 같다. 영적 인간의 의지는 이해성 안에 형성되어진다. 천적 인간의 이해성은 의지 안에 있다. 영적 인간은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뜻한다. 그 반면 천적 인간은 자기가 뜻한 대로 이해한다. 천적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은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어 최고 높은 수준에서 한 마음을 형성한다.

시글락 성읍의 역사가 위와 같지만 본문 당시에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다. 마치 진짜가 가짜에 짓눌린 것과 같다. 그러나 이제 시글락은 다윗의 거주지가 되고 있다. 세월이 흘러 오랜 뒤에는 진짜 주인인 유다 왕과 그 지파에 남게된다.

시글락, “샘이 넘쳐 흐름”, 생명있는 진리와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 장소로부터 다윗은 자기 백성의 원수 중 일부를 향해 맹렬한 습격을 감행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술족과 기르스족과 아말렉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그들을 털곤 하였다.” 세 부족들의 의미 파악은 별로 어렵지 않다. 수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떠난 뒤 목이 말라 지쳤을 때 첫 시험이 있었던 곳이다 (출애굽기 15:22). 그리고 썬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습격한 부족이 아말렉족이다 (17:8). 아말렉은 내면의 악에 바탕을 둔 거짓을 표현한다. 본문의 경우 이 부족들은 다윗의 침입과 연계되어 있다. 이 침입에 관해 이렇게 서술되고 있다. “다윗이 남녀를 한 명도 갖으로 끌어오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자기가 한 일을 고해 바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윗은 블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줄곧 이렇게 해왔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어디를 털었느냐고 물었을 때 ‘유다 남부와 여라므엘족이 사는 지방 남부, 켈족이 사는 지방 남부를 털어 왔습니다’ 라고 둘러대었다. 그래서 아기스는 그런줄도 모르고 ‘다윗이 제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미움을 사고는 이제 아주 내 종이 되었구나’ 하며 다윗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이 본문에는 다윗의 두 가지 범죄 행위가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 남녀 가리지 않고 몰살한 것을 감추고 있고 왕에게도 거짓말로 대답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도덕적 표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럼에도 다윗은 영적 인간의 모형이고 특히 신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을 표현하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본문의 다윗의 행동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까? 만일 다윗이 자기 영토에서 살고 있으면서 원수들을 습격했다면 이는 칭찬받을만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백성의 적과 함께 살고 있다. 더구나 그는 자기 백성이 원수나 되는 듯 행동해야만 하는 처지이다. 그는 적의 영토 안에서 안식처를 찾아야 하는 만큼 매우 잔인해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자신이 지배하게 될 이 영토에 무관심하거나 불성실해서도 안된다. 이외에도 지금 그가 거주하는 지역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하느님께서 선언하시어 그들 후손에게 소속되기로 약속되었던 곳이다 (창세기 13:15, 26:3). 이 지역은 과거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곳이기도하다 (여호수아 13:3).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 남겨진 부족 중 하나가 블레셋이다 (판관기 3: 1-3). 그리하여 이스라엘족은 정복하지 못한 부족들과 섞여 살았다 (판관기 3:5).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 역시 블레셋 땅에서 외국인 취급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윗과 부하들과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을 서로 시집 장가 보내고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런 짓은 그들에게 재난을 불러다 주었다 (판관기 3:6-9). 그러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런 악행을 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섞여 사는 블레셋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오히려 그들은 블레셋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하늘이 내리시는 기회로 여겼다. 그들을 섬멸할 수밖에는 달리 처방을 내릴 수 없는 그들을 향해 신성한 심판을 대행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블레셋이 베푼 친절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을 블레셋이 눈치채서는 절대로 안되는 게 다윗의 처지였다.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의 친구가 아닌 적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믿게 해야만 했다. 다윗으로 표현된 신성한 진리의 가르침과 행동으로부터 그것과 상응되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블레셋으로 표현된 믿음의 본성을 살펴 보아야만 한다.

믿음만 (faith alone)을 원리로 채택하여 실제로 따라가게 되면 신성한 진리의 가르침과 그 작용에 관해 마음의 직감이 둔해져 설사 보는게 있다 해도 뒤집힌 모습만 보게 된다. 다시 말해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부른다 던가, 어둠을 빛 대신 빛을 어둠 대신 놓는다.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고 말한다” (이사야 5:20). 이런 원리에 의거하면 신성한 진리는 악과 싸우는게 아니라 선과 싸우게 된다. 이는 난감한 말 처럼 들릴는지 모른다. 그러나 위 원리는 이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이 원리가 합법적 결과를 수행해냈다면 그것은 바깥쪽 측면의 합법적 모양새이다. 위 원리는 아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든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일은 칭찬받을만 하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일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선한 일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믿게 된다. 그 결과 그들에게 악한 일은 정죄되지 않는다 라고 믿는 것도 과히 어려운 난제는 아니다. 오늘날 이런 식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공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줄로 안다. 그럼에도 믿음만으로 구원됨이라는 교리는 위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위와 같은 왜곡된 경향성을 늘 품고 있다. 그럼에도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꾸리고 있다. 이런 사람은 영적 불레셋이라는 교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영적 불레셋 사람이란 선이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악이 정죄되는 것도 아니다 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자기 교파가 공언한 내용을 받들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파고드는 신학 저술가의 지적 노력에서 위와 같은 경향성을 목격할 때가 있다. 이런 학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뒤적거리다가 믿음을 우선시하는 듯 보이는 구절이나 사건을 접하면 이를 추켜 올리므로 해서 이타애나 선한 일을 강조하는 성경의 구절은 별로 많지 않은 듯 여기게 사람들의 관심을 돌린다. 설사 이런 구절들이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면 강요나 당한 듯 비키려 한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 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는 바울의 서술 (로마서 3:28)을 기독교 교리의 전부나 되는 듯 추켜든다. 그 반면 “사람은 믿음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된다” 는 야고보의 서술 (2:24)은 유대교 식을 따른다고 비난해 버린다. 이 서간문의 구절은 지푸라기의 서간인 듯 나타난다고 루터가 이 특출한 편지를 평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위 두 주장,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두 저자의 주제와 목적을 이해할 경우 완전한 조화를 가진다. 하여튼 위와같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 야기스가 다윗을 신뢰한 것, 즉 다윗이 그술족과

기르스족과 아말렉족을 습격한게 아니라 유다 남부와 여라므엘족 남부와 켈족 남부를 습격했다고 말한 것을 신뢰한 것과 같다. 참으로 아기스는 다윗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었다. 다윗이 아기스를 속인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 또는 그분의 말씀이 인간을 속인 것일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말한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20:7). 주님께서 에제키엘에게 말하신다. “만일 예언자가 꾀에 빠져 그런 말을 한다면, 바로 내가 그 예언자를 유혹한 것이다” (14:9). 그리고 주님께서 아합을 꾀어 내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채용하셨다 (열왕기상 22:20-23). 이것들은 가상적인 진리들 (apparent truth)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간을 현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분의 말씀에 왜곡된 해석을 덧붙여 자신들을 현혹한다. “계시를 보는 이들에게 ‘계시를 보지말라’ 하고, 예언자들에게 ‘진실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며, ‘솔깃한 말이나, 터무니 없는 이야기만 하여라’” (이사야 30:10). 사기당할 기질이 종교적 사기의 모든 근본을 이루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요한 17:17).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었다. (로마 1:25).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한 것은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윗이 했던 것과 반대된다. 더구나 다윗이 말했던 장소나 백성들 역시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말렉은 내면의 악에 바탕을 둔 거짓이고 유다 남부란 내면의 선함에 바탕을 둔 진리이다. 기르스족은 추론으로 생겨난 거짓이고 여라므엘족이란 총명으로부터의 진리이다. 그술족은 과학으로부터의 거짓이고 켈족 남부란 자연적 선함 안에 근거를 둔 진리이다. 그러므로 위 세 가지는 천적, 영적, 자연적 진리와 그 반대되는 거짓과 관계된다. 모든 남,녀를 다 죽였다는 것은 글자대로의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면 매우 참혹하지만 이는 모든 민족을 향해 발표된 신성한 심판이 수행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늘 나라를 구성하는 신성한 진리와 선함의 우월성에 반대하는 모든 생각과 애정을 소멸한다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아기스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윗이 제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미움을 사고는 이제 아주 내 종이 되었구나’ 하며 다윗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다윗의 제 동족 이스라엘이란 주님의 신성한 진리를 제 스승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불레셋이란 주님의 진리를 제 종교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진리는 선함으로 인도해준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삶과 관련된다. 우리가 종교의 가르침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신하요 종이 된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가 다른 사람의 선함을 신뢰하는 대로 인도하고, 모든 종교는 믿음과 관계된다고

믿는다면 앞과 뒤라는 올바른 질서관계를 뒤엎게 되어 진리가 우리에게 신하가 되고 종이 되게 만든다. 그이유가 우리의 견해와 목적에 진리가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 21

### 사무엘상 제28장

#### 사울과 엔도르의 무당

사울이 엔도르의 무당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주는 호기심있는 흥미와 함께 대단히 엄한 훈계라는 두 측면의 특이함은 여느 성서 구절도 여기에 버금갈 수 없을 것이다.

여인이 소유했거나 또는 소유했을거라고 상상되는 초자연적 능력의 본성과 그 범위, 그녀가 사무엘을 불러내는 실상과 가상 또는 환영 등등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토의되어 왔다.

위와 같은 비평적 견해를 떠나 단순히 역사적 사실 자체만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본문의 사울은 자기가 지닌 품행을 통해 하느님과 재물 (God and Mammon)을 동시에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바탕의 그림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 사울은 하느님의 명령을 집행하는데 무척 게을렀다. 그럼에도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꾀사하게 기대려 들었다. 그는 사무엘의 생존시 그의 충고를 우습게 여기고 목살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은 지금 그의 충고를 간절히 바래고 있다. 사울은 자기 왕국 내에서 무당들을 추방했는데, 지금 그는 자기가 섬멸하려고 했던 불법적인 능력이 꽤 쓸모있어 지기를 소원하고 있다.

그의 행동이 보여주는바 종교에 진정한 관심이 없을 경우 그런 마음은 미신의 영향하에 있어지기 쉽다는 것과 자기를 안내해줄 종교적 원리가 정착되지 못한 마음의 조건에서는 행동이 변덕스러워지기 쉽다는 것 등등이다.

위 두 가지는 이런 질문을 유발한다. 사울이 부탁한 여인이 과연 죽은 자를 불러내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혹은 있는 척 한 것인지, 이 여인이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로 한다면 그 여인이 불러낸 사람은 과연 사무엘 자신인지, 또는 예언자의 역을 맡은 연기자 같은 또다른 사람인지이다. 어쨌든 추론만 가지고는 만족스런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에 상반되는 어떤 증거도 성경 안에는 없다는 것, 산 사람이 죽은 자와 느낄 수 있게 교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말씀 자체도 이런 사실에 풍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과학의 경우 그 실마리를 전혀 모르고 있을 경우 불가사의한 듯 여겨지지만 알게되면 보통의 일로 되어진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육체를 지녔던 때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영혼의 거주지인 영계는 자연계만큼이나 가깝게 있다는 것,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경우 같이 영계와 자연계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의아해 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안다. 물론 인간이 자기 육체의 눈으로 영을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계에 살고 있는 동안이라 해도 자신의 영적 몸의 기관을 가지고 영들이 보고 듣고 하는 상태에 놓이는 하는게 가능하다는데 의심을 제기할 이유도 있을 수 없다. 육체가 자연적 감각을 지녔듯 영체에도 영의 감각이 있다. 영들이 거주하도록 창조된 인간 영혼과 영계는 최소 규모에서 물질계의 몸과 물질 체계 만큼 진짜이고 실체이다. 영적 대상을 보는게 당사자에게 좋을 때 신성한 지혜가 이를 허용하면 영적 대상이 표출되고 물질적 몸의 방해 없이 영적 감각을 수단으로 인지되어진다. 천사나 영들이 인간에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대화하는 성경의 기록들은 물질적 감각이 아닌 영적 감각에 의한 것들이다. 천사들이 물질적 몸을 입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이 영적 상태에 놓여진 것이다.

영적 교통이 가능함을 인정할 경우 교통하는 능력이 인간 의지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특히 본문의 엔도르 무당이 하듯이 신성한 질서의 법칙에 상반된 것을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은 모순된 듯 여겨질는지 모른다. 같은 원칙에서 에집트의 마술사가 실시한 기적의 능력도 그것이 사람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발휘되었다는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는지 모른다. 이런 저런 경우를 두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과 빌라도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사용해볼 수 있다. 빌라도가 예수께 말한다. “나에게는 너를 놓아 줄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줄을 모르느냐?” 빌라도의 이 말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권한이 발휘되는 어느 곳에서든 그것은 신성한 허용에 의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허용하시되 이 허용은 그것들을 바래서서가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지혜되신 분이로서 무한하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 인간의 의지와 지혜를 넘은 영역에서 작업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분 스스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

의지, 그러기에 그분도 위반할 수 없는 자유 의지, 이것이 파괴되지 않고는 악이 예방되어 질수 없을 때 악의 허용이 있어진다. 능력 자체만을 떼어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성이다. 마술적인 기적, 또는 불법적인 영적 경이로운 일들은 천국으로부터 훔쳐져서 어떤 통로를 지나 신성한 법칙을 뒤집는데 응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엔도르의 무당이 사울에게 영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그의 성경의 이와 비슷한 증거들이 영적 교섭의 법칙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의문으로 남는 것은 엔도르 무당이 불러낸 영이 사무엘의 영인지 아니면 예언자일 듯한 영인지에 관한 것이다.

스웨덴북 자신이 출판한 새 교회의 저서에서도 엔도르의 무당의 경우와 관련되거나 그와 비슷한 경우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제18장에서 언급했듯 그의 단편 저서들, 사후 출간된 책들 안에 이와 관련된 글들이 있다.

본문의 사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죽은 사무엘이 무당에 의해 나타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 본다. 이것은 오류의 한 가지 종류이다. 이것은 또다른 어떤 것이다. 즉 사무엘을 흉내낸 어떤 것이다. 그 이유가 악령에게 허용이 있게되면 악령은 워낙 교묘해서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를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표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나는 어떤 영을 매개체로 하여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 영은 과거 내가 그의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을 내 앞에 데려다 놓아 나는 그들과 오랜 동안 대화했는데 그들은 지상 생활 때와 똑같은 듯 여겼다. 이렇게 영들은 자기들이 등장시키고자 하는 누군가를 표현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무엘이 아니라 그를 흉내낸 악령이라는 것을 더 명백히 알게 되었다. 또한 사무엘이 아니었다는 것은, ‘지하에서 유령이 올라 오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을 예견하는 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악령이 미래에 관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으로부터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영을 통하여 주어지고 이 영들에게 주어진 것이 악령의 언어로 바뀐 것이다. 무수한 예를 통해 나는 악령이 마치 어떤 사건 등등을 예견하는 듯 말하는 것을 관찰했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느님 외에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어쨌든 본문의 세부사항은 흥미와 더불어 그 역사가 기록하는 영적 현상의 근원과 본성에 만족할만한 관점을 찾도록 우리를 직접 인도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사건의

영적 의미와 실제적 응용에 관한 것이다.

본문의 사울도 표현적 품성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깊은 영적 재난의 상태에 빠진 자연적 마음의 상태와 경험, 또는 열정이 다투는 결과에서 자연적 인간이 애쓰는 모습의 상태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사울도 이와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 전군을 집결시켰다. 그러나 승리를 보장해주는 확신감이 이번에는 사라졌다. 사울은 이번 전투가 두려웠고 그의 심정은 크게 떨렸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 지도자들이 믿고 신뢰하라고 가르쳐져온 으뜸가는 진리 중 하나가 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인가 있느냐” 라는 진리이다 (사무엘상 14:6). 사울이 무시해버리고 있었던 이 진리가 시련을 눈앞에 둔 그에게 절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사울이 표현하고 있는 영적 시련은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 못하는 느낌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런 경우는 어느 때든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결핍에서 발생한다. 확신을 불어넣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다. 그 이유가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에게서 파생된 그분의 원리들을 통하여 우리를 받쳐 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분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닌 어떤 것 안에도 거하실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인 그분 나라의 원리를 수단으로 내적 삶을 형성시킨 만큼에 비례해서 주님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심정에 영감을 불어 넣으실 수 있어 무가치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실 수 있다. 솟구치는 두려움이나 비신되는 생활이 정상일 때는 느껴지지 않을는지 모른다. 물론 은밀하게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 느낌, 생각을 매우 엄격하게 영적 분석을 시도한다면 발견이 가능할는지 모르나 아마 어느 누구도 삶이 평안할 때 제 마음 상태를 해부해보려 시도할리 만무하다. 어떤 특별한 요구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은밀히 작용하던 사랑과 믿음에 관한 우리의 비신되는 급부상해 느낄 수 있게된다. 즉 우리의 영적인 어떤 적이 우리와 맞서려고 포진할 때 과연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쉽게 두려움이 먼저 앞선다. 그러나 이런 적들이란 우리 심정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고 곰곰히 생각해볼 때 원인분석의 실마리가 열린다. 심정 속의 악들, 이해성 속의 거짓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활동하지 않는한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생활은 행복하다. 그러나 경험의 정상적인 과정을 벗어나는 어떤 것이 있어 우리 속의 악과 거짓이 행동 개시할 건수를 만들어 줄 때 시련의 때는 다가오고 두려움과 겁에 질리게 된다.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하느님의 의도는 우리로 각자 자신의 진짜 상태, 진짜 자기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어 개선되는 결과가 있게 해주려는데 있다. 바꿔말해 우리의 진짜 모습은 평범한 조건에서는 자기에게 존재하는 듯 여겨지고 특별한 조건 즉 비상 상태에서는 존재하는 듯 보인다라는 말이다.

불확실함, 곤경같은 모든 상태를 당하면 하느님의 자녀들은 끊임없는 위로와 진실한 조언의 근원을 하느님 안에 가지고 있다. 큰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특히 전투가 막 개시되려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조언을 구했다. 이때 지도자이든, 백성이든 속죄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하느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했다. 이 책 14장에서 이에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적들을 다 추격할 때까지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는 사울의 명령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꿀을 맛보았다. 물론 요나단의 행동은 사울의 명령을 하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있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하느님의 응답은 보류되었다. 이 사건이 가르친다. 모든 악이 행동으로 불거질 때, 설사 무지로 인한 악이라 해도 언제든지 모든 악은 하느님의 영향력의 하강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의도적인 악과 의도적인 악 사이에는 폭 넓은 차이가 있다. 어느 쪽도 비록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상처를 주는 결과만이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바깥쪽의 악은 유전적인 본성에 있는 안쪽의 악이 돌출된 것이다. 양쪽의 악은 비록 어느 한쪽이 알려지지 않은 때일지라도 동시에 발생한다. 요나단의 실수에서 살폈듯이 악이 행동으로 반복되어 돌출되다 보면 생활의 습관이 되어간다. 그리고 악한 습관은 그것을 생산되게한 우리 속 악한 경향성을 더욱 굳혀 강화시킨다. 그런 이유로 덕행을 쌓는 것, 질서있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 더구나 올바른 원리들을 계속 획득해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아마 젊은 세대의 교육에 이런 원칙의 응용은 상당히 중요하리라 본다. 현실의 악 또는 행동하는 악, 설사 비의도적으로 범하여졌다해도 그것을 범한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의식에서 의식적인 죄 뿐만 아니라 무지의 죄를 위해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있다. 이런 의식은 실지의 악, 비록 경미하다 해도 당사자가 하느님과 교통할 수 있기에 앞서 실용적인 회개를 통해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요나단이 미처 몰라서 지은 죄까지도 하느님의 응답의 길을 가로 막았을 정도인데 하물며 사울의 경우는 어떠할까? 실수의 죄보다 의도된 죄는 얼마나 더 하느님의 응답을 가로막을 것인가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으리라.

블레셋의 군대를 본 사울, 곤경에 빠진 사울은 주님께 승리의 길을 조회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세 가지 매체는 하느님과 교통되게 하는 방법들이다. 잠들어 있을 때 꿈을 통해 주어지는 것은 주님의 영이 마음 안으로 흘러드는 것이다. 환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말씀 속의 진리를 통해 오는 것이다. 예언자로 해서 주어지는 것은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사울의 경우, 그가 소속된 교회는 표현뿐만 아니라 수준에서 그에게는 위의 사항들이 보류되어 있다. 그러나 영적 체험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영적 교통의 위 세 가지 경로는 하느님께 반대되는 죄로 인해 닫혀진다. 이사야가 말한다. “너희가 악해서 너희와 하느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의 청을 들으실 수 없게 된 것이다” (59:2).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1:15). 천국으로부터 오는 빛과 위로가 차단되고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 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낙담될 때 무엇이 행해지게 될까? 적절한 순서는 당사자가 요구한 대답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이유가 조회자가 잘못했을 때 주님과 그분의 말씀은 답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더 말한다.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1:16,18). 우리가 바래고 요구한 것들을 받지 못할 때 그 원인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인 그 자체가 우리를 가르칠지 모른다. 다시 말해 고백과 애원, 회개와 착한 행실로 그분의 응답이 오는 것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지혜요 의무이다. 자신이 바란 것을 획득하는 수단을 찾는 데에서나, 가장 슬기롭고 가장 나은 소원이라 해도 그것을 달성하는데 있어지는 장애물을 찾아낼 때도 우리는 자신 밖만을 점검하려 드는지! 이런 점검으로 생산된 판단의 왜곡된 형태는 우리를 더욱 큰 악을 범하는 쪽으로 유인해 간다. 다시 말해 신성하게 지정된 큰 길과 질서있는 수단들을 우습게 여김으로 우리 자신에서 닫혀진 것들을 불순한 경로와 금지된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든다는 말이다.

사울은 통회의 재를 둘러쓰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대신, 신성한 법과 자신이 선포한 법이 정죄하고 있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 했다. 하느님의 법은 이렇게 선포되어 있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에 살라 바치는 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점장이, 복술가, 술객, 마술사, 주문을 외는 자, 도깨비 또는 귀신을 불러 물어

보는 자,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가 있어서도 안된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모두 야훼께서 미워하신다...너희는 한 마음으로 너희 하느님 야훼만 섬겨라” (신명기 18:10-13). 사울이 위와 같은 하느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였든지, 자신의 왕명을 내세우고 싶어서였든지 그는 나라에서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몰아내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리자 그는 자기가 근절시키라고 했던 무당을 오히려 찾아나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울을 모방할 때가 많다. 자기 판단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정죄해버린 것에 상황이 위급하다는 핑계로 편리주의를 도모해 자기 심정을 거기에 기대고 타인의 어떤 행동이 대단히 비뚤다고 판단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 버젓이 재현한다. 꼭 배워야 할 큰 교훈의 하나는 자기 고유의 영혼에 신뢰를 두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속에 하느님께 충실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무는 주 하느님만을 잘 받드는 것,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선행의 샘이시며 모든 생명의 저자로,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그분께 접근하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의 교리들을 통해 그분의 얼굴을 보려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행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영적 의미에서 본문 같은 초자연적 지식의 불법적인 유통은 악한 심정이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진리와 선함을 설득하려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신성한 뜻에 반대되는 일꾼들, 무당이나 강신술사 같은 사람은 인간의 썩어진 이기심에서 근원하는 각종 편법 수단을 표현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하느님에게만 속한 분야요 그분만이 발휘할 수 있는 권능을 자기 목적을 위해 발휘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런 편법과 그 노력은 기회만 있으면 선을 위압하려든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락에게 고용되었을 때의 경우가 성경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민수기 22-24장). 발람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도록 하늘로부터 강요당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점장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원수값을 때 그도 살해되었다 (민수기 31:8). 민수기의 이런 사건은 본문의 경우와도 똑같다. 사울은 금기된 능력 안으로 제 스스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제가 원했던 것과는 너무 상반된 답변만을 받았다. 제간에 영리해서 불순한 경로를 이용한다해도 받아야 할 벌은 피할 도리가 없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불레셋의 손에 넘기고 그와 그의 아들들도 그 전투에서 죽게 된다고 말하시고 있다.

사울이 처한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시험에 푹 빠진 것, 진리의 생명이 소멸된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영적 삶을 발전시켜가는 이들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사울의 죽음은 옛사람의 남은 찌꺼기 생명이 죽는 것, 그리고 진짜 생명인 다윗이 새 능력을 더해

더 드높혀지는 것까지 암시한다.

성서의 무당들, 영적 의미로 이해해 본다면 그들은 믿음의 진리에 자아 사랑이라는 악의 거짓을 접합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술수는 모독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사울이 하느님께서 지정한 예언자를 버리고 엔도르의 무당과 상의하는 것, 살아계신 하느님의 신뢰를 버리고 죽은 예언자인 무당에 신뢰를 둬므로 그는 신성한 것에 더러운 것을 혼합시켜 자멸로 빠져들고 말았다.

사울이 찾아 나선 무당은 전부터 사울이 알고 있던 무당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변장했다. 옷을 바꿔 입고 두 신하와 함께 밤중에 그녀에게 갔다. 이 모습은 거룩함에서 모독함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상태와 행동을 얼마나 강력하고도 간단하게 표현하는지! 그들은 자신을 위장한다. 그들은 진리의 옷을 거짓의 옷으로 갈아 입는다. 이렇게해서 의지와 이해성이 충족되면 “오로지 악만 계속 있을뿐인 자기 심정의 생각에 대한 망상”에 관해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에게 문의하려고 낮의 빛을 피해 밤의 어두움을 이용한다. 사울이 원하는 내용이 하느님에게 물어 보아야 할 것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가 하느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결코 거절한 것도 아니다. 어쨌든 그가 거룩하지 못한 매체를 통해 원한 것을 획득했다고 결론지어 보아도 그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한 때 그가 죄악시하여 섬멸하려던 것을 자신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이다. 마치 무당이 은밀한 방문자에게 사울의 명령 사항, 즉 이 땅에서 무당과 박수를 몰아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마음이 잘못된 쪽으로 크게 기운 이상 자신의 행동이 뼈뼋었다고 판단하여 자기 의도를 철회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 진다. 그래서 사울은 “이 일로 자네에게 죄가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하고 쉽게 보증까지 서주고 있다. 바램이 탐닉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벌어질까? 왕의 명령에 따라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었을 때 그 여자는 큰 소리를 쳐 말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닙니까?” 왜 유령은 방문자가 사울이라고 여인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확신시켰을까? 이에 대해 상상해보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영적 이유가 거기에 없을까? 예언자 사무엘은 말씀,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표현했다. 그리고 말씀 속의 진리는 인간 심정에 매우 잘 숨겨진 비밀까지 밝혀준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는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신 말씀까지도 다 알고 낱알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6:12). 그러나 두려움도 이내 누구려뜨린다. 마음이 어떤 목적물을 향해 완전히 구부러졌기 때문이다. 사울은 무엇을 보았느냐고 여인에게

묻는다. 사울의 이 물음은 아직 그가 유령 자체를 보지 못했다는 표시이다. 영은 자연적인 눈으로는 보여질 수 없고 영적인 시야가 신성한 능력으로 열려질 때 보여진다는 것, 그래서 이쪽은 저쪽을 보고 있지만 저쪽이 이쪽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확실히 일치하고 있다. 주님께서 영혼의 눈에 덮힌 베일을 벗겨 주시겠다 할 때 나타난 영이 시야에 들어온다. 사울이 열린 이 환상을 받기 전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같이 여겨진다. 그 이유가 사울이 여인에게 유령의 모습을 물었기 때문이다. 여인이 대답했다. “도포를 입은 노인이 올라옵니다.” “이 말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고 말했다. 사울은 이 예언자의 유령에게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 그분께서는 더 이상 예언자라도 꿈으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는가를 사무엘에게 물으러 왔다고 말했다. “야훼께서 이미 너를 떠나 네 원수가 되셨는데 어찌자고 나에게 묻느냐?” 선이 하나도 없는 그를 진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선은 선함을 떠나버린 이들로부터서만 떠난다. 이럴 경우 진리는 심판의 말만을 들려주게 된다. 진리만의 심판은 자비없는 심판이다. 자신의 행동 안에 심판의 자비를 제거해버린 이들은 자비 없이 심판될 것이다 우리는 심판하는 대로 심판받게 된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마태 7:1-2). 사울은 스스로 선함이 강탈된 진리의 심판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이 진리는 말하기를, 불순종 때문에 왕국이 몰수되었고 그 왕국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는 것, 당장 들이 닦친 전투는 참혹해진다는 것까지 들려주고 있다. “내일이면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되리라 게다가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불레셋 군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 엄청난 미래에 관한 소식을 듣자 “사울은 그만 땅바닥에 번 듯이 쓰러졌다. 하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못해 기운이 빠진데다가 사무엘이 하는 말에 겁을 먹고 기절했던 것이다.” 사울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사건 줄거리로 짐작해 보건대 사울이 쓰러진 것은 참회로 인한 자발적인 엎드려짐이 아닌 자포자기로 인한 비자발적인 엎드려짐이다. 그외에 그에게는 아무 기력도 없었다. 그는 먹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단식은 “억울하게 묶인 이를 풀려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이사야 58:6) 진정한 단식으로 주님을 경외해서

가 아니다. 여인이 사울에게 다가와서 뭔가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그는 거절했다. 그러나 “신하들과 그 여자의 청에 못이겨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그가 앉은 침상은 참된 교리라는 침상이 아니었다. 그 침상은 여자 점쟁이 (pythoness)의 침상이었다. 그녀가 마련한 살진 송아지는 거룩한 송아지가 아닌 부정한 살코기(학개 2:12, 에제키엘 4:14)이고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서가 아닌 악마에게 바치는 제물로 우리는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울에게 친절을 다하는 여인 무당까지 위 사항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사울의 처절한 모습이 그녀에게 더 나은 느낌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울의 불쌍해진 모습을 지켜보는 그 순간이나마 그녀는 자신이 무당이라는 존재를 떠나 있었다. 표징적인 역사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행동은 다른 품성을 가지고 있어 또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악한 수단을 채용해 거기에 몰두될 때 공급된 그 수단으로부터 우리의 힘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울 역사의 이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엄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지! 심정이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마음은 참된 모든 위로를 잃으며 올바른 방향마저 박탈된다. 이런 상황은 난국이나 위험한 때에 진열되고 느껴져 온다. 굳은 날, 잔혹한 시련의 날이 미래에 있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성실히 답변하려 애써야 하고, 그분의 섭리적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정작 시련에 진입되고 싸움을 거처야 하는 상황에 서게 될 때 그에 대처하는 능력, 인내가 이미 우리 속에 장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리라.

## 22

### 사무엘상 제29-30장

#### 전쟁 준비-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다- 다윗이 모두를 되찾다

사울 위에 드리운 구름은 더욱 그의 마음과 기대를 어둡게하고 급속도로 더 짙은 먹구름으로 변해가면서 그를 위협하고 있다. 수넴으로 집합하던 블레셋군이 지금은 아벡에 총 집결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이즈르엘 샘가에 진을 쳤다. 사울이 다윗을 자기 휘하에 계속 거느리는 총명이 있었다면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신하들이 사랑하는 견고한 망루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자살적인 행동을 이끌어낸 어리석음을 속으로  
 는 통탄하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 사울은 자기를 강력히 보조할 다윗을 잘라내어 정말 큰  
 적인 블레셋의 팔 안으로 내던졌다. 그래서 공포의 군대가 그를 몰아 붙이고 천국은 그에게서  
 영영 단혀지고 대신 그는 황천의 문을 두드리며 죽음과 상의하고 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진을 친 이즈르엘로 행군하려고 “블레셋 추장들은 백명씩,  
 혹은 천명씩 부대를 편성하였고 다윗의 일행은 아기스와 함께 후방 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 나라와 싸우겠다고 하는 적들과 연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가 적의 대열에 서서 자기 백성과 싸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다윗의 이런 곤경은 블레셋 그들 자신에 의해 미연에 막아지게 되었다. 어쨌든 만일  
 다윗이 전투에 임했다고 가정한다면 블레셋 추장들이 그를 의심한 것, 즉 “그가 싸움터에서  
 제 상전의 환심을 사려고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판가름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다윗이  
 배반할 수 있다고 블레셋 추장들이 믿은 또 한 가지 증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귀환할  
 때 “사울은 수 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 만을 치셨다네” 라는 여인들의 노래이다. 아마 다윗은  
 쓴맛 나지만 성실하게 처세했든가 아니면 철저히 아기스를 속였든가 어느 한쪽에 해당될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블레셋 추장들의 결정을 전해줄 때 다윗이 항의하듯  
 되묻는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 날까지 당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다고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는 신뢰는 변함  
 없다. “내가 보기에 장군은 하늘이 보낸 사람처럼 훌륭하오. 그럼에도 블레셋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오. 그러니 내일 아침 일찍 부하들을 데리고 정해진  
 곳으로 떠나시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즈르엘로 진군해 갔다.” 다윗의 대답은 위에서 추정했던 두 가지에 모두  
 일치하는 듯 하다. 그러나 지난번 아기스에게 신분을 위장해 완전한 속임수를 썼던 것만큼이나  
 지금은 완전히 그에게 충복을 바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

본문의 각 개인들로부터 파생되는 교훈은 단지 도덕적 반영 뿐만 아니라 영적 해석에  
 의해 생각하면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게 있다. 만일 다윗이 영적 인간의 모형이고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 자신에 대한 모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녕 그는 매우 좋은  
 것, 매우 고상한 품성만을 드러내야 할 것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다. 또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표현적 인간의 행동 역시 다른 모양새를 가진다. 주님께서는 인간 당사자의 상태에

따라 각각의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시편이 이렇게 설명한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 (18:26). 이 구절은 본문 역사의 상황을 시편 기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즉 “이 노래는 아훼께서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부른 것이다.” 이 시편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주님께 관해 예언한 것이고 그분이 겪게 될 체험이 다윗의 삶으로 모형화되어 있는 것이다.

다윗은 아말렉을 습격했는데 아기스에게 유다 지방을 털었다고 표현되어 있었음을 27장에서 살핀바 있다. 이 거짓 표현은 믿음만의 교리를 지닌 이들이 신성한 진리의 가르침을 형성할 때 있어지는 거짓 개념을 상징화한 것이고, 이 거짓 개념은 그 개념이 독선이라 불리우는데는 적개심을 보이거나 자아 사랑이라 불리우는데는 적개심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까지 상징화되어 있다. 현재 다윗의 위치는 과거 그의 위치와 한 가지 점에서 다르다. 현재의 경우 그가 부하와 함께 자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다고 믿기우고 있다. 지난 번의 경우 그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도 싸워야 했다. 이 번의 경우는 다르다. 적 또는 경쟁자가 약해지는 것은 자신의 입지가 강화되는 반사 효과를 얻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일이 자신 또는 자신이 결부된 타인에 의해 있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제 삼자가 우리의 적과 적군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친구 상태가 아닐 수 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입는게 바람직하다고 상상해왔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정복을 위해 다른 국가를 도우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블레셋 추장들이 이런 견해를 지녔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반기를 쳐들 흑심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아기스만은 다윗을 친구로 간주했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기를 도우리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다윗과 블레셋 추장들 사이에 관한 본문의 기록은 일찍이 블레셋에 거주한 적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사악에 관련한 기록을 상기시켜 준다. 이 두 열조는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하여 아비멜렉 왕을 속였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는 높고 거룩한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안다. 즉 합리적 진리는 신성한 진리를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허용된다는 것이다. 합리적 진리는 자매와 형제 측면에서의 선과 관련되고 신성한 진리는 아내와 남편 측면에서의 선에 관련되어 진다.

다윗이 연루된 본문의 상황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사악의 아내가 사라와 리브가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있어졌던 상황과 유사하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과 이사악은 그 곳을 떠나야 했다. 적어도 이사악이 그 곳을 떠난 이유는 다윗을 전쟁터에서 돌아가라는 블레셋 추장의

요구와 유사하다. 즉 “아비멜렉이 이사악에게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해졌으니 여기에서 물러가라’ 고 말했다” (창세기 26:16). 이사악과 아브라함의 경우는 숨긴 사실이 발각된 것이고 다윗의 경우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변증 같은 논리학에서 나쁜 논쟁은 그것을 유발한 당사자에게 되돌아 간다. 종교적 논증에서 극도의 경우 역사의 확실성이든, 원문의 진실성이든 확실히 알든지 또는 강한 의혹을 갖든지 하여 부정해버리는 쪽으로 기울고 만다. 예수의 기적적인 잉태의 사건을 주는 신약 성서 부분에 대한 진실성마저 예수를 단지 인간 수준으로 믿는 이들은 부정한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기적이 정말 있었는지, 그분이 정말 부활했는지까지 의혹을 던지고 부정해버린다. 말씀의 가상적 진리만을 전부라고 믿는 이들이 불레셋으로 표현되고 위와 같은 결과가 이런 불레셋 사람 같은 특성을 지닌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은 하느님이 자신들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간주하려 든다. 참으로 대단히 많은 왜곡된 생각들이 신성한 속성이나 창조물에 대한 그들의 섭리 측면에 관한 생각 속에 침투되어 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말렉이 네겍과 시글락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놓고 여자를 비롯하여 거기에 있던 사람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사로 잡아갔다.” 불레셋 군대를 따라간 사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재난이 불어 닥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시련 중 하나를 표현한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새로운 어떤 모험적 계획으로 돌아 설 때 우리의 중요한 이익은 보호되지 않은채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다. 아말렉은 자기들의 속성과 똑같이 본문에서도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방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시글락을 약탈했다. 내면의 선에 바탕을 두는 진리가 빛으로부터 퇴조할 때, 마치 다윗이 아기스와 연합하려고 불레셋군대를 뒤따를 때와 같을 때 내면의 악에 바탕을 둔 거짓은 돌진할 준비를 갖춘다. 참으로 이런 마음의 조건, 즉 진리가 직감의 수준에서 추론의 수준으로 내려올 때 이해성보다는 심정 쪽에 속하는 내향의 믿음에 거짓 암시가 은근히 이식되기 십상이다. 이 때 거짓 암시는 선함의 애정에서 오는 진리의 직감을 박탈하는데 마치 아말렉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자식들을 생포하는 것과 같다. 애정들이 포로가 될 때, 영적 포로 상태인 시험의 상태에 빠지면 생명의 모든 기쁨은 사라진다. 마치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소리쳐 울부짖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운조차 없게 된” 모습과 같다. 그리하여 “온 무리는 아들 딸을 잃고 격분해서 다윗을 돌로 쳐죽이려고 수군거렸고 다윗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헐떡거리자 모세를 돌로 쳐죽이려고 위협했던 모습과 비슷하다. 격렬한 시련의 상태에서, 영혼의 쓰라림에서 마음은 자멸의 막바지까지 이르게 된다. 이 상태에서 믿음 속의 모든 진리와 진리 속의 모든 믿음이 저절로 소멸되게 하는 시험의 늪에서 허덕이게 된다. 이것이 모세를 돌로 치려는 백성의 위협이요, 다윗을 돌로 치려는 부하들의 위협이다. 극도의 이런 위협적 폭동은 모세의 경우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을 찾도록 인도하고 있다. “다윗은 자기의 하느님 야훼를 믿고 힘을 얻었다.” 진리는 사랑으로부터 힘을 끌어낸다. 끌어낸 진짜 효과, 마치 시련의 진정한 목적 같이 진리와 사랑을 묶는 끈이 더 강하게 되는 것, 먼저 내적 측면에서, 그다음 외적 측면에서 더욱 강건해진다.

내적 인간은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할 뿐 아니라 지혜의 나아갈 방향까지 찾는다. 다윗은 사제 아비멜렉의 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한 다음, “다윗이 야훼께 여쭙었다. ‘이 강도떼를 쫓아가면 따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야훼께서 ‘쫓아가거라. 따라 잡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신성한 대답은 자포자기된 다윗의 부하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다윗은 부하 육 백 명을 이끌고 나섰다. 브솔 개울에 다다랐을 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생겼다. 다윗은 지쳐서 브솔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이 백 명을 거기에 남겨두고 사 백 명만을 데리고 계속 쫓아갔다. 다윗의 추격은 관관기 7장에 기록된 것, 즉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백성들과의 전투 준비 때와 흡사한 점이 있다. 두 가지 유사점이 있다. 육 백 명의 군인들을 다 동원해도 시글락을 침입한 군대를 공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추격에 참가한 군인은 사 백 명으로 줄어 들었다. 숫자 넷은 돌처럼 선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한다. 다윗이 추격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결합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말렉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아내를 끌어 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적 결혼이 단절된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다윗의 경우 그의 군대 숫자가 너무 많다거나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숫자를 줄이거나 하는 등등은 말해지고 있지 않다. 다윗의 부하들은 기력이 빠졌을 뿐 기드온의 군대같이 겁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지친 이유는 며칠 동안의 강행군 때문이었다. 그들은 기꺼이 싸우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들 모두가 개울까지 추격해 갔지만 그곳을 건널 수 없었다. 개울이나 강은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강을 건너는 것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

구속해줄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이사야 43:2). 다윗의 부하 중에서 힘이 없어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이들이란 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진리를 지니고 있지 않아 자기들 앞에 놓인 시련을 통과할 수 없는 이들을 뜻한다. 선함 홀로, 또는 진리 홀로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다. 진리는 선함으로부터 모든 힘을 얻는다. 선함은 진리를 수단으로 모든 능력을 언제나 발휘할 수 있다. 진리가 없는 선함을 지닌 이들이어서 영적 삶의 전투 중 어떤 전투는 참가할 수 없고 시련을 통과하기 힘들다 해도 타인들이 획득한 전리품을 나눠갖는 특전은 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본보기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적을 추격하고 있다가 “별관에서 에집트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이 종은 그가 병들자 상전인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가서 그는 사흘 밤, 낮으로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먹고 마시어 정신이 들자 아말렉이 저지른 일부더 지금 그들이 있는 곳까지 다 알게 되었다. 악한 자를 섬기던 과학은 선한 자도 섬길 수 있다. 지식은 허위와 진실을 섬기는데 고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지식 없이는 허위도 거짓도 존재할 수 없다. 그이유가 알려져 있는 어떤 것이 허위인지 진리인지를 확증도 부정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은 사실들 속에 있다. 진리이나 허위이나 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지식들로부터 끌어낸 결론이고 그것들이 확증하는 것을 섬겨주는 원리이다. 과학은 신앙인이 계시된 종교 속의 진리들을 확증하는 것을 돕는다. 마찬가지로 비신앙인이 부정하는 것도 도와준다. 과학은 참되고 선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고 반대로 악하고 왜곡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이다. 마치 에집트 종을 아말렉이 보살필 수 있고 이스라엘도 보살피 줄 수 있는 것과 같다. 또 과학은 병들어 있거나 건강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또한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쓸모 없을 경우 주인이 폐기시킬 수도 있다. 악한 자의 목적을 섬기느라 과학이 피로해졌는데도 악한 자가 그것을 경멸하고 거절할 때 병들게 된다. 인간이 공개적으로 사악해질 때 과학은 악한 자가 의롭다고 떠드는 역지를 받쳐주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과학물에서 악과 거짓이 빠지면 선함과 진리, 자연적이고 영적인 것이 마치 에집트인이 사흘을 굶다가 빵과 물, 무화과와 건포도로 배를 채우듯 빈자리를 채운다. 그러면 진리를 섬기고 과피와 모독함을 벗어난다. 마치 다윗이 에집트인을 제 상전에게 되돌려 보내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그에게 맹세해준 것과 같다. 그러면 이런 과학적 지식은 과거 마음을 약탈하던 악의 거짓들을 찾아내는데 긴요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

에집트인의 안내를 받은 다윗은 “아말렉이 깔려있는 곳, 불레셋 지방과 유다 지방을 털어온 것들을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는 곳을 발견했다.” 자연적 마음이 감각적 쾌락으로 휘청거리고 더 높은 품성이 낮은 품성인 욕망의 전리품으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이 아말렉 진영의 풍경이 지닌 의미이고 이 진영은 욕욕적인 마음과 욕적 인간에 대한 참 형상이기도 하다. 감각적 즐거움에 다 내어준 자연적 인간 같은 아말렉은 자신들이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진리의 심판은 자기들에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때와 상황이 같다. 여느 심판과도 같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도 밤중에 떨어졌다. “다윗은 황혼부터 .이튿날 해질 무렵까지 그들을 쳐부수었는데 겨우 사백 명 정도가 낙타를 타고 도망쳤을 뿐이었다.” 황혼(twilight)은 새로운 상태의 새벽이고 이때에 영적 빛이 마음에 드리워 마음의 품성을 밝히 알게 해서 심판하는 신성한 진리의 작업 아래 그 마음을 가져오게 한다. 이 심판의 완벽함이 황혼부터 다음 날 해질 무렵까지 살륙이 계속된 것으로 암시해주고 있다. 도망친 사백 명이라는 숫자는 아말렉 군의 숫자에 관한 어떤 착상을 줄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백 명만이 낙타를 타고 도망쳤다는 이 구절의 묘사는 역사적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아말렉의 살아남은 사 백 명이란 아말렉으로 표현된 원리를 확증한 수준은 아니고 단지 일반적 지식 수준에 머무른 이들을 말하고 그들이 타고 도망친 낙타란 참되고 선한 지식에 대한 애정을 뜻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글자대로 성취했다. “다윗은 아말렉군이 털어갔던 것을 모두 되찾고 두 아내도 살려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약탈당했던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들 딸은 물론 그들에게 빼앗겼던 물건까지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되찾았다.” 이는 과거 아브람이 반역한 왕들에게 강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은 사건과 역사적 사실이나 그 의미에서 까지 똑같다.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을 틈타 그들을 기습,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해 가면서 모든 것을 되찾아 냈다” (창세기 14:15,16). 아브람의 경우에도 아말렉족이 거론되고 있다.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은 왕들과 출동하여...아말렉족의 온 땅을 쳐부수었다” (창세기 14:1-7). 영적 인간을 지배하려던 자연적 인간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다윗의 사건에서 표현되고 있다.

되찾은 물건외에도 승리의 전리품인 소떼와 양떼를 앞세우고 돌아 오던 다윗은 뒤에 쳐져 있던 부하 이백 명을 만났다. 실지 전투에 참가했던 이들 중 어떤 부하들은 그들에게 처자만을 주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께서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뒤통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뒤통이나 다 한가지로 똑같이 분배해야 하오.” 라고 결정했다. 그래서 “다윗의 그날 판결은 이스라엘의 관습법이 되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너무 지쳐서 개울을 건너지 못해 뒤에 처진 사람들이란 선을 원리로 삼고 있지만 영적 삶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진리가 충분치 못한 상태를 뜻한다고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진리는 선으로부터가 아니면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선은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도 이미 거론한 바 있다. 사실 선과 악은 직접 대결하지 않는다.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악은 거짓을 수단으로 싸운다. 그래서 모든 악이 제각기에 걸맞는 거짓을 수단으로 악 자체를 방어하듯 모든 선도 제각기에 어울리는 진리로 자체를 방어한다. 악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악에 반대되는 선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투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건을 지키고 있었다. 이 물건(stuff)이란 다윗 군대의 보급품이다. 사울이 제 몸을 숨긴 “짐짝(stuff)”에 관해 이미 살펴본 바 있듯이 이것은 글자대로 보면 용기(vessel)들을 뜻한다. 용기는 과학물 또는 지식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진리들은 아니고 단지 진리를 담거나 내포할 수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은 지식들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지식들이 진리들이다. 따라서 지식은 이해함에 앞서 온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전 우리는 진리를 이해해야만 한다.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그 진리에 반대하는 거짓과 싸움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있기만 하는 이들, 비록 그것 가지고 전투는 할 수 없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언제인가는 자신들에게도 거짓에 대항하는 진리, 악에 대항하는 선을 옹호하는 수단이 되어 줄 수 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규칙은 이러하다. 동일한 선한 목적 때문에 노력들이 서로 병합되고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이 다르다 해도 전리품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에서 물건을 지킨 아내도 밖에 나가 더 적극적으로 물건을 획득한 남편과 똑같은 배분의 권한이 있다는 말이다. 하느님의 교회에서는 선물은 다양하지만 그 영은 하나이다. 사랑의 똑같은 영으로 영향받은 모든 이들은 각자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전체 습득물의 혜택을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된다.

스웨덴북의 “비망록”을 보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사건에 담긴 의미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 비유에 담긴 의미와 같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다. 한 시간 일한

일꾼이 온 종일 피약벌에서 수고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스웨덴봄의 저서를 보면, 일꾼이 고용된 각각의 시간은 삶이 각기 다른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3시- 6시- 9시에 고용된 이들은 진리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고, 11시에 고용된 이들은 진리의 상태에 있지는 않으나 선한 상태에 있는 이들, 그래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이들, 다시말해 이해성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을 뿐 마음씨 고운 젊은 이들 같은 상태에 속한 이들이다. 이 마지막 일꾼이 본문에서 물건을 지킨 군인들에 해당된다. 이들은 진리를 알지만 이해 못하고 있어 전투에 임할 수가 없다.

모든 부하들에게 동등한 몫을 나누어 준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 친분이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면서 말을 전하였다. ‘야훼의 원수들에게서 털어온 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성의 장로들, 자기와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의 장로들에게도 선물을 보냈다.” 이런 다윗이 표현한 주님께 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그분은 권세와 세력을 못쓰게 만드셔서..” (골로새서 2:15). “...그는 강한 자와 전리품을 나누리라” (이사야 53:12). 구속자가 굴욕을 받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의 축복은 그분이 드높혀짐으로 내려올 것이다. 어둠의 권세에 승리하시고 인성을 영화하심으로 그분께서 획득하신 전리품을 신실한 모든 자들과 나누신다. 이를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다윗의 전리품” 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아말렉이 포로로 삼은 자들을 구해내는 사건으로 다윗은 그분 스스로 시편에서 예언적으로 기리신 신성한 구원을 표현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당신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다. 당신께서는 사로잡은 자를 포로로 끌고 가셨다. 당신께서는 인간을 위해, 또한 반역자들을 위해 선물을 받으셨다. 이는 주 하느님께서 그들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이다” (68:18).

## 23

### 사무엘상 제31장

####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의 죽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거룩한 저자는 이 나라의 통치자나 백성에 관계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돌출시켜 지면을 할애하고 이야기의 주요한 주제와 연결되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게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일상사와 마음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정부, 즉 하느님의 나라는 영감된 기록의 장엄한 주제이고 그의 원리나 힘은 하늘 왕국의 번성을 도와 주거나 방해하는 정도로 소개하고 있다. 하느님의 왕국이 말씀 안에 있듯 우리 안에도 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가장 중요시하는 제일 가는 목적이다. 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목적을 안정되게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서 관심을 둘 뿐이다. 28장 1절, “블레셋군과 이스라엘군이 싸우려고 군대를 집합시켰다”는 대단히 짧은 기록에 이어 사울과 엔도르의 무당, 그리고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있었고 그가 아말렉을 공격했다는 긴 이야기를 전개해 놓고 있다. 양쪽 군대가 전쟁 준비를 했다는 짧은 서술 뒤에 본문의 첫 절이 이어진다.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길보아산에서 마구 죽어 나갔다.” 이 짧은 문구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아 공표되고 있는지! 전쟁과 패전이 짧고도 평범한 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것은 전쟁 자체로나 그 전쟁 결과로 보나 평범한 전투는 절대 아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을 판가름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첫 왕의 운명을 결정지어 주었다. 동시에 그 왕과 백성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조건과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준 전투였다. 전쟁 자체가 이스라엘을 질책한 원인은 아니지만 그 패배는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표시가 되었다. 전투에서 숫적으로 열세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을 피해 도망친 것은 아니다. 만일 사울이 이스라엘의 강함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면 적의 어떤 강함도 그를 격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영을 지닌 그들에게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자기의 도덕적 약함과 실지의 불신앙이 초래하는 결과를 보았다. 자기 종교를 미신으로 대체할 때, 또는 “생명있는 것이 죽은 것에서 해결책을 구할 때 위 사울의 신세가 되고 만다. 하느님에 대한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죽은 믿음을 지닌 이들에 의해 처벌되어진다. 불신앙의 이스라엘은 믿음만을 표현하는 블레셋에 쫓겨 도망쳤다. “악이 사악한 자를 도륙하리라.” 사실 본문 전,후의 글자상에서 보면 사울만이 악과 불신앙을 지닌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왜 백성들까지 사울의 죄로 고통당해야 할까? 자녀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신하는 제 통치자의 잘못 때문에 욕을 당하고, 군인들은 장군의 무능력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다고 이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그들은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과 합세했다. 사실 그들은 나라에 공헌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야 했고 자기들을 도울 최고의 군인이 누구인지 구별했어야 했다. 게다가 다윗 군대로 인해 급박한 죽음을 모면한 크일라 주민이 사울의 수중에 다윗을 넘긴다는 것은 너무 비도덕적 양심 소유자의 소행이었을 뿐이다. 지브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은둔지를 비밀리에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그들이 사울의 범죄에 동참했듯이 사울이 받는 벌에도 마땅히 동참할 수밖에 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자연적이고 도덕적 법의 집행 말고도 그 법칙에 근거한 영적 법칙의 작용도 있다. 이 법칙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 삶을 규율하는 법칙이다. 우리가 첫 번째 준수해야 할 원리를 그르칠 때 그에 따른 부수적 단계는 올바른 길과 참 목적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목적이 악하면 그에 동원되는 수단은 사기 책략들이고 행동 결과는 죄뿐이다. 통치하는 사랑이 더 수준 낮은 애정 안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에 일치하는 품성과 결정을 애정에 주게 된다. 더구나 그 사랑과 전혀 다른 속성까지도 지배해 버릴 때도 많다.

이런 원리와 꼭 맞아 떨어지는 게 사울의 역사이고 그의 운명은 우리에게 위의 원리를 나열해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쫓겨 도망치자 블레셋군은 겁에 질린 졸병보다는 거물급에 목표를 집중시켰다. “블레셋군은 계속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다, 말기수아를 쳐죽였다. 전세가 이미 다 기울어진 판에 사울마저 적의 화살에 맞아 부상당하고 말았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일렀다. ‘저 오랑캐들에게 붙잡혀 옥을 당할 수는 없다. 차라리 네가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나 무기당번은 감히 칼을 뽑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사울은 손수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당번과 사울의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어떤 큰 사건도 이 전투의 결과만큼 큰 것은 없을는지 모른다. 제아무리 황폐해진다 해도 이 패배만큼 처절할 수 없다. 아마 이 사건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성경의 사건이라면 그것은 하느님의 퀘가 옮겨지면서 엘리히의 두 아들이 살해되고 엘리마저 의자에서 넘어져 죽는 사건일 것이다. 이 경우는 비록 패배했다 해도 전멸당한 것은 아니다. 엘리히의 죄가 대 이변의 원인 중 한 가지였고 사울의 죄도 또다른 대 이변이지만 그것을 자초했다. 각각의 경우 그 계승자는 전임자가 무가치하게 통치했지만 합법적인 통치 시기 동안에 신성하게 미리 임명되었다. 그리고 계승자는 전임자 자신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양육되었다. 사무엘이 엘리히에서 가르쳐 길들여 졌고 다윗은 사울 밑에서 어느 정도나마 그러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일반적 교훈을 가르친다. 다른 점은 판관과 왕으로서의 표현적 속성뿐이다.

영적 의미와 실제적 교훈을 배울 의도에서 이 역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울 자신이 관련된 대 이변에 관한 상세한 것에서 너무 지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울 자신은 물론 백성, 자기 하느님의 적들과 마지막이요 운명적인 전투가 될 거라고 사울 자신도 의심할 바 없었던 전투인데도 전투를 강행한 무모한 용기에 감탄할 어떤 점이 없지는 않다. 이 점만이 블레셋과 교전한 사울 왕에 관해 좋게 말해줄 수 있는 전부일 것 같다. 사울이 전쟁에 참가하는데 있어 용기가 부족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충실도가 부족했다. 충실해지는 것은 용기를 내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 자아 사랑이나 사리 사욕도 본래 가지지 않았던 용기나 담력을 흡입하는 것은 과히 어렵지 않으나 성실함은 자아 사랑이나 사리 사욕의 포기를 종종 요구한다. 의무나 책임에 성실하려면 우리가 가장 아끼는 자연적 애정을 부정해 버리도록 요구한다. 사울도 즉위 초기 시절, 즉 자신이 별 큰 인물이 못된다고 여기고 있던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고상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아각 왕을 살려 놓았을 때 그는 꽤 관대함으로 통치하는 듯 자신을 평가했는지 모르나 그것은 하느님의 소리와 이성을 거역한 것이었다. 다윗을 향한 그의 행동에서 그는 자연적 인간의 속성을 명백히 드러냈다. 자연적 인간의 좋아함과 싫어함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게 아니라 좇대없이 작동한다. 자연적 인간의 상냥함이나 안심함이 타인을 측량할 때 그런 좋은 자질이 자신 안에 있는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로 이루어진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네게 무슨 보상이 있을까?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종교적 윤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면 사울 통치의 후기는 거의 악마적인 속성을 암시하고 있다. 잔인하고 저속한 모든 열정의 부모격인 자아 사랑의 본성이 다윗을 향해서 공포적인 행동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그의 행동은 다윗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사건에서는 더욱 대조적으로 가증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후기 통치에서는 관용, 아량, 용서같은 보다 고상한 태도는 아예 비쳐지지도 않는다. 이미 살핀바 있듯이 사울은 통상적인 표준에 의해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완전하게 건전한 마음의 소유자였다고 할 수 없다. 그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나 그의 직무 경력의 많은 기간 동안 악마에 홀려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그의 행동은 더 인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그이유가 자연적 인간의 본래의 품성, 또는 우리의 자연적 마음의 본래의 품성은 이보다 더 완전하게 보여줄 방도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울의 체험에서도 우리가 보게되는 것은 죄와 더불어 있게되는 비참함과 가없음이다. 그의 마지막에서 그가 하느님을 버리고 이미 떠난 영과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해결책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병든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울의 개인적 행동을 들여다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특히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 마지막 전투인 본 장을 그를 통해 표현된 품성 측면에서 잘 생각해보는 것도 더욱 유의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최대한 양보하신 상태에서 타락의 속성을 어머니로부터 입은 자연적 마음의 품질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울의 품성을 우리에게 반영시켜 볼 수 있고 같은 영적 영향력에 신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그의 품성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사건과 주변 상황이 가르치는 영적 교훈을 숙고해보면 그것은 사울의 표현적 품성과 행동에 관해서 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중시하는 교훈이기도 하다. 사울에게 수여되어진 기능 자체는 거룩하고, 표현적 측면에서는 신성이고 영적이다. 이 기능이 개인에게 붙어 있다해서 그 개인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주님의 기름부는 자로서 거듭나는 인간을 표현하고 육체 안에 계신 주님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울의 개인적 품성에서는 위 두 가지 모두와 부합되지 않는다. 다윗은 자기에 관하여 이 구별을 명백히 만들었다. 다윗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죄있는 자로, 기름부는 자로서의 자기는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다. 사울의 적인 블레셋과 그의 여러 민족들도 다윗과 싸웠고 다윗도 그들과 교전했으나 그것은 개인 차원이 아닌 공적 차원, 즉 그들이 지배하길 원했던 왕국의 왕의 차원에서 었다. 그러므로 이런 전쟁들은 주님과 그분의 왕국에 대항해서, 또는 그분의 나라를 위한 전쟁, 영적 전쟁들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에 대항하는 임무가 주어진 이들이 표현한 영적 전쟁들은 주님 개인 차원에 대해 주어진 임무로 이해되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교전은 그분에 대항해서 한 번 수행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분이 육 안에서 나타나실 때 개인적 차원에서 공격당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 자신과 그분의 나라의 적, 어둠의 영들에 의한 것은 악마와 사탄으로 불린다. 어느 전투에서든지 주님은 정복자이셨다. 그러면 사울과 블레셋 사이의 마지막 전투,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사울도 죽게되는 전투는 그분의 전투 중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시험- 싸움에서 정복하는 이들의 외관에는 패배의 외관이 언제나 있다. 주님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격렬한 시험, 십자가의 고난이 이 외관을 표출했다. 그분의 죽음은 어둠의 영들에게는 승리의 쾌거로 비쳐졌다. 드디어 그들은 그분을 정복했다. 그러나 부활 아침에 그분은 죽음의 끈을 모두 끊어버리고 모든 권능을 가진 영화된 인성으로 일어나셨다. 이긴 듯 보인 승리는 패배로 갑자기 바뀌어 그들 자체가 끌어내려져

영원히 그분께 종속되어 버렸다. 이 한 개의 예만이 가시적이었지만 모든 시험은 똑같은 가상과 실상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시험이 극에 달하면 자포자기가 뒤이은다. 그래서 시험당한 자가 자포자기되면 시험자에게 승리가 있는 듯 보인다. 또한 모든 시험에는 죽음과 부활이 뒤따른다. 옛 사람의 어떤 것이 죽고 새 사람의 어떤 것이 살아난다. 옛 사람의 죽음은 악령에 의해 결과되는바 이것이 악령에게는 승리인 듯 보인다. 새 사람의 부활은 천사에 의해, 또는 천사를 통해 주님께 의해 결과되는데 이것은 악령에게 실제의 패배이다. 그러므로 악령에게는 통치하는 사랑이라는 일반적 측면과 애정과 욕망이라는 세부적 측면 모두에서 옛 사람의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각종 수단들이 허용된다. 악령은 제 죽음의 장례를 치르는 죽은 자이고 새 사람은 신성한 명령 “너는 나를 따르라”에 순종한다 (마태 8:22).

그러므로 사울의 죽음, 그의 아들의 죽음, 이스라엘 군대의 패전을 주님의 영화하심, 인간의 거듭남에 관련시켜 이해해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패배와 죽음이 아니라 육의 패배와 죽음을 뜻한다. 이를 두고 사도들은 우리가 그분과 살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육의 죄를 벗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위 설명에 걸맞지 않는 듯 여겨지는 사울의 죽음에 관한 한 가지 세부사항이 있다. 사울은 적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그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그럼에도 이 사황도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해 선포하신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표현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서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요한 10:15,18).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는 주님만을 취급한다. 그리고 이 의미 안에는 그분의 인성이 영화하심 또는 인성이 신성과 하나됨에 관한 모든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태들은 지옥을 종속시키고 천국의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질서대로 환원하신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전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어둠의 권세와의 그분의 싸움, 승리, 인성의 영화와 관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울의 군대가 도망치고 사울 스스로 죽는 광경은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있던 모습과 매우 비슷한게 있다. 예수께서 대 사제가 보낸 무리들에게 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 주님의 작은 무리가 도망친 것은 사울의 큰 군대가 도망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건이다. 그분께 복종당하지 않으려고 전력을 다했던 악령들은 주님이 잡히자

대 성공이라고 기뻐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중대한 순간에 주님의 제자들이 도망했을 때 주님 스스로 피할 방도를 구하지 않으셨고 잡히는데 어떤 저항도 않으셨고 적의 손에 그분 자신을 내맡겼다. 자신의 생명을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을 내어 놓고 있다면 이는 자기 희생, 산제물이 아닐까? 물론 이 모습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주님의 기름부어진 자로서의 마지막 행동에 의해 표현적 백성의 역사안에서 기름부은 자, 메시아의 모형을 특징짓고 있지 않을까?

또하나 기억해둘 게 있다. 시험받고 죽는 것은 주님의 인성에 있는 신성으로부터의 진리(truth Divine)이라는 것이다. 신성처럼 여겨지는 진리 즉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는 사람의 아들로 의미되기도 한다. 이는 천사나 인간의 납득력에 걸맞도록 유한하게 있는 신성한 진리, 천사나 인간이 영적인 것과 신성에 관해 느끼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상태로 내려오는 가상으로 옷입은 진리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분의 개인적 고통과 죽음에 관해 말하는 신약 성서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은 언제나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써 언급하신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수단으로 주님은 말씀 측면의 그분 자신에 관해 언급하신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주님은 시험당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죽음에 놓여질 수 없다. 이제는 그분에게 가해진 모든 것, 육체 안에 계실 당시 그분이 받으신 모든 고통은 말씀, 진리의 성경, 그리고 그분의 교회와 백성에게는 가능하다. 인간 본성으로 옷입혀진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주님 사이에도 상응이 존재한다. 주님이 입으신 인간 본성은 인간의 유전적인 불완전을 가졌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이 인간에게 내려오느라 입혀진 언어는 타락된 인간의 납득력에 의거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 유대인이 주님을 취급한 것같이 현재의 기독교인도 주님의 말씀을 취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독교인이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에 반대할 수 있다. 마치 유대인이 주님을 부정한 것과 같다. 유대인이 주님을 죽인 것같이 기독교인도 진리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기독교인은 자기 손으로 새로이 하느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고 욕을 보이는 셈이다(히브리서 6:6).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받으신 대접, 그 대접이 구약에서 기록된바 같이 그분을 표현한 이들에게서든지, 신약에서 그분 자신에 직접 가한 대접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이는 말씀이 가르치는 선함과 진리의 원리에 반대되는 이들에게서 말씀이 대접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이 정죄하는 악하고 거짓된 원리에 있는 이들이 말씀을 취급하는 것을 묘사한다.

이런 상응은 아직 더 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교회(the

Church)에도 관계된다. 그이유가 이 교회는 주님의 신비로운 몸, 그분 자신의 거룩한 몸의 형상이고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로부터 형성되어 그 진리로 떠받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회가 신실한 사람의 일반적 몸을 구성하는 것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 교회는 선함과 진리의 원리를 인정함까지 다 포함해서 이다. 그러므로 유추의 고리와 그것의 연결은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천국과 지상의 그분의 교회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미미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까지 내려온다. 한 가지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모든 것에 관련되고, 장소에 따라 각각에 관해 다른 점은 내려오는 규모를 말하고, 그 규모는 첫 원인으로부터 마지막 결과에 까지 이다.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자연계에 소속된 것같이 그 대부분이 진리의 외관(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외관들은 그것 자신의 교정을 위한 수단 그 자체 내에 보유하고 있다. 외관적 진리들은 진짜 진리들이 어느 정도라도 발견되거나 밝히 알려질 때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에서 이든, 그분의 일 속에서이든, 진짜 진리에 선천적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가상(외관, 껍질)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질 수 있다. 말씀의 외관적 진리들은 참으로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영적 의미는 글자가 함유한 영(soul) 또는 생명이어서 글자가 죽을 때 글자 속의 의미는 살아 남는다. 그러나 이 원칙은 성경의 모든 글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외관적 진리들에 국한된다고 조심스럽게 이해해 두어야 한다. 그이유가 성경의 글자적 의미에는 외관적 진리들 뿐만 아니라 진짜 진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짜 진리(real truth)는 글자 안에서, 영혼에서도 참된바 언제나 바뀔 수 없어 영원하다. 외관적 진리(apparent truth)는 영혼 안에서는 참되나 글자에서는 그렇지 않은바 바뀔 수 있어 일시적이다. 예를 들어 보자. 주님은 누구에게나 선하시고 그분의 온유한 자비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글자에서도, 영혼에서도 참이다. 그반면 주님은 날마다 사악한 자에게 화를 내신다는 것은 영혼의 경우는 참이지만 글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은 예에서라면 영혼은 글자에 반대되는 상태이다. 그이유가 영적 의미에서 주님의 자비는 사악한 자, 그들의 모든 상태에까지, 주님의 본성에 상반되는 상태에까지 퍼져가지만 그분의 사랑은 사악한 자가 느끼기로는 그분이 성내신 듯, 아예 자기를 미워하는 듯 여기므로해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자 의미는 반드시 죽고 영적 의미는 살아나야 한다. 참으로 단어들이 함유하고 있는 진짜 진리인 영적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밝히 알려질 때 글자 의미는 마치 제 스스로 자결하듯 죽는다. 주님의 영의 칼, 순수하고 영적 의미로 있는 하느님의 말씀은

가상적인 진리를 쳐서 떨어뜨린다. 이것은 말씀의 전체 측면이나 부분 측면에서나 똑같이 적용된다. 성경의 어느 한쪽 부분이라해도 그 속의 순수하고 영적인 의미가 알려지면 거기에 소속된 가상적 진리는 자연스레 죽어지는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죽어진다. 죽는다 해도 가상적 진리는 계속 성서 안에 체류한다. 마치 자연계와도 같다. 그러나 더 이상 진짜 진리로 간주되지 않는다. 더 이상 가상적 진리는 삶의 안내도, 교리의 원천도 되지 못한다. 더구나 불레셋이 그것을 남용할 수도 없고 최소한 타인의 믿음을 파괴하는데 남용되지 못한다. 그들은 생명없는 몸을 움켜쥐고 모욕해버릴 수 있겠지만 영만큼은 모욕할 수도 없고 남용도 할 수 없다.

이상 살핀 내용은 본장에 관한 일반적 관점이다. 이 지식을 가지고 역사의 세부사항을 살핀다면 더 흥미가 있게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레셋을 피해 달아나다 길보아 산에서 마구 죽어나갔다. 길보아란 샘(fountain)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샘이 있다. 이 샘은 이즈르엘 골짜기 근처에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집결한 곳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부상당해 쓰러졌고 사울의 아들들도 살해되고 사울 자신도 자결해 버린 곳이다.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인 영적 사랑을 상징하는 산, 길보아가 최소한 한동안이지만 자연적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이 자연적 사랑이 통치하면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다. 가장 좋은 것도 뒤집히면 가장 나쁜 것이 되어 버린다. 이와 같이 최상의 의미도 반대되는 법칙에 의하면 최악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시온은 높은 산이 되어 구세주의 오심을 선포하도록 명령되어 있다(이사야 40:9). 그러나 그분이 오셨을 때 악마는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분을 시험했다(누가복음 4:5). 율법이 시나이산에서 선포되었으나 갈보리산에서는 모독되어졌다. 이런 구절의 예를 보면 산은 하느님을 사랑함이라는 거룩한 원리를 상징하지만 자아를 사랑함이라는 부정한 원리도 상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우리는 말씀의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를 쫓는 자, 하늘의 독수리보다 빨라 산등성이에서 끈질기게 따라오고...” (예레미야 애가 4:19). “나는 너의 살코기를 산에 내다 버리고 네 시체로 골짜기를 채우리라” (에제키엘 32:5). “네 군대는 다시 모을 길 없이 이 산, 저 산에서 흩어졌다” (나훔서 3:18). 본문의 역사로 표현된 것 같이 교회의 진리가 세상의 오류 앞에서 도망칠 때, 또는 종교의 원리나 참된 개념들이 거짓된자들 앞에서 퇴각할 때, 그 한계점은 삶에 관계된 것들이다. 참된 것의 종착지는 선이고 거짓의 종착지는 악이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졸병들을 도망치도록 했을 때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 따라 잡았다. 그리하여 블레셋은 세 아들을 죽였고 설사 사울이 자결하지 않았다해도 필시 블레셋의 칼에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사울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 속의 세 구성요소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울은 통치하는 원리 자체, 아들들은 원리 자체로 규율된 이끌어 가는 원리, 이스라엘 군대는 통치되는 보통의 원리들이다. 보통의 원리들은 더 높은 원리가 안주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받쳐준다. 따라서 보통의 원리가 제각기 도망친다면 그의 다른 원리, 제아무리 높은 원리라 해도 파멸된다. 말씀 측면에서 이를 생각해보자. 글자 속의 보통 진리들은 그의 더 높은 진리의 기초를 형성하고 더욱이 그것 안에 신성한 진리가 충만과 권능으로 안주한다. 교회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생활과 예배에 관한 보통의 원리들은 믿음과 사랑에 속하는 더 높은 원리의 기초를 이룬다. 인간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의 생각과 애정의 기초를 이룬다. 기초를 이룬 모든 것은 더 높은 원리들을 떠받친다. 따라서 기초가 조각날 때 그 위, 그 안의 모든 것은 당연히 멀해지고 만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자 사울의 아들들이 살해되고 사울마저 죽는다. 그러므로 영감된 이 역사 기록은 글자적 사실과 함께 영적 진리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 “...전세가 다 기울어진 판에 사울마저 적의 화살에 맞아 부상당하고 말았다...그리하여 그 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당번과 사울의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과거 야곱이 요셉에게 내린 축복의 아래 구절처럼 위 사건도 한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이 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그를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창세기 49:23,24). 이는 마치 사울에 관한 것이 표현했듯 주님에 관한 예언이다. 요셉은 주님의 인성의 영적 부분을, 사울은 자연적 부분을 표현했다. 거듭나는 인간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로이다. 요셉을 쏘는 사수란 영적 교회의 사람을 반대하는 이들을 뜻한다. 그이유가 사수(archer)는 영적 인간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활은 교리를, 화살은 교리에 소속된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리 속의 진리는 진리 안에 있는 이들과, 교리 속의 거짓은 거짓 안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한다. 요셉과 사울 모두 화살을 받아 활 쏘는 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요셉의 활은 강했다. 그이유가 야곱의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에 의해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울의 활은 강하지 못했다. 그이유가 그의 손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의 손에 의해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로부터가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나왔다. 천국은 주님의 육을 입으시기 전의 인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지상에서 육을 입으신 인성으로부터 였다. 신성으로부터의 진리로부터가 아니라 신성한 진리로부터 성전의 모퉁이 돌, 양의 목자가 왔다. 어머니쪽의 유한한 것은 벗으시고 아버지쪽의 무한한 것을 입으셨다.

이 비극적인 전투에서 언급 않고 지나칠 수 없는 전사자가 있다. 사울의 무기당변이다. 그는 제 상전의 찌르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사울의 뒤를 따라 그와 함께 죽었다. 무기당변은 상전의 전쟁 장비를 간수하는 사람이다. 무기당변과 그의 상전의 관계는 진리와 선탘과의 관계, 또는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의 관계와도 같다. 진리는 선을 섬기고, 외적 측면은 내적 측면을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 사울이 자연적 마음을 표현하는바 사울과 그의 무기당변은 자연적 마음의 내면과 외면에 해당된다. 자연적 마음의 내면은 우리의 동기가 자리잡는 곳이고 그 외면은 우리의 수단들이 자리잡는 곳이다. 전자는 주인 격이고 후자는 도구에 해당된다.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 완전한 일치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되어 행동한다. 일치 않을 경우 외적 측면은 내적 측면이 간절히 부탁해도 순응하지 않는다. 사울의 무기당변은 찌르라는 상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심히 두려워서였고 그것도 제 상전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지자 그의 무기당변도 자기 칼 위에 엎어졌다. 내적 측면이 없어지면 외적 측면도 없어진다. 내적 인간이 죽으면 외적 인간도 그와 더불어 죽는다.

이 전투의 또하나 비극적인 결과가 이어진다. “그 곳 골짜기 건너편과 요르단 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모두 저희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거주한 성읍은 생명있는 진리들로 가득 찬 교회의 교리를 표현했다. 이 성읍이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 버려지고 블레셋이 거주한다는 것은 생명있는 진리가 텅비고 거짓들로 점령당한 교회의 교리를 표현한다. 위 사항이 무엇을 뜻하냐고 물어 온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답해야 하리라 본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가르쳐질 때, 하느님 안에 세 가지 신성한 본질이 있다고 가르쳐지고 있다면 그 교리는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신성한 세 분(persons, 인물들)이 있다 라고 가르쳐진다면 필시 그 교리는 거짓으로 꽉 찬 것이다. 대속의 교리를 가르치되 하느님 자신과 세상이 재회하기 위해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진리를 내포하게 되지만, 아버지되시는 하느님과 세상이 재회하기 위해 하느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계신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거짓을 내포하게 된다.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되 삶이 끝나면 영체로 일어난다고 가르치면 진리로 이 교리는 차있는 것이지만, 세상 끝에 자연적 몸으로 일어난다고 가르치면 그 교리는 거짓들로 꽉 찬 영터리에 불과하다. 믿음의 교리가 진리로 차있으려면 사랑의 믿음(faith of love)이 구원해준다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믿음만으로(faith alone) 구원된다고 가르치면 그 교리는 거짓들에 소유당한 것이다. 교회의 본질되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교회라는 이름은 남아서 존속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치고 불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사는 것”과 같다.

그 이튿날 불레셋 군은 길보아 산에 올라,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 불레셋 땅 방방곡곡에 보내어 저희의 우상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입었던 갑옷은 아스다롯 신당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박아 달아 놓았다. “ 불레셋이 사울의 몸에 가한 모욕, 목베기와 일종의 십자가형은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영적 불레셋에 의해 진리에 가해진 모독을 표현한다. 그리고 한분 인물 안에 진리로서 계신 주님과 계시된 진리로서의 그분의 말씀에 가해진 모독까지 표현한다. 주님의 말씀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의 연결을 파괴하는 것, 결국 종교 자체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연결을 파괴한다면 이것은 기름부은 자, 사울의 목을 잘라 그의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다. 악의 공격에 선을 방어해주는 진리를 말씀에서 제거한다면 그것은 영적 불레셋이 사울의 갑옷을 벗기는 것이다 거짓 원리가 참된 원리를 뒤엎고 모든 그들의 예배와 생활로 당당히 들어간다면 그것은 영적 불레셋이 저희의 우상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격이다.

불레셋 군이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당에 보관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여신 아스다롯이 달을 표현한다고 믿어지는 좋은 이유가 있다. 성경에서 달은 믿음을 상징한다. 불레셋을 달과 관련해 생각한다면 믿음만의 원리를 표현하고 이 원리를 절대 중시함이 아스다롯을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선함을 방어해야 할 진리가 선함 없이도 구원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믿음만의 교리를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스다롯 신당에 있는 셈이다.

불레셋이 사울의 시체를 못박아 놓은 성벽이 있는 벳산은 과거 므낫세 지파의 상속분이었는데 그 지파 사람들은 그곳의 가나안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지면서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게 했다 (여호수아 17:11-13, 판관기 1:27). 벳산이란 이름은 썩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신실한 사람들은 진리에의 순종으로 획득한 선 가운데서 자신이 쉼 집을 발견한다. 그러나 불성실한 자들은 악 가운데에서 저들이 쉼 집을 발견한다. 그들은 악을 선이라 부르고 있고 진리가 자기들에게 순종하게 만들어 정착한다. 진리가 벗겨지고 그 능력이 박탈된 선이 놀림감이 된 모습이 사울의 시체를 벧산 성벽에 매단 것과 같다. 므낫세의 성읍은 선을 방어하는 진리를 표현해왔지만 불레셋의 성읍이 되면 악을 방어해주는 거짓을 표현한다. 두 종류의 유신론자가 있다. 두 종류 모두 “선은 제가 옳다고 우겨대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경우 “악은 정죄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악가운데 있는 사람의 믿음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비밀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저 세상에서는 명백해 질 것이다. 또한 진리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당신이 자연적 빛을 벗어나 영적 빛으로 들어갈 때, 마치 사후 있어지는 모습같은 때 믿음이 무엇인지, 이타애가 무엇인지 묻게 된다. 그때 믿음은 형체에서 이타애라는 것, 그러므로 이타애는 믿음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 마치 애정이 생각 속에, 소리가 언어 속에 있는 것과 같음을 당신은 명백히 알 것이다.”

비록 사울의 시체가 벧산 성벽에 매달렸지만 거기에 그렇게 방치되도록 허용되지는 않았다. “야베스길르앗에 살던 사람들은 불레셋군이 사울을 이렇게 해치웠다는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모두 길을 떠나 밤을 도와 벧산에 이르러 사울 부자의 시체를 그곳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옮겨 화장한 다음 그 뼈를 야베스에 있는 나무 아래 매장하고 칠 일간 단식하였다.” 야베스길르앗은 과거 이 성읍이 암몬족에게 공략 당했을 때 사울이 군인다운 용기와 왕권적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첫 장소이다. 그래서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매우 좋았다. 그런 연고로 그들은 적이 입성한 벧산 성벽에서 사울 부자의 시체를 구해내기 위해 과감한 용기를 발휘했다. 그리고 왕의 장례식에 걸맞도록 그들을 매장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과감한 용기가 있게 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야베스는 요르단 저 편에 있는 므낫세 반 쪽 지파에 소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벧산이 요르단 이 쪽의 반 쪽 지파에 소속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두 므낫세 반 쪽 지파들은 영적 선함이라는 같은 원리의 외적, 내적 측면을 의미해준다. 그이유가 요셉의 큰 아들로부터 나온 지파가 영적 선함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불레셋에 의해 이 쪽 성읍에서 모욕 당한 진리가 저 쪽 성읍 야베스 사람에 의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 다윗을 대우한 크일라 사람과는 매우 다르게 사울을 대우한 것이다. 의심할 바 없는 중요한 이유란 다윗의 시련은 아직 진보되어가는 중에 있었고

사울의 고난은 이제 끝장을 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첫 왕의 표현적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매장이라는 과정이다. 그이유가 매장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아베스길르앗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인 의미에서 사울을 매장할 수 있었을까? 아베스길르앗 지역 외 어디서 사울의 재가 사울에게 꼭맞는 휴식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베스 용사들의 과감한 행동은 성실하게 수행된 어떤 선한 행위도 있지 않는다는 것, 맨 처음 이식된 선은 마지막에 이식된 선에서 실감되고야 만다는 생명의 신성한 법칙을 본보기화 해주고 있다. 아베스 사람들에게 보인 사울의 영웅적 자질의 첫 왕권적 행동으로부터 사울 시체에 대한 아베스 사람의 영웅적 자질의 마지막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는 수많은 어두운 낮과 밤이 그 세월 사이에 끼여 있었다. 모형되는 품성 차원에서의 사울, 영적 마음에 적개심을 보이는 자연적 마음을 표현하는 다윗의 추격자로서의 사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자연적 측면이 죽거나 벗어 던질 때 그것은 마치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새로운 나무가 싹이 터 나온다는 것이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 그러나 사도들이 말하는 이런 구절도 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같이...” (고린도전 3:15). 주님께서 육을 입는다는 예언 중에 즈가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신다. “거기 안에 있는 삼분의 이는 잘리우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불을 통해 삼분의 일을 데려오리라. 그리고 이들을 은이 정련되듯 정련하고, 금이 연단되듯 연단하리라” (즈가리야 13:8,9). 말라기가 말한다. “그분은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다. 그는 은에서 쇠똥을 걸러내는 자로 자리잡을 것이다” (말라기 3:2,30). 사울 부자의 시신을 태운다는 것은 위와 같은 종류의 걸러냄, 순수해지게함을 암시한다.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 평범한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아니었다. 설사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 해도 아베스 사람들의 이런 조치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덜 명확해진다거나 덜 교훈적이지는 않다. 이 의미는 거듭나는 과정에만 국한된다고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인간 체험의 고된 모든 시련을 통과하신 그분에 관한 일부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이해되어야 하리라.

아베스 사람들은 시체를 화장한 뒤 나무 아래 묻고 칠 일간 단식하였다. 이 두 가지 행동은 구약 성서에서 언급되는 행동들이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고 그곳을 울음의 상수리라 불렀다 (창세기 35:8). 요셉이 아버지를 안장하러 올라 갔을 때 칠 일간 곡을 했다 (창세기 50:10). 얼핏 보기에 단순한 사건 같은 드보라의

죽음과 매장에도 주님과 거듭나는 인간에 관련된 중대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유모인 드보라는 주님께서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 이를 수단으로 그분은 유아일 때 자양분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어머니쪽에서 공급되어진 주님의 것들은 그 자체 연약하고 악한 유전적 본성이고 주님은 이 본성과 싸우셔서 그것들을 추방하시어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것이 중단되게 하셨다. 자연적인 마음으로부터 유전적인 악을 완전하고 영원히 거절함이 드보라가 상수리나무 아래 매장되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야베스에 있는 나무 아래 사울 부자의 뼈가 묻히는 것도 위 드보라의 경우에 담긴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왜 매장이 거절과 부활 모두를 의미할까? 그이유는 옛 것의 거절은 새 것의 일어남, 부활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 자신의 경우였다. 그분은 인간쪽 어머니의 생명을 내려 놓으셔서 신성쪽 아버지의 생명을 들어 올리셨다. 그이유는 “마리아의 아들이 죽을 때 하느님의 아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울의 뼈를 묻고 왕을 잃은데 대한 슬픔의 표현으로 실시된 야베스 사람들의 칠 일간의 단식은 진리와 선함을 잃은 것, 진리와 선함의 패배에 대한 통곡을 뜻한다. 이 의미는 단식이 지닌 의미 중 한 가지이기도 하다. 상응성이 없어도 유사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기름부은 자로서의 사울과 주님 자신 사이에는 유사성과 상응성 모두가 있지 않을까? 양쪽 모두 적에 의해 못박힘을 받았고 친구들에 의해 안장되었다. 주님의 경우 제자들이, 사울의 경우 신하들이 스승과 상전을 잃은데 따라 곡하고 슬퍼했다. 양쪽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기대했던 희망이 꺾인데 대해 슬퍼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바램”이 되어 왔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되도록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치뤄야 할 그가 적에게 되려 정복 당하고 만 것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그의 군대는 더 이상 존재 않는다. 요르단강 양쪽의 당황하는 이스라엘족들은 성읍을 버리고 달아나고 그들을 쫓던 적들이 진입해 점령했다. 블레셋은 기뻐 소리치고 있었다. 가장 값진 트로피, 승리의 트로피가 제 아들에 의해 받게된 블레셋의 신들은 여호와를 놀렸다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다. 자포자기해 버린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어 버린 듯 여기고 있다. 그러나 머지 않아 더 광채있는 날이 이 백성에게 밝아 올 것이다. 허나 이 시간 만큼은 단식만이 그들 상태에 꼭맞는 표현 방법이다. 영적 이스라엘도 여기서 예외는 없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마태 9:15).

# 다윗의 통치

24

사무엘하

서문 (PRELIMINARY)

사울의 통치는 끝났다. 그렇다고 다윗의 통치가 실제로 개시된 것은 아직 아니었다.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어지진 오래 되었긴해도 그의 통치는 그가 헤브론에 와서 유다 가문에 의해 왕으로 기름부어질 때까지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배자의 위치가 아직은 상속되지 않았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통치를 맡는 그 사이의 시기는 임시 정부 같은 시기라 불리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는 역사 시기의 정확함을 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아닌바, 사울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역사적 타당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에 관한 영적 요구에는 더 알맞을 것이다. 그 이유가 신성한 정부 형태에는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형태와 수준의 계승을 통과해 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연속이나 접근을 수단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진리적 신성(truth Divine)의 정부는 비록 그것이 신성한 진리(Divine truth)의 정부와 구분된다 해도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거듭나는 삶이 발전하는 동안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신성한 정부의 연속적인 상태로서 더 높은 상태는 정상적 발달 과정에 의해 더 낮은 상태로부터 발달되어 간다. 그리고 발달된 것은 그것을 생산되게 한 것 안에 배아같이 존재해야만 한다. 신성한 진리는 진리적 신성 안에 씨눈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한 선도 신성한 진리 안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마치 땅에 뿌려진 씨와도 같이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알찬 낱알이 맺힌다” (마가 4:28). 그러나 이 씨가 본래 인간 안에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된다. 참으로 인간 마음은 세 천국 처럼 자연적, 영적, 천적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든 인간 안에 배아(embryo)로 존재한다. 이것들은 도달 가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로 거듭나아가는 이들 안에서 연속적으로 열리면서 완전해진다.

첫 번째 또는 자연적 수준이 열리어 완전해짐이 사울의 통치로 묘사되고 있다. 두 번째 또는 영적 수준은 다윗의 통치로, 세 번째 또는 천적 수준은 솔로몬의 통치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준들이 열리고 완전해지는 것은 마음 안에 뿌려진 진리의 씨를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이 씨들은 모든 천국들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바, 신성한 진리 외에도 그 자체 안에 천국에 존재하는 진리의 모든 수준을 가지고 있다.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열리고 완전해짐으로 마음 자체도 열리고 완전해진다. 즉 썩, 이삭, 낱알이 연속적으로 생산되어진다.

거듭나는 인간의 위와같은 실상은 주님 자신의 경우에 해당되는 최상의 의미에서도 참으로 실상이다. 그분은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시어 비록 어머니가 인간이라 해도 여느 모든 인간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그분은 인간 마음의 세 수준에 관한 외적 덮개를 소유하셨고 우리 안에서와 같이 그분 안에 있는 이 세 수준들은 유한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세 천국에 응답되는 마음의 세 수준도 소유하셨다. 이 수준은 천사나 인간의 수준 같을 뿐아니라 신성한 마음 자체의 수준 같았는바 무한했다. 주님의 아버지쪽 인성은 그분의 자연적 인성 내부와 그 너머이고, 그분의 탄생 때부터 무한한 수용력 또는 무한을 위한 수용력이었다. 이런 수준들이 인간 발달에 따라 열리고 완전해지듯 주님의 인성은 탄생 때에는 잠재적이었다가 신성의 실재로 되어 가셨다. 주님의 영화하심도 인간의 거듭남 처럼 그분의 탄생 때부터 개시되었다. 영화하심의 첫 번째는 거듭남의 첫 번째 같이 마음의 내면에 있는 애정어린 용기 안에 선함과 진리의 아껴두실 것들을 획득하여 쌓아 놓아서 실제의 영화하심으로 발달되고 완전해지는 기본 틀(rudiment)을 형성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향하는 시리즈, 즉 첫 번째가 천적 수준, 그 다음 영적 수준, 마지막은 자연적 수준이다. 주님과 인간 모두에 관련된 신성한 작전의 하향하는 시리즈가 내적인 시리즈에서,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의 역사 안에서 묘사되고 있다. 승강하는 시리즈, 또는 배아 상태가 발달하는 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의 역사에서 기술되고 있다.

승강하는 상태의 첫 번째가 사울의 역사로 기술되었는바 우리는 여기서 그 역사를 주님의 영화하심과 인간의 거듭남에 관련하여 생각해보기로 하자. 그러나 이 주제를 특히 주님의 영화하심에 관련해서는 더욱 불완전하게 설명되어 왔다. 우리가 최대한 설명해보았자 기껏해야 우리는 인간 거듭남에 비추어 보는 것 뿐이고 그것마저 일반적이고 희미한 지식에 불과한바

주님의 영화하심에 관해서는 그 얼마나 희미한지 모른다. 그럼에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설비해두시는 신성한 일의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대단히 필요한 지식인 것만은 사실이다. 유일한 하느님으로서 주님에 관한 지식 다음으로 욕으로 계시면서 있었던 그분의 일에 관한 지식도 대단히 귀중한데 이는 성경이 밝히 알려주고 있다. 속죄(the Atonement)는 기독교회의 모퉁이 돌로서 기독교인에 의해 당연하게 존속되었다. 주님의 인성이 영화하신 것이 보상(the Atonement)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에게 일치시킴(reconciliation)으로 결과되었다. 또는 구세주로서의 주님의 인물(person) 안에서 인간 본성이 신성에 일치됨으로 결과되었다. 그리고 신성한 인성의 변형하는 힘을 수단으로 인간은 하느님에게 일치되어지고, 일치된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될 수 있다. “우리가 적이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수단으로 하느님과 일치되어졌고 일치된 이상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될 것이다” (로마서 5:10). 주님의 신성과 일치되고 영화된 인성 안에서 모든 충만하심으로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이 거주하시는 바, 이로부터 인간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들을 주님 자신의 형상으로 변형시킨다. 이 위대하고 복된 진리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의 체계를 변형시키도록 운명되어져 있다. 이 진리는 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substituted punishment), 의로움을 귀여하셨다는 것(imputed righteousness) 따위의 모든 도표(scheme)들을 쓸어내고, 최신의 기독교 신앙의 참 본질을 형성하게 한다. 그렇다고 그 과정이 부정적이고 반박뿐이요 파괴만을 일삼는 체계는 절대 아니다. 이 진리는 치워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 즉 “뚝쇠 대신 금을, 쇠 대신 은을 준다” (이사야 60:17). 그 이유가 단지 자연적일 뿐인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에 관해 영적인 관점을 주기 때문이다. 신성한 정의에 충족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stead) 고난을 겪으신게 아니라 신성한 사랑의 열망에 부응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sake) 고통받으셨다. 이 진리는 경이로운 분명함과 탁월한 아름다움의 빛에 있는 욕을 입으신 것(Incarnation)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하느님께서 인간 본성을 입고 고통을 통과해 그것을 완전해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완전해지자 이제 그분은 삶을 통하여 인간들을 이끄심으로 인간을 완전해지게 하고 그분 자신이 지상에 살았던 삶의 형상 까지도 만드실 수 있다. 그렇다고 지상에서의 주님의 일이 그저 인간에게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데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교리는 아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인간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완전한 본보기를

따라 갈 힘과 의지였다. 이것들이 인성의 영화하심으로 설비된 것들이다. 주님의 영화된 인성은 인간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자극하고 가능케 하는 영원히 현존하는 힘이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신성한 인간의 삶에 의해 획득한 것에는 모든 공적과 정의가 포함되고 있다. 참으로 주님의 인성은 공적과 정의를 함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적과 정의이다. 계명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간은 그의 심정에 하느님의 법을 새긴다. 주님은 계명에 따라 살으셔서, 계명 자체를 살아내셔서 율법 자체가 되셨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된 것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도 참되다. 가장 큰 의미에서 율법은 말씀 전체를 뜻한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바깥쪽으로 까지, 모든 수준을 망라해서 글자와 영 모두를 총망라하셨다. 그리하여 주님은 최말단에서의 말씀이 되셨다. 마치 영원으로부터 그분은 첫 원리가 되시어 왔던 것과 같다. 이를 두고 모세는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명기 30:14). 이에 관해 주님 스스로 이렇게 말하셨다. “내가 마지막까지에서 조차 너희와 함께 있다” (마태 28:20).

다윗이 통치하는 역사에서 우리는 사울의 통치 역사에서 소유했던 것보다 인간의 거듭남과 주님의 영화하심의 더 진보된 수준을 내적 의미에서 갖게 된다. 이것은 이미 말했듯이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신 과정을 묘사한다. 다윗은 신성한 진리, 또는 주님의 인성 안에 있는 신성한 영적 원리(the Divine-Spiritual principle)로서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가는 의미에서 다윗은 영적 인간을 표현한다. 그의 통치 역사는 인간이 영적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동안, 또는 마음의 영적 수준이 완전해지는 동안인 거듭나는 삶의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열렸다(opened)는 단어를 사용해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적 마음이 열림은 사울이 죽기 전 오래 전부터 기름부은 왕으로 되어 있었던 다윗의 주변 사정에 의해 표현되어 왔던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영적 마음에 관련되어서 자연적 마음 안에는 세 가지 다른 상태들이 있다.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이들과 함께 서로에게 이어지는 것으로 상상될는지 모른다. 영적 마음이 닫혀 있는 때의 자연적 마음의 상태가 있고, 영적 마음이 닫힌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열려 있다고 잘라 말할 수 없는 때의 자연적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영적 마음이 열려 있는 때의 자연적 마음의 상태가 있다.

우리는 다윗의 통치가 표현하는 거듭나는 삶의 과정을 시리즈로 기술하는 측면에서

다윗의 역사를 살펴가도록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부터 우리는 신성한 통치권자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거듭나는 삶을 통해 발전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도해 줄 영적 가르침과 실용적 교훈의 얼마 정도는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 25

### 사무엘하 1장 1-16절

####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다

다윗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아 길보아에서의 참혹한 전투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시글락에 되돌아 온 후 사흘째 되던 날 한 사람이 “옷이 찢기고 머리는 흠투성이가 된채 찾아 왔다. 그가 다윗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왔다. 다윗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서 말하라고 다그치자, 그는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울과 요나단 부자가 전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다윗의 질문에 젊은이는 응답했다. “저는 길보아 산에 올라 갔다가 사울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뒤쫓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뒤돌아 보고 제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대답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하자 저더러 어서 와서 죽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목숨만 붙어 있을 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다 다시 일어나 사실 것 같지 않아 다가가서 그의 목숨을 끊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썼던 왕관과 팔에 끼었던 팔찌를 벗겨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관해 위 서술과 사무엘상 31장의 서술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앞 장의 경우 젊은 아말렉 사람에 관한 서술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상하기를, 그의 이야기는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고 있어 그가 좋아하는 쪽으로 꾸며낸 이야기일거라는 것이다. 어쨌든 그의 이야기는 앞에서의 대화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보충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비록 사울이 자결을 시도했다 해도 숨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 그는 자기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랬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거룩한 성경 기자는 이런 문제에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대목도 진실로서 수용하여야 하리라 본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손으로 그의 죽음을 받는다는 것은 슬픈 어떤 것 뿐아니라 의미심장한 것이기도 하다. 아말렉은 사울의 군대가 공격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 있었다.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관대하게 처리한 실수로 주님께서는 그의 왕국을 그로부터 찢어내시리라고 맹세하셨고, 지금 그는 그의 생명과 왕국을 그로부터 박탈하도록 숙명의 종족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초대하고 있다. 하느님의 왕국에는 마치 씌어 있는 말쑥에서 처럼 응보(retribution)의 법칙이 있다. 신성한 마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창조물을 다루심에서 통상적 의미에서는 응보하는 정의는 없다. 그러나 선과 악은 각각 그것들을 실시한 이들의 품으로 되돌아 간다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질서의 법칙이 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나, 어쨌든 악은 그것의 영원한 거처로서 악행자의 품으로 돌아 간다. 후회하는 사람(the repentant)에게 악은 심판의 길에서 복수하는 영으로 되돌아 온다. 그것은 사울에 대한 아말렉 사람 같이 부패한 이기심이 종료하는 불의 마지막 불꽃을 끄러 온다. 심판에서, 저 세계 뿐아니라 이 세계에서도 모든 상태들은 마치 역사당한 사람의 기억이 되돌아 오듯 한다. 이런 상태들이 나타날 때 마음은 그들 위에 심판이 지나가게 한다. 의로운 것은 남고 정죄되는 것은 사라진다. 마음 자체가 그 자신의 상태를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 심판자이시다. 그러나 신성한 심판자는 외적인 증거에 의해 심리하기 위해 바깥쪽 빗장 앞에서 인간을 부르시지 않는다. 이 빗장(bar)은 양심이고, 심판자란 영원한 진리이다. 증인은 삶의 법을 위반했거나 잘 따랐거나 하는 것에 대한 내향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 이유는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심판하기 때문, 또는 그분의 진리를 수단으로 우리는 자신을 심판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련을 통과해 가는 동안 악은 선으로부터 분리되고, 참회하는 죄인은 자기 위에 재앙이 떨어지라고 간구한다. 마치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고 아말렉 사람을 초대한 것과 같다. 죄에 대한 참회의 가장 진실된 표시 중의 하나는 자책하는 것이다. 특히 하느님 앞에서 죄지었음바 깊이 고뇌하면서 양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죄 자체가 더욱 미워질수록 죄로 인한 대가, 보복은 받아 마땅하다고 더욱 느낀다. 응분의 보답을 진정 느끼면 저주는 축복으로 변한다. 그이유가 속죄의 염소(scape-goat)같이 죄를 광야에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였을 뿐아니라 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왔다. 고대시대 때의 경우 왕은 왕관을 쓰고 팔찌를 끼었는데 전자는 지혜를 상징하고, 후자는 권능을 상징했다. 우리는 자연적인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대체해보게 되면 악과 거짓에 대항해 방향지위

주는 영적 지혜와 권능의 상징물을 그것들 안에서 보게 된다. 왕관과 팔찌가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섭리적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은 그 왕관과 팔찌가 표현했던 원리들이 자연적 수준의 마음에서 영적 수준의 마음으로 승강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리적 신성이 신성한 진리로 승강된 것도 표현해주고 있다.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의 운명을 전했을 때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부하들도 자기들의 옷을 잡아 찢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여 해질 때까지 통곡하며 탄식하였다.” 여기서도 다윗의 품성은 독특한 광채를 내고 있다. 비록 다윗이 자기를 박해하여 쫓아 다니었던 적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르게 된다고 느꼈다 해도 그런 일로 그의 야망이나 원한이 흡족해 하는 느낌을 우리로 전혀 갖지 않게 하고 있다. 오히려 더욱 진실됨으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의 죽음을 애도하고 특히 사울의 운명에 슬퍼하고 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보여준 슬픔의 몇가지 점들은 더 깊은 슬픔으로 들어가는 애정들을 상징한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의 옷을 잡아 찢었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가 잃어진 탓에, 이타애와 분리된 믿음을 지닌 이들에 의해 그 진리가 내침을 당한 것에 슬퍼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이유가 왕권직은 신성한 진리를, 불레셋은 이타애와 분리된 믿음을 지닌 이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통곡함(mourning)은 심정의 슬픔을, 울음(weeping)은 지성의 슬픔, 또는 의지와 이해성의 슬픔이다. 탄식은 교회와 교인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을 지탱시켜 주는 선함과 진리의 상실로 슬퍼함이다. 해질 때까지란 교회의 끝, 또는 슬픔의 영적 상태가 끝남이다. 이미 말했듯이 모든 끝남에는 새로운 시작이 그 뒤를 잇는다. 교회가 멸해질 때 새로운 교회가 그것 대신 일어나진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들의 삶에 있는 모든 상태의 끝남은 더 높고 더 나은 규모에서 승강하는 또다른 상태로 계승되어 진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과 그의 군대의 운명에 통곡해 우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또다른 광경이 이제 그자체 표출되고 있다. 연약한 듯 통곡함에서 사나운 듯 매서움으로 쉽게 감정이 바뀌는 광경은 성경으로부터 판단한다면 유대주의의 품성을 점철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외적 인간의 특성을 많은 적든 나열했다. 지금 다윗은 슬퍼하는 자의 연약함으로부터 원한을 갚으려는 열정쪽으로 건너가고 있다. “그는 젊은 아말렉에게 ‘네 놈이 어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대어 야훼께서 기쁨부어 세우신 이를 살해했던 말이나?’ 하고 꾸짖고 나서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저 놈을 쳐죽여라’ 하고 명령했는바, 부하가 그를 쳐죽였다.” 아말렉, 비록

그가 사울이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데 실제로는 그의 탓이 아닌 것 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국왕을 시해한 자로서 죽어 마땅했다. 그이유가 그것은 주님께서 기름부은 자를 죽이는 죄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잘 알았어야 했다. 우리의 번역에서 아말렉은 낯선 사람(stranger) 이라 불린다 해도 그는 체류자(sojourner)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에 붙어 살고 있는 바, 이스라엘의 법과 관습을 익혔을 기회가 다분했다. 그는 교회의 원리로 가르쳐지기를 바라는 사람을 표현했다. 진리로 가르쳐졌는데 그 진리를 파괴할 경우 그는 죄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죽어가는 아말렉에게 말한다. “네가 죽는 것은 네 탓이다. 너는 네 입으로 야훼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이를 죽였다고 증언했다.” 이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란,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파괴하는 사람은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그는 자신 위에 파멸을 자초했다. 그의 피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 그이유가 그의 입이 자신이 죄있음을 말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뱀은 말로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정죄도 되리라.”

이런 일반적 교훈 외에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몇가지 세부사항이 있다. 마치 아말렉은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봉사한 것 처럼 보인다. 그는 죽어가는 왕을 죽여줬고 왕권적 표시물을 신성하게 임명된 계승자에게 가져왔다. 그런데도 그는 죽임을 당했다. 이런 간단한 사실에서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연적 측면을 죽이면 영적 측면에 의해 되돌아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왜 이것이 사람을 죽인 죄로 복수하는 행동으로 대화체에서 표현되었을까? 이 질문은 아말렉의 품성이 답해준다. 아말렉은 내면의 악에 바탕을 둔 거짓을 표현한다. 이 거짓은 마음이 심각한 시련과 시험으로 고통받아 기진맥진할 때 마음을 훔친다. 마치 우리의 육체가 열악한 환경에 있게 될 때 어떤 병이 우리의 나약해진 부분에서 돌출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위의 예에서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울은 그의 마지막을 고하는 전투에 참전했고, 다윗은 아말렉을 뒤쫓아 소탕하고 돌아왔다. 사울의 조건과 그가 표현한 품성과 그 자신의 자연성에 알맞는 때에 길보아 산에서 젊은이와 마주치는 기회가 발생했다. 그는 사울 뒤에 있었는데, 마치 그의 선조들이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접근하여 습격했던 것과 유사하다(신명기 25:18). 내면적인 악의 거짓은 앞쪽에 있는 이해성에 들어가기 보다는 뒤쪽에 있는 의지 안으로 잘 진입한다. 사울은 뒤를 보았고, 아말렉 청년을 보았다. 마치 주님께서 뒤돌아 베드로를 쳐다 보았던 것(누가 22:61), 요한이 자기에게 말하시는 음성을 보기 위해 뒤돌아 본 것(계시록 1:22), 등등과 같다. 의지로 들어가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방향으로 이해성을 돌아서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지성으로 의지가 느낀 것을 지각하게 할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사울의 이해성은 나약해진 시련의 때에 악의 본성을 보도록 열리워졌다. 젊은 아말렉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는 과거 아각이 사무엘에게 친근한 듯 나아왔을 때와 엇비슷한 태도로 왔다. 참으로 그는 다윗의 친구로서 왔다. 마치 그가 사울에게도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의 표징적 품성은 다윗이든 사울에서이든 똑같다. 이것은 그가 다윗에게 죽은 사울의 왕권과 팔찌를 가져온 태도에서까지 보여주고 있다. 아말렉이 표현한 악 - 일반적으로 악은 추상적 존재가 없기에 오히려 악령이라고 말해야 마땅한데-, 악령은 그 자신을 인간의 심정에 은근히 심는데 이는 인간 심정이 품는 포부의 대상을 통해서 주입한다. 마치 왕권의 표시물이 당연히 다윗에게 있어야 하는 듯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그 표시물이 표현하는 영적 원리를 통해서까지 악령을 주입시키려 한다. 악령들, 악인 처럼 자기의 품성이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비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단지 상징물에 불과하였지만 지식, 지혜, 명예 자체들을 소유할 수 있다. 마치 왕권과 팔찌가 그들의 왕권적 소유주의 권능과 위엄을 지녔던 것과 같다. 이것들을 통해 악령들은 자기들이 부추키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서 행동을 개시한다.

우리는 영적 의미의 바탕에서라면 왜 다윗이 죄없는 듯 보이는 아말렉 청년을 죽였는가에 대한 영적 이유를 볼 수 있다. 영적 교훈을 가르치거나 영적 진리를 표현해내기 위해 자연적 불법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적 원인들은 자연적인 모든 결과의 뿌리에 놓여 있다. 그리고 비록 그 결과가 원인에 속한 품성과 다른 듯 보여진다 해도 거기에는 계속 그들 사이에 진짜 관계가 존재하고 모순된 듯 보이는 바깥쪽 껍질은 하모니가 뚜렷이 결핍되어 생산된 것이다.

## 26

### 사무엘하 1장 17-27절

####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통곡하다

다윗 자신의 개인적 감정과 느낌의 표현으로 생각되는 이 본문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의 애가는 어느 언어에서도 발견되기 힘든 가장 고상한 애정이 스며있는 애가 중의

하나라고 인정되고 있다. 이 애가는 다윗 자신의 신망을 드넓히고 높혀 주었다. 사울이 다윗의 소중한 친구였다더라면 그의 죽음에 이런 애가가 표현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또한 사울이 존경할만한 상대자이기만 했어도 이 애가의 표현에 우리의 관심이 덜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울은 비겁하고 야비한 다윗의 적으로 수년간 그를 괴롭혔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볼 때 사울을 향한 다윗의 애가는 가장 높은 칭송을 받을 가치가 있다. 다윗이 사울을 두고 그는 주님께서 기름부은 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이 찬양은 사울의 개인적 품성에 대한 것이라는데 더욱 놀라웁다.

내적 의미에서 사울과 다윗 모두는 그들의 표본적 품성으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게 있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둘 다 왕으로서의 주님 자신, 그리고 신성한 진리로서의 왕이신 주님에 대한 예징(type)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하셨고, “네가 왕이냐?”는 질문에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신다음 즉각 설명을 이렇게 추가하셨다. “나는 오직 진리(the truth)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사울과 다윗 모두 진리로서의 주님을 표현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그의 애가에서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묘사는 영적 의미에서 진리(the Truth)를 묘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해해볼 때 이 서두, “다윗은 활의 사용(use of bow)을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이 야살의 책에 씌어있다”에 대한 의미나 특유함을 파악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본다. 얼른 읽기에는 이상한 서문 같이 보이지만 그것의 의미와 의도에 관한 주석자들의 추측으로 혼란해질 필요는 없다. “씌어 있다”고 말한 그 책은 신비스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야살은 고대 교회(ancient Church)의 책인데 이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의 상응을 수단으로 씌어졌는바 자연적인 형상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는 책이다. 성경의 상징적인 언어는 이 법칙에 의거 기록되었는바 활(bow)은 교리(doctrine)와 상응된다. 화살(arrow)은 진리와 상응되는데 특히 거짓에 반대하는 진리와 상응된다. 그리고 진리들은 교리로부터 진행되어 나가고 힘을 갖는다. 마치 화살이 활로부터, 또는 돌이 투석기(sling)로부터인 것과 같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조가와 유다 백성에게 활을 가르치는 것과는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일까? 진리를 밝히 알게 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 사이는 똑같은 연결이 있다. 종교적 교리는 한 가지 주제에 관계되는 말씀 속의 모든 진리로부터의 결말이다. 마치 과학의 교리가 자연의 사실들의 한 가지 종류로부터 오는 결말인 것과 같다.

진리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악에 저항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효과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야 하되 날개로, 뿐만아니라 병합해서도 알아야 한다. 말씀(the Word)은 모든 종교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은 교리없이 이해되지 않는다. 교리가 없으면 마음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관해 희미하고 혼동된 상태밖에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대목에서 유다는 활을 배워야한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the Church)가 말씀속의 진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리를 배워야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리하다. 여러번 살쾅듯이 말씀의 상당한 분량은 가상의 진리(apparent truth)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진리가 교리에 의해 설명되지 않으면 진짜 진리로 확증하여 채택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진리는 오류(error)들이 되고 만다. 교리는 성경의 진짜 진리(real truth)로부터 형성되어진다. 이 진리가 교리적 형체를 가질 때 성경의 가상의 진리들을 설명해준다. 진리와 교리 사이의 이런 구분, 그리고 말씀의 진짜 진리들로부터 교리가 형성되는 것이 본문의 신성한 작문에서 상징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사울과 요나단 모두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이는 마치 신성한 진리가 말씀의 글자 안에 있는 모습과 같다. 그러나 사울은 성경의 가상의 진리를, 요나단은 성경의 진짜 진리를 표현한다. 이와 일치되게 사울은 칼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이유가 칼은 진리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유다에게 활이 가르쳐져야 한다고 말해지고 있는데 그이유가 유다는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구별된다. 또는 천적 수준과 영적 수준의 구별과도 같다. 천적 수준은 사랑과 이타애의 교리만을 가르치는 말씀 속의 진짜 진리 만으로부터 바랄 수 있고 획득될 수 있다. 이것이 활로 의미된 교리이다. 따라서 유다에게 활을 가르치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이타애의 교리를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것 역시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애가의 주제를 파악하는 열쇠가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서두는 주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불레셋이 파괴한 것과 유다를 가르치라고 한 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 애가를 살피면서 발견하리라 본다.

다윗의 애가에서 우리는 사울을 두고 연약하고 잘못투성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이 아닌 주님께서 기름부은 사울로서, 첫 번째 아담에 대단히 가까운 형상으로서가 아닌 두 번째 아담의 표본으로서 사울을 간주하게된다. 거듭나는 사람에게서 이런 구분되는 상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비록 기독교인은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고 말해질지라도

거듭남이 영과 육의 구분을 파괴하지 않는다. 부패된 이기심은 폐지되는게 아니라 복종되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를 섬기려하는 동안 자신 안에는, 즉 자기 육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않다는 것은 알게 된다 (로마서 7:18).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으로서, 사울과 요나단 모두를 용사로서, 정이 두터웠던 자로서, 독수리보다 날쌔고 사자보다 힘이 센 자로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는 강력해서 요나단의 활은 꼭 피를 보았고, 사울의 칼은 꼭 적군 용사의 기름기를 묻히고야 말았다고, 그의 백성에게 은덕을 베풀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주홍색 옷을 입혀주고 그 위에 금장식을 달아 주었다고 칭송하고 있다.

사울을 칭송하는 다윗의 언어나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상은 이스라엘의 기름부어진 왕으로서 표현한 주님의 아름다움이나 권능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보든지, 즉 우리의 유약한 인성으로 베일이 쳐진 그분의 인물 측면에서든지, 또는 구속과 구원이라는 그분의 일에 관해서이든지 미약한 비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왕국의 적들을 정복하셨고 그분의 은총과 진리의 고귀한 선물로 그분의 교회를 장식하여 풍요롭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기름부는 왕으로서의 사울은 신성한 진리 측면의 주님을 표현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신성한 진리가 파괴됨이 이 애가의 일반 주제이다.

그러나 위 주제보다 수준 낮은 문제의 해답을 산출해 보는 것, 즉 거듭나는 자, 거듭나는 일에 관한 열쇠의 발견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 사항들은 주님께 관해서, 그리고 육안에서의 그분의 일에 관해서뿐 아니라 주님께서 거듭나는 모든 사람의 각각 안에서 그들의 본성 속의 악들로부터 해방되는 작업을 수행하시어 삶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이 과정은 주님께서 어둠의 권능을 극복하시고 그분 자신의 인성을 영화하시고, 천국을 정리정돈하시고 지상에 영적 교회(spiritual Church)를 건설하시는 것과 비슷하다. 육으로 계셨을 때의 주님의 일들은 유한한 척도에서, 참된 모든 제자 안에서 새로이 건설되고 있다. 더 위대한 일이 덜 위대한 일의 원형(archetype)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함으로 신성하게 된 진리, 또는 사랑의 기름이 부어진 참된 믿음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beauty)이다. 그이유가 이것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고, 지혜와 정의의 아름다운 옷인 이타애의 애정을 옷입히고, 실제적 진리의 주홍색 실로 짜깁고, 실제의 선함이라는 금장식을 달아주어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품위(grace)가 무엇이든, 인품을 장식해주

는 덕행이 무엇이든간에 그것들 모두는 우리의하느님 구세주로서 그분을 믿는 생명있는 믿음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진다. 그리고 그분의 선물로서, 그분의 완전함의 형상으로서 칭찬되고 드높여진다. 사랑으로 생명을 불어 넣은 믿음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듯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랑은 용사(the mighty)이다. 그이유가 진리의 칼과 교리의 활로 이해성과 심정 안에 있는 원리는 참되고 선한 것에 대적하는 악하고 왜곡된 것을 정복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이타애의 교리인 참된 교회의 교리는 악과 거짓된 것과의 싸움에 나갔다 하면 그 피를 보지않고는 되돌아 오지 않는 활이요 그 기름기를 묻히고야 마는게 교리 속의 진리라는 칼이다.

이상이 주님의 기름부은 자 사울에 대한 다윗의 찬양의 영적인 바탕이다. 이제 기름부어진 왕이 표현한 참되고 생명있는 믿음의 특출함이 불레셋으로 예정된 왜곡되고 죽어있는 믿음에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참된 믿음을 마음의 진정한 위치로 드높이고, 생활의 행동과 목적의 통치에 그 영향력이 미치도록 허용할 때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 이 참된 믿음으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영원히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안에 “교활함이 조금도 없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요한 1:47)으로 예수의 참된 제자임을 표시해준다. 그 이유가 그분을 여호와의 기름부은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실지로 인정하는 이들과 어느 누가 주님의 이스라엘 사람이겠는가? 라는 질문 때문이다. 주님이 실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는 때란 그분의 법이 심정에 썩어지고 생활로 순종될 때,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들의 애정과 생각, 말과 행동이 그분의 사랑과 진리로 통치되게 할 때, 율법과 예언의 영인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를 주님을 위해 남에게 해줄 때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법이 규율하는 곳을 통치하신다. 그분의 법이 드높혀지는 곳에서 그분도 드높혀지고, 그분의 법이 성취되는 곳에서 그분도 영화되신다. 사랑과 진리의 신성한 주님의 법 아래 거룩함을 입는 이들의 상태와 품성은 그 얼마나 아름다울까? 진리와 사랑은 신성한 법 안에서 하나되고 그 안에 담겨있다. 마치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정이 두터웠고 죽어서도 갈라지지 않았던 것과도 같다. 죽음도 정이 두터웠던 그들의 삶을 가를 수 없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감정을 개인이든, 원리에 적용하든 마찬가지이다. 참된 것과 선한 것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스러운 연결로 하나된 이들, 특히 이것이 두 남녀간에 존재할 때 죽음으로도 분리될 수 없다. 그들의 하나됨은 주님과 참 신앙자의 영혼 사이와 같이 고정되어 분리될 수 없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한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로마서 8:35-39). 기독교인의 삶이 주님을 사랑함,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이타애, 주님 스스로 밝힌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역시 사랑하라”(요한 13:34)는 영적인 법칙을 충실히 배긴 것이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울까! 서로 사랑하는 것, 나 자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옛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이다. 나 자신이 아닌 예수가 서로 사랑함의 표준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 사셨다.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기쁘게 내놓을 수 있는가? 이것은 참된 사랑일뿐 아니라 참된 믿음이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고 용사이기도 하다. 사랑으로 물들여진 믿음은 이름답고 믿음으로 일하는 사랑은 강력하다. 믿음이 사랑으로부터가 아니면 아름다움이 없다. 사랑은 믿음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면 힘이 없다. 이 둘이 분리될 경우 그 둘은 아름다움도, 강력한 힘도 없다. 믿음만의 종교는 신앙의 아름다움과 강력함을 주는 요소들이 결핍된 종교이다.

다윗이 이 얘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 통곡한 악과 재난은 이것이다. 블레셋이 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살해했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이 광폭함이라는 그들의 도구에 의해 떨어졌다. 생전에 두터운 정을 갖고 있었고,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힘세던 이들이 오류와 악과의 싸움에서 함께 죽고 말았다. 믿음만의 종교가 갖는 파괴적인 본성과 그 결과가 위와같이 풍부한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다. 믿음이 진정한 상태라면 그것은 이타애의 길잡이요 방어벽이다. 그러나 악에 대처하는데 보호벽이요, 선을 수행하는데 안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그 자체 안에 구원하는 모든 권능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그것은 종교 안에 있는 구원해주고 생명있게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것이 다윗의 애처로운 애가 안에 상징적으로 묘사된 세부사항에 있는바 그 중 일부라도 시선을 모아본다면 더 명백히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용사는 쓰러졌구나!” 산 위(high place)란 마음의 내면에 있는 애정이다. 이 내면적 애정은 성경에서 높은 장소(high place)로, 특히 산(mountain)으로, 이 본문의 역사일 경우 길보아 산으로 표현되고 있다. 의지는 마음의 자질 중 가장 높다. 의지에 애정이 자라잡고 있다. 성경, 그리고 대중적인 언어로 의지는 심정(heart)이라 불리운다. 신성한 법이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애정으로 사랑되어질 때 그 법은 심정에 식어진다고 말해진다. “네 마음(heart)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명령되고 있다. 이는 의지와 의지의 모든 애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믿음이 가장 높은 상태일 경우 그것 역시 심정 안에 놓인다 이것은 살아감의 높은 장소이고 실지의 믿음(practical faith)이다. “사람은 심정(heart)으로 믿어 정의에 이른다” (로마서 10:10). 믿음과 하느님을 사랑함이 애정 안에서 소진될 때, 그리고 그분의 법이 심정으로부터 말할될 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산 위에서 죽어지고 강력한 힘은 땅에 꺼꾸러진다. 이것이 성령에 이끌린 다윗이 애도한 죽음과 쓰러짐이다. 그리고 그는 외친다. “이 소문을 갖에 알리지 말라, 아스클론 거리에 퍼트리지 말라. 불레셋 계집들이 좋아하고 오랑캐 계집들이 좋아 날뿔라.” 글자적 의미 측면일 경우 위 문장은 실제의 소원사항이라기 보다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이유가 전투소식이 이미 불레셋 전역에 퍼졌다고 다윗이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생각이 성경에서는 종종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시어 그분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함은 백성의 재난을 듣고 기뻐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을 방어해주시는데 그들의 하느님이 무능력하다는 증거로서 삼지 않도록 표현되어졌다. 이 생각은 또다르고 더 높은 것에 대한 기초이다. 내적 의미에서 국가(nation)들은 자연적 마음의 악한 애정과 왜곡된 생각들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영적 마음, 또는 영적 인간의 선한 애정과 참된 생각들이다. 자연적 인간이 영적 인간에 반대할 경우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다. 이 힘 겨루기는 영적 인간이 자연적 인간을 누르든지, 자연적 인간이 영적 인간을 누르든지 해서 결판이난다. 이 시험의 결과는 대단히 중대하다. 더구나 마지막 시험일 경우 그것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에 대해 통렬히 애도한 것이다. “이것을 갖에 알리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 퍼트리지 말라”는 외침에는 깊은 영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이유는 승리 자체보다 더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승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적이 따냈다. 그 소식을

갓에 말하는 것, 아스클론 거리에 퍼트리는 것, 그 승리에 불레셋의 딸들이 의기양양해 하는 것은 또다른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것들은 갓과 아스클론, 불레셋의 딸이 지니는 영적 의미로부터 알려질 것이다.

불레셋의 제일가는 두 성읍은 한 때 이스라엘 후손이 점령하고 있었다. 판관 시대 때에 유다 지파가 아스클론을 차지하였다 (1:18).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불레셋에게 빼앗겼던 에크론과 갓 사이의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다” (사무엘상 7:14). 그러나 그 성읍들의 소유는 다시 불레셋에게로 건너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성읍들은 교회의 참된 교리가 거짓화되었음을 표현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고 불레셋이 와서 거주한 모습이다. 말씀의 두 제일가는 교리들, 즉 참된 교회의 근본되는 두 교리는 하느님을 사랑함과 인간에 대한 이타애의 교리이다. 이 교리들 또는 생명의 이 법칙은 구원의 조건이다. 그이유가 그 교리들이 야말로 구원해주는 참된 품위(grace)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과 인간을 향한 이타애가 대용품으로 삼는 것 말고는 폐지되어져도 괜찮다고... 단지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길 때 위 두 교리는 왜곡되는바, 아스클론과 갓이 불레셋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 된다. 거짓화된 진리는 단순한 잘못과는 달라 성질이 다를뿐 아니라 원수이다. 왜곡된 진리는 진리를 미워하라고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진리에 맞서게 했었던 자연적 인간 속의 추론과 오류가 승리했다고 인정된 듯 보일 때 기뻐날뛴다. 주님의 강림 시대 때에도 진리를 뒤집어 만든 전통을 핑계로 하느님의 계명을 무효하게 해버린 유대인 속의 불레셋도 진리 자체이셨던 그분의 인물 안에 있는 진리를 파괴했다고 좋아 날뛰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함이라는 두 교리를 증언했던 두 증인이 사랑 또는 일함이 없는 믿음의 예징이었던 짐승에 의해 주었을 때 “지상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교환했다. 그이유가 이 두 예언자는 땅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괴로운 존재였기 때문이다”(계시록 11:10). 영적으로 죽인다는 것은 부정하고 거절하고 파괴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죽인 것에 기뻐함은 부정의 상태에 마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런고로 다윗은 불레셋의 딸들이 기뻐 날뛰지 않도록 사울이 죽은 것과 이스라엘이 패배한 소식이 적들의 성읍에 퍼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다. 특히 진리의 부정은 의지의 애정이 이해성의 결정에 응답할 때 확증되어진다. 의지의 애정들이 딸들로 의미되고 있다. 이 애가의 경우 불레셋의 딸인바, 그녀들은 왜곡된 것의 애정들, 할례받지 않은 자(오랑캐)의 딸들은 악한 것에 대한 애정이다. 참된 것의 확증된 부정이 불레셋의 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선한 것을 확실히 거절함이 오랑캐의 딸이 기뻐 날땀으로 의미되고 있다. 이해성 안에 있는 진리와 선함이라는 원리를 부정함이 의지의 애정에서 확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주님의 바램인데 이것이 다윗의 바램으로 표현되었다. 그분의 사랑이 바래듯 그분의 섭리는 인간으로 그 심정이 확증하지 않도록, 회복의 가능성과 희망이 절단되게 하는 심정의 확증이 있지 않게 예방하는 작전을 펼치신다.

마음에는 두 상태가 있는데 그들은 친척 관계에 있는 한편 이쪽이 저쪽을 이끌 때가 자주 있다. 그럼에도 그 둘은 구별된다. 악이 사랑되어지고 실제화되는 한편, 그의 신앙은 죄있음의 상태에 있고, 그 결과로 공포가 은밀히 숨어 있는 것이다. 또다른 상태는 죄의 자각과 그 결과인 공포를 넘어 버린 것, 그래서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경종을 울려주었던 자기 속의 더 나은 생각과 느낌이 패배되고 죽어버린데 대해 그의 애정이 기뻐 날뛰는 상태이다. 이것은 불신앙이 확고해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 전투는 끝난 셈이다. 심정과 지성 안에 있는 선하고 참된 것의 힘이 이지러지고 있는 상황을 넘어 아예 정복되었다. 이 소식이 갓에 알려지고 아스클론 거리에서 공포되어 불레셋의 딸들이 기뻐하고 오랑캐의 딸들이 좋아 날땀다. 이것이야말로 신성한 사랑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지혜는 가능한 모든 설비를 이에 대항해 놓으신다. 이것이 영감을 받은 다윗에 의해 “갓에 알리지 말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한 산 자체가 저주(imprecation)의 주체가 되어 버렸다. “길보아 산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제물을 내주는 밭도 없으리라. 그이유가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는 하찮은 듯 내던져졌고,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도 않은채 버려졌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악의 결과는 악담(malediction)의 형태로 자주 발표되어진다. 그렇다고 해도 하느님은 어떤 저주도 만드신 분이 아니다. 죄가 그 죄를 지은 이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저주를 유발한다. 본문의 경우 저주는 살육의 광경에 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이스라엘 교회의 처방에 관한 형상이 되도록 그 처방의 섭리(economy)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길보아 산에 떨어진 저주는 진리와 하느님을 사랑함이 파괴된 심정 또는 의지의 상태에 관한 묘사이다. 하늘로부터의 이슬과 비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서 원기를 북돋아주고 결실을 맺게 해주는 천적, 영적 수준의 진리이다. 그리고 제물을 내는 밭이란 주님께 바쳐지는 사랑과 이타애라는 좋은 것들이다. 마치 겸손하고 잘 받아 들이는 마음에 내려와지는 값없이 주시는 복된 그분의 선물의 열매와 같다.

그러나 이 구절은 위와 반대되는 마음의 이런 조건, 심정이 하느님에게서 돌아서고, 영적 마음의 하늘이 닫혀있어 주님의 교리가 자연적 마음 위에 비가 내리듯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그분의 영이 가랑비나 이슬이 풀 위에 내려 앉듯 더 이상 스며들지 못하는 때와 같은 심정 상태도 묘사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그 마음은 타는 듯 열기를 품어내는 땅, 아무도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간다. 심정에 영적 사랑이 없을 때 이해성에 구원해주는 진리도 없다. 거기에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없다. 거기에 신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은 없다.

길보아 산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용사의 방패가 헛되이 내동댕이쳐져 있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이 부어지지 않은채 있었기 때문이다. 용사의 방패가 쓸모없이 내뒹구는 때란 선을 방어하는 진리가 경멸당하고 거절되는 때이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칠도 않은채 있었다는 것은 진리가 사랑과 아무 관련도 없는 듯, 또는 그 관계가 부정되어 취급되는 때이다.

이러므로 다윗은 애처로운 애가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블레셋과의 관계로서 주요하게 말하고 있다. 그다음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에 관련하여 말한다.

다윗은 블레셋의 딸들이 사울의 죽음에 기뻐하지 않기를 바랐다. 지금 그는 사울을 위해 이스라엘의 딸들이 슬피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딸은 블레셋의 딸에 반대된다. 그들은 진리의 애정들이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진리가 파괴된 것에 통곡하라고 권면되고 있다. 통곡함은 슬피움을 수단으로 한다. 이 슬피움(weeping)은 진리가 멀해진 이유로 인한 슬피움에 대한 상징이다.

이를 영적 삶의 시련들을 통과해 가는 이들의 내향의 상태에 적용해보자. 기독교인의 체험에 삭막한 상태라 불리는 상태가 있다. 빛과 희망이 떠난 듯 보여질 때, 생명의 기쁨이 죽어 나간 듯 여겨질 때가 그런 상태이다. 이 상태가 슬피우는 때이다. 다윗은 이런 상태를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묘사하고 있다. 시편 6편을 읽어보자. “야훼여! 노여우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말아 주소서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말아주소서.”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사랑하신 이들을 견책하고 매도 드신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매를 맞기에 앞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주체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주님의 견책과 매를 맞는 가운데 있는 그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울다 눈이 안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이 슬픔은 잘 나가던 이전의 즐거운 상태를 회상함으로 더 통절해지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의 딸들이 자기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장식을 달아 주었던 사울을 생각하며 통곡하라는 것과 같다. 독실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가진 이 통곡은 고통받는 영혼을 주님께로 가져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리라. 이는 내 딸이라 어감이 없다. 울며 돌아와 저희의 하느님, 야훼를 찾으리라 (예레미야 50:4). 통곡하는 이들이 깊이 누우셨다면, 주님께서서는 재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고,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신다(이사야 61:3).

길보아 산에 마구 쓰러진 자들 중에서 요나단이 특별히 거론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오. 형은 나를 즐겁게 해주더니. 형의 그 남다른 사랑, 어느 여인의 사랑도 따를 수 없었는데.” 참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굉장했다. 가치있는 표본되는 사랑은 다윗이 표현했던 주님을 사랑함, 그분이 가르친 진리를 사랑함이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말씀의 글자와 영 사이에 존재하는 하모니와 통일성에 바탕을 둔 사랑, 즉 글자 속의 진짜 진리와 영 속의 순수한 진리 사이, 똑같은 것으로 말씀의 글자 의미로부터 뽑아낸 교리와 말씀의 영적 의미에 포함된 교리의 필수되는 원리 사이에 존재한 하모니에 바탕을 둔 사랑이다. 이런 관점을 병합해서 두 사람 간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과장법을 쓴 듯 보이는 “어느 여인의 사랑도 따를 수 없다”는 표현 속의 진리와 아름다움 까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으리라.

남자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을 능가한다는 점에 한 가지 관신을 끄는 게 있다. 이것은 남녀 성별의 정신적 특성에 있는 구조적인 차이에 그 바탕을 가지고 있다. 거듭나는 자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천국 삶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그것은 실제적이고 명확해진다.

남성의 영혼은 지혜로 덮혀진 사랑이고, 여성의 영혼은 사랑으로 덮혀진 지혜이다. 남자에게서 사랑은 가장 깊은 속에 있고 지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바 남자의 사랑은 그의 지혜보다 더 깊다. 여자에게서 지혜는 가장 안쪽에 있고 사랑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바 그녀의 지혜는 사랑보다 더 깊다. 그러므로 남성의 사랑은 여성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내면적이다. 그 반면, 여성의 지혜는 남성의 지혜보다 더 깊고 더 내면적이다. 남성 안에서의 사랑은 깊숙이 있는바 덜 감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이유가 사랑 자체를 지혜로 드러내보이기 때문이다. 여성 안에서의 지혜는 덜 감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이유는 지혜 자체를 사랑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를 두고 지혜라고, 여자의 경우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이유가 이것들이 각각의 바깥쪽, 명확히 감지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참된 결혼을 두고 그것은 남성의 지혜에 여성의 사랑이 하나됨에 있다고 말한다. 그이유가 이것들은 각각을 구별하는 수단인 바깥쪽의 명백한 품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더 깊고 더 내면적인 것, 비록 덜 의식되고 지독하게 덜 감지할 수밖에 없다 해도 진정한 결혼의 사랑으로 하나로 된 이들 사이의 하나됨이 있다. 여성의 사랑이 남성의 지혜와의 하나됨 이외에 여성의 지혜와 남성의 사랑이 하나됨도 있다. 다시말해 남성의 내적인 사랑이 여자의 내적인 지혜와 하나됨이다. 이 두 겹의 하나됨은 천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잘 진열되고 있다. 영적 수준의 천국, 즉 영적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마음이 열리는 그 곳에서 남편은 지혜이고 아내는 사랑이다. 그러나 천적 수준의 마음이 열리는 그 곳에서 남편은 사랑이고 아내는 지혜이다. 우리는 이 두 천국에서도 역시 남성과 여성의 지혜가 본보기화해 준 각기 다른 품성을 볼 수 있다. 남성의 지혜는 외적인바 합리적 지혜이고, 여성의 지혜는 내적인바 지각하는 지혜이다. 그러므로 영적 수준의 천국에 있는 천사는 추론하고 천적 수준의 천국에 있는 천사는 지각한다. 천적 수준의 천국은 그렇다면 예, 아니다면 아니오이고, 영적 수준의 천국에는 악에서 오는 것들 그 이외의 것이면 무엇이든 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지혜, 또는 남성과 여성의 지적인 것 사이의 구별을 이세상에서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남자에게서는 추론하는 것을, 여자에게서는 지각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는 남자의 합리적 지혜가 여자의 것과 통할 수 없고, 여자의 지각하는 지혜가 남자의 것과 통할 수 없다는 것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통할 수 없이 구분되는 성별 간의 특성을 지닌 두 영혼은 각각 홀로 가능할 수 있는 완전한 것보다더 완전한 것이 되어감으로 여기에서 창조자의 지혜와 은택을 보게 된다. 참된 결혼 안에는 정신적, 육체적 측면 모두에서 아름다움과 힘(bauty and mighty)의 하나됨이 있다. 이 결혼은 천국에 있는 천사의 완전함에 존재하고 있다.

어느 여인의 사랑도 따를 수 없는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다윗이 표현했던 것, 즉 지혜와 진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이 사랑은 인간 본성의 뿌리에 놓인 제일 가는 사랑이고, 이로부터 여타 모든 사랑, 여인의 사랑까지도 솟아난다. 그이유가 여인은 남자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렇게 결말짓고 있다. “아, 용사들은 쓰러지고, 무기는 사라졌구나.” 천국적 원리가

심정과 삶의 종교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있을 때 용사가 쓰러진 것이다. 말씀 속의 진리가 악에 대항하는 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때, 그래서 싸움은 영적 생명의 소멸로 끝장을 보게 될 때 전쟁의 무기가 사라진 것이다.

## 27

### 사무엘하 2장

#### 헤브론에 있는 다윗이 유다 가문의 왕으로 기름부워지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이즈르엘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무엘이 그를 기름부은 이래 고난과 번민밖에 없던 그의 세월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음으로서 고단했었던 그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때가 임박했음을 확신케 해주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타 사람들이 그와같은 대세의 변화에서 드러내는 인간적 포부에 관한 어떤 표시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는 의지가 충동하는 쪽이나, 자기 판단이 제시하는 쪽으로나 따라가지 않는다. 그야말로 그는 살과 피의 조연을 묻지 않는다. 그는 주님께 여쭙되 빈 보좌 자리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단지 유다 성읍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뿐이다 이렇게 응답받는다. “헤브론으로 올라 가거라.”

키랏아르바라고도 하는 헤브론은 오랫동안 특별나게 표징적이 되어 왔었고 신성시한 장소로 까지 승격되어 있었다.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이 거기서 살았다. 그곳은 레위인의 성읍으로 지정되어 왔었다. 헤브론은 영적 교회를 표현했다. 그 장소의 역사와 연결되는 주변 사정 중 한 가지는 그것에 이중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에 왔을 때 헤브론은 아낙 후손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거인들이었고 홍수 이전에 존재한 것으로 말해지는 이들(창세기 6:4)과 비슷했다. 가나안의 나라들은 고대 교회 백성의 타락된 후손이었고 그중에서도 아낙 후손은 가장 많이 부패되어 있었다. 마치 느빌림, 또는 거인들이 홍수 이전에 살았는데 태고 교회 백성의 타락된 후손 중 가장 심했다.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십 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기 까지 사십 년을 광야에서 배회한 원인 중의 하나는 아나킴의 후손을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민수기 14: 29,30).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스파이가 거인족에 관한 보고를 이렇게 했다. “우리가 만난 거인들 가운데는 아나킴 말고도 또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할받을 때 거인들이 거주한 구역, 헤브론이 과거 그 땅에 관한 정탐을 옳게 보고함과 동시에 즉각 쳐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자고 용기를 불어 넣었던 갈렙(민수기 13:30)에게 주어진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다윗이 하느님의 지시를 받아 헤브론으로 올라 간 것은 표현적 품성 때문이었다. 헤브론에는 고대 교회에서도 가장 깊이 부패해버린 이들이 거주했다. 헤브론의 거주민이 그러했던 이유로 그곳은 여호수아에 의해 참혹하게 파괴되었다 (여호수아 10:36,37). 거기서 다윗은 올라가도록 명령받았고 거기에 그의 왕국을 앉히도록 하였다. 이 왕국은 주님의 영적 교회, 주님께서 지상에 세셨을 때, 건설하셨던 그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 그이유가 기독교회는 봉대를 풀은 고대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교회의 건설에 대한 의미가 더 풍부해지도록 표현되기 위해 이어지는 구절에 기록된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갈 때, 그는 그의 두 아내, 즉 진리의 내적, 외적 애정에 관한 측면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그의 두 아내를 거느리고 올라갔다. 이 두 애정을 수단으로 영적 교회는 구별되어진다. 또한 다윗은 그의 부하와 그의 온 식솔들도 함께 데리고 갔다. 이들은 교회 속의 모든 진리들, 각 진리들이 그것 자신의 선과 결합된 것, 그 하나됨에서 파생된 생각과 애정을 표현한다. 다윗의 부하들은 헤브론 성에서 거주했다. 이 성이 표현한 고대 교회 속의 진리들, 과거 그들의 잘못과 부패한 것을 일소한 후 지금 다윗의 부하와 그 가족들이 표현한 영적 진리와 선함의 거주지가 다시 되었다.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한지 얼마되지 않아, “유다 사람들이 그리로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가문의 왕으로 삼았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처음 지파였다. 어쨌든 우리는 다윗을 사울의 계승자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이유가 다윗의 주권이 온 백성에 미친다고 유다 사람들이 주장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은, 유다의 왕이었던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대해서도 군주라고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이유가 가장 높은 수준을 통치할 경우 그 아래 수준은 당연히 종속되어 통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유다인의 왕으로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고 경배되기도 했다. 그래서 유다인의 왕이란 칭호가 그분의 십자가 위에 죄명으로 찍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역시 인정되었다.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끝나는 다윗의 왕국은 이스보셋을 정상적인 왕권 계승자로 본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왕국으로의 분리가 지금의 시기에 시작된 셈이다. 다윗 왕국은 주님에 속했고, 그분의 명령에 의해 다윗은 사울이 죽기 오래 전에 이미 왕으로 기름부워져 있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한 쪽 왕국의 정상적인 군주였다. 이런 역사 줄거리에는 그 역사의 글자가 밝히는 것보다 더 깊은 원인과 의미가 들어 있다.

이미 살핀바대로 다윗은 사울이 실지로 통치하는 동안 잠재적으로 왕이 되어 있었다. 마치 거듭난 삶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내향의 인간을 따르면 하느님의 법도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우리 안에는 이 법에 반대하고 죄의 법에 포로가 되게 하는 또다른 마음의 법이 있음을 보게된다.” 지금 상태가 바뀌었다. 내향의 인간이 실지로 통치하지만 그렇다고 그 통치에 외향의 인간이 온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자연적 수준의 마음 안에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생각과 애정은 영적 수준의 통치와 대권에 자발적인 순응을, 오히려 기쁘게 동의함을 만들고 있다. 유다 사람은 그들 스스로의 행동에서 사무엘의 기름부은 행동을 확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실제적 사랑 안에서 신성한 사랑이 그들과 상호 교류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와의 기름부은 자로서 주님은 비록 지상의 왕으로서는 결코 기름부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의 머리 위에는 감사히 여겨 경배하려 하는 사랑의 귀중한 향유가 부어졌고 (마태 26:7), 그분의 발에 까지(요한 12:3) 부어졌다. 여자는 교회를 표현하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의 주님께 대한 위외 행동은 그 얼마나 꼭 맞는지! 이는 예수께서 우리의 심정을 왕과 주권자가 되어 통치하실 때와 같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웠을 때, 그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윗은 그들에게 특사를 보내어 죽은 왕에게 까지 충성을 보였으니 야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사울의 매장은 부활을 상징하는(type)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살핀 바 있다. 이를 역사의 이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사울이 매장되었을 때 기름부은 자가 다윗 속에서 일어났다. 부활에서 일어난 것은 땅 아래 뿌려진 것과 똑같지는 않다. 솟구쳐오른 생명은 땅 아래 누워있는 것과 똑같지는 않다는 말이다. 옛 것은 죽고 새 것이 살아있다. 기름부은 자로서의 다윗은 사울 보다 더 높다.

어쨌든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대목은 없다. 그이유는 줄거리가 이렇게 즉각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벨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사령관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모시고 마하나임으로 건너 가서 길르앗, 이술, 이즈르엘, 에브라임, 베냐민 등,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마하나임, 이곳은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고 헤어진

후 하느님의 천사를 만난 지점이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는 하느님의 군대구나’ 하면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창세기 32:3). 이 이름은 두 진지(camp)를 뜻하는 말이다. 이 두 진지는 천적 수준과 영적 수준 모두에서의 천국, 또는 주님의 왕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상의 의미에서 주님의 신성한 천적 측면과 신성한 영적 측면을 의미한다. 비록 마하나임의 이름의 뜻이 그러했다해도 두 진영이 언제나 하느님의 진영이었던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그 안에 진을 치고 군대가 머문 것도 아니었다. 비록 방법은 다르다 해도 마하나임은 경쟁이 된 두 왕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는 했다. 마하나임에서 아브넬은 유다 왕국에 맞서는 왕국을 세웠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몰인정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 피신했던 다윗이 그 스스로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되었다 (17:24). 그러므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도 서로 적을 삼는 두 진영이 있었던 셈이다.

마하나임이라 명명된 것을 취급하는 주제는 뒤바뀐 상태, 즉 선이 첫 자리를 획득하고, 진리가 둘째 자리에 앉은 격이다. 지금 선이 첫 자리를 획득한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 왕으로 기름부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진리가 선의 우월함에 종속된 것은 아니다. 그이유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다윗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는 앞으로 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려면 말씀에서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인 내적 싸움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통이 넘는 피비린내나는 전투가 다윗 편과 사울 편 사이에 수 년 간에 걸쳐 있었어야 할 듯 보일 것이다. 왕이 된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인 아브넬이 기브온에 왔는데 다윗 군대의 대장인 요압도 그리로 왔다. 그들은 기브온 못의 이쪽 저쪽에서 마주 바라보게 되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을 건넸다. ‘젊은 군인들을 뽑아 이 자리에서 겨루게 하면 어떤가?’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응했다. 양 편의 군인 열 둘이 서로 마주 섰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그러쥐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양 편이 모두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 곳을 ‘힘센 자의 벌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대결은 어느 쪽이 더 센지, 또는 올바른지를 결말짓는 수단으로 삼았는데 양쪽 모두 죽어서 서로 간에 덜 유감스러울 듯 보일는지 모르나 이것은 슬퍼할 싸움의 시작에 불과했고 이 싸움에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했다. 이런 줄거리에서도 성경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글자 의미 보다 더 높은 또다른 부분이 글자 안에 아래와 같이 함유되어 있는바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다.

두 작은 군대가 서로 마주 앉고 두 대장들이 말을 주고 받은 기브온 못은 이 깊은 의문

중의 하나, 즉 교인들이 정반대되는 측면들을 오랫동안 지나게 된 것, 그 위에 논객자 같은 지적 기술의 진열로 의문된 것을 풀기 위한 도전을 제안하고 응낙하는 것에 대한 예징(type)이다. 성경에서 못(pool)은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파생된 지식을 의미한다. 그이유가 못은 물이 집합된 것이고, 집합된 물은 총명을 있게 하는 수단인 지식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이다. 두 진영 사이의 시합하는 그들과 그 주변 상황 모두로부터 기브은 못이 표현하는 총명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즉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선함인가? 진리인가? 또는 이타인가? 믿음인가? 이타애가 보다 더 중요하고 우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다윗의 부하들로, 믿음이 먼저요 더 중요하다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의 부하들로 표현되고 있다. “이타애와 믿음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중요하고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태고적 시대부터 말다툼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 말다툼은 낡은 것에 설복된 무지에서 근원되었고, 지금까지 이런 것이 우세해 있다. 인간은 이타애 보다는 믿음 쪽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거듭남의 과정에서 이타애는 믿음을, 또는 선이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안으로 선에 관한 세부항목들이 은근히 들어가 진리에 순종된다는 것, 그러므로 진리가 믿음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거듭나기 전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은 진리가 선 보다 우선하고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들의 그런 수준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진리가 그들 마음 안에서 선에 결합되어질 때, 또는 그들이 거듭나질 때 그들은 진리가 둘 째 수준이고 선 보다 저급에 있다는 것을 보고 지각한다.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선은 진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교회 내에는 거듭나는 사람들 보다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고, 이 사람들이 외관으로부터서 판단할 때 진리가 우선인지, 선이 먼저 중요한지를 놓고 고대 시대 때부터 논쟁해 왔다. 거듭나지 않은 이들, 그리고 충분히 거듭나지 않은 이들과 더불어서는 진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런 이유가 그들이 선을 지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선을 지각하지 않는 한, 이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듭나는 이들, 그들은 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선으로부터 파생된 총명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선은 내적 인간을 통해 외적 인간으로 흐른다는 것을, 인간은 이런 과정에 완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그것은 기억에 있는 교리 속의 진리로 그 자체 결합된다는 것을, 비록 선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선이 진리 보다 덜 중요한 듯 보였다 해도 결과적으로 선이 우선된다는 것을 지각한다.”

교회 안에 있는 생각의 이런 상태, 거듭나는 삶의 이런 단계들이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마주 보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즉 나뉘어진 두 백성, 유다 지파는 이타에 또는 선함을, 나머지 지파는 진리 또는 믿음에 더 관련되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은 놀랄만하다. 그럼에도 거듭나는 사람에 관련해서 이것은 일시적인 상태이다. 그이유가 이 단계에서조차도 거듭나는 사람은 그들 안에 있는 진리가 선함에 종속되도록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사울 아래의 지파들이 비록 쓰라린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다윗을 군주로 인정하는 유다와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그들의 복종은 정복에 의해 산출되고 있다. 싸우려하는 두 부대가 보는 가운데 집행된 특이하게 피비린내나는 정경은 전투의 시작이다.

이 시합의 발생과 본성 역시 매우 의미있는데 이것은 싸움의 첫 단계이다. 이것은 일종의 지적인 스포츠이다. 마치 젊은이들이 일어나 경기를 벌이려는 것과 같다. 이 시합의 지적 특성은 양 편에서 참가한 전투원의 숫자가 암시해주고 있다. 어떤 숫자는 선에 관계되고 또 어떤 숫자는 진리와 관계된다. 숫자 열 둘은 마치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나 주님의 열 두 사도에서 처럼 교회의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진리를 의미한다. 이들은 승리를 위해 경쟁하게되는 지적인 전투원들이다. 이 시합은 짝막하나 날카롭다. 각 사람은 상대편의 머리를 그러쥐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있다. 머리가 뜻하는 의미는 매우 넓은 편이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서 볼 때 본문에서의 “머리”는 인간이 진리이라고 믿는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기의 믿음으로 만든 진리를 뜻한다. 그이유가 이것이 인간의 머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머리가 그렇게 의미되고 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을 찾아보자. “구속자는 그들의 머리 위에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시온에 오리라” 머리가 진리와 믿음에 관계되는데 비해 옆구리(side)는 이타애와 관계된다. 그이유가 전투원이 찌른 그 부분은 심정이 자리잡는 곳이고, 심정은 생명이 있는 곳이므로 생명인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전투원들은 각자 머리를 그러쥐고 옆구리를 찌렀다. 영적 전투원들은 믿음을 붙잡고 경쟁자의 사랑을 찢러 이해성과 의지 모두를 복종시키려 든다. 그런데 이 싸움의 특이한 점은 서로가 승리하고 서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투원 모두가 죽임을 당해 모두 땅에 쓰러졌다. 이는 지적이고 영적인 싸움에 관한 완전한 표본이다. 즉 싸운 양 편 모두가 승리하고 패배한다는 것이다. 이 싸움은 타인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단지 각자는 자기가 진리의 칼을 휘두른다고 믿기만 할뿐이다. 그래서 타인의 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힌다. 이 싸움에 참가한 이들의 품성으로부터 그 장소는 힘 센 자의 벌판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이는 양 편 모두 자신의 신념에는 강하나 그 강함의 뚜렷하지 않은 시운전

(trial) 뒤에 남는 것이라고는 죽는 것뿐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면 미결로 방치될리 만무이다. 각 열 두 명의 전투원이 죽은 것은 더 넓은 차원의 싸움에 대한 신호탄 역할을 했다. “그 날 격전이 벌어졌다.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편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고 말았다.” 거론 결과 다윗 쪽의 힘이 우세한 것은 마음의 평가에서, 그리고 마음 속의 생각과 애정의 정부 형태 안에서도 선한 것이 실지로 첫 째 순위가 되어 끝나지는 상태로 뒤바뀌는 시작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자연적인 수준 위로 영적인 수준이 올라 선다는 것도 함축하고 있다. 우리가 자연적 수준에만 마음을 쓰는 한, 우리는 진리를 첫 순위에, 선은 둘째 순위에 머무르게 할 수밖에 없다. 설사 우리가 이론적으로 진리를 첫 서열로 삼지 않고 있다 해도 실지로는 그렇지 않게 된다. 우리가 영적 수준이 될 때만이 우리는 선에 실지의 우월함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마음 안에서는 선과 진리, 어느 쪽에 통치권이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싸움이 거행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심정과 생활에서 선에 우선권을 주고 있을 때 올바른 원리의 원인들은 번성하고 강세해진다.

아브넬이 패하여 도망했을 때 요압의 형제가 그를 뒤쫓았다. 여기서의 도망과 추격은 미래 아브넬과 요압에게 중요한 결과를 갖다 주는 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달음박질이 들사슴 처럼 빨랐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했는데 아브넬도 아사헬 같이 잘 달렸는 듯 여겨진다. 아브넬은 계속 도망하면서 뒤돌아 보고는 아사헬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래도 아사헬이 물러서려고 하지 않자 아브넬을 창의 뒤 끝으로 아사헬의 다섯 번째 갈비 아래를 찼다. 창이 아사헬의 등을 뚫고 나가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스루야의 세 아들은 여타 다른 짝들 같이 하나를 만드는 세 겹, 세 배, 삼 중(trine)을 표현한다. 그리고 세 개로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서 같이 마지막 번째의 것은 행동에 관계되는데 이것이 발 빠른 아사헬로 잘 표현되어 있다. 들노루(wild roe)의 빠름과 아사헬의 발 빠름이 비교되는데, 이는 그가 표현한 최말단(ultimate)의 품성을 표현하고 있다. 야곱의 마지막 축복에서 납달리는 풀어 놓인 암사슴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래서 납달리는 이전에 묶여 있던 애정이 자유의 상태를 회복할 때, 시험 후의 자연적 애정의 기쁨을 표현한다. 그러나 아사헬은 결코 묶여 본 적이 없는 노루, 근원적인 야생의 자유를 즐기고 있는 노루에 비교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시험으로 결코 순화되어 본 적이 없는 자연적 애정의 격렬함에서 튀어나오는 활발한 움직임 표현한다. 참으로 그는 아브넬 뒤에서 그의 창 뒤 끝으로 치명타를 입는 특이한 방법으로 죽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조심스러움과 경험이 결핍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아사헬이 표현하는 원리는 외적 수단으로도 정복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그이유가 뒤와 앞은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 희미함과 명료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치욕거리이다. 그래서 “아사헬이 죽은 곳에 이르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멈추어 섰다”는 이 기록은 슬픔과 후회를 표현하는 것일지 모른다. 영적 삶의 교전에서 많은 열정(zeal)이 많은 무분별과 하나될 수 있다는 것, 선한 원인의 의도는 좋았으나 그 의도를 받쳐 줄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함으로 야기된 손실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요압과 아비새는 아사헬이 실패한 추격을 계속 했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가에 있는 기아 앞 쪽의 암마 언덕에 다다랐을 때 날이 저물었다.” 세 개 중에서 마지막 한 개 보다는 수준이 높은 두 인간 속의 자질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계속 실행함에서는 선하고 참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혀져 있다. 즉 시험으로 결과된 것, 아사헬에게서 부족했던 열정과 분별력의 하나됨이 나타나고 있다. 그이유가 그들이 시작을 뜻하는 암마 언덕에 왔고, (토대가) 갈라짐을 뜻하는 기아 맞은 편이라는 것, 그리고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가란 진리 측면에서의 시험을 영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을 때 해가 저물었다. 해가 짐은 사랑과 믿음에 관해 명료한 지각 상태는 끝나고 희미한 지각 상태가 시작함이다. 본문의 줄거리로 볼 때 명료한 지각 상태는 추구했던 목적물을 손에 넣기 전에 끝나고 말았는바, 이는 인간 안에서, 인간 사이에서 주님의 왕국과 교회 안에 있는 선 또는 진리 중 어느 쪽이 먼저이고 우월한지에 대해 미결로 남고 애매모호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어느 쪽이 우월한지에 우유부단해 있는 상태가 아래 줄거리에 더 묘사되어 있다. 사울이 소속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브넬을 따라 함께 뭉쳐 한 군대가 되어 언덕 꼭대기에 서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쳤다.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겠느냐? 이리다가는 마침내 끔직한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느냐? 너는 군사들에게 동족을 그만 추격하고 돌아가라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이냐?’ 그러자 요압이 말했다. ‘하느님이 살아 계신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아무리 동족이라 해도 우리 군사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너를 따라 잡았을 것이다.” 이리하여 두 군대의 장군들은 싸움을 중지하고 하나는 마나하임으로, 또 하나는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두 장군은 어느 쪽의 왕이 통치해야 하는지 결정을 보기 위해 벌린 전투이지만 동쪽 끼리 치고 죽이는 것은 보기 흉하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감한 듯 보인다. 양자택일이라는 계산이 서로의 마음 속에 진입된 듯 보인다. 미결된 이 상태는 두 편의 상황이 표현하는 더 높은 영역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왕권을 다툰 뒤 싸움이 비록 아직은 결정을 보지 못했고, 두 지도자 간에 한동안 중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해도 이 전투에서 다윗 쪽이 더 이득을 챙겼다. 그이유가 다윗의 부하는 아사헬 외에 열 아홉이 죽었으나 아브넬의 부하와 베냐민 사람은 삼 백 육십 명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 숫자들은 손실의 분량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본성을 표현해주고도 있다. 그이유가 숫자 3은 영적 수준급을, 숫자 20은 천적 수준급을, 달리 말하면 진리에, 선에 관한 등급에 각기 소속되는 숫자이다. 그러므로 비록 양 군대 모두 손실을 입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강세가 더 남은 것은 진리에 비해 선함 쪽, 바깥 쪽 인간 측면에 비해 내적 인간 측면이었다. 아사헬은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의 무덤에 안장되었는바, 이는 그가 표현했던 자연적 원리가 새롭고 더 높은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 28

### 사무엘하 3장

#### 아브넬이 죽다

요압과 아브넬 간의 휴전은 짧은 기간에 불과했다. 그들 사이의 싸움이 언제쯤 재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 3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사울 왕실과 다윗 왕실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그런데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왕실은 갈수록 약해졌다.” 이 구절로 미루어 보아 싸움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으나 그 기록은 되어 있지 않다. 거듭나는 삶의 진보에서 시험 - 싸움이 있는데 이는 바깥쪽 체험에 속한 것이라기 보다는 안쪽 체험에 더 소속되어 있다. 자연적 기억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지만 모든 것의 결과(issue)는 영적 기억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수단인 생명의

책에는 낱알이 새겨진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전 생애를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다. 이 싸움 동안 그분은 시험과 영화하시는 상태를 번갈아 통과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더욱 더 강해지시고 그분에 반대하는 권세는 더욱 더 약해졌다. 그럼에도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는 전부는 광야에서의 시험과 겿세마니 동산에서와 십자가 위에서의 시험 뿐이다. 예수를 자기 스승이요 주님으로 따르는 기독교 제자의 경우도 그분과 같다. 그 기록은 높은 곳에 있다. 천국에 그의 이름이 씌어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은 영들이 그분께 종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 그 이상이다. 이것은 자연적 수준의 통치는 더욱 더 약해져 가고 영적 수준의 통치는 더욱 더 강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종교는 심정 측면에 더 가까워지고 지적 측면에서는 더 멀어진다는 것, 자기의 종교가 지적인 흥미의 어떤 것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 측면에서 까지 우리로 믿으라고 요구하는 진리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선 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상태가 뒤바뀌는 진보, 이를 수단으로 선은 승강함을 얻어 품위들, 즉 영적인 애정과 생각이 증가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종교는 심정을 움직이는 생명의 원리가 되고, 더욱이 이해성을 확신시키는 교리라는 체계 보다 더 강한 원리가 된다. 이것이 영감된 기록에 있는 사건의 시리즈들에서 표현되고 있다. 다윗은 왕성해지고 사울 가문은 쇠약해진다고 말한 직후 거룩한 기사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에 관계하고 있다. 그는 여러 어머니들로부터 출생한 여섯 아들을 언급하고 있다. 영적으로 이해해 보건대 이 아들들은 선한 애정에서 출생하는 참된 생각들이다. 그들이 여섯이라는 것은 선한 애정으로부터의 참된 생각도 노동과 슬픔 없이는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이유가 여섯이 지닌 의미는 쉼의 안식일에 선행되는 노동의 여섯 날로부터 얻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적인 날들은 거듭나는 자가 영적이고 영원한 쉼이라는 천국적 상태를 향해 발전해 가는 영적 상태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참된 생각들, 또는 진리에 관한 영적인 지각들은 노동과 진통(travail)을 통해 마음 안에서 출생되는 바, 이런 노동과 진통은 영적 싸움의 상태들이어서 바꾸어 말하면 이것들은 거짓과 악들을 누르고 정복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자녀 또는 아들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으니, 전동에 그런 화살을 채워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서 문에서 적들과 담판하리라” (시편 127:4,5). 젊은 자의 아들이 적들과 말하는 곳인 문이란 영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이 교통하는 합리적 마음이다. 그리고 문에

있는 적들이란 영적 마음 속의 선들이 그자체 더 낮은 수준의 마음으로 흘러들고 그 속의 진리와 하나되려는 노력에 반기를 드는 자연적 마음 속의 악들이다.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은 아들이란 영적 차원에 근원을 가진 합리적 진리이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용사의 손이 의미한 내적 또는 영적 선함의 권능을 수단으로 실력을 발휘할 때 질서를 건립해 규율하기를 바라는 선에 반역하는 악들을 제거하는 도구가 된다.

싸우는 두 요소들이 재회하도록, 정당한 권세의 지배 아래 모든 것이 가져다 놓이도록 할 길이 지금 열리고 있다. 아브넬은 그의 상전인 사울의 가문에서 세력을 굳혀갔는데 어느날 그는 사울의 후궁을 범하여서 그의 상전인 이스보셋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이는 사울 보좌에 자신의 권리 주장을 실지로 해버린 격이 되었다. 그리고 자연적 진리 속의 선을 간음한 것을 표현했다. 오히려 아브넬은 이를 놓고 성을 냈다. 그리고 이렇게 위협했다. “이 나라 사울 왕실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도리밖에 없소. 단에서 브엘세바 까지 이르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도리밖에 없소.” 이 위협적인 말과 일치되게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안하기를,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나와 계약을 맺읍시다. 나는 당신에게 온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제의를 수락하고 단 하나 조건을 거기에 달았다. “사울의 딸 미갈을 먼저 데려오지 않고서는 나를 볼 생각을 마시오.”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의 아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스보셋은 라이스의 아들 발티엘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왔다. 위 줄거리 주변에는 주목해둘 것이 있다. 다윗은 아브넬이 왕국을 넘겨준다고 제의하는데도 그의 첫 아내인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브넬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윗 스스로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스보셋은 그녀를 아브넬에게 데리고 가게 해서 이는 결국 아브넬 자신이 죽는 결과를 보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했다. 물론 다윗을 두려워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설사 이스보셋이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눈치 못채고 있다해도 그의 군대 사령관을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미갈을 돌려주기 위해 보낸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변 형세는 역사적 목적 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신성하게 명령되었거나 허용되고 있다. 우리는 그녀가 수단이 되어 사울 가문이 다윗 가문과 하나되어지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이유가 이미 읽은 바대로 미갈이 보다 더 높은 하나됨을 결과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의 딸은 온 지파에 미치는 어떤 직접적 영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애정을 표현하는

바, 이를 수단으로 내적, 외적인 것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함께 가져와진다. 그러므로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서 빼앗아 발티엘에게 주었듯이 사울의 아들은 그녀를 발티엘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도로 주었다. 아브넬은 도구였고 미갈은 매체였다. 그는 진리이고 그녀는 선이다 이를 수단으로 이스라엘은 다윗을 군주로서 통치하도록 유다와 하나되고 있다.

정감있는 광경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발티엘에게서 미갈을 데려올 때, “그의 남편은 바후립 까지 울면서 따라 왔다.” 발티엘의 온유한 애정을 발견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당시 남편이 아내를 내버리는 식의 무정한 품성에서 예외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미갈은 두 번 양도되고 있다. 사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었는 바 (사무엘상 18:20), 그녀가 발티엘과 헤어짐으로 슬퍼했을 것 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던 때 사울이 발티엘에게 그녀를 준데 대해 답변이 될만한 기록은 없고 단지 그가 라이스의 아들이라는 기록 뿐이다. 라이스란 사자(lion)라는 이름인데 이런 뜻의 이름을 그의 용맹함 때문에 붙여지지않았을까 추측되지만 그런 기록은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

사울이 다윗에게 미갈을 주고 다시 빼앗은 것은 다윗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워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였다. 이런 때에서 조차 사울의 분노는 오히려 다윗이 찬양받는 기회로 바뀌기만 했다. 자기 아내가 또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질 때 다윗 영의 사울에 대한 분노가 더욱 치달았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격분된 그의 감정의 쓰라림이 창조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재 결합은 두 사람 모두를 만족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이는 영적 마음에 있는 진리와 자연적 마음에 있는 진리에 대한 애정의 결합을 표현한다. 이 애정은 영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을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매체로 봉사한다.

그러나 다윗이 기뻐하는 그 시간은 발티엘에게는 슬퍼하는 시간이다. 헤어진다는 것은 슬픔이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이득이 있었다. 우리가 히브리어의 흔적(sign)으로 판단해 본다면, 미갈의 남편은 그녀와 결합함으로써 더 높은 상태로 건너 갔다는 것을 알게된다. 미갈이 그에게 주어질 당시 그의 이름은 발티였다(사무엘상 25:44). 미갈과 헤어질 당시 그의 이름은 발티엘이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래가 사라로 바뀔 때 첨가된 “h”는 신성한 이름 여호와(Jehovah)의 “h”로부터 얻은 것이다. 발티가 발티엘로 바뀔 때 얻은 “el”은 신성한 이름 “EL” 또는 엘로힘(Elohim)에서 얻은 것이다. 여호와는 주님의 천적 수준의 신성한 이름(Ldrd's Divine - celestial name), 엘로힘은 주님의 영적 수준에서의 신성한 이름(His Divine - spiritual name)이라 각각 일컬을 수 있다. “el”이 이름에 첨가된

경우 이는 자연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h"가 이름에 첨가될 경우 영적 수준에서 천적 수준으로 된 것이다. 출생 때부터 이런 이름들을 받은 경우 이는 제각각 영적이고 천적 등급에 소속되고 있다. 물론 이런 설명은 그 인간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표징적인 것일 뿐이다. 발티엘은 울면서 미갈을 바후림 까지 따라왔고 거기서 아브넬은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베나민 지파의 성읍인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그 이름은 증명함, 선택함, 사랑함을 의미하는 어원으로부터이다. 이곳에는 품성면에서 폭넓게 다른 것을 취급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품세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바후림에서 시므이가 욱설을 퍼부었다 (16장 5절). 압살롬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보내는 후세의 첩자를 추격했을 때 거기에 있는 샘 안에 숨었다 (17장 17절). 위 세 장면은 바후림이라는 장소가 언급된 대목들이다. 거기서 발생된 주변 모습은 모두 호된 시련 같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증명해내는 것들이다. 다윗은 그의 시련을 온유하게 견뎠다. 발티엘은 거친 군인의 가혹한 요구에 조용히 복종했다.

아브넬은 이 십 명의 수행원과 함께 헤브론에 왔다.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가 돌아 가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임금님과 조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이 온 지역을 뜻대로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고이 보냈다.” 아브넬이 떠나자마자 요압이 전리품을 거두어 전장에서 돌아 왔다. 요압은 아브넬이 헤브론을 다녀 갔다는 것, 다윗이 그를 잘 대접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와서 아브넬은 임금님의 동정을 살피러 왔던 것인데 그런 자를 고이 보냈느냐고 항의했다. 그런다음 요압은 사람들을 시켜 아브넬의 뒤를 쫓게 했다. 그들이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왔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되돌아 오자 요압은 그에게 조용히 말해야 할 것이라도 있는 듯 성문 한 옆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다섯 번째 갈비 아래를 찔러 죽였다. 자기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한 것이다.” 다윗은 그의 불충한 행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자신과 그의 왕국은 아브넬이 흘린 피에 대해 죄가 없다고 선언했고, 그 죄값을 요압과 그 가문에 돌아 가리라고 발표했다. 아브넬은 헤브론에 묻혔다. 다윗은 정중하게 그의 장례를 치렀다. 다윗 스스로 상여를 뒤따르고 그의 무덤에서 목놓아 울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브넬이 어이없이 개죽음을 당하다니!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에 쇠고랑을 차지도 않았는데 불한당에게 맞아 쓰러지듯 죽었구나!” 그러자 “온 군인들은 그를 생각하며 다시 곡을 했다.” 다윗은 해질 때까지 단식했다. 그리고 왕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죽었소.

스루야의 아들들이 너무 억세어서 나에게서 힘이 겹소. 이처럼 무력해져야 내가 어찌 왕 노릇을 하겠소? 야훼께서 그런 나쁜 짓을 한 자들에게 그만한 벌을 내리시기를 바랄뿐이요.” 이 장에 기록된 줄거리,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겹된 사건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적대시 하는 두 지도자 요압과 아브넬이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초기 시대 때 왕은 백성의 통치자였을 뿐 아니라 군대의 사령관이기도 했다. 초기 이스라엘에서 왕이 있기를 바랬던 제 일의 목적은 왕이 자기들 앞에서 전투에 나가 싸워주는 것이었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에게 사무엘은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왕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친인 대장이나 오십인 대장을 시킬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온 군대의 사령관을 임명하여 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다. 군대 사령관이 전장에서 왕과 같은 자리에 놓였다 해도 그는 엄격히 말하면 왕의 부관이다. 더욱이 요압과 아브넬은 그들이 섬긴 왕과 친척 관계였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고(사무엘상 26:6), 아브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다(14:50). 요압은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인바 어머니쪽에서 다윗과 친척이었고, 아브넬의 경우 벨이 사울의 삼촌인바 아버지쪽에서 사울과 친척이었다.

이 두 장군 모두 그들이 섬긴 왕과 친척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원리들을 표현했다. 그래서 그 사용이 완료되었을 때 그들은 제거되었다. 아브넬은 사울 왕국 보다 오래 잔존하지 못했고 요압은 다윗 왕국 보다 길게 생존하지 못했다. 둘 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자 다윗에 맞서 이스보셋을 세웠고 요압은 솔로몬에 맞서 아도니아를 세우려 했다. 말하자면 그들 모두 자연적 계보, 전자는 왕권 세습에, 후자는 장자 상속에 집착했다. 그래서 아브넬은 사무엘을 통해 신성하게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워진 것을, 요압은 다윗을 통해 신성하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무시했다. 둘 다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 아브넬은 아비새의 원한을 갚으려는 요압에게 죽었고, 요압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응벌로 솔로몬에 의해 죽었다. 전자는 문 가에서, 다른 하나는 제단에서 죽음을 당했다.

위 두 지도자의 역사가 지니는 영적 의미를 확장시켜 주는 한 가지 다른 세부사항은 그들의 이름이 지닌 의미이다. 아버지를 뜻하는 “Ab”가 두 사람의 이름에 들어 있다. 그러나 아브넬의 나머지 이름은 등불(lamp) 또는 빛(light)이라는 뜻이고, 요압의 나머지 이름은 여호와(Jehovah)를 뜻한다. 그러므로 아브넬은 빛의 아버지를 의미하고 요압은 여호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리고 빛은 진리를, 신성한 이름인 여호와는 선을 의미한다.

위 두 지도자는 인간의 두 계층, 즉 하나는 의지쪽이, 또 하나는 이해성쪽이 더 적극적이고 마음을 통치하는 힘을 지닌 경우를 그려내고 있기도 하다. 요압과 아브넬 사이의 이런 차이점은 인물 차원에서 뿐 아니라 예징적 품성에서도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 요압은 깊은 측면으로부터 더 행동되는데 때로는 악의에 찬 심정으로부터서도 행동하고 있다. 아브넬은 이해성이 받아 쓰리는 데로부터 더 행동되고 있다. 요압은 총명이 결코 모자라지 않고 있으나 그의 의지가 이해성의 조절 아래 있다기 보다 이해성이 의지의 조절 아래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요압이 지닌 의지와 이해성이라는 두 품성은 비둘기의 양순함 보다는 뱀의 슬기를 더 지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아브넬의 경우는 지적 측면이 더 지배하고 마음은 순박한바, 아마 뱀의 슬기 보다 비둘기의 양순함 쪽이 더 강한 듯 여겨진다.

요압이 보여주는 특성은 영적 차원의 마음의 조절 아래 아직 있지 않은 합리적 마음(rational mind)을 표현하고 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로 늘 말해지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부른 대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 같이 누이는 합리적 진리를 의미하는데 더 꼼꼼히 말하면 합리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의미한다. 스루야의 세 아들은 이 애정에서 태어난 진리들이다. 영적, 자연적 차원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합리적 차원도 안쪽, 중간, 바깥쪽 측면이 있다. 이 애정과 이 애정의 진리들은 하갈과 이스마엘로 표현된 애정과 진리와는 다르다. 마치 이해성의 애정이 얇아 대한 애정과 다른 것과 같다. 참으로 합리적 진리의 애정은 진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애정이다. 이해하는 것이 아는 것 보다 더 위대하듯 그 이해에 대한 책무 역시 더 크다. 바꿔 말해 이해함은 더 높은 수준으로 부상하는 자질이요 수단임과 동시에 더 낮은 수단으로 가라 앉을 때도 똑같이 자질과 수단이 된다. 요압은 이 두 자질 모두에 대한 본보기를 진열하고 있다.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모독할 수 있다. 속임수를 쓰고 정당한 원인 없이 아브넬을 죽이는 요압은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가 일으킨 저주를 그 가문과 자기 위에 떨어지게 했다. 이 피값은 하느님의 성소, 제단의 뿔을 의지한다 해도 피난처가 없다.

그러면 아브넬, 그는 어떤가? 사울의 신하요 이스보셋의 지지자로 그는 얇이라는 보다 수준 낮은 자질을 소유했다. 그러므로 그는 심도 있게 죄짓는 것은 그만큼 덜 한 셈이다. 더불어 죄진데 대한 회개도 그만큼 용이하기도 하다. 그의 상전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다윗 쪽에 붙으려한 것은 사실이나 화나게 한 원인은 그의 상전이 그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쪽에서 참됨 쪽으로 돌아 선 셈이다.

그는 다윗을 찾아 간 것 외에도 이스라엘의 원로와 베냐민 사람에게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기꺼이 인정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되면 이 왕국은 사울 가문에서 다윗 가문으로 평화로이 단번에 이양될 뻔 했는데 요압의 시기심이 아브넬의 좋은 의도와 잘 짜인 계획을 좌절시킨 것처럼 비칠지 모른다. 그러나 하느님의 방법에는 설비하심(provision) 뿐만 아니라 허용하심(permission)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 아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제거됨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과 제 발로 걸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느님은 악을 행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하느님은 인간을 죄짓게 자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느님은 죄짓고 싶어하는 것을 강제로 제지하지도 않는다. 법과 양심은 그분이 조절하시는 섭리의 묶는 끈(bond)이다. 인간이 이 끈을 끊어 버릴 때 그들은 처벌받는 쪽으로 치닫는다. 이 처벌은 그들을 교정하는 수단으로 허용되고 있다. 가능하다면 개선을 위해서이다. 악한 자들이 주님 자신을 죽이려고 에워싸는 것도, 유다의 불충한 키스가 죄 없는 사람의 아들의 입술 까지 더럽히는 것 까지도 허용되었다. 이런 행위들은 통탄되어야 하고 그 것을 저지른 이들은 지독한 욕설을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 목적을 결과되게 하는 수단으로서 필요에 의해 허용되어졌다. 죽음을 결과되게 한 수단들이 영원한 삶의 문이 되어지고 있다. 똑같은 원리에서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 까지도 비록 불충하고 피를 보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긴 했다 해도 필요해서 제물이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사람들은 그 역사에서 표본이 되고 의미를 담고 모든 세부적인 것도 본보기화 되어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닐까? 유다는 제자였는데도 배반자였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는데도 왕이 신뢰하는 사람을 죽였다. 합리성은 영적 수준에 합류해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반대되게도 행동할 수 있다. 즉 합리성은 그것의 참된 직무로서 영적 수준에 순종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행동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런 행동이 유용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

어쨌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은 지당하다. 더욱이 다윗은 요압 자신도 슬퍼하게 만들었다. “다윗은 요압과 그가 거느린 사람들에게 말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아브넬의 상여를 앞서 가며 곡하라.’” 요압이 슬퍼한다는 것은 명령 때문에 있어진 슬픔, 그래서 진실성이 덜 할는지 모르나 어쨌든 그를 통해 표현된 바깥 행동들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바닥에 이르는 사람에게 이르기 까지 관심있는 이들의 다같은 행동은 비신앙적 행위에 대한 .임무수행에 대한 신앙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마음 속의 애정과

생각이 동시에 있어지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장례식에서 죽임을 당한 영웅의 대우를 했다. “다윗 왕도 몸소 상여 뒤를 따랐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한 다음,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놓아 울자 군인들도 모두 따라 곡을 했다.” 매장은 부활을 상징하는 바, 아브넬이 헤브론에 매장되었다는 것은 그가 표현했던 자연적 진리가 영적 진리의 통치를 인정했을 때, 비록 합리성에게는 비실제적이라고 여겨 독단적인 자극을 받아 행동했다 해도 어쨌든 영적 상태로 올려지는 것이다.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뒤 자기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그의 땅으로 돌아 갔더라면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이 없다. 아브넬은 의지를 가졌으며 의지를 행동으로 가져다 놓는 기회는 박탈되어 있었다. 그는 의지가 기회를 잡고 있는 이들과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될 뿐 가지지 않은 이들과 같다.

무덤에서 왕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말했다. “아브넬이 바보 같이 당하다니!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에 쇠고랑을 차지도 않았는데, 불한당에게 맞아 쓰러지듯 죽었구나!” 앞에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조가를 읊었고 지금은 사울의 사령관의 죽음에 조가를 읊고 있다. 사울은 적에 의해 죽었는데, 아브넬은 외면상으로는 친구되는 사람의 손에 죽음을 당하였다. 어리석었던 것도, 묶인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미련해서, 쇠고랑을 차서 죽은 듯 되었다.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에도 그것에 반역하는 것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의 언어에서 바보 같다는 말은 약하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가치가 없거나 사악한 인물을 두고 사용된다. 이런 인간이야말로 억제되어야 하고 죽어 마땅할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나발 장군을 뒤따라 잡았던 게하지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아브넬은 이런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어쨌든 다윗이 통곡함은 내적 의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사울의 죽음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쁨부워진 왕으로서 사울이 표현했던 교회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추락을 두고 통곡했다. 아브넬의 죽음에서 다윗은 사울이 표현한 진리보다 더 낮은 형체와 활동 상태에서 제일 가던 진리의 추락을 놓고 통곡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신하에게 말했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오늘 이스라엘의 제 일인자요 위대한 장군이 죽었소. 제 일인자(prince)란 가장 높은 것에 종속되고 그것의 규율을 받는 제 일 가는 진리, 주요한 진리를 뜻한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내세우고 그를 옹호하는 가운데 사울 보좌와 그의 가문에서 세력을 굳혔다. 그가 다윗과 동맹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는 바 그는 다윗 가문과 그의 보좌의 실제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행동으로 그것을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한 것이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보다시피 나는 기름부워진 왕이지만 너무 무력하다.” 이런 무력함은 요압의 행위로부터 야기됐고 아마 더욱 더 야기될 것인바 다윗 자신과 그의 왕국을 불신임하게 하는 행위가 되었다. 비록 다윗이 이 죽을 죄에 자기는 죄 없다고 손을 씻었다 해도 이렇게 결말짓는다. “스루야의 아들이 나에게서 너무 힘에 겹다.” 내향의 인간이 바깥쪽 인간으로부터 지시 세력을 발견하는데 실패할 때 그 실패가 합리적 마음이든 자연적 마음과의 상응이 결핍되어서이든 본문 시대의 다윗이 비록 기름부워진 왕이라 해도 무력했듯 미력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내향의 인간이 약할 수밖에 없지만 바깥쪽 인간이 안쪽 인간과 하모니가 되어 행동하도록 거절할 때는 언제든지, 더구나 반대되게 행동할 때는 더더욱 자신의 약함을 느낀다. 그이유가 바깥쪽 인간은 엄격히 말하면 대리인이 아니고 반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는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반작용하는 것이다. 그이유가 행동하는 모든 힘은 결국 내부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깥쪽 인간은 내향의 인간과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깥쪽 인간은 자기 주인의 의지 대신 그 자체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 공급되는 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주님의 인간 자신과도 똑같다. 엄격히 말하면 인간은 대리인(agency)이 아니라 반응물(reagent)이다. 주님께서는 이 우주를 망라해 유일한 대리인 이시다. 모든 창조된 것과 존재들은 반응물밖에 더 아니다. 인간이 비록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그것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는 그분께 반대되게 다시 행동할 수 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을 신성한 뜻 대신 자신의 뜻을 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는 합리성과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 없이 그는 인간일 수는 없다. 이것들의 존재는 판단과 선택, 그러므로 행동하는 능력을 함축하는 것이고 마치 이 능력은 자신의 것인양 되어 있다.

스루야의 아들이 자기에게는 너무 힘겨웁다고 심하게 불평했는데도 지위를 남용한 그들을 그 직위에서 삭제하려는 의도도 없고 그것을 바라는 것조차도 다윗에게는 비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물론 그들의 세력이 커져 적이 되어서도 안되고 친구로도 힘들다고 생각들는지 모른다. 이보다 더높은 이유인즉, 스루야의 아들은 표본이 되는 씹쓸이를 가졌다는 점이다. 그들이 표현한 합리성은 설사 그것이 마음의 더 높은 지각에 반대하여 작용될 때조차도 서도 그것이 소속된 거듭남의 단계가 완성될 때 까지 거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심정

상태는 완성된다. 선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때, 즉 솔로몬이 다윗 대신 통치할 때 그것의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다음 여호와께서 사악함에 따라 악행자에게 보상할 것이다. 이런 사악함에 보상하는 분은 기름부워진 자가 아니라 기름부은 자이다. 신성한 진리가 아니라 신성한 선이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행동으로부터 이런 가능성을 제거하신다. 이제 상태의 뒤바뀜만이 계속된다. 이 뒤바뀜이 완성되고 선이 통치할 때 법을 위반하는 모든 것은 내던져질 것이다.

## 29

### 사무엘하 4장

#### 이스보셋이 죽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빠졌고 온 이스라엘도 갈팡질팡하였다.” 이 대목이 새삼스러울 정도는 안되리라 생각된다. 위 구절로 미루어 보아도 이스보셋은 그의 군대 대장이 다윗과 제휴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휘하에 두게 하려 했다는 것을 눈치 못채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군 지도자가 죽는 재난은 이스보셋의 운명과 그의 통치에 전쟁을 치루는 듯한 나라 꼴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그의 나라의 기반이 흔들렸고 파렴치하고 치명적인 적들이 왕궁 내에서 봉기하고 있다. 두 형제, 바야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특공대 대장이었는데 그들은 대낮에 이스보셋의 왕궁에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는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이 머리를 헤브론의 다윗에게 가져와서 말하기를, “임금님의 목숨을 해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야훼께서 오늘 임금님의 원수를 갚으시어 사울 부자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칭찬이나 포상을 내리는 대신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들을 죽인 젊은 다윗의 부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의 기둥에 매달았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지냈다.

신뢰를 두었던 자들을 통해 당하는 불운이나 고통에 관한 줄거리를 읽는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러나 역사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을 깜짝 놀래는 문제로 만들기 위해 너무나 많이 그런 것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조차 우리는 허용하는 섭리를 인지하게

되어 있다. 모든 세계들의 창조자는 모든 사건들의 감독자이다. 그분의 현존과 권능, 이는 모든 것의 자존과 질서에 필수적이다. 이것이 없다면 이 훌륭한 우주는 그 자체 혼돈으로 변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신 세계를 정리정돈하고 보존하는데에도 똑같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관심사와 상태들에 대해 주님의 섭리는 이런 아름다운 유추가 암시하듯, 즉 그들의 머리카락도 낱알이 세어두셨다든가, 하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세세하지 않으면 정신 세계(moral world)는 철저한 혼동과 파멸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신성한 의지가 인간의 모든 행동들 안에서 있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말이다 그럼에도 그 의지는 언제나 적극적이어서 인간 마음과 용역들을 통해 인류 전체를 위해, 각 개인 하나하나를 위해 가장 큰 분량의 선과 행복을 창출해낸다. 신성은 인간의 생각과 일상업무들의 가장 미세한 세부사항 안에도 현존하면서 영감될 수 없는 곳에 영향을 미치고, 안내할 수 없는 곳을 조절한다. 모든 천사와 영들을 대리인으로 채용하는 한편 인간과 주변환경은 세상의 창조와 통치 형태 안에서 인간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신성한 아버지의 한 가지 목적을 증진하는 쪽으로 가능한한 행동하도록 가져다 놓인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많은 인간 체험은 장차 맞을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허용되고 있다.

거룩한 역사에서의 세상의 역사는 인간 본성의 밝은 측면 보다 어두운 측면을 더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들이 신성한 진리의 빛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따라서 신성, 즉 인간 판단에 속하지 않은 빛 안에 놓여있음을 발견한다. 성경에서 인간의 행동과 체험들은 단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리나 책망, 교정, 정의에 관한 가르침을 위해 기록되고 있는바,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게 되고 통괄적으로 선한 모든 일을 장식하게 된다. 거룩한 역사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교리와 가르침 외에도 영적 해석의 법칙에 의하면 더 높은 교리나 가르침을 보게 되어 밝히 알게 된 진리의 샘물을 음미하되 천국의 샘물 뿐아니라 지옥의 샘물 까지도 마셔볼 수 있게 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역사 사건에서는 야만스러운 두 형제의 품성과 행동에서, 의지와 이해성 모두가 타락된 자연적 마음의 품성과 작동을 보게 된다. 그들의 잔인한 행위는 자연적 인간의 품성을 표현할 뿐아니라 본보기가 되고도 있다. 자연적 마음 뿐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불안정함이다. 그들은 환경이 바뀌면 변해지는 사람들이다. 내향의 원리가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시냇물이 흐르듯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숭배한 우상을

보존하는데 열정적이었듯 그것을 파괴하는 데에도 그러하다. 의지와 이해성이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하나될 때 거기에는 너무나 어둡다고 할 수 있는 행위도 없고 너무나 파렴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수단도 없다. 두 베냐민 사람은 밀을 가지러 온 듯 하면서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갔다. 마치 악을 행하는데 성급해 있으면서도 선을 추구하는 척 하는 것, 생명을 파괴하려 할 때도 생명을 더 증진되게 하려 애쓰는 듯 하는 것과 같다. 이스보셋은 “그의 침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찢러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가지고 나와 밤새 평원을 달아났다.” 근심걱정과 수고함 뒤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인간 마음의 내면의 생명을 악과 거짓이 관통해 버릴 때 그들은 선함과 진리의 생명이 있었던 곳에서 가능만 하다면 더욱 멀리 그 생명을 가져 간다. 그들은 이미 죽임을 당한 바깥쪽 부분으로부터 안쪽 부분에 더 격렬해져 그것들을 밤의 어둠 가운데 평야를 통과해 가져 가버린다. 이 평야(plain)는 마음 자체 안에 있다. 그리고 밤은 마음의 상태이다. 성경에서 평야는 마음에 있는 평면(plane)들을 의미한다. 우리의 언어에 있는 이 두 단어들은 똑같은 근원에서 출발했고 거의 똑같은 생각(idea)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생각, 단지 단어가 아닌 이 생각의 바탕을 형성한다. “인간에게는 두 평면이 있는데, 그 위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천적이고 영적인 원리들이 발견되어진다. 이 평면은 내면(interior)이 있고 외면(exterior)이 있다. 이 평면 자체는 양심이다. 내면의 평면, 또는 내면의 양심은 순수한 선함과 진리가 있는 곳이다. 그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양심 안으로 흘러 든 선함과 진리가 내면의 양심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이다. 외면의 평면은 외면의 양심인데, 거기는 정의(justice)와 공평(equity)이 있는 곳이다. 그 이유가 올바를 수 있고 공평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 시민적 삶에 흘러드는바 그것이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이다. 양심에는 가장 바깥쪽 평면(outermost plane)이 있는데 그것도 양심같이 나타나기는 하나 양심은 아니다. 이 평면은 자아와 세상을 위해 올바러야 하고 공평해야 할 것들을 행한다. 다시 말해 법의 두려움을 통해서, 세상적 소유물, 자기가 칭송받는 것, 명성을 드높이는 것들을 위해 정의를 실시한다.” 이 마지막 평면은 사악한 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평면이다. 이 평면이 레갑과 바야나가 어둠의 행위를 자신들로부터 까지도 숨겨주는 어둠의 밤을 통과한 평야로 표현되어 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마치 다윗의 총애를 받으려 준비한 예물인 듯 내밀어 바치는 그들에게 그의 개인적 이익 측면이 사악한 자들을 향해 적당히 넘어가도록 충동받았던 상황에서도 그의 행동을 집철해 왔던 참다운 고귀함을 이 대목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전에도 희소식이나 되는 줄 알고 사울의 죽음을 전해주던 자가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소식을 가져온 대가로 그 자를 잡아 시글락에서 처형하였다. 그런데 너희 고약한 놈들은 집에서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그대로 둘 성 싶으냐? 나 이제 너희들을 죽여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희같은 자들은 이 땅에서 씨도 남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윗은 호위병에게 명령하여 둘을 죽이고 그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 기둥에 매달았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다.” 고대 국가 사이에서 많이 성행했던 수족을 잘라내는 행위가 말씀에 기록될 경우 이는 악의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다. 신체의 힘을 작동시키는 수단인 손과 발, 우리로 일하고 견제하는 손과 발은 의지와 이해성을 행동하게 하는 마음의 최말단 능력들과 상응한다. 악한 자의 손이 하는 것이 횡포 뿐이고 그들의 발은 나쁜 짓이나 하러 뛰어 다니면서 죄없는 사람의 피나 흘리려 달릴 때 (이사야 59:6,7), 그들은 선을 행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보듯, 신성한 진리의 심판에서 악은 악행자에게 응보의 영원한 법에 따라 되돌려진다는 것, 인간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30

## 사무엘하 5장 1-5절

###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워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이스보셋의 통치는 이 년밖에 더 아니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도 오 년의 세월이 지날 때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기름부워지지 않았었다. 사울의 아들이 죽고 다윗의 유다 통치가 계속되던 그 세월 동안 열 한 지파의 통치가 어떠했는지에 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왕이 없던 관관기 시대 때와 같이 각자가 제 눈에 좋을 대로 하고 살았던 것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다보니 이 지파들이 더 절박하게 통치의 필요를 느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들은 입을 모아 다윗에게 왔다. 참으로 다윗이 그의 지배 아래 열 한 지파를 가져다 놓는데 정치적 어떤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이 지파들이 스스로 경의를 다윗에게 표하는 것은 지당하다. 주님께서서 왕국을 건설하시러

오셨지만 그 왕국 안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이 자유롭게 상호 교류되기를 원하신다. 그이유가 인간은 자유 상태에 있을 때만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통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에도 우리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것은 임금님이었습니다. 야훼께서도 임금님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리하여 다윗왕은 헤브론으로 찾아 온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을 맞아 야훼 앞에서 조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 구절은 주 예수에 관한 세밀한 묘사이다. 그분은 인성으로 옷입으시어 우리와 한 골육이다. 비록 그 인성이 영화하셨다 해도 우리와의 친척 관계가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화하시기 전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다. 그이유가 신성이 모든 충만으로 계신 영화된 인성은 생명 자체이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되는 모든 것 안으로 생명되는 원리로서 들어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 인성은 인간 마음 안에서 진실로 인간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어느 누구도 신성한 인간의 형상이지 않으면 참된 사람일 수 없다. 백성을 먹이시고 백성의 영도자인 다윗의 주님에 관한 묘사 역시 덜 그려진 게 하나도 없다. 그분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기 까지 한다.

주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는 조약은 쌍방간의 이런 조건, 그분 쪽은 보호와 후원이요, 백성 쪽은 신뢰와 순종이다. 교회가 주님의 인성 안에 그분의 신성이 현존하심을 인정할 때 이 조약은 여호와 앞에서 작성된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붓는다. 이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다시 그분께 되돌릴 때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상호 간의 결합이 있게 된다.

모든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다윗의 통치 아래 놓여 한 명의 왕 아래 통일된 하나의 왕국을 형성했을 때 새로운 수도가 더 확장된 통치에 알맞도록 왕에 의해 준비되어졌다.

예루살렘은 여부스족이 거주했는데 그들은 칼로 무참히 싸웠던 가나안의 일곱 부족 중의 하나이다. 거룩한 땅을 분할할 때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할당되었다(여호수아 18:28). 과거 예루살렘의 왕은 해가 멈추었던 기념할만한 날에 여호수아와 맞서 싸운 다섯 왕 중의 하나였다.(여호수아 10:5). 예루살렘의 거주민, 여부스가 그렇게 강력했던 것은 그 성이

지리적으로 견고한 덕택이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그들을 몰아 내지 못하여 여부스족은 그 날까지 그들과 섞여 살았다 (여호수아 15:63, 판관기 1:21). 여부스족이 강세를 유지한 것은 다윗을 위해서였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전군을 지휘할 때까지 그곳을 공략하지 않았다. 다윗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가자 여부스족은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 요새인데 감히 이리로 들어오려 한다고 빈정거렸다. 이런 과정들 안에는 역사 줄거리 말고도 더 높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줄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그 하나는 포괄적인 주제 측면이고, 또 하나는 계시라 불리워져서 알려지기만 해왔던 하늘 왕국의 신비 측면이다.

모세 시대로부터 솔로몬 시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내적 의미에서 일 경우, 영계에 그 결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구속하시는 주님의 일의 역사이다. 영계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심판이 결과되어 새 하늘이 형성되어져 지상에 새로운 교회의 건설이 준비되는 곳이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에집트를 빠져 나올 수 있게 한 에집트의 재앙은 심판 과정과 그 발전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 심판을 수단으로 영들의 세계에서 선한 자는 악한 자로부터 분리되어진다. 홍해는 지옥을 의미하는데, 에집트 군대로 표현된 사악한 자는 이곳에 빠졌고, 이스라엘 후손들로 표현된 의로운 자는 이곳을 안전하게 건너갔다. 사 십 년의 광야 여행은 시험을 묘사하는바, 이 시험을 구속되는 자들은 천국에 입장할 수 있기 전에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위 줄거리는 천적 수준의 교회가 타락된 이래 주님이 강립하시는 때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이들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사실(fact)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에는 이런 공통된 신조도 있다. 인간의 타락된 종족을 위한 구원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된다는 것, 그분의 속죄(atonement)에는 과거의 죄들 뿐 아니라 미래의 잘못(offences)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의문은 어떻게 그것이 결과되었느냐? 이다. 우리는 이런 공통된 견해를 알고 있다. 그리스도는 타락의 때로부터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약속을 받아 쥐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멀리 저쪽에서 보면서 믿음 가운데 죽은 이들은 구원되어졌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총으로 값없이 의로워졌다는 것, 이 예수를 하느님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바 이는 하느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과거에 있는 죄를 면죄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것“이다 (로마서 3:24,25). 우리는 주님의 구속에 따른 효능에 있는 공통된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바, 죄는 제거라는 수단으로 삭제될 뿐이라는 것이다. 지극히 중요한 질문, 치명적인 질문이

대두된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범해진 죄일 경우 어떻게 주님께서 육으로 계시어 행하시고 고통받았던 것들로 제거될 수 있을까?

구원의 일은 두 부분, 개혁(reformation)과 거듭남(regener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에서 개혁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구원된다. 그이유가 자연계에서 악을 죄로 알고 금해 왔던 이들은 영계에서 선으로 물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인간은 세상에서 개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날 수는 없었다. 거듭남은 시험(temptation) 없이 결괏될 수 없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옥을 정복하시고 그분의 인성을 영화하셨을 때까지 아무도 시험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시험받을 수 있는 시련이 허락되지 않았었다. 어쨌든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은 없고 따라서 천국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녔다가 죽은 이들의 구원이 설비되었을까? 새 삶의 첫 단계를 통과해서 두 번째 단계까지도 통과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중간 상태, 즉 영들의 세계에 보존되어졌다. 주님께서 지옥을 정복하시고 그분의 인성을 영화하셨을 때 영들의 세계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각자에 상응되는 과정을 통과했고 그분이 영화하셨던 그대로 거듭나게 되었다. 고통을 통해 완전해지신 그분은 시험받는 이들을 후원할 수 있으셨다 (히브리서 3:18). 신실한 사람들이 중간 상태에서 수행하셨던 시험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중간 영역, 황폐되고 황량한 광야에서 견디어낸 시련들로 표현되어 있다. 이 시련에 의해 그들은 약속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과거에 있었던 죄들을 면제받았다. 그들은 태(womb) 안에서 운반되어 왔었다. 지금 그들이 태어나졌다. 다시 말해 비록 곤경과 번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위로부터 태어나 있다는 말이다. 그이유가 신실한 자의 어머니 격이 되는 교회(the Church)가 예언자에 의해 기술된 이런 상태, 즉 “아기를 낳으려 하나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 (이사야 37:3)에 있었기 때문이다. 신실한 사람들, 새로 태어난 이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준비되어졌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순례의 여정이 끝난 후 약속된 땅으로 들어 간 것과 같다.

천국의 예정이요, 신실한 자의 영원한 고향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간주해볼 때, 그곳과 연결되는 한 가지 중요한 주변의 여건이 있다. 가나안 땅은 사악한 자들의 괴롭힘이 중단되고 피로에 지친 자들이 평안히 쉬는 장소의 형상은 결코 아닌 듯 보일는지 모른다. 이곳은 사악한 국가가 있던 곳,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평온한 거주지로 삼기 전 몰아내야만 했던 그런 장소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설명하기 힘든 주변의 여건이 스페텐보리의 저술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인간 구속의 위대한 일에 관한 일률적이고 계속적인 역사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차후 영인들이 들려 올려지는 천국 영역은 악령과 악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이 영역 대부분에서 악령과 악귀가 득세하여 선한 자들, 특히 보다 수준 낮은 땅에 있었던 영인들이 횡행했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후,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내던져졌고 그 영역은 해방되어 영적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 이것은 주님의 둘째 강림과 연결되어 말해졌던 가상의 천국(imaginary heaven)과 같다. 이 가상의 천국은 거행된 심판으로 폐지되었다.

후에 영인들에게 영원한 상속분으로 주어졌던 천국 영역을 점령하고 있던 악령과 악귀가 가나안의 국가들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호수아나 판관들, 사울을 포함해서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역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이유와 이 지역의 마지막 완전한 정복이 다윗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다윗은 특히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을 표현했고, 이 주님이 죽음과 지옥을 정복했다. 그리고 갠히바 된 영들에게 가서 설교했고, 땅 위 인간과 오랜 동안 어둠의 권세로 갠히바 된 황천(Hades)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해방시켰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 마치 주님께서 권능으로 천국의 왕국을 취하려고 신실한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핀다.

## 31

### 사무엘하 5장 6-25절

#### 다윗이 견고한 성 시온을 점령하다

왕국의 수도가 지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있는바 이에 관한 소견을 피력해볼까 한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보다 가나안의 경계선에 더 가까웠다. 그래서 영적 인간들에 주어졌던 천국의 영역에서 보다 더 외면의 부분을 표현했다. 더불어 주님의 교회(the Church)에서도 덜 내면에 속하는 상태를 표현했다. 그러므로 왕국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함은 저 세상에서 영적 인간(the spiritual)이 드높혀지는 것, 그리고 마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더 높임을 받는 것, 이리하여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지배가 더 완전해지고 더 팽창되는 것을 표현했다.

우선 다윗 왕국의 두 번째 수도인 그곳은 이중성이 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구분지어 언급하는 장소의 이름이 나타내고 있다. 헤브론은 키랏아르바로서 때때로 말해지고 있다. 그래서 키랏아르바와 헤브론, 마치 예루살렘과 시온의 경우 같이, 본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에 근원을 두든지, 이웃을 사랑함에 근원을 두었든지 어쨌든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 안으로 통일되게 들어가는 진리와 선이라는 두 원리를 의미한다. 참으로 우리는 때때로 진리의 정부와 선함의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는 주님의 두 왕국을 표현한 말이다. 그렇다고 진리와 선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된 상태이다. 단지 두 원리 중 어느 한쪽이 마음에 더 뾰족하게 특징을 주고 더 적극성을 띄고 있다는 것뿐이다. 어떤 마음 안에서 진리가 선 보다 더 적극적일 경우가 있고, 또다른 어떤 마음 안에서는 진리 보다 선이 더 적극적이다. 그럼에도 모든 거듭나는 마음에서 진리는 선으로부터 행동하고 선은 진리를 수단으로 행동된다. 이것이 영적 수준의 인간과 천적 수준의 인간, 교회, 그리고 천국의 차이를 구성하는 원인이 된다.

예루살렘과 시온, 마치 헤브론이 있던 아르바 처럼 이스라엘 후손이 그들의 상속분을 점령하러 들어 갔을 때 가나안의 토착민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이미 살핀바 같이 헤브론은 야낙의 후손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할할 때 헤브론은 갈렙에게 할당되었는데 이는 오래 전 모세가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의 이행이었다. 그당시 갈렙이 여러 다른 스파이들과 그곳을 정탐했는데 그때 그가 주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의 발이 닿은 곳은 그에게 주어지리라는 약속이 있었던 터였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에집트를 떠나 거룩한 땅으로 진입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 두 사람은 에집트를 탈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았던 유일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런 두 원리 - 선함과 진리 - 마음과 삶이 체험하는 모든 변화 속에서 계속 존재해 가서 결국 우세해지는 선함과 진리를 표현했다. 이 두 원리는 모든 상태들에 들어가 현존하면서 모든 상태들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연결하여 하나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듭나는 삶이 진보해 가는 동안 획득된 새로운 의지와 이해성도 표현하고 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 왕 시대의 여호수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다윗에게는

여부스족의 손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점령하는 힘든 작업이 유보되어 있었다.

제아무리 시온성이 견고하다 해도 그 방어를 절름발이와 소경에게 맡겨 놓았을까 하는 것과, 소경과 절름발이를 쳐부순 자에게 특별한 포상이 제공되었다는 것, 또는 이 전투를 특이한 공적으로 중요하게 만들었다는 것 또한 평범히 이해하기에는 힘든 대목이다.

이 대목에 합당할만한 견해는 이렇지 모른다. 그 성이 요새 같은데 위치하고 있는바 이를 믿고 다윗을 조롱해서 여부스인들이 절름발이와 소경에게 맡기고 그런 유약한 이들과 싸워야 할 만큼 무능하다고 코웃음쳤을 것이다. 그리고 여부스인들이 자기들과 싸워야 할 적의 능력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 성 위에 배치했던 이들의 손에 그 성의 운명이 놓이고 말았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성을 지키려고 결국 인간 힘을 다 쏟았으나 헛일이 되고 말았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어쨌든 위와 같은 견해들, 여부스인들 중에 가장 미력한 자들에게 그들의 성을 방어하라고 맡겼다는 예루살렘 거주민의 독특한 주변 형세는 어떤 정밀한 의미가 담기도록 취해진 여건일 것이다. 내적인 영적 의미는 그 글자 대로 안에 잘 남아 있다. 어쨌든 이 사실 자체 하나 만으로도 의미를 파악해 보려는 우리를 안내해 주는데 충분하다.

절름발이와 소경은 우리 자신의 심정과 이해성 속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다. 성경에서 육체의 질병은 마음의 질병을 의미하는바, 겉거나 일하는데 있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무능함을 함축하는 절름발이란 유용한 삶을 방해하는 의지의 박약함 또는 의지가 뒤집힌 상태를 의미한다. 눈은 이해성과 상응되기 때문에 그것이 비의도적이었던, 고집스러운 정신적 소경이었던 무지 또는 잘못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주제를 인간 거둬냄의 일에 관련해 생각한다면 여부스족의 손에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악한 바램과 왜곡된 추구라는 힘으로부터 아직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의지와 이해성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윗에서 우리는 그가 가장 높은 측면에서 이런 주님을 예지하는 것, 즉 전능하신 그분의 팔로 심정과 지성 속의 적들을 정복하고 사탄이 점령해왔던 곳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께 관해서 말하든, 그분의 사랑과 진리에 관해서 말하든 그것은 똑같다. 그이유가 주님은 사랑 자체요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진리 안에 현존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진리 없이, 또는 그것들을 벗어나서는 구원하시는 권능으로 현존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권능이라고 말하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와 그 권능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다. 이런 견지와 방법에서 우리는 주님의 표본인 다윗을 본문의 상황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유전적 본성 속의 가장 강력한 악과 거짓, 마음 속의 가장 높은 애정과 생각을 포위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신성한 기록의 세부사항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싸움의 본성과 결과 같이 어떤 감화 깊은 교훈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절름발이와 소경은 다윗이 이 성을 빼앗는데 큰 장애물로서 표현되어 있다. 왕 스스로도 군사들로 하여금 배수구로 올라가 쳐부수라고 격려한 뒤 장애물로서 간주하고 있다.

섬멸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일곱 부족 중의 하나인 여부스족은 어떤 동맹 관계도 만들 수 없는 제일 가는 악과 거짓, 본질적 차원의 악과 거짓 중의 하나를 표현했다. 여부스인들이란 완전히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몰아내야만 하는 신약 성서 속의 일곱 악마들,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악마 일곱을 데리고 들어 옴으로 해서 처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지게 한 일곱 악마와 같다. 우리는 위의 파괴적인 악들이 일곱이었다고 숫자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숫자 일곱은 영적 삶을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악의 분량 보다 품질을 나타내도록 고용된 숫자이다. 그러므로 이런 악은 그 자체 무조건 내쳐야 하는 악이다. 그이유가 숫자 일곱은 좋은 의미에서는 거룩한 것을 표현하지만 반대 의미일 경우 모독된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악과 거짓된 것은 참으로 모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일곱 국가와 일곱 영은 모든 악과 거짓들로 납득된다. 그럼에도 자기들 안에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악과 거짓 원리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그 악이 무지로부터의 결과일 때, 불완전하고 오류투성이의 믿음의 비의도적인 결과로 악이 있게 되었을 때이다. 이런 악은 본질적으로 모독은 아닌바 영적 삶을 완벽하게 파괴하지는 않는다. 이런 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하고 그들이 보내는 공물도 받을 수 있게 허용된 원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표현되어 있다. 보다 더 좋은 측면 쪽에서 봐줄 때의 여부스족이란 진리의 어떤 것이 있는 거짓 원리를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는게 허용되고 결코 끝장나게까지는 추방되지 않았다. 이런 벌충될 수 있는 품질이 있다 해도 본질적으로 나뻐던 것은 그 품질이 보존된 수단이다. 그이유가 악이 선한 쪽을 내밀고 있을 경우 거짓 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에집트의 마술사가 부린 기적도 그것이 악과 선, 진리와 거짓이 혼합된 상태를 표현하는 동안은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어 모세의 기적 같이 현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악과 거짓 만의 상태들을 표현한 경이로움을 수행하자마자 마술사의 능력은 그치고

말았다. 마음이 착한 이들은 순수한 악과 거짓 만으로는 현혹될 수 없고 이끌려지지도 않으나 선함과 진리의 외관을 입고 접근할 경우 유혹될 수 있다.

그러나 여부스인들은 도성의 방어를 그들의 소경과 절름발이에게 맡겼다. 그이유는 장애자들이 어떤 대단한 방어를 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서 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정면으로 대적한 용사 보다는 이스라엘에 본질적으로는 덜 반대되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께서 유다인에게 말했다.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요한 9:41). 소경됨, 그것이 무지를 의미할 때 이는 죄가 없다. 절름발이, 그것이 결핍(want)을 의미하여 능력의 남용이 없을 경우 이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떤 외관을 띄게 될 때, 본문의 경우 같이 소경과 절름발이가 다윗 군대를 조롱하기 위해, 또는 사기치기 위해 앞장 서게 될 때 죄의 고백이 없ed든가 겸허함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보다 더 큰 범죄이다. 그러므로 절름발이와 소경은 처치해버리도록 명령되었을 뿐아니라 다윗의 영혼이 미워한다 고도 말해지고 있다.

다윗이 견고한 성 시온을 점령한 후, 그 성채에서 살며 그 성을 다윗의 성이라 불렀고 밀로의 안쪽으로 다시 성곽을 돌려 쌓았다. 오류의 이 견고한 성이 진리의 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성은 새로운 품질을 표현하는 “새로운 이름”을 획득했다. 소유된 것은 방어되는게 필요하다. 밀로의 안쪽으로 건축하는 것, 이런 장엄한 건축물은 방어와 즐거움 둘 다를 위한 시작일 뿐인 것은 의심할바 없다. 후에 시편 기자의 찬양이 이렇게 읊어지고 있다. “은 세상의 즐거움”.....“시온성을 들고 돌며 성의 망대들을 헤아려 보아라. 그 성벽 익히 보고, 그 성루 유심히 보았다가 후손들에게 일러주어라” (시편 48: 2, 12, 13). 거룩한 상태의 달성, 그리고 달성한 그 상태를 보존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 병행되어야 할 대상이다.

지금 다윗은 새로운 경력을 쌓기 시작한다. 모든 영적 진보는 방해물과 시련이 동반하지만, 이는 정신적 에너지를 불러 일으켜 겸허와 신뢰를 증가시키는 수단밖에 더 아니다. “만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므로 그의 세력은 날로 뻗어갔다.” 진리의 길을 가면서 선함을 더욱 사랑하는 이들은 그들과 함께 사랑과 진리의 하느님을, 정녕 그들 안에 사랑과 진리의 하느님이 계신다. 그이유가 선한 즐거움을 뜻하게 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그분 뿐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이 영적 싸움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신실한 사람을 원조하기

위해 그분이 앞서 인도하는 군대가 천군과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들이다. 이들은 언제나 함께 행동한다. 그들은 도구들이고 이 도구를 수단으로 주님은 적군을 대적하신다. 반대하는 군대들은 우리 자신의 심정과 지성 안에 있다. 거기서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다. 만군의 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경우 그 어느 싸움도 패배될리 만무하다.

다윗의 성공과 위대해짐의 한 가지 결과로 띠로의 왕 히람이 건축 재료와 인부를 딸려서 다윗에게 사절을 보냈다. 그들은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었다. 히람, 그는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이들, 그리고 주님이 거하실 집을 마음 안에 건축하는데 총명과 수단들을 공급하는 이들을 표현했다. 비록 다윗의 집은 성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성전으로 거듭나는 마음 속에 있는 집, 그분의 신성의 성전 같이 주님의 신성한 인성에 대한 예정(type)이었다. 다윗의 집은 주님의 진리가 확실한 거처를 발견한 마음을 예정한다. “다윗은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자기의 왕권을 떨치게 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이 번영하는 단계 중에서 이 단계는 거듭나는 마음 안에서 통치하는 원리로서 영적 진리가 건설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적인 상태가 완전해진 것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들이 애정 안에서 확실하게 붙들려 있는바 안정됨의 기쁜 느낌과 힘을 마음에 주고 있다.

위 주제의 영적 관점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구분되는 점이 있다. 다윗은 왕이 통치하는 목적에 대해 계발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의 왕국을 드높이셨다. 이것은 신성한 통치 정부의 원리이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통치해 주시고 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심정에서 그분의 나라가 드높혀지고 그들의 선을 위해 그들을 통치하시기를 바라시고 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행복과 분리된 그분의 영광은 생각 속에 조차 아예 없으시다.

다윗 왕국이 번창하는 또다른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 대목을 자연적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이상할는지 모른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긴 뒤 후궁들을 더 얻어 아들 딸을 많이 낳았다. 영적으로 볼 경우 이런 부가 사항은 진리와 선함의 애정이 증가한 것을 뜻하고, 태어난 아들 딸은 애정을 수단으로 생산된 덕행(virtue)들이다. 이 구절에서 아내들의 이름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다. 자연적인 출생들이 영적인 출생들을 뜻하듯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들이 출생하는 질서는 그들이 표현하는 품질이 존재를 갖게 되는 질서를 묘사하고 있다. 물론 다윗의 아들들이 표현하는 영적 출생의 본성과 질서를 꼼꼼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이 신성한 기록은 연속적인 출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수단은 제공하고 있다. 히브리 이름들의 경우 우리가 그 의미를 언제나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해도 어쨌든 그 이름들은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있는 이름들은 그 개인과 사물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이름이 지닌 뜻은 해석의 수단을 제공한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열 한 명의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의 의미가 거듭나는 삶의 진보에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품질의 시리즈에 관한 어떤 생각을 암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기로 하자. 삼무아는 들음(hearing)을 의미한다. 소밭은 (적들로부터) 되돌림(brdught back)을, 나단은 (하느님에 의해) 주어짐(given)을, 솔로몬은 평화로움(peaceable)을, 이브할은 그분(하느님)이 뽑으신 자(whom he(god) elects)임을, 엘리수이는 하느님 풍요로우신 분(God the rich)임을, 네백은 싹이 나옴(shoot), 싹(bud)임을, 아비이는 실예를 들어 보이는 것(illustrious)임을, 엘리사마는 나의 하느님이 들으실 것이다(my God will hear), 또는 청중함(hearken)을, 엘리아다는 하느님이 아는 자, 즉 인정하고 돌보는 자(whom God knows,ie. acknowledges and cares for)임을, 엘리벨렛은 구원의 하느님(God of salvation)임을 각각 뜻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의 연결이 있는데 이를 살펴 보자.

첫 아들은 들음으로부터 이름이 지어졌다. 들음은 의지에 있는 믿음이다. 마치 본다는 것이 이해성에 있는 믿음인 것과 같다. 의지에 있는 믿음, 또는 진리에 순종함은 자신의 심정 속의 악인 적의 권세로부터 기독 제자들을 해방시켜 준다. 악이 제거되는 만큼 주님께서는 선, 똑같은 것으로 이타애(charity)를 주신다. 그리고 선이 진리에 하나될 때, 이타애가 믿음에 하나될 때, 기독교인은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 온다. 또는 주님의 평화를 받는다. 그다음 그가 뽑힌 자(the elect)란 그들이 자기의 선생이요 안내자로 그분을 뽑았기 때문에 그분이 뽑으신 이들이기 때문이다. 기독 제자가 선한 쪽을 선택했었을 때 그는 하느님 안에서 풍요로워진다. 다시 말해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로, 영적 발달의 지혜인 주님을 경외함들로 풍요로워진다. 영적 발달의 새로운 상태가 이제 시작된다. 사랑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마음으로 흘러들 때, 마치 태양의 열이 나무 안으로 흘러들 때와 같이, 그것은 싹이 트게 하고 싹이 솟아나게 한다. 이 싹들은 무성한 잎으로 외관을 펼쳐 놓는다. 그리고 나무는 약속된 수확의 재산으로서 꽃을 피운다. 이것은 영적 상태가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다.

그이유가 꽃피움은 충명을, 열매는 정의의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두 상태들은 새 삶의 시작은 아니다. 그이유가 거듭나는 사람은 마치 나무처럼 그가 재생산력을 가질 수 있기 전 성숙해짐의 어느 수준을 달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상태와 하느님이 들으심으로 표현된 것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을까? 주님의 교회(the Church)의 복되고 결실있는 상태가 호세아에 의해 이런 말로 묘사되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나는 들어 주리라(I will hear). 야훼의 말씀이시다. 내가 하늘의 청을 들어주면 하늘은 땅의 청을 들어주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청을 들어주고 이 모든 것은 이즈르엘의 청을 들어주리라. 나는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이 땅에 심으리라” (2: 21-23). 마음의 가장 높은 것으로부터 가장 낮은 것에 이르는 모든 것이 부합할 때, 이것이 저것에 답하고 모든 것이 그분과 일치하는 상태에 있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주신다. 듣는 것에는 두 가지 다른 행동이 있다.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의지 안에 받아 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청)을 듣는다.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진리와 일치할 때 그분은 우리(의 청)을 듣는다. 첫 번째는 수용함(reception)이고 두 번째는 상호작용(reciprocation)이다.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알고 우리 역시 그분을 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있고 나의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라 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그 다음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느님 나의 구원이시여! 일 것이다

다윗의 열 한 명의 아들과 야곱의 마지막 열 한 명의 아들과는 유사함이 있다.

열 한 명의 다윗의 아들 중 첫 번째의 이름은 야곱의 두 번째의 아들의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영적 의미도 똑같다. 야곱의 첫 아들, 르우벤은 보는 것(seeing)에서 이름지어졌다. 둘째 아들 시므온은 듣는 것(hearing)에서 이름지어졌다. 이해성은 진리를 보고 의지는 진리를 듣는다. 거듭남은 진리가 의지에 들어 갈 때까지, 즉 시므온이 태어날 때까지 실지로 시작하지 않는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과 관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치 르우벤과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의 관계와 흡사하다. 르우벤 처럼 다윗의 첫 몇 아들이 품행이 나빴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 암논은 그의 누이 다말을 겁탈했고,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고, 아드니야는 그의 형제 솔로몬에 반역을 했다. 이 세 사람 모두 비참하게 죽었다. 그 죽음은 그들의 범죄의

결과였다. 르우벤과 압살롬은 죄명이 똑같다. 각각은 그의 아버지의 침상으로 갔다.

위에서 우리는 간략하지만 다윗의 아들과 야곱의 아들이 관계되는 의미를 짚어 보았다. 자연적 출생이 영적 출생을 의미하듯 똑같은 일반적 사실이 그들 모두에 의해 표현되어져 있다. 이 모두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새 삶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다.

다윗의 번영은 시련에 부딪칠 경우 확고하지 못했다. 거듭남은 시련과 쾌거, 환난과 평정의 교차가 반복되는 정도에 비례할지 모른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부어 왕으로 모셨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군은 다윗을 잡으려고 쳐올라 왔다.” 다윗은 다시 그의 영향력을 장악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 적의 군사력이 그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블레셋군은 르바임, 즉 거인들의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느님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 그들을 쳐서 패배시켰다. 똑같은 적에 의한 두 번째 침공은 똑같은 결과들을 수반하게 하고 있다. 다윗은 “블레셋군을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쫓아 가며 무찔렀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에 관하여는 여러번 살핀바 있어 이 대목에서 다시 세세하게 살필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이 전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전투의 경우도 앞서 살핀 대목의 설명을 참조하면 쉽게 이해되리라 본다.

## 32

### 사무엘하 6장

#### 하느님의 궤를 거룩한 성으로 모셔오다

하느님의 궤는 이스라엘 교회에 있는 거룩한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했다. 이 궤는 십계명이 하느님의 손가락에 의해 새겨진 두 돌판을 담은 성별된 집기였다. 이 법은 계약의 법이라 불리웠다. 그 이유는 이 법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이행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아직 이렇게 남아 있다. “네가 생명의 나라에 들어 가려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거기에 한 가지 다른 게 있다. 우리는 글자 차원에서 뿐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가 증가한 만큼 순종에 따른 축복도 향상된다. 우리가 영적인 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상속분에 대한 보상

역시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법이 우리의 심정에 새겨진 만큼 하느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존재되는 것이다. 기독교인과 더불어 “하느님의 왕국은 양식과 물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다.” 이 왕국이 심정 안에 장착될 때 기독교인은 자신 안에 자기의 상속분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옛 것 아닌 상태가 되어 천국 안에 보물로서 남는다.

이 법을 놓고 우리가 가지는 흥미는 모든 것은 그 법과 관련되게 하여 준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궤에 관한 구약 성서의 보물 같은 역사들은 그 실례가 그 역사 속에서 독특하고 정감어린 여건을 만들어 우리를 훈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얼마나 흥미를 더해 주던가!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의 역사에서 우리가 읽는바, 이 법은 시나이의 천둥 소리 사이에서 전달되고, 이 법이 씌어진 두 돌판이 안치될 궤를 만들기 위해 그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 궤는 아카시아 나무(shittim wood)로 만들어 그 안팎을 순금으로 입혀야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법은 사랑의 선 안에, 이기심과 독선에서 자유로운 심정, 모든 공적은 정의의 근원이신 주님께 속한 것임을 내향적으로 인정함 안에 직접적으로 거주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궤 위에는 속죄판이 있고 이것 역시 순금으로 되었다. 그리고 속죄판 위에는 두 거룩이 있고, 하느님께서 이 거룩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 말하시고 그를 통해 백성들에게도 말하셨다. 십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담은 신성한 요약서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영원한 삶의 조건으로서 계명을 지키도록 강하게 주장하시는 한편 유대인의 도덕성이라는 수준 낮은 표준으로 이 법을 들어 올리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모든 계명의 첫째는 무엇 보다 먼저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 둘째도 첫 째 못지 않게 중요한데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디는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모든 계명이 가르치는바이고 이 위에서 모든 계명이 성취되는바 이것은 신성한 법을 담고 있는 궤 위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서있는 두 거룩들이다. 주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함과 인간을 사랑함이 하나되는 장소에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신다. 그들의 하나됨은 심정의 순수함과 생활의 거룩함에 얽혀 있다. 마치 속죄판과 거룩이 증거궤에 얽혀 있는 것과 같다. 율법을 담고 거룩이 얽혀진 이 궤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안치된 모습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신성한 법은 심정과 지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 궤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야영하는 그 중앙에 있게 되었다. 그들의 여행에서는

그들 앞에서 운반되었고 쉼 때는 그들과 함께 되돌아 왔다. 이 퀘는 요르단 강을 갈랐고 여리고 성벽을 허물었다. 신성한 법이 심정 안에 있게 될 때 그 법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우리의 영적 삶의 진보해가는 우리의 길에 놓는 장애물을 제거할 권능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보호와 축복의 수단으로서 이 퀘를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는 때가 왔다. 엘리가 대 사제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이 난국에 원로들은 퀘를 진지로 옮겨 왔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함성을 질렀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신뢰, 하느님 안에서의 신뢰에 따른 함성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제적 지도자는 파렴치하게 부패되었고 그들 자신들은 바알이 태양의 이름과 호칭이듯 달의 이름과 호칭인 하늘의 여왕이라는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쪽으로 변절되어 있었다. 이 싸움에 참가한 이스라엘 후손의 경우가 이렇진대 거기에 하느님을 실지로 신뢰함이 있을 수 없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대결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하느님의 퀘도 빼앗겼다. 이 퀘는 블레셋 영토에로 트로피 같이 전리품으로 실려가고 말았다. 만일 선한 사람 안에 악이 현존하여 하느님의 퀘가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을 훼방하고 있다면 무엇이 악 그 자신 위에 결과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이 그들을 파괴하는 수단이다. “이것이 정죄인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인간이 빛 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이유가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주님 자신에 관해 말하신 것, 그분은 이런 참다운 법,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든지 부서질 것이고, 떨어지는 돌을 맞는 자는 그 돌이 그를 가루가 되게 할 것이다”이라는 말씀이 율법의 돌판에도 해당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이내 그 퀘는 무신앙의 소유자에게 그 권능을 보였다. 다곤 신상이 퀘 앞에서 조각나 넘어졌다. 이 퀘는 아스돗의 주민들을 호되게 치고 병에 걸리게 했다. 점장이를 부르자 그들은 그 퀘를 제물과 함께 이스라엘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래서 젖을 내는 어미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에 퀘를 싣고 금 쥐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놓였다. 그리고 소는 유다 성읍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걸어 갔다. 이 줄거리는 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머무르는데 대한 상응의 법칙에 일치되어 있어진 사건임은 의심할바 없다. 퀘는 새 수레에 놓였다. 그 이유는 새 수레가 악과 거짓으로 더럽혀진 일이 없는 교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수레는 멩에를 떼어 본적이 없는 젖먹이 딸린 소에 의해 끌려졌다. 그 이유가 이 소란 거짓 관념에 노예되어져 있는 적이 없었던 자연적 수준의 선한 애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소가

벧세메스로 가는 길로 갔다는 것은 부패되지 않은 자연적 수준의 애정은 영적 선함 또는 영적 근원을 가진 선함으로 인도하는 진리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벧세메스 사람들은 이 수레를 부수어 암소를 야훼께 번제로 드렸다. 이런 이유는 위 행동은 자연적 마음의 참다운 생각과 선한 애정을 주님께 헌납하는 것, 이를 수단으로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이 되어 구원된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벧세메스 사람 자신들은 죄있는 불결한 행동으로 많은 백성에게 악을 가져왔었다. 그들이 궤를 보았는바, 주님께서서는 그 백성(5만) 칠십 명(fifty thousand and three score and ten men)을 치셨다. 벧세메스 사람들의 행동은 그 자체만 보면 경미한 죄로밖에 보이지 않고, 영적 처방일 경우 죄로 간주하기 힘들 것 같이 생각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벧세메스 사람들이 소속된 것은 표본적인 교회였고, 그 교회 안의 모든 것은 예정적인 것이다. 무익한 호기심에서 이루어진 행동, 또는 불경한 눈으로 보면서 이루어진 행동, 가장 심오한 존경심으로, 그것도 사제외는 합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들의 행동은 행동 그 자체 같이 표본적인 파괴를 초래하게 했다. 거룩한 말씀의 가장 깊은 측면을 꿰뚫어 보려고 노력해서 거기에 있는 감추인 지혜를 보되, 그의 이해성이 진리의 영(the Spirit of truth)으로 정결되지 않고, 그의 심정이 선을 사랑함으로 감동되지 않았다면 그의 노력과 발견은 그의 영적 생명을 파괴할 뿐이다.

이런 파괴로 겁에 질린 벧세메스 사람들은 키랏여아림 주민들에게 전갈을 보냈고 그들이 궤를 모시고 올라가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고 그의 아들 엘르아잘을 성별하여 야훼의 궤를 모시게 하였다. “그 궤는 키랏여아림에 오랫동안 안치되어 있었다. 이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이스라엘 가문은 모두 야훼께로 마음을 돌렸다”(사무엘상 7:2). 여기에서 궤는 다윗의 시대까지 머무르고 있었다. 다윗이 그의 통치 중 첫 번째 행동 중의 하나는 궤를 기브아(Gibeah, 작은 언덕) 라는 애매한 장소에서 예루살렘에 세워둔 성막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었다. 이제 위에서 살펴왔던 궤가 이동하는 줄거리를 아래에서 생각해 본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문에서 소집한 정병 삼 만 명을 데리고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아비나답의 집에 갔다. 그들이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왔을 때 소(oxen)가 궤를 흔들었다. 그래서 우짜는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이 분별 없는 경솔한 행동에 주님의 진노가 격하여져 거기서 우짜를 쳐서 그는 궤 옆에서 죽고 말았다. 주님께 대한

다윗의 두려움이 너무도 컸던지라 궤를 성으로 옮기는 대신 갓 사람 오벤테돔의 집으로 옮겨 모셨고 거기서 궤는 석 달 동안 머무렀다. 하느님의 궤 때문에 야훼께서 오벤테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들은 다윗은 큰 제물과 큰 기쁨으로 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 들었다.

궤가 여러 연속되는 단계를 밟아 옮겨짐 또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궤가 옮겨짐은 거듭나는 삶의 진보에서 거행되는 것, 즉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진리의 신성한 법의 연속적인 승강을 표징한 것이다. 궤가 안치되었던 세 곳이 언급되고 있다. 첫 두 곳은 일시적인 처소였고 마지막은 고정되고 적합한 거주지였다. 이 세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 궤가 안치되고 여기서 저기로 옮겨짐은 세 상태들을 표현했는데 이를 통해 거듭나는 사람은 천국으로인 위 쪽으로 진보해 건너간다. 그 이유가 충분히 거듭나는 모든 사람 각각은 처음에는 자연적 수준, 그다음 영적 수준의 단계, 마지막으로 천적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꼼꼼하게 말해 본다면, 인간은 처음에는 그의 마음의 자연적 수준이 거듭나지고, 그다음 영적 수준이, 마지막으로 천적 수준이 거듭난다는 말이다. 마음의 이런 세 수준들이 아비나답의 집, 오벤테돔의 집, 다윗 성으로 의미되어 있다. 궤가 마지막으로 시온에 안치되는데 까지 궤가 옮겨지는 것에 관한 본문의 줄거리는 거듭남의 처음부터 마지막 까지, 종교적 완전의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이들에게서의 거듭나는 일을 표본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높이 승강된 상태에 도달된 이들 외의 여타 사람들에게는 이 줄거리의 대상이 아닌 듯 여길는지 모른다. 그러나 세부 단계 모두는 전체와 유사한 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그 관계는 각자 자신의 상태에 자신 스스로 적용되어진다. 사랑과 이타애의 신성한 법을 상징하는 하느님의 궤는 천적 수준의 삶의 가장 순수한 조건을 갖추는 이들 안에서 가지는 것과 유추되는 것을 모든 거듭나는 마음이 승강됨이라는 진보의 상태에서 경험한다. 거듭나는 사람 안에 있는 신성한 법은 기억으로부터 이해성으로, 이해성으로부터 의지로 연속적으로 들려진다. 첫 두 단계는 법의 임시 처소이지만 의지는 마지막 그리고 항구적인 처소이다. 앞 두 상태의 불완전함이 우짜의 행동으로 표출되어 있다.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가 손을 내민 것은 마음의 이런 상태, 자신의 능력으로 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거나 자신의 지혜로 하느님의 법을 변호하거나 옹호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인간이 행동할 때 있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거듭나는 마음 안에서 신성한 법이 연속적인 승강을 표현하는 것인 연속적 단계로 궤가

옮겨지는 본문의 줄거리 중에서 몇 가지 세부사항을 우리가 살펴두어야 할 것 같다.

다윗과 그를 수행한 사람들은 케가 처음 장소에서 둘 째 장소로 옮겨질 때 주님 앞에서 연주를 했다. 음악은 애정을 표현하는바, 언급되는 악기들은 마음의 여러 가지 애정, 영혼의 음악이라 불리우는 것,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 인간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친절이라는 등등이 조화를 이루는 기쁨을 의미한다. 이것은 영기(sphere)의 참된 음악이고, 이 음악은 천국을 가장 달콤한 하모니로 채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오는 길에서 연주한 악기들은 진리의 자연적, 영적 애정들로부터 결과되는 마음의 즐거움(gladness)을 의미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에 이르는 길에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다윗이 춤춘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선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결과되는 심정의 환희(joy)를 의미했다.

시온에 이르는 길에서, 그리고 다윗이 케를 성 안으로 모신 후 다윗이 주님께 제물을 바친 것은 마음의 모든 원리와 자질을 그분께 헌신하는 것, 즉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리고 모여든 온 이스라엘 백성 남 녀 모두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씩을 나누어 주었다. 모여든 이스라엘 군중은 공통된 애정들, 여자는 선의 애정을, 남자는 진리의 애정을 표현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빵과 고기, 그리고 포도주는 영적이고 천적인 선과 진리이다. 이를 양식으로 삼아 그들은 지탱하고 기쁨을 얻는다. 이런 잔치가 말하여 질 때, 마음의 모든 애정에 관한 상호간의 기쁨이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에서 자주 읽는 잔치들도 이것을 표현한다.

케가 광야의 여정, 불레셋군에 포로가 되고,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집에 머문 후 시온으로 입장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입장하기 이전으로서는 가장 크고 가장 즐거운 사건인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거둬남의 완성된 일을 표현하는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의미에 관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비록 우리가 전체로서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실감하는 주제로서 이 줄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더라도 영적 우리 삶의 몇 가지 세부사항 정도에서는 그 충만함을 발견했으리라 생각된다. 신성한 법의 일부로서의 모든 하나 하나의 진리는 전체에 관한 형상이다. 그리고 기억에서 이해성으로, 이해성에서 의지로, 그리고 다시 의지로부터 행동으로 건너가는 하나 하나의 진리는 더 크나 큰 진리의 형상인 하나의 원을 형성해 간다. 생활의 원을 완성한 각각의 모든 진리는 우리의 영원한 상속분의 일부가 되어간다. 이 진리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 거처를 잡는다. 우리가 신실해 있다면 이 진리는 영원히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가장 높은 측면에서 이 사건은 우리 거듭남의 근원과 모형으로서 주님의 영화하심에 관한 완성된 일을 표현한다. 우리 마음에서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뻐 환호하는데 대한 풍부한 이유를 더 발견할는지 모른다. 원인과 결과로서 함께 연결되어 이쪽이 저쪽에 빛을 비추어 준다. 그 이유가 우리는 더 높은 것에서 더 낮은 것의 원인과 모형을 보고, 더 낮은 것에서 더 높은 것의 결과와 형상을 보기 때문이다. 주님에게 있었던 신성한 일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결과될 수 있는 모든 구원하는 일을 추적할 수 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에집트로 피난하시고, 광야에서 시험받으시고, 악마의 일을 뒤엎고 결국 영광으로 들어가신 주님의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악에 노예됨에서 해방시켜 승리 쪽으로 인도하시어 영적인 힘과 행복에서 우리를 일으키려 해서 였다. 우리는 이런 일을 깊이 생각해봄에서 뿐만아니라 체험에서도 함께 연결되기를 바래야 한다. 우리가 깊은 흥미를 가지는 주제로 그것들에 관한 기록과 형상이 표현하고 영감있도록 의도되어져 있는바 진지하고 환호하는 느낌으로 이 줄거리를 읽게 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 본다. 하느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갈 때의 상황이 주님의 교회(the Church)에서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여 늘 부르는 장엄한 시편의 주제라고 생각된다. 시편 24편이 이에 응답되는 형체이고, 이 노래는 거룩한 성의 문에 거룩한 궤가 도착했을 때 불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윗과 성 밖의 군중, 사제와 레위인, 그리고 성 안의 백성이 응답하는 선율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야훼이시다. 싸움터에서 그 용맹 떨치신 야훼이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영광의 왕은 만군의 야훼 그분이시다.”

우리에 앞서 가셨던 분, 지상에서 들리시어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끌어 당기시는 그분으로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 본다면 우리는 위 시편의 응답하는 노래의 다음 주제를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어떤 사람이 야훼의 산에 오르랴?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서랴?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허망한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야훼께 복을 받고 하느님께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며 야곱의 하느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다.”

다윗이 거룩한 궤를 위해 설치한 성막에서의 예식을 마치고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돌아 왔을 때 한 여인 한테서는 불쾌한 영접을 받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체통이 참 불만하더군요. 건달 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집안 누구에게도 결코 대꾸해본 적이 없는 질책의 응답이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 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소.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출 것이며 이번 보다도 더 경망히 할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여편네들은 나를 더욱 우러를 것이요.” 앞서 이미 설명하기를 미갈은 영적 애정이 아니라 자연적 애정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윗이 궤를 옮기는 거룩한 일, 그 법궤를 비록 영원한 거처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합당한 위치에 올려 놓는 이 거룩한 작업에 덜 관심이 있었는 듯 보인다. 미갈이 주님의 교회(the Church)를 표현하는 한, 그녀는 기독교적 면모라기보다는 유대교 풍습을 따르는 쪽에 있는 교회를 표현한다. 마치 율법과 복음이 하나되기를 원했던 초기 제자들이 유대교의 축제를 기독교의 예식과 동등한 수준에 놓음으로 생활의 법 만큼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율법의 의식을 만든 것과 비슷할는지 모른다. 자연적 애정이 이 법에 꼭 붙어 있을는지 모르나 어쨌든 그런 밀착을 반기지 않는다. 미갈이 다윗의 행동에 이의를 단 것은 자연적 애정의 기쁨이 표현된 신호였다. 특히 자연적 애정은 영적 진리가 드러나 보이는 것에 반대한다. 다윗의 아내로서 미갈의 눈에 비치기로는 다윗이 몸을 드러낸 행동은 위엄과 예의에 대한 위반이 아주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갈의 이런 태도가 신성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를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참된 결혼이 없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자식은 야훼의 선물이요 태안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시편 127:3). 영적으로 그분께서 여인으로 무자식이 되게 하실 때, 이는 자연적 마음과 영적 마음 사이에 하모니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이 둘의 하나됨은 종교 생활에서 덕행을 출생하게 하는데 필수이다. 자연적 애정이 영적 진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삶에 결실을 만드는 그들 사이의 하나됨도 있을 수 없다. 애정이 이런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경우 자식을 두어 기뻐하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미갈이었지만 죽는 날 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채 남아 있다.

## 사무엘하 제7장

## 다윗이 주님의 궤를 모실 집을 짓고자 했으나 금하여졌다

거룩한 역사가가 지금 우리에게 표출해주는 장면은 다윗이 예언자 나단과 함께 그의 궁에 앉아 있는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이유가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적들로부터 다윗이 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광됨 보다는 주님이 더 영광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한다. “보시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궁에서 시는데, 하느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모셔두고 있소...” 다윗의 이 말을 글자대로 우리에게 전달한다면 매우 수준 낮은 감정밖에 더 아닐지 모른다. 다시 말해 어떤 이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세련됨이나 안락함은 넘치고도 남는데 하느님의 집은 빈약한채 방치한데 대한 비난으로 간주하고 말는지 모른다. 다윗의 말을 위와 같은 식으로 응용한다면 하느님의 영예를 위한 다윗의 열정적인 탄원의 후편으로부터 매우 작은 격려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참으로 다윗의 감정에 동감을 하는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단이 왕에게 아뢰었다.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단과 왕 모두는 정작 영예받게 하고자 한 그분께 여쭙어 봄도 없이 결정을 보고 말았다. 그래서 그날 밤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렸다.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야훼의 말이다 하고 이렇게 일러라.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 안에서 살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 보살피게 한 어느 지파나 관관에게 어찌하여 나의 집을 송백으로 지어주지 않느냐 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 너는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만군의 야훼의 말이다 하여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나는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들을 네 앞에서 쳐없애 버렸다. 세상에서 이름 난 어떤 위인 못지 않게 네 이름을 떨치게 했다. 더구나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머무를 곳을 정해주어 그 곳에 뿌리를 박고 전처럼 악한들에게 억압당하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살게 해주리라. 나 야훼가 한 왕조를 일으킬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닌 네 뒤를 이어 통치할 너의 아들이 나에게

집을 지어 바칠 것이다.”

위와 같이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하신 모든 사항 안에는 어째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 연유는 성전이 지어졌을 때 알려졌다. 성전은 영화하신 인성을 표현하는바 그 인성을 표현하는 왕에 의해 지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줄거리 중의 몇 가지 세부사항을 주시해 보자.

만일 다윗이 주님을 표현했다면, 그가 신성한 이름으로 지어질 집인데 신성한 뜻에 무지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복음서 역사 안에도 주님께서 어떤 사항에 관해서는 무지하신 것으로 나타난 곳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기이하게 여기어 물어 보시는 대목을 꼼꼼히 살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누군가가 증언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필요 없으시다. 그 이유가 그분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에 진짜로 무지해 있으셨을리 만무하다. 어쨌든 주님 스스로 자신도 모르신다고 고백한 한 가지 예가 있다.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해서이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만이 아신다” (마가 13:32). 우리가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서 간주한다면 글자대로 위 구절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한다면 위 인용구절을 글자대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예수를 그분의 아버지와 구분되는 신성한 분으로 믿었다 해도 신성의 세 분은 동등하게 신성한바 별차이가 없게된다. 그러나 우리가 세 분(three persons)이라는 생각 대신 신성의 세 가지 구분되는 본질로서 이해한다면 위 인용구절에 있는 주님의 선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이고 아들은 신성한 지혜이다. 지금 첫 기독교회 또는 첫 기독교라는 하늘의 처방이 아들의 왕국이라 불리우고, 두 번째 기독교회는 아버지의 왕국이라 불리운다. 이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 끝, 즉 아들이 아버지에게 왕국을 넘기고, 아들 스스로 아버지에게 복종하여 하느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때라는 최후에 관해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 15:28). 이것은 중재적인 왕국, 즉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재하심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게 될 때인 세상의 끝에서 아들이 양도하실 왕국에 관계되는 것으로 흔히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어찌된다는 말일까? 독단적인 대답이 있으나 그것을 숙고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런 난감한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의 왕국은 신성한 지혜 또는 진리에 의해 통치되는 바로서의 교회와 교회 멤버이디는 진리, 아버지의 왕국은 신성한 사랑에 의해 통치되는 바로서의 교회와 교회 멤버이디는

진리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명료한가! 아들의 왕국이 아버지의 왕국에 앞서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모든 것이 진리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모든 반역적인 생각과 애정이 종속될 때까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진리가 지배해야만 한다. 모든 적들, 또는 모든 적개심이 하느님의 진리의 권능 아래 놓일 때, 그분의 진리는 평화스런 지배로 진입하는 것, 즉 그분의 사랑에 왕국을 양도한다. 진리 자체 까지도 사랑에 종속된다. 그 이유가 믿음은 이타애에 부수되는 두 번째에 해당되고, 진리는 선함에, 이해성은 의지에 부수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사랑에 반대되는 율법은 없다. 사랑을 가진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은 그것의 일을 해낸다. 율법은 그 법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놓았다. 그것은 사랑에 왕국을 넘겼다. 그리고 그 자체 복주시는 통치에 복종한다

다윗과 솔로몬의 지배에 관한 경우는 위와 얼마나 명백하게 유추되는지!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고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평화스런 통치가 있어진 것은 전쟁을 치르기만 해왔던 다윗의 통치 덕분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다윗의 발 아래 놓이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이 정복되었을 때 평화의 통치는 그것의 당연한 귀결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말한 사실, 그리고 주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열정적인 실수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그분이 오시는 그 날과 시간을 주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은 절대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 차원이다. 그분의 무한한 지혜에 감추여 놓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그분의 사랑을 밝히 보이지 않는다. 시간(time)은 상태(state)를 상징한다. 사랑의 상태는 진리의 상태 안에 있는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모든 상태는 그것 안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그 자체를 밝히 드러낸다. 보다 낮은 상태 안에 보다 높은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상태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는 체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율법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를 따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허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는 사랑만이 알고 있고 밝히 나타낼 수 있다. 아마 우리는 다윗 처럼 그것을 바래고 기대하여 시도하려 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신성한 명령은 자제하라는 것이다. 새로운 집이 지어지기에 앞서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한다. “네가 살 만큼 다 살고 조상들 옆에 누워 잠든 다음, 네 몸에서 난 자식 하나를 후계자로 삼을 터이니 그가 국권을 튼튼히 하고 나에게 집을 지어 바쳐 나의 이름을 빛낼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든든하게 다지리라.” 두 왕국, 영적 왕국과 천적 왕국, 여기에

천국이 공존하는데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 두 왕국은 확실히 구분되는데, 즉 더 높은 왕국의 천사들의 지혜는 더 낮은 왕국의 천사들의 납득력을 훨씬 초월하고 있다. 어느 천사도 그가 천적 수준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천적 수준의 지혜에로 들어갈 수 없다. 흰 돌에 있는 새 이름은 그것을 받아 구원된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삶의 모든 상태, 또는 거듭남의 단계는 그 자체의 의무와 일과 지식의 종류와 분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 신성한 양식(mode)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방법이 각 개인에게 있듯이 하늘의 각 처방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 상태가 또다른 상태로 건너간다. 그러나 각 상태는 품성면에서 아주 다른바, 전자는 그것을 계승하는 후자의 상태와 씩씩이를 알 수 없다.

나단이 신성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하자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렸다. 그는 심오한 겸허와 깊은 감사와 함께 그분 앞에 그의 심정을 쏟았다. “야훼 나의 주님은 진정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 또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고,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하느님께서 이 종에게 이토록 좋은 말씀을 내려 주셨으니, 부디 종의 왕실에 복을 내려 주시어 하느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구세주의 예징, 또는 성도의 예징으로 하든지,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아버지께 대한 주님의 영감, 또는 구세주에 대한 성도의 경건한 숭배의 표현으로 간주해 보든지, 어쨌든 우리는 큰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주님께서 무르디 무른 인간 본성을 운반하는 도구가 된 굴욕의 상태들은 우리에게 심오한 지혜에 관한 교훈을 가르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견뎌내고 해주셨던 것들을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그분을 위해 견뎌내고 이루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은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인 반면 우리로 하도록 요구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일은 그분을 위해 열정과 행동 양 측면에서 있어야 한다. 그이유가 목적은 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들은 주님께서 그 일의 원인과 결과로서 그 일 안에 계실 때,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이 그 일을 하도록 자극하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할 때만이 선한 일이다. 헌신(self-abnegation)은 우리의 자아 본성의 뿌리, 뿐만아니라 적극적인 의무수행의 뿌리에도 놓여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자아 부정도 자기를 위해서, 또는 선행도 보상을 기대해서 있어지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신은 도달할 높은

상태인데, 이것은 오로지 인내와 불굴의 노력으로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복주시는 주님의 본보기 만을 가진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주님의 영(His Spirit)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해 이렇게 말해졌다. “그 때는 예수께서 영화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요한복음 7:39). 예수의 영은 여호와의 영광과는 다르다. 여호와의 영은 거듭나는 영(regenerative Spirit)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창조적인 영이었다. 예수의 영은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성취한 모든 것의 영광과 권능이었다. 이것이 신성한 인성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다. 그래서 그 영은 주님께서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되어갔던 것들의 형상들을 거듭남을 수단으로 받도록 운반하고 있다.

## 34

### 사무엘하 8장

#### 가나안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다

주님께서 주변의 적들로부터 쉬도록 다윗에게 주었던 세월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을 빼앗은지 이 년이 지나면서 그는 몇몇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이 나라들 중 첫 번째는 억제할 수 없는 불레셋이다. 다윗은 이들을 복종시키고 그들로부터 갖의 중요한 지역인 메덱 암마를 빼앗았는데 이 성읍은 명령하는 위치에 있다 하여 어머니 도성의 고삐(bridle)라 불리운다. 불레셋의 중심지가 다윗에게 강타를 얻어 맞았다. 목시룩의 짐승의 머리 중의 하나 처럼 그 나라도 죽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지만 목시룩의 짐승 같이 치료되었다. 그 이유가 비록 그들이 복종당했지만 그렇다고 불레셋이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장은 불레셋의 복종을 기록한 다음 다윗이 정복했을 뿐아니라 공물을 바치게 한 가나안 주변의 나라에 관련된 것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가나안 영역 내의 나라와 가나안 주변의 나라 사이에 있게 되는 구분점을 우리로 생각해보게끔 인도하고 있다.

가나안에 자리잡은 일곱 나라는 혹독하게 파괴되어졌으나 가나안 밖의 나라들은 그들이 저항하지 않는 이상 복종하여 공물을 바치도록 조치되었다. 신명기 20장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서술되었다. “어떤 성에 접근하여 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화평하자고 외쳐라. 만일 그들이 화평하기로 하고 성문을 열거든 너희는 안에 있는 백성을 노무자로 삼아 부려라...여기에 있는 민족들의 성읍이 아니고 아주 먼데 있는 성읍들에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하느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가나안의 나라들은 악한 사랑과 거짓 확신(false persuasion)을 표현하였다. 이런 것들은 선하고 참된 어떤 것과도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올바른 원리와 화해할 수도 없고 종속되게 만들 수도 없다. 그러나 가나안 밖의 나라들은 선함과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정과 확신들일 뿐 본질적으로 반대된 것은 아닌바 그들로부터 공물을 받고 섬기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런 흥미있고 중요한 주제에 스페넨보리는 그의 저서를 통해 이런 명백한 빛을 주는바 아래에 인용하고자 한다. 물론 저자의 이 인용문은 본문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매우 유익할 줄로 본다.

“인간과 더불어 악들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선과 혼합될 수 없는 악들이 있는가 하면 선과 섞일 수도 있는 악들이 있다. 거짓 측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거듭나아가는 것도 불가능 할 것이다. 선, 진리와 섞일 수 없는 악과 거짓들은 하느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타인 보다는 자신을 우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가 이런 사랑의 영향으로 도덕적, 시민적 생활이나 과학물이나 교리물 등등에서 타인을 능가하려고 애쓰고, 그리하여 타인 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우월해질 경우, 그럼에도 그가 하느님을 인정하고 숭배하고 그의 이웃을 향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정당한 것을 양심으로부터 행하고 있다면 이 자아 사랑의 악은 선과 진리와 섞인채 있는 셈이다. 이것은 그 사람과 더불어 유전적으로 태어나진 악, 인간 특유의 악이다. 만일 이런 악을 그에게서 갑작스럽게 거둔다면 그의 첫 번째 생명의 불이 꺼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있을 경우, 그가 자신과 비교해 타인을 경멸하고 자기를 존경 않는 자를 미워하고, 더구나 복수함이나 잔인함을 발휘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느낄 경우, 그의 사랑 속의 악은 선과 진리와 섞이도록 용납 못하는 악이다. 그 이유가 그들은 반대되기 때문이다. 다시 예를 들어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되, 마치 오물이 묻은 것을 물로 씻듯이 할 수 있다고 믿고, 회개의 작업은 단 한 번 만으로 일생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씻는다고 믿고 있으면서 선하고 참된 것의 애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지녔던 위와 같은 왜곡된 원리는 선과 섞이도록 용납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왜곡된 믿음을 지녔으며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의 왜곡된 원리는 선과 섞이도록 용인되지 않는다. 더 예를 들어 보자. 인간은 선한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되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가 믿기만 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뜻하여 실제로 선한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면 그의 왜곡된 원리는 선과 섞이도록 용납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가 선한 것을 뜻하지도 행동하지도 않는다면 그의 거짓 원리는 선과 섞이지 못한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인간은 사후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무지하여 부활을 믿지 않는 이가 있을 경우, 또는 부활에 관해 알고는 있지만 아직 의아스럽고 더욱이 부정하고 있음에도 선과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의 거짓 원리는 선과 진리와 섞일 수 있지만 그가 악과 거짓 가운데 살고 있으면 섞일 수 없다. 그 이유가 서로는 적반대되어 거짓이 참된 것을, 악이 선한 것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허위와 속임, 이것이 목적으로 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이 이웃의 선이든, 인간의 나라에 관해서이든, 교회에 관해서이든, 그것은 신중함의 범주에 놓일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악은 제안된 목적을 위해, 또는 그 목적으로부터 오는 선과 혼합될 수 있다. 그러나 허위와 속임이 목적 측면에서 악을 가진다면 이는 신중히 처리하려 있어진 악이 아닌 그것은 모략과 사기인바 이것과 선은 여하튼 연합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목적에 악을 가진 사기는 인간 만사에서 지옥적인 원리를 도출하고 그 한가운데에 악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선을 거절하는데 이 질서는 본질적으로 지옥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의 예는 수없이 많다. 수많은 악과 거짓들이 있고, 이것에 선과 진리들이 근접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사실, 즉 수많은 독단적인 주장들이나 교리물들, 그 중 어느 것은 몽땅 이교적임에도 그것을 지닌 이들 가운데서도 구원은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사실로부터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 사이에도 주님의 교회 처럼 존재한다는 것, 비록 그들은 왜곡된 신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타애의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면 구원이 가능해질 수 있는바, 이 악이 선과, 거짓이 진리와 섞일 수 있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다. 선과 섞인 악들, 진리와 섞인 거짓들은 주님에 의해 기이하게 질서적으로 배열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은 연합된 것이 아니고, 더구나 합일 된 것이 아니라 근접되어 있고, 응용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한 가지를 말해본다면, 진리와 더불어 선이 중심으로서 한가운데 있는 한편, 악과 거짓들은 그 주변에 수준별로 배치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결과 후자는 전자에 의해 예증되어진다. 그리고 중심 또는 한 가운데로부터 진행되는 빛에 의해 흑백 사이의 색깔처럼 얼룩덜룩해진다. 이것이 천국적인 질서이다.

그 당시 다윗이 복종시킨 나라들은 모압, 시리아, 에돔이었다. 다윗은 그들의 성읍에 수비대를 주둔시켰고, 그들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그들 중의 둘은 공물을 가져온 것으로 언급되는데 나머지 하나도 그러했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 이외에도 하다테젤과 적대 관계였던 하마왕은 금 은 동으로 된 기물들을 선물로 바쳤다. “다윗왕은 이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져온 금 은과 함께 아해게 성별하여 바쳤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 백성들과 블레셋과 아말렉에서 가져 온 전리품에다 소바왕 하다테젤한테서 가져 온 전리품도 바쳤던 것이다.” 위의 나라들이 속국의 상태로 전락하는 것은 영적 인간의 권위에 자연적 인간이 종속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 그들이 보낸 선물을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자연적 인간의 소유물이 지금까지 자연적이고 일시적일 뿐인 목적에 충당되던 것에서 이제는 영적 용도와 영원한 목적을 위해 헌신되게 함으로 성별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사람에게서 거둔 금과 은을 성막을 장식하고 건축하기 위해 주님께 헌납하였듯이, 다윗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획득한 보물들을 성전을 장식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충당했다. 성막과 성전 모두는 그분의 교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성,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 뿐만이 아닌 각 개인의 마음 안에 지어지고 건립된바로서의 교회 까지 표현하는바, 다윗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획득한 전리품과 선물들을 헌납함으로써 모독하는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바뀌었듯이 이는 우리도 우리의 습득물,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두 하느님의 영광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배우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습득한 모든 것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 용도,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들은 종교적 원리의 통치 아래 놓여야 한다는 것, 자신과 이웃의 최상의 흥미를 섬기도록 함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 높은 의미에서 주님께 헌납하는 것이리라. 그 이유가 그분의 현존이 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건축하는데 쓰여지기 때문이다.

선물을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그 종류는 너무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에는 금, 은, 동으로 구성되고 있다. 하맛왕이 보낸 선물은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이었다. 이런 기물들이 과학물(scientific)들을 상징한다는 것은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과학물들로부터 끌어내는 귀결로 인해 구별되는 사실들, 또는 과학물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지혜들을 상징한다. 모든 사람은 대체로 지식과 지혜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차이에서 더 나은 예를 가진다. 우리는 이 경우에서 자연적인 과학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과학에 정통하면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자연적 과학에 관해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창조하시는 총명(Intelligence)을 부정하는데 또는 믿는데, 어느 쪽으로든 인간을 확증시키는 수단일 수 있다. 믿는 자의 경우,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로마서 1:20). 믿지 않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보이는 것들은 그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그것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간은 믿도록 강요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필수인바, 그러므로 하느님은 자신을 감각쪽이 아닌 이성쪽에 밝히 나타내신다. 강요로 믿게 되는 악 보다는 선택의 결과로 믿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덜 악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과학은 인간을 자유롭게 놓아둔다.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식의 자유에 놓아두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인 부정은 단순한 부정 보다는 더 깊이 있고 치명적이다. 과학이 신앙과 불신앙을 창조하되, 마음으로 하여금 믿던, 안 믿던 어느 쪽으로 더 깊게 확증해준다. 자연적 인간이 자연의 비밀을 더 깊게 관통하면 할수록 그는 생명의 근원을 더 가까이 접근해 믿는 것이다. 자연적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라 부르는 것을 영적 인간은 생명의 시작이라 부르는데, 그 근원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자체이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존재하고 살아 있다. 사실상 과학물은 그릇(기물)인바, 인간들은 그것을 참 포도나무로부터, 또는 소돔의 포도나무로부터, 고모라의 포도 덩굴로부터 채 충전할는지 모른다.

이 주제에서 우리는 계시의 빛이 우리 안에 드리우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거듭나는 삶에 진입해 있다면, 이 부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표징적으로 기술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을 각기 참 특성 안에서 보게 되리라. 자연적 마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와 선함에 직면대되는 악의 참 본성을 발견할 것이다. 그 반면 나쁜 버릇(infirmity)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악, 그래서 영적 원리의 복종 아래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악, 그리하여 유용한 영적 목적을 섬기도록 해서 자연적 인간의 획득물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완전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악도 있다. 이런 저런 수준으로 차이가 있는 악들을 표현하는 나라들을 이제 살펴 보자.

다윗이 복종시킨 나라들 중 첫 번째인 모압은 롯과 그의 큰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출발되었다. 롯과 그의 작은 딸에서 출발했고, 사울의 왕권적 권능을 처음 느꼈던 암몬을 처음 살필 때 이미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모압과 암몬은 선함과 진리의 모독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그들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의 수준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모압과 암몬족은 이스라엘 회합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축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십대에 이르기까지 예서도 회합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표현했던 모독은 선함과 진리의 남아 있는 모든 것을 강그리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하여 새롭고 영적인 상태가 개시될 수 있는 기본은 남겨 놓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다윗이 모압을 다루는 본문의 경우는 위와 같은 종류의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다. 모압은 정복 당해 심각하게 처리되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멸시키지는 않았다. 즉 “다윗은 모압을 쳐서 이기고 그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 줄로 재어 두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려 두게 하였다.” 끔직한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옹호론자가 우리에게 말하는바, 모압족의 이런 취급은 정복된 다른 나라를 취급한 것과 비교한다면 훨씬 나은 편이라는 것이다. 나라들 사이에 있는 법칙, 모세의 법전을 보아도 반대했거나 저항했던 모든 모압족은 목숨이 유보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본문의 다윗은 적의 일부를 살려두어 그가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선출의 법령에 있는 하느님의 품성에 관한 칼빈주의 적인 변론을 상기하게 한다.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라는 형벌을 초래하게 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소수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자비를 보이셨다. 진리인즉, 유대인들은 야만스러운 종족이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즐긴 피를 뿌리는 야만적인 모든 것을 향유했다. 그들이 다른 나라 백성 보다 더 낮기 때문에 선택된게 아니라 인류의 복지와 관련된 용도에서 타 민족 보다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섭리에서 그들이 쓰인 큰 용도는 하느님의 계시들을 받아 보존하는 것이었다. 비록 불 완전했지만 그들은 한 분 참된 하느님에 관한 믿음과 예배를 살아있게 보존했다. 게다가 그들의 야만성은 회복의 기대가 없는 타 국가의 부패함을 뿌리뽑는데 꼭 맞는 도구였다. 그리고 상냥한 그들의 동정심은 한꺼번에 죽어가고 있는 종교 속의 타다 남은 것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그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 아마 인류의 존속 까지도 의존되는 천국과 지상 사이의 영적인 연결을

보존하는데 쓰여졌다. 결국 그들은 정작 자가들이 생각하거나 의도했던 것 보다 더 높은 것들을 표현했던 행동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윗이 정복한 모압족을 처리한 본성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결정이란, 삼 분의 이는 죽게 되었고 삼 분의 일은 살려 두었다는 것이다. 치수를 재고 쟀 결과에 관련되는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해도 사용된 단어만 살펴도 그 주변 상황이 운반하려는 영적 교훈을 보는데는 부족하지 않다. 측정한다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추정하거나 확인하는 것이다. 잣줄을 가진 신비로운 사람이 성전을 측량했다(에제키엘 40장). 그리고 예루살렘(즈가리아 2:2)을 측량하러 가고 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느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도록 명령받았다(계시록 11:1). 위에 인용한 모든 경우 역시 측량한다는 것은 교회의 상태 또는 품질을 발견하거나 보여주는 것을 확실히 뜻하고 있다. 영적 모압에 적용한 측량줄은 단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측량줄이 아니라 그들의 품성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측량줄이다. 두 줄 길이에 든 자는 죽었고, 한 줄 길이에 든 자는 살려두었다.. 모든 모압 사람을 땅에 엎드리게 했다는 것은 모독적으로 살고 있는 이들의 경우, 그들이 자연적이고 지상적이기는 모두 똑같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런데 길이가 다른 줄로 그들을 측량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한결 같이 죄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과 더불어서 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기 까지 할 필요가 없는 죄”(요한 1서 5:16,17)가 있는 것이다. 두 줄로 측량되는 이들은 이해성의 충분한 동의와 함께 의지로부터 모독되게 살고 있는 이들을예정화 해놓고 있다. 그 반면 한 줄로 측량되는 이들은 마음의 두 부분 모두로부터가 아닌 어느 한쪽 만으로부터 모독되게 살고 있는 이들을 표현했다. 이 주제는 모세의 법 중 하나를 가지고 예증될는지 모른다. 즉 “그 사람을 죽이려면 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 만의 증언 만으로는 죽일 수 없다”(신명기 17:6). 이 법을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중요한 것, 동시에 희망어린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의지와 이해성 또는 의지, 이해성 그리고 바깥쪽 생활이 하나되어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 이와같이 둘 또는 셋의 증언에서 우리는 자신으로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게 한다. 그러나 둘 셋 중의 어느 하나 만이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성한 자비로 살아 있게 된다. 자연적 수준의 악행에 속하는 죄가 있다. 이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거의 모르는 상태, 그 악행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는 수준의 죄이다. 교육과 습관으로부터 오는 어떤 죄도 있다. 마치 범죄를 저지르도록 키워진게 아닌가 여겨질 정도의

이들, 마치 불명예스러움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스러운 교역을 하는 숙련가가 저지른 듯한 죄가 있다.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순진한 상태 안에 있다고는 상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범주 내에는 들어가 있다. 의지에 있는 자연적인 악행은 이해성을 깊이 있게 부패시키지 않는다. 빠뜨어진 방향에 있는 이해성 역시 의지에 깊은 상처를 만들지 않는다. 엄밀히 말한다면 어떤 사람의 경우든지 의지나 이해성 어느 하나만으로 행동했다는 식은 앞 뒤가 맞는 말은 아니다. 그 이유가 의지에 이해성이 없다면, 이해성에 의지가 함께 없다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의 더 낮은 영역 안에 가공적인 것 같은 의지나 이해성을 형성하면서 진짜 자질의 많은 부분을 미발달된채로 남겨둔다. 그리고 개혁되고 거듭나는 능력은 비록 심각하게 상해를 입었다 해도 아직 파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것이 범죄적 수준에 속하는 모든 경우인 것은 물론 아니나 일부의 경우 해당될 수 있다는 것도 의심할 바 없다. 참으로 보다 나은 품성 측면에서 일 경우, 모압인은 어떤 자연적 선함을 소유한 것을 표현한다. 이 선함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음모가에게 쉽게 속임질 당하게 만든다. 게다가 그들은 음모가에게 “NO”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특성 외에 다른 것들, 영적 모압인에게 이런 방침(lines)들이 응용될 수도 있다. 사람을 죽이는데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을 요구한 법에 직접 연루된 것은 이 구절 앞의 말씀이다. 즉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와 같은 다른 신들을 찾아 가서 섬기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과 관련되고 있다. 모압인의 하느님 “chemosh”, 검은 별의 형체에 엎드려 절해왔다고 말해지는 그들의 신이 천체의 일부로 생각될는지 모르나 성경은 모압인이 천체들에 예배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세의 법은 우상의 모든 종류를 포함했다. 그래서 하느님을 예배함은 드높은 덕행이었고 우상 숭배는 깊은 범죄였다. 그 이유가 하느님에 관한 생각들은 우리의 모든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바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볼 때 우리의 모든 종교를 뜻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독된 예배에서도 의지와 이해성은 서로 일치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저것을 포함 않을 수도 있다. 고약한 우상 숭배자라해도 제나름대로 성실하게 경건할는지 모른다, 그의 이해성이 부패되어 있는 한편 그의 심정은 건전할는지 모른다. 한 가지만으로 그가 측정된다면 그는 살아있게 될 것이다. 심정이 우상숭배자일 뿐 아니라 이해성까지 그러할 때 거짓 예배자들은 두 가지로 측정되는바 죽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바깥쪽 뿐만 아니라 내향으로도 있다. 어쨌든 살게 되는 방향(line)이 응용에서 발견된다. 두 가지의

내향의 증거가 일치되어 우상 숭배자를 향할 때 그는 죽음이 드리우는 두 줄로 측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의 이런 의미들을 타인에게 적용할 경우 희망을 주는 교리가 되도록 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엄격한 교리로 적용해야 한다. 즉 타인은 한 줄로 재되 나 자신은 두 줄로 재어야 한다는 말이다.

모압에 이어 “다윗은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테젤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의 경계를 되찾으려고 갔을 때 그를 쳤다.” 그로부터 다윗은 많은 기병과 보병을 사로 잡았다. 게다가 하다테젤을 돕겠다고 원조했던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 이 만 이 천 명을 죽였다. 시리아는 최상의 의미에서, 즉 두 번째 고대 교회, 또는 히브리 교회가 거기에 있었던 시절의 시리아는 선에 관한 지식을 의미했다. 마치 강 사이의 시리아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 것 같다. 아브라함은 시리아였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라고 부름받았었다. 그 당시 그곳은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있었다. 따라서 그곳에서 소유했었던 진리들은 썩어있었다. 모압이 의지에 관련되는 원리임에 비해 시리아는 지적인 원리에 관계된다. 시리아 사람들의 지적 품성이 병거와 기마병에서 암시되고 있다. 병거와 기마병은 교리와 총명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거짓된 측면이 될 것이다.

다윗이 소바와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을 정복하고 공물을 바치도록 했을 때, 세 번째 시리아왕, 도이는 그의 아들을 보내 다윗을 축하하게 했다. 그 이유가 그는 하다테젤과 싸우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합리적 마음 자체에서 거행된다. 한 가지 악이 점검되는 가운데 또다른 악을 붙잡고 있는데 쓰여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핀바 있다. 합리적 마음이든 자연적 마음이든 그 자체를 개혁할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개혁은 오로지 영적 마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같이 다윗은 두 시리아 왕과의 싸움을 끝냈다. 그가 이쪽 편을 정복하는 동안 저쪽 편은 선물을 들고 우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다른 국가 하나를 다윗이 정복했다. “그는 에돔에도 주둔군을 두었다. 그래서 온 에돔이 다윗의 속국이 되었다.” 에사오의 후손인 에돔 사람도 다른 나라의 경우 같이 퇴보되어 있었다. 자연적 마음 속의 선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진리를 거절하는 것인 자아 사랑의 영향 아래 있는 자연적 마음을 표현한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는 모습에서 다윗은 통치하는 원리로서 자아를 좋아하려 드는 마음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연적 애정들을 영적 진리의 조절 아래 갖다 놓는 영적 마음의 권능과

작전을 표현했다. 가나안 주위의 정복된 나라들에 왕권을 유지하도록 배치된 수비대란 진리를 수단으로 자연적 마음 안에 영적 마음이 현존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진리는 영혼 안에서 사랑과 진리의 생명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적대시하는 생각과 느낌을 조절할 때 발휘된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영구적인 것은 못된다. 애당초 억류되었던 생각과 느낌이라해도 결국에 가서는 마음을 통치하는 원리와 친구 관계로 되던가 제거되던가 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에서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들의 파괴나 궁극적인 재생에 관한 예언을 발견하게 된다. 다윗의 정복을 다루는 본문 만을 가지고 살펴도 이 정복은 거듭나아가고 있는 이들의 마음 안에서 꾸준히 되어가고 있는 신성한 일에 관한 표징적인 역사라는 것, 그리고 모든 나라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때에 관한 약속, 만국 백성이 왕중의 왕으로서, 주들 중의 주님으로서의 그분에게 선물과 예물을 가져 오는 모습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다.

## 35

### 사무엘하 9장

####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소중히 하다

주변의 적들을 정복한 다윗은 이제 그의 친구들의 안부를 묻고 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왔었던 자들을 향해서도 그의 감정은 상당히 관대해 왔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는데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 남은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이런 문의를 사울이 죽은 뒤 15년이 지나도록 있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다윗이 자기의 왕국이 확고히 건설되었다고 느끼지 못해서 일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이 문의가 기묘한 듯 여겨지는 것은 그가 알고 있던 누군가의 참 존재에 무지한채 있어왔고 이제 가장 생생한 흥미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은둔한채 살고 있는 사울의 후손마저 찾고 있다. 아마도 이 후손은 목숨을 보전하려고 다윗의 보좌에 절대로 도전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이며 숨어 살고 있는 듯 하다. 이런 부분에서 까지도 이해에 곤란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사울과 이스보셋의 죽음에서도 관대함을 보였고, 지금까지도 사울의 아들들을 향해서도 친절함을 잊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정

관계의 여부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의 성격 바탕에 있는 온화함 때문인 듯 하다. 어쨌든 더 깊은 이유는 본문 1절 처럼 지금까지 사울의 가문에 살아 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데서 암시하고 있다. 거룩한 역사에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남은 거듭나는 삶에서 상태들의 연속을 표현한다. 선이 그 존재를 명확히 보이기 전, 악이 복종되어야 한다.

사울의 종 시바가 다윗의 면전에 불러 나와 사울 가문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요르단 저편인 길르앗 내의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서 데려 오자 므비보셋은 땅에 엎드려 다윗에게 절을 했다. 다윗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대의 선친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이제 그대에게 갚고자 하오. 그대의 조부인 사울이 부치던 말을 모두 그대에게 돌려 주겠소. 그리고 그대는 늘 나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들도록 하오.”

이 요나단의 아들에 관한 것은 전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다. 제 4장에서 이다. “그가 다섯 살 때, 이즈르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모가 그를 안고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이다.” 므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최초의 원인(origin), 이것은 그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바, 그의 표현적 품성도 뭔가를 가지도록 하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그 원인을 숙지해 보게끔 하고 있다.

성경에서, 유아에게 젖을 물려서 자양분을 공급하는 사람인 유모란 진리의 선인 것, 즉 말씀 속의 젖을 가지고 순진을 먹여 키우는 것을 적절히 의미하고 있다. 젖은 선함과 진리의 품질과 덕행이 하나가 되어 있는 영적 자양분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물이다. 그 이유가 젖에는 음식과 물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데 특히 몸의 각 부분의 성장과 유지 활동에 요구되는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를 창조하고 유지 지탱하도록 미리 장치해 두시는 참 존재(Being)의 놀라운 예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은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자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도록 자비스럽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참 교회(the Church)의 육성자(nourisher)들은 그 교회에 젖을 물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라 불리운다는 것, 참 교회 자체는 그 교회의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로서 이렇게 말하여지고 있다. “예루살렘아, 즐거워 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뛰어라.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통곡하던 자들아 이제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 품에 안겨 귀염받으며 흡족하게 젖을 빨리라. 그 풍요한 젖을 빨며 흐뭇해 하리라” (이사야 66:10,11).

유모라는 직분에는 젖을 물리는 것 외에 또 있다. 그녀는 아기가 젖을 땀 후에도 그들을 돌본다. 물론 옛날에는 요즘과 달리 아기가 꽤 자랄 때 까지도 젖을 물려주는 일이 잦았다.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해보려 하는 이유는 앞 문단에서 인용한 사무엘하 4장의 기록 때문이다. 이즈르엘에서의 숙명적인 전투 소식에 유모가 어린 아이를 간수하기 위해 그를 챙겨 도주하고 있다. 또한 이는 리브가의 유모에 관한 기록이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유모 역시 그녀의 어린 여주인을 따라 왔는데 그녀가 도중에 죽자 그들은 그녀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매장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울음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다(창세기 35:8). 이는 우리가 다시 기억에 떠올릴만한 기록이다. 유모가 아이에게 젖을 빨리는 동안 초차에서도 그녀는 아이의 육체적 자양분과 성장 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양분과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신적으로 젖을 먹이는 것이 육체적으로 젖을 먹이는 것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는 말이다.

정신적 성장에서 자양분을 받는데 두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이 두 요소들은 한 동안은 함께 성장한다. 모든 유아들은 순진한 상태에서 태어나진다. 마음에 젖을 물리는 이들의 적절한 기능은 유아 수준에 불과한 순진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유지 지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아들이 순진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동시에 그들은 유전적으로 악에 잘 기울려는 경향성(inclinations to evil), 즉 불규칙적으로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연적 수준의 경향성, 또는 흔히 우리가 탐욕스러움, 야망이라 불리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젊은 이가 제아무리 조심스럽게 양육된다 해도 이 자연적인 경향성은 증가되고 그 힘이 더 세어질 것이다. 이 경향성은 밀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들이다. 우리는 이 가라지를 뽑아낼 수 없고 설사 뽑아낼 수 있다 해도 슬기롭게 제대로 뽑아내지도 못한다. 뽑아내어 보겠다는 인간 지혜에게 신성한 지혜가 말하셨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 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들이게 하겠다”(마태복음 13:29-30). 인간은 자기를 거둬나게 해주는 주님의 영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까지 밀과 가라지의 분리는 결과될 수 없다. 게다가 추수꾼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들이다. 상태의 이런 변화가 올 때, 타인이 부러워 하고 칭송되던 자연적인 야망이 있었던 그곳에 영적인 원리들이 존재한다. 즉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크다고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리라.” 자연적 탐욕스러움이 자란 곳에 아버지께서 이식하신 천국적인 식물이 있다. “최상의 선물을 탐내라.”

인간 존재가 더 높고 더 순수한 동기들로부터 획득해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더 수준 낮고 더 조잡한 동기들로부터 행동해야만 한다. 행해질 수 있는 모든 것, 시도되어야 하는 전부는 더 수준 높은 영향력을 수단으로 더 수준 낮은 것들이 온건해지기 위해 보다 수준 높은 원리들이 힘을 얻을 때 그것을 곧 바로 보다 낮은 수준들에서 열매맺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 이들의 힘겨루기 같은 것을 뿌리뽑는 것, 즉 자아와 세상에 무척 관심 많은 유전적인 모든 경향성들을 뽑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헛되고 유해하기 까지 할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이와같은 경향성들은 거기에 적절한 음식을 공급함으로 짓먹여 키우듯 하면서 가능하다면 그것들이 실지로 실시될 때 유용한 결과들을 산출하도록 방향을 틀어 가야 할 것이다.

더 내면적 차원에서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 의미에서 인물(person)은 원리를 표현한다. 따라서 유모는 유전적인 악 자체를 뜻한다. “그런고로 유전적인 악은 어린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지양분을 산출해낸다. 그다음 만일 그들이 거듭나고 있다면 그들은 새로운 유아의 상태로 주님에 의해 인도된다. 더 상세하게 말하면 천적 수준의 지혜에로, 참 유아에로, 순진에로 인도된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참 유아나 순진은 지혜 안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두 순진의 차이는 이렇다. 유아의 순진은 바깥쪽에 존재하고, 유전적 악은 내부에 있다. 그러나 지혜의 순진은 내부에 존재하고 외부에 유전적 악이 있다. 이런고로 유전적인 악은 마치 유모의 직분 같은 것을 첫 유아로부터 새로운 유아 시대에까지 이르러 실행한다. 유모가 유전적인 악을 의미하는바, 그것은 천적인 영적 원리를 통해 순진을 은근히 심어 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유모가 리브가의 유모에 의해 표현되었고, 또한 요나단의 어린 아들을 허겁지겁하여 데리고 가다 떨어뜨려 그의 두 발을 절게 만든 여자에 의해서도 표현되어지고 있다. 절음발이는 그 의미의 영 안에서 무엇일까? 발은 인간의 신체 중 중요한 부분이다. 신체의 기관들은 성경 안에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자주 언급되고 있고, 그것의 유추 또한 아주 명백해서 아무도 그 영적 의미를 잘못 파악할 자 없다. “나는 내 발을 당신의 언약에로 돌렸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나쁜 길에서 내 발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입니다” (시편 119:59,101,105).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걷는 것 (시편 86:11), 그분의 길에서 걷는 것 (이사야 2:3), 이것은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른 삶, 그리하여 정의의 길에 있는 삶이다

절름발이(lameness) 역시 종교적인 의미에서 말해지고 있다.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12:12,13). 주님의 오심을 수단으로 약속되어진 축복 중의 하나는 “절름발이가 사슴 처럼 기뻐된다”는 것이다 (이사야 35:6). 비록 이것이 글자대로 성취되었다 해도 아직 그에 대한 예견과 행동 모두에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절름발이는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절거나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던져 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 보다는 차라리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마태복음 18:8). 이 구절의 경우 손이나 발은 죄짓게 하는 신체 기관들이다. 이와 유사한 구절로부터는 이렇게도 언급되고 있다.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 버려라...” (마태 5:30). 신성한 지혜는 위 상징적 가르침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 놓았을 것이 틀림 없다.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신체기관은 소위 인간 마음과 품성의 두 측면이라 불리는 것, 즉 행동(moral)과 지성(intellectual)과 상응되고 있다. 오른쪽은 행동 측면, 왼쪽은 지성 측면에 상응된다.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아름답게 교훈해 주는지! 우리들로부터 잘라내져야 하는 것은 지성 측면의 잘못이 아니라 행동 측면의 악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잘못들을 방치하는 것도 금물이다. 그 이유가 심각한 모든 잘못은 대체로 행동에 그 근거를 두는바, 그 바탕인 뿌리가 제거될 때 그 가지인 잘못도 자동으로 시들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절름발이인 므비보셋의 발은 악과 잘못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선함과 진리 쪽을 뜻하고 있다. 그가 절름거리게 된 것은 사고와 불행 때문이었던바. 그의 발은 선함과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되도록 행동과 지성 양 측면의 능력이 손실된 것을 표현하였다.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후 요나단의 아들되는 므비보셋은 사울 집안을 대표하는 핏줄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즈르엘 전투가 사울의 왕국을 마감짓게 했고 영속하는 다윗 왕국이 개시되게 하였다. 이것은 솔로몬에 관하여 다윗에게 주어진 신성한 약속에서 기술되고 있다. “내가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도 것처럼 내 사랑을 거두지는 않으리라. 네 왕조, 네 나라는 내 앞에서 길이 뻗어 나갈 것이며 네 왕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7:15,16). 사울 가문의 모든 권력이 이제 그들로부터서 떠나 다윗 가문에게로 이동되었다. 절름발이요 허약하기만한 므비보셋의 모습은 아무 권력 없는 사울

가문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우연일 듯 싶은 자연적인 유추는 그 자체에서도 표징적이다. 그래서 그것의 참된 성경상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연적인 빛 외의 빛으로 관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만이 우리는 말씀 속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살핀바대로 사울은 진리적 신성(truth Divine)를 표현했다 이 진리를 최고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는 천국과 교회에서 유한한 마음에 의해 받아 들여진 신성한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주님께서 지상 생활 동안에 그분의 인성을 진리적 신성으로 만드신 초기 생애의 마음 안에서 있었던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조금 좁혀진 의미로 볼 때 사울은 말씀의 글자에서 나타난 진리인 진리적 신성, 요나단이 말씀 글자의 실제적인 진리를 표현한 것과 대조되는 진리인 가상적인 진리를 표현했다. 본문에 등장한 요나단의 아들은 위 두 진리를 모두 표현했다. 말씀의 글자는 가상적인 진리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연 안으로 오는 모든 것은 반드시 자연을 옷입어야만 한다. 인간 영혼은 자연적인 몸 없이 자연계 안에서 살면서 행동할 수 없다. 계시는 인간의 이해성에 잘 적응되도록 자연적인 의미로 계시 자체를 옷입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계 안으로 올 수 없다. 몸은 우리 영혼이 거주하는 장소인 것 같이 말씀의 글자는 말씀의 영이 거주하는 몸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원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우리 몸의 심장 부분을 구성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과 관련되는 모든 것은 우리 몸의 폐 또는 영(the spirit)을 형성한다. 말씀 전체에 고루 미치면서 생명을 불어 넣는 생명의 원천을 이루는 두 원리가 있다. 이 두 원리에 모든 진리들이 의지하고 있다. 진리들 중 가장 높은 진리는 하나님에 관계되는 진리들이요 이 진리는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 두 번째 가는 진리는 이웃에 관계되는 진리들인데 이 진리는 몸통 부분에 해당된다. 도덕적 교훈과 의무에 관한 법들은 손과 발이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 위치에서 서로 연결되는 가운데 충실해 있다면 교회 그 자체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마음을 가진 셈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데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 쓸모 없게 만들었다는 것(마태 15:6), 그들은 교리로서 인간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마가 7:7) 등등이다. 그들과 함께 말씀의 도덕적이고 지적인 권능은 사라졌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걸지도 않고, 종교의 선 안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의무도 생략했다. 그들은 성실이든 진지함이든 실제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는가 하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 놓는다(마태 23:24). 기초는 제거되어졌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용해될 위험에 놓여졌다. 진실로 유대인 사이에 건설되었던 바와 같은 왕국은 과거 섭리적이고 일시적이었던 것 같이, 즉 사울의 왕국 같아서 다윗 왕국으로 예정화된 영원할 왕국의 기초가 놓이게 될 때 그 종말을 맞고야 만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값진 돌을 모퉁이에 놓아 기초를 든든히 잡으리라” (이사야 28:16).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킨 그 날은 오고야 만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는 현명한 왕으로서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펴리라” (예레 23:5).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아훼께서 정열을 쏟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이다” (이사야 9:7).

주님이 기초 또는 주춧돌이라 불리운 데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지상의 교회(the Church on earth)는 천국에 있는 교회(the Church)의 기초이고,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말씀의 영적 의미의 기초되며, 종교적 덕행(virtue)은 종교적 품위(grace)의 기초이다. 더 높은 것은 더 낮은 것 안에 안주하는 바. 더 낮은 것이 더 높은 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더 높은 것은 실체가 없게 되어 연기 같이 사라져 버린다. 주님께서 육을 입으시던 그 시대 쯤에서 모든 이런 기초들은 무너졌다. 주님께서는 이런 기초들을 새로이 놓으시기 위해, 그리고 이번에 놓아지는 기초는 누구도 결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에서 놓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이 입으시어 영화하신 인간 본성 안에 깊고 확실하게 그 기초를 놓으셨다. 사실 이런 모든 기초들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데 그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를 가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지상에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the Church)는 결코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 교회는 어떤 신조(creed)들이나 의식서(formulary) 같은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삶과 심정 외 어느 곳에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위 논리는 말씀 그 자체에 적용해도 동등하게 진실이다. 단순히 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말씀은 죽은 글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말씀 속의 진리들이 생명의 원리요 법칙으로서 인간의 심정과 이해성에 받아 들여 질 때 말씀은 지상의 권능 같이 어떤 실제의 존재를 가진다. 주님을 사랑함, 인간을 사랑함 같은 종교적 품위들은 추상적인 존재를 가지지도 않으며 그것들은 마음 안에 홀로 존재할 수도 없다. 그것들은 종교 생활 속의 덕행 안에서가

아니면 어떤 적극적 존재를 가지지 않는다. 이 최말단의 것들(ultimates)이 결여될 때, 또는 뒤집혀진 형체로만 존재할 때 참 교회와 종교, 인간 마음 안에 받아들여졌던 그대로의 말씀 자체도 모래 위에 지은 집, 걸을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같게 된다. 이것이 양 발을 절룩거리게 된 요나단의 아들로 표현된 그대로의 진리적 신성의 상황이다.

그러나 다윗은 불행해진 이 아이를 그의 보호와 관심 아래 두었다. 이는 마치 다윗의 하느님이 우리의 허약함을 거둬가시고 우리의 슬픔을 실어 가신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이 육이 되신 그분께서는 육이 뒤집고 유약하게 만든 말씀 그대로와 같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을 만드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 그분께서는 고깃덩어리라는 몸으로 자신을 옷입히셨다는 것일까? 그분께서는 인간의 몸 만이 아닌 인간 본성까지 입으셨다. 사람의 본성(man's nature)은 그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인간(human)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인간 본성으로 입히셨는데 그 인간 본성은 정확히 말하면 죄지음을 통하여 형성된 인간 본성, 즉 상처받고 손 발이 잘리워진 것 같이 되어 찌그러들고만 인간 본성을 입으셨다. “그의 물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사야 52:14). 망가지고 불구가 된 본성이 인간성을 구성하고 있다.

주님께서 망가지고 일그러진 인간성을 입으셨지만 오히려 인간성의 완전한 형체와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 보다 더 낮게 회복시키셨다. 그분은 인간성을 천사와 인간에게서 가능할 수 있는 극치의 완전한 아름다운 진리의 형체로 만드셨을 뿐아니라 형체를 진리 자체로 만드셨다. 이것이 영화화심(GLORIFICATION)이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요한복음 17:5). 주님께서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에서 그분의 인성을 회복하시고 영화화하셨다. 지식들, 특히 그분의 말씀 속의 진리들은 밖으로부터 흘러 들어 갔고, 내재하는 그분의 신성의 생명은 내부로부터 들어 갔다. 마치 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토지가 환원되고 이후로는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주님은 자신에 관해 구분되는 점을 지적해 주셨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성읍에 갔다가 되돌아 와서 그분께 무엇을 잡수시라고 권했을 때 이렇게 대꾸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32).

르비보셋이 주님의 유약한 인간성인 진리적 신성을 표현했지만 사실 그의 불구는 온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가 그의 더 나은 운명에 관한 사건 진술은 이런 말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므비보셋은 늘 왕과 한 식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비록 자신의 불구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의 아들 대에 가서는 회복된 셈이다. 그 이유가 “므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라고 언급되기 때문이다. 므비보셋과 미가(micha)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도 본문의 의미와 연계해보면 흥미롭다. 아버지의 이름은 “우상을 근절함”이라는 뜻이고, 아들의 이름은 “누가 주님과 닮았나?” 라는 뜻이다.

## 36

### 사무엘하 10 장

#### 양갓음으로 되들려진 다윗의 우정 관계

큰 사건이 하찮은 주변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예가 적지 않다. 피흘리는 전쟁도 경미한 모욕 행위를 되갚으려 하거나 자그마한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하여 일으켜진다.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17:4)에서 말하고 있다. 또는 손바닥 보다 더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사이에 하늘이 구름으로 덮히어 캄캄해 지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열왕기상 18:44,45).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도 큰 구름 때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단지 경미한 전기 변화 만이 큰 비를 생산하는데 필요했을 뿐이다. 이는 공적인 전쟁이든 사적인 싸움에서이든 공히 적용된다. 전쟁이나 다툼기를 좋아하는 영이 거기에 있고 그 영의 만족함이 매우 모자라는 것을 느슨하게 허용할 때 들판은 피로 적시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불멸하는 알력이 퍼지게 된다. 어쨌든 국가들의 이익과 명예는 유지 존속되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개인적인 권리 또한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시대, 기독교의 나라나 그 백성들은 기독교의 원리에 있을 것이지만 덜 계발된 시대에 살았던 이들이라면 그들 나름대로 보다 수준 낮은 표준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 본다.

사무엘서의 이 장은 경미로운 잘못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결과에 관한 보기를 주고 있다. 암몬 왕이 죽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아버지 나하스가 지난 날 나에게 한결같이

잘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갚아주리라.” 그래서 다윗은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 그러나 암몬의 새 왕은 다윗이 보낸 염탐꾼으로 여기게 부하들로부터 설득 당해 사절단을 붙잡아 “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옷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절반씩 잘라 돌려 보냈다.” 이렇게 사절단이 수모를 당하자 다윗은 그들에게 명령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예리고에 있다가 들어오라.” 이 무례한 짓의 결과는 전쟁이었다. 먼저 시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은 암몬족과 싸웠는데 그들은 패배 당했다. 그다음 그들을 원조한 시리아 사람과 싸웠는데 다윗은 병거대 칠 백과 기병 사 만 명을 도륙하고 속국으로 만들었다.

암몬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사건에 관한 언급은 이 본문 말고는 없는 듯 하다. 단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40년 전에 야베스 기르앗을 포위 공격했던 암몬 왕의 아들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 뿐이다. 비록 이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유전적인 수준에서의 적이긴 하지만 마치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듯이 사울에게는 공동의 적으로서 다윗을 한 편으로 여겨 친절을 베풀었는지는 모른다. 이제 번영을 구가하는 다윗은 자기가 역경에서 헤매던 시절 자기에게 보여준 호의를 그의 아들에게라도 갚고자 했다. 그러나 왜 다윗은 암몬 왕과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싶어 했을까? 가나안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암몬 후손은 올바른 원리들에 종속될 수 있는 것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눈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당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즉위한 왕은 다윗을 알지 못했는바 그를 불신임해서 모욕을 주도록 권유한 부하들에게 쉽게 설득 당했다. 새 왕이 다윗의 특사들에게 가한 모욕을 시대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매우 심한 굴욕을 맛보게 한 것이다. 두 말할 여지도 없이 이 특사는 다윗 왕국에서 지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고, 그들이 차려 입고 온 의복과 수염은 왕의 위엄과 그들의 직책을 대변해 주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메시지를 거절한 것은 대단히 버릇 없고 비우호적인 것을 표현했다. 이외에도 그들의 수염과 의복을 반쯤 잘라내고 돌려 보냈다는 것은 악의 섞인 무례함과 큰 모욕인 것은 확실하다. 어쨌든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런 사건이 뜻하는 것, 그 사건이 제공하는 교훈을 이해하는 것일 게다.

넓은 측면에서의 머리털(hair), 세부 측면에서의 수염, 그리고 의복은 비유적 의미를 상기해 보도록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바 여기서 다시금 그것들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굳이 보이려는 것은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닐 것이다. 오직 우리는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선 이런 질문을 던져 보고 시작하는 것도 흥미 있을는지 모른다. 왜 창조자는 동물에게 덮개를 주었고, 인간에게는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주지 않고 일부만 덮혀지게 했을까? 이 질문을 광범위하게 토의하지 말고 그에 대한 소견만을 내비치고 넘어 가기로 하자. 자연은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두었다고 믿는 진화론자 중 누구도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손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울 수 없다. 이를 인정한다면 인간의 특이한 조건은 적어도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것에 관한 증거일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할는지 모른다. 우리는 경제상의 목적 보다는 두 번째 되는 원인을 확인해 보아 그로부터 그것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인간 안에 추리력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있는 존재, 그의 조건이 요구하는 것을 공급해야만 하는 존재는 목적과 수단, 원인과 결과 사이를 보아야만 한다.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 그 필요한 것을 조달하려 애쓰는 정신적 능력은 그 필요성의 생산에 두 번째 되는 원인으로서 어떤 몫을 가진게 아닐까? 모든 창조물은 그들 고유의 본성의 조직화된 형체들이다. 이 형체는 그 형체가 인도되고져 의도했던 삶에 매우 적합해 있다. 형체라는 구조물 전체, 머리털이나 깃털 조차도 자기들 본성의 발달이고 생활 양식에 적응되어 있다. 동물의 혼은 동물의 몸으로 옷입혀져 있다. 몸의 세부 사항에서도 혼의 형상이도록, 그 혼의 도구가 될 수 있게 옷입혀져 있다. 이런 사항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혼(soul)은 그 자체를 인간의 몸으로 옷입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혼의 형체, 형상,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동물은 자기 본성이 요구하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은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만을 가지고 태어날 뿐이요, 미발달된 지식이라해도 축적된 상태를 지니고 태어나지 않고 다만 내향으로 흐르는 빛인 식별력을 지니고 있다. 동물은 옷입혀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결과로 그들은 옷입혀진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동물들은 자기의 몸을 먹이고 옷입히기 위해 경작하거나 옷을 깎지 않는바 뿌리거나 거두는 일도 없다. 그 이유는 노동이나 노련함이 자기들의 몸을 먹이거나 입히는데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자는 사람에게 발가벗은 몸을 주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사람에게 옷입지 않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노동과 연구함으로 지식을 획득해야 하고 생각들로 자기의 마음을 옷입혀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재료를 획득해서 자기 몸을 위한 옷을 지어야 한다. 간략히 말해서 동물의 지식은 그들의 마음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들의 의복은 몸으로부터 자라 오른다. 사람은 옷을 획득해서 몸에 걸쳐야 한다. 이런 연유로 마음을 옷입히는 지식과 몸을 옷입히는 의복 사이에는 유추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몸이 자연적인 덮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머리부분은 대부분 덮혀 있고 남자의 얼굴 아래 부분은 아름다움과 위엄을 위해 덮혀 있다. 이것 역시 상응 차원에서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천적 수준은 머리와 상응되는데 머리의 본성과 활동 측면도 마찬가지로 상응성을 가지고 있다. 천적 교회 사람 그리고 천적 수준의 천사들은 영적 교회 사람이나 천사들 같이 의복을 옷장 안에 쌓아 두고 경우에 따라 꺼내 입듯 그들의 진리를 기억 안에 쌓아 두지 않는다. 천적 수준에서는 자기들이 획득한 진리를 생활에 즉각 응용한다. 그런데 머리털과 수염은 같은 털일는지 몰라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머리털은 출생과 함께 오지만 수염은 성년(manhood)에 이르는 남자에게 와진다. 성년이 될 때 이성은 능력을 나타내 발휘된다. 그런 이성을 수단으로 사람들은 지식으로부터 총명으로 건너 가는바 수염은 총명의 상징물이다. 마치 얼굴이 합리적 마음에 상응되는 것 같이 얼굴로부터 자라는 수염은 합리성으로부터 자라는 총명이다.

옷과 몸의 관계 같이 지식은 마음에 관계되는바 이것이 옷에 관한 성경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선함의 의복이 되는게 진리이듯 신성과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과 상응된다. 머리털과 옷 역시 비슷한 용도인바 그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있다. 머리털은 천적인 선함이 생겨나는 진리와 상응되고, 의복은 영적인 선함을 입힌 진리와 상응된다. 전자는 직접적으로, 후자는 매체로서 유입(influx)을 수단으로, 또는 전자는 내부로부터 오고 후자는 외부로부터 온다.

머리털과 옷에 관해서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이 있다. 이 둘은 몸을 위한 덮개라는 측면에서 마음의 최말단 진리에 응답하고 있다. 이 최말단 진리는 내향의 원리들이 종결되는 곳이고 그 원리들은 본래의 모습과 서로 연결시켜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말단 진리들이 제거된다면 이는 머리에서 털이 제거되고 몸에서 의복을 벗긴 상태와 같다. 이럴 경우 몸은 상해에 노출되고 마는데 그외에도 겨울 같은 계절의 경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절대 체온이 사라지게 되어 급속도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경우는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눈은 다윗의 사절단의 머리와 의복을 완전히 벗겨 낸 것은 아니다. 그의 목적은 상해를 입히려는데 있지 않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어 이스라엘 왕을 경멸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데 있었다. 암몬 왕과 그의 보좌관들은 왕 중의 왕의 특사인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그들을 비웃고 냉대하는 이들과 같다. 본문의 경멸을 하는 행태는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수염을 절반 깎아 버리고 옷은 중간 썸에서 잘라 내었다. 나쁜 의미에서, 이 등분하는 것은 나뉘는 것, 나뉘는 흩어지는 것, 흩어짐은 파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왕의 행동은 신성과 영적 진리를 단호하게 적으로 대접하는 상태를 표현하는바 희망 없는 종류에 속하는 상태이다. 계시된 종교에의 단순한 부정은 비록 잘못이 심각했다 해도 신실함은 남아 있을는지 모른다. 이럴 경우 심각한 반성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도 엿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인하는 자가 평화와 호의를 지닌 메시지에 귀기울이기를 거절할 뿐 아니라 냉대와 경멸로 특사를 대우할 때 그 불신앙은 지적 측면 뿐 아니라 행동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것이다. 이는 마치 주님을 관저로 끌고 가 그분의 옷을 벗기고 자홍색 도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손에 갈대를 쥐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고 조롱해대는 것과 흡사하지 않은가!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이들의 또다른 표현적 행동은 하늘이 다윗의 특사에게 가한 것과 더 유사하다. 따라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로마 군인들은 주님의 겹옷을 나누었다. 사실 그들은 두 쪽이 아니라 네 쪽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넷은 그 뿌리로서 일반적 의미가 둘에 있으면서 그 배수일 뿐인바 둘과 넷은 같은 의미일 때가 많다. 주님의 겹옷, 군인들이 나누어 가진 그 옷은 말씀 측면에서의 그분과의 관계, 즉 신성과 영적 의미를 담고, 받쳐 주고 보존하는 말씀의 글자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가 찢기위 나뉘는 것은 파괴되어진다. 그래서 보다 낮은 진리를 통해 자체를 표현하는 보다 높은 진리들은 통솔로 짠 주님의 속옷 처럼 온전히 보존되는바, 제비 뽑아 가져 가는 섭리적인 결정에 의하도록 처방되어 말씀의 속 뜻이 나뉘거나 모독되는 데에서 보존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모독은 나뉘는 것에 의해 표현되는 악 중의 하나요, 암몬에 의해 표현된 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악이 진리를 나뉘게 할까? 이런 일꾼으로서는 아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갈라서(divide) (디모데후 2:15)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어 하느님께 인정을 받은 일꾼으로서는 아니다. 악에 의해 진리가 나뉘는 것은 진리와 진리 간에 근접된 상태(apposition)가 아니라 서로 반대된 상태, 특히 진리와 선함이 반대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 진리가 또다른 진리와 싸우는 상태를 초래할까? 이것은 성경의 글자와 더불어 있어질 수 있고, 흔히 가상적인 진리를 진짜 진리에 반대되게 놓음으로 있어진다. 이러면 얼핏 보기에 대비된 듯 나타난다. 암몬의 지휘관들이 상전인 하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이 선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조객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이 성을 함락시킬 속셈으로 염탐해

오라고 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암몬은 진리를 모독하는 이들, 특히 성경의 진리들이 서로 갈라져 있게 해놓을 뿐 아니라 진리가 선함에 적대감을 가지도록 해석하거나 응용하여 모독하는 이들을 표현한다.

위 보다 더 깊은 종류의 모독도 있다. 즉 처음에는 진리를 믿다가 그것을 부정하는 이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모독이 그것이다. 이런 모독은 지성의 변화로부터가 아니라 심정의 변화로 야기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믿었던 이들이라면 그의 믿음이 악의 농간을 당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거절할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밝히 알려진 그대로의 진리와 인간적 신조(human creed)에서 표현된 진리를 구분지어 놓아야 한다. 인간적 신조라는 신앙의 형체는 믿음의 범주에 있지만 한편 진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거절되지 않으면서 부정하는 범주에 속한다.

이런 불신의 주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희생자도 있다. 즉 하늘 왕 뿐 아니라 다윗의 사절단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추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영적 암몬이 모독한 진리 자체, 또는 영적 암몬들의 저술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언자와 사도들을 표현했다. 그러나 다윗의 특사는 예언자와 사도들에 의해 씌어진 진리를 인정하는 이들, 믿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주님의 왕국에 속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이들은 암몬에 의해 표현된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해 고통받을까? 어떻게 이 고통은 수리될까?

히브리 성경의 앞 부분에 기록된 두 개의 상황은 다윗의 신하들이 당한 피해의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웠을 때 그들은 요셉의 외투를 벗겼고, 그것 가지고 자신들의 악한 짓을 아버지께 감추는데 이용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두려워 떨며 물리쳤을 때 그녀는 그를 붙잡다 빼앗은 그의 겹옷을 증거로 활용해 그를 감옥에 처넣었다. 위 두 사건에 관련된 영적 의미는 이러하다. 신실한 사람이 최말단에서 진리를 강탈 당하면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고 만다는 것, 방어하기 위해 주어졌던 진리도 적의 수중에서는 자신을 옹아매는 증거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할까? 성경의 진리에 반대하는 이들은 성경 글자에 있는 가상의 진리를 붙잡아 그것들을 가지고 실상의 진리를 무효화하는데 채용해서 결국 거짓된 것이 참되다고, 악한 것이 선이라고 증거해댄다. 마치 요셉의 적들이 그를 향해 저지른 위 사건과 같다. 거룩한 책의 가르침이 참되지도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인간들에 의해 최말단의 진리가 일부 삭제 당하는 등등의 수법으로 병신을 만들므로해서 거룩한 것들이 모독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재난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까지는 위협스러운 사람이 되지는 않겠지만 계시된 진리의 위협한 적들이 성경의 성스러움을 고백했던 친구들 중에도 끼여있다. 이들은 성서 비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해석의 물질주의적 체계를 사용해 말씀을 흔하디 흔한 자기들 저서 수준으로 급락시키려한다. 어쨌든 이런 그들의 허망됨도 말씀 중에서 글자에만 영향을 끼칠 뿐이다. 그러나 말씀의 글자는 말씀 속의 영의 의복에 해당된다. 하느님의 영인 말씀 속의 영으로부터 글자가 절단되고 훼손 당할 때 그것은 인간 해석자의 영, 즉 사람의 영과 호흡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짓이 참된 것에, 악이 선한 것에 반대함은 믿음과 사랑의 내향의 시련으로서 마음 자체 안에서 있게 되는 반대됨을 영적 의미로 묘사하는 것이다. 영적 인간의 마음에서, 또는 영적 인간이 되어 가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의구심과 혼동됨은 이런 요점과 의문 때문에 발생된다. 즉 자연적 인간은 평이하거나 공들여 만든 반대 쪽이라면 어느 쪽이든지 자리잡는다. 사실 지적 싸움 없이 믿음은 정착되거나 굳건해지지 않는다. 또한 실제의 시험 없이 깊이 남게되는 사랑도 없다. 에집트 사람과 불레셋 사람,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 모두는 각각이 표현하는 오류와 악들 안에서 마주쳐 극복된다. 암몬족이 표현하는 원리가 우리를 몰아 세우는 때란, 우리가 이런 의문, 즉 말씀을 읽건대 본질면에서 신성이고 영적인 것들이 어찌하여 형체적으로는 이세상 일들 만큼이나 인간적이고 모순 당착된 것이 많을까? 하는 의문의 바탕에서 말씀 속의 신성과 영성을 의심해 보도록 유혹 당할 때이다. 아마도 이런 유혹은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칫 있기 쉬운 것일게다. 이들은 영적 식별이라는 눈 보다는 과학의 눈으로 말씀을 뒤적거린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굳이 틀렸다고 잘라 말할 수도 없다. 그의 과학적 자질과 지식 만을 신뢰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어쨌든 대단히 진지한 탐구자의 체험에서도 의구심이 너무 강해져 그의 믿음이 절반쯤 박탈된 듯 여겨지는 때 같은 상태 까지도 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그가 강요 당해 난처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경우 이는 오히려 좋아질 징조일 수 있다. 마음의 이런 상태는 희망의 확실한 바탕이다. 이런 의심의 상태는 그가 당한 일시적인 손실을 수리해주는 조언을 듣고 따르게 해서 더 완전한 영적 믿음으로 회복되게 한다. 이렇게 시험받은 자에 대한 조언이 사절단에 대한 다윗의 지시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예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예리고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 약속된 땅에 진입했을 때 들어간 첫 번째 도성이었다. 요르단을 통과할 때 그들은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 첫 번째 세례는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서였다.(고린도전 10:2). 이 두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에 응답하고 있다. 세례의 과정을 통과하는 이들이 예수의 진리로 훈육되고 새 삶으로 진입할 때 그들은 이제 새롭고 더 높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일치되는 새 삶이 있는데 이것이 예리고로 표현되어져 있다. 그러면 믿음의 총명과 능력을 회복하는데 요구되는 수단인 훈육할 진리는 무엇일까?

과학적 자질과 지식을 지닌 이들로 하여금 불신되라는 의구심을 품은 이들에게 모든 과학적 의구심을 해결해 주는 과학이 있다. 그이유가 이 과학은 모든 과학에 들어가 계발시키기 때문이다. 상응학 (the science of Correspondence)은 과학 중의 과학이다. 상응의 법칙에 의거 창조의 골격이 짜여졌고 하느님의 말씀이 씌어졌다. 상응의 법칙은 창조자 하느님과 그분의 일 사이에, 계시자 하느님과 그분의 계시 사이에 놓인 연결의 본성을 설명한다. 상응은 하느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서로서로가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모든 것을 붙잡아 주는 보편적인 끈(universal bond)이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일과 말 사이에 친밀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말 어떤 인간이 완전하게 신실하다면 그의 말과 일은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밖에 더 아니다. 그의 의지와 이해성은 양 쪽 모두에서 동등하게 명백해질 것이고 이것이 저것으로 완전하게 변형되어진다. 하느님의 말과 일 사이에는 완전한 연결 또는 상응됨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다음의 경우는 절대적이다. 즉 창조와 계시 사이의 상응은 완전하다는 것, 이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간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감각적 또는 피상적으로만 들여다 본다면 우리는 실재와 다른 나타남, 때로는 실재와 완전히 반대되는 나타남이라는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 땅 표면 아래 깊숙한 부분을 결코 들여다 보지 않고 있다면 지질학이 어찌 있게 되었을까? 마찬가지로 성경의 글자 보다 더 깊은 부분을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어찌 참된 신학이 있어질 수 있을까? 과학으로부터 부정적으로 추론하는 영향력을 좌절시키는 여느 다른 지적인 고찰 외에도 의심을 청산하는데 가장 높고 중요한 실제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그는 그 교리가 하느님에 속한지 아닌지 알 것이다.” (요한 7:17). “하느님에 속한 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8:47). 이런 구절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고 다윗의 특사가 하느님에게 당한 고통에 의해 표현된 것과 같은 시련의 상태에서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다.

비록 다윗이 하늘에 의해 제공된 무례함을 깨닫게 여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해도 그가 즉각 되갚으려 했던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암몬족이 먼저 군사를 움직였다. 아마 그들은 짐짓 다윗의 보복을 예상해 놓고 있었던 듯 하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미움을 산줄 알고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벳르훅 아람과 소바 아람 보병이 만을 비롯, 마아가 왕이 거느린 군대 천과 돕군 만 이 천을 고용하였다.” 이 연합군에 맞서도록 다윗은 요압을 내보냈고 그는 그들을 대파했는데 아람군(syrians)은 다시 병력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하다데젤은 사람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 편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동시켜 진격해 왔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 전군을 소집하여 그들과 싸워 병거대 칠 백명과 기병대 사 만 명을 무찔렀다. 그러자 “하다데젤에게 붙었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 아람 사람들은 다시는 암몬 백성을 돕지 않았다.”

위와 같은 줄거리에 관한 세부 사항에 지면을 이미 할애했었는지 모른다. 그이유가 다윗이 아람국가들과 싸워 정복하고 공물을 받게 된 것을 살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영적인 악, 마치 똑같은 자연적인 적 처럼 한 때 패배시켰다고 해서 언제나 완전하게 정복되는 것은 아니다. 옛 악들은 새로운 병합적 체계를 갖추어 그들의 힘을 불리기 위해 다른 악들을 불러 모은다. 선한 것 사이에 연맹된 체계가 있듯이 악한 것들 사이에도 동맹함이 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읊고 있다. “당신의 적들이 소리 높이 떠들고 당신의 원수들이 머리를 치켜듭니다....그들은 모두 한 속으로 공모하여 당신을 치려고 손을 잡았습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족,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거기에 따로 시민들, 아시리아 까지 합세하여 롯의 자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83:2, 5-8). 위 인용 구절에는 우리가 말씀의 역사 부분을 다루는 가운데 등장했던 나라들의 대부분이 속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롯의 후손을 도우려 하고 있다. 마치 본문의 아람 사람들과 비슷하다. 더욱이 악과 거짓들은 그들 사이에 동맹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악은 선과, 거짓은 진리와의 연합을 형성하기도 한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기록은 마지막 하강 단계에 있는 교회를 표현했던 유다 역사 안의 한 시절에 관한 기록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약속이 이렇게 뒤잇고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사야 7:2,14). 서로 반대되는 본성이 혼합됨은 가장 나쁜 모독의 종류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때에서 조차도, 가장 지독한 시험의 상태에서 조차도 신실한 사람들은 만일 자기들이 그분을 신뢰하여 따르고 있다면 적의 모든 권세를 쳐부술 힘을 얻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최소한 아람 사람들이 암몬 백성을 더 이상 돕고 싶지 않게 만들 것이다.

## 사무엘하 11장

### 다윗의 큰 죄

인간의 허약점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면서 인간 변천의 기록을 정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바램이다. 역사, 그것이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꽤 많은 분량이 인류의 악덕과 우매함의 기록이다. 악의 근원과 인간의 타락을 밝히 알리는 책(the Book) 역시 그것들의 교활한 과정을 통하여 악을 추적해야 하고 부패된 인간성의 어두운 행동 안에 있는 타락의 결과를 진열하려면 필시 인간의 허약점과 마주쳐야 한다. 어쨌든 이런 허약점은 우리의 보다 좋은 측면에서는 고통스런 느낌을 받게 하고, 한편 상스러운 측면에서는 그것이 판에 박힌 정서인 듯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허약점들도 우리가 잘 관조한다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효과도 생산할 수 있다. 계시의 목적(purpose)은 이런 변천을 기록하는 가운데 범죄를 악으로서 뿐 아니라 죄로서 우리 앞에 놓는 것, 범죄는 인간의 법칙을 깨트린 것 뿐 아니라 하느님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그분의 얼굴의 빛에 놓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죄인, 비록 그가 인간의 최고 권위자라 해도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에 대한 놀라운 본보기가 바세바에 관련하여 저질러지는 다윗의 이중의 범죄에서 주어지고 있다.

다윗의 범죄에 관한 줄거리를 읽어 갈 때 우리 마음에서 꼭 있게 되는 어떤 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본문의 내면적인 의미를 거론하기 전 미리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염두에 둔다면 다윗을 두고 하느님의 심정을 닮은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답하려고 깊이 생각하려 굳이 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가 그는 개인적 인물 측면이 아닌 그가 표현하는 것들, 즉 공적 지위나 표본적 품성 측면에서만 주님의 심정을 대표한다고 누누히 앞 장들에서 설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표현하는 기능 측면만이 해당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사울을 두고 말했을 경우, 즉 그는 사울을 기름부은 자로서 간주하고 그렇게 예우한다는 것에서도 이해를

보낼 수 있다.

아직 또 다른 심각한 곤란한 점이 더 있다. 즉 죄를 짓는 본문 같은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표현하며 거듭나는 인간 조차 표현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점이다. 이 사실, 이는 이미 서술했었는데,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해두어야 할 것인바, 즉 표본되는 사람들에 의해 범해진 악한 행동들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거듭남 안에서는 행동들이 아니라 시험들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윗 내지 여타 사람들이 죄지은 그 행동 자체를 저지르게 한 시험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아주 더 깊은 바탕을 가진 시험들, 이것들은 인간이 범하는 수많은 죄의 형체로 가치를 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모든 악은 하느님을 사랑함에 직반대되는 것인 자아를 사랑함에 원천적으로 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을 사랑함은 모든 선함의 뿌리이다. 이웃을 사랑함 까지도 하느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자라난다. 이 두 사랑은 모든 선함을 이해시켜 준다. 그 이유가 두 사랑에 모든 율법과 예언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사랑함은 모든 종교를 납득하게 하고 자아를 사랑함은 모든 비 종교를 납득시킨다. 전자가 모든 정의로움을 포함하듯, 후자는 모든 비 정의를 포함시켜 놓고 있다. 사도들이 육의 죄라 부르는 것들은 여타 다른 죄 만큼이나 마찬가지로 자아 사랑 안에 그것의 뿌리를 두고 있다. 타인의 행복과 복지에 관심을 둬도 없이 자신의 바램을 탐닉하려고 행동하는 것은 대체로 그 뿌리가 자아 사랑에 있다. 영적인 결과, 영원함을 말하지 않는 것, 땅 위 인간 존재에게 가장 귀중한 모든 것을 비용으로 치루면서 육의 욕망을 탐식하려는 것보다 더 비열하고 더 탐욕적인 것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 놓고 이제 죄와 시험을 들여다 보자. 기독교인의 시험은 외적인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바램을 흥분시키고 죄짓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키는 것만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것이 시험들임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진짜의 영적 시험은 외적 원인 없이 견뎌내야 할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외적 원인은 죄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죄짓는 기회(occasion)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원인, 뿐만 아니라 목적(end)들은 우리 내부에 있다.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죄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는 일이 결코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가치를 처내는 것에 만족되어 있다. 시험은 악의 뿌리에도, 원인과 목적에도 뻗어 있다. 고로 우리가 고통을 수단으로 완전해지는 참된 방법에서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유전적인 악들을 입으셨는데, 이 악은 그분의 어머니쪽 인간성에 뿌리를 둔 것들이다. 이 뿌리는 소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내려 온 것이다. 이로부터, 이 유전적 뿌리를 통하여 그분의 가장 깊고 가장 비참한 시험이 왔다. 이 시험을 극복하는 가운데 악의 참 뿌리와 사탄의 가장 낮은 측면 까지도 구속하시는 권능을 획득하시어 지금은 우리의 시험이 제 아무리 격렬하든 구조해 주실 수 있으시다.

본문을 살피건대 다윗은 인간이 위반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이 범죄들은 주님의 가장 깊은 시험을 표현해야 한다. 다윗이 저지른 두 가지 악의 참 본성, 그리고 그것이 표현했던 시험의 깊은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악의 영적 근원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아마 주님의 교회에 관한 저술(the Writing of the Church)을 조사하는 게 가장 나은 대답을 얻으리라.

“결혼적인 사랑의 참된 근원은 주님의 교회(the Church)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거기로부터 주님은 말씀 안에서 신랑이라 불리우고 교회는 신부와 아내로 불리고 있다. 주님과 교회의 결혼으로부터 일반적, 특수적 모두에서 주님의 교회(the Church)가 교회(a church)인바, 주님의 교회가 인간 안에 존재할 경우 그 교회는 특수한 측면에서의 교회이다. 이로부터 명백한바, 주님의 교회의 사람과 주님의 결합은 진정한 결혼적인 사랑의 참 근원이다. 어떻게 결합(conjunction)이 이 사랑의 근원인지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의 사람의 결합은 선함과 진리의 결합이다. 주님으로부터서는 선함이, 사람으로부터서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이 결합은 천국적인 결혼이라 불리우고 이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함과 진리가 결합한 상태에 있는 결혼된 파트너 사이에 진실로 결혼적인 사랑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맨먼저 명백한 것은 진실된 결혼적인 사랑은 주님 만으로부터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선함과 진리의 결합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결혼적인 사랑의 근원이 선함과 진리의 결혼이고 그것이 천국인바, 명백해지는 것은 간음하는 사랑의 근원은 악과 거짓의 결혼이고 그것은 본질 차원에서 지옥이다. 천국이 결혼이다. 그 이유는 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선함과 진리가 결혼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지옥은 간음이다. 그 이유는 지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악과 거짓이 결혼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귀결되는바, 결혼과 간음은 천국과 지옥 처럼 서로 반대된다는 것이다. 결혼의 사랑은 최고 높은 천국의 사랑,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을 사랑함과 상응하고, 간음의 사랑은 최 하위의 지옥의 사랑에 상응된다. 결혼의 사랑이 이와같이 거룩하고 천적인 이유는 그 사랑이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 안에 계신 주님 자신으로부터 개시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 사랑은 몸의 최 말단 부분에 까지 질서에 따라 내려 온다. 그리하여 인간 전체를

천적인 사랑으로 채워 그를 신성한 사랑의 형체가 되게 한다. 이 형체가 천국의 형체요 주님의 형상(image)이다. 그러나 간음 속의 사랑은 인간의 최말단 부분으로부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음탕한 불로부터 시작된다. 그럼으로 질서에 반대되게 내면을 관통하여 악밖에 없는 인간 이기심으로 언제나 질주하고, 그 안에서 악의 형상인 지옥의 형상을 야기시킨다.

결혼한 파트너들에 관계되는 순결 속의 선한 일들은 영적이고 천적인 사랑들, 총명과 지혜, 순진과 평화, 그리고 지옥에 반대하는 힘과 보호 등등이다. 간음에 수반되는 악들은 위의 사항과는 반대된다. 이것들은 영적이고 천적인 사랑 대신 지옥적이고 극악무도한 사랑들이다. 총명과 지혜 대신 사악함과 우둔함이다. 순진과 평화 대신 사기와 불안이다. 지옥에 대항하는 힘과 보호함 대신 악마 그 자체, 지옥이다. 아름다움 대신 추함이다. 간음은 선과 진리를 더럽힘, 섞음질이다. 이와 같은 것이 다윗이 위반한 한 개의 계명에 관계되고 있다. 그가 위반한 또 다른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영적인 천적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란 인간으로부터 그의 영적 생명인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제거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살인 자체이다. 그 이유가 인간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고, 도구에 불과한 원인이 원리적인 원인을 섬기듯 육체의 생명은 영적 생명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 영적 살인으로부터 도덕상의 살인이 파생되는바 전자에 속해 있는 이는 후자 안에 있는 썸이다. 인간의 영적 생명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기를 미워하는 가운데 있다. 따라서 그는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미워하고 있고, 따라서 인간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썸이다. 영적 살인, 이는 믿음과 사랑의 살인이고, 도덕상의 살인, 이는 명성과 명예의 살인이다. 그리고 자연적 차원의 살인, 이는 육체의 살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살인의 시리즈이고, 이것은 저것으로부터 원인과 결과의 관계 같이 이어지고 있다. 지옥에 있는 이들은 주님을 미워하는바, 천국을 미워하고 있다. 그들은 선함과 진리에 반대되어 있어 지옥은 참으로 살인, 살인 자체인바 살인은 지옥으로부터 파생되어진다. 그이유는 이러하다. 인간은 주님으로부터 선함과 진리를 받기에 인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함과 진리를 파괴한다는 것은 인간성 자체를 구성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는바 이는 인간을 죽이는 것과 같다.”

다윗의 죄에 관련해 생각해볼 것이 더 있다. 위에 상술했던 원리들은 그 자체 절대적으로 진실되다. 그리고 그 원리에 반대되게 행동한 이들에 부착된 죄는 당사자가 즐긴 도덕적, 영적인 빛에 비례한다. 유대주의 처방 아래에서의 사람들은 기독교 처방 아래에서 보다

법 위반의 죄있음을 더 명백하게 보지 못했었다. 다첩제는 법이 인가했던 제도이고, 이 제도 아래에서 그들이 살았었는데 이 관습은 결혼의 참된 생각과 모순되고 결혼의 신성함을 위반한다는 죄에 관한 명백한 관념과도 모순된다. 그럼에도 유대주의 처방 아래에서의 사람들은 결혼과 다첩제에 관한 생각을 덜 중시한 셈이 되었는데 그이유는 영혼과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희미한 개념만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들 보다 한 수 더 높은 처방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 결혼의 참된 본성이 알려져 있고, 그 신성함을 알고, 영혼의 참본성, 그 미래 삶을 충분히 알고 있는바 본문의 죄가 가르치는 교훈은 대단히 엄숙하리라.

거룩한 결혼이 어떠한지, 그 거룩함을 위반하는 이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살폈다. 또한 인간의 영혼은 얼마나 귀중한지, 영혼의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그 얼마나 죄있음이 큰지 모른다. 가장 거룩한 것을 위반함, 가장 귀중한 것의 파괴가 다윗의 두 가지 죄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두 개의 영적인 악들은 교회에서 가장 파괴적이다. 마치 자연적 차원에서 이 악들이 인간 사회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 악은 어둠의 영들이 가장 깊이 관여된 악들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함, 천사들의 원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깊숙히 반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은 생명과 죽음, 순수함과 불순함이 반대되듯 서로 반대되어 있다.

시험 가운데 계신 주님은 비록 천사들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않으셨지만 그분과 함께 천사들을 거느리셨다. 그런 이유는 그분의 어머니쪽 인성이 그분으로하여금 모든 지옥과 연결되게 했고, 그분의 아버지쪽 인성은 모든 천국과 연결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구속자로서의 주님이 지옥들을 정복해가는 한편, 그것과 동시에 똑같은 수준에서 천국들도 정돈해가셨다. 이런 방법으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 평형(equilibrium)이 건설되었고, 이 평형 위에 인간 종족이 의존하는 영적 자유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싸움없이 지옥이 정복될 수 없듯이 천국도 정리정돈되어질 수 없었다. 지옥의 영들 뿐만아니라 천국의 천사들도 각 개인의 인간적 존재들로서 자기들의 의식적 존재의 바탕인 자아(selfhood, proprium)는 유지존속된다. 자아는 본성적으로 신성에 반대되고 방법 차원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된다. 마치 행성의 원심력이 태양의 구심력에 반대되는 것과 같다. 만일 행성이 그들의 중심되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경향을 가지지 않았다면 행성들은 태양쪽으로 빨려버리고 말 것이고 따라서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존재로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태양이 행성들을 잡아 당기지 않았다면 행성들은 우주에로 영영 날아가버리고 아마 잃어버리거나

파멸되었을는지 모른다. 하느님과 인간의 경우도 이에 견주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인간의 창조자 되시는 하느님께서 인간 개성의 바탕으로서 자아를 주셨다. 이 자아의 참 본성으로부터 각 개성은 그의 생명의 원천이요 그 존재의 저자로부터 바깥쪽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창조자는 창조물에 의해 발휘되는 반대적인 힘에 평행되는 당기는 힘을 발휘하신다. 이것은 인간이 질서적인 상태에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그 이유가 인간은 행성과는 다르게 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freewill)가 있어서 때로 신성한 사랑의 끄는 힘을 거꾸로 이겨내서 어둠과 죽음의 영적 영역에서 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영역이 지옥이다. 그 이유가 지옥은 하느님과 분리되겠다는 고집밖에 더없고, 그분과 반대되는 결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지상과 천국의 그분의 왕국 안에 있다. 천사들은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들의 자아는 그분에 반대되어 있다. 이것은 구속의 위대한 일에서 주님이 천사들에게 까지도 시험되신 특이한 사실의 바탕이고 이 근원으로부터 가장 격렬한 그분의 시험도 있어졌다. 이것이 가장 높은 의미에서 바세바의 문제로 야기된 다윗의 시험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구속함을 가져오면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뿐아니라 지상에서도 그분의 교회에서 수행될 일을 가지셨다. 구속함에는 천국의 그분의 교회(the Church)의 기초로서, 구원되는 영혼의 수단으로서 지상에 어떤 교회(a Church)의 건설이 구속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천국에 그 거주민을 조달하신다. 다윗과 바세바의 역사가 내적 의미에서 위 사항과 관련되고 있다.

바세바는 헷족 우리야의 아내였다. “헷족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 중에서 보다 나은 종족이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들 사이에 거주했고, 후에 이사악과 야곱도 그러했고, 또 거기에 매장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된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해 정중하고도 관대하게 처신했는데 이는 창세기 23장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호의적인 국가인 이 백성들은 영적 교회(the Spiritual Church)를 표현했다. 그러나 세월이 경과되면서 그들도 고대 교회를 구성했었던 타 민족 처럼 믿음의 선 또는 이타애로부터 하향되어 기울게 되었는바 오랜 뒤에 교회 속의 거짓 원리를 의미했다. 그 모습은 예제키엘 16장 3,4,5절에 있는 것과 같다.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은 그의 아버지가 아모리인이고 어머니는 헷여인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그럼에도 헷족은 가나안족들 중 더 나은 편에 속한다. 이런 정황은 사무엘상 26장 6절을 보면, 헷사람 아히멜렉이 다윗과 동행했고 바세바의 남편이 헷사람이었다는 등등에서

보여진다.” 그러나 현 주제와 더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건은 헷족의 땅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매장된 것이다.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다. 이것은 영적 교회를 표현했다. “그 밭과 거기 딸린 동굴은 헷사람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창세기 23:20). 사라는 주님의 교회(the Church)를 표현했다. 그리고 매장은 부활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헷의 자손들의 땅에 묻는다는 것은 이전의 교회가 종료될 때 주님의 교회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을 표현한 모습이다. 이런 교회가 헷족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에 의해서도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범죄에 속하는 행위들이 선한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악한 것이 선한 것의 예징이 되고, 거짓된 것이 참된 것의 예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같은 모습은 악은 선한 것이 뒤집혀짐, 거짓은 참된 것이 뒤집힘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뒤집히면 남아 있는 선과 진리는 제거되어진다. 악과 거짓은 그것의 근원되는 존재, 또는 독단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악이 선과 관련되고, 거짓이 진리와 관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선한 어떤 것이 없었다면 악한 어떤 것도 있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 룯과 그의 딸들과의 연결은 나쁜 표현을 가졌다. 마찬가지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연결이다. 그들을 통해, 후에 창녀 리합을 통하여 왕권의 후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출현되었다. 이런 사항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유전적인 전달을 수단으로 우리 모두의 불법이 남아 있게 되었다고 자연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 해도 영적 차원에서 주님의 선조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출생 때부터 위쪽에 속한 것들, 모든 종류와 수준에서 남아 있는 선과 진리를 표현했다. 다윗과 바세바의 첫 번째의 연결은 참된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가 이방인들 사이에 건설되기 전 그들과 주님의 연결을 표현했다. 사실 보편적인 교회로 말해 본다면 이 교회는 어느 시대이건, 어느 하늘의 처방에서이건 이방인들을 포함했다. 그이유가 이 교회는 종교가 무엇이든 그 종교 속의 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방인 같은 선, 비록 그 선이 거짓된 것은 아니다해도 비적출(spurious)이다. 그이유가 그 선은 계발되지 않은 선, 순수해지지 않은 선, 마치 어린 아이에게 있는 선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선은 어린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선 같이 걸보기로는 매우 아름답다. 마치 본문의 바세바 같다. 비록 이 선은 순수해져 있지는 않다 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이 소유한 순수해짐의 수단, 또는 주님의 교회가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깨끗해지는 수단을 채용한다. 주님의 교회가 이방인 사이에 건설된 뒤 그들과 주님의 결합은 마치 바세바가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후의 결합과 같은 것이다. 주님과 교회의 결혼은 선함과 진리가 합일된 결과이다. 이방인의 선은 그 선이 기독교의 진리로 계발되고 순수해질 때 기독교인의 선이 된다. 서로 닮지 않은 두 사람의 결합의 열매가 어린 아이의 출생으로 표현되어졌고, 주님께서 그를 죽도록 치셨다. 그리고 솔로몬을 수단으로 슬기로운 자가 다윗의 뒤를 잇게 했다.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이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이라 해도 그것이 진리와 하나되지 않으면 그 안에 참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이 진리와 하나될 때, 이 합일, 즉 천국적 결혼으로부터 지혜와 정의의 열매가 생산된다.

위에서 살핀 내용은 영감있는 본문의 간략한 영적 의미이다. 이 기록은 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경고로서 서있는 한편, 높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가능성 있는 어떤 악이 신성한 섭리를 수단으로 실제의 어떤 선으로 변해질 때 이 악은 모든 미래 시대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어떤 결과를 생산한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참회하는 시편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얻드린 죄인은 깨지고 뉘우치는 심정이 지니는 모든 언어를 속삭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의 범죄에 관련된 이 사건을 통감하는 심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읽어 내리지 못하리라. 한편 다윗이 지은 범죄를 놓고 엄한 판결을 내리고저 했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실 뿐 아니라 시험에 저항하는 힘을 주시는 그분의 현존에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리라. 시편 51편은 거룩함이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되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단어 마다, 구절 마다 모두는 폭력을 휘둘러 갈기 갈기 찢기운 듯 여겨지면서 그것 모두는 완전한 하모니로 고리를 맺고 있다.

주님의 교회(the Church)가 다윗의 죄로부터 받게 된 또다른 혜택은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앓고 죽는 기간 동안 보여준 적극적인 경건함과 슬기로운 체념에 담긴 아름다운 교훈일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에게 중병을 내리셨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걸친채 밤을 새우며 어린 것을 살려 달라고 맨땅에 엎드려 하느님께 애원하였다....아기는 마침내 칠 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수근거렸다. ‘아기가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더 슬기롭고 모순 없는 행동을 하였다. 다윗은 신하들이 보고하기를 두려워하여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아기가 죽은 것을 눈치채자 일어나 목욕을 하고 옷을

같이 입고 주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 왔다. 신하들이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애가 살아 있을 때 굶으며 온 것은 행여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기를 살려 주실까 해서 였소. 아기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 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수는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 올 수는 없지 않소?” 이는 기독교인이 모방하기에 안성마춤인 행동이다.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한 체념은 공히 의무적이고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희망이 있는 동안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보낼는지 모른다. 이런 기도 중에서조차 주님이 고백하시듯,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로 표현했든, 그렇지 않았든 체념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말(issue)이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진행 순서는 온유하고 조용한 복종외에 더다른 것이 있을까?

## 38

### 사무엘하 12장

#### 하느님의 메시지와 나단의 비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역사 줄거리의 세부사항의 노골적인 언급은 우리 가슴을 찢기에 충분할 만큼 고통스럽게 하고, 더불어 옛 시대의 나병 환자가 “불결합니다, 불결합니다”라고 외쳐대듯 우리로 그렇게 외치도록 강요하고도 남음직하다. 표본적 인간 안에서 불거진 나병 같은 실제의 오점이 성경 안에 진열된 것은 이런 불결함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더불어 우리 모두는 다윗이 시험에 노출되게 하고야마는 경향성을 상속받고 있다는 것까지 상기시켜주고 있다. 다윗이 범한 두 가지 죄를 질책하고 그에 마땅한 신성한 정의의 판결을 낭독하기 위해 예언자가 다윗 앞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나단의 비유에서 극명하게 묘사된바 그대로 다윗의 이중 죄목을 살핀다. 지금 다윗은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 바세바가 자기 아내가 된 것이다. 이것은 애당초 그가 의도하려 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이다. 다윗의 죄짓게 하는 욕정은 금욕을 절제하다가 자기 목숨을 몰수 당한 충직한 신하의 자아부정을 도구로 다윗이 살인하게끔 강요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어쨌든 다윗의 양심이 편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바 없다. 그는 자기 죄에 불법을 보냈다. 게다가 은밀히 그 짓을 해냈다. 요압말고는 누구도 다윗의 엉큼한 계책을 아는 자 없었다. 그는 합리적 자질을 표현하는데 과도하게 충실했다. 다윗의 죄가 백일 하에 알려졌었다면 아마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수치스런 것인 사회적 양심이라는 바늘이 그를 찔러주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죄는 사람들로부터 감추어 있었는데 다윗은 죄가 자기 가슴 안에 숨겨있는 듯 느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눈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을 열리게 하여 보는 눈, 그 눈이 다윗을 언제나 따라 다녔고, 그의 범죄적 욕정의 동기 안에 있는 것, 비상한 그의 두뇌의 계책 안에 있는 것을 환히 보고 있었다. “다윗이 한 이 일이 주님을 불쾌하게 했다. 그래서 주님은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 온 것 자체가 다윗으로 그의 죄를 상기시키게 해주지는 않았다. 더구나 다윗의 면전에서 직설적으로 그의 죄를 묻는 것 역시 예언자의 의도도 아니었다. 그는 더 신중한 과정을 채택했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의 죄를 인정하고 확인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올린다.

이스라엘의 왕, 그 시대의 여타 국가들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왕은 그들 백성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재판관이기도 했다. 그래서 예언자는 가장 중요하고 대단히 민감한 사역을 100% 성공이라는 확실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위와같은 왕권을 이용했다. 나단은 피해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심판해 달라고 간청하는 형식으로 이스라엘 군주의 면전에 나타났다. 그리고 왕권적 판결을 기다리면서 그의 비유를 꺼내 말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 밥 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잘 때는 친 딸이나 다름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 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은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 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압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몹시 쾌심한 생각이 들어 나단에게 말했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정의로운 다윗의 이 왕명을 수단으로 나단의 첫 목적은 달성되었다. 왕의 심판은 가난한 자가 억울하다는 것, 부자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천명했다.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다윗의 열정, 부자에 대한 분개함이 끓는 동안, 예언자는 온 땅의

심판자가 보내는 특사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선포를 그의 귀에 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나는 네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네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앗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헛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이 사건은 “타인을 심판한 것은 당사자가 같은 행동을 할 경우 그 사람도 심판한다”는 서간문의 예증도 되어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추상적인 정의에 속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 이 지각은 다른 지각보다 더 명백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완전히 모자라는 지각은 있지도 않다.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폭에서 신성한 법이 인간 마음에 씌어 있을 경우 당장으로서 는 그 사람에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씌어져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은 인간 마음이 가지는 옳고 그름, 공정과 불공정에 관한 지각의 저자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추상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각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응용할 경우 틀림이 거의 없게 해낼 수 있다. 되튀겨 오는 심판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타인을 질책하는 동안 자신 안에 있는 그 악도 질책하게 된다. 똑같은 심판의 권능은 당사자로 한층 더 높은 법, 포괄적인 법, 즉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란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는 법까지 자신에게 응용하게 한다. 이 구절은 자연적인 법, 뿐만아니라 계시된 법에서도 참되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이다. 더불어 자연적 법과 계시된 법은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그이유가 한분 하느님이 두 법의 저자이시기 때문이다. 자연의 상태에 있는 인간, 이를 수단으로 우리가 질서의 상태를 뜻하게 되는데, 마치 그가 창조된 것같은 질서의 상태들이 그의 심정의 테이블에 씌었다면 그런 상태는 바깥쪽으로부터의 어떤 계시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이런 근원적인 상태로부터 이탈될 경우, 즉 그가 사용하라고 그의 심정의 테이블에 씌어있는 질서를 삭제할 경우가 많다. 지금도 내부로부터 오는 주님의 영광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씌어 있는 그분의 말씀의 하나된 작동으로 모든 인간의 건전한 마음은 옳고 그름에 관한 식별력을 가지며, 형평법은 심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의 결과로 본다면 우리는 이런 작동의 질서에 얼마나 실패하는지 통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추상적 차원에서 정의를 명백히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열렬함과 편견은 추상적으로 있었던 정의를 실제적인 데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판단을 덮어 씌운다. 게다가 타인의 과오를 간과하는데는 매서운 눈초리를 서슴없이 동원하고, 자신의 과오에는 소경되고 있다. 타인이 내게 하기를 바랬듯 타인에게 해주는데는 그 얼마나 비호의적인가!

다윗은 정의의 하느님의 이름 아래 암컷 어린 양 한 마리를 그의 가난한 이웃으로부터 갈취한 부자에게 죽음과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그 자신은 간음과 살인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이유가 그는 자기가 한 짓을 두고 하느님께나 인간에게나 모두에게 배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다윗의 실예는 위 문단을 얼마나 놀라웁게, 그리고 참담하게 본보기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왕이 도덕적인 법을 알고 있는 한편 도덕적 원리를 획득하는 수단을 가지지 않았다고 그의 행위를 변론할 수 없다. 그의 판결과 행동이 거의 완전히 모순되어 있는 그때에서도 그는 하느님의 법으로서 도덕적 법을 인식했다. 그리고 그는 죄짓게 하는 육의 약한 측면 때문에 죄지었을 뿐이라고, 그의 죄는 성도다운 품성 위에 순간적으로 있어진 오점에 불과하다고 또 달리 변론할 수도 없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다윗의 죄를 판결하면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는 하늘의 처방을 복음의 시대 보다 훨씬 더 희미하게 인식했던 때에 살았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는 더 명료한 빛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례되는 더 큰 의무가 뒤따르고 있다. 기독교라는 하늘의 처방 아래,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구절은 살인죄와 관련된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이럴진대 우리는 거룩한 예언자가 판결을 간청할 때 그의 면전에서 다윗이 전율을 느낀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단죄하게 할 때조차에서도 우리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우리의 내적인 귀에 발표되는 말을 듣도록 영원한 진리의 소리를 경청해야만 한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율법으로 금해지는 악의 근원, 그리고 복음서에 의해 정죄되는 의도(intention)의 근원을 밝히 알게 한다.

결혼은 선함과 진리, 또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천국적인 결혼의 예징이요 그 결과이다. 천국적 결혼에서 남자는 진리를, 여자는 선을 표현한다. 종교의 어떤 진리가 가르치는 선을 위반하는 것은 다윗의 첫 번째 죄가 표현했던 영적인 악이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죄가

두 번째 죄를 유도한 것같이 선의 위반은 그 선에 관련된 진리를 왜곡시키고 파괴하도록 한다. 우리가 종교 속의 어떤 선에 폭력을 행사하면 그 선의 진리가 우리 생각 안에서 일어난 다음, 다칠 심판에 관한 환상을 가지고 늘 붙어 따라 다닌다. 우리는 우리야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훼손시킨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가슴으로부터 암컷 새끼 양을 빼앗고, 방황하는 우리의 욕망과 부패된 욕구를 만족하려고 그것들에 옷을 만들어 입힌다. 우리의 첫 번째 시도는 진리를 악한 쪽으로 합류하게끔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이런 유혹에 끌려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문전에서 마치 죄같이 드러누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 죄에 대해 납득해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진리가 동의 않을 때 우리의 시도는 진리를 굴복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즉 진리를 뒤집고 왜곡시키고 결국 파괴한다. 이것이 영적, 도덕적으로 하강하는 역사의 모두이다. 먼저 의지가 선을 부패시킨다. 그다음 이해성은 진리를 거짓화하고 파괴한다. 진리의 왜곡과 그에 따른 실제의 파괴가 다윗의 두 번째 범죄 행위로 특별히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가 나단은 다윗에게 우리야를 죽였다고 말했다 뿐 아니라 암몬군의 칼로 그를 살해했다는 세부적인 항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압과 암몬은 루이 그의 두 딸로부터 얻은 두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두 부족은 선함과 진리를 모독함을 표현했다. 우리가 진리의 진짜 의미와 실제적 효용을 파괴하려고 그 진리 위에 왜곡된 어떤 해석(construction)을 놓을 때, 그 진리가 이기적 또는 감각적 탐닉에 장애물로 여겨 그 진리를 제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야를 죽이는 다윗의 죄를 영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다.

질책하는 진리의 소리가 침묵으로 일관할 때 고민하던 마음은 평화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 아닌 평화, 썩음이 잠잠해 있는 것, 영적인 귀머거리의 고요함 같은 것일 뿐이다. 비록 양심이 침묵되어 있을지라도 마비되지 않았다면 행복된 것이다. 그이유가 옳음을 느끼는 감각을 통해 말하는 영원한 진리의 소리로 일깨울 찬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다. 무덤이 우리야를 가두어 놓고 바세바는 왕궁 안에 있을 때 다윗은 숨막히는 양심을 지니고 심판의 권좌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예언자는 다윗 자신보다 덜 죄있는 자를 심판하던 정의의 칼을 죄지은 재판관에게 돌려 대었을 때 그 칼은 그의 영혼 깊숙히, 영과 혼이 두 쪽 나도록 깊이 파고 들었다. 동시에 그의 심정 속의 의도와 생각 속의 식별력을 검증하고 있었다. 죄지었다는 느낌이 그를 내려치자 다윗은 양심이 찢리어 솔직하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라고 실토했다.

각오가 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은 준비된 용서함을 받았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님께서서는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심각한 죄가 준비된 용서함을 만난다는 것은 엄격한 정의에 모순되는 듯 비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 주제에 관련되는 성경적인 법과 엄격히 일치되고 있다. 신, 구약 성서 모두에서 용서는 회개에 약속되어 있다. 다윗의 회개가 신실한 이상 그의 죄는 용서되지 않은채 모순없이 남아 있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둘 것은, 다윗의 처벌, 회개, 용서함은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수준이었지만 기독교인일 경우 그것은 영적이고 영원하다. 따라서 기독교의 용서는 기독교의 회개에 의해서만 획득된다.

회개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때가 결코 없지만 저질러진 죄는 그 죄를 범한 자에게 필연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 비록 다윗의 목숨은 유보되었지만 상처 없이 유보된 것은 아니다. 우리야를 칼로 죽였는바 칼부림이 그의 가문에서 가실 날이 없게 되었다. 그가 타인의 집안을 조각내었는바 그의 집안도 조각났다. 그가 이웃의 아내를 빼앗았던바 그의 아내들이 그의 이웃에 주어지고 말았다. 그가 은밀하게 죄지었지만 그는 공개리에 처벌받았다. 그가 주님을 우습게 여겼는바 그에게 태어날 아이는 죽게 되었다.

응보의 법칙, 이 심판의 배경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형평의 법, 즉 “네가 그에게 해준 대로 그도 네에게 해주리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천국에서, 그리고 천국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 법은 서로의 선을 측량해보는 잣대로서만 알려져 있으나 이 법이 더 낮은 세계로 내려올 때, 그래서 자연적 사람들 사이에서 이 천국 질서는 거꾸로 되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되고 말았다. 똑같은 신성한 법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섭리의 법이나 저런 경우에는 허용의 법이 되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이다. 하느님께서 응보의 법이 채택되는 것을 허용하실 때 그 허용이 우리를 가르치는바, 모든 악은 그 자체 안에 처벌을 지닌다는 것, 악한 모든 행동은 그 짓을 범한 당사자에게 되돌려진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예로 들어 우리를 훈육하는게 있다. 죄가 고백되고 용서되었어도 그 죄의 근원이 되었던 마음 속의 악한 조건은 죄로 집행되어버린 악과의 싸움 없이 올바른 상태로 정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회개와 용서는 단번에 죄를 씻어내 우리로 영원히 깨끗해지게 한다고 상상해선 안된다. 회개함은 우리의 얼굴을 시온 쪽으로 돌리게 한다. 그러나 거룩한 도성으로의 여행에서 우리는 그 도성의 문으로부터 멀어지게 유인했던 참 악들과 마주쳐야 한다. 우리가 그 악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전과 평화의 장소를 획득할 수 없다. 영적 인간의 삶은 전투의 하나이다.

칼이 그의 집에서 치워지는 일이 결코 없다. 그가 다투어야만 했던 적들은 집안 식구들 틈에 끼여있다. 즉 자기 심정 속의 악들이다. 만일 그가 은밀히 범했던 죄는 공개리에 그에게 돌려진다. 그리고 죄 그 자체의 열매는 죽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 속의 더 순수한 원리들, 그 원리의 신성한 저자로부터의 은총은 우리로 다윗이 저지른 것과 유사한 죄를 짓는데에서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겸비하게 신뢰해볼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다윗의 범죄를 찬찬히 들여다 보는 것은 유익할 수 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인간 본성을 상속받고 있어 똑같은 시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죄를 경고로서 간주할 필요가 없을까? 경고로서 받는다면 우리는 그가 범한 행동보다 한 단계 안 쪽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 받고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과 의도의 불순함은 시작에 있는 불결한 죄이고 그것을 혐오하는 것은 죄짓는 것이 된다. 성냄과 복수는 살인의 씨 그 이상이다. 그것들은 죽게 하는 열매를 생산하는 악한 나무의 가지들이다. 다윗의 이중적인 범죄로부터 우리는 위와 같은 것을 금지해야함을 배운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심정과 지성을 아직 더 깊이 헤아려 보는 것도 배울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악의 첫 근원지는 어떤 선이든지 그 선의 영적 원리를 위반하고, 그 선을 지키고 가르쳐 안내하는 진리를 뒤짚는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될는지 모른다. 거룩한 말씀의 모든 구절들은 신성하게 영감되어 있고,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의로운 삶을 위해 책망받고 교훈받아 교정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느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비치하고 있다는 것을 상념해야 하리라.

## 39

### 사무엘하 13장

#### 암논과 다말

거룩한 성경은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지닌 솔직한 마음을 감명있게 하는데 절대 실패 않는 특성이 있다. 성서의 말씀은 인간적 편의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상태로 위대한 진리와 드높은 원리들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씌어져 있다. 성경은

하느님의 친구들, 또는 하느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생활을 기록하면서 품성을 퇴색케 한 행위들, 그리고 품성에 영예를 보탠 행동들이 비록 극과 극의 결과이지만 기록의 투명성과 성실도는 똑같다. 성경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나 가장 거룩한 직능을 행사하는 이들도 그 지역에서 가장 비천한 이들에게 내리는 판결과 똑같은 비중에서 취급되고 있다. 종교인의 비행은 그 사람과 연결되는 신의 이름을 더럽히므로 이들의 비행은 완전히 은폐하거나 축소시켜야 한다고 암시해달는지 모른다. 하느님은 그분의 교회와 왕국의 영예에 융성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고 이런 온유함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범죄를 빛으로 가져다 놓거나 비행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다윗은 통탄할 죄를 지어 수치를 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주님의 적들에게 그분을 모독하는 빌미까지 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의 은밀한 범죄가 노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철회되지 않는다. 이것은 복음 전도 시대에서까지도 그들의 실패나 과오가 기록됨으로 해서 그 얼마나 원칙에 철저한지 우리로 가늠케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의 죄 때문에 모독 받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감추지 않으신다. 참 교회(the Church)는 교회의 자녀의 악을 질책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눈으로부터 그들을 감추어 있게 배려할는지 모른다. 때로 은폐함은 이타와 얼핏 보기에 대단히 유사한 옷을 입고 있기조차 하다. 사실 이타에는 타인들의 죄상이 드러나는 것을 내놓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적인 악평을 예방하려 해서 그것들이 은폐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자기들의 주장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받치는 성경의 또다른 특질은 이러하다. 그들은 왜곡된 섬세함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꽤 걸맞는 태도로 불순한 행동에 관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참된 반발을 제거하기 위해 불순한 행동들을 숨겨 놓지 않는다. 성경이 악한 행동을 언급한다는 사실은 조심성을 위반한 것으로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도 한다. 불순한 주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또는 음란한 느낌을 방조하듯 불순한 주제를 말하는 것조차도 그 자체 불순하다. 그러나 진리가 선을 목적으로 해서 말할 때 그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바 그 자체 불순한 것이라도 순수하게 만든다. “순수한 사람에게 모든 것은 순수하다”

암논과 다말의 경우가 신성한 계시의 페이지 안에 홀로 서있다. 이 경우는 간략히 서술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성서의 말로 서술하는게 더 바람직하리라 본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예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다.” 이복 누이든, 동복 누이든 자기 누이와 결혼하는 것은 모세의 법에 어긋난다 (레위기 18:9).

그러므로 암논의 사랑은 불법적인 욕정이었다. 이 욕정의 결말은 그것이 범죄로 이어진 불순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말은 아직 처녀여서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암논은 애만 태우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이 정도 까지에서 암논의 열정은 아쉬운대로 아직은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음흉한 조언을 따르게 되었다. 피많은 그의 사촌 요나답은 안색이 좋지 않은 암논을 보고 그 까닭을 묻은 다음 해결 방법을 알려 주었다. “병든 체하고 자리에 누워있다가 부왕께서 문병오시거든 누이 동생 다말이 떡 두어 개 손수 구워주는 것을 받아 먹고 싶습니다.” 암논이 그의 하인들을 다 몰러가게 한 후 그녀가 떡을 먹이러 침실에 들어와 그에게 다가 가자 “암논은 다말을 끌어 안고 같이 자자고 했다.” 그러나 다말이 “아무리 애걸을 해도 암논은 듣지 않고 다말을 눕히고 욕을 보였다”

위 사건을 놓고 물인정한 처사는 아니라고 우겨본다 해도 그 후편은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는 다말이 몹시 싫어졌다. 욕을 보이고 나니 마음이 변해서 전에 사랑하던 그만큼 싫어졌던 것이다. 암논은 다말에게 ‘어서 나가! 하고 소리쳤다.’ 다말은 암논에게 그의 두 번째 처신은 첫 번째 보다 더 잔인한 짓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척도 않았고 그의 하인들은 그녀를 밀어냈다. “다말은 머리에 재를 들쓰고 걸치고 있던 장옷을 찢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권채 목놓아 울면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오빠 압살롬은 그녀를 위로했다. 그 뒤로 다말은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과 똑같은 경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 사건을 발발시킨 열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특히 이것이 암논에게서 취한 형체는 변태적일 뿐 아니라 무제한으로 발달되는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악한 바람이 통제받지 않고 모독을 강행할 때 생산되는 것을 심한 실예를 수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정욕이 과열되는 양사는 보기도문 종류는 아니다. 이것은 파멸을 초래하는 결과들로 packed 있다. 특히 때묻지 않은 순수성을 지닌 인간 계층과 얽힐 경우 더욱 그러하다. 가정과 사회 생활의 도덕적 아름다움은 의무를 강력히 이행하려는 결심이 본문의 주제 같이 상승적으로 미묘하게 달라붙는 악을 얼마나 망설임 없이 짓밟느냐에 의존된다. 우리가 암논의 죄를 관심있게 그려 보겠다면 아마도 본질적 국면에 속하는 것, 즉 사랑과 열정(love and passion)의 차이점을 보여주는게 더 나올 듯 하다.

사랑과 열정에서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차이란, 사랑은 인간의 애정(affection)이고 열정은 동물적 바람(desire)이라는 것이다. 사랑과 열정 모두 인간 안에 존재하나 전자는 인간

본성에 속하고 후자는 동물 본성에 속한다. 인간이 동물이 소유하는 것 너머 있는 것을 즐길 때 인간다워진다. 인간이 하급의 창조물과 공통되는 것은 자연적 바램과 욕구(appetite) 들을 상속받고 서로 간을 끌어당기게 하는 것이 성욕(sex)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적 본성 외에 합리적인 영혼(rational soul)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으로 인간다움게 만든다. 출생 때 받은 합리적 영혼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성 자체라기보다는 인간다워 갈 수 있는 자질이다. 자주 언급해 왔듯이 인간성은 선함과 진리(goodness and truth), 또는 사랑과 지혜로 구성된다. 이것은 인간 생명의 원리들이고 인간을 진실로 인간이 되게 한다. 그 이유가 이것이 진실로 합리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열정은 자연적 애정이고 자연적 욕구 충족 만을 바랜다. 반면 사랑은 합리적 애정이어서 합리적 만족과 즐거움을 바랜다. 최고의 사랑의 상태는 영적이고 천적인 수준이고 이 상태는 영적이고 영원한 합일(union)을 갈망한다.

합리적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적이고 감각적 수준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동물적 본성 쪽에 치중되어 살 수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 그의 합리적 자질은 덜 발달된 상태에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라기 보다는 동물 쪽에 더 기울고 있는 셈이다. 감각적 인간과 동물 사이의 주요한 차이란, 동물은 자기의 바램을 따르고 더 높은 어떤 목적의 영향을 받거나 어떤 법에 의해 방향을 잡지 않는다. 동물은 창조자께서 그들 안에 새겨둔 본성 그이상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인간은 동물 본성에 추가해서 다른 동기들, 즉 세속적 이익, 지위 같은 것과 병합되어 있거나 그의 나라의 법칙에 의해, 명성을 사랑함에 의해 외형상으로 규율될 수 있다. 감각적 인간과 동물 사이의 차이점은 이런 것도 더 있다. 동물은 성욕적 바램을 충족하려고 힘이나 교묘한 술책을 결코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채용하는바, 타락되는 상태에서 그의 인간 자질은 짐승보다 더 비열하고 더 위험해진다.

본문의 역사적 상황은 육체를 태울 만큼 강한 열정의 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지 자연적일 뿐이고 열정의 강렬함은 그것의 순수성을 테스트받지 않는 증거이기도 하다. 애정의 특성은 인간의 상태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감각적 인간과 더불어 사랑은 그것이 마음 안에 있다 해도 감각적이다. 영적 인간과 더불어 사랑은 그것이 육체 안에 있다 해도 영적이다. 종교의 우수한 장점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고, 세상이 창조하는 동기보다 더 높고 무한정 지속되는 동기들을 창출한다. 그리고 모든 애정, 열정, 인간 본성의 욕구에 스며들어 순수하게 하고 성결되게 한다.

사랑과 열정의 두 번째 차이란, 사랑은 질서가 있고 열정은 무질서하다는 것이다. 질서는 법을 수단으로 지시되어진다. 여기서 거론되는 법이란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다. 자연적 견해로 보면 법은 단순히 제한과 억제인 듯 보일 것이다. 어떤 자연적 인간이 결혼과 자유로운 사랑의 차이를 두고 생각할 때 전자는 부자연스러운 것, 즉 인위적이고 후자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만일 인간이 동물 같이 그의 본성에 법을 새겼다면 그는 바깥쪽에서의 어떤 규율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생활의 지침과 안내에 필요한 것에 정통해져야 한다. 합리적 인간에게 법은 억제가 아닌 방향제이다. 그리고 행복으로 이끄는 신성하게 지정된 질서의 수단으로서 법 안에서 걷는다. 우리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우리의 자연적 욕구와 열정은 억제되고 질서에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덮치는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은 모든 법을 폐지해 버리고 자연적 인간이 원하는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때이다. 그럼에도 법이 수고를 덜하게 되는 때와 상태도 있다. 그때란 제멋대로 구는 모든 것이 복종하는 상태로 환원시켜 놓고 올바른 모든 것을 질서에 가져다 놓는 일을 마쳤을 때이다. 법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사랑이 들어 앉을 때이다. 그이유가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이다(로마서 3:10). 그러나 암논의 사랑은 비질서적인 사랑이었다. 본문의 예와 같이 나중에는 금혼 촌수가 되어버린 결혼에 관한 것이 성경의 앞 부분에도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암논과 다말의 경우 같이 같은 아버지에 배 다른 어머니를 가진 오빠와 여동생이었다. 그러나 생활이 더 순수했고 사회가 더 단순했던 시대에서 알맞았던 제도(arrangement)가 소위 더 진전된 문명 사회, 그래서 더 인위적인 사회 제도를 위해서 언제나 더 안전하고 적절한 것은 아니다.

사랑과 열정의 세 번째 차이란 사랑은 원리이고 열정은 충동적이라는 것이다. 열정은 그 대상의 행복이나 복지, 영예 등을 중시함도 없이 단지 자신의 욕구충족만을 바라보고 있다. 사랑은 타인의 복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중시한다. 우아한 예의 바름, 상대의 영예와 순수성을 중시하는 세밀함은 열정과 확실히 구분되게 하는 명백한 특성이다. 사랑은 열정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제멋대로 굴려는 동기들을 누구려트리고 영예가 말하는 것을 받아쓰도록 타협하게 한다. 사랑은 그 대상이 미미한 피해도 당하지 않게 배려하고 더 나아가 안내와 보호역까지 담당한다. 열정 뿐일 경우 그것 만큼 바람의 가치를 정화시키는 것도 없을 것이다. 진실된 사랑일 경우 그것 만큼 애정을 품위 있게 하는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열정과 구분되는 특성은 꾸준함이다. 암논, 그의 열정이 욕구를 충족했을

때 다말을 미워했다. 바꿔말해서 그가 그녀를 미워한 미움은 그녀를 사랑했던 사랑 보다 더 컸다는 말이다. 감각적인 사랑은 어느 경우에서이건 암논의 경우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고도 완벽하게 그것의 품성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의 경향성이 무관심 또는 몹시 진저리를 내는 쪽으로 차츰 사라져 간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자아 사랑밖에 더 다른 사랑은 아니다. 암논이 노출시킨 미워함은 시작부터 이와같은 열정 안에 누워있었다. 자아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 사랑 처럼 보여지는 암논의 진짜 열정은 타인의 몰락에서 자아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본성은 감추여 놓여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명확한 품성이 되어있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품성이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가시적인 형태로 있는 그렇지 않은 무절제한 열정은 본질상 미워함이다. 사랑은 꾸준하다. 그이유는 그 사랑의 기초가 자아 사랑이 아닌 타인을 사랑함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타인의 존경과 깊이 있게 그를 신뢰하는 친구 관계에 놓여 있다. 이 사랑은 인물 차원 보다는 품성 차원에서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바깥쪽의 아름다움 보다는 내향의 아름다움에 속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열정의 모체 안에서 다이아몬드로서 놓여 있다. 이 사랑이 바라는 합일은 바깥쪽 합일이나 열정적인 탐닉 같은 비천하고 비인간적인 것 없이 영혼과 영혼, 마음과 마음의 본질적인 합일(union)이다. 그러므로 열정과 구분되는 사랑은 자체 만의 꾸준함 뿐만 아니라 모든 품질에서 꾸준함을 증가시킨다. 사랑을 수단으로 형성된 합일은 더 완전해지고, 더 완전하면 더 오래 지속된다. 참으로 두 영혼의 합일은 결혼적인 사랑을 수단으로 형성되어 물질적 육체가 죽은 후 까지도 살아 남는다.

결론적으로 살펴 볼 것이 있다. 새 교회의 저술에서 회복되어 드높여진 기독교의 원리들은 심정과 생활에서 이 원리들을 채택하는 이들일 경우 암논의 죄의 모든 형체로부터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형체의 죄로부터서도 보전될 것이라는 확신에 대해 정당한 바탕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 부분의 신성한 계시로부터 비쳐지는 빛은 인간 행동의 감추여 있는 원동력, 죄의 뿌리를 명백하게 전시해 놓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 안의 악을 얼마나 확실하게 간파할 수 있다는 것, 새 교회의 가르침은 종교적 독행의 엄격한방침으로부터의 파생이 우리의 안과 밖 모두로부터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다. 성 관계라는 세부 주제에서 새 교회의 가르침은 드높은 교훈과 결출하게 실용적이다. 그리고 결혼적 사랑의 순수성과 신성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드높이느바, 주님의 교회(the Church)의 참된 모든 멤버는 순결을 행동적 측면(morel sense)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분

(tenderest part)으로 간주하며, 이 순결을 위반하는 사람은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으로 간주한다.

암논의 죄는 다윗의 죄와도 얼마쯤 관련이 있다. 두 죄에 관한 신성한 기록은 미친 듯이 날뛰 거룩치 않은 열정의 결과가 가장 비참한 형체에서 밝혀지도록 신성한 저자에 의해 의도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악들은 영적 원인들로부터 튀어 나오는데 이것을 그들이 표현한 것이다. 이 주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말씀에 있는 간음은 내적 의미에서 선의 간음을 의미하고, 매춘은 진리의 왜곡을 의미한다. 그러나 레위기 18장 6-24절의 금혼 촌수끼리의 불결한 결합은 여러 가지 종류의 모독을 의미한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즉 교회 말기에서의 주님의 교회의 상태가 여기서 표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그분께서 시험-싸움을 수단으로 극복해서 제거한 악들이다. 말씀의 순수한 진리와 선, 결과적으로 주님의 교회의 믿음과 사랑은 대단히 썩어져서 순수하여 더럽지 않은 종교의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썩은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 그분은 썩은 것과 싸우셔야 했다. 더욱이 눈에 보이는 형체 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에서 더욱 그러하셨다. 그분께서는 유대인의 썩은 것을 나무라셨고, 이 나무람을 통해 세상 속의 썩은 것을 질책하셨다. 그래서 욕망(lust)은 간음이요 미워함을 살인이라고 가르치셨다. 더구나 그분은 광야의 시험, 계세마니 동산에서의 고뇌, 십자가의 치욕을 견뎌내셔야 했다. 그이유는 인간들이 악마에 저항하는 것을 중단했고, 죄로 고뇌당하는 것을 중단했고, 육의 욕망을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본문의 케이스가 고통을 느끼게 하지만 중시하여야 하는 또다른 국면이 있다. 그녀의 이름이 말해 주듯 그녀는 한 때 종려나무 같이 곧바르고 아름다웠으나 이제는 입밖에 낼 수 없는 잘못이라는 버티기 힘든 중력으로 구부러지고, 처녀를 상징하는 채색옷은 찢겨지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외로이 앉아 있는 다말은 악과 거짓의 거룩치 않은 욕망에 의해 내침을 받은 수치스러운 선함과 진리에 대한 애정의 참 형상이다.

왕의 딸들은 선함과 진리의 애정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녀들이 입었던 장옷(채색옷)은 처녀적 순수성에 있는 선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진리의 상징물이었다. 진리는 빛과도 같다. 빛은 진리의 상징물로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마치 하느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고 말해진 경우와 같다. 빛처럼 진리는 여러 가지 색깔로 구성되고 각 색깔로 나뉠 수 있다. 순수한 진리는 신성한 마음 안에만 존재한다. 유한한 마음은 진리의 외관(appearance)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외관이 색깔들이고, 이 색깔은 순수한 하느님의 진리가 천사와 인간의 마음 안으로 들어 갈 때 진리가 굴절된 것이다. 여러 색깔로 된 다말의 옷은 주님의 교회 멤버에 의해 다양하게 지각되어 받아들인 하느님의 진리이다. 이 옷을 찢음은 이런 표징적인 표시를 지녔다. 주님의 교회(the Church)의 선이 어지럽혀졌을 때 그 교회의 진리는 조각으로 찢겨진다. 마치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주님의 옷을 찢어 나눠 가진 것과 같다. 만일 선이 파괴되거나 모독될 때 진리가 잔존해 있다면 아마 그 진리는 잘못보아진 것이다. 그이유는 그 진리는 실제 없는 외관만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옷이 불법을 덮어두고 정의의 외관을 주는 것, 본문의 경우에서 보면 주님의 교회의 선이 죄짓는 인간의 수중으로 고통받게 한 폭력을 감추이게 한 것과 같다. 다말, 그녀는 자기 옷을 찢었을 때 재를 뒤집어 쓰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는 선이 모독되었을 때 진리는 나뉘고 파괴된다는 것, 뿐만아니라 모든 참 총명은 상실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슬피 울면서 돌아 갔다. 이는 삭막해진 주님의 교회에 던진 영혼의 쓰라림의 통곡을 표현한 것이다.

모세의 법(레위기 18: 9, 29)에 의거 암논의 생명은 몰수되어졌다. 다윗의 분노가 컸는데도 암논은 처벌을 비껴갔다. 비록 압살롬이 다말에게 암논은 싫든 좋든 오라버니되니 소문내지 마라고 타일렀다 해도 그는 누이 동생의 치욕을 복수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비록 세월이 한참 흐른 뒤이긴 하지만 그 때가 왔다. “그로부터 이 년이 지났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 에브라임 근방 바알하술로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그당시 부유함을 가름하는데는 양떼와 목축이 대단히 중요했다. 양털 깎기는 왕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고귀한 직업의 하나였다. 양털 깎기란 선용의 수행을 의미한다. 양털은 이타애의 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털 깎기가 치뤄지는 장소는 실시되어질 선용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다. 에브라임은 주님의 교회의 지적인 원리를 표현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과히 멀지 않은 유다 지파 구역 안에 있는 여기서 언급되는 에브라임의 성읍은 주님의 교회의 교리를 의미한다. 한편 바알하술, 이는 울타리 쳐진 장소, 즉 성(castle)을 뜻하는바, 추론함(reasoning)을 의미한다. 이 추론을 수단으로 주님의 교회의 교리가 확증된다. 자신 스스로 정당하다고 주제 넘게 행동했던 압살롬의 태도도 이 주제에서라면 주님의 교회의 교리 근처, 또는 부분적으로 그 교리 내에 있었다. 그이유가 불법은 암논이 저지른 범죄에 죽음으로 보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살롬이 자신의 뜻으로 암논에게 죄값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을 거스리는 행위였다. 암논이 죽을 짓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압살롬이 그의 목숨을 강탈하는

것은 의당 무법적인 것이다. 무법은 압살롬의 행동을 특징지어 주고, 결국 그의 파멸이 그것이 무법임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이 행동 안에는 허용되고 파기시키는 섭리가 있다. 입법적 정의가 잠들어 있는 곳에서 자연적 정의라도 봉기해서 극악무도한 잘못을 고치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이다. 자연적 수준의 정의는 어쨌든 위험한 힘이고 질서 있고 안정된 통치 정부에게는 모순된 행동에 속한다. 이런 정의는 개인적 느낌과 이해 관계에 의존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적 선을 중시하고 일반적 원리에 기초하는 법정에 속하는 비열정적이고 편견 없는 판결이 결핍되어 있다. 어쨌든 암논은 자신의 범죄에 꼭 맞게 습격당했다. 누이 동생에게 욕을 보인 그는 동생에 의해 죽고 말았다.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들은 서로에게 맞대응하고, 이런 종류의 악이 저런 종류의 악을 생산하는데 따른 엄한 교훈이기도 하다.

## 40

### 사무엘하 14장

#### 드고아 여인의 비유 속의 과부와 압살롬의 귀환

압살롬, 그는 암논을 죽이고 나서 도망하여 그의 할아버지 되는 그술 왕 탈매에게 갔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내들 중 한 명인 탈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다 (3장 3절 참조). 그는 흡사 잘못을 저질러 아버지의 분노하심을 피하려고 어머니의 치마 자락 아래 숨는 것과 같았다. 이 시리아 왕국 안에서 그는 삼 년 동안 머물렀다. 그는 어머니 쪽에서 시리아 사람인바 그술에 머무는 동안 그의 품성의 어머니쪽 유전적 속성이 더욱 강화 되어졌을 것은 의심할바 없을 듯 하다. 따라서 그는 유다로 귀환한 후 화끈하게 그 속성을 들어냈다. 시리아가 좋은 의미일 경우 영적 사항에 관한 지식을 표현하지만 반대 의미일 경우 뒤집혀진 지식을 표현한다. 시리아인들 때로는 동쪽의 아들이라 불리는데 이는 현자를 말한다. 허지만 이사야 47장 10절을 참조하면 “네 지혜와 지식이 너를 뒤집어 놓았다”라고 말해지는 부류에 속하기도 한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과거의 노여움이 점차 누그러졌다. “왕은 암논이

죽었을 때 받은 아픔이 차츰 가시면서 압살롬에게 품었던 노기도 풀렸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의 귀환을 직접 건의하지 않고 승낙을 얻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는 드고아에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와 이렇게 지시했다. “초상당한 사람 처럼 행동하라.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채 오랫동안 상을 입은 여인 처럼 꾸민 다음 어전에 들어가 내가 일러주는대로 아뢰어라.” 그리하여 요압은 왕 앞에 할 말을 그녀에게 일러주었다.

요압이 드고아 여인의 입에 담아 준 비유는 비록 예언자 나단의 비유와는 그 목적이나 주제가 같지는 않지만 의도했던바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슬퍼했던 과부 같은 차림새를 하고 그 여인은 왕의 도움을 청원하러 왔다. “이 계집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어찌다가 별판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말릴 사람이 없어 한 아이가 그만 제 동기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 문중이 들고 일어나 동기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이 계집을 들볶지 않겠습니까? 그 애를 쳐죽여 죽은 아이의 원수를 갚고 그 애의 씨를 말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이 계집의 불씨마저 꺼지고 맙니다. 남편의 이름을 이어 내려 갈 후손이 땅 위에서 영영 끊기고 맙니다.” 왕은 그 여인을 돌려 보내고 선처해주마고 일렀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탄원자의 목적에 충분한 답변은 못되었다. 그래서 여인은 왕에게 계속 탄원의 말을 이어 나가 보다 더 엄한 훈령을 이렇게 받아냈다. “살아 계시는 야훼 앞에서 맹세하거니와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트리는 일이 없게 해주리라.” 그러자 여인은 자기의 비유의 속내를 털어놓되 마치 하느님의 특사나 되는 듯 예언자의 권위와 상대방을 압도하듯 하는 직언, 뿐만 아니라 자신 보다 훨씬 더 큰 권능으로 떠받쳐지는 존재의 자의식에게 자유롭고도 대담하게 말을 건넸다. “임금님께서 꼭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 어찌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백성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말씀만은 그렇게 하시면서 쫓겨난 그분을 불러 들이지 않으시니, 어찌 잘못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살인자를 위해서도 도피성을 하느님께서서는 지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언급하여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비록 쫓겨 났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쫓아내실 뜻이 없으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결말을 짓고 있다.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이유가 임금님의 지혜는 하느님의 천사 같아서 선과 악을 식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슬기로운 여인을 의심한 그 이상의 것을 식별했다. 그는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 비유를 지은 저자가 누구인지까지 보고 있었다. 왕이 여인에게 말한다. “한가지 물을 터이니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이 모든 것을 시킨 사람은 요압이 아니냐?” 여인은 진실을 고백하면서 왕에게 경하를 표하여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과연 임금님의 지혜는 하느님의 천사 같아서 모르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압살롬의 귀환에 대한 왕의 동의를 얻고져 빗대어 말한 이 비유가 인간의 재간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기록이 영감된 기록의 일부를 차지하는 이상 여기에도 신성한 영적 의미가 들어 있다.

우리가 요압에게서 보는바는 우리아의 경우에서 같이 그는 왕의 속내를 짚싸게 해결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표현하는 추론하는 능력은 인간 의지 속에 있을 수 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고 눈치채었다.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은 요압의 도구였다. 이 여인은 비유를 고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재치는 성공을 위한 효과적 집행에 꼭 필요한 조건이었다. 이 여인의 지각은 그들의 추론력의 강함 보다 더 예리했듯이 급작스런 응급상황에 대해 남자들이 대처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방책을 지니고 있다. 어쨌든 본문의 경우 이 여인만이 영리하다는 명성을 얻은 것은 아니다. 이 역사 줄거리가 더 내려 가게 되면 요압의 손에 파멸되려던 성을 재빠른 지각과 결정으로 성을 구원하는 슬기로운 여인을 또 만나게 된다.

성경 안에서 슬기로운 여인과 드고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연결에 관하여 우리로 알게 해주는 대목은 많지는 않다. 이 성읍은 예언서에서 두 번 언급되고 있다. 아모스는 그가 예언의 직능으로 부름받을 때 드고아의 목부였다 (아모스 1:1).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베냐민 사람들아, 도망쳐라. 예루살렘에서 빠져 나가거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벳하께림에 불을 지피 신호를 보내라. 북녘에서 재앙이 밀어 닥친다. 큰 파멸이 임박하였다” (예레미야 6:1). “이 구절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진리와 선에 관하여 주님의 교회가 황폐해짐이다. 그이유가 시온은 교회의 선, 예루살렘은 교회의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 의미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 선함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하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하께림(또는 포도원의 집)에서 불을 지피도록 명령받고 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들의 힘을 수단으로 전투함을 의미한다. 포도원의 집이란 이 교회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 위에 불을 지핀다는 것은 악한 사랑에 의한 똑같은 파멸을 의미한다. 악이 나타나는 북쪽이란 악의 거짓을 의미하고,

큰 과멸이란 선함과 진리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드고아와 벳하께림은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멀지는 않았다. 그래서 명백한바, 이쪽에서는 나팔을 불고 저쪽에서는 불을 지퍼 신호를 보내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진리와 선함의 두 원리와 관계된다는 점이다. 그이유가 진리는 경보를 알리는 나팔이고, 선함은 불로 표시되나, 악한 사랑의 불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부로 있다가 퇴폐해져 가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해 주님께 의해 일으켜져 불리웠다. 그래서 그는 이런 모양새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도성에서 나팔을 불어대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언자에 의해 언급된바 같이 드고아는 경고와 충고의 음성으로 오게되는 진리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는 음성은 여인의 음성이다. 물론 비유가 그녀의 입을 통하긴 했어도 어디까지나 그 비유는 남자의 음성에 속하고는 있다. 단지 왕의 동의를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의도 아래에서 있었던 비유의 말인지라 여인의 입에 놓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더 높은 이유에서 생각해보면 충언과 호소는 여인의 음성에 의해 발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왕 자신도 자기에게 간청해 온 것을 해주고 싶어 했다. 애정의 타입에 속하는 것이야말로 심정에 호소하는데 적절한 매체이다. 그러나 비록 왕의 애정이 그녀의 호소에 붙잡힌바 되었어도 그녀의 음성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요압의 것임을 보고 있었다. 아람이 에사오의 옷을 걸쳤던 경우 같이 요압의 경우에서도 선은 바깥쪽에, 진리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진리가 그것의 목적을 일구워 내려면 외관이 선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비유 자체만으로는 단순하다. 주된 사고가 사실이다해도 그 주변상황은 사실이 아닌 것과 연결되고 있다. 이 형제가 저 형제를 죽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들판에서 싸우고 그들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비유의 이런 부분은 모세의 법에 근거되지 않고 있다. 그이유가 이런 사건의 경우가 시민 법전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은 우연하거나 고의적인 살인을 취급하고 있다. “살 수 있는 경우는 일찍이 미워한 일도 없는데 엉겁결에 동족을 쳐죽였을 경우 뿐이다....그러나 동족을 미워하여 기회를 노리다가 달려들어 쳐죽인 경우 피할 곳이 없다” (신명기 19장). 다윗 시대 때에 모세의 법은 조목 조목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법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워져 있다시피한 주님이 세상에 계셨던 때의 교회의 상태를 암시한 것으로 간주해 볼 수는 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자비가 실시된 것인데 이는 율법에 반대하여서가 아니라 율법 밖에서 실시된 것이다. 그이유가 교회(the Church) 말기에서 백성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종의 상태에 있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 “주인의 뜻을 몰랐다면 매맞을만한 짓을 하였어도 덜 맞을 것이다.” 주님은 자비 자체이시다. 주님은 일만 달란트나 빚진 종을 탕감해준 비유에서의 왕되신다. 그러나 간구에 대한 응답, 죄의 용서는 빚진 종의 비유에서 같이 직접적이고 쉽게 획득되는 것들이라고 성경에 언제나 표현해놓고 있지는 않다. 부정한 재판관의 비유의 경우 꾸준한 기도의 필요성, 평화의 응답은 비록 지체된다 해도 결국 당도할 것이라는 확신 있는 용기를 지나라고 가르치고 있다. 신성한 자비는 비록 그 자체로는 동시적이고 무제한이지만 죄인들의 비적합성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그 자비를 받는데 있어서는 장애가 발생하고 한계가 있어진다. 자기 죄를 용서받는 가운데에서 자비를 획득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비자비로운 처신을 함으로 해서 정작 얻은 자비마저 몰수 당할 수도 있다. 마치 일 만 달란트의 빚을 변제 받은 종이 일 백 데나리온 빚진 종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해 감옥에 들어간 비유 같다 (마태 18: 23-25). 이 비유 같은 경우를 본문 역사에서도 발견된다. 아버지의 용서를 얻은 압살롬이 후에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모습이다. 어쨌든 본문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용서만에 국한해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용서에 대한 생각은 왕과 아들 양쪽 모두의 바람이었다. 왕과 아들은 재회하고 싶었다. 그러나 재회를 야기시켜 줄 어떤 기회, 수단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 필요성은 그것이 본문같이 암시되었든 그렇지 않았던 언제든지 요구된다. 마음의 행동이 제아무리 단순하고 직접적인 듯 비친다 해도 거기에는 많은 다른 능력들이 그 작은 마음의 작용을 위해 활동하도록 동원되고 있다. 마치 육체 안에서 제아무리 간단한 행동이라도 그 내부에서는 무수한 부분들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다. 재회나 결합의 모든 경우에는 서로를 재회시키고 결합되게 하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 이 작전은 그들과 함께 시작되는 듯 보일지 모른다. 예를 들면 합리적인 자질은 위, 아래쪽을 함께 쳐다보는 힘을 지니고 있어 위쪽으로는 영적인 것과 천국을, 아래쪽으로는 자연과 세상을 쳐다볼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합리성은 안쪽과 바깥쪽을 쳐다볼 수 있다. 즉 안쪽으로는 내적 인간들, 바깥쪽으로는 외적 인간을 쳐다보고, 그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도 담당해서 그들이 재회하여 하나되게 해준다.

과부를 통한 요압의 중재는 성공했다. 왕은 요압을 불러 말하였다. “좋소, 그대 뜻대로 하리이다. 어서 그 애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고마워 하였다. 이는 합리성이 영성에 복종하는 것을 표현한다. 요압은 그술에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이는 영성이 합리성을 통해 자연성에 유입되는 것을 표현한다. 이를 수단으로

자연적인 상태는 영적 상태로 승강된다. 그러나 재화와 결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왕이 명했다. “압살롬을 제 궁으로 데려가 거기에서 살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얼굴은 마치 등(back)이 마음의 외면을 표현하듯 마음의 내면 쪽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얼굴에 관해 말해지는바, 이는 하느님의 가장 깊고 감춰진 본성을 표현한다는 것,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 얼굴을 보고 살아 있을 자가 없다 했다. 그럼에도 신성한 인성 안에서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이유가 이 인성은 본질적 신성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성한 영광 자체를 뵈기를 바랬던 모세에게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다만 그분의 뒷 모습만을 보도록 허락되었다. 압살롬은 어정쩡한 재화의 상태로 2년을 지냈다. 이 숫자는 결합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거나 결합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표현했는바 이렇게 본문도 기록하고 있다. “압살롬은 요압을 왕에게 보내 보려고 사람을 보내 불렀다.” 두 번씩이나 요압을 불렀지만 거절당했다. 그래서 그는 요압을 부르기 위해 종을 시켜 그의 보리밭에 불을 놓았다. 진리가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해서 합리성이 자연성 위에 저절로 와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적 사랑의 불 즉 열정은 합리적 마음 속의 선에 침입한다. 이 합리적 마음은 자연적 근원으로부터 있어 자연적 선과 연결되고 있다. 마치 요압의 들판이 압살롬의 것과 나란히 있었던 것과 같다. 불을 지른 이후의 결과이다. “요압은 이전에 들어가 사정을 낱낱이 전하였다. 그제야 왕은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되었다. 압살롬이 이전에 들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몸을 낮추어 겸손해지자 아버지는 재화와 결합의 상징인 사랑의 키스를 해준 것이다.

## 41

### 사무엘하 15장 1-9절

#### 압살롬의 반란

다윗이 우리야를 죽게 하고 바세바를 맞아 들인 후, 주님에 의해 예언자가 왕에게 보내져 그의 죄를 회개할 것을 종용하고 심판의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을 때, 예언자는 죄 때문에

그의 집안에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예언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미 살편바 같이 이 왕자는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쳐 거기서 삼 년간 숨어 지냈다. 그 뒤 아버지의 특혜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오도록 허용되었다. 그 후 생색내는 태도와 선심쓰듯 하는 그럴듯한 말로 소송하러 올라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냈다. 이런 짓은 그가 의도한 것, 즉 아버지의 옥좌를 갈취하려 했던 목적의 수단밖에 더 아니었다. 거짓 구실을 내세워 헤브론으로 떠나도록 왕의 허락을 받은 그는 온 이스라엘에 첩자를 보내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떠들어대게 했다. 이제 부자연스러운 야망을 펼치겠다는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들이 에브라임의 숲속에서 전투를 벌였다. 왕의 군대가 승세를 거머쥐면서 압살롬 자신은 노새를 타고 싸움을 피해 울창한 상수리나무 밑으로 빠져나가다가 오히려 그 가지에 걸리고 그의 노새는 달아나 버려 그는 나무에 매달린 처지가 되었다. 이때 요압이 그의 가슴에 창을 세 개나 연거푸 던져 그는 죽고 말았다.

거룩한 역사의 위 부분은 말씀이 포함하는 가장 고통스런 것 중 하나요 역사가 기록한 가장 참담한 것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교훈을 담고 있는바 우리는 깊이 부끄러워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 줄 믿는다. 이 역사는 우리의 퇴보되는 본성 중에서도 가장 나쁜 국면의 하나를 진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목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가정 뿐만 아니라 공적인 질서, 평화, 행복을 파괴하는 악을 예방하기 위해 신성하게 전달되고 신성이 요구하는 각종 법칙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그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엄숙한 경고이다.

위 역사와 관련된 것들은 그것들의 영적 또는 내적 의미 덕택으로 한층 더 깊은 교훈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이 포함한 의미는 그 자체 영감된 결과로 신성한 말씀의 모든 부분과 공통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말씀(the Word)은 말씀이 육이 되신 주님과 관련된다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 위 사건을 꼼꼼히 생각해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위 상황은 주님의 가장 깊은 시험의 어떤 것 하나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 본다. 다윗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주님을 예징했다. 다시말해 그분은 구속의 일에 종사하시면서 한편으로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아들이고 고유적으로 그분의 상속된 능력에 들어 온 권세와 싸우시는 일을 예징했다는 말이다. 이런 시험들은 그분의 어머니쪽 인성 속의 유전적인 아들을 통해 입장한 것이고, 시험하는 권세들은 그분 안에 거주하신 신성 또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반역하도록 한껏 휘저었다. 참으로 주님 안에는 진짜 죄에 해당되는 것인 어떤

실체의 악이 있었을리 만무하다. 물론 신성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의지에 반대하려 드는 어머니쪽에서 상속된 의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너의 것이 저지른 것이다” 라고 그분의 말씀에서 표현하듯 그분은 신성한 의지에 어머니쪽에서 받은 의지를 언제나 복종시키셨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란이 주님에 관련되어 표현한 것은 악 자체가 아니라 악에 대한 시험뿐이다. 그이유가 그분은 악에 동의했거나 행동했거나 하여 죄짓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없으셨기 때문이다. 어쨌든 인간 존재 안에서 악은 범죄하게 하는 시험을 주는 것 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각각의 모든 사람은 많은 적든 실체의 악을 범하고 그로 인해 죄인이다. 참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하여 거듭나는 삶을 시작한 이들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저항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그 시험이란 모든 시험, 또는 모든 이들 안에 있는 시험을 나 스스로 다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시험을 극복할 때 정작 그 시험을 있게 했던 악은 쇠약해지거나 제거되고 질서와 평화는 크던 작던 완전하게 회복된다. 이런 시험 속에서 인간의 적이란 정작 자신이 혐모했던 악한 바램과 왜곡된 생각들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명 또는 삶의 중심에 더 가까이 있게 될 수록 그 사람에게는 더 깊은 시험과 더 격렬한 시련이 있게 마련이다.

압살롬의 반역은 위와 같은 시험과 시련의 일부를 적절히 상징하고 있다. 더불어 부자연한 아들의 죽음은 시험과 시련이 제거되는 것에 대한 표현물이다.

승리자 쪽에서 이 사건을 관조하면 위와 같은 응용이 그 자체에서 표현되고 있지만 정복자라는 쪽을 감안하면 또 다른 응용도 가능하다. 따라서 압살롬의 죽음의 주변 상황을 잘 숙고해보아야 할 것 같다.

압살롬이 표현한 것 중 가장 명확한 것은 그가 지배욕에 도취된 자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지배욕, 그것 자체의 원인만으로 본다면, 그것은 가장 깊고 가장 위험한 형체 중 하나 안에 있는 자아사랑이다. 이 욕망이 심정 안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 그 욕망이 추구하는 목적을 향한 길에는 그 어떤 것도 가로서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심정에 있는 가장 따뜻한 애정을 소진시키고, 서로를 밀착시켜주는 유대관계를 갈갈이 찢어 흐튼다. 이것은 천국의 별들 위에 자기 욕좌를 펴놓고 무한정한 권위를 잡으려 열망하는 루시퍼이다.

좌우지간 우뚝 세우려는 야망과는 다르면서도 더 큰 악이 있다. 이것을 압살롬의 반역이 표현했다. 이 악이 무엇인지 보려면 지금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것보다 더 뾰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압살롬은 그술의 왕 탈마의 딸인 마가(Maachah)로부터 얻은 다윗의 아들이다.

최고 높은 의미에서 왕들은 주님을, 왕의 아내들은 주님의 교회를, 그들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로서의 주님과 어머니로서의 주님의 교회에서 태어난 이들이다. 주님이 한분밖에 없듯이 주님의 신부요 아내로서의 교회 역시 하나밖에 없다. 그럼에도 주님을 걸출하게 예징했던 다윗과 솔로몬은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다. 이 여자들은 어떤 관계에서 주님의 교회를 표현했을까? 만일 땅 위 주님의 교회가 하나였고 나뉘 수 없었다면 주님과 그분의 교회와의 합일(union)은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결혼을 수단으로 해서만 표현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남편에 한 아내는 순수하게 천적인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이 교회에 주님은 그분의 사제적 품성에 있는 남편으로서 관계되어, 이 교회와 절대적 하나됨을 표현한다. 사제에게는 한 아내 그 이상의 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내는 처녀로서 결혼되어야 한다. 영적 수준의 교회에서, 실사 이 교회의 천적 상태에서조차 그 케이스(case)는 다르다. 그 이유가 영적 수준 속의 천적인 것과 천적 수준 속의 영적인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영적 수준의 교회, 천적 수준의 교회 같이 주님 앞에서는 하나이나 인간 앞에서는 많아지고 다양해지기 까지 한다. 보편적인 주님의 교회는 수많은 일반적이고 특수적인 교회들로 구성되고 이 교회는 말씀이 알려져 있고 주님을 인정할 눈에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의 범위 안과 밖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우리 시대에서, 기독교국과 이교도국에 걸쳐 있다. 주님의 교회의 이런 차이점에 대한 이유가 주님에 의해, 인간에 의해 보여지는바는 이러하다. 주님께서 선함과 사랑을 중시하면서 그분의 교회를 보신다. 인간은 진리와 믿음을 중시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스스로 교회를 표현하시고 심정을 들여다 보시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는 바깥쪽 현상을 향해 있을 뿐이다. 천적인 교회는 그 자체 하나이고 영적 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이다. 그이유가 천적 원리인 선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원리인 진리는 다양하다. 이 차이는 주님 자신에 관련해서조차 표현되는데, 그분을 주요하게 가리키는 수단으로 두 신성한 이름이 있다. 여호와(Jehovah)는 그분의 신성한 천적 이름으로 단수이나, 엘로힘(Elohim)은 신성한 영적 이름으로 복수이다. 천적 원리인 선은 하나이나 영적 진리인 진리는 아주 다양하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는 신성한 자비의 경이로움 중 하나를 보게 된다. 선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선은 하나이다. 그러나 한 개 뿐인 선은 다양한 진리의 형체 아래, 또는 믿음의 다양한 양상 아래 주어질 수 있다. 이리하여 하느님을 인정하고 악은 그분께 반대되는 죄로서 규탄하고 선은 그분을 위해

사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종교 속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 더 명백한 빛이 스베덴보리를 통해 드리우고 있다. 아브람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와 그의 첩 루마(Rumah)에 의한 그의 가족을 취급하는 대목에서, 나홀과 밀가는 이방인의 어떤 계층에 있는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방인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 하면 알게 된다. 옛 시대의 이방인들이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었다는 것, 또한 그들은 한분 하느님을 인정했고 대단한 경건함에서 그분에 관해 서술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영혼의 불멸, 사후의 삶을 인정했고, 행복한 상태는 선한 자 속에, 불행한 상태는 사악한 자 속에 있음을 인정했다. 더욱이 그들의 법들은 계명의 명령, 즉 하느님은 경배되어야 한다는 것,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 살인, 도둑, 간음은 저질러서는 안되는 범죄라는 것, 타인의 것을 탐내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 등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들은 이 법을 외적 측면에서 실제화 했는데 더하여 내적 준수 까지 역설하였다. 이런 경우는 오늘날에서도 똑같다. 지상의 어느 곳에서 살든 호의적인 이방인들은 이 주제에 관해 기독교인들 보다 더 관심어린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살고 있다. 이 주제와 다양한 진리들은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으로 가지는 선에 그들 자신을 합류시키고 있다. 이 결합의 결과 그들은 진리를 더 받는 상태에 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진리는 또 다른 진리를 인정하면서 쉽게 서로 제휴하여 양쪽 진리는 서로 연결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세상에서 선을 원리로 삼았었던 이들은 저 세상에서 믿음의 진리를 쉽게 받는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짓된 것은 그들 자신에 있는 선과 결합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적용만 했을뿐인데 그들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기 위해서이다. 결합된 거짓들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응용만 했던 거짓들은 분리되어진다. 그들이 믿음의 진리에 관해 배우고 그 진리에 동화될 때 거짓은 분리된다. 그이유가 믿음 속의 진리들은 거짓된 것을 분리해서 제거하기 때문이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진리들을 소유했던 위와 같은 이방인 국가들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술의 왕의 딸인 그녀는 시리아인이었다. 시리아에 고대 교회가 있었고 후에 히브리 교회의 주요한 고향이었다. 시리아이었고 두 번째 고대 교회의 잔류민이었던 아브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조상의 집을 떠나 표징적인 교회,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교회의 아버지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모든 각 교회는 앞 교회가 끝나는 때에 처음 형성된다. 마치 기독교는 유대 교회가 종료되는 때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로부터 개시된 것과 같다. 여러 다른 나라들에

소속되었던 왕의 아내들은 마치 솔로몬의 많은 아내와 첩들의 경우 같이 한 개의 보편적 주님의 교회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의 경계 너머, 그리고 그 경계 안에 있는 수많은 일반적이고 특수적인 교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마가이는 시리아 지역 그술에 그 당시 살았던 이들과 같은 것, 즉 이방인 사이에 있는 교회를 표현했다. 시리아는 이방인 나라가 된 이후까지도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표현했다. 그이유가 고대 시대부터 이런 지식들이 거기에 보존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발람이 그런 지식을 소유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마아가의 아들되는 압살롬은 진리 또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표현했다. 마치 이 진리는 고대 교회와 히브리 교회로부터 내려 온 것과 같다. 시리아의 지식이 가장 가까웁게 전달된 히브리 교회는 이스라엘족 사이에서 건립된 기독교 보다 품성면에서 훨씬 더 영적이었다.

이런 압살롬의 표현적 품성은 다음과 같은 타고난 개인적 그의 특성을 서술한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은 이스라엘에 압살롬 만큼 발 끝에서 머리 끝까지 흠잡을데 없이 잘 생긴 사람은 없다고 칭찬들이 자자했다. 머리술이 좋아서 해마다 한번씩 머리를 깎곤 했는데 처낸 머리칼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이 백 세겔이나 나갔다.” 한 개인의 이런 아름다움과 흠없는 완전함은 외적인 것들을 표현한 것인데, 이는 고대 교회를 표현했고 의미했다. “고대인들은 주님의 왕국, 고로 주님 자신에 속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의 표본과 의미한 것들을 가졌다. 이것들을 이해했던 이들은 현자라 불렸고 실지로 그들은 슬기로웠다. 그이유가 그들은 이 지식을 수단으로 영들과 대화했고 천사들과 천적인 담화를 나누었는데 이런 대화는 인간에게는 납득될 수 없다. 마치 인간은 자기에게 영적이고 천적인 것이 내려오고 있는 때에도 그것들을 납득하지 못할 뿐아니라 자연적 영기(sphere)에 있는바 내려와진 것들은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표본과 의미 (representatives and significatives)에 빠저든다. 이로 인해 말씀은 거룩한 법전 또는 거룩한 책이라 불리운다. 고대인들은 천적, 영적 사랑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던 때, 주님의 왕국의 표본과 의미 안에 있어 왔는바, 그들은 주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타에만을 다룬 교리들을 가졌다. 이로 인해 그들은 현자로 불리웠다.” 압살롬의 머리털은 놀랄만하게 빨리 자랐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잘라야 했는데 자른 그 머리털은 이 백 세겔이나 되었다. 머리털은 인간에게 소속되고 있는 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에제키엘은 새 성전을 취급하는 대목에서 사제들에 관해, “그들은 머리를 밀어도 안되고 머리를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안되며 머리를 잘 손질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새 성전이

상징적으로 취급된 이 구절의 주제는 새 주님의 교회(the New Church)이다. 머리를 밀지도 말고, 길게 내버려 두어도 안되며 오로지 잘 손질(poll)해야 한다는 것의 영적 의미란,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을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원만히 잘 수용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과 잘 일치하도록, 더욱이 신성에 잘 종속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저 세계에서, “자연적인 것을 올바르게 종속시켜 왔던 영적 인간 즉 합리적인 사람은 품위 있는 머리털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렇다. 저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자연적 인간에 관한 품질이 어떠한지는 그의 머리털로부터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해마다 머리털을 자르고 그것의 무게가 이 백 세겔이었다는 것은 인간이 거듭나는 각 상태에서 영적 인간에 잘 종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선함과 진리의 법칙에 순응되어 간수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이제 압살롬의 행동은 매우 고상했고, 그의 처신은 그의 외모가 훌륭했듯이 사람들의 환심을 샀다. 백성들의 관심사를 듣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언젠가 이 땅에서 판결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공정히 판결할 것이라고 공언해대고, 자기에게 몸을 낮추는 자들 앞에서는 오히려 더욱 자신을 낮추는 예의를 갖춤으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흠뻑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그의 품성 속의 영성과 꼭 일치하고 있다.

한 가지 주변 상황이 압살롬의 표본적인 품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특이할 정도로 너무 융성한 듯 보인다. 다윗이 압살롬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장군들에게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자기를 보아서라도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고 매우 슬퍼했다. 주님의 영적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 이스라엘 교회에 의해 받아진 것보다 그분 자신의 신성한 진리에 더 가까운 이 영적 진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그 진리의 타락과 심판 때문에 그분이 슬퍼하심, 이런 등등이 압살롬에 관련한 다윗의 행동지침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관점 아래 우리는 압살롬의 아름다운 용모와 다른 좋은 자질들이 한동안 숨겨 졌었던 도덕적 상태로부터 임을 참작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그의 흠잡기 어려운 인물이 마음의 이중성, 심하게 썩은 심정을 담고 있다. 이는 제아무리 최상의 선물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해도 그것 자체가 가장 나쁜 용도에 충당되어 지독하게 신성을 모독하고 깡그리 과멸되는 것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 이것의 진열을 우리가 아래에서 살핀다.

“사 십 년이 지난 어느날, 압살롬은 왕에게 이렇게 청을 올렸다. ‘소자는 일찍이 야훼께 서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서원을 이루게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소자가 아람의

그술에 있을 때에, 만일 아훼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 가게만 해주신다면, 헤브론에 가서 아훼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살핀바 같이 헤브론은 영적 교회를 표현했다. 다윗이 유다의 기름부은 왕으로 즉위했던 그곳에서 그의 아들이 음험한 수단으로 왕에 즉위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엮으려 획책하고 있다. 사 십 년이란 세월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부워진 때로부터 세어진 햇수일 것으로 믿어진다. 예수께서 그분의 큰 시험을 시작하기 위하여 악마에게 유혹당하고 있던 기간은 사 십 일이었다. 사 십은 시험을 말하는 성경적인 숫자이다. 다윗이 지금 겪어내야 하는 시련은 지금까지 그가 체험했던 것 중 가장 지독한 것이다. 그의 상대자는 자기의 빵을 먹었던 친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분신인 아들이다. 그가 아버지에게 뒷발질을 하려 계책을 꾸미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적은 자기 집안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드는바, 아버지가 아들과 싸워야 함이 두 번째 순서가 될 수밖에 없다. 나단이 다윗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다. ‘나는 네 집안으로부터 너에 맞설 악을 일으키리라.’ 이 구절을 다윗으로 표현된 주님께 관련해 이해해 볼 때 무엇을 의미했을까? 주님 자신의 집은 천국과 주님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나단을 통한 여호와의 말들은 가장 높은 의미에서 구속자가 건디어내야 하는 시련과 시험들과 관련되고 있다. 이것들은 그분 자신의 집 속의 것들, 그분 자신의 가족들을 통해, 그것들을 수단으로 악으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이 가족이란 천상 천하에 있는 그분의 교회에 속해 있는 이들 외 다른 사람은 없다. 다윗이 예징해준 주님께 관해서 이해해 보는데, 반역적인 아들, 그리고 그의 반역은 무엇을 표현했을까? 기독교 문학에는 반역한 천사에 관한 꾸며진 이야기도 있다. 모든 큰 잘못은 어떤 큰 진리가 뒤집어진 것이다. 그러나 뒤집혀지지 않은 진리는 이것이다. 반역적인 천사는 한 가지 각도에서 볼 경우 천사들의 자아(proprium)이다. 그리고 그들의 반역은 구속하시는 그분의 일 가운데서 주님께 대항하려는 이 자아가 흥분된 것이다. 사실 천사들이 의식해서 공개적으로 반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악함과 우둔함의 극치일 것이다. 때로 천사들의 자아가 흥분되어 그것을 감지해 볼 경우도 있다. 땅 위 주님의 교회의 적개심은 의식적이고 공개적이었다. 주님과 그분의 구속하심에 관련하여 이 주제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일과 체험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심판이 거행되는 곳인 영계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이들과의 연결이었다. 육을 입으시는 시기에 심판은 거기서 고대 교회의 시작, 또는 노아의 때로부터 오는 영들의 세계에 남아 있었던 모든 이에게 있었다. 이 심판의 상태를 주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때가 있었다. ”보라, 사탄이 번개가 떨어지듯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구속하심으로 해방될 희망의 죄수가 있었고, 또한 그분이 발판을 삼으셨던 적들도 있었다. 이것이 시험과 투쟁 없이 성취될리 없다. 땅 위 주님의 교회 안에도 역시 반역과 싸움은 있었다. 주님의 사도들 사이에도 그분을 배반한 자가 하나 있었고, 그가 유대 교회를 표현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조차 비록 악한 수준이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적의와 불화, 증오가 있었고 이에대한 표본을 빌라도에게서 가졌다. 욕을 입으심이 포함되었던 주님의 보편적인 왕국의 정부 안에는 변화된 섭리는 신성한 일이 수행되는 동안 그분이 우세가 역력한데도 그 안에서 인간 자아가 불거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는데 충분하다. 이 변화된 섭리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영적 지배에 모든 것이 순종하는 쪽으로 환원시켜 질서 안으로 가져다 놓으시어,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에 균형(equilibrium, balance)이 회복되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높은 의미에서 본문을 계속 추구해 갈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 관련되고 있다는 것, 슬픔의 사람, 통탄과 친숙해진 사람이 되시는 그분의 체험과 관계되고 있다는 것만을 아는 것으로도 족할는지 모른다.

압살롬의 반역에 연결되는 주변 상황과 그의 죽음은 다른 장의 주제로 다루게 된다.

## 42

### 사무엘하 15장 10절

#### 피신하는 다윗

인간은 그들의 허영심이나 자아 사랑에 호소하는 아첨으로 유혹하거나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현혹하면 얼마나 쉽게 사기 당하는지 기이할 정도이다. 다윗은 대단한 공훈을 세워 명성을 얻었지만, 압살롬의 호평은 미끈한 그의 말솜씨에 얽혀 있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자기들 나라를 타 국가 보다 더 위대하게 만든 사람으로부터 소원해지고 대신 나라를 위해 어떤 공훈도 내세울게 없는 사람, 비난과 질책을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사람에게로 쏠리고 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심정을 훑쳤다. 비록 글자에서는 그런 사항이

역력히 보이지는 않는다. 영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 멤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원리, 즉 교회의 믿음과 실재를 형성하는 진리를 표현한다. 어떤 진리의 심정은 그 진리가 함유하고 있는 선이다. 그 이유가 선은 형체를 구성하는 진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선이 없는 진리는 사랑 없는 믿음과 같다. 이스라엘 사람의 심정을 훔치는 것을 영적으로 살피면 선한 심정의 진리를 강탈해버리고 그 진리를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용도에 할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로부터 그것의 심정인 선함을 도둑질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악한 심정을 이식하는 것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자아 사랑으로 심정을 활기 있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 족속에 보낸 첩자란 겉으로는 설득력 있는 진리와 비슷한 것으로 옷입은 거짓 원리들이고 왕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도록 한 나팔 소리는 주님의 교회의 모든 진리와 진리 자체 위에 군림하려는 자아 영광이다.

압살롬은 고향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길로 사람, 다윗의 고문인 아히도벨을 불렀다. 이는 마치 그가 하느님의 성소에 물어본 뒤 압살롬의 음모에 가담이라도 했는 듯 비쳐지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고문의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선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이런 유대인의 견해도 있다. 그는 바세바의 조상이었다는 것, 그는 다윗이 그녀에게 했던 잘못을 양갓음하려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동기였다든가 위의 인척 관계 등은 그렇다 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바세바는 지금 큰 영예를 얻고 있고, 그녀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 왕권의 후계자이었기 때문이다. 아히도벨이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의심스러운 대의 명분에 자신을 일치시켜 놓았다면 이는 흡사 세상적 지혜에 능통한 자가 이런 모험적인 계획에 참가하여 성공될 경우 큰 이득을 챙기려는 식과 같다. 그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려는 것 처럼 보인다. 이런 지혜는 하느님과 더불어서는 어리석음이다. 압살롬에게 내놓은 그의 조언은 사악하여 압살롬의 계약에는 좋은 것이나 그의 조언은 후세의 조언과 맞붙어 결국 패배 당하고 있다. 후세는 아히도벨을 무력화 시키도록 섭리적으로 이렇게 인도되고 있다. “야훼께서 압살롬이 화를 입도록 아히도벨의 좋은 수를 꺾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리하여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의 지혜에 패하였는데 이것이 두 조언자에 의해 표현된 것이다.

또 다른 애처로운 광경이 음모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표출되고 있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불어 나면서 반란 세력이 커져 갔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심이 기울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명령했다. “당장, 여기에서 빠져 나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압살롬의 손에서 아무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그가 달려 들면 우리만 참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남은 백성들 까지 해를 입을 터이니, 어서 서둘러라.” 이런 때의 다윗은 과거 그가 싸움터의 왕 답지 않게 매우 유약하게 비쳐지고 있다. 이런 시련은 다윗을 맥빠지게 하고 우울해지게 하고 있다. 이와 같게 영적으로 있는 시련은 인간으로 자신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다윗 역사의 이 부분은 외형상으로도 주님 자신의 역사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왕은 통곡하는 백성들과 함께 키드론 시내를 건넜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 등성이를 올라 갔다.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뒤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신다는 것을 말하신 후 슬픔이 제자들의 가슴을 때웠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어두운 키드론 시내를 건너 게세마니에로 가시어 그분의 큰 시험을 치루시고, 후에 유다의 배반에 의해 그분의 적들에게 붙잡히셨다. 본문 역사의 아히도벨 같이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위 두 역사는 외형상의 유사함 만이 아니라 내향의 상응으로 유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가늠해보게 한다. 우리 주님의 경우, 그분을 배반한 자의 모의는 과거 다윗이 체험했었던 해방 보다 더 큰 해방인 주님의 부활로 패배되어 졌다. 주님의 것과 유사한 다윗의 체험이 있다. “다윗왕이 바후림에 다달았을 때였다. 사울의 친척 하나가 거기에서 나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써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좌우에 모시고 선 군인과 장교들에게 마구 돌팔매질을 하며 이런 말로 욕하는 것이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한당 같은 놈야,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 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네가 이제 죄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적들이 가한 치욕을 견뎌내셨다. 그 치욕은 위 시므이가 다윗에게 해낸 것에 비할바가 아니었다. 시므이의 야만적 행동을 다윗이 너그러이 봐주는 모습은 우리 주님이 치욕을 당하실 때 가지셨던 관용의 그림자이다. 아버새가 시므이의 목을 치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야훼께서 나를 욕하라고 저 사람을 보낸 것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왜 이리시느냐고 하겠소.....나의 핏줄에서 태어난 친 자식마저 날 죽이려고 날뛰는 판에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혹시 야훼께서 내가 당하는 이 비참한 꼴을 보시고 오늘 받는 이 저주 대신에 복을 내려 주실지 알겠소?” 다윗이 이런 욕을 당함은 주님의 경우 같이 그를 드높여 주는 수단이 되었음은 의심할바 없다.

위와 같은 경우는 우리들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드높이는 수단이고 측량자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영을 가지고 고통받아야 한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는 약속이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 고통을 받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일 뿐 주님을 위함이 아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겸손을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그는 역경 속에서 가졌던 똑같은 온유의 영을 변영하는 동안에도 지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느 사람과 아주 다른 독실한 신성한 의무 같이 위대한 겸손을 초자연적으로 느끼기도 했을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것, 그리고 다른 종교적인 조건들이 영속하는 상태로 있도록 계발해야 할 것이고 가능한 일시적인 느낌이나 바깥쪽 형체 만이 아닌 상태라면 더 나을 것이다. 우리는 겉옷이 아닌 심정을 찢어야만 한다. 우리는 단지 슬피함 만이 아닌 참회의 눈물을 뿌려야 한다. 우리는 이런 고백, 우리 자신 안에는 참되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는 죄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향력과 빛을 차단하는 두꺼운 덮개라는 것, 이 덮개가 지상의 우리 인생을 지상적이되게 한다는 것, 등등을 고백하고 그렇게 느낀 것을 수단으로 머리를 덮어 씌우고 맨발이 되어야 하리라.

역경은 그것이 지상적이든 영적이든 그것의 씹씹이는 겸허의 상태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 상태 안에서 기독인은 자신의 무가치함,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느껴서 자신의 참된 빛과 기쁨의 저자이신 참 존재(Being)에 전적으로 의존해야겠다는 것을 새삼 각오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주님, 그리고 그분의 집안 식구에 속하는 이들에 관련해 응용하는데 .이는 다윗 자신의 글로부터 명백해진다.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읊은 다윗의 노래”라고 머릿 글자를 달고 있다. 그리고 스페텐보리의 “예언서와 시편의 내적 의미”로부터 배우는 바, 이 영감된 문귀는 그분이 시험 가운데 계셨고 지옥을 정복하실 때, 그리하여 창피스러운 상태에 계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때의 주님에 관한 것이다. 시편 55편 역시 본문의 사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주석자들에 의해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반역을 놓고 다윗이 통곡한 것이 위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되고 있다.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것을, 나를 업신여기는 자가 적이었다면 그를 비키기라도 했을 것을, 그러나 그것은 내 동료, 내 친구, 서로 가까이 지내던 벗, 성전에서 정답게 어울리던 네가 아니냐?” 이 시편이 현 역사의 상황에 전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든, 그렇지 않은 신뢰를 저버린 친구에 관한 묘사는 주님의 생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지 유다의 배반 뿐만이 아닌 그 배반에서 표현된 것, 즉 그분의 교회의 변절과 증오를 표현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제자들의 체험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역시 제자들의 경우 같이 서로 친근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 데도 결별하고 심지어 적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우리 내부에서도 실감된다. 우리 자신의 이해성 안에서 있었던 대화가 바깥쪽 필요에서 묵묵담담 할 수 있다. 아마 시련 가운데에서 그렇게 묵묵담담해지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 자신이 기대왔던 것이 얼마나 힘없는 갈대였는지 실감해보는 기회로 허용되기도 한다. 게다가 시련은 신뢰해왔던 지팡이는 부러진 갈대였다는 것, 정작 그것을 잡고 있던 자의 손을 찌른다는 것, 동시에 또다른 더 나은 후원자를 등장시켜 준다. “다윗이 언덕 위에 올라 하느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다뒹뒹 때었다. 하르키 사람 후새가 겹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며 나와 다윗을 맞았다.” 괴로워하는 영혼이 사랑으로부터의 하느님을 경배할 때, 고난의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빛과 위로가 와진다.

다윗의 지시에 따라 후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스스로 왕위에 앉은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피가 어리석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다윗은 지금 하르키 사람에게서 자기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다. 그 이유가 그는 자기의 간구가 성취될 수 있는 수단을 후새에게서 보았기 때문이다. 후에 아히도벨의 피가 패배됨으로 왕을 섬기는 때가 있어진다. 영민하지만 파렴치한 조언자의 진언에 따라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관계를 가졌는바, 이는 가장 나쁜 형체의 죄, 즉 영적 선함의 모독인 영적 간음을 표징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주님께서 나단을 통해 전하신 주님의 심판, “.....네가 보는 앞에서 네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사내의 품에 안겨 주리라. 밝은 대낮에 네 계집들은 욕을 당하리라. 너는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가 성취되었다. 이는 우리 주님에 의해 선포된 생명의 법칙에 관한 비통한 본보기이다. 이 법칙은 선한 자 뿐 아니라 악한 자도 규율하는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밝은 데에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누가복음 12:2,3). 순진과 진리는 타인의 눈으로부터 내적 인간 안에 감추여 있지만 드러나게 되고, 악과 거짓은

제 아무리 교묘히 숨겨 놓았다 해도 결국 돌출되고야 만다는 뜻이다. 악은 이어지는 세대에서 범해지고 처벌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애정과 생각들인 의지와 이해성의 자손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순서대로 말과 행동에서 출생된다.

이 악한 충고를 함으로 아히도벨은 성공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압살롬의 불법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모략은 막을 내렸다. 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소인이 이제 일 만 이 천명을 뽑아 가지고,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쫓아 가겠습니다. 허락해주시요. 그가 지쳐 기가 꺾여 있을 때 덮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혼내주면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왕만 죽이면 백성들은 모두 신부가 신랑에게로 돌아 오듯이 임금님께로 돌아 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죽이려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뿐이므로 다른 백성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압살롬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에도 들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르키 사람 후새를 불러 들여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자고 하였다. 후새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아버지나 그의 부하들은 용사들입니다. 사납기로 말하면 새끼를 빼앗긴 곰과도 같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아버님은 전략에 뛰어난 분입니다. 결코 자기 군사들과 함께 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그는 굴 같은데 꺾쪽 같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그러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을 모아들여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시고 진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새의 전략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야훼께서 압살롬이 화를 입도록 아히도벨의 좋은 수를 꺾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사독과 하느님의 계약궤를 멘 레위인들도 뒤따랐는데, 그들은 온 백성이 성에서 나와 개울을 건너기를 기다리느라고 하느님의 궤를 예비아달 옆에 내려 놓고 있었다. 이런 의식적인 모양새는 과거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 약속된 땅으로 진입할 때 그렇게 하도록 명령되어 준수한 것과도 흡사 같다. 그때 거기에서 같이 여기서도 비록 상황은 아주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즉 신성한 현존이 왕과 그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표시였다. 그 이유가 이 궤는 신성한 법으로서의 주님을 표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제에게 하느님의 궤를 성으로 모시도록 명령했다. 이는 신성한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 자기에게 어떤 처분이 떨어지든 받아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왕이 사제 사독에게 말했다. “당신은 선견자가 아니던가? 그대는 그대의 아들 아히마스와

에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데리고 가시오. 나는 그대들이 소식을 보내 올 때 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소....” 다윗의 마음은 예루살렘, 그의 하느님이 머무시는 언약의 궤에 있는 한편 그의 육신은 시련과 시험의 광야에 체류하고 있다.

사제가 왕과 그의 왕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증할 소식을 전달하는 때가 다가와 있다. 후세는 두 사제에게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과 자기가 내놓은 계략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일렀다. “당장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광야로 건너는 나루터에서 이 밤을 묵다가는 왕과 일행이 변을 당할 터이니 곧 강을 건너시라고 전해주시오.” 사제의 두 아들들은 엔로겔 샘터에 머물고 있었다. 이 샘터는 빨래터의 샘, 순수하게 하는 시련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터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젓물 같기” (말라기 3:2) 때문이다. 사제의 두 아들은 성 안의 정보를 알려줄 임무를 띄고 있었지만 성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녀가 그 정보를 알릴 때 까지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에게서 시작된 계획이 이제 그에게로 되돌아가 완성될 찰라 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자칫 무모한 것으로 전략될 위험에 놓였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다윗왕에게 정보를 알리기도 전에 신변이 노출되고 말았다. 그러나 바후림의 어떤 집에 숨어 들었을 때 한 여인이 그들을 도왔다. 그녀는 그들을 샘 안에 감추고 그 위에 명석을 덮고 곡식을 넣어 놓았다. 그리하여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들을 덮쳤으나 찾지 못했다. 이는 마치 라합이 여리고를 염탐한 여호수아의 정탐원들을 성벽 창문 아래로 밧줄을 내려 추격자를 따돌린 때와 비슷하다. 진리는 그들에게서 감추여 있고 거짓만이 진리라고 믿는다. 악한 자는 그런식으로 흘러 간다. 참으로 악한 자는 그들로 믿게 하는 거짓을 창조해 가고 있다. 비록 성경 대화체에서 감춤과 허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있다는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을 일궈낸 악한 자의 상태이다. 그것은 성경 글자가 표현하는 외모 같은바 “하느님께서서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그분의 진리를 감추이게 하시고...거짓 예언자를 유혹하신다” (마태 11:25, 에제키엘 14:9)는 기록이 그에이다. 진리를 악용하려는 자들로 부터서는 진리가 감추여 있다. 악한 자에게 거짓이 추구되도록 허용되는 이유는 진리를 믿는 것보다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덜 유해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선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힘이 약화되게 하신다.

다윗왕에게 정보를 알리는 임무는 이제 확실히 끝내게 되었는데 이 성공은 두 여자의 용기와 지혜에 큰 빛을 진 샘이다. 그녀들은 애정들을 표현하는데 세세하게 말하면 만물에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끝맺는다는 질서의 큰 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지적인 원리들 사이에서 고리 역할을 담당해주는 애정을 표현한다.

두 특사는 숨어 있던 우물을 빠져 나와 다윗왕에게 자초지종을 알리자, “다윗 일행은 곧 요르단을 건넜다. 날이 밝기 까지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비록 지금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영토를 빠져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도착한 지역은 갖지와 영역이었다. 마하나임은 과거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를 만난 장소로서 그가 그렇게 불렀었던 곳, 두 진영(camp)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이미 언급했다. 여기서 다윗과 백성들은 섬김을 담당하는 천사들 같은 이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급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있다. “일행이 광야를 지나 오는 동안 굶주리고 목이 말라 지쳤으리라 생각하여 가져왔습니다.” 다윗에게 바친 이 예물들은 영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신실한 자가 주님에게 내놓는 예물들, 마치 여인들이 예수의 일행을 도우려고 바친 재산 같은 것이다 (누가 8:3). 보다 낮은 의미 측면일 경우, 자연적 마음이 영적 마음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 예물이야말로 마음들에 자양분을 공급하여 지탱시켜 주는 것들, 즉 지식과 과학, 선함과 진리, 이타애와 믿음, 애정과 기쁨 등등이다. 이런 것들은 시련과 시험의 광야에서 목마르고 굶주림에 따른 영혼의 필요함을 충족시켜 주는 것들이다.

다윗과 백성들이 요르단을 건넜고, 압살롬 역시 건넜다.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함께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은 요르단 건너쪽, 즉 갖가지 고뇌의 싸움장이 되는 곳, 자연적 마음, 또는 외적 인간을 표현하는 거룩한 땅의 저쪽 부분에서 결전을 맞이하고 있다.

## 43

### 사무엘하 18장

####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들 사이에 자연스레 존재하는 연민과 사랑은 창조자의 지혜와 은혜를 분명히 보게 하는 증거물이다. 모든 창조물은 자식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는바 그 이유는 그 사랑 없이는 동물 왕국, 특히

인간 종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가 그 원인을 추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은 자연적인 발달일까? 아니면 창조자 자신의 속성이 그러해서 있어졌을까? 이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 본성에 응답되는 어떤 것이 하느님의 본성 안에 있지 않을까? 새교회의 가르침은 그런 사랑의 원인은 창조외 근원인 신성한 사랑 자체에 있다고 추적하고 있다. 신성한 사랑을 구성하는 세 가지 것은 그분 자신 아닌 남을 사랑하는 것, 그들과 하나되기를 바라는 것, 그분 자신으로부터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이런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듯이 인간도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 사랑으로부터 방산되는 기운은 우주에 널리 미치고, 모든 이 각자의 상태에 맞추어 그들 각각에게 영향을 준다. 이 영기는 부모들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미치어 자식들을 온유하게 사랑하도록, 그들과 하나되고 싶어하도록, 그들을 행복해지게 만들고 싶어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공히 그 영향권 내에 있다. 보편적인 이 사랑의 기운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더 특이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은 하느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이타애가 하느님의 형상이 되게 한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반사된 것이다. 그이유가 “...이 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있는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와 같이 신성의 아버지다운 사랑 같이 인간의 부모다운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만큼이나 필수적이다. 사랑 없이 참된 공경이 있을 수 없고, 공경함 없이 진실된 순종이 있을 수 없으며, 순종 없이 질서와 개선 역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없을 경우 가정의 행복도 있어질 수 없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부족하기가 힘들다. 물론 그 사랑을 지배해 줄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이긴 하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경우에서는 자칫하면 부족되기 십상인데, 그런 연유는 지각 없는 양육에 기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경에서도 몇몇 심각한 케이스를 찾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 있는 일반적인 불완전함으로부터, 그리고 젊은 이에게 당연히 있는 억제 못하는 성마름에서도 기인된다. 그러므로 해서 성경도 자식을 사랑하라는 부모의 의무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즉 십계명의 하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책망받을 마음의 표시로서 바울이 열거한 행동 중의 하나가 부모에 불순종함이다 (로마서 1:30).

이렇게 부모의 사랑과 효성을 생각해 볼 때 부모의 뜻을 완강히 거역함, 부모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에 반역을 선포하는 압살롬의 고집스런 거역은 가장 낮은 자연적 애정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영적 애정에 걸쳐 있는 지시 사항들을 무시해버린다. 이런 반역적 행동은 지상적 아버지의 권위와 통치에 반역할 뿐 아니라 천국적 아버지에게도 반역하는 것이다. 악이 덜 할수록 위대함을 더 함유하기 마련이다. 그 이유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더 높은 명령도 납득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더 높은 명령의 위반은 영적인 악인데 압살롬의 반역이 그것을 표현했다.

다윗은 이제 처절한 싸움 속에서 반역한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자기를 따라온 장병들을 점호하고 백인 대장 천인 대장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전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갓 사람 이페에게 맡겼다. 이는 영적 마음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들이 신성하게 배치되어 반대 세력을 펼치는 자연적 마음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대적하기 위해 천국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배열을 뜻한다. 모든 영적 싸움은 이런 식으로 그 자체를 풀어 나간다. 반대하는 원리들은 각기 다른 마음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또는 똑같은 마음 안에서 다른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영적 전투는 정신적 싸움이고, 마지막 결과는 신성한 법과 가르침에 반대하여 행동했든, 동의하여 행동했든 그 사람에게 내리는 진리의 심판이다.

다윗이 군대 사령관들을 임명하고 난 뒤, 장병들에게 “나도 너희들과 같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장병들이 모두 말했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됩니다. 적은 우리보다 망친다 해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 반쯤 죽는다 해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한 몸은 우리들 만 명 값으로 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이 성 안에 계시면서 저희를 도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왕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것이 싸움에서 대단히 중요했다. 다윗이 전투에 직접 참전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통치하는 원리가 그 원리에 반역을 도모한 것과의 싸움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더 낫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직접 참가하지 않고 언덕 꼭대기에 서서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서 싸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다윗이 장병들과 함께 싸움에 나서겠다고 제안한 것은 진실로 옳다. 이와같은 결심은 주님의 뜻이요 참 진리에 속한다. 악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설사 그분이 직접 참가 않으실 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장병들의 건의는 왕의 목숨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었다. 장병들의 목숨에 비교해 내린 왕의 목숨에 대한 가치 평가는 이런 마음의 상태, 즉 이끌고 통치하는 종교 원리는 평범한 진리들이나

그에 종속된 진리에 비교해 보건대 그 값어치는 훨씬 더 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종교에서 사람들은 중요도에서 둘째가는 문제들을 심하게 옹호하다가 필수적인 원리들을 소홀히 하는 일이 종종 발생된다. 심지어 둘째가는 사항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 희생되기 까지 한다. 다시 말해 믿음에 관련된 사항을 고집스럽게 옹호하다가 이타애를 파괴하고, 의식을 강조하다가 경건함을 격하시킨다. 장병들은 전투에 임하되 왕의 참전을 말리므로 해서 그들 스스로 왕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 그들은 왕이 성에 계시면서 자기들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승리를 얻는데 있어 통치하는 원리가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내향으로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윗의 영은 장병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 비록 그의 영혼이 승리의 영이었지만 그럼에도 자기에게 달려드는 적들에게 구원의 영도 되고 있다. 그 이유가 세 사령관에게 “압살롬은 아직 철이 없으니 자기를 보아서라도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말라”고 당부하였기 때문이다.

변태적인 내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싸움을 이렇게 간략히 기술해놓고 있다. “전군은 이스라엘 군을 맞아 싸우기 위하여 들판으로 나갔다. 싸움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두 군대는 아마도 다윗에게 충실했던 유다지파 사람과 압살롬에 붙은 사울가문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전투가 벌어진 에브라임 숲은 팔레스틴의 중앙인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요르단 저 편 마하나임 근처이다. 이스라엘 지파가 상속받은 지역은 외적 인간을 표현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악들이 체류하고 싸움이 거행되는 곳이다. 또한 에브라임 숲은 싸움의 직접적인 광경을 꼬집어 표징하고 있다. 비록 에브라임 숲이 그 이름을 지닌 지파의 영토 안에 있지 않았다 해도 마치 영토 내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이런 차이는 있다. 거룩한 땅은 내적 인간을 거룩한 땅의 밖은 외적 인간을 뜻한다. 에브라임은 마음의 자연적, 감각적 부분 속의 지적 원리를 뜻한다.

이 숲에서 “이스라엘군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그 날로 이 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를 냈다. 싸움은 그 일대에 번져 그 날, 칼에 죽은 사람보다는 숲에 막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전사자의 수는 죽은 사람의 숫자라기 보다는 그 본성을 표현하고 있다. 대 살육 (great slaughter)은 진리 쪽 보다는 선 쪽의 파괴를 뜻한다. 살육된 숫자는 싸움의 결과가 선함과 진리의 남은 것 까지 포함되는 영적 생명의 절멸을 뜻하고 있다. 이는 압살롬이 표현한 것, 즉 모독이라는 악의 결과이다. 이는 독특하게 죽는 그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울창한 상수리 나무 밑으로 빠져 나가다가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달아나버리고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이스라엘교와 유대교의 처방 시기에 왕과 그의 아들들은 노새(mule)를 탔고 판관과 그의 아들들은 나귀(ass)를 탔다. 참으로 왕은 암 노새를, 그의 아들들은 숫 노새를 탔다. 그리고 판관들은 암 나귀를, 그의 아들들은 숫 나귀를 탔다. 이런 것도 신성한 영감의 내적 의미를 위한 것이다. 그 이유가 동물은 애정을 뜻하는데, 암컷은 선행에 대한 애정을, 수컷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표징적으로 존재하는 구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애정을 나타내는 일반적 의미에서 동물을 다룰 경우, 노새는 합리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노새는 자연적, 또는 과학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용한 세 동물이 있다. 말과 노새와 나귀이다. 이들은 애정의 세 가지 종류나 수준, 그리고 진리의 세 가지 지각들, 즉 영적, 합리적, 자연적 지각들, 소위 총명(intelligence), 추론(reason), 지식(knowledge)과 상응된다. 이로부터 노새의 의미도 파생된다. 그 이유가 진리의 합리적 지각은 영적인 진리의 지각과 자연적인 진리의 지각의 합일(union)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이다. 합리적 능력 그 자체는 내향의 식별력과 외향의 지식의 결합의 결과이다.

성경에서 말, 노새, 나귀는 그 동물들의 글자적 의미 넘어에 있는 의미를 보여주려고 언급되고 있다. 주님 자신을 포함해서 천군들이 계시록에서는 백마를 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 역시 글자 의미 안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말이 총명 또는 이해성을 상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묘사는 진실로 의미심장하다. 그 이유가 말씀 속의 영적 진리, 즉 순수한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 가까이 가져올 수 때문이다. 이는 계시록의 위 대목에서 주님이 “하느님의 말씀”이라 불리우고 있다는 것을 더 상기해 본다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주님이 세상에 계시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나귀, 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분께서 세상에서 입으셨던 인간 본성의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들 위에 군림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노새를 수단으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판관과 왕으로서 오신다. 더불어 그분의 판관적, 왕권적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해 성전에 오시자 거룩한 장소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셨다.

위와같이 노새는 합리적 자질과 그 애정, 그리고 유용한 활동과 질서적인 상태에서 있어지는 지각을 표현하지만, 압살롬이 탄 노새일 경우, 이는 악한 용도에 응용되어 왜곡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 추상적 의미에서 노새는 유용이나 남용, 잘 보존됨이나 곡해됨 어느 쪽의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다. 선하고 참되며 유용한 것이라도 곡해되면 악하고 거짓되며 유해하다는 말이다. 어떤 자질이 추론(이성)보다 더 쉽게 왜곡될까? 어떤 능력이 비꼬여 발휘되는 걸까? 종교와 계시의 거절, 하느님 까지 부정하는 것은 이성의 이름 아래 갖가지 명분을 들이대어 자행되는게 아닐까? 진짜가 아닌 자질 아래에서 종교는 부정될 뿐만 아니라 왜곡된다. 자연적 의지가 앞장 서도록 허용할 때 이성은 쉽사리 그 뒤를 따른다. 그 이유가 누군가로 믿기를 바라거나 믿는 것에 흥미를 가지도록 확증하는데 대한 이유를 풍부하게 들이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질은 믿음이나 견해에 속한 문제 만에 열렬히 바라는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성취나 획득을 위해 우리의 이성을 고용한다. 본문의 경우만 해도 이성은 의지의 눈 먼 충동에 무절제하게 섬기는 도구로 만들어지곤 한다.

이렇게 합리적 자질이 뒤집혀질 때 그 자질은 선함과 진리에 반대되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 반대되는 것을 확증한다. 따라서 마음을 오류의 미궁 안에 빠지게 하고 갖가지 악한 쪽으로 이끌고 만다. 왜곡된 합리성은 파괴 만을 일삼는 오류와 악 쪽으로 쉽게 기우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의 사건에서 묘사되고 있다. 즉 압살롬을 태운 노새가 가지들이 뒤얽혀 있는 상수리 나무 숲으로 달려 갔고 압살롬의 머리가 그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성경에서 나무 또는 숲은 자연적 마음, 특히 교육이나 훈련이 결여된 상태의 자연적 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동산(garden)은 사랑과 진리로 꾸며진 잘 가꾼 합리적 마음을 의미한다.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싸운 지역은 에브라임 숲속이었다. 에브라임은 주님의 교회의 지적 원리를 의미하고 에브라임 숲은 자연적 마음의 이해성 또는 자연적 이해성을 말한다. 그런고로 압살롬의 군대는 칼 보다는 숲에 걸려 더 패배했다. 즉 더 큰 영혼의 과멸은 자연적 이해성 자체에 있는 오류의 결과임을 명시해 놓고 있다. 압살롬 자신 역시 위와 똑같은 수단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 그의 경우는 이렇게 특별히 언급해지고 있다. “그는 울창한 상수리 나무 밑으로 운반되어졌다.” 상수리 나무(oak tree)는 자연적 이해성이 획득한 가장 일반적인 진리의 지각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큰 나무가지(thick boughs)는 다른 경우에서나 마찬가지로 나무들 끼리 뒤엉킨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다. 이는 감각의 현혹되게 하는 눈을 통하여 보여질 때의 지식 같은 것, 또는 희미한 영적 생각을 표현한다. 영적인 것들이 감각에 의해서 납득될 수 있는 만큼 만을 믿으려 할 때 그들은 감각의 그릇된 것들로부터 일어나는 외관의 현상에 뒤엉키게 된다. 이런 그릇된 것들이 상수리 나무의 뒤엉킨 가지들로 의미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사야 9장 18절의 경우, “불의가 불처럼 타올라 가시덤불과 엉켜키를 사르고 무성한 숲을 활활 태우니 연기가 휘말려 올라 가는구나...” 엉켜키와 무성한 숲(thicks of forest)을 태운 불이란 자아 사랑이다. 그 이유가 잘못과 오류들은 악한 애정을 총애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뒤엀킨 숲의 나무가지에 관한 의미는 에제키엘 31장에서의 경우 더욱 명확하다. “...볼지어다. 아시리아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그 꼭대기는 굽은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송백이었다.....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 보다 높으며 굽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하신다.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굽은 가지들 사이에 놓였다 해서 그의 심정이 우쭐대었는바 내가 열국의 우두머리에게 넘겼다.”

말씀 어느 부분에서나 아시리아는 합리적 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 구절의 경우는 마음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위의 아시리아는 뒤엀킨 가지를 지닌 나무로서 묘사되어 자연적 이성이 영적인 것의 본성에 관해 의논할 때 감각이 표현하는 망상적인 외관에 뒤엀키고 마는 자연적 이성의 경향성을 암시하고 있다. 누군가가 감각의 가르침을 따르고 감각적 쾌락과 세상적 우월감 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에브라임의 숲 속 그늘에서 자신의 파멸이 다가오는 줄 모른채 당황하여 배회하는 압살롬 같은 자이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의 뒤엀킨 굽은 가지에 머리를 붙잡히고 말았다. 신체 중에서 머리는 마음의 내면을 의미한다. 만일 마음이 악령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필시 그 마음은 감각적 추론의 영향과 그 힘 아래 내면적 마음도 점령 당해 있다. 머리털은 외적인 것을 의미한다. 머리털은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의 최 말단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에 놓여 있었다. 그 이유가 영적 힘은 내향의 원리들의 바깥쪽 드러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압살롬의 머리털은 제 14장에서 특별히 언급되는데 머리 술이 남달리 많다는 언급외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여는 사람보다 더 미끈했다고 칭찬되고 있다. 왕의 아들이라는 것만 생각해본다면 그는 천국과 주님의 교회에 있는 신성한 진리와 관계되고 그로부터 파생된 제일가는 진리들 중 하나를 표현했다. 압살롬의 풍부한 머리 술과 매끈한 생김새는 위 제일가는 진리들이 제각기의 형체에서 있게 되는 자연적 속성인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영적 원리들이 뒤집혀 악한 용도에 응용될 때에도 바깥쪽 아름다움은 유지되거나 더 나아질는지 모른다. 그이유가 그 아름다움은 외관 만으로 판단하고 그것 만에 집중하는 이들을 현혹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움은 마음의 내향적 상태를 더 이상 표시해 주지 않는다.

반듯한 예의 범절과 품위는 언제나 칭찬을 자아내주어야 한다.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모든 것이 마음이 바른 이들과 함께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마음도 체현되고 표현하도록 창조자께서 의도하신 더 높은 마음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받도록 바깥쪽 품위와 아름다움을 수용할 것이다. 누군가가 거룩함의 바깥쪽 아름다움 만을 표출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흠잡을데 없이 잘 생긴 미모에 현혹되어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받듯 현명치 못한 찬양을 하는 쪽으로 잘못 끌리고 만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왕에게 반역질 하도록 압살롬의 미모에 그들의 열을 뺏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의 미끈한 미모 중 하나가 그를 더 빨리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 그의 머리털이 그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다.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갔다. 이는 그의 행동 거지가 표현했던 모독의 상태를 놀랄만 하게 본보기화 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런 모독의 상태와 그 결과가 스페텐보리의 저술에 세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모독에는 몇가지 수준이 있는데 그 중 두 가지만 살펴 보자.

믿음을 이타애로부터 실제로 분리하는 이들은 마음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들은 말씀 속의 진리를 수단으로 해서 자신을 천국으로 향하게 하고, 생활 속의 악들을 수단으로 해서 지옥으로 향하도록 하는바, 그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그들은 하느님에 관해, 그리고 천국과 영원한 삶에 관한 것을 생각함으로 천국과 어떤 연결을 가지나 그들의 생각은 희미한 수준이요 그나마 이타애의 애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애정을 수단으로 지옥과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이 천국을 쳐다보는 한편 그들의 심정은 지옥에 기울고 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모독하는 것이요 이들은 저 세계의 많은 모독자들 중에서도 질이 아주 나쁘다.

모독의 죄 가운데에 있었던 이들이 계시록 3장 6절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으로 의미되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들은 천국에도 지옥에도 있지 않은바 분리된 장소, 인간의 생명이 박탈된 곳, 단지 환상만 있는 곳으로 격리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와 거짓을, 선과 악을, 거룩한 것에 모독된 것을 섞어 분리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독자는 천국을 위해서도, 지옥을 위해서도 준비될 수 없는바 그의 합리적 생명은 뿌리째 뽑혀지고 남은 것은 내향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환상 뿐인 생명의 최 말단, 껍데기 뿐이다.

비록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 해도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한 병사가 요압에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요압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채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창 세 개를 연거푸 던져 찢었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군인 열이 달려 들어 그를 쳐죽였다.” 이 행동은 왕의 훈령을 거역한 것이다. 그가 왕의 명령을 잇은 것도 아니다. 그 이유가 병사가 그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 시켰기 때문이다. 왕의 소원과 요압의 행동은 서로 반대되는데 이는 심판의 두 반대되는 원리들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다. 선은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들어 올리고 진리는 정죄된 것을 지옥으로 내린다. 이것은 자비와 공정을 놓고 신성한 마음이 갈등한다는 식으로 표현된 것을 교리에서 발견한다. 이 교리는 대리 만족이라는 교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선함과 진리에 대한 두 반대적인 경향성과 심판은 신성한 마음에 있는게 아니라 인간 마음 안에 있다. 선함과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되어 있으며 완전한 합일로 언제나 행동한다. 인간 마음 안에서 그것들은 분리될는지 모른다. 선이 진리 없이, 진리가 선 없이 존재할는지 모른다. 선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이 설사 진리가 없는 상태라 해도 그들은 구원되나 선 없이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은 그 진리를 잃는다. 그가 지닌 진리가 자신을 정죄한다. 진리는 선함에 대한 지식이라 불리울지 모른다.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은 위대한 선생이시고 가르쳐지는 모든 이들은 목적 측면에서 선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리에대한 모든 가르침이 선함에서 마무리짓지 못하거나, 이를 소홀히 취급하거나, 특히 악한 용도에 모든 지식이 응용된다면 진리는 그 영혼을 지옥으로 정죄한다. 이런 경우 이는 주님이 정죄하시는게 아니라 그분이 말하신 그 말들이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실지로 그들 자신을 심판한다. 그들은 스스로 정죄의 법을 메고 다닌다. 심판으로서의 주님의 진리가 정죄한다 해도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사랑은 그들이 안전하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자녀를 잃을 때 통곡한다. 왕권적 아버지의 열정은 영적인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했다. 이는 방탕한 도시의 운명을 발표하시는 한편, 그 도시를 두고 슬퍼하는 그분의 사랑, 십자가에서 고뇌하시면서도 못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불완전한 유형밖에 더 아니다.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내 자식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게 웬일이냐? 내 자식 압살롬아, 내 자식아.” 다윗이 바랬던 이런 것을 주님은 해내셨다. 그분은 반역하는 자녀들을 위해 죽으셨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들을 대신한 것도, 죽음에서 그들을 구하시려던 것은 더더욱 아니다. 모세와 바울은 반역적인 형제를 위해 죽고 싶다고 했다. 마치 본문의 다윗이 반역한 아들을 위해 대신 죽기를 바랬던 것 같이 말이다. 이는

그들이 표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대신해서 죽는 것은 하느님의 방법도, 질서에 일치되는 것도 아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하느니 차라리 자기를 주님의 책에서 삭제해줄기를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이렇게 답을 주셨다. “나에게 죄짓는 자는 누구든지 내 책에서 삭제할 것이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는 죄지은 자를 구할 수 없으나, 무한하신 지혜는 방도를 발견하는바 이를 수단으로 죄인은 사악함과 악한 생활로부터 돌아 설는지 모른다.

## 44

### 사무엘하 19장

####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다

압살롬이 죽은 뒤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흥미있고 교훈적이나 그것들 중 일부는 건너 뛰면서 간략히 주목해 보기로 한다.

압살롬이 죽은 뒤에도 다윗은 마하나임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였다. “지금 다윗왕은 압살롬에게 쫓겨 망명해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고, 불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살려 주신 분이 아니냐?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추대했었지만 이제 전사했으니, 이런 판국에 왕을 궁으로 모셔 올 생각은 하지 않고 꾸물거리고 있을게 무엇이냐?” 반역자를 따라 모반을 시도했던 그들인데 자기들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터인데 그런 낚새는 위 인용문을 볼 경우 전혀 없는 듯 하다. 왕을 다시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나 그 쪽으로의 움직임 역시 그 백성들 스스로에서 발상되고 있다. 비록 다윗이 내심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바랬을지라도 “그의 백성들 끼리 하는 말들이 왕의 귀에 들어 올” 때까지 그의 속내를 내비치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과 비슷하다. 즉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지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만일 그 의무 수행에서 벗어난다면 원위치되고 만다. 신성한 의지는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반역자들에게 “나에게 돌아 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 가리라”고 말씀하신다. 더 나아가

주님은 죄인이나 타락자가 그분에게로 방향을 바꾸도록 해주신다. 그분의 영은 사악한 자 하고는 언제나 싸우시지만, 그 영향력은 은밀하고 내적이다. 어떤 인간이 구속하는 그분의 역사, 거듭나는 작업의 한 부분이기도 한 역사에서 적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신 그분에게 되돌아 오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그는 악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가진다. 그들이 스스로 주님께로 되돌아 설 때 주님도 그들에게로 되돌아 서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근거리 의견을 나눌 즈음, 다윗은 “사독과 에비아달 두 사제에게 전갈을 보냈다. ‘그대들은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나를 궁으로 맞아 들이는데 뒷전으로만 돌겠는가? 그대들은 나와 같은 피를 받은 한 골육이 아닌가?’” 이 말은 왕이 사제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마치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이르는 방법, 즉 심정 속의 가장 높은 사랑의 애정을 통해 의지에 있는 선함의 원리에 이르시어 그것들이 이해성에 있는 진리의 지각과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과 같다. 다윗의 말이 사제를 통해 전달되자 “유다 백성의 마음은 모두 다윗에게 쏠렸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환궁하시라고 말을 전하였다.”

유다 백성의 말이 전달될 즈음에서 왕은 압살롬의 무력을 피해 피신했던 곳, 그와 맞서도록 강요당했던 요르단 저 편에 있었다. 이 대목과 유추되는 체험들은 시련과 시험에도 있다. 우리들 마음에는 순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함으로 지배권을 찬탈하려드는 애정들의 반역적인 활동이 거꾸로된 질서임에도 한동안이지만 올바른 상태인 듯 여길 때도 있다. 이런 상태가 이 본문 역사로 말해지고 있다. 왕이 그의 옥좌에서 내밀렸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사랑해야하는 자가 오히려 옥좌를 차지하고 통치하려 하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체험을 가질 때가 있다. 의심이 믿음의 자리를, 불신뢰가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영적 사랑이 자연적 사랑의 주장에 휘말리는 때도 있다. 연단을 거친 영혼의 경우, 환난의 시절에 있던 주님께의 신실함은 자신이 이전에 지냈던 주님의 평화를 되찾는 것 뿐 아니라 이전에 즐겼던 평화에 더 큰 권능과 안전함을 더불어 되찾는다. 우리의 모형되시는 주님의 시련과 승리에서조차 그러하다. 그분은 악마에 유혹되도록 광야에 내몰리셨으나 이를 극복하신 후에는 하느님의 권능의 영을 가지시고 갈릴리로 되돌아 오셨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다윗의 시련과 승리는 사람의 아들의 시련과 승리를 예정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길에서 다윗은 유다 백성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길갈 까지 마중 나와 요르단 강을 건너 드렸다. 과거 이스라엘족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 거룩한 땅에 들어갔듯이 다윗도 요르단 강을 건너 거룩한 땅에 재 진입했다. 그러나 위 두 사건의 상황은 바뀌어

있다. 어린아이들 까지도 요르단 강을 건널 수 있게 강물이 갈라졌는바 그들은 강바닥을 걸어 건넜지만, 다윗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처음 건넌 사건의 경우는 대단한 규모에 위압적이었는데 이는 마치 홍해를 건넌 경우와 비슷하게 기적을 수단으로 했다. 그러나 다윗이 요르단 강을 건넌 것은 더 높은 상태에서 있는 영적 진보를 표현했다. 이스라엘족의 요르단 강의 통과는 시련의 상태를 표현했으나 다윗의 통과는 승리를 표현했다. 길갈은 이스라엘족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 거룩한 땅에 진입한 후 휴식을 취했던 첫 장소였다. 그곳은 그들이 고통스런 의식을 수단으로 에집트에서의 수모를 벗은 곳이다. 이제 그 곳은 유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왕을 뵙는 마지막 휴식처였다. 영적 삶의 진보에서 첫 번째의 것은 또한 마지막의 것이기도 하다. 순종은 섬김에서 첫 순위이자 가장 낮은 섬김이지만 마지막 재의 덕목이자 가장 높은 덕목도 된다. 그러나 첫 번째 순종은 의무 차원에서 비롯되고 마지막 재의 순종은 사랑의 느낌에서 튀어 나온다. 종교의 여느 다른 요소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모든 사람의 첫 상태는 자연적 수준이고 마지막 상태는 영적이다. 진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선을 인도하는 진리가 있고 선으로부터 파생되는 진리가 있다. 이타애로 인도하는 믿음이 있고 이타애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믿음이 있다. 이와같이 여리고와 길갈은 명칭은 똑같게 지니면서도 품성만 바뀌고 있다. 야곱이 쳐다 본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다리의 경우에서도 가장 낮은 층계가 지상으로부터 천국으로 올라 가는 이들의 경우 첫 단계에 해당되지만 천국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 오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적을 만나 싸움을 계속해 간 것과는 다르게 다윗은 자기를 찬양하는 친구들의 영접을 받았고 그의 지파와 더불어 환궁하여 의기양양한 성공적인 예루살렘 성에로 진입한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유다 지파에 섞이어 길갈로 온 사람 중에는 다윗 왕이 곤경에 빠졌을 때 잔인하리 만큼 욱설을 퍼부었던 자도 있었는데, 그는 지금 왕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다. 그 자는 시므이인데 그는 다윗이 곤경에 빠졌을 때 돌을 던지며 살인자라고 욱설을 퍼부었던 자인데 “유다 사람들과 함께 왕을 맞으러 허둥지둥 내려 왔다.” 그리고 짹짜게 왕 앞에 엎드려 왕의 환심을 사려 이렇게 말했다. “소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알기에 이 날 요셉 가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먼저 임금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였다.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고 요셉의 형제이며 라헬의 아들이기도 한 베냐민, 그리고 그로부터 먼저 나간 베냐민

지파는 주님의 왕국과 교회를 구성하는 인물과 원리들 중에서도 특징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 베냐민은 선으로부터의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 또는 이타애로부터의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표현한다. 이런 상태를 형성하는 원리들이 뒤집혔을 경우, 곤경에 처한 왕을 저주한 시므이의 행동으로 표현되듯 죽어 마땅한 품성을 가지게 된다. 거짓과 악, 비신앙과 비이타애, 이것은 마치 위 베냐민 지파 사람이 베냐민으로 표현되는 품성에 직 반대되게 행동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의 행동은 주님을 증오하는 자에 대해서도 관대하심, 즉 일 만 달란트나 되는 빛을 탐감받고도 백 데나리온밖에 안되는 빛을 진 동료들을 용서 못했던 무자비한 종의 경우 같을지라도 그가 탄원하면 자비를 꼭 얻게 해주시는 그분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다윗의 이런 관대한 행동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하시는 자비를 표현하지만 그렇다고 자비를 입은 자들이 용서된 죄의 상태를 언제나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시므이나 무자비한 종 같은 자라도 그들이 스스로 용서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개적으로든 암암리이든 계명을 깨트리지 않는한 그들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들이 자비를 얻은 후 자비로워 지지 않는다거나 죄지었던 이들이 생명의 안전 수칙을 위반한다면 기껏 획득한 모든 것은 몰수되고, 자비로워야 자비를 얻고 죄지은 영혼은 정녕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시므이의 회개는 용서 못하는 하인의 인격과 너무나 흡사해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너그러히 봐주시길 간청했기에 용서받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정심 없는 진리의 눈으로 시므이의 처세를 불경으로 간주하고 주님께서 기름부워 세운 왕을 저주한 자는 용서할 가치가 없다고 요압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불평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왕은 그를 견책하면서 스루야의 아들들은 이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왕으로서,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나는 이제야 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소. 이런 날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인들 죽여야 되겠소?” 다윗은 왕국을 건설하느라 겪은 호된 시련 때 보다 더 나은 것을 알았다. 아무튼 그의 시련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뢰심 있는 자가 겪는 모든 시련은 진리와 정의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확신을 스스로 남긴다.

위와 다른 품성을 지닌 또다른 사람이 왕을 만나고 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 왔다. 그는 왕이 몸을 피한 날부터 이렇게 무사히 돌아 올 날 까지 밭도 짓지 않았고 수염도 다듬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므비보셋은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소?” 그는 대답하기를 자기의 종 녀석이 속인 탓이라고 했다. 제16장에서

읽는바 피신하는 다윗이 산등성이를 넘어서 조금 지나자 므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안장 엮은 나귀 두 마리에 빵 이 백 개, 건포도 백 송이, 여름 과일 백 개, 그리고 포도주 한 말을 싣고 왔었을 때 왕이 그에게 네가 섬기던 옛 상전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계십니다. 그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문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권을 돌려줄줄로 알고 계십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왕은 “므비보셋의 재산은 다 네가 가져라” 라고 명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은 다윗을 하늘이 내신 왕이라고 하여 가장 드높은 용어로 표현하고 자신의 가문은 죽어 마땅했던 가문이라고 읊조리고 있다. 그러자 왕은 말하기를 “무슨 말이 그리도 많소? 그대가 차지한 땅을 시바와 나누어 가지도록 하오” 그러나 므비보셋은 “임금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 오셨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하고 사양하였다. 거룩한 역사를 일상적인 표준을 잣대로 삼는 이들일 경우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다윗의 처우를 짐짓 혹평할는지 모른다. 더욱이 죄를 고백한 시므이를 아주 대수롭지 않은 듯 확실히 용서해주고 그의 잔인함과 거짓됨에 아무런 책망의 한마디도 없을 뿐 아니라 상전을 포함한 것도 덮어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시바가 거짓말 해대서 얻은 땅인데도 그 절반을 그의 소유로 인정하는바 이런 조치들이 매우 비정상인 듯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표면상의 이유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시바는 요나단의 종이지만 왕이 곤경에 빠졌을 때 비록 그의 속셈은 다를지라도 어쨌든 다윗 편을 들고 그를 섬긴 셈이다. 또 하나 추측이 가능한 것은 므비보셋이 해명을 하러 왕께 나왔을 때 다윗은 의심 하나 없는 신뢰를 그에게 준 것 만은 아닌 듯 싶다. 비록 시바에게 가지라 했던 판결은 어느 정도 조정되었긴 하지만 왕의 므비보셋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더 설명하기 힘들 것 같다. 므비보셋의 입장으로 보면 한 때나마 종이 상전을 올라 탄 셈이었다. 때로 외적 측면이 내적 측면을 압도하는 경우 같은 셈이다. 다윗은 시바와 그의 상전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 그는 땅을 갈라 줌으로 그들의 이해 관계를 맞추어 주면서 그들 사이에 공평을 유지했다.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라는 므비보셋의 간청은 모든 공적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 왕의 무사 귀환하심, 또는 마음, 특히 의지에 주님의 진리가 회복된 것, 내적 인간이 가장 많이 바래는 보상임을 표현하고 있다.

왕을 배웅하러 온 이들 중에는 바르질래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길르앗 사람으로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 양식을 대주던 세 사람 중 하나였다. 이스라엘 족들의 영토를 형성하는 부분, 즉 넓은 의미에서 거룩한 땅의 한 일부로서 그 경계선을 말할 때 “단에

이르는 길르앗”(신명기 34:1)라고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길르앗은 첫 번째의 선을 의미한다. 이 선은 육체적 감각에 어울리는 것들에 속한 선이다. 이 선은 거듭나는 사람이 처음 개시하는 선, 또는 만족감을 주는 기쁨이다. 그럼에도 거듭나는 삶의 또 다른 국면에서, 그리고 거듭나는 삶이 더 진보된 상태일 경우, 마치 에브라임의 유산(즈가리아 10:10)이 될 경우 이 선은 이타애의 선을 의미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바르질래는 육체적 감각이 만족해 하는 즐거움이나 선이 죽고 오히려 정신적인 사항들이 만족해 하는 기쁨이나 선이 될 때 도달되는 더 높은 상태를 표현했다. 이럴 경우 처음의 선은 나중의 더 높은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정된 선일 뿐 아니라 그것과 상응된다. 바르질래는 왕과 함께 요르단 강을 건넜는데 다윗은 그에게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같이 지내자고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임금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겠습니까? 제 나이 이미 여든인데 무슨 낙을 더 보겠습니까? 먹고 마시니 맛을 압니까? 남자가 노래를 부르니 제대로 알아 듣기나 합니까?” 수단들이 그 목적을 성취한 이상 그 수단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상태가 위 구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감각들이 만족해 하는 기쁨은 슬기로운 자의 것일 뿐 아니라 창조자의 유익한 설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때때로 사람은 감각에 속한 기쁨이 영적인 것들을 받아 들이고 그로부터의 기쁨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고 말한다. 물론 그것 만이 최상의 선이라 하거나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의심할 바 없이 영적 삶을 위해서 장애 요소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경우 감각에 속한 기쁨은 그들 삶에 합당한 즐거움이다. 그리고 감각들은 그들에게 쾌락 뿐 아니라 정보를 얻는 큰 도로 역할도 한다.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 같은 감각들은 바깥쪽 삶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내향의 삶과도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른다. 세상 속의 것들은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감각적 쾌락을 주는 한편 셀 수 없이 많은 생각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연이 공급하는 것들은 자연적 마음의 양식이면서 더 고상하게 만족을 채우는 수단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도록 설비된 것들이다. 불변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밖에 없다.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평가에서 신성한 위치를 획득할 때 세상과 그들의 것들은 설사 그것들이 매력이나 유용함을 잃는다 해도 더 이상 주요한 선은 아니다. 더 정제되고 더 인내심 있는 기쁨인 더 높은 선이 낮은 수준의 선 속에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다. 수단은 목적을 향한 길을 주고 있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 목적이 될 때 삶은 진정한 질서에 있게 된다. 그러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하모니를 이룬다. 진정한 종교는 지상의 것이든, 천국에 속한 것이든 창조된 모든 것들을 재회시켜

준다. 아주 큰 하모니는 마음의 두 가지 다른 자질, 즉 의지와 이해성 사이에서 설립되는 하모니일 것이다. 이 하모니가 바르질래의 나이 였다. 80은 4와 같고, 4는 2 같이 하모니와 합일 (harmony and union)을 표현한다. 마음 속의 모든 능력들이 하모니와 합일을 이룰 때 진정한 고령에 속한 수준에 당도한다. 세월 속에서의 나이 먹음이 만일 심정 상태에서의 나이 먹음이라면 그 단어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고령이다. 감각은 마음에 종속되어 저 둘 째 자리를 차지한다. 무지의 순진이 지혜의 순진이 된 것이다. 감각은 좋고 유용한 일을 해왔고 급기야 지각적이고 애정적인 성숙된 마음의 자질에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바르질래는 왕과 함께 요르단 강을 건넌 뒤 자기 도성에서 죽어 선조가 묻힌 곳에 자기도 묻히기 위해 왕의 허락을 구하려고 자기의 쇠약함을 들어 간청하였다.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다시 사는 것이고, 매장된다는 것은 다시 일어남이다. 자기 도성에서 죽는다는 것은 천부적인 자신의 교리 속의 더 높은 삶을 산다는 것이다. 선조의 무덤에 매장된다는 것은 그의 선천적인 믿음과 사랑이라는 더 높은 삶으로 진입되는 것, 그리고 천국적인 삶의 똑같은 수준에 있는 영들과 혈연 관계를 맺는 것이다. 종교 생활에서 드높게 완전해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에 열리운 수준에 상응되는 세 천국 중 하나에 들어감을 향유할 수 있다. 참으로 주님이 바라시는데, 모든 이가 가장 높은 상태로 일어나는 것, 가장 높은 천국으로 승강되는 것, 가장 높은 선과 축복에 그분과 함께 참여하는 것 등등이다. 그러나 행복, 천국 안에서 조차 우리의 수용력과 향유한 기쁨의 다소에 따라 수많은 우리 아버지의 집 중 하나에 거처를 마련하리라. 바르질래는 길르앗 출신이다. 그래서 그는 길르앗 사람으로 살고 죽어야 했다. 비록 그가 거룩한 땅의 경계선 바깥쪽에 살고 있다 해도 그는 따뜻한 심정과 도량이 넓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왕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기 보다는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이 일구어 얻은 음식을 차려 먹는 것이 더 행복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대신 김함을 보내고 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처럼 세상과 거리를 둔 것은 아니다. 그는 더 이상 선과 악을 식별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단순한 심정과 지성을 지니지 않고 있다. 그는 먹고 마시는 것을 음미할 수 있고, 남녀가 부르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 그의 육적 감각 같은 정신이 아직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의 감각은 영혼의 양식과 음료수인 선하고 참된 것에 대한 명백한 지각을 지니고, 선하고 참된 것을 향한 애정의 하모니가 있다. 이는 달콤한 노래소리 같은 영혼의 조화이다. 그는 아직도 지식을 축적하고 지혜가 더 자라나고 있다. 그는 왕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왕은 바르질래에게 키스하며 복을 빌고 있다.

사랑의 키스를 받고 평화의 복을 지니고 그는 거처로 되돌아와 인내심 있게 그의 명이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김함은 왕과 함께 가서 한 성읍이 그의 이름으로 불리울 정도로 번성했다 (예레미야 41:17). 김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 높은 것, 즉 천국적인 것들을 위한 “큰 바램, great desire”이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하느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라고 시편 기자(63:1)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히 이런 김함의 보상, 즉 천국적인 가나안에서 제 거처를 발견하고 더불어 임종을 맞이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리는 훈계에서 “길르앗 사람 바르질래의 아들들에게는 의리를 지켜 네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들은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나에게 한결 같은 충성을 바쳤다”는 보상 까지 받는다 (열왕기상 2:7).

## 45

### 사무엘하 20장

#### 세바와 이스라엘의 반란

왕은 유다군 전부와 이스라엘군 절반의 호위 아래 길갈로 떠났다. 그 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항의 했다. “유다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겨레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임금님을 독차지하여 임금님의 왕실과 신하들을 모시고 요르단 강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는 왕의 친척이라 주장하는 유다 사람들과 12 지파 중 열 지파나 되는 지파가 합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중간에 두고 서로 자기들이 왕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어 일어난 말다툼이다. 이는 주님의 식구들, 즉 이르케는 가인과 아벨, 가까웁게는 열 두 사도들 사이에서 있었던 다툼이기도 하다. 이는 선함과 진리 또는 이타애와 믿음의 둘 중 어느 것이 더 결출한지를 놓고 다투는 것이다. 이 대목의 경우 다른 여느 대목의 경우 같이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결말내어 주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고집을 더 내세웠다고만 읽고 있다. 만일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타애와 믿음 둘 다 탁월한바 참된 종교가 존재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둘은 함께 지내고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지금의 경우 사랑 또는 이타에는 왕의 친족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더 가까우다. 그러나 진리 또는 믿음은 그분 안에서 열 부분에 해당된다. 그 이유가 믿음 속의 진리들이 무수하기 때문 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법칙 같이 하느님의 옥좌가 자리하고 있는 열 개의 말씀들이어서이다.

두 번째, 갈라진 사람들의 말다툼이 반란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판국에 한 건달이 나타났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로서 이름은 세바라고 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외쳐댔다. ‘다윗에게 붙어봐야 돌아 올 몫은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붙어 봐야 몰려 받을 유산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집으로 돌아 가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 왕을 모시고 요르단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길갈로 가는 도중 지파들 사이에서 불거진 이 다툼, 마치 사도들 사이에서의 불화 같기도 한데, 불만을 품은 자들은 세바를 따르려고 왕을 떠났다.

왕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의 처음 조치는 궁을 돌보라고 남겨 두었던 열 후궁을 한데 몰아 가두고 죽을 때까지 생 과부로 살게 한 것이다. 사실 이들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불운해진 여인들이다. 비록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불결해진 것은 아니지만 모독될 경우 그것들은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한다. 모독된 선은 진리와 하나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된다면 필시 진리도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다윗은 아마사에게 삼일 내에 유다 사람을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영적으로 보건대 이는 진리의 법칙에 의거 선의 원리들을 연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아마사가 기일 내에 나타나지 않자, 왕은 아비새에게 왕의 호위병들을 데리고 세바를 추격하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와 그렛 외인 부대와 벨렛 외인 부대가 아비새의 뒤를 따랐다.

이쯤에서 우리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 있다.

추격대가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다다랐을 때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다. 요압은 성큼 다가서서 “장군, 안녕하시오?”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왼손으로 칼을 빼서 그를 찔러 죽였다. 요압은 과거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었던 사울 군대의 사령관 아브넬을, 지금은 압살롬의 군대를 지휘했던 아마사를 죽였다. 죽은 위 두 명은 다윗의 호감을 샀었던 자들이었다. 자연적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는 복수심에서, 아마사를 죽인 것은 시기심에서였다. 이것이 요압을 죽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 범죄는 그를 심판 받아 정죄 당하는 건수가 되었다. 요압은

자신을 공격했다거나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거나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비겁한 짓으로 자신 보다 더 의로운 두 용사를 죽였기에 다윗의 비난을 자초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주제들이라 해도 영적 의미에서 주시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요압의 사건에서 영적 마음 보다 자연적 마음에 더 치중해버린 합리성의 타입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다윗이 아낀 이들에 대한 요압의 처신을 지각할는지 모른다.

아마사와 요압은 다윗의 조카들인데 아마사는 아비가일의 아들이고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이다. 사무엘하 제 17장 23절에서 아마사의 아버지, 이드라는 이스라엘족이었다고 말해지나 역대기상 2장 17절에서는 그가 에집트인이라 불리우고 있다. 이런 불일치를 어떻게 밝혀야 할까? 만일 어느 한 쪽의 서술에 잘못이 있다면 사무엘하의 서술이 아닐까 싶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사람이 이스라엘족이었다고 공표하는 것은 예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서술 모두 진실하다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드라는 족보로 보면 이스마엘족이었을 것 같고 양자를 맞아 들이는 방법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족이었을는지 모른다. 우리는 역대기상 2장에서 이드라 또는 에텔이 이스마엘 사람이라 불리우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이 없어 딸을 에집트 출신의 종에게 주어 상속자로 삼는 경우, 그가 결혼에 의해 이스라엘 연방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의 후손들은 유다지파에 소속되도록 등부에 기재되는 것 등등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몇몇 밖에 안되는 순수한 이스라엘족에서 출생한 이들의 이름만으로부터서는 많은 것을 추론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이라고 언급될 수 있는 첫 실례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였다. 이드라가 재 출생된 이스마엘족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아들은 광야의 들나귀 같은 속성을 유전받았을 것 같고, 더 세련되고 고상한 속성은 이사악의 혈통에 의해 상속되었을 것 같다고 추론해 본다. 두 자매 중 더 어린 자매가 더 높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라헬과 레나, 마리아와 마르타의 경우가 그러하다. 아마사가 표현한 원리는 요압이 표현한 것 보다 더 포괄적이다. 수 세기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른 두 개의 분리된 흐름이 아마사의 피 안에서 만나고 혼합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요압에 의해 표현된 의미 보다 더 높고 더 폭넓은 차원에서의 합리성을 표현해야만 할 것이다. 내적, 외적인 것과 구별되고 그 중간에 위치하는 이 합리성(rational)은 세부적이고 일반적인 진보 양 쪽을 수용할 수 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지지했었던 아마사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다윗에 의해 임명되어졌다. 이는 영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의 어느 쪽을 편드느냐에 따라 두 마음을 하나되게 하거나

분리되게 행동할 수 있는 자질을 특색있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 자질은 부정적 측면으로부터 긍정적 측면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원인이 하느님과 종교에 속한 것일 때조차도 그것에 반대해왔던 만큼이나 더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다.

아마사는 사흘 안에 유대 사람들을 소집하도록 파견되었으나 기한이 넘도록 돌아 오지 않았다. 세바의 반란을 두려워한 다윗은 아비새에게 왕의 호위병들을 붙여 세바를 추격하도록 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아비새의 뒤를 따라 나섰다. 한편 아마사는 되돌아 오고 있었고 아마도 아마사도 추격대에 합류하려 하지 않았나 추정해본다. 추격군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있었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있었다. 요압은 반가운 척 말을 건네면서 그에게 다가서서 오른 손으로 그의 턱수염을 잡고 왼손으로 칼을 빼서 옆구리를 찔러 죽였다. 이는 마치 과거 아브넬을 죽일 때 같이 복수하기 위해서 었는 듯 보일는지 모르나 실지로 자기 출세 길에 거리적거리하는 위험한 정적을 없애려고 의도되었던 것이라 추측된다. 이런 행동들이 진행되게 하는 영이 다른 마음에 있다. 자연적인 흥미 뿐아니라 영적 흥미에도 다름이 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런 제자들 사이의 논쟁은 열 둘 제자로 표현된 원리들이 각 제자들의 마음에서 실시된 논쟁을 표현했다. 예를 들면 이타애, 믿음 그리고 선한 일들 중 어느 것이 가장 위대한지, 또 그 중대한 하나가 나머지 것을 지배해야 할 것이라는 논쟁 같은 것들이다. 지금까지 요압은 다윗 왕국에서 가장 큰 자로 군림해 왔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까지도 그의 성취를 유지해 갔다. 그 이유가 아마사가 죽은 뒤 다윗이 그를 경질하고 싶었을 때조차에서도 군 사령관직을 갖고 있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완전한 리더십 아래 영적인 적들과 대적하기 위해 진리들을 배치해 두기를 바란다. 충돌 안에 충돌이 있다. 동기와 행동 사이에도 대립이 있는 한편, 동기와 동기 사이에도 불일치가 있을는지 모른다. 그리고 영과 육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 게다가 영 자체에도 다름이 있다. 거기서는 하느님께 올바르게 못해 슬퍼한다. 이런 다름들은 종교 생활이 더 순수하고 드높아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다윗이 품은 소망 중 어느 것은 솔로몬 시대에서 실현되었을 뿐이다. 이런 사항들이 심정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의 모든 바람이 성사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그분의 수중에 있다.

요압의 악한 자질 중 하나는 이중성이다. 그는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들 같았다. 요압은 제 자신 위에는 왕 한 사람 뿐이었다. 자기 정적을 죽이는데 첫 번째 바쁜

일과요 왕의 적을 죽이는 것은 두 번째 중대사이다. 그는 위선이라는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형제다운 사랑의 키스를 했는 한편 감추어 놓인 자아 이익 추구의 왼손에는 거짓말의 칼을 쥐고 있었다. 진리는 그 진리를 왜곡되게 사용하는 이들에 의해서는 거짓말로 변한다. 비록 요압에게는 반란을 진압하라는 어명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도 그는 사령관 행세를 하고 있다. 그의 부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지지하고 다윗왕 편이 되고 싶은 자는 요압 장군을 따르라....군인들은 모두 요압의 뒤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해 갔다.”

압살롬이 패하고 죽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 왕국의 분열이 생길뻔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와 이해성 사이에 하모니를 원함은 거듭나는 삶이 완성될 때 까지 그 삶의 모든 단계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마음의 조건임을 곰곰히 생각해 본다면 위의 사건에 크게 놀라지는 않으리라 본다. 이 두 자질의 하모니와 합일이 성사되는 것이 새 출생 자체이다. 의지와 이해성 사이의 다툼은 선과 진리, 이타애와 믿음 사이의 다툼이기도 하다. 그 둘이 각자 스스로 있을 경우라면 거기에는 어떤 다툼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리 만무하다. 오로지 인간 마음 안에서만 그 둘은 다룰 수 있다.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이타애에 반대되어 질 수 없다. 그 이유가 이것이 저것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윤리 학자가 믿음을 경멸하는지 모르고 기독교 신앙가가 이타애를 업신여길는지 모른다. 더 공통적인 잘못된 믿음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또는 믿음을 독립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스라엘 지파가 합세해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악에 그 근원을 빚지고 있는 이교, 선함의 결핍에 자기 근원을 빚진 이교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서 아주 잘 표현되었는데 그 이유가 세바는 타락한 사람 ( a man of Belial)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이교에 적용되어 진다면, 그 본성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타애의 삶이 유용한 삶인 반면 이타애 없는 믿음, 선함이 없는 진리는 “무익한” 것이고, 무익한 삶은 자칫하면 사악하고 범죄적인 것이 되기 십상이다.

요압의 추격을 받은 세바는 므나쎄 지파에 소속된 성읍인 아벨로 도피했다. 이 성읍에 관한 기록은 이 곳 말고는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기록 자체를 높이 신용할 수 있다. 즉 “옛적부터 하느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보고 그 일을 끝낼 것이다”는 말이 지혜를 위한 속담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요압이 아벨에 당도해서 성 밖에 둔덕을

쌓아 올리고 성을 함락시키려고 허물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성읍이 전쟁터로 바뀐 것이다. 성이란 교리를 상징한다. 요셉의 큰 아들인 므나쎄는 새 의지를, 그의 아우인 에브라임은 새 이해성을 표현했다. 따라서 그의 후손의 두 지파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새 의지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빛을 드리워 주는 기록이 있다. “므나쎄는 잊어 버림 (forgetfulness), 그러므로 영적 의미에서 치워 버림 (removal), 즉 실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악의 제거를 의미한다. 그 이유가 악한 것들이 제거될 때 새 의지가 일어나고, 새 의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의 유입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유입은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유전적인 악이든 실제의 악이든 악들은 이 유입의 수용을 방해하고 저지시키려 든다. 그러므로 악의 제거 여부가 새 의지의 존재 여부를 결정 짓는 셈이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새 의지는 불행이나 재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서는 명백히 드러내진다. 그 이유가 모든 악이 흘러드는 근원지인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제거됨과 동시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더욱이 영적 슬픔, 특히 내적으로 재난을 당한 이웃에 대해 더욱 호의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수단으로 한 악의 제거는 더욱 효과적이다. 악이 제거된 후 주님으로부터 천적인 선이 흘러 들고, 그로부터 자연적인 마음 안에 새 의지가 드리운다. 이런 새 의지가 표본적 의미에서의 므나쎄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 상태의 본보기를 가지게 된다. 악, 불운, 재난, 시험 등등이 있다. 이것은 영적 슬픔이요 절망이다. 불운하게 동요하는 첫 요소들이 므나쎄 뿐 아니라 다른 지파로부터도 끌어 내졌다. 이 성읍의 이름은 카인이 살해한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과 똑같은 것이다. 아벨은 슬픔 (mourning)을 뜻한다. 우리는 이것을 아벨 미스라임에서 발견하는데, 그 이름이 붙여진 연유는 요셉이 아버지를 가나안에 매장하기 위해 떠났을 때 아담의 타작 마당에서 그들이 곡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부른 것이다 (창세기 50:11). 또 하나 슬피 곡하여 붙여진 큰 바위가 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례가 마차에 실려 이스라엘 영토 벳세메스의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바위에 내려 놓았는데, 그 뒤 주님께서 그 곳 사람들이 례를 들여다 본 연유로 오 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호되게 치시자 그들이 심히 곡한 연유에서 불리워진 것 같다. (사무엘상 6:14-19). 성경의 다른 아벨과 구별되도록 이 본문에서는 아벨 벳마아가 라고 불리우고 있다. 아벨 벳마아가는 압제받는 집의 슬픔이라는 뜻이다. 이 도성의 상태와 조건은 그 이름이 가진 의미와 똑같았다. 즉 마음이 내부에서는 적극적이고 유전적인 악의 현존으로 압제 받고, 외부로부터서는 진리의 요구와 의무 이행이라는 압박을 받는 것과

같다. 도성을 에워 싸서 방어하는 성벽은 교리적 원리들의 방어를 위한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진리들과 같다. 원리의 바깥쪽 일들이 공격 당하고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을 때 원리 자체가 물러나야 만 한다. 만일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저항을 계속한다면 정복 당한 결과는 저항에 가담한 모두를 칼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일 게다. 악이 마음을 미리 점령하고 있어 진리에 반대하도록 결정해 버린 결과는 선과 악 모두가 함께 멸해지는 것, 그들 모두 한 가지 공통된 파멸에 포함되는 것이다. 마음의 상태는 선과 악을 저울에 달아서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무거우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통치하는 원리가 마음의 품성을 결정지를 뿐 차선의 것들은 중요치 않다. 세바와 그의 추종자들이 아벨 성으로 가는 도중이었는지, 또는 그들이 그 성을 장악해서 성문이 잠겼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도성의 주민들이 요압에게 기꺼이 성문을 열어 주었어야 당연하다. 도성의 많은 이들이 세바 쪽에 기댄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그 성은 여인에 의해 구원되었다. “그녀가 나서서 이렇게 소리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요압 장군에게 할 말이 있는데 좀 나서라고 해주세요.’” 그녀가 아벨 사람들의 속담 같은 지혜를 요압에게 들려 준 뒤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무너뜨리려 하시니 야훼의 유산 하나를 집어 삼킬 작정이십니까?” 요압이 대답했다 “천만에, 결코 이 성을 집어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소 세바만 내주면 나는 이 성에서 물러 갈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을 잘라 성 밖으로 던져 드리지요.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돌아가서 성 사람들을 잘 설득시켰다. 사람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포위를 풀고 군인들은 해산시켜 집으로 돌려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로 돌아 갔다.”

여인의 지각적인 지혜가 남자들의 추론하는 총명보다 더 빠르게 작동했고 확실한 결론도 끌어 냈다. 그들의 지혜는 비록 모든 올바른 추론이라 말하는 삼단 논법은 아닐지라도 가장 높은 논법이다. 그것은 선한 의미의 논법이다. 그 이유가 올바른 느낌으로부터의 참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선한 여인의 지혜이자 아벨 성의 슬기로운 여인의 지혜였다. 그녀의 지혜는 선함으로부터의 진리였다. 이 진리의 결정은 예스(yea)와 아멘이다. 이 결정으로부터서는 어떤 간청도 없다. 그 이유가 어떤 필요함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 가운데 있는 이들, 의지와 이해성이 상반된 채 있는 이들, 그런데 자기들의 의심이 제거되고 상충된 것들이 안착되기를 바란다면 “아벨에서 상의하고 문제를 끝내야 할” 필요가 있다. “슬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로운 자는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수단이 되어 마음이 평온을 찾고 다투는 마음 속의 자질들이 화합할 것이다.

슬기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세바의 목을 성 밖으로 던져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있어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그 여자는 도성 주민들에게 자기의 정당함을 확신시켜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곤란함도 없었는 듯 보인다. “지혜는 그 행위에서 정당함이 증명된다.” 세바의 목을 자르는 것은 반란의 목을 베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뿐 아니라 원리 까지 파괴될는지 모른다. 원리들은 통치하는 머리와 같다. 그 위에 나머지 원리들이 의존한다. 통치하는 핵심이 나머지 요소와 분리될 때 전체가 땅에 나뒹굴게 된다. 세바의 머리는 잘린 후 성 밖으로 던져졌다. 이는 마음으로부터 원리가 내던져져서 거절되고 더 이상 받아 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에 요압은 만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로 돌아 갔다.

이렇게해서 반란은 끝났다. 이에 뒤이은 질서는 평화였고 다윗의 업무와 그의 대신들에 관한 서술이 이 장을 끝맺고 있다. “요압은 이스라엘 전군의 사령관이었고.....아이르 사람 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

## 46

### 사무엘하 21장

#### 사울의 후손 일곱 명을 기브온 족에게 넘겨 주다

구약 성서에는 가슴 아픈 채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많은 대목들이 있다. 그 이유가 전쟁과 학살 같은 장면들이 거룩한 역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신성한 존재 그 자신이 그분의 창조물의 죽음에 만족하는 듯 심심찮게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아주 조심성 있는 주의를 요구하는 성경의 대목들이 있다. 그 대목들이 표현하는 외관, 즉 잔인함, 불공정함, 지나친 엄격함이 무한하신 분의 일부인 듯 비쳐지는데 만일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흡족해 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성경과 신성한 저자, 모두에게 보내는 경건함이 격감될 형편에 까지 이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곤란한 대목들이 만족할만한 해결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유용한 영적인 교훈 까지 얻기 위해 재 삼 숙고할 때, 우리는

이 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종교적 처방 아래서의 교회의 상태들의 결과들이 바깥쪽 현실로 진열되었다. 가뭄이 삼 년 내리 계속된 현실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혹시 자기들이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았거나 하는 어떤 불손함이 백성 가운데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으로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자극을 받은 다윗왕이 주님께 곡절을 물어 이런 답변을 받았다. “사울과 피를 본 그 집 때문인바,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울의 후손 일곱이 죽고 그들의 뼈가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매장됨으로서 그 땅의 가뭄의 원인을 제거하고 있다. 그 이유가 14절에서 “그 후에야 하느님께서서는 그 땅을 돌보시었다” 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계가 암시하는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첫째로, 하느님께서서는 사울의 범죄가 그것에 합당한 속죄가 뒤따르지 않으면 뒤이어 벌어질 결과들을 직접적인 계시로 알게 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채찍질해서 그들이 그 원인을 찾아낼 때까지 가뭄을 허용하였다. 백성을 다루시는 그분의 이런 방식은 이곳 말고도 성경의 여러 곳에 그 실례가 있다. 이는 우리 자신이 그 주체가 되는 신성한 체제의 한 부분을 우리로 배우도록 의도하신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주님께서서는 정의로운 삶을 꾸리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안내하시고저 그분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는 법을 우리에게 내렸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법칙의 어떤 것을 위반하거나, 신성한 뜻에 반대하기 위해 아는 것을 행한다거나 하면 밝혀 주신 말씀은 우리의 회개가 수정에 의하지 않고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 만일 악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바 우리로 자기 검증을 하도록 인도하고, 결과로부터 원인에 까지 추적해 보게 하고 그분의 방향을 추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 가르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애당초부터 우리가 올바른 길로의 충분한 방향 제시도 없이 방치된듯한 여건은 우리에게 없다. 인간은 그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이든 악에 저항하기 위해서이든 자유 속에서만 인도되는 바 그의 행동 역시 자유 속에서 있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는데 게으를 때, 자유 속에서 죄의 길을 버리기 위해 우리의 체험을 통해 가르치신다.

둘째로, 사울의 범죄는 죄지은 그 당시 그에게나 그 백성에게도 묻지 않고 있다가 다윗 시대 때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묻고 있다. 모든 것이 표본적이었던 이스라엘 교회 처방

시대 때에 죄가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물어 벌을 내린 적이 자주 있었다. 아버지의 불법에 대해 아들에게 벌이 떨어졌다. 신성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라고 생각되어 졌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표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갖가지 원리들을 표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시대는 거듭나는 삶의 시기들을 표현했다. 범죄한 이들의 후손을 처벌케 한 범죄들은 거듭나는 삶의 초기 단계에서 점검되지 않은 악, 또는 거듭나는 삶의 발전을 가로막은 악들을 표현한다. 이 죄악들은 당사자가 위기라고 감지될 때 까지 거듭나는 과정에서 허용되어 진다. 의지 안에 있는 악은 보여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을런지 모른다. 그 악이 성공적으로 적대시 되기 전 애정과 생각으로, 그리고 말이나 행동으로 가치를 처갈는지 모른다. 의지와 이해성에 관련되는 애정과 생각들은 부모와 관련되는 자녀들의 관계와 같아서 성경에서 자녀로 표현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경우, 의지 안에 있는 악이 애정 안으로, 이해성 안에 있는 거짓이 생각으로 파생되는 것이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삼 사대에 까지 갚는다” 라는 십계명의 선포에서 영적으로 의미되어지고 있다. 숫자 3과 4는 어떤 연속(series)을 뜻하는게 아니라 숫자 3은 이해성과 그 속의 거짓과 관계되고 숫자 4는 의지와 그 속의 악과 관련된다. 악과 거짓의 원리들이 마음의 의지와 이해성에 뿌리를 내렸을 때 그것들이 애정과 생각으로 가치를 뺏겨간다. 그것들이 표면 아래 숨어 있는 형태로 있다가 먼저 발견되고 그 다음 심판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이 대목에서 사울 왕에 의해 범해진 죄 자체에 관한 사건의 기록도 없이 그 후손들이 그 죄로 처벌 받는 모습이다. 기근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범죄의 기록은 이것이 처음이다. 사울이 그 백성을 죽였다는 것은 사울의 역사 기록에는 없다. 이와같이 것을 우리 체험에서도 살필 수 있다. 악들이 범죄된 후에도 오랫동안 그것이 죄로서 우리의 기억 의식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악들이 의지 안에서 치명적으로 활동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이해성의 생각으로 내려왔었을 때에야 제대로 보여지고 정죄된다.

사울의 범죄가 기근을 수단으로 백성들을 방문했고, 사울 후손의 남자 일곱 명을 죽게 한 대목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브온 족이 이스라엘 회중에 소개되는 여호수아서 9장은 성서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친숙한 대목이다. 여호수아가 약속된 땅의 정복자로 진입하였을 때 히위족 분과, 여기서는 아모리족의 잔류민이라 불린 “기브온 주민들은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너덜너덜한 부대와 터져서 기운 현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떠날 채비를 차렸다. 또 밭에는 닳아 빠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말라서 바삭바삭하는 빵을 가지고 떠났다. 그들은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 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 후 이 사기극이 들통났을 때 비록 그 맹세는 깨지지 않았지만 이런 임무를 부담토록 했다. “이스라엘 사람 손에 맞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대신, 그 날로부터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야훼의 제단 일을 거들게 했다.” 조약이 확증시킨 맹세는 이후 별하여지지 않았다.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사울에 의해 깨트려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사울은 이 약속을 깨트린 첫 번째 사람이자 유일한 사람이었다. 엄중한 맹약을 무시해 버린 행동과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는 매우 심각한 품성의 악을 표현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깡그리 멸절 시키려 했던 가나안의 일곱 나라 중에서 두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부분적으로 연결되도록 받아들여졌다. 즉 계약에 의한 히위족과 관용에 의한 여부스족이다. 이렇게 부분적인 예외가 있게 된 것은 히위족은 선한 어떤 것이 있는 우상을, 여부스는 참된 어떤 것이 있는 우상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거듭나야하고 있는 사람에 관련해 볼 때 이 일곱 나라는 유전적으로 존재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자연적 마음의 생명을 구성하는 부패된 모든 원리를 표현했다. 이스라엘 회중과 연결을 이룬 일곱 나라 중의 두 잔류민은 선한 자연적 애정과 생각 또는 마음에 있는 모든 자연적 선과 진리의 보존을 표현했다. 그들과 이스라엘의 연결은 실제의 거듭남을 수단으로 획득되는 영적인 선과 진리를 표현했다. 선한 어떤 목적에 일치되도록 구부러질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진짜 영적인 섬김에 사용되어 질 수 있다면, 그것이 수준이 낮고 한정된 것이라 해도 그런 모든 것은 보존되고 거듭나야져야 한다. 히위족은 선의 외적인 품성을 표현했고, 섬김의 외적인 품성은 여부스족이 야훼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 섬김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의 함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무 차원에서의 노동, 사랑 차원이 아닌 섬김 차원에서의 노동이다. 그럼에도 이 섬김은 유용하고 필수적이다. 이것이 성실히 수행될 때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 되돌리는 선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종교의 보다 낮은 많은 선용들은 보다 높은 선용에게 수단을 제공하는바, 보다 낮은 선용의 행동 안에 보다 높은 선용이 보존된다. 따라서 이런 원리들이 파괴된다는 것은 은혜의 섭리가 그 원리들로 수행토록

한 선용이 파괴되는 것이리라. 그런데 엄청난 맹약이 기브온과 이어진 이후 사울이 취한 행동 같이 그들을 파괴한 것은 자연적 마음의 원리와 영적 마음의 원리들의 결합 관계를 해체하는 것, 이 결합이 확고히 하는 두 원리의 상호적 선용과 그 영속성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 죄가 삼 년 동안 그 땅에 가뭄을 가져왔다는 것은 믿음과 성실의 위반이 시도될 때, 비록 그것이 결과로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영적 생명을 받쳐 주는 수단의 결핍을 나타내고 있다.

사울의 일곱 후손의 죽음은 범죄의 근원지인 근원적이고 지배적인 원리로부터 파생된 악과 거짓의 제거를 표현했다. 비록 이 치료가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 요구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주님 자신에 의해 이미 승인되었거나 요구된 듯 하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영적 차원에서 아버지의 죄 값을 후손에게 물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질서 그 자체가 시작 초이든, 한 참 후이든 악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설비해 두신다는 것이다. 이 대목의 사건은 자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고통스런 느낌을 드리우지만 영적 관점으로 보면 악의 영적 결과는 영적 애정을 한층 더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로 확실히 인상짓기 위해서 시도되었음을 의심치 않는다. 자연적 슬픔은 끝이 있고 시간 자체가 그 슬픔을 지우게 해줄 수 있으나 영적인 슬픔은 만일 정정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그 슬픔을 견뎌내야 하리라.

이런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는 이야기, 사울의 첩이요 처형된 두 사람의 어머니되는 리스바의 행동에 대한 정감어린 기록이 있다. 그녀는 상복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퍼놓고 그 위에 앉아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 까지 주검을 지켜 낮에는 공중의 새가 내려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여인다운 애정 특별히 이 애정이 모성애로 드높여 질 때 극도의 포근함과 끈덕지게 경계함을 인식할 수 있으리라. 불명예 따위가 그것을 파괴할 수 없고 불행이 그것을 더 드높이게 하고 있다. 모든 다른 이들의 심정이 차갑고 보살핌이 결여될 때 밤낮으로 지키고 따뜻함이 남아 있는 최소한 한 가지가 있다. 가뭄과 모성애의 아름다운 이 대목은 참 교회의 원리가 거짓과 악들로 인해 파괴됨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돌보고 지키는 영적 애정을 상징하고 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교회의 원리들을 표현하기 때문인데, 이 대목에서는 그들이 표현하는 원리가 뒤집어진 상태이긴 하다. 이와같은 것이 현 대목에 있는 사울의 아들의 후손들로 표현되고 있다. 주님의 교회의 원리들이 뒤집혀질 때가 있다. 그 때란

악한 생활, 악한 목적이 그 원리로 들어가 통치할 때이다. 사울의 아들들의 경우 같이 악한 삶이 파괴되어 지거나 제거될 때 원리들은 거룩해지고 새롭고 더 드높은 생명이 되어 간다. 이 원리들은 영적 애정의 끈덕진 경계함으로 새와 짐승들로 표현된 자연적 욕망과 열정의 게걸스러움으로부터 보존된다. 리스바의 경계함은 추수 때로부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말씀에서 추수는 상태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 때란 종말과 결정의 때, 끝장과 분리가 있는 때, 밀은 곳간에 쌓고 가라지는 태워지는 때이다. 거두어 들이는 노동과 가뭄의 추수 때 이 후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 즉 진리가 내적 인간의 하늘로부터 내려 오되 마치 새벽 이슬 같이 새롭게 하는 소나기 같이 외적 인간에 떨어진다. 그러면 새로운 상태가 시작되고 곡하는 날이 끝난다. 즉 바위 위에 상복을 펼쳐 놓고 지키던 일을 중단하게 된다. 리스바의 경건한 보살핌이 다윗에게 말해지자. 그는 그렇게 보살핀 그녀의 목적과 갈망을 마무리짓고 있다 즉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일곱 사람의 뼈도 거둔 것이다. 그리고 키스의 무덤에 모두 합장해 주었다. 그 후 하느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게 되었다. 성경에서 매장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육체를 묻지만 천사들은 그 영혼을 영원한 세계로 환영하기 때문이다. 천사들의 관점에서의 죽음과 매장에는 그 자체 파괴적인 것도, 어떤 슬픈 것도 있지 않다. 그들은 불멸하는 영혼이 새롭고 더 높은 삶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볼 뿐이다. 신성한 말씀에 써 있는 죽음과 매장이라는 글자는 영계에서, 천사들에게서는 생명과 불멸로 대체된다. 다윗에 의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뼈가 매장됨은 신성한 진리들이 종속당했던 왜곡됨에서 순수해진 뒤 더 높고 더 순수한 참 교회의 신성한 진리들로 일어남을 표현한다. 이것은 다윗으로 원형이 된 주님에 의해 결과되고 있다. 그들은 베냐민 지방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무덤에 합장되었다. 그 이유가 베냐민 지방은 지적 측면의 마음이고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무덤은 사랑 또는 선함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주제를 영적 의미의 빛으로 관조할 때 우리는 위의 역사적 사건에 있는 곤란한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 만족할 수 있다. 동시에 정의의 삶에서의 안내를 위한 교훈까지 끌어낼 수 있었다.

신성한 자비와 진리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인 악들이 우리의 영혼에서 제거될 때 천국의 햇빛이 은총입은 그들 위에 내려 쪼이고 평온과 기쁨이 회복되어 진다.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진다. 그러나 온 심령을 다해 그분께로 돌아 서서 새 삶에

진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즉 그분의 마음에 들게 된다. 생명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 물론 이것이 그분의 마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듯 글자에서는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인간 안에서 있어진다는 것을 영적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신성한 존재는 언제나 호의적이다. 그러나 그분의 호의와 배려하심은 창조물의 죄로 말미암아 바뀐다. 그러므로 인간이 기꺼이 순종할 때 그분의 은혜는 인간 마음 안으로 풍족히 흐른다.

우리는 내향의 위로가 없는 자신, 천국적 삶이라는 바깥쪽 열매가 없을 때 필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발견했다면 주님의 눈 앞에서 우리 행동 속의 악들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 신성한 얼굴로부터의 빛이 내향의 생명 안에 기쁨을 드리우고 모든 선한 일 속에서 열매 있는 바깥쪽 삶으로 갚아 주신다.

## 47

### 사무엘하 22장

#### 다윗의 감사 찬양

위험과 구출이 뒤범벅된 다윗 인생의 고난과 싸움이 다 지나간 후 영글어진 인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안에 다윗의 영혼이 다 쏟아져 스며있는 듯 여겨질 뿐이다. 우리는 앞 장에서도 이 아름다운 작문의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 안에서 그는 고난의 시기에도 주님을 신뢰함과 곤경에서 헤어나게 해준 그분의 은혜를 표현해놓고 있었다. 이 노래는 다윗의 여느 다른 것보다 품성 측면에서 더 일반적이다. 그리고 주님의 영에 의해 감화되어 그의 경건한 영이 가장 고상하고 달콤하게 표현한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노래는 과거 모세가 에집트인들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해진 후 노래한 내용과도 닮은 점이 있다. 우리의 위대한 주석자가 홍해 바다의 경계선에 있는 다른 표징적인 사람에 의해 불렸던 노래를 다루는 가운데 거룩한 노래의 주제에 관해 언급했던 것을 먼저 서술해 본다. “노래부름은 영화됨을 의미한다. 즉 노래는 영화를 의미한다. 고대 교회에서, 그 후에는 유대 교회에서 노래들은 예언적이었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특히 세상에 그분의 오심, 극악무도

한 패거리들을 파괴하심,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신실한 자들을 구해내심 등등을 다루었다. 노래 속의 예언들이 내적 의미에서 위와같은 것을 포함했는바, 노래는 주님의 영화하심, 즉 심정으로부터의 기쁨에서 그분을 경축함을 의미했다. 심정(가슴)의 기쁨은 특히 노래를 수단으로 표현되는데 그 이유가 노래 안에서 심정의 기쁨은 거의 동시에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여호와 즉 주님은 노래 안에서 영웅, 전쟁의 용사, 군대의 하느님, 정복자, 강함을 주시는 분, 방어자, 피난처, 구원해 주시는 분 등으로 불리우시고 있다. 그래서 파괴되어졌던 악마적인 패거리들은 때려부수고 짓밟아 지옥에 내던져진 적으로 불리웠다. 내적 의미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던 이들은 노래 가사에서 취급한 세상적인 것들을 단지 세상에서의 적, 전투, 승리 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신성과 천국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에서 표현되어 졌다는 것, 노래 가사 속의 예언들이 천국적이고 신성한 것들을 포함했다는 것을 알았던 이들은 이런 예언들이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불신자의 정죄를, 믿는 자의 구원을 취급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위와 같은 경우임을 알고 꼼꼼히 되새겨 보고, 그로 인해 감화되는 이들은 내적 기쁨으로 감동되어 진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외적 기쁨 뿐이다. 인간을 시중드는 천사들 역시 주님의 영화하심에서 동시에 있었다. 그러므로 노래한 이들과 노래를 들었던 이들은 마치 천국으로 들리운 듯한 기쁨 안에서 천국으로부터 흐르는 거룩하고 복된 원리로부터 천국적 기쁨을 경험했다. 이와같은 결과는 오늘날 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을는지 모른다. 그 이유가 영적 천국의 천사들은 주님과 그분의 나라, 교회에 관련된 노래들로 더욱 감화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교회의 노래들이 이런 결과를 가진 것은 심정의 기쁨과 내면으로부터 튀쳐 나오는 활력이 그들의 신체 외부의 근육 조직에 까지 이르고 그것들이 기쁨으로 흥분되고 거룩한 전율을 가짐으로 활력이 주어진 결과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의 영화하심이 콘서트에서 노래하는 수많은 찬양대에 의해 결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역시 천사들의 언어는 하모니로 그 집단 개개인에게 전달된다. 이로부터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고대인들 사이에서 주님의 영화하심은 노래를 수단으로, 여러 종류의 음악 도구를 수단으로 수행되어 졌다. 그 이유가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고대인들은 주님의 오심과 그분에 의한 인류의 구원을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탁월한 기쁨을 자아냈기 때문이다.

경미한 차이는 있지만 이 노래는 시편 18편과 같다. 아마 클라우(Cloues)와 힐러(Hiller)가 스페넨북의 저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설명을 한데 모은 책만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할는지 모른다. 어쨌든 다윗의 영이 하느님에 대한 그의 생각과 애정이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

새롭게 되었듯이 다윗의 피흘리는 전쟁의 역사를 따라 온 독자들도 그의 경건한 영적 호흡과 연합함으로 다윗의 평안을 느끼리라 본다.

스베덴보른은 그의 단편적인 메모록에서 사무엘하의 20장을 건너 뛰어 다윗의 노래에 세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세세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단어 하나 하나 마다의 설명이 아니다. 각 절마다 그 절을 설명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다. 설명 그 자체는 예술가로 말하면 끝내진 작품이라기 보다는 탐구에 그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위대한 스승의 연구들은 드높은 칭송을 받아야 하는바 그 이유가 우리로 그의 연구 흔적을 추적해 볼 수 있게 해서 그 대목들에 대한 생각을 더욱 만족해 가는 쪽으로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대한 스승의 연구는 대단히 흥미롭고 교훈적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노래의 번역을 제공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설명은 소견을 첨부하거나 급히 써놓은 듯한 메모록의 말과는 아주 다른 그의 출판 서적들로부터 추출하여 설명하고 있다. 번역물의 어떤 일부는 추측적으로 임혀졌거나 생략되어 건너 뛰었거나 히브리어의 라틴어 번역인 슈미더스(Schmidus)의 성서를 잘못 읽은 듯 생각되는 부분은 생략하기도 했다.

(1) 적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의 다윗의 노래

다윗이 내놓은 말들은 하느님-메시아의 영에 의해 영감되어 졌다는 것, 따라서 다윗이 아닌 하느님의 영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23장 2절로부터 명백하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 말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다윗이 아닌 것도, 내적 의미에서 신실한 사람,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하느님-메시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들, 최고 높은 의미에서는 하느님-메시아 그분 자신이라고 이해되어진다. 이와같은 것이 다윗을 통해 말해지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거룩한 영의 의도이다. 이에 관해서는 정의, 손이 깨끗함, 성실, 거룩함 등을 거론하는 21- 27절로부터 확증해볼 수 있으리라 본다.

“야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이,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채, 나의 피난처,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 몸 건져 주셨으니,” (2,3절). 이상은 하느님-메시아를 의미하는 이름들이다. 그 이유가 이 구절 외의 다른 구절에서도 그분은 산, 돌, 바위, 방파제로 불리우기 때문인데, 그분 홀로 만이 싸우신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다. 전능자이신바 그분은 바위이시다. 보호자이신바 그분은 요새, 높은 탑이요, 산채이시다. 그분은 사탄과 죄의 포악함으로부터 구원하시는바 구세주, 구원의 분이시다.

“찬양을 받으시라 내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 (4절).

여기서의 적은 영적인 적, 그의 다른 적을 뜻하고 있지 않다.

“죽음의 물결에 휩싸이고 멸망의 물살에 휩쓸려 겁에 질리고, 포승에 묶여 저승으로 가고, 올라가미에 걸려 죽을...” (5,6절). 원수들인 악마의 떼거리들은 죽음의 물결, 멸망의 물살을 닦았다. 그 이유가 악마들은 군대를 이루어 돌진하는 영들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시험이 오는데, 그 이유가 악마들은 유혹하거나 욕을 퍼붓는 식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돌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마들은 지옥의 슬픔, 죽음의 올라가미라 불리운다. 악마들은 공격 대상자를 대단한 술수로, 기묘하게 계속적으로 피어댄다. 악마들도 사람들에게 감명되도록 시험 중에 고통받으나 그것은 죽음의 올라가미이다.

“다급한 때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당신의 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 주셨다” (7절). 영적인 곤경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다. 하느님-메시아 만이 유일한 피난처인바, 그분의 성전 즉 천국에서 천사들을 통해 애원자에게 도달되는데, 이 구절에서는 애원자라기 보다는 더 강도가 높은 울부짖는 자로 표현함이 더 나올 듯 하다.

“그가 한번 노하시니, 땅은 뒤흔들리고, 하늘 기초도 뒤틀리며 흔들렸다” (8절). 원수들에게 복수하심이 묘사되고 있다. 비록 그분이 양갓음하신 듯 묘사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하느님-메시아에 의해 가해진 벌은 아니고 돌진하는 자가 타인에게 주어진 행위이다. 분노가 최말단에 까지 순서대로 내려 오게 될거라고 묘사되고 있다.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움직여졌다. 마치 성난 사람의 마음 같다. 역시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육체 안의 최말단 까지도 움직여진다. 이 구절이 말하는바 땅이 떨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려 움직여졌다. 악령들은 가장 낮은 부분, 즉 육체가 존재하는 장소, 다시 말해 보다 높은 마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영역인 자연적 마음에 거주하는바 그들은 전율한다.

“코로는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는 불을 토하시며, 숯불 처럼 모든 것을 살라 버리셨다” (9절). 분노가 연기나 불, 마치 시나이 산이나 그밖의 다른 성경 장소에서 같이 숯불에 비교되고 있다. 그러나 삼킬듯한 불이나 연기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분에게는 분노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해진 것은 악으로부터 거짓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나타내지기 때문이다. 연기는 거짓을 명시하고 연기 속의 불꽃은 분노이다. 그 이유가 지적 측면에서 악으로부터의 거짓은 연기와 같고, 분노는 타오르는 연기의 불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늘을 밀어 쫓히시고 검은 구름 위에 내려 서시며” (10절). 어둠은 아주 짙은

검은 구름과 비슷한바 악한 자에게는 밤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밀어 져히시고 내려 오심은 마지막 심판에 앞서 진행되는 방문을 의미한다. 그분의 발 아래의 어둠은 보다 낮은 것 안에 있는 악의 거짓들을 의미한다. 이를 수단으로 영들의 품질의 조사가 결과되고 또한 악으로부터 선이 분리되는 결과도 있어진다. 천국들이 그분과 상호 작용했을 때 주님은 하늘을 밀어 져히시고 인간의 모습을 갖추시는(Incarnation) 때에 내려 오셨다. 어둠이 그분의 발 아래 있다란 그분께서 우리의 타락된 인성을 입으셨을 때이다. 또한 어둠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이다.

“거룩을 타고 날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내리뒹치셨다.” (11절). 거룩 위에 계셨는데 그 이유가 거룩들이란 내려 오는 이들, 즉 명령을 집행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바람 날개 위에 계셨는데 이는 똑같다. 그 이유가 천사들이 바람의 날개들로 불리우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거룩을 타심은 그분의 신성한 섭리를 의미하고, 그분이 날으심은 영계의 어디에든지 계심을 의미한다. 바람의 날개 위에서 보여짐은 자연계의 어디든지 계심을 의미한다.

“몸을 어둠으로 감싸시고 비를 머금은 구름을 두르고 나서시니,” (12절). 어둠이 마치 그분 주위를 감싼 장막이다. 또한 물과 구름으로 감싸시고 있다. 모인 물과 뻑뻑한 구름은 결국은 마찬가지로 된다. 이는 말씀 안에서 주님이 오심과 말씀 안에 현존하심을 다루고 있다. 어둠과 구름은 글자 의미이다. 천국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아직도 글자 의미 안에 있다. 그러므로 어둠은 그분을 감싼 장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분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해 숯불이 피워졌다.” (13절). 광채란 신성한 진리이다. 그로부터 숯불이 지펴졌다. 그 이유가 (영은) 진리를 수단으로 세련되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언급된 어둠은 말씀의 글자 의미이고 이 구절의 광채는 영적 의미이다. 정의에 관련해 볼 때 글자의 어둠은 영의 광채에 앞서 온다. 즉 영에 의거 주님을 알기에 앞서 육에 의거 주님을 안다는 말이다. 애정들은 주님의 사랑의 불에 의해 지펴진다.

“지극히 높으신이, 야훼께서 천둥 소리로 고향치셨다” (14절). 그분은 천국으로부터 천둥치신다. 천둥은 분노의 결과이다. 천둥은 구름 안에서 일어난다. 그런고로 (그분은) 공포로부터 고향치는 자(thunderer)라 불리우신다. 주님 자신에 관련해 보면 그분의 천둥은 신성한 사랑이고 그분의 번개는 신성한 진리이다. 이것이 선한 자에게는 감명을, 악한 자에게는 반대되는 영향을 주는바 다음 절에서 설명된다.

“번개는 번쩍번쩍, 화살을 마구 쏘아 대시어 원수들을 흩어 쫓으셨다” (15절). 이것들은

영적 무기들, 즉 진리들과 선함들이다. 번개는 천둥에 이어 오고 이를 수단으로 원수들이 당황하게 된다. 여기서의 천둥은 천국으로부터의 천둥 소리가 표현된 것이다. 번개는 화살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신성한 진리들을 의미하고, 섬광은 번개의 빛이다. 이것은 진리들이고 선한 자에게는 생기를 주면서 계발해 주고, 악한 자는 눈멀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한다. 이것이 화살을 쏘아대어 그들을 흠으심에 대한 의미이다. 번개가 번쩍거리 그들을 좌절시켰는바, 그 이유는 사악한 자들은 천국으로부터 오는 어떤 빛이나 신성한 진리들에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있는 자리에서 혼비백산된다.

“야훼께서 한 번 호령하시니, 바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의 콧김에 땅의 기초가 드러나는데,” (16절). 바다 밑바닥, 땅의 기초는 최하위 지옥을 묘사한 말이다. 견책한 소리는 진리의 천둥, 번개를 의미한다. 콧김이란 생명이요 이 생명은 가장 낮은 부분 까지 관통하여 빛을 낸다.

“높은 데서 손을 내밀어 나를 끌어 올리시어, 거센 물 속에서 건져 내셨다” (17절). 영들이 지옥에서 건져지는 것, 하느님-메시아에 의해 거센 물 즉 많은 죄의 저수지로부터 건져내짐이 묘사되고 있다. 즉 지옥으로부터 끌어내셨다. 인간은 원수들, 즉 너무 강해서 자기로서는 어찌기 힘든 악마로부터 구출되어진다.

“내가 망할 처지가 되자 저들이 달려 들었지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 (19절). 재난을 당할 처지에 달려든다는 것은 나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하느님-메시아는 내 기둥이 되어 주셨다는 것, 앞의 2,3절과 같다. 재난의 날이란 진리의 믿음이 약해진 상태를 말하고, 주님이 기둥이시다면 그런 상태에서 있어지는 능력을 의미한다.

“건져 주시고 어깨를 펴게 해주셨다. 하느님께서 이렇듯 나를 좋아 하셨다” (20절). 그분은 나를 넓은 곳, 곧 구덩이, 즉 지옥으로부터 천국의 평야로 데려가셨다.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좋아 하셔서, 하느님-메시아는 그분의 아들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느님-메시아에 소속되는 것들은 천국과 지상에 있는 하느님-메시아에만 적용된다. 이 구절의 표현은 지극히 불의하기도 했던 다윗이라는 인물에게는 결코 적용할 수 없는 표현이다. 하느님-메시아에게만 적용되거나 그분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는 이 구절의 말들은 그분 자신만을 취급하고 있다. 즉 변모산에서 그분이 영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 들렸던 말과 같다.

“나는 야훼께서 일러주신 길을 벗어 나가나, 내 하느님께 못할 일을 하지 않았다” (22절). 그분만이 여호와의 길, 즉 복합적인 율법을 지키셨다. 그 이유가 그분은 모든 율법을 내적,

외적 측면에서 충만케 하셨고 뿐만 아니라 율법이 포함하는 모든 것, 즉 희생제나 예배 등등에 포함되어져 있는 율법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셨다. 그분만이 정의로우신 분이 되셨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신을 미워했던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이는 다윗이 결코 하지 않았던 일들이다.

“그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고 그의 법규를 무시한 적도 없다” (23절). 이는 다음의 말들로 지금 확증되어진다. 법은 인간이 살아야만 하는 신성한 진리들이다. 법규는 의식 등과 같은 말씀의 외적인 것들이다. 내적 의미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예배의 법들이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나무라실데 없이 살았다” (24절). 앞절에서와 같이, 다윗의 죄악은 인간의 죄악들이다. 그분 안에는 어떤 죄악도 없다.

“야훼 보시기에 깨끗하여 죄없다고 이렇게 갱이주셨구나” (25절). 이 구절의 말도 앞절과 방법이 같으나 이런 차이는 있다. 율법을 모든 등차에서 완성하심으로 그분은 정의 자체가 되셨다. 그분만이 자기의 정의에 공적을 주장하실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서 인간이 선을 행하는 모든 능력은 그분만으로부터 파생되고 인간 정의의 모든 공적은 그분의 탓으로 발생된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고, 곧바른 사람에게는 그분의 곧바름을 보여주신다” (26절). 정의와 거룩함의 귀속으로 이해되어 지는바 이런 말들 즉, 거룩한 자와 더불어 당신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자와 더불어 당신은 완전하시다는 말씀으로부터도 명백하다. 하느님-메시아만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다.

“순수한 자에게는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실 것이다” (27절). 앞절과 같이 순수한 자에게는 순수하시다. 이 구절과 앞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신다. 주님은 각자의 상태에 따라 각자에게 나타나신다. 자비와 순수함 자체가시오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특히 악령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그들의 심정과 지성의 상태에 반사되어져서이다. 인간이 주님을 교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필수적으로 그들은 그분을 그들 자신의 상태에서부터 생각한다.

“억눌린 자를 건져주시며 거만한 자를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28절). 그분은 마음 속에서 고뇌하는 자를 구해주신다. 그러나 거만한 자를 아래로 내던지신다. 그분은 비천한 자만을 들어 올리신다. 그러므로 높다는 자들은 먼지 가운데 있는 자, 곧 비천한 자 또는 고뇌하는 자와 반대된다.

“야훼여 당신은 나의 등불, 내 앞에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29절). 그분은 이해성을 계발해 주신다. 그러나 이해성은 고뇌 후가 아니면 결코 계발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둠 즉 거짓들이 흠트러진다. 그러나 어둠은 마음에 들러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탐욕과 죄 때문이다.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몰아내시는 거짓들을 계속 권유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도와 주시면 어떤 답이라도 뛰어 넘을 수 있고 나의 하느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못 넘을 답이 없습니다” (30절). 그가 적군을 향해 돌진하고 성벽을 뛰어 넘어 정복할 것이라는 말이다. 불경한 자는 자기들이 견고한 성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착각이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슨 잘못이 있으랴. 야훼의 말씀에 무슨 티가 있으랴. 피신해 오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31절). 인간이 의로워진 뒤의 모습이다. 그이유가 하느님-메시아가 인간과 영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는 “하느님이 어떡하시나면, as for God” 즉 하느님-메시아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분은 길, 성실, 고난을 견뎌낸 여호와와 말씀이라 불리운다. 이는 여호와와 말씀, 연단을 거친 분이 하느님-메시아임을 명백히 의미한다. 하느님-메시아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하느님은 야훼뿐, 바위가 되실 이는 우리 하느님,” (32절). 여호와만이 하느님이시다는 것, 하느님-메시아 안에는 신성이 충만되어 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 의해서 말씀은 만들어지고, 그분만이 바위이시다.

“나에게 힘을 입혀주시어 나무랄데 없이 살게 해주셨다” (33절). 피난처가 되신 것과 같이 힘이 되어 주셨다. 그분은 인간의 길을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고, 인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길만이 완전한 길이고 그분이 준비하신다.

“나의 발을 암사슴처럼 빠르게 하시어 산등성 위에 서게 해주셨다.” (34절). 발빠름이 여기서 취급되는데 그분은 길을 신속하게 준비하신다는 말이다. 발은 그들이 걷는 길이다. 나의 높은 장소에, 내 안의 영기에, 영기는 합리적 마음 위에 있고, 인간 안에서 높은 장소인데, 이 영기는 인간에게 참되고 선한 것을 이해하게 해준다.

“구리활을 쓸수있도록 나를 잘 조련시키셨다”(35절).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적을 분쇄하며 그들을 정복할 것인지를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의 팔이 구리활을 당길 수 있게 하신다. 즉 그분은 우리에게 구리활로 의미된 자연적 진리들을 이해하게 해주신다. 팔이란 이해성의 능력들이다. 이것이 인간의 힘인데 팔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구원의 방패를 이 손에 들려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어 굳세게 해주셨다” (36절). 구원의 방패란 구원하는 믿음이다. 고뇌는 나를 위대해지게 한다. 즉 고뇌는 믿음을 크게 만드는 이들을 생산한다. 고뇌하는 것이 메시아에 관해서 말해 지는바 그분이 인간을 위대해지게 만든다.

“내 발(발목)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 걸음을 크게 하셨다” (37절). 크게 한다는 것을 글자대로 볼 때 넓게 만드는 것이고, 걸음은 발로 의미되는 것인 삶을 넓힘으로 의미되는 것인 진리에 따르도록 가져다 놓는 것이다. 발목은 발처럼 마음의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부분과 상응된다. 그런고로 발이 미끄러지지 않음은 자연적 마음이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원수들을 쫓아가 멸망시켰다. 끝장 내고야 돌아섰다. 내가 때려 눕히니, 원수들은 발 밑에 쓰러져, 다시 일어서지 못하였다” (38,39절). 이런 것들은 인간이 믿음을 획득했을 때 뒤따른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고뇌 가운데에서 어둠의 권세와 투쟁하시되 정복할 때까지 원수들을 추격하시는 일을 계속하셨다. 어둠의 권세는 천국 위에 군림하려고, 아니 주님 위에 올라 서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계속해댄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복종시켜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 인간에 관련해 보면 주님의 적은 자연적 마음 속의 애정과 생각들이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진리와 선함의 권능에 종속되게 할 때까지 영적 믿음의 애정과 생각에 대항하려고 계속 노력해댄다.

“허리를 묶고 싸움터에 나갈 힘을 주시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끌리셨다. 내가 원수들의 목덜미를 잡고, 적수들의 숨통을 눌러 버리는데,” (40,41절). 여기서의 힘이란 믿음이다. 믿음으로 허리를 묶고 영적인 원수들을 복종하게 한다.

“살려 달라 울부짖어도 들어주는 이 없었다. 야훼께 부르짖어도 들은 체도 않으셨다. 나는 그것들을 먼지 처럼 박살내었고, 길바닥의 흙덩이 처럼 짓바수어 버렸다” (42,43절). 원수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복종시켜야 하는지이다. 메시아와 인간의 원수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 부르짖는 것은 보통이 아닌 일인 듯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귀신들린 자로부터 악령을 쫓아냈을 때 자기들을 깊은 곳으로 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는 대목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내 민족이 나를 반역할 때, 나를 그 손에서 건지셨고, 알지도 못하던 민족들이 나를 섬기도록 못나라에 영도자로 세워 주셨다” (44절). 이 모든 것을 결과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런 사항들은 믿음이 없는 것, 즉 의심에서 출발된다. “이교도의 우두머리로 세우셨다.” 내면에서, 최상의 의미에서 이교도의 우두머리는 하느님-메시아이시다. 알지도 못했던 민족들이란 믿음을 확증하는 모든 것, 지적 사항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이 동의하고 섬긴다는 말이다.

“이국 백성들은 내 앞에 와서 굽실거리며 무엇이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 (45절). 이 말들은 위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동의하고 순종하여 나에게 굽실거렸는데 이방인의 아들이라 불리우고, 믿음과 비교해 노예적이다.

“그들은 낮이 빠져 숨었던 요새에서 떨며 나오리라” (46절) 여기서 이방인의 다른 아들들, 즉 진리를 응용함도 없이 진리만을 소유한 이들이다. 이들은 보물을 즐길도 없이 그저 지키기만 한다. 이들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바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진리로부터 영적, 천적 진리들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그들이 보물을 지키고자 했던 “숨은 장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야훼님 만만세! 나의 바위는 칭송을 받으시라. 나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 하느님 높으시어라” (47절). 지금 다윗은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와 같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느님-메시아를 부르고 있다. 이는 신성한 노래들, 특히 주님의 기도에서 같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식이다.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엄숙한 표현이고, 여호와-하느님 만이 생명이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하느님-메시아만이 바위이시다. 하느님은 구원 즉 믿음의 바위이시다.

“내 원수를 갚으시고, 못민족을 내 앞에 끌리신 하느님,” (48절). 그분만이 인간이 해받을 것을 방어해주실 수 있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 참으로 믿음이 이런 결과를 산출하나 그분만이 믿음을 주신다.

“당신께서는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포악한 자들 손에서 건지시어 적대자들 위에 높이 주셨습니다” (49절). 앞 부분에서 서술되었던 글들이 반복되는데 이는 관습적이다. 마침내 해방이 놓여지고 있다. 원수들이란 악마의 무리들이다. 포악한 자란 악마이다.

“그러하오니 야훼님! 그 고마움을 어찌 만민에게 알리지 않고 하느님의 이름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50절). 감사의 고백이다. 이교도 사이에서 주께 감사한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한다. 고백하는 이들은 당신의 이름을 이교도 사이에서 노래할 것이다.

“하느님은 손수 기쁨부어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시고 한결 같은 사랑을 베푸십니

다. 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길이길이” (51절). 그분의 왕 즉 여호와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찬미하고 있다. 그분의 아들은 정의와 공적이다. 그분께서 손수 기름부은 자 다윗, 즉 하느님-메시아에게 자비를 보이신다. 그분께서 고통받았을 때 그분은 여호와 아버지의 자비에 관해 외치셨다. 아들 자신은 여호와와 기름부은 자이다. 그리고 왕 다윗이다. 그분의 후손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왕, 기름부어진자, 다윗은 왕의 아들들, 그러므로 왕들이라 불려지는 이들로 이해되어진다. 다윗이 하느님-메시아로 이해될 때 그 후손은 다윗의 후손에 적용된다. 그러나 왕의 아들이 다윗에 의해 의미된다면 후손은 믿음과 믿음에 소속되는 것들에 적용된다. 한편 시대(age)는 내적 의미에서 영원을 의미한다.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3,16절에서 설명되고 있다.

## 48

### 사무엘하 23장 1-6절

####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마지막 말은 분명히 예언적이다. 다윗의 이 언어들은 과거 저주해 달라는 발람의 부탁을 받은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후손에게 복을 빈 이야기와 놀랄만하게 흡사하다. 발람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지존하신 이의 생각을 깨치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환상을 뵈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이 눈에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 앞에 다가 올 일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를 부수고 셋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에돔은 그의 속국이 되고 세일은 그의 차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힘이 뻗치고 야곱은 원수들을 지배하며 아르에서 빠져 나온 피난민을 멸절시키리라” (민수기 24:15-19). 다윗과 발람 모두 지존하신 분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아 말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 말들은 예언으로서 뿐 아니라 예언적이라는 것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는데 충분하다. 특히 주님의 영이 자기를 수단으로 해서 말씀하신다는

선포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말한다고 하기 보다는 다윗 자신을 두고 말한 부분도 한 군데 있다. 즉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는 자,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왕노릇 할 자” 라는 구절이다. 그러나 이것도 세상에 막 오시게 되는 주님께 관련된 것임이 명확하면서도 다윗과 그의 가문에 관련해 나타나는 사실과도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다윗 자신은 솔로몬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표징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의 영광에 관한 것을 주님의 영으로부터 말하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살폈다. 이제는 영감된 그의 선언의 취지도 살펴보자.

가장 일반적인 견해 아래에서 이 예언을 다룬다면, 주님의 강림의 두 가지 대상과 결과는 신실한 자와의 언약의 성취, 또는 신실한 자들이 그분 자신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를 전복했던 이들을 종속시키고 제거하심이다.

주님의 교회(The Church)가 다윗의 가문으로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주님의 교회가 그분의 가문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가문과 더불어 길이 이어질 언약은 주님께서 육을 입으심이 그분 자신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 결과되게 하는 결합과 관련을 맺고 있다. 타락한 자의 아들들(the sons of Belial)은 특별히 어둠의 권세로 이해되어진다. 그러므로 이는 사악한 자 뿐 아니라 악령들, 즉 주님의 교회가 뒤집혀지고 파괴되도록 하는 영향력과 음모까지를 포함한다. 지옥 권세를 복종시킴이 사악한자가 내던져 깡그리 태워지는 가시나무로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옷을 입지 않은 신성, 순수한 신성으로서의 주님의 경우 위와 같은 결과가 있어질 수 없는바, 도구로서 인간 본성을 옷입으셔야만 했다. 이 사항이 사악한 자(sons of Belial)를 만지려면 맨손으로는 안되고 쇠꼬챙이나 창대를 가져야만 한다는 말에서 암시되고 있다. 주님의 인성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자녀가 교통할 수 있게 하는 매체였다. 이 도구의 힘을 수단으로 그분은 그분의 교회와 나라의 원수들을 대적하셨다. 주님은 육으로 만들어진 말씀, 인성으로 옷입혀진 말씀이셨다. 이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가 쇠꼬챙이(iron)로, 신성한 선함이 창대(staff of a spear)로 의미되고 있다. 이와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로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이 있다. 즉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구절의 쇠(iron)는 자연적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언의 보편적 의미와 일치되되 특별한 의미들이 각 부분 마다에 감추여 놓여 있다. 4절의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아침에 터져 오는 햇빛, 구름이 걷힌 아침의

해 같아, 이슬을 머금은 푸성귀가 땅에서 이 빛을 받아 자란다.”

일반적 의미에서 이 신성한 말들은 세상에 오시는 주님과 관계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분은 정의의 태양으로서 어리석은 세상에서 치료해주는 그분의 날개를 가지고 일어나셨고, 장막 위에 세세토록 가리워 내적 영광들을 감추이게 한 구름을 제거하셨고, 예징(type)과 그림자라는 베일을 찢으셔서 그분 자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진리의 빛을 발산하시어 참되고 생명 있는 믿음의 영적 계발이라는 새 날을 개시하셨다. 개인적 의미 일 경우, 이 사항들은 영과 말씀을 수단으로 오시는 주님에 관련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분은 회개하는 마음에 오시어 그분의 빛과 사랑을 그들 심정에 드리워 무지와 잘못의 어두움을 제거하고 진리와 선함의 새 날이 그 마음에서 동트게 하신 바, 새 삶의 징조가 여린 풀싹이 돌아 나듯 모습을 드러낸다.

위 사항들은 구름 없는 아침의 모습 같이 우리 삶에 장착된 축복들이다. 그러나 이런 축복들에는 영적 주권과 주님의 정부가 건설된 결과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것이 앞 절에서 이렇게 말해진다.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는 자.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왕노릇 할 자.” 인간의 통치자로서 주님 스스로에 한정해본다면 그분은 무한하게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백성들 위에서, 백성들 안에서 정의로 통치하신다. 주님의 정부는 각기 다른 마음 안에서 각기 달라진다. 어떤 이의 경우 그분은 정의로, 심판으로, 사랑으로, 두려움으로, 선함으로, 진리로 다스리신다. 근원적 차원에서 신성한 정부는 똑같다. 이 정부는 무한한 지혜를 수단으로 하는 무한한 사랑의 정부이다. 그러나 인간의 다양해지는 상태에 따라서 바뀐다. 주님께서 정의로 다스린다고 말해질 경우 이는 신성한 선함의 정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심정에서 있는 통치하시는 그분의 본성과 품질이 묘사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신성한 선함이 통치할 때, 이는 하느님을 두려워함으로 통치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원수같은 자로서의 하느님을 노예 같이 두려워함으로 통치되는게 아니라 모든 참된 사랑에 있는 거룩한 두려움(경외함), 사랑하는 대상이 다칠까 걱정하는 두려움으로 통치된다.

이와같은 정의로우신 하느님이 그분의 사랑과 두려움으로 꼭 찬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이는 마치 구름이 걷힌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의 햇빛 같이 오신다.

아침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을 상징한다. 즉 아침은 신성한 진리가 마음에 온화한 빛을 뿌리우고, 신성한 진리의 빛이 들추어 내준 천국의 이름다움과 하모니를 느낄 때를 상징한다. 성경에서의 아침은 영적인 평화의 내면의 상태, 즉 외부의 어떤 곤경이 사라져서 있게 되는

평화가 아닌 내향의 느낌으로부터 있게 되는 평정의 상태를 뾰족하게 상징한다. 거듭남은 평정(tranquility)의 상태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하루 중에서 동틀녘(dawn), 인생 중의 유아 시기에서 시작된다고 이해해도 된다. 따라서 거듭남은 한번에 결과되지 않고 한 개의 시리즈가 연속되는 가운데 발전을 거듭해 간다. 거듭남은 계속적인 상태들 안에 각기 구분되는 상태들의 이어짐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상태들의 그 각각은 전체에 대한 형상이다. 영혼의 삶은 육체의 삶과 상응된다. 영혼의 삶에도 출생이 있고 활동과 쉼, 잠들지 못할 때도, 휴식을 취할 때도 있다. 상태들 역시 시간처럼 한 개 한 개의 회전을 수단으로 형성되고 측정되어진다. 각 상태들은 각기 아침, 정오, 저녁과 밤이 있다. 이런 은택스러운 순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능력들은 즉시 상쇄함으로 기운이 돋구어져 기꺼이 개선되어 간다. 상태들과 그것의 발전도 시간의 진행과 기간을 생산하는 것과 유추되는 원인으로부터 생산되어진다. 참으로 해가 낮을 생산하고, 밤과 낮이 구별되게 한다. 하루의 때를 만드는 것은 태양의 고도의 차이이다. 태양 그 자체에만 의존한다면 영구적으로 빛을 발하는바, 결국 낮만 있겠지만 하루의 때를 만드는 것은 지구의 공전이다. 이는 주님과 그분의 창조 사이에서도 실체로 똑같다. 하느님 안에서는 어떤 변화도, 어떤 다양함도, 어떤 회전함에 따른 그림자도 없다. 그분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영원하다. 그분의 태양은 인간의 모든 자손들에게 불변하는 공평함에서 빛을 내신다. 어둠이 태양에 의해 생산된 게 아니듯 빛의 없음이 어둠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해서 빛이 어둠을 생산했다고 말할 수 없다. 어둠은 태양으로부터 그 스스로를 돌림으로써 심정과 이해성에 올 수 있는 주님의 영향력을 배척함으로 발생된다. 도덕적, 영적 어둠은 영혼과 하느님 사이에 자아가 옴으로, 즉 그분께서 인간으로 그분의 빛과 생명을 지각하고 받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던 자질과 주님 사이에 인간의 이기심이 서있음으로 야기되어진다. 영적 어두움이 인간의 부패된 이기심을 끼워 넣음으로 야기되는바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너의 죄가 너와 하느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의 불법이 너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가리웠다.” 따라서 갖가지 수준에서 있는 회미함도 인간 이기심의 활동으로 발생된다. 거듭남이 드높아 질수록 그의 이기심은 중립화 되고 결국은 무력해지는 수준에도 이른다 천국에서조차 주님 보시기에 이기심이 깨끗해 있지는 않다. 그 이유가 인간이 천사 안에 있는바, 천사는 인간의 불완전함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의 이기심이 모든 영적 어둠과 회미함의 원인이요 그 바탕이라면 회미함의 수준은 이기심의 활성화된 수준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기심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밤이고, 미미하게 활동할 때는 아침이요, 낮은 저녁 쪽으로 전진하여 다시 밤이 된다. 거듭남에 관련해 볼 때 천사들의 경우 진짜 밤은 없다. 그 이유가 비록 그들이 밤 같은 상태를 경험할 지라도, 그것은 태양이 부재 중이라해도 태양빛이 아직 남아 있는 수준에서의 밤 같은 상태, 즉 마음에 새로움과 휴식을 주는 정도의 상대적인 희미함인 황혼 같은 정도일 것이다. 다시 말해 천사들의 희미함이나 어둠의 경험은 힘을 비축하고 능력을 확장하여 새 날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의무에 활력과 즐거움이라는 풍미를 주게 된다.

영적 상태의 아침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에서 취급되고 있다. 주님이 구름 없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의 햇빛으로 말해지고 있다. 주님은 아침을 출생하게 하는 떠오르는 태양이시다. 그 이유가 그분의 떠오르심은 심정의 애정 안에서 드높이기 때문이다. 이 드높임은 마음 안에서 우월함을 그분께 바치는 셈이 된다. 결국 그분에게 마음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을 주게 된다. 이는 내향의 마음에 빛과 평화가 확산되는 결과가 있게 된다. 주님을 드높이려는 많은 권고들은 심정 안에서 그분을 드높이는 것과 모두 관계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어떤 다른 방법에서 실지로 드높일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가 심정과 이해성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 선함과 진리, 정의와 공정을 드높일 때 실지로 주님을 드높인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드높혀 질 때 주님이 드높혀진다. 사랑과 지혜가 우리 안에 거주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그 이유가 신성한 존재(Divine Being)는 그분의 것이 존재하는 곳, 또는 그분 자신으로부터인 것에서만 거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와 공정은 자기를 낮추고 깊이 회개하는 심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처소에서 그분의 옥좌가 있는 주소지이다. 정의와 공정은 마음 안에 그분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그 것들 안에서만 그분은 드높혀지실 수 있다.

어떻게 정의와 공정(justice and judgment)의 원리가 드높혀 질까? 정의와 공정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 혐오하고 피함으로 가능해진다. 주님은 단지 헌신하는 행동이나 정신적 흥분만으로 드높혀 지실 수 없다. 우리 속 그분의 거주지의 기초는 겸손과 자기 비난으로 깔려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드높임의 구조를 짜는 품위들은 각각 자기 부정을 받침대로 하여야만 한다. 겸손해진 자아를 지니기도 전에 하느님을 드높이겠다는 생각은 헛된 것이요 그 노력은 결실이 없는데, 이런 착각 때문에 진정한 하느님을 드높임은 교회에서, 교인의 생활에서 매우 적어진다. 그렇다면 어디에 참된 드높임의 증거나 결실이 있는 걸까? 그 결실은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드높임이 진실로 있어질 경우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미덕들이 생활 안에서

우세해질 때 있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은유함, 친절함, 관용, 타인의 복지와 자신의 복지를 최소한 동등하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등등 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주님을 드높임의 참된 결과요 인간의 참된 겸손의 결과이다. 그 이유가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드높인다고 말하는 것은 자만심이나 자아 정의에 대해 비웃는 것이다. 자신의 정의는 최소한 남들의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이들은 실상 그들 자신을 위한 지식을 조금밖에 얻지 못하고 하느님에 관한 지식은 더욱 덜 얻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지식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타인을 좀 더 높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든 확실한 결과이다. 사실 세상에서의 실습은 이와 정반대 일 때가 오히려 정상인 듯 되어 있다.

우리가 구름 없는 아침의 새벽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마음을 쭈석거리고 흐리게 하는 악한 열정들을 복종시키고,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가 빛과 평화를 주도록 지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특이한 의무이다. 우리가 악 속의 자신을 거부한다면 하느님께서 선함을 이식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품위 있어지기를 기다리신다. 우리의 이기심 속 품위 없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그것들이 제거될 때 까지 그분은 기다리셔야만 한다.

악이 내향의 삶에서 저항을 받고, 바깥쪽 행동에서도 단념되지 않는 한, 어떤 선한 것도 내향의 삶에서 조차 이식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식이 결과된 후에는 또다른 중요하고 복된 일들이 결과된다. 우리가 그분께 성실해 있는 동안 주님에 의해 내적 인간 안으로 은근히 심어진 선은 외적 인간으로 내려와진다. 생각과 애정 속의 선은 바깥쪽 삶이나 대화, 그리고 일 속의 선을 만들어 간다. 이것이 “이슬을 머금은 푸성귀가 땅에서 돌아 나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이 대목은 하느님의 말씀 전체를 망라하여 흐르는 유추의 체계에 대한 아름다운 예도 된다. 하늘(heaven)은 영적 마음을 상징해주고 땅(earth)은 자연적 마음을 상징해주고 있다. 진리는 비처럼 영적 마음의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연적 마음의 땅으로 떨어져 땅으로 열매 있게 한다.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이 닳혔다고 읽을 때가 있다. 그 이유가 영적 마음이 악에 의해 실지로 닳혀지면 천국의 진리는 자연적 마음으로 내려올 수 없는바 영적 가뭄과 기근이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이런 신성한 약속도 읽는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예를 가져온다면 그분은 하늘의 창문을 여시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지상에서 열매 있게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는 비 뿐만 아니라 햇빛도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삶으로 결실을 거두는 데에는 진리 뿐만 아니라 사랑도 있어야 한다. 부드러운 풀잎은 비가 뿌려진 뒤 청량한 햇빛을 받아 자란다. 영적으로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진리는 선함 안에 우리의 선함이 있게 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유용하다. 사랑 없는 진리는 햇빛 없는 비와도 같아 결실이 없게 된다. 삶 속에서 성장과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진리의 비가 정직한 심정의 선함을 적신 후 청량하게 빛나는 사랑의 햇빛이다.

마음 자체에서 있는 위의 관계는 서로서로의 인간 관계에서도 똑같다. 서로 교제하는데 있어서도 서로가 신뢰를 주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은바 우리는 서로 사랑되어질 필요가 있다. 진리는 그 자체 만으로도 매우 귀중한바 그 스스로 존재하고 배분될 경우 진리는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 대해 차갑고 비 생산적일 뿐이나 사랑의 영향 아래서는 강력하게 생산적이다. 젊은 이들의 심정에 사랑을 주지 않은 채 그들 지성에 진리만을 준다면 거기에 무엇이 형성되어질까? 젊은 생명의 성장에는 진리의 비 만큼이나 절실한 게 사랑의 햇빛 아닐까? 이는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고 영적 형제 다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리는 삶의 모든 관계에서 실지 유용함의 필수적 요소이나 사랑은 그 요소들을 하나되게 한다.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완전한 가르침과 훈계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선생은 진리의 사람일 뿐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목표여야 한다. 그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충실해야 하고 그 교훈들을 지키게 해야 하나 그가 진리의 비가 뿌려진 후 청명한 사랑의 햇빛을 주지 않으면 그의 거룩한 직무수행의 최말단 결과로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선함의 생산에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선생,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야 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가르침과 본보기를 하나로 하셨는지!!

## 49

### 사무엘하 23장 8-29

#### 다윗의 세 용사가 베들레헴의 샘에서 물을 가져오다

다윗 군대 장군들의 공적이 23장의 뒷부분에서 주요한 논제를 형성하고 있다. 21절 까지에서 는 괄목할만한 용사들의 공적을 열거하고 있다. 비상한 용맹과 그 숨씨들은 이스라엘의 적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데 대단히 소중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용사들의 품위는 칭송되어지고 그들의 기사도 정신이 찬양받도록명령

될 것이다. 아직 까지도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경에 있는 전쟁과 역전의 용사에 관한 것들은 국가 간의 싸움이나 용사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 그 이상의 주제를 응시해보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의도되어 있다. 이런 기록들은 내향의 싸움, 즉 영적 전투를 구성하는 요소인 영적인 빛과 어둠의 원리들 사이에 있는 싸움을 숙고해보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려 하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싸운다. 그 이유는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싸움 자체의 근본적인 운명은 전투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 안에서 결정되어진다. 우리 내부에 원인의 세계가 있고 우리 외부에 결과의 세계가 존재한다.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악을 정복하고 선의 제국을 건설한다면 서로 싸워야 하는 것도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하이다면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극복하기를 바랄 것인바 서로를 향한 행동 역시 비세상적이 될는지 모른다. 기독 신앙의 원 저자는 기독인의 삶과 품성의 모범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내향의 경험과 외향의 삶 모두에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분은 세상을 정복하여 그분께 순종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할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은 이 목적이 결과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깥쪽 육체적인 싸움을 수단으로 해서가 아니라 내향의 영적 싸움에 의해 그 목적을 추구하셨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세상 것들에 저항하시고 정복하셨다. 그와 동시에 똑같은 행동에서 그분은 어둠의 왕국이 세속적 마음을 통해 동료들을 공격하도록 부추키는 것을 극복하심으로 그 왕국을 복종시키셨다. 구세주께서는 인류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 입으신 타락한 인성의 원리와 내향적으로 싸우시는 동안 그분의 삶은 가장 순수한 사랑과 덕행의 하나이셨다. 그분의 싸움은 내부에서 있었고 바깥쪽에서는 자비와 평화가 그분 삶에서 더욱 돋구어 지셨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품성일진대 이것이 기독인의 품성도 되어야 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고난을 받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정복하신 세상은 제자들이 정복해야 할 세상, 즉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이다.

이 전투가 영적 차원일진대 그 싸움에서 사용되는 도구나 대리인 역시 영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육욕적인 무기가 아닌 하느님의 영의 칼, 즉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병기를 들고 싸운다. 이런 성별되고 강력한 도구는 용사에 의해 휘둘러지는 게 아니라 강력한 원리에 의해 사용되어진다. 비범한 힘을 내재한 원리란 사랑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이다. 이 원리는 선함, 온유함, 겸손함, 인내함, 진지함, 단순함, 성실함, 신중함 등등의 다양한 형체들로 구성되고 위대한

행위의 수행이나 위대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열정으로 옷입혀져 있다. 이런 원리를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고유의 집안 식구인 영적인 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신다. 우리는 자연적 이해성과 심정 안에 불레셋, 에집트인, 심지어 들짐승 까지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가짜 총명, 거짓 과학, 야망적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우리의 유전적인 본성을 근거지로 해서 거의 동시에 튀어 나오기도 한다. 거대한 원리인 하느님의 권능과 지혜를 제치고 자기 고유의 능력만을 신뢰하여 뽑내는 개인적인 지혜의 자량은 그 형태를 어떻게 취하든지 자아 신뢰의 부모에 해당된다. 인생의 목적과 그 마무리는 단지 인간적 지혜와 능숙함에 의해 달성된다는 생각, 심정의 운유함이나 지성의 겸비함은 총명의 부족을 때우려드는 또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상상하도록 강요당한다. 이런 것들이 참 이스라엘을 풀벌레 따위로 여긴 르바임과 아나킴이다.

이 대목에서 거론되는 장소는 과거 불레셋 군대가 진을 친 르바임 골짜기였다. 그 시대는 오래 전 이스라엘이 다윗을 기름부워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는 때였다. 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읽어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부어 왕으로 모셨다는 말을 듣고 불레셋군은 다윗을 잡으려고 쳐올라 왔다.....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을 때 불레셋군은 이미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들람 동굴은 다윗의 초기 시절 그가 사울을 피해 은신했던 곳인데 이 대목에서도 같은 곳을 언급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가 겪은 시험과 크나큰 정신적 고통의 상태를 시편 142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사옵니다. 도망칠 길마저 모두 막혔는데 내 목숨을 근심해주는 사람 하나 없사옵니다.” 본문의 상황에서는 사울이 아닌 또다른 적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사울을 죽인 불레셋이 사울의 계승자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 때 다윗은 산채로 피신해 있었고 불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불레셋 수비대는 아들람 동굴에서 과히 멀지 않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이 때의 경우는 비록 그가 강력한 적군에 포위되고 감시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초기 시절 “목숨을 걱정해주는 자 아무도 없는” 상황과는 아주 다르다. 이스라엘이 모두 그의 편이었기 때문이다. “삼십 인 부대 가운데 세 용사가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아들람 동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 갔다.” 이때의 기후 상황은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땅은 바짝 말라 있었다. 동굴을 굳게 닫은채 침거한 다윗은 목이 몹시 말라 있었다. 따라서 그가 늘 마셨던 베들레헴 성문 근처의 샘의 물이 그의 눈 앞에 아른거려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 물을 길어다 줄

사람이 없겠느냐?” 지금이라해도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목마름을 경험해보았으리라 생각된다. 이 때 마시는 물은 온 몸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그럴 때 그는 맑은 샘물은 하느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아주 값진 자연계의 선물이라고 단언할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목마름은 정신적 목마름과도 유추된다. 즉 지식으로서만이 아닌 진리의 바람은 마시기를 애타게 바라는 것 같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신적 목마름이다. 이 바람이 열렬한데도 결핍되어 있다면 견딜 수 없는 정도이기도 하다. 건전치 못한 마음에서는 결핍을 채우는데 오로지 지식만을 바란다. 물론 그 바람은 각기 다른 마음에서 아주 다양해 있다. 모든 마음에 공통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지식을 사랑함 일 것이다. 지식을 사랑함에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는 지식의 개별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다. 과학자는 과학 지식을, 변호사는 법적 지식을, 의사는 의학 지식을, 등등 각기 특별한 기능에 관련지어 지식을 사랑함이 있다. 급기야 악행자도 악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지식을 축적한다. 이런 저런 모든 경우에서 지식을 바람은 각기 특수 분야에서 목마른 자가 물을 바라는 정도 이상 열렬하고 고생 까지 감내한다.

이렇게 정신적 목마름 또는 자연적 지식을 사랑함도 열렬할진대, 영적 지식의 바람은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 한층 더 열렬하리라. 바람의 열렬함이 그 대상의 특출함에 견주어 더 증가한다면, 종교적 바람은 모든 바람 중에서도 가장 높고 열렬할 것임에 틀림 없다. 만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필시 당사자가 종교적 문제, 종교 생활의 추구, 또는 종교적 희망을 실감해 보려는 바람이 열렬해 있지 않은 연유일 뿐이다. 우리가 생명과 불멸을 진실로 높이 평가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빛으로 가져오게 하는 지식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가 바라는 지식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 영혼과 생명수 사이의 교통을 차단한다면 심각한 결핍을 느끼게 되고 우리 영혼은 깊은 곤경과 고통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적인 지식은 종교학이라 불리는 것, 성경의 교리들에 관한 지식이 아니다. 영적인 지식이란 우리가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다는 것, 영원한 죽음을 걱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도록 진실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지식이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과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다. 과학의 물은 마음에 만족이라는 감각을 나누어 주는 수단으로 바람직하나 생명의 물은 영혼이 영적인 존재임을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서 바람직하다. 전자의 결핍은 쾌락의 결핍일 뿐이고, 후자의 결핍은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결핍이다. 신성한 진리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시험은

진리의 삶에 진입하는 이들, 즉 진리가 삶의 수단인 이들에 의해 체험되어질 뿐이다. 이와같은 시험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수난에서 겪으신 것들이다. 다윗이 싸우고 시련받고 고통당하는 등등은 세상에 오신 주님에 대한 예징인바 본문의 경우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적들의 총공세에 짓눌려 있듯, 주님도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로 둘러 싸여 총공세를 당하셨다. 이 시험에서 어둠의 권세는 정작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인류 구원을 자포자기하도록 구세주를 공격했다. 그러나 창조물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열렬한 그분의 바람은 고통 받는 인성 안에서 생산되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육체의 지독한 갈증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마음의 쓰리고 아픈 바람을 표현하신 것이다. 그분의 목마름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신 것, 그 바람을 달성하시는 수단을 확고히 붙잡기 위한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더구나 이 바람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였다. 또한 그분의 목마름은 생명의 물을 위해서였다. 그 이유가 그분의 바람은 그분이 시험 가운데에서 공히 필요로 했던 생명 있는 진리로 그분의 인성을 채우는 것, 목말라 하는 그분의 자녀에게 생명의 샘이 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의 샘물 또한 주님과 그분의 백성들에 관련하여 예증되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베들레헴은 글자대로라면 “빵의 집, the house of bread”을 의미한다. 본문의 경우에는 물의 집과 관련되고 있다. 주님이 탄생하신 장소, 베들레헴은 그분이 생명의 빵이심을 가리키고 있고, 그분 안에는 생명수의 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의 제자가 자연계의 빵이나 물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경우, 이는 베들레헴의 샘의 물을 마시고 싶어함이고, 이는 우리 영혼이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생명의 샘의 물을 마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샘의 물이란 그분의 신성한 인성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진행되는 생명 있는 진리이다. 다윗이 마시고 싶어한 샘은 글자대로 보면 베들레헴의 성문 근처에 있었다. 문은 소개함(introductory)이다. 이로부터 주님은 자신을 문이라 부르신다. 그분의 문은 그분의 인성이다.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영원한 신성에 접근하게 하는 매체이다. 그분의 인성 그 자체는 샘, 인간이 필요한 것을 퍼낼 수 있는 샘이다.

다윗이 베들레헴의 샘의 물을 마시고 싶어한 대목이 비록 그 결과는 부하 용사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긴 했어도 그 나름대로 의미를 담고 있다. 다윗의 삼십 인 용사 중 세 명이 왕의 말을 듣고 “불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와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아뢰께 부어드렸다.”

자연스럽게 생각해본다면 다윗은 세 용사의 대단한 행동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신중함이 결여된 행동으로 간주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가 이 행동에 따른 위험도는 성취되는 목적에 비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다윗의 의지와 판단은 물을 길으러 가는게 아니라 가서는 안되는 쪽에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영적 사항에서도 종종 벌어진다. 우리는 신중함으로 조절되지 않은 열정의 열렬함으로 행동해버리고는 후에 그 행동 조치를 냉정하게 반성해볼 때 이해성이 그 행위를 승인하지 않았을 법한 경우가 많다.

마음의 움직임, 그로부터 결과되는 삶에서도 안쪽 인간과 바깥쪽 인간의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안쪽 인간은 마음의 더 높고 더 평화로운 영역을 점령하고 있다. 바깥쪽 인간은 땅을 밟고 땀흘려 종사하고, 자극적인 흥분을 감당해야 하고 삶의 폭풍을 견뎌야 한다. 안쪽 인간은 우리의 원리들, 양심, 즉 본질적이고 통치하는 생명에 자리를 잡고 있다. 바깥쪽 인간은 원리나 목적 보다 더 많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움직인다. 영혼의 정부리는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 안쪽 인간은 입법부에 속하고 바깥쪽 인간은 행정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안쪽 인간으로부터 삶의 법칙이 출현하고 바깥쪽 인간은 안쪽 인간의 뜻을 해석하고 그 법칙을 집행한다. 바깥쪽 인간은 수동적인 도구가 아닌 총명하고 반작용이 있는 대행인이다. 우리의 안쪽 인간은 그의 바램을 표현하고 그의 법칙을 확실히 말하고, 바깥쪽 인간은 안쪽 인간의 선언을 해석하고 집행해 간다. 그러나 바깥쪽 인간이 안쪽 인간의 선언을 언제나 올바르게 해석하거나 또한 언제나 신뢰 있게 집행하는 것도 아니다. 참으로 두 인간의 차이는 대단히 곤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대중적인 추세가 아주 강해지면 기존의 법을 재해석하거나 도전을 하듯 우리의 자연적 인간도 내적 인간의 뜻을 수정하려 듣거나 철저히 반항하려드는 경우가 있다. 안쪽 인간과 바깥쪽 인간 사이의 작용 반작용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상호 작용의 결과로 그 품성은 거듭나는 삶의 각기 다른 단계들에서 있다. 즉 자연적 마음이 매우 거칠고 성급하며 강렬한 열정이 있는 초기 단계, 그러나 이 단계들은 천국적 사랑과 진리의 온순하고 편안한 멍에에 익숙해지는 후기 단계와 재회된다. 이 후기 단계에서 안쪽 인간과 바깥쪽 인간은 하나로서 행동한다. 합일된 이 행동은 거듭남을 구성하는바 진정한 평화와 확실한 행복을 창출한다. 이 합일된 행동은 대리인과 피대리인을 뒤섞어 놓는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는지 모른다. 즉 자연적 마음과 영적 마음, 안쪽 인간과 바깥쪽 인간이 더 조화를 이루고 합일할 때, 그들은 더 구분된

품성과 행동을 획득한다. 그들 사이에 그어진 선(line)은 더 확연해지는데 각각의 기능 역시 더욱 확연히 구분되어 작동된다. 안쪽 인간이 더욱 안쪽으로 물러가지만 바깥쪽 인간에 대한 행동은 더 강력하다. 안쪽 인간이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는바 삶의 위협과 싸움으로부터 더욱 안전하다. 우리가 기독인이 더욱 되어질수록 제이무리 그의 자연적 인간이 바깥쪽 환란으로 고통받는다 해도 그는 내향의 평화의 고요함을 더욱 향유한다. 다윗이 거인의 후손과 대진하여 위태로워졌을 때 다윗의 용사가 거인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네가 이스라엘의 불을 끄지 못하도록 너를 전투에 나서지 못하게 하리라.”

거듭남이 발전해 가는 동안 자연적 마음의 많은 반작용이 영적 마음의 작용을 불완전하게 표현한다. 마음 속의 바람이 열정과 에너지를 수반하여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지혜 까지도 언제나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있다.

다윗이 베들레헬 우물의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했다가 마음을 바꾸어 이 물을 “야훼께 부어드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물을 마셨다가는 야훼께 벌을 받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피나 다름 없는 물을 내가 어찌 마시랴!” 목숨을 거는 위험을 무릅쓰고 획득한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인간 희생 제물의 피를 수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같은 희생이 종교적 열정의 열매일는지 모르나 종교적 지혜가 크게 모자라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희생은 대단히 큰 희생이다. 인간의 희생을 하느님이 열납함, 특히 자발적인 인간의 희생을 수납함은 인간의 혼이 신성한 본질에 흡수되는 것, 가장 높은 진리의 타락은 그 자체 큰 잘못이라는 관념을 표현할는지 모른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제물로서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 심정 속의 애정과 생활 속의 노동을 그분의 섬김에 헌신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주님과와의 결합을 달성하려 분투 노력하라고 말한다. 이런 노력은 우리가 더욱 그분의 것일 때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임을 더 구분하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베들레헬 우물 물은 그 물을 획득한 이들의 피로서 주님께 붓는 것은 그들의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요,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물을 성별하기 위해 그분을 찾는 것이고 이 물은 그분의 섬김에 쓰여야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물을 붓는 것은 우리로 이런 진리, 즉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물이 땅에 부어지면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게 한다. 인간은 생명을 줄 수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생명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이다. 자연적 생명의 숨쉬고 거둬나가는 생명 속의 영은 동등하게 하느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모든 선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건하게 인정하는 영을 다윗 같이 그분에게 부여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수여하시는 품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실수가 있었을 때, 비록 지혜가 우리로 도전하지 말라 해도 우리의 열정이 강행할 때, 우리에게 명백하고 또렷하게 말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성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50

### 사무엘하 24장 1-15절

#### 병적을 조사한 다윗의 죄와 그에 대한 벌

유대 역사의 품성에 관한 올바른 판단은 유대교라는 하느님의 처방을 곁들여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각 처방은 우선 그 처방이 건설된 이들의 시대와 그 백성의 이익에 부합되고 있다. 동시에 장차 내려질 처방의 그림자 수준에서 표현했다. 그러나 이 처방은 진짜 주님의 교회의 실체에 관한 것은 거의 아무 것도 내포하고 있지 않았다.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이 모든 것, 그리고 그들에게 발생했던 것들은 그 처방보다 더 높고 더 순수한 처방의 특질로서 영적 상태와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

다윗의 범죄를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는 백성에 의해 표현된 것, 백성의 수를 센 것(병적 조사)이 무엇을 표현했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영적인 주님의 교회(spiritual Church)를 표현했다.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마치 어린 양(Lamb)의 열 두 사도 처럼 주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선함과 진리의 모든 원리들, 또는 모든 품위와 덕목(grace and virtue)을 표현했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그 지파나 사도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벽과 문에 새겨져 있다. 주님의 교회는 각 개인의 마음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군중 속에도 존재하는바 이스라엘 백성은 거둬나가는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왕국을 구성하는 무수한 선과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성서에서 수를 센다고 할 경우 이는 어떤 것을 구성하는 몇 개의 부분들과 무수한 세부

사항의 본성과 품질을 아는 것, 그리고 한 개의 완전한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당한 질서 안에 있는 각 부분들과 세부적인 것들을 배치하는 것도 의미한다.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를 셀 경우, 이는 한 개의 마음이 천국의 한 부분이 되도록 거듭나는 마음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의 모든 원리들이 배치되고 정렬되는 것을 표현한다. 수를 셈 (numbering)의 영적 의미, 그것이 표현하는 배열(arrangement)의 본성은 성경에서 자주 취급되어져 있다. 이사야 40장에서 말해지는바, 주님께서는 별들을 세시고 그것 모두를 이름지어 부른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 경우에서의 셈은 하늘 군대를 창조하신 분께서 완전한 질서로 배치하여 별로 가득한 온 하늘을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만드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떠받치고 그분의 지혜로 운행되는 것을 뜻한다. 별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거듭나는 마음의 하늘에 놓인 그분의 말씀 속의 순수한 진리들을 놓으시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권능과 선함을 명백히 드러내 신성한 진리를 배열하시어 조화와 질서의 상태에서 위의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신성한 권능의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들 뿐이다. 말씀 속의 진리 그 자체는 신성한 배열의 주체이고, 이를 수단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와 하모니되고 하나를 이루는 증거가 획득된다. 수를 셈의 영적 의미에 관한 또 다른 예는 신약 성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어두셨다는 구절이다. 이는 하느님의 용의주도하심이 얼마나 세세하신지에 관해서인데 하느님의 지식과 용의주도하심은 우리의 심정 상태와 삶의 형편, 생각과 애정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뻗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참된 모든 제자의 마음 안에서 선함과 진리의 원리들은 대단히 잘 배열되고 정돈된다는 것, 따라서 영혼의 영적 복지가 더 잘 증진되도록 하는 쪽에 더 적합하도록 하느님의 통치가 실시된다는 것 까지 우리로 알게 해준다.

이스라엘 후손의 수를 셈은 거듭나는 자의 마음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들이 배열되고 정돈되는 것을 표현한다. 이를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거듭나는 자와 함께 현존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이와같은 영적인 배열은 하느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일 속에서 어떤 법칙에 의거한 배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의 권능은 이 배열을 수단으로 하느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신다. 태양계는 흐트러져 있지 않고 행성 운동 역시 어떤 고정된 법칙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영혼과 마음의 도구요, 감정과 움직임을

담아내는 우리의 신체도 합일되고 조화된 행동을 위해 상호 의존하고 긴밀하게 관계하는 질서 속에서 각 부분들이 배열되고 있다. 인간의 자연적 마음은 세상의 형상을 취하고 있고, 영적 마음은 천국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바, 재 창조 또는 거듭남을 수단으로 천국이 되어 간다. 선한 모든 애정, 진리의 지각은 천국의 형태로 정렬되고 천국 질서에 따르느바, 거듭나는 마음은 아주 작은 규모의 천국을 만든다. 그 이유가 천사들의 천국은 한 명의 인간 같고, 그 속의 모든 거주민은 멤버로서 제각기의 진리를 지니면서 선용(use)을 위해 각자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한다. 이런 완전한 정렬은 질서 자체이신 신성한 완전함으로부터 결과되는 질서의 법칙으로 생산되고 보존되어진다. 천국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완전한 정부로서 합일과 조화, 축복의 상태에서 보존되고 있다. 거듭나는 마음이 지니는 천국적 질서에 비례하여 천국과 똑같은 행복이 그에게도 체험되어진다.

거듭남으로써 마음에 소개되는 위의 질서의 세부사항들은 거듭나는 자 자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세부사항들이 그들의 지각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일반적인 영적 배열을 아는 것은 가능하다. 마음을 신체에 비교해 생각해 보면, 거듭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는 주님을 사랑함, 가슴은 이웃을 사랑함, 아래 부분은 세상을 사랑함, 발은 자아를 사랑함에 해당된다. 이 질서가 존재하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통치하고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은 앞 두 사랑을 섬긴다. 이것이 천국의 질서이다.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하느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에 종속되어 있으면 자기 명예나 이득은 사랑과 이타애의 법칙인 공정과 공평의 법칙의 승인 없이는 추구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 마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와 천국 원리의 이런 질서는 단번에 도달되는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작업의 결과이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와 꼭 반대의 질서에 있다. 자연적 사람 안에서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은 머리 부분에 해당되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발에 해당된다. 자연적 사람일지라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품새가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경건하고 도덕적일 수도 있다. 인간은 점진적 등차에 의하지 않고는 천국의 질서으로 회복되어질 수 없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눈에 보이고 있는 이웃을 사랑함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거듭나는 상황에 진입해 있는 이들의 마음에 소개된 질서의 첫 번째 결과는 세상을 사랑함 보다 하느님을 사랑함을 더 드높이는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함이 마음의 최 상위에 있는 것은 영적 삶과 질서에서 더 높은 등차이다. 거듭나는 자가 주체인 두 개의 다른 임무가 신성한 명령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두 개의

구분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셈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처음 실시된 것은 이 백성들이 에집트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두 번째 수를 셈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에 앞서 즉각 실시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회했던 사막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 영적 시험과 자기 부정을 표현했다. 여행을 시작하는 초기에 백성의 수를 셈은 시험을 견디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되, 이는 이해성에 있는 진리의 배열로 영적 질서의 설립을 표현했다. 두 번째의 수를 셈은 시험의 결과로 뒤따라 오는 거듭남의 더 완전한 질서, 즉 사랑과 이타애가 통치하는 질서이다.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마음의 윗 자리에 있는 한 아무도 영적 시험을 치뤄낼 수 없다. 그 이유가 악을 사랑하는 자가 악에 저항할 수 없고, 사탄이 사탄을 추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성한 질서의 어떤 것이 마음으로 시험을 수행해 가도록 도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질서는 의지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해성에서라도 세상과 자아 사랑 위에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드높여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위의 사항이 영적 삶에서의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전부는 아니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선함과 진리, 참된 질서는 주님만으로부터 입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인정함의 필요성이 인구 조사 때 재앙을 면하기 위해 자기 목숨 값을 성소 세겔로 셈하여 반 세겔을 주님께 바치도록 모세에게 지시한 법에 표현되고 있다 (출애굽기 30:12,13). 은 조각을 바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타애의 선과 믿음 속의 진리 모두는 주님만으로부터 입을 인정하는 것을 표현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표현한 것인지 이제 가늠될 것이다. 다윗이 수를 셈 것은 하느님의 명령을 받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백성의 수를 세는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이 시험은 하느님이 부추킨 듯 말씀의 글자로부터 표현되고 있으나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 단지 인간의 욕심이 자신을 몰아 부쳐 결과된다는 것이 진짜 진리이다. 역대기 상 21장 1절에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병적을 조사할 마음을 품게 했다”고 기록되고 있다. 다윗이 요압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병적 조사를 강행한 것은 인간은 자신이 알거나 소유하고 있는 선함과 진리의 권위나 공적이 자기로부터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죄를 짓는 것을 표현했다. 이럴 경우 선하고 참되게 가는 거듭남이 중단된다. 인간의 자연적인 지혜와 의지는 하느님의 지혜와 의지에 반대되어 있는바, 하느님의 특권을 갈라 놓거나 파괴한다.

이 악 자체는 아주 다양한 형체 아래에서 탐지되고 있다. 이 악은 인간의 지혜가 올바르게

하느님의 지혜는 불완전한 듯 하느님의 통치를 비난하도록 불신앙자를 대담하게 자극한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신앙자라는 부류, 즉 다양한 종파를 출현시킨 이들에서도 발생된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의 진리를 억지로 꿰맞추고 그 진리를 자기들만의 독점물이라도 된 듯 주창하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까지 주창해댄다. 이런 악은 이교라든가 불신앙의 문에만 놓여 있는게 아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은 참된 기독 제자들의 마음과 삶을 위해 건립되어 있는 신성한 정부의 질서에 자아 총명이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부추켜 시험에 노출시키고 죄를 짓게 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다. 이렇게 알랑거리 부추켜 야기되는 결과는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자주 놓여진다. 특히 본문의 역사물에서도 매우 놀랄만하게 우리 앞에 가져와 놓이고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바 거기에 따른 경고와 훈계 역시 뒤따를 것은 의심할 바 없으리라. 이 악들 중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만큼 사기성이 강한게 없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 중 사랑과 진리 만한 보물은 어디에도 없다. 변질이라는 타락 만큼 더 대단한 타락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백성의 수를 셈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에 초래된 벌, 불순종에 뒤따르는 참담한 처벌의 사건을 보다 수익성 있는 쪽에서 생각해보자. 처벌만 떼어내 생각해 보면 이 벌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꼭 비례되는 듯 여겨지지 않는다. 질서 자체이신 분이 그분이신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는 무관하게 행동하실리 없다. 단지 현재의 우리와 그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상황 만이 다를 뿐이다. 그 당시의 경우, 즉각적이고 눈에 보일 수 있게 원인의 뒤를 따랐다. 현 시대의 경우 영적이고 도덕적인 원인으로부터의 결과는 점차적으로 많은 경우에서 눈에 띄지 않게 발달될 뿐이다. 비록 이 대목에서 범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죄값은 백성들이 치르고 있다. 그럼에도 관계 그 자체가 서술하는 바로는 이런 다윗의 행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존재했던 악의 결과였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리실 일이 있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대의 병적을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 이 구절을 놓고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에 세워 두셨던 권위, 즉 그들이 긴급한 간청을 받으시는 권위에 도전하도록 부추켜진 것이다.

병적 조사가 끝났을 때, 예언자 가드는 다윗을 찾아 갔고, 병적 조사의 결과로서 일어나질 처벌을 선택하게 했다. 즉 칠 년 동안의 기근이나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 다니거나, 사흘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다. 이 벌은 병적 조사가 표현한 악의 결과를 의미했다. 삼 년 기근은 신성한 질서의 이런 파괴, 즉 신성한

질서가 마음 가운데 건립된 뒤, 그들로부터 믿음의 진리와 사랑의 선 모두가 박탈되는 것이다. 적들을 피해 석 달 동안 피해다니는 악과 거짓들이 신성한 질서가 파괴된 마음을 계속 귀찮게 하는 것이다. 삼 일 동안의 염병은 유아기 때에 받았던 선과 진리의 아껴두신 것까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다윗은 마지막 재앙을 선택했다. 물론 이 선택이 신성한 섭리에 속해 있다는 의심할 바 없다. 첫째로 이는 주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 사이에서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선과 진리는 거의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의미는 더 내면적인 바 모든 인간 마음 안에서 영적 질서가 뒤집혀 영적 생명이 깡그리 파괴되는 것, 인간이 자유로부터 이성애 의거 행동하기 전 획득되었던 영적 생명까지 포함해서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황폐해지는 본성과 그 정도가 염병으로 죽어간 사람의 숫자에 표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7은 거룩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70은 거룩함이 예보한 것을 표현하는 숫자이다. 숫자 10은 숫자 7로 의미된 거룩함에 관한 생각들을 드높일 뿐 아니라 본문의 경우 같이 파괴되어 버린 거룩한 원리들 자체를 표현해준다. 숫자 10은 십 계명에 속하는 것, 선함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 율법과 예언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두 계명,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함에 관련된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십 계명은 생활의 법칙이요 젊은 이들의 마음에 맨 처음 각인되어지는 의무들인 바, 십 계명은 발전되어 가는 삶의 기간 동안 마음 안에 남아 있어야 하고 보존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영적 생활이 시작될 때 계명은 새로운 상태의 기초(rudiment)들이다. 따라서 거듭남의 모든 과정은 이 기초 없이 시작될 수 없는 바 대단히 중요하다. 마음에 남아 있는 영적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경향성과 천국에 속한 것들의 양과 질은 그에 따른 선함과 진리를 받는 용적이기도 하다.

일반적 차원에서 주님의 교회, 또는 그 속의 교인들이 성실함에서 타락 쪽으로 기울어 종교의 유효함이나 주님의 교회의 견실함의 기반인 질서가 뒤집힐 때, 잘 보존되고 있던 선하고 참된 것들은 더 적어지고 더 유약해지면서 끝내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즉 처음에는 살아 있지만 마지막에는 죽는 것이다. 그것들이 멸해진다면 합리적 존재로서의 인류는 중단되고 멸망해진다. 영적 인간이 되어 가는 참 능력이 파괴된다는 말이다. “주의 천사들이 비록 매우 적지만 아껴둔 게 없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처지였으리라.” 보통의 교회(a church), 또는 인간 존재에서 이 아껴둬서 영적 생명이 기능을 발휘 못할 정도로 아주 적어질 때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은 주님의 교회를 끝낸다. 유대 교회에서의 이런 상태가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떨어져 다윗이 그들의 수를 세도록 부추켜졌다는 것에서 암시되고

있다. 하느님의 분노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하느님의 속성과 품성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분이 다윗으로 수를 세도록 움직인 것은 질서가 뒤집힘에서 있는 당연한 결과이다. 죄지음에 따른 처벌은 선함과 진리의 거룩한 원리가 파괴되는 것,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 가는 것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해낼 선과 진리에 관한 거룩한 원리의 아껴두신 것 까지 파괴되는 것이다. 염병으로 죽어 간 칠 만이란 슬기롭고 자비로운 어떤 목적을 위해 거두어 지는 것, 동시에 그것은 표징적인 심판이었다. 그리고 그 속의 역사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씌어져 있다.

## 51

### 사무엘하 24장 16-25절

#### 백성을 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남겨두다

이 장의 앞에서 두 세부사항, 즉 백성의 수를 센 다윗의 죄와 벌을 살폈는데 이 사항과 본문의 두 사항 즉 예루살렘을 보존하신 것,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은 것을 연관지어 살펴 보는게 유용할 것 같다. 이 제단을 세운 의도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재앙을 멈추게 해서 예루살렘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예언자 가드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으십시오.....다윗은....야훼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그제야 야훼께서는 나라를 위하여 비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재앙을 거두셨다.”

이 본문 외에도 성경에 있는 재앙과 재난들은 주님이 분노하신 탓으로 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번져가는 것을 막으려면 주님의 분노를 달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거역하는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16장 일 것이다. 세 반역자와 그의 집안 식구를 삼켜버린,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야훼의 백성을 죽을 지경에 몰아 넣었다고 불평하였다....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빠져나오너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리리라.’ 모세는 큰 일이 벌어질 줄 눈치채고 이를 막을 심산으로 아론에게 말했다.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워 가지고 어서 회중 있는데로 가서 그들이 죄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 주시오.’ 그러나 재앙은 이미 이 백성 가운데 번졌고...그는 염병이 물러갈 때까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서있었다.” 이미 살핀 바대로 주님의 분노는 주님의 교회와 그 교인들에 의해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뒤집혀지고 거절되는 것을 함축하는 표현이다. 모든 축복과 보호가 주님으로부터요, 그것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이들에 의해 경험되듯, 모든 영적인 불행과 재난 역시 사랑과 믿음의 대상(Object)으로서의 그분을 거절한 결과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생명이 있는바, 그분을 거절함은 죽음이다. 영적인 반역, 그분이 권위 있으심을 부인하는 것, 철면피하게 계명을 위반함은 우리를 분노의 주체로 만든다. 그이유가 그 위반은 주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것과 상호 교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인류를 고쳐놓게 하는 모든 영적 재앙이 비롯된다. 마음이 악의 영향을 받아들여 악한 원리가 지배하게 될 때 질병과 죽음은 의지와 이해성에 침투한다. 이런 재난은 주님과의 재회와 결합 빼놓고는 막을 방도가 없다. 이것이 성서에서 속죄, 죄값(atonement)으로 의미되고 있다. 속죄는 참된 영적 예배를 수단으로 가능하고 효력을 발휘한다. 자연적 수준에서, 또는 유대 교회 수준의 경우, 죄값은 인간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누구려트려지는 것인 듯, 하느님이 인간과 재회하는 것인 듯 비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성을 내신 분이 하느님이신바 먼저 화해하실 분도 하느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또는 영적 의미의 수준일 경우 하느님에게는 분노 자체가 없다는 것, 분노는 인간에게만 있는바, 화해 역시 인간이 주님께 청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신약 성서의 교리는 이러하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이 그분께 재회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서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귀여지 않게 하신다.” 그다음 사도들에게 말한다. “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수단으로 너에게 청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특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에 너에게 간원하는바 너는 하느님과 화해하라.” 다윗이 어리석게 처신하여 죄지었음을 인정했듯, 우리의 악을 회개하고, 아론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자신의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웠듯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보존해주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말고 어떻게 주님과의 화해가 이뤄질 수 있을까? 가장 높은 의미에서 대 사제로서의 아론은 주님 자신을 표현했다. 우리의 위대한 대 사제로서 주님께서서는 생명 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계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참되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거룩한 불로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 속의 모든 생각과 애정에 생명을 주입하심으로 구원해주시고저 모든 인간의 영혼과 함께 현존하신다.

신성한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질 때 영혼이 보전된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언자를 통해 자기에게 명령된 사항, 즉 제단을 쌓고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을 때 “주님은 예루살렘을 치려던 천사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라고 명령하셨다. 이쯤해서 우리는 왜 천사가 파괴자였는지를 물어보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 자신이 파괴자 쪽에서 행동하시는 것으로 표현된 것에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에집트 사람의 장자가 죽은 것은 여호와 자신에 의해 결과된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 또는 그분의 천사는 인간의 영혼이나 신체를 파괴하실 수 없다. 재앙,疫病, 전쟁은 악의 결과요 선한 천사가 아닌 악한 천사에 속하는 중개인에 의해 결과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재앙의 타를 하느님이나 그분의 천사들에게 돌릴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의 글자 수준에서의 모든 것이나 사건들, 악한 것이나 재난 같은 사건들 까지 하느님의 탓인데 그이유는 하느님은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시다는 일반적 진리에 일치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 진리 아래 특수한 진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분명한 차이를 밝혀 알게 한다. 하느님이 아니면 만물이 존재 않는다고 볼 때 그분은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를 창조하신 셈이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천국을 통해, 악한 것은 지옥을 통해 유지존속된다. 하느님이 유일한 세상의 통치자이시나 그분은 설비해주심(provision)의 법칙 뿐 아니라 허용하심(permission)의 법칙을 수단으로 통치하신다. 그분께서는 선한 것은 설비해주시고 악한 것은 허용해주신다. 허용하시는 이유는 악한 것을 교정하거나 억누르려 해서이다. 그러나 재난은 선한 영이 아닌 악한 영의 대리인을 통해 온다. 악령에게 허용이 있는 반면 천사들은 파괴가 덜되도록 하려 골몰한다. 악한 영이 바람직한 일을 거들어 줄리 없다. 지옥은 파괴의 일만을 위해 돌진할 뿐이다. 따라서 주님의 조절하시는 권능이 아니면 세상은 멸망의 구렁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성한 지혜가 하느님의 허용의 정도를 기능하고, 악마의 권능에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주님에게는 우리 처럼 생각을 돌이키심, 뉘우침(repent)이 없다. 그러나 기록된 글자 뉘우침에는 신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인간에게 있는 뉘우침은 하느님 안에서는 자비(mercy)이다. 용서를 비는 인간이 있으면 그분에게는 그것을 수여하심이 있다.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는 이렇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유한한 것은 변하지만 무한한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 그분은 냉대하심에서 자비하심으로 바뀌시지 않는다. 그분이 자비로워져 가는 일은 결코 없다. 그분은 자비 자체이신바 그분의 자비는 언제나 동일하다. 단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분이

성을 내신 듯 여겨지고, 인간이 뉘우칠 때 그분이 자비로워지신 듯 비칠 뿐이다. 다시 말해 주님을 향한 인간의 상태가 인간을 향한 주님의 상태를 생산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느님이 자비롭고 용서하시게 만드는데 필요한 전부는 그분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인간의 심정과 삶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의 고집과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야훼의 천사가 손을 뻗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자, 야훼께서 재앙을 내리시려던 생각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죽이는 천사에게 명령하셨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 증거제가 안치된 성막이 세워져 있는 거룩한 성이다. 그래서 이 성은 일반적 의미에서는 주님의 교회(the Church)를, 세부적 의미에서는 마음의 내면들(the interiors)을 표현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가 파멸되어질 경우 완전한 끝장을 허용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시작도 있을 수 없다. 시험을 견디어 가는 이들의 파멸 과정에서 주님께서서는 내적 인간을 악령의 권능으로부터 보존하신다. 그이유가 만일 파괴하는 천사가 내적 인간까지 파괴한다면 구원의 능력과 수단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현 대목의 상황이 지닌 일반적, 세부적 의미에 관해 말해 보자. 백성의 수를 세고 그에 따른 파괴는 유대 교회의 남용과 종말을 표현했다. 이 주님의 교회의 종말의 완성이 재앙으로 죽어간 백성의 숫자에서 의미되고 있다. 제단에서 제물을 바침으로 결과된 그 교회의 보전은 유대 교회의 회복 또는 보전을 나타내는게 아니라 그 장소에 새로운 주님의 교회(a new Church)가 일으켜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단은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세워졌다.

여부스족은 과거 주님께서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된 가나안 족들 중의 하나이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요새였다. 다윗이 이 성을 빼앗았을 때 그 부족은 절멸되지 않았는데 그 잔류민은 유대인들과 함께 계속 거기서 거주해왔다. 비록 통치권은 이스라엘에게 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살도록 허용된 두 부족이 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오도록 계약을 맺은 히위족, 또하나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여부스족이다. 이 두 부족은 보존되었는데, 그들은 비록 우상을 섬기지만 선하고 참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이들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된 종교의 원리의 어떤 것이 이식되어질 수 있는 이방인이었다. 여부스족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세우도록 다윗에게 요구된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말을 맞는 주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단이 아라우나의 마당에 세워지고 제물이 바쳐질 때까지 염병이 계속된 것은 기독교 처방이

개시됨으로 쓸모 없이 만드는 퇴폐가 중단될 때까지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하강은 계속된다는 것을 표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의 파괴가 멈춘 곳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다. 천사가 서있던 지점, 그리고 그 위에 제단이 쌓여졌는데, 후에는 솔로몬의 성전도 세워졌다. 역대기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은 주님이 선 왕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 성전은 주님의 인성 (Lord's Humanity), 그분의 육체(His Body)에 관한 표징이다. 제단 역시 같은 의미를 지녔으나 이런 차이는 있다. 성전은 진리 측면에서의 그분의 인성을, 제단은 선함 측면에서의 그분의 인성을 표현했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 번제단은 성전 쪽에서 볼 때 동쪽 뜰에 놓였고, 분향단은 지성소내, 쯤빵이 놓이는 쯤상 가까이에 있었다. 성전과 성막의 제일 중요한 용도는 주님이 모세에게 지시된 예식에 의거 예배되는 것이었다. 제단은 예배가 실시되고, 제물이 놓여져 예배자가 정결되는 예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셨다.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나?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나?” (마태복음 23:19). 주님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 안에 거하신다. 마치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었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제단과도 같은 그분의 인성을 통해 예배의 제물을 본질적인 신성에 바쳐지고 이를 수단으로 우리는 거룩해져 주님께서 응낙하실 수 있다. 제단과 성전의 이런 표징적인 품성을 알게 되면 왜 제단이 여부스족 아라우나의 마당에 세워지고 세워진 그 마당에서 파괴하던 천사의 손이 멈추었는지도 이해된다. 예루살렘 자체는 보존되었다. 그런 이유는 이미 언급한바 대로 주님은 그분의 모든 처방에서 완벽히 끝장이 있지 않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교회가 부패되어 종말을 맞이한다 해도 새로운 교회의 개시를 위해 그 아껴두신 것(remnant)은 구원되어진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전의 교회가 끝을 맞았을 때 새로운 처방은 시작될 수 없었으리라. 따라서 어떤 처방도, 어떤 주님의 교회도 생명의 절멸 또는 종료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단지 심판을 수단으로 옛교회에 종말이 오되 어떤 씨앗의 생명은 남겨지고, 아껴진 옛교회의 것이 새로운 교회를 건설한다. 주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말하시어 가르치시고 있다. “이런 날들을 줄여 주시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살아 남을 수 없다. 그러나 주께서는 뽑으신 백성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재난의 날들이 짧아짐은 주님의 교회가 그 부패의 연속으로 급기야 절멸을 맞기 전 그 끝을 맺는 것이다. 유대 교회의 아껴두신 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기독교의 시작을 형성하셨다. 그분의 첫 제자들도 유대 국가로부터이다.

위와 비슷한 섭리는 일반적인 주님의 교회 뿐아니라 인류의 개개인도 관장하고 있다. 백성의 수를 세고, 그로 인해 야기된 염병은 확증된 악한 삶에 폭 빠진 이들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끝을 맞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들의 모든 선함과 진리, 어린 시절로부터 획득했던 선함과 진리 까지 파괴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서 조차 조그만 잔여물이 보존되게 하신다. 그 이유가 인간으로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것, 즉 자유와 합리성이 라는 자질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도 남겨지는 어떤 것이 있음을 계시록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다섯 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파괴하는 천사라 해도 절멸이 있기 직전 그의 손이 멈춰진다. 세상의 인간이 설사 자신의 선함과 진리가 깡그리 사라진 듯 여겨져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사라진채 내동댕이 쳐지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모든 심판은 인간을 교정을 통해 겸허와 회개의 상태를 확보하여 결국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고 있다. 죄인이 주님께 되돌아 오는 수단인 회개와 예배가 다윗의 것들로 의미되고 있다. 제단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세워졌다. 그이유는 타작 마당은 진리의 선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교리에 관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교리를 의미하고, 곡식은 영적 생활을 주요하게 지탱시켜 주는 선을 의미한다. 그이유가 그곳에서 밀은 겨와 분리되기 때문이다. 또한 타작 마당은 시험을 의미하는데, 그이유는 영적 시험들을 수단으로 마음과 생활에서 악과 거짓의 분리가 있어지기 때문이다. 참된 예배의 제단, 이를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이 있고, 그러므로해서 그분의 구속과 구원의 모든 혜택이 있고, 이 혜택은 그분의 신성한 인성 안에서 그분 자신에 의해 분배되는바, 제단은 진리의 선 안에서, 또는 신실한 믿음에 의해 획득된 이타애 안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여부스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세우는 이스라엘 국가의 겸손함과 뉘우침은 파괴하는 염병을 멈추게 하고 있는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거룩함에서 주님께 뉘우치는 예배는 영적 시련과 시험으로 세련되고 순수해진 신실한 선함의 원리로부터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개인 차원에서 관찰해 본다면, 다윗은 인간의 지성(intellect)을 의미한다. 그가 백성을 세는 것은 자연적 수준의 의지, 또는 이기심 아래에서 지성이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회하는 예배에서 인간의 지성은 신성한 의지에 겸허히 복종하는 상태에로 가져와진 의지의 영향 아래 행동한다. 이해성이 자아 의지로부터 행동하면 악한 결과는 당연히 뒤따른다는 것, 그러나 이해성이 겸손한 심정과 연합하여 행동하면 선함과 축복이

그 결과이다.

## 52

### 열왕기상 1장 1-5절

#### 수넴 여자 아비삭이 다윗의 시중을 들다

본 장의 주제는 그 속성이 매우 민감한 지라 주의깊은 사려가 있어야 할 줄로 본다. 우선 순수한 모든 것은 순수할 뿐이다는 다윗 자신의 말을 되새겨 보자.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취급한 앞 장에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해 보았다. 사실 본문의 주제는 앞 부분에서 살핀 것과는 폭넓게 다르다. 사실 도덕적 차원에서만 본문을 생각한다면 언어넬 교훈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글자적 의미를 넘어서 본문을 좀더 세심히 생각하면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는 더 높고 더 교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채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 대목 그리고 여타 다른 영감된 말씀의 글자 의미에서 우리의 감정이 매우 민감해진다 해도 불순한 말씀은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준다. “솔로몬의 아가서의 글자 의미에는 외설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책이라 불리는 신성한 말씀과는 다르다”고 스페텐봄이 지적해주고 있다. 어쨌든 모세와 예언서들의 글자 의미의 일부 어떤 부분에 관한 우리의 견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글자는 내적 의미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바 우리는 그 속의 영적 의미는 거룩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한가지 알아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글자 의미는 영적 의미를 내포할 뿐아니라 마음을 자연적인 형상으로부터 물러나게 해서 더 높은 실재에 고정시켜 주려는 경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글자 의미는 영적 의미를 납득하게 하는 수단도 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다윗의 일생이 이제 마감되는 순간에 이르고 있다. 생기어린 붉은 불의 얼굴과 용감무쌍했던 초년을 지냈던 그가 세월에 부딪쳐 이제는 무척 늙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온기마저 거의 식어가고 있다. 그의 생명은 거의 꺼져가고 있는바, 온기를 보존해보고져 “이불을 덮었으나 몸이 덥지 않게 되었다.” 이런 급한 상황에 이르자 신하들은 몸을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묘책을 짜냈다. 따뜻함과 생기를 유약해져 버린 늙은 골격에 나누어주는

수단으로 고대 시대 때 흔히 사용했던 방법이다. 어찌됐던 우리의 시선이 주변 상황을 잘 주시해보도록 하려는 경향이 대화체 줄거리의 표면에서 묻어나고 있다. 왜 왕의 수종자가 하필 어린 처녀여야 했을까? 생명의 불이 급히 꺼져가고 있는데 왜 전국을 찾아 헤매 아리따운 여자를 구해, 그녀로 다윗의 임종을 지키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보전토록 했을까? 왕의 수종을 들고 몸을 훈훈하게 하려는 것이 처녀를 구한 이유의 전부라면 하고 많은 후궁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충당되고도 남을 법하지 않을까?

진실인즉, 위 사건의 모든 정황은 예정적이거나 표징적이라는 것이다. 다윗은 주님을 표현했고, 수넴 여자 아비삭은 그분의 교회를 표현했다.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계승하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굴복시킨 전투 용사의 삶과 통치의 뒤를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통치가 있고 있다. 다윗의 경우는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 즉 그분의 교회의 영적인 적들과 싸우심으로 그 적들을 발 아래 꿇게 한 육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준다. 솔로몬의 경우는 일어나신 인성 안에 계신 주님, 승리로 얻은 전리품과 구속하는 사랑의 보물로 풍성해진 그분의 왕국에서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예정을 볼 수 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어 성취하신 목적 중 하나는 새로운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교회는 젊고 생기 있고 아리따웠는바 이것이 젊고 아리따운 아비삭으로 표현되어졌다.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주고받음(reciprocation)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구분지워 주는 특성중 하나요, 가장 높은 기능 중 하나이다. 이것이 “왕을 모시고 시중을 들게 되었다”로 표현되었다.

주제에 관한 위와 같은 일반적 관점 아래 이를 확증하고 예증하는 몇 개의 세부사항들이 있다.

죽음, 이는 글자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끝나고 저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시작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남의 상태가 마감되고 또 다른 거듭남의 상태가 개시되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졌다”는 접근하는 생의 바뀔을 위해 자유 의지와 지성의 삶이 무르익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생명력(vitality)은 더 순수하고, 더 감수성이 있고, 더 에너지가 있는 또 다른 삶을 계승하기 위해서 외적인 것을 내려 놓고자 점점 쇠퇴해져 간다. 이는 진보에 관한 신성한 법칙이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보편적이고 바뀔 수 없는 법칙의 결과 중 하나이고, 이 법칙은 확실한 구분을 맺어 주기에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법칙이다. 사실 죽음은 이전에 우리에게 별로 감명을 주지 못하고 삶을 통과해온 수많은 선택 보다

덜 중요한 사건이다. 죽음은 우리 존재의 무대 배경을 바꾸지 않고, 단지 우리 삶의 상태가 교체되는 것이다. 죽음은 뒤에 남겨진 물질적인 것 대신 영의 몸을 갖게 한다. 그러나 영혼(soul)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나 똑같다. 발전적인 거듭남에 의해 결과된 변화들이 상태의 변화들이다. 이 변화는 옛 원리들이라는 옷을 벗게 하고 새 원리로 옷입게 한다. 마음의 능력을 명백해지도록 하는 도구 역할을 해온 육체의 것들은 그것의 씹씹이가 수행됐을 때, 그것들은 늦가을의 나뭇잎 같이 떨어질 신호도 보내지 못한채 물러나고 만다. 열의 감소는 나무가지 끝에 있는 수액의 감소를 일으키고, 엄습하는 찬 서리는 나뭇잎을 급히 떨어지게 한다.

이런 일들의 진행 과정에는 두 가지 미는 힘(force)이 있다.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힘이다. 이 둘은 외견상으로는 하나일 뿐이다. 이 두 힘은 마치 여름의 열기가 식물의 에너지의 원인인 듯, 육체의 열기가 생명의 원인인 듯 나타난다. 식물과 동물의 첫째기는 근원이 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물로 들어가는 보편적 생명이다. 자연의 태양열은 사물의 바깥쪽에만 관여할 뿐이지만 동시에 내부로부터 꾸준히 작동하는 천국의 태양의 영향을 들춰지게 해준다. 이것이야말로 만물을 살고 자라게 하는 진실로 유일한 생기 있는 힘이다. 봄과 여름은 이 생기력에 합세하는바, 만물은 싹이 돋고 꽃피워 기쁨이 있다. 가을, 특히 겨울은 이 생기력에 반대하여 작용하는바 모든 것은 시들고 죽는다. 인간의 경우 역시 똑같다. 육 안에 계셨을 때의 주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신성은 내부로부터 작용했고, 인성은 외부로부터 작용했다. 주님의 교회의 봄과 여름에는 인간 종족의 사랑이 하느님의 능동적인 사랑에 합세하여 작용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번영을 즐겼고,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 냉기(cold)로 덧칠해졌을 때, 비록 신성한 사랑이 내부로부터는 꾸준히 작용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애정과 삶 안에 그 사랑을 명백히 보여줄 수 없었다.

이런 상태가 말씀의 글자에서는 마치 하느님 자신이 그분의 교회로부터 그분의 사랑을 거두어 가신 듯 묘사되어져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의 교회가 그 자신으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내몰아 낼 때, 그 교회는 마치 하느님이 교회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듯 상상하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열은 사랑의 상징물이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덥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많아진 다윗은 체열이 없었다. 이 다윗은 그분의 교회 안에 주님 자신의 사랑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없을 때 세상에 계신 주님을 표현했다. 육체를 위한 덮개, 또는 이불,

옷은 마음을 위한 진리의 상징물이다. 그 이유가 진리는 옷이 신체를 싸듯이 선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을 덮어준 이불은 선이 없는 진리, 또는 사랑 없는 믿음을 표현했다. 이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또는 주님의 교회에서 신성한 사랑이 생기 있는 행동으로 불러낼 수 있는 미덕도,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특히 주님이 세상을 통과하시는 때의 유대 교회의 상태였다. 유대인들은 말씀에 내포된 진리에 친숙해 있었으나 그들 안에 하느님을 사랑함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말씀 속의 진리들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되었다. 그들이 소유한 말씀의 진리는 말라 비틀어지도록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또는 자색 모시옷을 입은 부자와 같았다.

주님은 유대 교회로부터 사랑을 얻을 수 없으시자 이방인에게로 향하셨다. 그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 신실함, 단순함, 애정 등등을 이방인들에게서 발견하셨다. 주님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으키신 기독 교회가 수넴 여자 아비삭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유대 교회는 제 아무리 점수를 넉넉히 계산한다해도 표현적인 주님의 교회(representative Church) 그 이상은 결코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는 살아 있는 육체와 그 육체를 싸고 있는 옷을 비교할 때의 그 의복 수준 이상은 절대 아니었다. 이 교회가 썩게 되었을 때 예언서에서 말했듯 그 교회는 불결한 옷 같았다. 참된 상태의 주님의 교회는 여인, 주님의 신부, 아내였다. 아비삭, 젊은 처녀, 아리따움은 기독 교회에 꼭맞는 표현, 즉 새롭고 순수하고 공평함에 어울린다.

“신하들은 아리따운 동녀를 찾아 이스라엘 전국을 누벼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구해 왕에게 데려왔다.”

수넴 여자가 구약 시대 동안에서 주님을 표현한 사람의 시중을 들었던 예는 이곳 말고도 더 있다. 엘리사가 자기 동네를 지날 때마다 집에 들러 식사를 하도록 간청한 수넴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은 남편과 함께 옥상에 작은 방을 꾸미고, 침대와 상, 의자와 등을 갖추어서 엘리사가 묵을 수 있게 했다. 이런 후한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녀에게 아들을 갖게 했는데 이 아들이 들판에서 아버지와 함께 추수하는 곳에 갔다가 쓰러져 죽자, 그의 생명을 다시 일으킨 기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수넴 여인은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예징했다. 그녀의 불임(barreness)은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방인 세계의 상태를 표현했다. 주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 주님의 진리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가문의 후손을 이어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를 기쁘게 한 참된 교리인 사내 아이가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보내는 시대의 완성(consummation of age)인 추수철에 죽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교회로 하여금 더 순수한 기쁨과 더 심오한 존경과 은택의 영감으로 휩싸이게 하셨다 (열왕기상 4장).

다윗이 아버식을 아내로서 취했지만 실지로는 처녀로서 솔로몬의 아내로 되었는데, 이는 주님이 다시 일어나시고 완전히 영화하신 후에야 주님의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로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준다. 성령 강림절이 되어서야 주님이 그분의 교회에 이르신 약속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후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바대로 그분은 빛과 생명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with)하셨고 지금은 그들 안에(in) 거주하신다. 그들과 영원히 함께 머무실 또다른 위로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들을 떠나가야 하는게 상책이었다. 이 영은 그들이 한 장소에서 하나로 일치되어 모여 있을 때 부여졌다. 이리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러 나갔다.

본문의 상황에 대한 또다른 설명도 있다. 수넵 여자 아버식은 천적 수준의 주님의 교회(the celestial Church)를 표현했다. 솔로몬이 천적 수준의 원리, 그리고 천적 수준의 인간에 관한 주님을 표현했는데, 그녀는 다윗과는 실지로 하나될 수 없고 솔로몬과 하나되었다.

다윗과 수넵 여자도 성서의 다른 부분처럼 일반적 차원과 세부적 차원에서 주님의 교회를 표현한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의 참된 멤버 한 사람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신실한 자들의 전체 사이에도 계신다. 주님께서 인류 구속이라는 위대한 해방을 위해 작업하시는 동안 거둬가는 각 사람 안에 있는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경이로운 작업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믿음과 진리 만이 아닌 사랑과 선함이 동반되어야 함을 배운다. 천적 수준의 따뜻함과 신성한 사랑은 우리가 그 따뜻함과 사랑을 흠모하고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버틸 수 없다. 신성한 사랑 그 자체는 영원히 똑같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흠모하고 상호 작용하느냐에 따라, 또는 그것을 형식적인 믿음과 말로만 드높여지는 대상으로만 삼느냐에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차이로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온 지역, 즉 영적 마음의 모든 곳을 뒤지어 순수한 영적 애정, 동녀를 찾아 왕, 즉 마음 안의 신성한 진리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신성한 진리를 따뜻하게 하고 시중들게 해서 하느님의 구원의 권능이 펼쳐지도록, 사랑으로부터의 진리를 우리 안에 더 만들어야 하리라.

## 열왕기상 1장 5-31절

## 아도니아의 반역

다윗의 죽음이 임박해지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심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압살롬의 경우는 왕위 계승이 아닌 왕위 찬탈이었다. 아도니아의 경우는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기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알고 왕위를 가로채려는 것이다. 아도니아의 이런 행동은 다윗의 가문을 쪼개고 지도급 인사들을 둘로 쪼개 서로 적이되게 해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요압이 아도니아편을 들게 된 결과는 당장의 범죄 뿐만 아니라 오래 전의 그의 행위, 용서될수 없고 잊혀질 수 없는 그의 행위에 대한 응보였다. 본장의 주제 그 자체는 너무 크고 한 관점에서 다루기에는 세부사항들이 너무나 다양한바, 한정된 페이지로 압축되도록 노력해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국이 주님의 왕국을 표현한다는 점, 특히 주님께서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하실 때의 왕국을 표현한다는 것에 관련해보면 본 주제가 영원히 살아 간다는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를 위해 흥미있고 유용한 영적 교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해준다. 계시나 심오한 철학 같은 것을 동원하지 않아도 역사는 인간 본성의 상태의 구체화임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하느님 만이 아시는 개개인의 상태나 그 영원한 결과를 추측해보지 않아도 집합체로서의 인간 공동체에 있는 인간 심정의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 읽어 내릴 수도 있다. 거룩한 역사와 신성 모독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세에서의 거룩한 역사는 인간 본성의 상태를 나열한다. 그래서 그 역사는 썩은 인간 심정, 부끄러워해야할 고통스런 교훈 등을 자주 나열한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자연계의 사건들은 우리 자신의 내향의 영적인 경험에 있는 영계의 사건과 실지로 상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바깥쪽의 우리 자신의 사건들 자체는 어떤 임의적인 법령 또는 강제적인 조절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들은 변화하지 않는 법칙, 신성한 섭리의 역사, 즉 인간 의지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는 채로 두시는 법칙과 일치를 이룬다. 따라서 인간 각자 스스로 풀고 헤쳐가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결단력은 수천 가지 방법 안에서 섭리적으로

행동해낸다. 영감되어 기록된 말씀 역시 이런식으로 골격이 짜여져 있고, 말씀 속의 사건 역시 그렇게 선발되었고, 이것이 영적 진리의 그릇을 형성하고 이 영적 진리는 유추(analogy), 또는 상응(correspondence)을 수단으로 이끌려 나온다.

다윗과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다룰 때 우리는 다윗과 아비삭이 표현했던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관련된 것을 주요하게 유추해 보았다. 현 주제 역시 주님과 그분의 교회 또는 왕국과 관련되고 있다. 이미 살핀 압살롬의 반역의 경우에서 같이 아도니아의 음모의 경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창조물의 구속을 역사하시는 가운데 고통받았던 시험의 본성을 보게 된다. 이 시험은 사탄, 악마, 또는 어둠의 권능이라는 유혹자를 이겨내시기 위해 그분 자신에 입혔던 인간의 유약함에서 직접 도출됐다. 고통받고 이겨내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시는 것, 결국 인간들 스스로도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본문같은 역사적 상황은 우리들, 그리고 천국에 입장하는 이들에게 이 역사의 주위를살펴보게 하고 있다. 그이유가 “제자가 스승 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 해지고 종이 주인만 해지면 그것으로넉넉하다. 집주인을 가리켜 베엘제불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그 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들 못하겠느냐?” 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0:24-25).

주님께서서는 복음의 원리의 필수적 결과를 말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원수다” (마태복음 10:34-36). 이와같이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와 기타 사람들에게 분열의 씨를 뿌리기 위해, 집안 식구를 자기원수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셨을 때 이는 우리 속의 육적 욕망인 옛사람과 영적 애정을 가진 새사람은 갈라서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받은 영적 결과를 지적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께서서는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말하셨을 때, 이는 땅으로 의미된 자연적 마음 안에 생산되어야 할 결과, 즉 선과 악 사이의 다툼, 진리와 오류 사이의 다툼, 이를 수단으로 악과 오류는 내던져지고 선과 진리는 확증되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 나라가 내려오는 결과를 언급하셨다.

아도니아가 표출한 기독교인의 마음의 상황에 대한 예징 또는 본보기화됨은 오래전 다윗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빚어낸 죄값으로 그에게 선포된 심판이 실현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때의 선포 내용은 “네 집안에서 너에게 대드는 적을 일으키어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 이었다 (사무엘하 12:11). 집안에 있는 적들이란 영적 마음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연적 마음 속의 원리들이다. 이 원리들은 신실한 자들의 영혼 안에 건설하시려는 새로운 왕국에 속하는 더 높고 더 순수한 원리를 수여하시는 신성한 진리, 신성한 질서의 권위를 아예 빼앗으려 하고 있다. 솔로몬에게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권좌를 빼앗아 보겠다고 시도하는 아도니아는 솔로몬 자신이 표현한 것과 정반대되는 마음 안의 원리를 표현했을 것이다. 어쨌든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신성시되는 역사에 연결되어 언급되는바, 그들의 범죄도 양상이 비슷하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했고, 아도니아는 그의 형제를 향해 음모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의 음모가 표현한 악의 본성은 첫째 아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역과 대비해 봄으로 더 명백히 살필 수 있으리라.

아도니아의 용모에 대한 서술과 권좌를 빼앗겠다는 계락을 서술하는 이 장의 6절이 말한다. “아도니아는 매우 잘 생긴데다가.....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다.” 그리고 역대기상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섯 아들을 가졌는데 그중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술왕 탈매의 딸 마야가에게서, 하깃에게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얻었다.” 이런 세부사항과 그들의 일반적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우는바, 그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머무름 때 태어났다는 것, 모두가 용모가 빼어났고, 왕위 계승 서열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 둘 다 아버지의 귀여움을받았다는 것, 그런데 그들 모두 아버지에 맞섰다는 것 등등이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은 거듭나고 있는 사람이 외적 상태에 있는 동안 생산되는 원리들을 표현했다. 따라서 이 원리들의 거처는 외적 측면, 또는 자연적 마음 안에 있다. 솔로몬은 거듭나고 있는 사람이 내적 상태로 발전했을 때 마음 안에 생산되는 원리를 표현했다. 따라서 이 원리의 거처는 내적 인간 안에 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여섯 명이다. 이 여섯은 창조 칠일에서 쉼의 칠일째에 앞서 있어 왔던 노동의 육 일 처럼 시험과 다툼의 상태를 표현했다. 이에 비해 솔로몬은 일곱째 아들인바, 그는 영적 삶 속의 싸움이 마무리 될 때 존재하는 쉼과 평화의 상태를 표현한다. 자연적 마음은 영적 마음에 반대하고 있는바 그 마음은 영적 마음의 통치를 못견디는 듯 하여 통치권을 뒤엎어 버리고 싶어한다. 이것이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획책한 반역의 일반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내적 인간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는 외적 인간의 반역을 표현하는바 표현적 품성은 똑같으나 이런 차이는 있다. 다윗의 왕국은 마음 안에서 진리의 정부를, 솔로몬의 왕국은 선의 정부를

표현했다. 따라서 압살롬은 신성한 진리의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고, 아도니아는 신성한 선함의 정부를 뒤엎으려 한 것을 표현했다.

구원의 섭리 체제 아래에서, 그리고 신성한 정부의 질서 안에서 실질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꾸준히 작용하는 원리 중 하나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원리이다. 맨처음 획득된 원리들은 첫 번째로 승강하지만 거듭남이 진행될 경우 그것은 마지막에 승강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운명지어져 종교 생활의 더 완전한 상태에서 획득된 것에 서열을 양도한다. 이런 상태의 뒤바뀜은 내적인 싸움 없이 결과되지 않는다. 이 싸움은 마음 안에서 길고도 고통스런 투쟁을 요구할 때도 많다. 종교 생활 초기에 있었던 감정과 견해, 편견과 습관들에 오래 오래 기대고 싶어 뒤늦게 찾은 내향의 원리를 밟아 뭉개려하기 까지 한다. 우리의 습관, 추구하는 것, 즐기는 것 등등이 진짜라 생각한 것들에 변화가 있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서 부리는 텃세로부터 벗어나 다른 원리의 통치에서 행복을 느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골치 썩혀야 하는지 모른다. 유아 시절 젖떼는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젖떼고 있는 하느님의 아이의 체험을 기술하기도 한다. 젖 외의 다른 음식에 맛들고 그 맛을 즐기게 하는데 앞서 유약한 어린 아이가 기존의 젖맛과 젖떼는 습관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얼마나 완강히 고집부리는지 모른다. 또다른 시련이나 다툼이 변화하는 젊은 거류민을 기다리나 이는 진보적인 삶, 흥미 수준에서 연구 수준으로의 변천, 부모의 훈계에서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수준으로의 변천이다. 변천의 어느 시기이든 삶의 상태는 똑같다. 어느 시기이든 언제나 극복해야 하는 강한 반감과 끈경이 있다. 행동의 새 영역에 옛느낌과 습관을 갖다 붙이려는 경향은 어느 시기에나 있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 사이에 다툼이 잇따라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옛것과 새것의 차이가 때로는 너무 커서 그 결과는 각기 다른 인물들에서는 때로 정반대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에 진출하는 두 사람을 생각해보자. 어떤 이는 과거에 익숙해 있던 자신의 흥미나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어 새로운 도전에 실패하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옛것을 극복하여 흔쾌히 새로운 의무들에 적응하여 만족하는 좋은 성적을 거둔다. 이런 것이 자연계의 생활일진대, 영적 삶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실감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육과 영, 세상과 천국, 유한과 영원 같이 서로가 아주 다른 서로 반대되는 느낌과 생각, 습관을 싸움의 현장에 가져다 놓는다. 타락한 사람 안에서 이런 것들은 반대된 채 있고 늘 다투고 있다. 보다 낮은 것이 보다 높은 것을 다스리고 싶어한다. 보다 낮은 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래서 영적 애정이 마음

안에서 일깨워지기 전이라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세상과 연결된 모든 것이 변영하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듯 여긴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 차원 뿐아니라 개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거듭나는 생활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거듭남에서 서로가 적극적인 관계를 결코 가져보지 못한채 있는 두 반대되는 애정과 생각들이 있다. 우리 마음에는 영적 마음의 원리에 반대해본 적이 없어 영적 원리의 감시를 받지 않았던 자연적 경향성이 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불쾌하게 한 적이 없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꾸중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의 은유함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요 지혜로부터가 아닌 것도 누구나 짐작할 것이다. 거듭나기 전의 상태 동안 아도니아로 표현된 원리는 내적 인간에 반대해보지 않았던 터라 내적 인간의 적극적 감시 아래 들어선 적이 결코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 원리가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바 공개적으로 적대 행위를 보인다. 이 원리는 과거 질서쪽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던 원리들 자체와도 연결을 이끌어 낸다. 요압은 과거 압살롬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아도니아를 동조해 따랐다. 압살롬은 진리의 통치에 대해 반역한 것이고, 아도니아는 선함의 통치에 반역을 도모한 것이다. 이것의 통치를 따른 것이 저것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 선함의 통치인 사랑의 통치가 시작될 때면 언제든지 애정과 생각으로부터 저항을 꼭 받고 만다. 그러므로 보다 낮은 선과 진리들, 비록 영적인 것의 조건과 필요에 적합한 듯 해도 천적인 상태에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아도니아의 역사로부터 배우는바, 거듭남에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의 가장 깊은 원리들에 간섭해 영향을 미치려 하는 계책이 꾸준히 시도되지만,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들의 영원한 복지를 염려하시는 지혜와 자비의 하느님에 의해 분쇄되고 만다.

## 솔로몬의 통치

54

### 열왕기상 1장 32-40

#### 솔로몬이 기름부워지다

솔로몬도 특이한 상황 아래 통치가 개시되었다. 다윗이 조상과 함께 잠들 때 그의 집안 또는 그의 왕국에 불안 요소가 없었다라면 아마도 솔로몬은 빈 옥좌에 평화로이 등극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자초했던 것, 즉 “네 집안에는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숨을 거둘려는 그 날 까지 다윗의 뒤를 어지럽혔다. 다윗의 맏아들이 된 아도니야는 그의 동생이 아버지의 계승자로 점지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옥좌를 차지하겠다고 자신 스스로 왕임을 선포하려 했다. 그러나 다윗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이 옥좌에 성급히 올라 앉는 바람에 아도니야의 음모는 한 순간에 좌절되고 말았다. “사제 사독, 예언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 그렛 사람들, 벨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 사제 사독이 기름담은 뿔을 장막에서 꺼내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런 뒤, 그들이 나팔을 불자 전 국민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아도니야가 예기치 못한 다윗의 대응으로 인해 아도니야가 향연을 마치기도 전에 새 왕을 따른 백성들의 환호성과 음악이 그들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사제 에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에게 다윗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아도니야의 손님들은 모두 떨면서 일어나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어나 달려가 제단의 뿔을 움켜 잡았다.” 이렇게 돼서 사제 에비아달의 지지와 사령관 요압의 지지를 얻어 획득한 그의 음모는 끝장 나버렸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지 역사적 측면 그 이상의 더 높은 취지가 있는 것을 감지해야 할 것이다.

다윗은 사울이 죽기 전 기름부음을 받았고, 솔로몬 역시 다윗의 임종 전에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자연적, 영적, 천적인 것들은 서로간에 완전한 구분이 있지만 동시에 무지개의 각기 다른 색깔이 서로를 구분하는 한계 선에서는 서로에게 밀려들 듯 혼합하고

있는 현상과 같다. 즉 각각은 서로 연결됨을 수단으로 해서 중간 원리를 생산하고 중간 원리는 그 둘 사이를 합일시키는 매개체를 형성한다. 이것이 보편적인 법칙인바,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두 개는 양쪽의 본성이 참가하는 세 번째 것 없이는 합일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 등차들, 세 천국의 등차, 말씀 속의 세 가지 의미들이다.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음모는 이미 존재하는 질서를 앞지르려 하는 무질서의 봉기이다. 이스라엘 왕국 그 자체는 사실 무질서로부터 건국되었다. 오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는 자기들의 왕으로서 모셔야 할 주님을 거절한 것이 포함되고 있다. 그들의 요구는 더 큰 악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더 작은 악을 허용하는 쪽에서 응낙된 것이다. 백성들의 외침을 야기시킨 악은 치료약도 동시에 요구한 셈이다. 그들의 요구에서 발생한 악은 그들이 선택한 왕국과 왕들에게서 그 자체 명백해졌다. 발생한 추한 사건들은 백성들 사이에 존재했던 내부의 상태가 바깥쪽으로 돌출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돌출된 악은 선을 위압하려 한다. 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시는 섭리는 아도니아의 음모가 오히려 솔로몬의 옥좌를 공고히하는데 기여하게 했다. 이 기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있었다. 왕국을 약화시키려는 불충의 면모가 확실히 드러나게 했고, 왕실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욱 팽배해지게 하였다. 이것이 솔로몬이 등극하는 시기에 성급히 있어졌다 해도, 이는 일반적 원인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 주님 자신의 역사에 있는 사건과 상태들의 그림자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주님의 대형(antitype)이고, 그분의 정부에 맞서는 요소들은 극단적으로 까벌려지도록 허용되고, 그것들이 정복되고 그분의 길에서 제거됨으로 솔로몬으로 표현된 그분의 왕국에 평화가 정착된다.

다윗은 사제 사독과 예언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에게 솔로몬의 즉위식을 관장하도록 명령했다. 즉위식에서의 세 가지 예식 절차는 천적, 영적, 자연적 원리를 표현해 놓고 있다.

먼저 그들은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웠다. 이는 왕권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양도된다는 표시였다. 사실 이 절차는 양도의 표시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을 드높이는 것이었다. 영적인 차원에 복종해왔던 합리성이 이제는 천적인 차원에 복종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은 솔로몬을 기혼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기름 붓고 왕임을 선포했다. 역사적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기혼으로 내려가게 한 것은 아도니아를 의식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다윗의 명령 같이 생각된다. 기혼은 예루살렘 근처였고, 아도니아가 향연을 베풀고 왕이

되어 보겠다는 수작을 부린 성읍의 반대쪽이었을 것으로 상상된다. 영적 교훈은 장소 그 자체의 표현적 품성에서 찾아 내진다. 기혼(Gihon)의 이름은 시냇물이 “일시에 쏟아져 내림, breaking forth”에서 파생되고 있다. 기혼이라는 단어가 이곳 말고 더 언급된 곳이 있다. “기혼 냇가 윗줄기를 막고 땅을 뚫어 그 물을 감쪽 같이 다윗성 서쪽으로해서 성 안으로 끌어 들인 것도 바로 히즈키야였다” (역대기하 32:30). 그리고 33장 14절이다. “그(므나세)는 기혼 서쪽 골짜기에다가, 다윗성 물고기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3절이다.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생명수의 강의 네 줄기란 영원히 흐르는 신성한 지혜의 강이 천국과 주님의 교회에 있는 유한한 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천사와 인간을 납득할 수 있게 해줄 때의 유한한 시냇물(finite stream)을 의미한다. 첫째 강은 선함과 진리, 둘째 강은 선함과 진리에 관련되는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이다. 그래서 이 두 강은 내적 인간에 속한다. 세째 강은 이성(reason)이고, 네째 강은 지식이다. 그래서 이 두 강은 외적 인간에 속한다. 기혼은 두 번째 강인바 내적 인간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에덴이 천적(수준의) 인간(the celestial man), 이 인간의 상태가 동산,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부어지기 위해 기혼으로 내려가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솔로몬에게 부워진 기름에 대한 언급도 특별하다. “사제 사독이 기름담은 뿔을 장막에서 꺼내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사울과 다윗을 기름부을 때의 경우에서는 기름을 장막으로부터 가져왔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사용된 기름은 거룩한 장소와 연결시키고 있다. 즉 신성한 현존이 거주하시는 곳, 지성소와 연결되게 하고 있다. 장막 역시 천적인 교회와 사랑의 원리로부터 주님을 예배함을 표현했다.

솔로몬이 기름부워지자 그들은 나팔을 불었다. 과거 나팔은 승리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나팔은 종교 예식 절차에 곧 잘 등장했는데, 성경의 자연적 사건 뿐 아니라 초자연적 사건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나팔의 언급이 처음 등장한 곳은 계명을 주신 시나이산의 언급이 있는 출애굽기 19장 16절 일 것이다. “세째 날 아침,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이렇게 모세의 법이 시작될 때 같이 첫 기독교 교회 처방의 끝에서도 마찬가지로. 글자적으로 세상의 끝이라 말하는 시대의 완결(consummation of the age)에서, “사람의

아들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뽑은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마태복음 24:31). 위 구절에서 나팔 소리는 신성한 진리에 관한 상징 또는 표시, 끝과 시작을 알리는 선포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 나팔 소리는 옛 요소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개시할 요소들을 모을 때의 시작을 더 뽀족하게 명시하고 있다. 나팔은 이스라엘 교회에서 그들의 거룩한 회중을 부르는데 사용되었다. 일반적 의미에서 나팔 소리는 신성한 진리의 가르침에 주님의 교인들이 합일해서 동의함, 교인들이 합일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 의미에서 이는 말씀의 가르침에 마음 속의 생각과 애정이 합일해서 동의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합일된 행동, 정의의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기쁨부는 후의 나팔 소리는 마치 사랑의 영향을 받은 진리의 소리 처럼 백성들로 “솔로몬왕 만세”를 외치게 했다. 솔로몬왕 만세는 우리의 왕은 하느님께서 아끼신다는 외침이다. 이 백성들의 합성 소리는 솔로몬으로 표현된 진리의 정부, 지혜의 진리의 정부에 우리의 모든 애정과 생각이 동의함을 뜻한다. 이 정부는 다윗으로 표현되었던 총명의 진리 보다 한 차원 더 높다. 다윗으로 표현된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손은 전투하려고 있는 것, 우리의 손가락은 싸우기 위한 것, 부패된 우리의 이기심 속에 있는 복종 못 시킨 악들에 맞서는 교전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솔로몬으로 표현된 진리의 경우, 싸움은 끝났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사도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신다는 것, 그이유가 자비와 진리가 함께 했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겨안았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했을 뿐아니라 “그의 뒤를 따랐다.” 이 따름(following), 마치 제자와 군중이 예수를 따르듯, 자기 앞에 놓인 가르침과 본보기를 실지로 따르려는 것이다. 솔로몬을 뒤따른 백성은 “피리를 불며 올라 가는데 온통 기쁨의 도가나가 되어 술렁거리는 바람에 세상이 떠나 갈 지경이었다.” 피리(pipes), 모든 관악기들 처럼 천적인 애정의 상징물이다. 이에 비해 현악기는 영적 애정의 상징물이다. 피리처럼 인간 자신의 숨이 불어내는 관악기는 단지 기계적 수단으로 생산되는 소리 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 이렇게 관악기와 현악기 사이에 차이가 있듯 기쁨(joy)과 즐거움(gladness)도 구분되는게 있다. 기쁨은 천적 수준의 애정의 표현이고, 즐거움은 영적 수준의 애정의 표현이다. 큰 기쁨으로 환호하는 것은 심정 속에서 가장 높은 애정인 하느님을 사랑하는 애정으로부터 튀어 나오는 삶의 기쁨(delight)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기쁨의 파장은 너무나 커서 그 소리에 땅이 찢겨질 정도, the earth rent with the sound of them, 세상이 떠나 갈 지경이다.

이 구절의 표현 역시 비유적 표현이라 생각된다. 성경의 모든 비유적 표현이 상응성을 지니는바 땅이 찢김 역시 비유적 의미 그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다. 하늘이 영적 마음인데 비해 땅은 자연적 마음이다. 예언자가 “들으소서, 하늘이여, 귀를 주소서, 땅이여,”라고 말할 때, 그는 하늘과 땅 또는 천사와 인간에게 이제 막 발표하려는 말의 진리에 증언을 서도록 주님의 교회 멤버들을 부른 것일 뿐 아니라 신성한 진리의 말에 심사숙고함으로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일깨워지도록 부르는 것이다. 땅이 찢김은 의복을 찢는 것과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땅의 찢김은 마치 민수기 16장 31절 같이, 땅이 쪼개져 코라와 그의 식구들을 삼켰을 때 같이, 파괴를 목적으로 열려 놓이는 것(laid open), 쪼개짐(cleft)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8장 8절 같이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break forth”의 경우 같이 생명을 내주실 목적으로 쪼개지는 것도 뜻한다. 땅이 쪼개질 지경이 된 것은 백성들이 환호한 결과인바 이는 행복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는 사랑의 통치가 시작됨으로 심정을 일깨워 내향의 영적인 기쁨을 받고 응답하려고 자연적인 마음이 열린 것을 의미한다. 코라의 경우는 천적, 영적인 모든 애정을 받아 삼키려 탐욕스럽게 입을 벌린 자연적 마음을 말하는바, 끔직한 비극을 상상하게 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는 비록 글자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코라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상태를 표현한다. 즉 자연적 마음이 사랑과 진리의 법칙에 기꺼이 복종할 때면 언제든지 내려오는 천국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솔로몬이 옥좌에 앉자, 다윗 신하들이 다윗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 보다 솔로몬을 더 이름나게 하시고 임금님의 치세 보다 그의 치세를 더 빛나게 하시옵기를 빕니다.” 그러자 다윗왕은 침상에서 일어나 절을 했다. 이와 비슷한 행동이 있다. 오래전 야곱이 죽기 전, 자신을 에집트가 아닌 가나안에 묻어 달라고 요셉을 맹세시켰을 때이다 (창세기 48:30-31). 야곱은 침상 머리말에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했고, 다윗은 침상에서 절을 했다. 그리고 다윗은 신비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침상에관해 말한 대목이 있다. “내가 야곱의 전능하신 하느님의 거처, 주님을 위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나는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침상에 누우러 오르지 않으리라” (시편 132:3,5). “내 집의 장막”이란 사랑이라는 거룩한 원리, “자기 침대의 누울 자리”란 거룩한 사랑으로부터 자연적 마음 안에 존재하는 진리이다. 주님께서 심정 안에 그분의 거처를 발견하실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실 때까지 어느 인간도 이 진리 안으로 들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다윗 스스로 침상에서 절을 한 것은 주님이 앉으신 옥좌 같이 심정 속에서 선행의 원리가

최고임에 동의함이라는 상징적인 바깥쪽의 표시이다. 그분이 사랑 자체시오 지혜 자체이심을 인정하는 이들의 심정 안에서 그분은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신다. 위에서 언급한 세 침대는 세 가지 다른 용어들을 표현하고 있다. 즉 세 가지 다른 상태에 있는 자연적 마음의 표현, 자연적, 영적, 천적 진리와 선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 중 야곱의 침대는 첫 번째 것, 자연적 진리를, 다윗의 침대는 두 번째 것, 영적 진리를, 그리고 다윗이...올라가지 않으리라고 말한 침대는 세 번째 것, 천적 진리에 응하고 있다. 세 번째 것은 다윗 시대에서 성취되지 않고 솔로몬에서 성취되었다.

침상에서 절을 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 날 내 자식을 나의 왕좌에 앉히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송축합니다”라고 말했다. 주님을 송축함(bless)은 축복의 원저자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윗의 감사함의 바탕인 주님을 송축함은 종교 생활의 참 질서가 건설되게 한다. 즉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품위를 드높이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때와 방법에 따라 모든 선함을 우리에게 주심에 그 은혜에 망극할 때 건설된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존재했던 환경은 오늘날 우리 영혼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주님을 드높임은 자신의 진짜 모습에 부끄러워하는 상태에서, 안전함은 위험함에서, 평화는 환난의 상태에서부터 일어나진다. 이와 같은 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옥좌에 앉았을 때의 상황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의 첫 행동은 그의 왕권적 품성에 잘 어울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자기를 칼로 쳐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까지 제단의 뿔을 움켜 잡고 있었다. 솔로몬이 명령을 내렸다. ‘만일 그가 가치있는 사람임을 보여 준다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나, 불측한 마음을 품은 것이 드러나면 마땅히 죽으리라.’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 내렸다. 솔로몬왕은 그가 자기에게 와서 경의를 표하자 그를 집으로 돌려 보냈다.” 하느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지는 않다. 관대하심이 품성과 품행을 헤아려 봄도 없이 실시되지 않는다. 가치있음은 생명을 견고하게 하나 불측함은 정죄와 죽음을 초래한다. 주님께서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기뻐하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향해 관대함을 제아무리 대단하게 베풀었다 해도 이는 그분의 관대하심의 그림자밖에 더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하리라.

## 열왕기상 2장 5-10절

## 다윗이 솔로몬에게 훈계하고 죽다

구약 성서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비록 성인의 표징성을 지녔다 해도 그들 모두가 성인(saint)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다윗의 임종 광경을 가지고도 충분할는지 모른다. 같은 상황이라 가정해도 기독교인의 임종 때의 훈계와 다윗의 임종 때의 훈계는 영에서나 행동에서나 달랐을 것이라고 꼬집어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임종 때의 주님의 영광의 비교는 더더욱 필요 없을 것이다. 모든 인간과 함께 이타애로 살고 죽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바 일 것이다. 비록 다윗이 그리스도를 더 뽀족히 예징(type)한 인물임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가 기독교인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기독교인의 완전함을 기대한다 든가 요구하려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다윗을 기독교 표준의 잣대로 재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다윗의 본질적인 영적 상태 전부를 재보려 드는 것은 필요치도 않을 것 같고 또한 합당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런 견해, 즉 다윗이 하느님의 심정을 본받은 사람이라 불리우기 때문에 만일 하느님의 책망을 받은 일이 한번도 없었다면 그가 했던 모든 것은 거룩한 기독교인의 품성과 일치할는지 모른다는 견해를 경계하는 것은 대단히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참으로 감사하는 많은 것 중 하나는, 거룩한 페이지, 특히 인간 유약함이 들춰보이는 본문 같은 부분에도 영광에 휩싸인 주님의 오심으로 빛이 드리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빛으로 인해 우리는 성서 구절에서 예징(type)과 대형(antitype) 사이를, 즉 성경의 영광 글자 사이를 구별할 수 있어 이런 오류의 슬픔, 즉 성경에서 하느님의 사람이라 불리운다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설명을 추가한다든가, 뭔가 제약을 설정하고 있다 해서 성서 속의 사람을 거절하는 등등의 오류를 식별해냄으로 비껴갈 수 있다. 더욱 귀중한 것은, 이 빛은 우리에게 위와같은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도 영적인 식별에 해당되는 것, 즉 우리 자신의 내면의 삶을 밝히 알게 하는(reveal) 내면의 진리(interior truth)와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하느님의 지혜를 나열하는 내면의 진리를 밝히 알도록 비추고 있다는 점이다. 거룩한 성경의 각 부분들은 위와 같은 드높고 거룩한 주제와 연결되고 있다. 다윗의 임종 광경,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 피를 보아야 한다는 다윗의 뜻이 집행되는 이런 성경 부분에도 위와 같은 빛이 드리우면 의구심이 금방 풀리고, 죽음과 파괴라는 것 대신에 발전해 가는 생명과 불멸이 이어진다. 그 이유가 죽음과 파괴는 영적 삶, 거듭남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경우 이는 거듭나아가는 발전 단계에서 하급인 옛 것이 마무리되어 용도 폐기되고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 새 것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밖에 더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은 군 사령관 요압과 대 사제 에비아달에만 국한시켜 가르쳐지는 일반적 진리이다. 사실 위 두 사람의 직책은 왕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대 사제의 경우는 오래 전 그의 가문에 내려진 심판이 있었고, 요압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치뤄야 할 죄값이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였을 뿐이다.

에비아달은 엘리의 후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집안에서 자행된 불법은 제물로도 영원히 씻겨질 수 없다고 선포되어 있었다. 엘리 집안이 문을 닫는 죄값이 비록 솔로몬의 때까지 완결되지 않고 있지만 사울의 때에 대단하게 치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무엘상 22장). 엘리의 가문에 속하는 아히멜렉은 사울의 시대에서 사제였는데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빵과 골리앗의 칼을 내어 주었다 해서 에봇을 모시는 엘리의 후손 85명과 함께 죽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었는데 모두들 의미가 없는 듯, 우연한 사건인 듯 건너 뛰고 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에비아달은 좁 지역의 사제로서 엘리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가 대 학살을 피해 다윗에게로 왔고 다윗이 그를 환대해서 대 사제로 까지 승진했는데 그 직책은 옥좌를 노린 아도니아편에 가담할 때까지 존속되었으나 솔로몬에 의해 박탈되었다.

엘리가 불법을 자행한 아들을 우유부단하게 처리함으로 인해 그의 집안에 드리운 심판의 훗날의 결과로 에비아달의 사제직이 거두어진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 안의 원리에서 악은 결국 개선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거듭나는 생활에 진입한 이들에게서 심판은 그들의 악들에 발표된다. 거듭남이 발전되고 있다면, 그들의 악은 발표된 심판에 일치해서 주도권이 상실되거나 죽어지게 된다. 이것이 신성한 심판에 포함된 영적 의미일진대, 우리는 이 심판이 자비의 심판이요 그 집행은 자비의 일임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신성한 존재가 후손들의 어느 세대에서 가문이 소진된다는 심판을 놓고 이것을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한 불법자의 죄로 인해 그 식솔들 까지 심판한다는

하느님의 칙령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신실한 자들 안에 설비해 두시는 것, 즉 신성한 진리의 빛에 의거 보여져 정죄되는 악은 점진적으로 소멸되고 꺼져가서 결국 심정과 지성 안에서 그 힘을 쓸 수 없고 급기야는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시는 슬기롭고 자비로운 섭리로 이해해야 한다.

또다른 국면이 있다. 그것은 에비아달이 사제직으로부터 내쫓기고 그 자리에 사독을 앉힌 것 까지 연결해 볼 때이다. 에비아달은 첫 대 사제인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통하는 후손이고, 사독은 아론의 아들이되 이다말의 형인 엘르아잘을 통한 후손이다. 이쯤에서 우리에게 상기되는 것은 야곱과 에사오에 관한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동생이 썩어놓은 멩에를 부술 때까지 형이 동생을 섬겨야 한다는 대목이다 (창세기 27:40). 거듭나는 처음 단계에서는 선으로부터라기 보다는 진리로부터, 의지로부터가 아닌 이해성으로부터 행동하는바, 동생 야곱이 형 에사오의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그러나 거듭남의 발전이 거듭되어 의지로부터, 선으로부터 행동할 때가 오느바 그 때는 선의 원리를 표현하는 첫 출생(에사오)이 자신의 자리에서 회복된다. 거듭날 때의 선의 승강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개혁될 때인 진리의 승강이다. 진리는 전투할 때의 칼에 해당되고 선은 통치하는 제왕의 홀(sceptre)에 해당된다. 솔한 전쟁의 역사들을 장식해 온 다윗의 통치 동안에는 아론의 넷째 아들의 후손이 사제 임무를 관장했다. 이제 솔로몬의 평화스런통치가 시작되는바 아론의 셋째인 엘르아잘의 후손이 사제 임무를 맡게 된다. 형이 형의 위치에 회복되는 광경이다.

요압의 경우 한 가지 더 특이한 흥미를 주는데 있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은 영적 진리와 관련해보면 합리적인 진리를, 절대적 진리와 관련해보면 상대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안쪽의 인간(inner man)은 매개체를 통해 완전해지고, 도구들을 이용해 행동된다. 안쪽 인간의 본질적인 원리, 첫째되는 원리들은 바깥쪽 인간에 있는 둘째가는 원리들을 통해 행동한다. 다윗과 요압이 친인척된다는 점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다윗은 말씀의 영적인 의미, 인간의 영적인 마음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고, 요압은 합리적으로 납득된 말씀의 글자 의미, 인간의 합리적 마음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요압은 합리적 마음, 그러므로 합리적 인간을 표현한다고 이미 거론해둔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 내에 있는 합리적 인간을 말할 때, 이는 주님의 교회 원리에 관련된 것, 주님의 교회의 원리들이 이끌어 나오는 말씀에 관련되어 말하는 것이다. 마치 판단력을 습득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 같이 말씀의 가르침을 추론해보지 않고 믿는 것과 같다. 이런 이들은 성경을 뒤집을 수 없다.

그 이유가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적 인간이 아닌 합리적 인간도 심각한 악으로 죄를 범할 수 있다. 영적 수준의 합리적 인간은 자연적 수준의 빛으로부터 영적 주제들을 추론한다. 말씀의 글자 처럼 합리적인 자질은 사방으로 휘둘러지는 칼과 같아서 천국의 질서 아래 있는 영적 마음의 영향을 받느냐, 자아와 세상 사랑의 굴레 아래 있는 자연적 마음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진짜 진리의 원인을 지지하거나 공박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과거 요압은 자기 보다 더 정의로울 수도 있는 장군을 속임수를 써서 살해한 죄를 벗을 수 없어 임종하는 다윗으로 가장 무거운 판결을 내리게 했다. 어쨌든 요압으로 표현된 특성도 썩어진 말씀 속의 진리 안에서 그 몫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님의 열 두 제자 모두를 집합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모든 선과 진리를 표현했는데도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도 제자로서의 몫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다는 키스로 주님을 배반했다. 이런 배반은 제자로서의 그의 품성에서 나와진 행동은 절대 아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로부터서는 배반되어질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배반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분을 아는 이들만이 그분을 배반할 수 있고, 그분이 참 저자요 우리의 최종 목표되신다는 참 지식을 아는 이들만이 그분을 배반할 수 있다. 말씀 속의 진리들이 그분에게서 돌아 설 때 그분은 배반되어진다. 말씀 속의 진리가 탐욕, 부정, 편견, 복수 같은 목적을 섬기게 할 때 그분은 배반당하신다. 이런 악들은 인간의 적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적이다. 이런 악이 진리를 뒤집어 의기양양할 때 진리와 사랑의 주님은 죄인들 손에 넘어가 배반당해진다. 주님을 아는 이들이 사기적으로 행동할 때 주님은 키스로 배반되어진다. 이 배반은 모든 사악함의 극치(consummation)인바, 타락한 인간 본성이 그분의 구원하시는 자비의 역사와 목적에 언제나 반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악을 주님께서 이겨내심을 표현해 놓기 위해 구세주에게 가해지도록 허용된 것이다. 유다와 요압이 죽었다고 그들로 예정된 진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지녔던 악으로 죄짓는 각 개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파괴한다. 그이유가 정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악, 진리를 사기적으로 사용하는 악은 인간 마음 안으로 아주 깊숙히 진입하고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의 싹틈을 뿌리까지 뽑아 던지기 때문이다. 이러면 그분의 말씀과 교회 속의 거룩한 선과 진리들이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데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마치 요압이 제아무리 제단의 뿔을 잡고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같다. 모세에게 전달된 법 가운데 하나가 위와 비슷하다.

“만일 누군가가 간계를 써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이웃에게 뻔뻔하게 다가 선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거두어 마땅히 죽도록 해야 한다.” 이타애의 선과 믿음 속의 진리가 사기 당해 파괴될 때 예배 속의 가장 거룩한 것들도 영적 죽음에서 구해질 수 없다.

원리를 표현하는 요압을 생각해 보면, 요압의 죽음은 모독된 원리 속의 거룩한 진리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부착되어 있던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을 표현했다. 요압의 죽음이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닐진대, 시므이의 경우는 더 할 것이다. 그가 등장한 과거를 잠깐 돌이켜 보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신할 때, 사울 가문 중에 속한 시므이가 돌팔매질을 하며 이렇게 떠들어 댔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한당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 주신 것이다.” 아버새가 다윗왕에게 저 자를 처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다윗은 말했다. “야훼께서 시키신 일이니 욕하라고 내버려 두시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피난처에서 되돌아 오고 있을 때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영접하러 나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자, 다윗은 그에게 “결코 죽이지 않으마”라고 맹세해 주었다. 이 용서에는 어떤 조건도 붙여지지 않았고 어떤 유보 조항도 따라 오지 않았다. 그러나 십 년 뒤 임종이라는 엄숙한 순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 스스로는 하지 못한 일, 즉 시므이의 백발된 머리가 피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조치는 유대인의 정의와 공평에 관한 관념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글자적 역사로부터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영적 인간의 마음에 운반해주어 우리를 만족시키는 어떤 것이 있지 않고서는 위의 대목은 영감된 하느님의 말씀의 부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인간 거듭남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위 대목을 생각해 보면 운반해주려 하는 일반적 진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므이는 우리가 시련과 시험의 상태에 있을 경우 일반적 진리를 공박하는 마음 속의 어떤 진리를 표현한다. 이 원리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는 진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 비록 이 원리가 악인 것은 틀림 없지만 이런 악은 거듭남이 완전에도 도달할 정도로 발전된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제거되어질 수 없다. 번영의 시기에는 친구요 역경의 시기에는 적으로 돌변하는 불완전한 생각과 느낌의 상태가 인간 마음 안에 상존한다.

영혼의 영적 생활에서도 위와 유사한 것을 들추어 볼 수 있다. 영적 삶의 초기 단계에서는 권위의 압력에 따라 산출된 생각과 느낌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삶의 법칙으로 인정한

진리를 수단으로 발휘되지만, 권위의 압력이 제거될 경우 곧바로 불복종과 폭동을 일으킨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게 될 때 섭리 속의 지혜와 선함에 불평을 늘어 놓고 싶은 충동을 자주 받지 않는가 말이다.

사실 우리 주변 여건이 위와 같은 반역적인 원리를 창조해내거나 악의에 찬 행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단지 반역하게 하는 기회를 열어 놓았을 뿐이다. 가장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주변 여건, 특히 시련과 시험 같은 여건들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성질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 습득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실제로 친숙해지게 만드는 여건은 현명하고 선하신 섭리가 허용한 결과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섭리의 처방의 결과는 평화가 아닌 영혼을 찢는 칼을 허용할 뿐이다. 이 세계의 전쟁에서 잔인한 적이 승승장구하는 역경의 날에 인간의 열정이 얼마나 흐트러지는지! 우리 내부 세계, 영적 삶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심정 속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뿐이었던 악인지라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악인지 관심 없었지만 그것이 흥분되어 악의에 찬 행위로 돌변하여 중대한 범죄가 돌출하면 내 속에 이런 악이 있는데 대해 얼마나 스스로 깜짝 놀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신성한 구세주의 섭리 체제는 우리가 악들을 억류 가능한 정도까지만 허용하신다. 즉 우리가 악들을 극복할 능력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 속에 잠복한 악들이 활동할 수 있게 허용하신다. “너는 낮 시간 동안 굳세질 것이다.” “하느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가지고 시험에서 고통 받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수단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닦으신다. 악은 끝내에 가서는 복종당해지나 절멸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마음의 지휘 본부에서 밀려나 외곽 지역으로 처박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능해지는 또 하나는 외곽 지역에 내동댕이쳐진 악이 언제든지 중심 지역으로 되돌아와 활개를 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속의 악은 자기에게 썩어진 굴레를 벗어 던지려는 경향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다. 외곽에서 중심으로 되돌아 온 악은 이전보다 더 사악하고 더 타락되도록 할 것이다. 즉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있다가 그에게서 나온 뒤.....다시 돌아 가면.....자기 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데리고 들어 가 자리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마태복음 12:43-45). 극도로 자비롭게 설비해주신 것이 있다. 악령 일곱이 들어와 자리잡는 재난에서 진지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는 신성한 지혜와 선함의 수단 중 하나는 이것이다. 어느 악 하나가 꺾기해가지고서는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

하나가 다른 악들과 연계해서 마치 지파와 가문 그리고 가족 같은 연계로 봉기한다면 지휘권을 뺏을 수 있다. 다윗의 끈질긴 적이었던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집안에 속한 시므이가 다윗이 역경에 처하자 고개를 들고 쓴맛의 영을 명백히 보였다. 이것은 거듭나는 삶에서 흔히 따라붙는 여건들이다. 자연적 인간은 똑같은 악한 원리로부터 매일 행동하여 조금씩 악한 욕망을 충족해감으로인해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나 악한 밀도는 갈수록 달라진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심정을 찬찬히 들여다 본다. 그리고 자기 본성 속의 악들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겸손해 하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성한 도움을 구한다. 그러므로 심정 속의 악이 드러내지면 그것은 우리를 두 개의 구분되는 상태로 인도한다. 모습을 드러낸 악은 우리에게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 자신인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시야에 비쳐진 내 속의 악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깊이 박혀 있기도 했는지를 알게 되면 유죄를 인정하고 뉘우침이 생산된다. 그러면 겸손한 다윗왕의 말 “주께서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하신 것이니 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오”와 같이 될 것이다. 겸손의 상태에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의 본성이 보여지는데 그분께서 저주하심에서 돌아서 그대신 복을 내리시기를 간구한다. 고뇌하는 영혼은 다윗의 이런 희망 사황을 표현할 준비가 된 셈이다. “야훼께서는 내가 당하는 이 비참한 꼴을 보시고 오늘 받는 이 저주 대신에 복을 내려 주실지 알겠소?” 죄있는 영혼이 받는 최악의 상황에 인내심 있게 복종함은 마음에 더 나은 상태의 반석을 놓아준다. 그 이유가 위쪽으로 발전하려는 상태의 반석은 우리에게 악밖에 없다는 것, 모든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라는 근원으로부터서는 악과 저주 뿐이요 주님 자신으로부터서만이 우리는 선함과 축복을 향유할 수 있다.

이 반석이 마음 안에 굳건하게 다져 놓일 때 궁극적으로 심정 속의 악의 제거도 완성된다. 더욱이 어떤 악 하나가 제거되려면 그 악과 반대되는 선이 승강해야만 가능하다. 솔로몬의 통치는 시므이와 다윗왕에게 충성을 게을리한 직무태만자들을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이유가 이 시작은 새로운 상태, 즉 더 높은 선, 주님을 사랑함의 선이 거듭나는 마음 안에서 승강하기 시작했음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일어난다. 왜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즉각 실시하지 않고 그가 어찌면 오래 살아 남을 수도 있어 다윗왕의 유언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예루살렘은 주님의 교회를, 개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 속의 교리를 표현한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되 거기를 떠나면 안되고 더욱이 키드론 시내를 건너면 정녕 죽는다는 명령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교리에 일치되게 마음을 짓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란 진리와 선함의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내린 명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바 우리의 악이 교회의 교리나 진리에 억류된채 있고 일상 생활이 그 진리에 일치되어 있는 한 영적 생명은 보전되나 우리가 교리의 테두리를 내던지고 그의 악이 생활 속에서 활발하게 허용한다면 그의 영적 생명은 정녕 죽고 만다는 것이다. 이는 영적 생명을 보전하려는 우리의 행동이 잠시 주춤했다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다. 그이유가 악을 시행할 의도가 있게 되면 악한 행동이 의도 안에 잠재적으로 있게 되는바 정말 진지한 회개가 없으면 의도 속의 악은 여건이 조성만 되면 즉시 튀어 나오기 때문이다. 어쨌든 악이 의지 안으로 깊숙히 들어가 원리가 고정되고 확증된 습관으로 안착되도록 행동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악의 상태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악이 마음에 감금된 채 있는 한,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성한 법도 인간 심판의 법과 같다. 즉 악이 행위로 되기 전에는 실지로 처벌되지 않는다. 저 세계에서조차 인간은 여기서 저질러진 악 때문에 처벌되는게 아니라 거기서 저지른 악 때문에 처벌된다. 우리는 자신과 더불어 이 세상 삶에서 행동하게 했던 근거인 악한 원리를 저 세상에까지 지니고 간다. 얼마나 선함과 진리에 실지로 반대된 상태에 자신을 놓이게 했는지에 따라 그 행동을 교정하고 그 행동이 억류되기 위해 처벌될 뿐이다.

시므이에게 내려진 명령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더불어 넘어서면 죽게 된다는 선을 설정해 놓았다. 즉 “네가 키드론 시내를 건너면 정녕 죽는다”는 것이다. 왜 키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명령이 시므이에게 주어졌을까? 이 시내는 예루살렘이 서있는 높은 지역 아래 있는 협곡에서 흐르는바 예루살렘의 경계선이 되어주고 있다. 이 시내는 예루살렘의 북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이 시내의 반대편에 올리브산이 있고 이 산의 발판되는 아래 부분이 계세마니 동산이다. 이렇게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아도 솔로몬이 왜 시므이에게 한계선을 그어주었는지 알 수 있고 말씀 자체 역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한다.

키드론에 대한 것은 다윗왕에 시므이의 적개심이 폭발되었던 대목에서 언급되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할 때 였다. “온 백성이 광야쪽으로 나가려고 키드론 개울을 건넌고 왕도 따라 건넌다. 사람들이 개울을 건너면서 통곡하는 소리에 산천도 따라 울었다.” 복음서에

서 이 개울은 주님의 생애와 연결되어 언급되고 있는바 더욱 놀랄만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 신성한 구세주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이 기도에는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아버지와 하나되기를, 그들과 결합되고져 하는 열렬한 바램이 표현되고 있다. 이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다. “기도를 마치신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셨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끔 거기에 모이곤 했는데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요한복음 18:1-2).

분위기가 짙고 어둡고 골짜기인 키드론은 주님의 교회와 세상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다. 영적 삶의 시련을 통과하는 이들은 이 경계선에서 평화와 안전함이 끝나고 환란과 위험함이 시작된다. 시므이는 삼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잘 지냈다. 그런데 “시므이의 종 둘이 갓 왕 마야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달아났다. 시므이는 종이 갓으로 달아났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는 그들을 찾기 위하여 아기스를 찾아 갓으로 갔다. 그는 기어이 갓에서 종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는 자기 목숨을 보전해준 생활 구역의 경계선에 대한 기억이 도망간 종을 되찾겠다는 집념으로 깜박 잊혀지고 말았다. 이런 시므이의 상태는 그것과 비슷한 여건에서 영적 삶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 대한 예징도 되고 있다. 종교가 원리가 아님 법으로 우리에게 존재할 경우, 그래서 종교가 내향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 바깥쪽 행동을 조절할 경우, 설사 그 종교에 제아무리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동의했다 해도 우리와 종교와의 결합력은 자기 이익과 자아 사랑을 강하게 휘젓는 여건 아래서는 쉽게 와해되고 잊혀지고 만다. 시간은 내향의 원리들을 강건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바깥쪽 의무감이 약화되는데도 한 몫을 한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잘 지낸 삼 년이란 영적 인간의 경우 종교 원리를 확실히 입증하는 것을 뜻하나, 그 반대의 경우 종교 의무에 게으름, 또는 의무를 완전히 잊고 있음이 여실히 입증된 것을 뜻한다. 시므이는 자신이 사는 곳의 법(솔로몬의 명령)을 잊었는 한편 종들의 권리 까지 잊었다. 모세의 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인의 손을 벗어나 너희에게 피신해온 종을 너희는 본 주인에게 내주지 못한다” (신명기 23:15). 이 구절은 마치 외국 주인의 종과 관련 있는 듯 하나 이스라엘의 종들에게 수여된 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시므이는 마치 마태복음 18장 23-35절에서, 왕으로부터 큰 빛을 탐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작은 빛을 진 동료를 용서 못하여 되려 화를 자초한 무자비한 종과 흡사하다. 종(servant)이란 마치 진리가 선을 섬기듯 섬기는 어떤

것에 대한 예징이다. 그러나 진리들이 악을 섬기도록 만든다면 그 진리들은 동의가 아닌 압박에 의한 것인 노예가 된다.

이 종들이 그들의 자유를 주장했는데 그들을 강제로 밀어 붙여 노예화시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면 이는 종들을 이중으로 압제한 셈이다. 종교와 연결되는 모든 것에는 그 종교가 수여하는 자유가 따라 붙는다. 모세의 법에서조차 노예상태로 추락된 이들의 해방을 위한 조항이 발견되는바 아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의 석방을 미룰 수 없다. 시므이, 비록 그가 자신의 생활 구역 설정에 동의했다 해도 그 구역에서만 제한된 생활이 불편했을 것임은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자기 구역 안으로 자기 종을 되돌려 놓기 위해 자기의 자유를 옹호했던 셈이다. 그러나 그의 불법적 자유는 그의 목숨을 버리는 대가를 치루었다. 이 경우는 진리에 반대하는 죄에 깊숙이 빠진 이들과 맥락이 같다. 이 죄인들이 그들에게 할당된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살아있게 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면 진리의 칼이 조각내고 말 것이다. 시므이는 다윗의 시대 때에 불법을 저질러 브니야의 칼에 죽은 이들 중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래서 첨가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불일치되는 요소들이 제거된 결과, 솔로몬의 수중에서 왕국이 건설되었다는 점이다. 심판의 때와 과정에 관련되는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주님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신다.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모조리 그분의 나라에서 추려내며...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마태복음 13:41,43). 신성한 심판은 진리의 법에 위반된 모든 것, 선함의 법에 반대된 죄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정의로운 자는 지혜로 통치되는 사랑의 왕국인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랑과 진리의 태양으로 비치도록 하시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솔로몬의 왕국으로 표현되고 있다.

## 56

### 열왕기상 3장 1-14절

####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통치는 세상의 역사 자료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빛나게

된 것은 왕국의 화려함 보다는 그의 지혜 때문인바 이것이 그의 왕국의 명성을 드날리게 해서 후세대에서까지도 귀감을 잃지 않는 특출한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솔로몬 왕국의 장려함과 번영의 기초는 사실 사망을 제압하여 평화로운 길에서 국가적 부를 추구할 수 있게 한 다윗의 능력과 정력에 의해 놓여졌다. 이런 선왕의 업적을 후대의 왕이 따르지 않았다면 그나마 선왕의 업적은 퇴색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양받은 장점을 당사자가 슬기롭게 붙잡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복이 아닌 저주만을 입증할는지 모른다. 따라서 발전에 필요한 미덕 없이는 크게 증진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를 위대한 지혜와 화려함을 자랑했던 세상의 일시적인 통치 정도로만 간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솔로몬은 그분에 대한 특출한 예징이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통치는 단지 역사적 측면만이 아닌 영적 측면, 개인적 측면에서도 보탬을 주는 교훈을 가득 담고 있다.

솔로몬의 통치를 사울과 다윗의 통치와 구별시켜 보면 그의 통치는 가장 높은 조건에서, 또는 마음의 가장 높은 영역에서 진리가 통치하는 것을 묘사한다. 신성한 진리는 처음에는 기억 안으로, 이해성 안으로, 마지막으로 의지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진리를 알게되고, 그다음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사랑된다. 즉 진리는 지식이 있는 기억 안에, 총명이 있는 이해성 안에, 그리고 지혜가 의지 안에 받아들여진다. 위 세 단계는 진리를 받는 세 등차들이고, 어떻게 진리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진리의 품질은 결정된다. 진리 아래 존재하는 각기 다른 종류와 수준의 정부가 이스라엘의 세 왕으로 연속되어 표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걱정 투성이인 사울과 다윗의 역사는 기독교에 따라 붙는 심정 속의 썩은 것을 잘라내기 위해 진리가 휘둘러져 야기되는 환난과 싸움을 그려내고 있다. 이런 썩은 것이 엄청나게 제거되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 진리보다는 오히려 선으로 통치되는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정과 이해성이 종교의 빛보다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마음의 상태들을 이제부터 주시하게 된다. 사랑이 통치하면 평화와 공정, 번영이 전체를 매우느바 주님의 성전이 인간 마음에 건립된다.

성서 역사가 거듭나는 기독교인의 마음에 세부적으로 응용될 경우 솔로몬은 주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특히 스스로 계신 주님,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계신 주님, 특히 깊이 뉘우치는 겸허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표현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선한

바람, 참된 생각을 고무시켜 슬기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솔로몬의 선택은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하느님이신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주시기를 진실로 바라는 이들의 선택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주제를 다룰 것이다. 자아가 아닌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지혜의 획득이 천국에서 내리는 최상의 선물이다.

우선 역사의 시리즈는 우리로하여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싶어 준비하는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보게 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셨을 때 젊은 왕의 마음에 있는 첫 느낌은 자신이 왕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당신께서는 소인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참된 지혜로의 첫 걸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 느낌 자체가 무지라는 말은 아니다. 그이유가 무지 자체는 자기가 무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식이 자기가 무지한지를 밝히 알려준다. 그러므로 무지가 진실로 발견되기 전 지식의 획득과 향상은 필수이다. 지식이 발전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건대 안다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하는바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솔로몬이 고백한 무지는 절대적 무지가 아니라 상대적 무지였다. 그는 자기가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통치하고 판결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자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가 어느 수준의 식별과 지식을 가졌다면 높은 공식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는 자기가 지녀야 할 총명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슬기롭지 못했다면,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과 비교해보건대 자기의 부족이 얼마인지를 인정하도록 하는 겸손이 없었다면 자기가 달성했어야 할 특출함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참된 지혜를 약속 받는 이해성과 심정의 조건이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보건대 슬기롭다는 것, 자신의 지혜가 우수하다고 부풀리는 것은 마음에 높은 선물의 입장을 거절하고 자아만으로 꽉차게 한다.

우리 각각도 솔로몬처럼 통치를 위해 판단과 식별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일상 업무와 자신의 마음을 통치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마음 안에는 무수한 애정과 생각들이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를 가려낼 수 있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총명한 심정(understanding heart)이다. 애정은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자라느냐 자아로부터 자라느냐에 따라 좋거나 나쁘거나 한다. 생각들이 애정을 좋아하되 그것이

육적인 지혜로부터 끌어낸 이성을 수단으로 하느냐 또는 하느님의 진리에 기초한 이성을 수단으로 하느냐에 따라 참되거나 거짓되거나 한다. 이것들의 진짜 품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우리는 자신의 빛으로부터 분간할 수 없다. 악이 자신을 악이라고 느낄 수 없고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볼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이해성으로부터 스스로를 판단하는 한 우리에게는 천국의 판결에 반대되는 부정한 판결뿐이다. 그이유가 우리 모두는 천성적으로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어둠을 빛대신에 빛대신 어둠을 놓고 싶어하는 기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무도 지상의 법정이나 세상 업무들에서 자신을 판정하는데 자기가 가장 적합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 하물며 영원의 문제들 일 경우 얼마나 덜 적합할까? 영원에 속하는 모든 문제는 법과 계명을 따름으로 하느님께 가져와야만 한다. 그이유가 이 계명과 법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모든 논쟁들, 즉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느님 사이, 인간 양심의 법정에서는 하느님의 원인과 자아의 원인 사이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도록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우리 각자를 수단으로 각각의 양심에서 공포된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인간에게 불법을 저질러 양심을 텅비게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무능력을 알아차리고 날마다 천국의 빛으로 정당한 판결을 말하려 해야 하는바 무엇보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받고 싶어 해야 한다.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성적 측면 뿐만이 아닌 심정 측면에서도 어린 아이가 되어 우리가 아는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우리 속에 들고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게 얼마나 적은지 실감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 말들은 솔로몬의 입술로부터 잘 말해지고 있다. 그이유가 그의 통치는 백성을 전쟁으로 끌어내고 승리하면 평화로 인도하는 통치가 아닌 양떼가 목자에 의해 인도되는 모습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과거 모세가 죽기 전 회중의 지도자를 임명해야 할 때 등장하고 있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느님 야훼여, 회중을 거느릴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그들의 앞장을 서서 드나들 사람, 그들을 이끌고 나가고 이끌고 들어 올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야훼의 회중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민수기 27:16,17).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주님께서 말하신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찾을 수 있다...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한복음 10:9,11).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반복적인 행동은 마음을 계속 완전해지게 하는 행동이요, 기독인이 행동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생활 업무에 종사할 때 우리는 나가고 있다.

우리가 자신으로 물러가거나 내부의세계에 관심을 돌릴 때 우리는 들어오는 셈이다. 우리가 자아 검증을 위해, 마음을 풍요롭게 할 여러 가지 품위들의 증진을 위해 우리는 내부의 세계에 물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를 실행하고자 세상으로 나가고 그 실행에서 나의 생명을 장식한 미덕들이 실제화된다.

솔로몬이 간구했던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고 그 필요성이 강력하다면 그가 바랐던 선물 자체에 시선을 돌려보아야 하리라. “소인에게 총명한 심정(understanding heart)을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말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해주리라. 이제 나는 너에게 슬기롭고 총명한 심정을 주었다.” 솔로몬이 여타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바란 것은 총명하고 잘 경청하며 잘 식별하는 심정이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슬기로워지고 총명한 심정 두 가지를 주셨다. 신성한 영의 이 두 가지 몫이란 선한 것과 악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선물 중에서도 보다 더 높은 선물에 속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못했는바 이제 참 지혜의 근원과 품성을 살펴보자.

지혜는 그 근원을 하느님,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느님께 두고 있다. 하느님의 모든 선물은 그 선물을 달라고 단순히 조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에 의해 획득되어진다. 획득을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 준비의 두 가지란 지혜를 사용하려는 목적을 꾸준히 관망하고 지혜를 확고히 잡을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지혜가 지식이나 총명 같은 것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그렇다해도 지혜는 지식도 아니고 총명은 더더욱 아니다. 지식이 제아무리 많고 총명이 하늘을 찌를 듯 높다 해도 그것들은 지혜를 구성하는 요소가 못된다. 지혜, 총명, 지식은 범위나 종류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총명은 머리쪽에 해당하나 지혜는 가슴(심정)쪽에 해당된다. 지혜로 구별되는 특성은 그것이 이해성에 속하지 않고 의지에 속해 있다는 것, 지혜는 진리만이 아니라 진리가 선함과 하나되어 있다는 것, 지혜는 믿음만이 아닌 믿음과 사랑이 합일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지혜는 이론이 아닌 실제적이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혜는 삶에 적용된 지식과 총명이다.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데 있지 않고 많은 적든 안 것을 하느님의 영광에, 이웃의 복지에, 제 영혼을 잘되게 하는데, 한마디로 인간 삶을 완전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곳에 존재한다.

심정에 지혜를 놓는 솔로몬의 선택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부귀와 명예도 주리라....네가 만일 네 아버 다윗이 내 길을 따라 살았듯이 내 길을 따라

살아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네 수명도 길게 해주리라.” 부와 명예를 영적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지식의 부유함과 드높여짐이다. 장수는 시간과 영원에서의 영적 삶의 상태들, 즉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결과되는 영적 생명의 상태들이다. 이런 선물은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인바 받는 이에 따라 그 품성이 달라진다. 솔로몬 같이 지혜를 바라고 받는 이들의 경우 그 선물은 지혜의 목표와 노력을 돕는다. 즉 공정과 공평의 일을 섬기게 된다. 지혜로 인도하는 지식 또는 선함으로 인도하는 진리는 지혜를 쫓는 것과 다르다. 지혜에 앞서 있는 지식은 우리 자신의 습득물에 더 가깝고 지혜 뒤를 따르는 것들은 하느님의 선물에 더 가까우나 그것에는 자아가 덜 있고 하느님이 더 계신다. 따라서 하느님의 선물은 더 위대한 것을 소유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하느님의 보상금 같은 것이다.

더 나은 선택의 위와 같은 결과가 신약 성서에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더해지리라” (마태복음 6:33). 지혜는 제1의 것이다. 꼭 필요한 한 가지이다. 선한 의지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것을 확고히 할 뿐아니라 그것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획득한다.

참 지혜는 천국으로부터 오는바 천국적인 품성을 지녀서 지상에서 출생한 품성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지혜는 행위로 그것이 빛의 자녀인지 이웃의 자녀인지를 판가름한다. 천국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해 야고보서 3장 13-17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서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은 마음 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체 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악마적인 것이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겸손하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다.” 이런 지혜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대상이다. 지혜가 삶에서 열매로 명백해져야 하리라.

## 열왕기상 3장 27절

### 솔로몬의 첫 슬기로운 재판

솔로몬의 첫 재판은 어느 시대나 나라에서 벌어진 즉흥적인 사법 사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재판일 것이다. 이 재판 안에 담긴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폭넓게 응용되어 왔고 어떤 나라의 문학이나 전통 같은데에서도 발견된다.

우리가 이 재판의 주변 여건을 관조하게 되면 그 재판에 드높은 명성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된다.

동양 국가에서의 법제도는 서양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 보다 더 단순했다. 이 단순함은 재판을 더 난처하고 번거러워지게 만들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군주가 재판 업무를 보게 되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처리되는 사법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홀로 모든 것을 관장한다. 유죄, 무죄를 변호할 장황한 증거도 별로 필요 없다. 이쪽은 저쪽이 범죄를 했다고, 저쪽은 죄짓지 않았다는 것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부서도 필요 없다. 따라서 군주국에서의 재판은 홀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바 그 재판관의 자질이나 품성이 올바른 재판을 위해 절대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겨우 스무살 안팎의 연령인 솔로몬이 처음 선고한 이 재판은 아마 나이가 많은 재판관이나 오랜 경험을 쌓은 재판관을 두고서는 가혹한 테스트로 여겨질는지 모른다. 어쨌든 이제는 본문을 살펴보자. 두 여인이 왕에게 나와 섰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말을 꺼냈다. ‘임금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산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 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밤, 이 여자는 자기의 아들을 깔아 뭉개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 계집종이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을 가져가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놓고 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애매함은 왕 자신에 의해 이렇게 서술되고 있다. “한 사람은 ‘산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네 아들은 죽었고 내 아들이

산 이 아이다' 라고 하는구나.” 이 사건은 어떻게 결정 내려야 할까? 이 여자도 저 여자만큼 권리가 타당할 듯 여겨진다. 두 여자 스스로가 서로에게 목격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두 여자의 진술은 정 반대이다. 따라서 진짜를 가릴 방도가 없는 듯 여겨진다. 이 재판을 지켜보는 구경꾼 역시 솔로몬이 말한 것 같은 곤란함을 느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어떤 구경꾼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 처럼 왕도 대단히 당혹해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구경꾼들은 왕이 이런 곤란한 처지에서 어떻게 빠져 나오는지에 궁금했는지 모른다. 혹 어떤 이들은 솔로몬에게 하느님의 선물, 지혜의 선물이 내려져 있음을 상기하고 이제 그 지혜가 이 재판에서 보여질지 모른다고 기대하고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칼을 내어 오라고 명령한 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 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고 말했다 때 아마도 구경꾼 모두는 실망하고 왕의 잔인성에 섬뚱했을 것이다. 비록 솔로몬이 두 여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다 해도 그들의 진술 만 가지고는 진짜가 무엇인지 가려낼 수 없는 바 왕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판결하는 실마리를 잡은 것이다. 이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솔로몬의 예상이 적중되었다. 아이의 생명이 끊어질 절박한 순간에 이르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자식을 생각하여 가슴이 메어지는 듯 하여 “임금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의 진짜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다.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자가 참 어머니이다.” 산 아이를 두 조각내는 잔혹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던 구경꾼들의 입이 왕을 칭송함으로 바뀌었다.

이 판결에 따른 백성의 감탄은 법정 밖으로 퍼져 나가 “온 이스라엘이 왕의 이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왕에게 하느님의 슬기가 있어 정의를 베푸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재판의 기록에서 모든 이들이 솔로몬의 지혜, 뿐만 아니라 산 아이의 어머니가 느낀 참 본성이 적나나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산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로 인정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녀는 자기가 낳았기에 사랑하는 것 만큼 아이라는 개별적 차원에서도 사랑했다. 그러기에 자신이 소유할 수 없다 해도 아이가 죽는 것 보다는 차라리 상대자에게라도 넘겨 주는 것이 그 아이 자신을 위해 더 낫다고 판단하여 기꺼이 소유권을 포기했다.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이 여자는 아이가

죽게 되는 순간인데도 기꺼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따를려 했다. 참으로 이 여인의 표현에는 불일치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왜 이 여자가 아이를 훔쳤고 거짓 증언 까지 들이대 싸우면서 진짜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느니 차라리 아이가 죽는 것을 보려 했을까?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 갖기를 굉장히 바랬다. 그러나 이렇게 바라는 열정은 순수하게 아이를 원해서 만이 아니라 아이를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명예를 사랑해서 튀어나왔다. 이럴 경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한 것밖에 더 아니다. 참으로 악한 부모들은 자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사랑한다. 그 결과는 자신의 자녀 외의 다른 자녀들은 내향적을 미워한다. 내향의 기질로만 사는 저 세계에 대한 스페텐봄의 증언에 의하면 사악한 어머니들이 아주 격앙되면 자신의 것이라 믿는 아이들 외의 모든 아이들을 갈기 갈기 찢고 싶어한다고 한다. 이럴진대 본문의 여인의 행동은 스페텐봄의 증언에 합당한 표현을 드러낸 셈이다.

거룩한 역사의 주제로서 솔로몬의 재판은 글자적으로도 교훈적이다. 더욱이 새로이 출생시키는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영적 상태에 관련해서도 한층 더 의미있고 교훈적이다.

솔로몬은 정의와 평화에서 건설된 왕국의 통치자 되시는 분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여인은 성경에서 주님의 교회를 표현한다. 솔로몬의 첫 재판은 주님의 교회와 관련되고 있다. 제 아이를 깔아 뭉개서 죽이고 동료 여인의 산 아이를 가로채고 죽은 제 아이를 그녀 품에 놓고, 산 아이가 제 아이라고 우기고 결국 산 아이마저 죽게 하고 싶어 한 비정의 여인은 유대 교회 (Jewish Church)를 표현했다. 한편 제 아이가 죽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제 아이임을 단념하겠다고 울먹인 산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은 이방인 교회(Gentile Church)를 표현했다.

이 두 여인 모두 창녀들이었다. 그렇다고 이 여인들이 표현하는 의미가 퇴색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더 놀라움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 이유가 그녀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하느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묘사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분의 교회의 남편이요 그분의 백성의 아버지 되시는바 구약 성서에서 모든 우상 숭배는 자연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모두 말하고 있다. 호세아 2장 2,5절을 읽어 보자. “너희 어미를 고발하여라. 너희 어미는 이미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 어미의 지아버가 아니다....그들을 배었던 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놀아난 계집이다...” 유대 교회는 그녀의 참된 남편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견책 당했을 뿐 아니라 가난하나 순진한 사람의 피를 그들 옷자락에 묻혔다(예레미야 2:34). 이리하여 유대 백성은 순진 자체에 폭행을 저질러 고발되었다. 그 이유가 순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참된 종교의 가장 깊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 안에 순진이 없으면 영적 생명도 없는 것이다.

죽은 아이의 어머니로 표현된 유대 교회는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영적 순진의 모든 원리를 파괴했다. 이 파괴는 과거 헤로데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 즉 아기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베들레헴의 모든 유아들을 죽인 것에서도 표현되어졌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보존됨으로 인류의 구속이 결과되었다.

산 아이의 어머니로 표현된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을 경멸하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자신들 만이 정의롭다고 자찬했던 유대인들 보다는 덜 썩은 조건에 있었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자기들 속의 모든 순진과 모든 진리를 파괴하면서 한편 이교도로 부터 얻은 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다. 이 비유에서 가라지는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뿌려졌고, 본문에서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때도 밤중, 여인이 잠들어 있는 때였다. 밀과 가라지, 선한 자와 악한 자, 참된 자와 거짓된 자는 저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분리된다. 가진 것 처럼 보일 뿐 실지로는 가지지 않은 자가 지닌 제 것이 되지 못할 선과 진리는 거두어 가진 자에게 주어져 가진 자는 더 풍요로워진다. 참으로 거기서 공정하며 마지막인 심판이 각자 고유의 것에 할당된다.

이 세상에서 조차 이에 관한 어떤 것은 상관 있는 듯 벌어지고 있다. 인간이 퇴락하는 경우 선과 악, 참과 거짓의 분리를 말하는 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경계선 자체가 지워져 결국 그들 사이의 진짜 차이에 대한 지각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신성한 심판의 모든 행동은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 사이의 차이에 관한 말살된 지식을 회복시켜 놓아 분리가 결과되도록 한다. 인간 쇠락의 이 결과는 기독 교회 자체의 과거 역사 만을 들추어도 충분히 실감된다.

이제는 좀더 뾰족한 의미를 찾아보자. 죽은 아이의 어머니였던 여인에게서 이런 품성들이 나열되고 있다. 부주의하게 생명을 방치함으로 자신들 안의 순진을 깡그리 파괴하는 품성, 타인의 순진을 강탈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품성, 이웃의 손실로부터 하등 자기 이익이 챙겨지지 않는다 해도 이웃의 평화와 순진을 파괴하고 싶고 하등 후회가 없는 품성들이

다. 사악한 자의 실상이요 늘 하려는 짓은 자기들 것인 죽은 원리를 타인에게 주입 시키려 하고 제 것도 아닌 생명이 제 것인냥 여기는 것이다. 이런 자도 타인들 처럼 열성적으로 행복을 바란다. 이들도 천국에서 행복이 발견되기에 자기들도 천국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서 그 곳에 입장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마치 결혼식장에 예복도 입지 않고 들어 가려던 손님과 같다. 또는 게을렀던 결과 채우지 못하고 있던 선함이라는 기름을 동료 처녀에게 나눠달라고 하는 미련한 처녀와 같다.

산 아이의 어머니였던 여인에게서 이런 품성, 즉 비록 스스로의 잘못에 빠져있거나 이기적이고 불순한 타인의 간계로 시련에서 허덕일지라도 아직 순진과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 이들의 품성을 나열하고 있다. 이들은 보호해주고 제압해 주시는 섭리의 마지막 개입으로 구원되리라.

이 주제의 유추를 한번 더 추적해서 각 개인 마음에 응용해보자. 한 집에 있는 두 여인은 한 마음 안에 있는 두 애정, 즉 진짜 애정과 가짜 애정을 상징한다. 우리는 자신 속의 선함의 원리에 관련해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사이를 식별하는 가장 높고 가장 나은 수단을 가진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 판단할 때 우리는 바깥쪽 증거나 내향의 식별, 또는 이 둘을 합한 서로 연합한 것에 기초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외부의 증거가 불충분할 때가 많고 따라서 석연치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의심스런 주제들을 만날 때 그 주제에도 신성이 있다고 해야 하는지, 또는 이 주제가 진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 있는 대목에서 외부의 증거만으로 판단하는 이들에 의해서는 긍정되거나 부정되거나 한다. 이럴 경우 우리는 그 대목을 두고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희미하다고 말한다. 정말 공정하게 판단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확실하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은 결코 없는 것일까? 솔로몬의 재판이야말로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애정은 때로는 생각이 뒤엉키게 만든 매듭을 더 빠르게 풀 수 있게 한다. 이해성이 결정할 수 없을 때 심정이 참된 결정을 내릴 경우가 자주 있다. 양심은 추론의 긴 과정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단번에 볼 수 있게 한다. 이쪽으로의 결정과 저쪽으로의 결정에 따른 장,단점이 거의 비슷할 경우 어떻게 판단해서 행동하여야 하는지에 어쩔줄 몰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자주 있다. 두 애정이 산 아이의 어머니, 생명 있는 순진의 부모된다고 각기 주장할는지 모른다. 때때로 자연적이고 영적인 애정이 이 품성을 나열하지 않을까? 자연적 기쁨 만이 살아있는 것이고 영적 기쁨은 죽은 것이라고 우길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자연적 기쁨이 그것 안에 생명력을 가지는 한 그

생명력은 영적 애정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만일 이 기쁨이 자연적일 뿐이라고 우긴다면 그들은 영적인 것에서 훔친 것이 된다. 자연적인 기쁨 안에는 생명력이나 순진 같은 품성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들은 영적 애정으로부터 이끌려 내질 뿐이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영적 애정은 그 안에 호소력 있는 선함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 자연적 애정은 심정이 없거나 돌 같은 심정인바 부드러운 분위기가 없거나 또는 무관심한 애정이기 십상이다. 어떤 의심가는 경우에서 우리는 애정의 내적 본성에 호소함으로 진짜와 가짜 사이를 식별할 수 있다. 더불어 의심의 구름 없이 어떤 것이 영적 애정이고 어떤 것이 자연적 애정인지를 말할 수 있게 해준다. 가짜 어머니가 산 아이를 잘라 나누어 가짐으로 파괴하려 한 순진을 진짜 어머니의 팔에 되돌려줄 수 있다.

우리는 착했던 악했던 육체 안에서 행해져 왔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 나와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되 그가 말한 것으로가 아닌 그의 품성이 무엇인지로 판단해야 하리라. 주님은 심정을 보시는바 심정을 통해 우리가 했던 일들에 따라 판결받을 것이다. 그 날에 모든 심정들의 비밀들이 밝혀지고 모든 이 각자는 그의 일에 따라 보상받을 것이다. 순진을 흠모해 왔던 이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시련을 거치느라 흠모한 순진이 다 잃어버린 듯 해도 우리가 낳고 키운 순진은 우리 품 안에 다시 안기리라.

## 58

### 열왕기상 4장 21절

#### 솔로몬의 통치 아래 안전을 확실히 즐기다

지상의 정부가 그 백성들에게 확실히 보장해주어야 하는 두 가지는 외부로부터의 적에서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내부로부터 있는 적들로부터의 보호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재산과 사생활이 침해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이다. 국가적 안전의 가장 높은 조건은 솔로몬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면서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에서 안전에 관한

위의 두 종류는 손상되지 않게 보존되고 있다. 주님의 왕국의 평화와 안전성을 위협하는 외적인 적은 어둠의 권세이다. 이 세상에서 사악한 자를 구성하고 있는 적들은 영적 삶의 바깥쪽 경계선에서 행동하는 것들의 수단이다. 따라서 내적 삶이 내적 생명의 저차요 보존자 되시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그리고 심정 자체의 내향의 적들이 우리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등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적들이란 우리 자신의 악한 목적, 악한 기질이나 욕망이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구속과 구원을 수단으로 우리의 내, 외부에 있는 적들로부터 안전하도록 설비해두시고 동시에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향유하는 복, 즉 안전과 번영을 즐길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의 왕국 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

주님의 왕국에서 일반적이고 세부적, 내적이고 외적인 통치 형태가 이 장에서, 솔로몬의 정부 형태에서 표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왕자들과 사제, 여타 높은 관리들 외에도 이스라엘 전역에는 왕과 왕실에 양식을 대는 열 두 관리들이 있었다. 그 관리 한 사람이 일 년에 한 달씩 양식을 대는 책임을 졌다. 통치자와 관리들 사이가 구분되면서 동시에 종속되는 관계는 주님의 왕국이 천국에서, 그분의 교회에서, 그리고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주님의 왕국에서 이타애의 원리가 가장 높은 직위에 앉아 있고 믿음의 원리가 둘째되는 그 다음으로 이타애의 원리에 종속되고 있다. 솔로몬 왕국에서 가장 높은 공직자는 두 사제이고 이들의 직능은 사랑으로 섬김(ministry of love)과 상응된다. 매 달마다 교대해서 섬기는 열 두 공직자는 믿음으로 섬김에 유추되는 직능들이다. 영적 의미에서 시간대는 삶의 상태를 의미한다. 한 달이라는 간격은 달(moon)의 회전 기간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는 믿음의 상태를 상징한다. 믿음이라는 품위(grace)는 하느님께서 내적 인간의 하늘에 두신 “작은 빛(lesser light)”이므로 이 빛은 사랑과 이타애라는 더 “큰 빛(greater light)”에 의지해서 빛을 내는바 더 큰 빛에 종속된다 (창세기 1:16 참조).

위 유추에 일치되어 기독교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는 열 두 가지 열매를 매 달마다 맺고 있다 (요한계시록 22:2). 그 이유가 사랑과 이타애라는 종교의 생명력 있는 원리는 그것과 연결되어 존재하는 믿음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본질과 근원에서 사랑은 생명이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을 통해 발달되고 믿음에 의거 그 품질을 가진다. 영혼에 있는 사랑은 자연계에 있는 열과 같다. 사랑은 영적인 것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다. 마치 열이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인 것과 같다. 영혼에 있는 믿음은 자연계의 빛과 같다.

믿음은 영적 생명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도구 역할에 가까운 원인이다. 마치 빛이 아름다움과 열매 맺음을 형성함에서 자연계의 생명이듯 하다.

사랑으로부터 믿음을 수단으로 일해서 만들어지는 매일의 양식(provision)은 영혼의 생명을 받쳐주는 영적인 수단을 공급한다. 그 이유가 영혼도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육체가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 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혼에 있는 사랑이라는 생명은 매일 아침 장작을 공급받아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과 같다. 이와 같이 영혼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꺼짐을 막고 동시에 그 사랑의 힘을 새로이 하기 위해 가르침과 정의의 실제화를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

“솔로몬의 하루 양곡은 고운 밀가루 삼십 섬, 거친 밀가루 육십 섬, 기름진 소 열 마리, 목장 소 스무 마리, 양 백 마리 였고, 그밖에 수사슴, 산양, 수노루, 날짐승이 있었다.”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은 통상 빵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있는 “일용할 양식, daily bread”에서 표현된 천적, 영적, 자연적 수준에서 있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모든 원리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고운 밀가루는 선으로부터 파생된 천적 진리를 명시한다. 본문에서 “삼십”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 숫자의 표기는 삼이 먼저이고 십이 그 다음에 나열되고 있다. 이 숫자들은 대상의 품질을 표현해준다. 마치 세배, 세겘, 삼위일체가 모든 것 안에서의 품질을, 그리고 십년, decade은 많은 것 안에서 그 자체 완전해지고 어떤 한 단계의 발달이 완성되는 것을 표현해준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로부터 불레셋 땅을 지나 에집트 국경에 이르는 지역 안의 모든 왕국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겼다... 그는 딤사에서 가자에 이르기 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전 지역을 다스려 사방으로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폭넓은 솔로몬의 지배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영적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되어졌다. 시편 72편에서도 글자적으로는 솔로몬에 관련되고 구세주 하느님과 왕, 그분의 왕국의 범위를 예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 8,11절이다.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 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끝에 이르기 까지 다스리리니... 만왕이 다 그 앞에 엎드리고 만백성이 그를 섬기게 되리라.” 즈가리아의 예언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이 발표되는데 이는 주님에 관련되어 복음서에서도 기록되고 있다.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너를 찾아 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 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까지, 큰 강에서 땅 끝 까지 다스리시리라”

(9:9,10). 그러므로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우리 주님의 주권 영역, 특히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 중 마지막 췌요 가장 나은 교회 처방, 즉 이 처방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예전 보다 더 완전해져 인간의 마음과 삶을 통치하는 원리가 되는 교회에서의 주님의 주권 영역을 표현했다. 주님의 주권 영역은 솔로몬의 지배 영역으로 묘사됐듯이 동으로부터 서 까지, 북으로부터 남 까지 이르는 온 땅이다. 동으로부터 서 까지, 즉 바다로부터 바다 까지란 선함의 상태에 관한 마음에서의 주님의 주권 영역이고, 북으로부터 남 까지, 즉 강으로부터 땅 끝 까지란 진리의 상태에 관한 마음에서의 주권 영역이다.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즉 아시리아로부터 불레셋 땅에 까지, 에집트의 강 까지에 걸쳐 있는 온 왕국을 솔로몬이 다스린다는 세부적인 서술은 주님의 주권이 마음 전체에 두루 미친다는 것, 즉 합리적으로부터 과학적인 데 까지, 가장 높은 추론의 지각으로부터 가장 낮은 감각의 습득에 까지 두루 미친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인간 마음에는 세 가지 것, 즉 합리적, 자연적, 육체적, rational, natural, corporeal 등차들이 질서적으로 각각의 뒤를 잇고 있다. 이런 인간의 세 부분들은 경이적으로 교통하는데, 육체적(물질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과 교통한다. 출생 때 인간은 육체적(물질적) 인간일 뿐이나 후에 자연적 인간이 되고 마침내 합리적 인간이 된다. 그러므로 이 세 부분이 인간을 구성한다. 그 이유가 인간성(humanity)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합리성에서 시작하여 가장 바깥, 즉 최말단인 감각성에서 종결되기 때문이다. 거듭나는 상태에서의 이것들은 솔로몬의 주권이 미치는 아시리아, 불레셋, 에집트이다. 그런데 솔로몬의 주권은 유프라테스와 나일강 사이의 온 나라에 이르고 있다고 말해지는데, 이는 자신의 나라 외에도 모든 다른 나라들이 그에게 종속되고 조공을 바쳤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윗이 가나안에 인접한 나라들을 복종시켰다는 것은 이미 살핀 적이 있다. 이는 영적 원리 아래에 유전적 자질들을 종속시킨 것, 그리하여 이 자질들이 영적 삶의 용도에 충당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완전히 복종된 상태가 되어 그를 섬기고 공물을 바치되 그가 죽는 날 까지 계속되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밖으로는 모든 것이 복종되어 섬기도록 된 한편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안정과 평화와 즐거움이 있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유대와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알 처럼 인구가 불어 났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아쉬움을 모르며 잘 지냈다...그들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 까지 마음 놓고 살면서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다.”

위의 모습은 거듭나는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있다. 즉 선과 진리가 무한하게 붙어 날 때, 영혼의 먹고 마심인 말씀의 선과 진리를 기쁨으로 응용하여 내 것 되게 할 때의 모습들이다. 동시에 평화의 상태 까지 그리고 있는바, 거듭나는 사람이 그의 가장 깊은 생명으로부터 가장 바깥 생활에 이르기 까지에 걸쳐 살게 될 때의 모습을 “저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산다”는 것으로 묘사해 놓고 있다.

이는 주님의 영적 유대와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아름다운 비유적 표현인데, 이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미가서 4장 3,4절에서는 주님의 교회의 미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칼을 빼어 드는 일이 없어 다시는 군사를 훈련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제가 가꾼 포도나무 그늘, 무화과나무 아래 편히 앉아 쉬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시다.” 전쟁이 끝남이란 육과 영, 영과 육의 대결이라는 기독교인의 마음과 삶에 있던 싸움의 끝장이다. 이런 영적 교전은 거듭나려고 스스로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끝을 맺고야 만다. 평화, 참된 영적 평화, 고난을 견뎌낸 평화는 심정과 삶 속의 악들을 정복한 뒤에 온다. 그리하여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으로 바뀐다. 그 이유가 우리의 부패된 본성 속의 악과 거짓 원리로부터 방어해주고 그것들을 부수는데 사용되었던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가 이제는 마음을 함양하고, 평화스런 정의의 열매들을 생산하는 생활을 발전시키는데 응용되기 때문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마음이 평정을 갖는바 마음 자체의 생산물이다. 사실 우리 없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 놓고서는 폭염을 피하는 그늘도, 폭풍을 피하는 은신처도 있어질 수 없다. 더욱 더 진실인 것은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력은 그분께로부터인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시들 수밖에 없고 불 속에 던져 태워질 수밖에 없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일 때만이 우리는 살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 만큼, 이런 것도 진리일 것이다. 즉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에게 교통되고 우리 안에서 순환되면서 그 생명과 유사한 생명들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나라를 포도원을 세우고 농부에게 맡긴 사랑에 비유해주시고 있다. 그분이 세운 포도밭은 그분의 백성의 지성과 심정 말고 어디에 있어질까? 그분의 나라의 씨는 정직한 심정이라는 옥토에만 뿌려질 수 있고 포도나무는 거기에서만 경작될 수 있다. 거듭나는 사람이 안전하게 거주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먼저 주님에 의해 이식되고 그분의 보호 아래 총명과 미덕의 생활 안에서

자란다. 그분의 생명이 두 나무 안으로 들어가 완전해지게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당된 의무도 있다. 신성한 생명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마음이 성장하고, 거룩한 생활로 발전하도록 그 생명을 받고 명백해지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본문의 비유적 표현이 묘사한 안전과 평화의 상태를 즐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비유에 있는 농부 같이 수단들을 동원해야 한다. 우리는 포도원에서 일해야 하고 무화과나무 돌레를 파고 똥거름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전에 갈과 창을 사용한 것 처럼 이제는 보습과 낫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딱딱한 땅을 부수어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간직해야 한다. 신성한 농부 같이 우리는 시든 가지는 쳐내서 열매맺는 능력이 증진되도록 보존해야 할 것이다. 투쟁의 일이 멈추어지면 사랑의 일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일의 보상은 안전과 기쁨이다.

## 59

### 열왕기상 5장

#### 성전 건축 준비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 통치에서 대단한 업적 중 하나요 솔로몬에게 큰 영광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건축의 예정성을 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건축물이 신전이라 하여 거룩하다해도 국가 예산의 일부만을 지출했을 뿐인데 그것을 놓고 국가의 큰 영광이라고 까지 추켜세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는지 모른다. 게다가 화려한 성전을 세우는 것 말고도 군주와 백성의 경건함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나라의 많은 예산이 건축에 할당됨으로 건축 기술이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을 가장 순수한 예배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꼼꼼히 따지자면 솔로몬의 성전은 국가의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예배가 팔레스틴 전국에 걸쳐 거행된 것에 비하면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는 한 장소에 국한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성전이 표징성을 지니기 위해서 건축물의 독특함과 장엄함이 요구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솔로몬 자신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상에서 태어나신 주님의 가장 높은 왕권적 지위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그가 세운 성전은

육체적으로 있는 가장 높은 성전이며 이 성전에서 우주의 통치자께서는 지상의 인간에 자신을 명백히 보이시는데 기뻐하신다. 주님의 육체- 주님의 인성, 즉 신성한 위엄이 옷을 입어 그늘 아래 있는 영광으로 인간의 거처에 내려온 몸은 하나였다.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인간 본성은 보편적인 인간성에 매우 가깝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 까지 주님의 인성은 공통적인 우리의 인성에 관련하여서는 홀로 서있으셨다. 주님의 인성의 공통됨과 분리됨은 그분의 탄생과 부활을 수단으로, 첫 탄생과 두 번째 탄생을 수단으로 영감의 언어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졌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었으나 다윗의 아들이라 불리우기를 거절하셨다. 부활을 수단으로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기를 중단하셨고, 영화하심을 수단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상속된 모든 것을 벗으셨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그 이유가 그분의 인성이 신성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분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하느님에게 참된 나지르인이셨다. 그분은 죄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여느 그분의 지상 형제들을 만든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분의 삶은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했고 죄인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마리아의 아들로써 그분은 우리 중의 한 사람이었고 하느님의 아들로써 그분은 모든 유한한 것을 초월해 무한하게 존재하셨다. 마리아에게 임신되던 때도 내향적으로 신성이긴 했지만 영화하심으로 완전한 신성이 되셨다 해서 우리와의 친근 관계가 위축되는게 아니라 더욱 배가되어 더욱 인간적이시기도 한 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의 인간적인 것에 더 가까이 더 밀접해지게 만든다. 따라서 이것은 그분으로 우리를 그분과 더 닮게 만들고 그분과의 결합을 더 밀도있게 만든다.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높은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인성, 그분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신성의 성전, 우리의 창조자요 구속자로서의 그분께 다가가 경배할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성전 등등인바, 기독인에게는 대단한 흥미를 주는 주제이다.

거룩한 건축물의 흥미와 교훈이 위의 서술에서 끝나는게 아니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성전은 주님 자신의 영화로운 육체를 상징함과 더불어 천국과 그분의 교회를 구성하는 그분의 신비로운 육체도 상징하고 더 나아가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순수해진 영혼을 지녀 주님의 거처가 되어 그분과 하나를 이룬 거듭나는 사람도 상징한다.

우리는 이 장을 세세하게 까지는 살필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성전의 일반적 배열, 그리고 세부사항 중 많은 부분에서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 매우 닮은 점이 많다. 모세의 성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주석을 자세히 다룬 스페텐볼의 저서로부터 많은 설명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까지 세부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두 건축물 모두가 천국의 모형을 따라 지어진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그래도 두 건축물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런 구분점은 우리의 가르침을 위해 의도되었으리라 생각되므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리라.

앞 장에서 우리는 대단한 규모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띠로의 히람왕이 솔로몬에게 적극 협조해서 주님의 집을 지을 재료를 확보하고 있다. 15 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돈 사람들과 협력해서 성전에 쓰일 재목과 돌을 수집하고 있다. 재목은 송백나무와 전나무였고, 돌은 신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들로 다듬었다.

성막과 성전의 일반적인 차이란 성막은 나무로 되었고 성전은 돌로 건축된 점이다. 따라서 두 건물의 표징성에서 일반적 차이가 있게 된다. 성막은 선함을 원리로 하는 주님의 교회를, 성전은 진리를 원리로 하는 주님의 교회, 다시 말해 성막은 주님을 향한 천적 수준의 예배, 성전은 영적 수준의 예배를 표현해준다. 이런 구분은 다른 차이점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성막의 나무는 아카시아나무(shittim-wood)였으나 성전은 올리브, 송백, 전나무가 사용되었다. 아카시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똑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둘 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먼저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 둘째로 주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있다. 아카시아나무는 인간 구원의 바탕을 이루는 것인 인간 구속의 일을 결과되게 하는 주님의 자비를 의미한다. 성막은 주님의 교회가 아직 광야에 있어 고난을 겪는 동안에서 지어졌다. 따라서 자연적 삶과 초기 영적 수준에서 우리와 현존하시는 주님의 인성을 표현한다. 그러나 성전은 우리의 영적 여행이 상당히 진전된 단계, 그래서 휴식처를 확보한 수준, 즉 우리의 바깥쪽 삶 뿐만아니라 안쪽의 삶에서까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이 건설된 상태에서 우리와 현존하시는 주님의 인성을 표현한다.

아마 이런 불일치 되는 점이 얼핏 떠올랐는지 모른다. 즉 영적 수준을 상징하는 성전이 천적 수준을 상징하는 성막 다음에 있게 되었을까이다. 성막은 사제적 정부 형태 동안에서 세워졌다. 그러므로 성막은 그분의 교회의 대 사제되시는 주님의 정부 형태를 표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성전은 왕권적 정부 형태 아래에서 지어졌는바 이는 그분의 교회의 왕권적 통치자되시는 주님의 정부 형태를 표징적으로 그려준 것이다. 주님의 사제적 정부는 사랑을 수단으로 하는 그분의 정부이고 왕권적 정부는 지혜를 수단으로 한다. 거듭남의 과정에서 사랑의 정부가 지혜의 정부에 선행되고 있다. 거듭남은 출생 때부터 개시되는바 유아의

영혼은 먼저 사랑의 영향 아래 있고, 더 발전된 시기, 삶의 상태에서는 지혜의 지시 아래 있다. 다시 말해 지혜의 성전이 그의 이해성에 있기 전에 사랑의 성막이 그의 심정에 있다. 인간 심정에 처음 이식된 사랑은 험어 내려야 하는 성막이다. 그 이유가 첫 사랑은 계발된 사랑이 아닌바 당사자에게 진짜 사랑도 아니고 완전한 사랑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이 종교적 지식으로 훈육되면 초기의 사랑은 지혜에로 넘어간다. 마치 성막이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다. 성전은 더 정교한 성막이다. 성막의 모든 요소들이 성전 안에서 재생산되어 있다. 초기의 사랑이 지혜라는 빛의 바다에서 오래 오래 씻겨지면 그 사랑은 더욱 순수해지고 우리로부터 더욱 드높임을 받는다. 그러면 그 성전은 “옮겨지지 않을 성막, 그 말뚝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고 그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성막”이 되어 있다 (이사야 33:20). 그리하여 이제 성막이 홀로 나타나되 홀로가 아니다. 그 이유가 가장 나은 상태에서의 그분의 교회와 가장 완전한 상태에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표현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보라 하느님의 성막이 인간들과 함께 있다...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3,22). 거듭남이 향상되어 가는 점에 관련해 볼 때 성전은 보다 더 완전한 발달을 이룩한 주님의 교회를 표현할 것은 의심할바 없다. 위 구절에서 성전 자체가 주님의 신성한 인성의 영광과 동일시 되고 있다. 올리브, 송백, 전나무에서 우리는 인간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보편적 원리, 즉 천적, 영적, 자연적 원리들, 다시 말해 주님 사랑의 선, 이웃 사랑의 선, 계명에의 순종의 선을 상징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벽과 성전의 기초를 이루는 돌들은 일반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진리, 거룩한 말씀의 글자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 모든 종교의 필수 요소를 구성하는 진리들, 즉 하느님과 사후 삶에 관한 지식, 선함에 따른 행복과 악함에 따른 비참함 등등에 관련된 진리들을 명시해준다. 이 돌들은 큰 돌, 값나가는 돌, 다듬어진 돌인데 이 돌들이 거듭나는 모든 마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와 천국의 기초를 이룬다. 이 돌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느님 구세주로서 아는 지식과 실제적 인정은 모두가 돌에 해당되고 이 확실한 반석에 주님의 교회를 지으면 지옥의 어떤 권세도 감히 넘보지 못한다.

성전 건축 재료 준비, 정교한 장식, 가구 같은 세세한 면에서 전공이 다른 인부들이 성막의 것에 상당하는 일을 위해 고용되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의 재료 중 나무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인부를 고용했다는 언급은 없다. 그러나 금과 은, 구리를 준비하고, 장신구를

만들고 귀중한 돌을 다듬고, 재목을 깎는 일에서는 숨쉴 틈이 없는 인부들을 채용했다. 이런 종류의 일을 위해 모세는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에게 이 일을 하도록 뽑았다. 이와 유사하게 솔로몬도 히람을 채용했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 그의 아버지는 띠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지파의 표징성에서 유다 지파는 가장 높고, 단은 가장 낮은 바 이 두 지파의 출신인 두 인부는 천적인 지혜를 표현하되 가장 높은 지혜에서 가장 낮은 지혜 까지, 처음 지혜부터 마지막 지혜 까지를 표현한다. 이 두 지혜는 마음에서 주님의 성막이 세워질 때 성막을 짓고 장식하는 일에 종사한다. 그러나 거듭남의 발전으로 마음이 더 충분히 완전해질 때, 그리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경우 더 영적인 표징성을 가지는 인부들이 채용된다. 성경에서 띠로(Tyre)는 사물에 관한 영적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 띠로와 함께 시돈(Sidon)이 언급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경우 띠로는 내면의 지식을, 시돈은 외면의 지식을 의미한다. 띠로의 이런 표징성 때문에 특출한 상업 도시의 왕 히람이 성전을 지을 재료를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선함과 진리를 이는 자질은 거듭나고 있는 기독교인이 자기 마음에 생명 있는 성전을 짓는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띠로 사람과 시돈 사람의 표현적 품성의 차이가 그들에 관한 솔로몬의 말에서도 나타난다. “ 우리 가운데는 시돈 사람 처럼 나무를 자를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 레바논에서 나무를 조달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말씀 자체로부터 영적 진리와 자연적 진리의 선을 획득하는 더 외적이고 일반적인 일을 표현했다. 그런데 성전의 가구와 장식을 준비하는 더 내부에 속하는 작업이 말해 질 때 이스라엘 출신 어머니와 시리아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 띠로 사람은 내적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이스라엘 여인은 진리에 관한 영적 애정을 의미하는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은 하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선과 진리에 관한 합리적 지각과 영적 애정이 저절로 하나되게 하는 원리, 또는 자질을 표현한다. 이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소속이었다. 이 지파는 천국적 결혼인 선함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했다. 성전 장식을 맡았던 히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다. 히람의 성전 작업이 주님의 일, 즉 그분의 신성이 지상의 모든 세대들과 하나로 되는 수단, 진실로 한 핏줄 뿐 아니라 한 영혼이 되는 수단, 제 몸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무엇 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만드는 수단이 되셨다는 것을 상상해보면 모순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분의 교회에서 주님이 신성한 사람이요 모든 참된 인간성의 모형이시고 인간 안의 진실로 사람된

모든 것의 저차이심을 보편적으로 인정할 때, 주님은 지상의 어느 곳에서나 왕이 되시고, 한 울타리, 한 목자만 존재하리라.

## 60

### 열왕기상 6장 솔로몬의 성전

우리는 성전 건축에 쓰인 나무와 돌에 관해서는 이미 살폈다. 이제 우리는 성전 안 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방, 가구, 정교한 장식물에 관한 유추를 생각해보자.

고대 세계의 이런 경이로움에 관한 표징성이 지닌 일반적 의미는 이미 살폈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성전은 주님의 육체(Lord's body)를 예칭한다는 것, 이 육체가 거룩한 모든 예배의 근원이요 대상이라는 것이다. 둘째 의미에서는 천국과 그분의 교회를 표현한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의 신비로운 육체(Lord's mystical body)인데 그분의 가장 크고 가장 빛나는 형상이다. 세세한 의미에서 거듭나는 사람을 상징한다. 이 사람은 주님의 형상이요 가장 작은 형체에서의 천국이다. 이런 표징성의 고리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그 고리를 반드시 씌어진 말씀에서 취해야 한다. 씌어진 말씀은 또다른 형체에서 나타난 신성한 진리 자체이신 육을 입으신 말씀과 거의 같거나 동일시 해도 무방하다.

성전의 분리된 구역(division)으로부터 배우는 첫 큰 진리는 성막의 구역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표현한 무한한 분과 유한한 인간 모두에 관한 지식의 기초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성전도 성막의 경우 같이 세 구역으로 되어 있다. 가장 깊은 장소는 지성소(holy of holies)라고 부르고, 둘째 장소는 성소(holy place), 그리고 뜰(court)이 있다. 신성한 울로 둘러 막은 이 마지막 장소는 두 겹으로 되어 안쪽 뜰과 바깥 뜰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살피겠다.

성전의 이런 구역이 표현한 위대한 진리란, 신성한 존재 안에서, 그로부터 천국과 인간 안에는 세 개가 한 쌍(trine)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 안의 세 가지 것(a trinity in unity)은 무한한 분과 유한한 것 모두에게서 완전을 이루는 보편적인 틀(type)이다. 영원으로부터의 신성한 존재, 더욱이 육을 입으신 이래 우리와 관계되는 신성한 분 안에는 세 가지

신성한 본질(trinity of Divine Essentials)이 있다. 사랑, 지혜, 권능(power)이 그것이다. 이 셋은 하느님 안에 존재하고 영원으로부터 존재해 왔다. 하느님이 육을 입으신 이래 이와 똑같은 삼위일체는 주님의 본질되는 신성, 그분의 신성한 인간성, 이로부터 진행되는 성령이다. 신약 성서에서의 경우 이 셋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 불리고 있다. 아버지는 본질되는 신성, 또는 신성한 사랑이고, 아들은 신성한 인간성 또는 신성한 지혜이고 성령은 신성한 권능 또는 거룩한 진행(Holy proceeding)에 해당된다. 삼위일체의 이런 묘사가 외관상으로는 불일치한 듯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신성한 지혜 또는 말씀이 육을 만들었고, 육을 만든 말씀으로부터 성령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은 삼위일체의 하느님이셨을 뿐 아니라 신성한 사람(Divine Man)이셨다. 육을 입으시기 전, 그분은 처음되는 원리에서의 사람이셨고, 더불어 육을 입으시는 사건 이후, 마지막되는 원리에서의 사람도 되셨다. 육을 입으시기 전 그분은 창조자요, 보존자로서의 사람이셨고 더불어 육을 입으신 이후 그분은 구속자 구세주로서의 사람도 되셨다. 육을 입으시기 전 그분은 천사들이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사람이셨고, 육을 입으신 이후 그분은 지상의 우리가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러므로 육을 입으시기 전 그분이 어떤 인물(person) 안에서 나타나실 때 천사들의 속성을 입으셨다. 이것은 천사들의 영적인 형체이고 그분의 현존의 천사, 언약 속의 천사라고 드넓게 불리우고 있다. 육을 입으셨을 때 비록 신성한 아버지에 속하긴 해도 인간 어머니의 자손, 어떤 개인 한 사람,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인간 속성을 입으셨다. 지상에서 동정녀 어머니에게 태어나고 천국에 계신 신성한 아버지에 의해 영화된 인간성, 그리하여 살과 뼈라 불리는 최말단 까지도 신성이 된 이 인간성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다. 인간의 믿음과 예배의 유일한 참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되시고 영화로우신 인물이신 그분 안에는 신성한 삼위일체가 있다. 즉 하나 안에 셋이, 셋 안에 하나가 있다. 하느님 안에 있는 이런 셋은 세 인물(tripersonality)을 가르키는게 아니다. 삼위일체란 한 인물(person) 안에 세 속성, 즉 사랑 지혜, 능력, love, wisdom, power 또는 신성, 인성, 운행하심, divinity, humanity, operation의 세 필수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다. 신성한 삼위일체란 신성한 세 인물 안에 하느님이 각각 계신 게 아니라 한 인물 안에 세 가지 신성한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 하느님이 우리의 창조자, 구속자, 갱생자이심을 인식해야 한다. “하느님이 그분의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신다. 모든 땅의 것들은 그분 앞에서 잠잠해지어라.”

한 분 하느님 안에 있는 신성한 세 가지는 영원으로부터 조차 모든 것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근원이다. 창조된 모든 것들은 신성한 근원에 있는 삼위일체의 속성의 닮은 꼴이거나 유추되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질과 형체, 그리고 사용함이 있다. 이런 세 가지는 아주 저급한 창조물에서 조차 사랑, 지혜, 힘과 상응되거나 유추되고 있다. 그 이유가 사랑은 본질 또는 생명이고, 지혜는 생명이 명백해지는 것, 또는 생명의 형체이고, 사용함은 생명의 힘 또는 적극적인 최말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위일체와 하나됨은 온 창조에 고루 스며있다.

천국적인 성전은 세 개의 큰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이다. 이와같이 천국 자체도 셋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삼 층의 천국은 사도 바울도 언급한 적이 있다. 이 세 천국에서 우리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신성한 작용의 형상과 그릇(receptacle)을 보게 된다. 가장 높은 천국, 세 번째 천국은 신성한 사랑의 형상과 그릇이고, 두 번째 천국인 중간 천국은 신성한 지혜의 형상과 그릇이며, 마지막 천국, 가장 낮은 천국은 신성한 작용, 신성한 힘의 형상과 그릇이다. 이 세 가지 중 마지막인 것에 나머지 두 가지 것이 담겨서 공존한다. 이는 성전 뜰을 거론하면 좀더 설명된다. 이 뜰은 두 뜰, 즉 안 뜰과 바깥 뜰로 구분되어 있다. 세 천국들 중 가장 말단 또는 가장 낮은 천국은 둘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두 개로 구분되어 버린 천국을 말하는게 아니라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들이 세 번째와 두 번째 천국과 상응되거나 직접적으로 교통되고 있다. 이 가장 낮은 천국은 나머지 천국의 기초이고, 이 천국은 가장 높은 천국, 천적 천국과 교통하는 한편, 두 번째 천국, 영적 천국과도 교통하고 있다. 최말단 천국은 다른 두 천국에 관련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자연적 수준이다. 이렇게 구분지어 보기 위해 그 천국은 자연적 천국이라 불린다. 나뉘어진 자연적 천국의 두 부분은 영적-자연적 천국과 천적-자연적 천국이고 거기에 소속된 천사들도 그렇게 구별된다.

천국의 성전에 있는 또다른 구분, 또다른 특이함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언급되어 표현되어져 있다. 상징적인 성전의 지성소에는 증거관- 즉 하느님의 손가락에 의해 씌어진 열 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궤가 놓여져 있다. 이 계명들은 주님 자신을 표현했다. 이 돌판이 지성소에 안치된 것은 주님의 현존이 가장 깊은 천국에서는 더 직접적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율법의 돌판은 그릇 안의 그릇에 담겨 있다. 즉 율법이 지성소 안의 궤 안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천국의 위 또는 내부에 또다른 천국이 있는데 이를 주님의 교회에 관한 저술에서는 인간의 내부 속의 천국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가장 안쪽에 있는 그릇이고 하느님께서 인간

존재와 더불어, 참으로 그분의 왕국의 천사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가장 높은 처소이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의 형상이기도 하다는 진리를 예증하는데에는 인간 자신이 가장 적절한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각 인간은 자기 하느님에 관한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개체로서의 형상이다. 그는 보편적 천국에 가장 가까운 형상이다. 그는 그의 하느님에 관한 가장 높은 개인적 형상이다. 그이유가 그는 무한한 원리들의 유한한 측정인 그릇이거나 하느님의 인물과 본성을 구성하는 신성한 본질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 지혜 자체, 권능 자체이시고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원리들을 제 분량대로 받기 위해 창조되어 졌다. 우리는 이를 속성, 부속물(attribute)이라 단순하게 부르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든 속성들의 근원인바 그 자체는 신성한 본질, 신성한 실체 속의 참 본질이어서 모든 다른 것의 근원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인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과 지혜, 권능을 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그의 기능은 그의 의지이고, 하느님의 지혜를 수용하는 기능은 그의 이해성이며 하느님의 권능을 받는 기능은 그의 언행이다. 이런 기능은 상속되기에 모든 사람은 복주시려는 창조자와 구속자로부터 영적이고 영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선물을 받는데 있어서 인간 타락으로 도입된 장애물이 주님께서 욕을 입으시고 구속해주시심으로 제거되었는바 모든 사람은 구세주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로이 제공된 사랑과 지혜와 거룩함을 자유로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선물을 실제로 받게 되면 인간은 자기 하느님의 영적인 형상을 만든다. 즉 그는 새로운 창조물, 주님의 거룩한 영의 성전, 주님의 영화되신 육체의 성전의 형상, 가장 큰 사람의 거처인 가장 작은 천국을 만든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 속에 아주 작지만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창조를 수단으로 그는 이런 모든 것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거듭남으로 실지로 가지게 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세 천국과 유추되는 세 가지 구분되는 등차로 되어 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 열어 두었던 천국과 유추되는 천국에 들어 간다. 이런 천국의 등차들은 성전의 뜰과 성소, 지성소에 각각 상응하고 있다. 보편적인 천국 같이 인간 마음 안에도 안 뜰과 바깥 뜰이 있고 이 뜰이 거룩한 장소를 둘러 싸고 가장 거룩한 장소 내의 가장 깊은 곳에 신성한 증언을 담은 궤가 있다. 거듭남의 가장 아래쪽의 저택은 하느님의 성전 같이 거룩한 두 부분, 즉 선을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또는 거룩한 생활과 거룩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거듭나는 의지와 이해성의 최말단들이다. 그이유가 새로운 의지는 선한 일들에서 그 끝을 맺기 때문이고, 새로운 이해성은 곧바른 말들에 그

끝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 마음 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내에, 또는 그 위에, 더 높은 영역 즉 더 초월적인 기능이 있다. 이 안에서 영원한 분이 홀로 거주하신다. 이 안으로 인간의 내적인 사람은 결코 침입하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 세계 위에, 인간의 능력 너머에 있다. 인간이 아래쪽에 있는 마음 영역에서 사랑과 진리의 생명을 전복 시키거나 파괴까지 감행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는 위 질서를 결코 어지럽히지 못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스스로 이 질서를 자비적으로 보존하신다. 이 영역은 인간이 좌절한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분의 거룩하고 높은 장소이다. 이를 통해 주님은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와 합리성의 기능, 뿐만아니라 불멸성을 보존해 주신다. 또한 그분은 이 높은 장소로부터 언제나 내려 오실 준비를 하고 있어 인간이 겸허해질 때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인간이 결코 침투할 수 없는 인간 마음 안의 주님의 성소가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거룩한 영에 의해 말해지고 있다. 주님은 그분께서 껌껌한 어둠에 거주한다고 말하셨다. 가장 높은 인간과 천사적인 총명도 이 은밀한 장소를 싸고 있는 구름을 결코 관통할 수 없다. 주님은 그분의 초인간적 지혜와 인간을 압도할 수 있는 섭리의 두꺼운 어둠 안에 거주하신다. 그분의 관심사는 인간에게 영원히 있을 수 있는 흥미에 있고 그것만이 그분의 섭리 체제이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의식 세계에서 자신을 감추어 있게 해서 마치 인간 스스로 자기가 향유하는 행복의 창조자나 된 듯 자기 이성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하게 하시고 인간의 의식과 감각으로 결코 지각할 수 없는 어떤 섭리를 보고 인정하게 하는데에는 오로지 계시라는 도구만을 사용하신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신성한 것과 영적인 것을 유추해 본 시리즈를 마감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이 가장 특출한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짚어 보아야 한다. 그분이 천국과 그분의 교회 안에 거주하시듯 말씀 안에서 천사와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신다. 말씀 안에도 세 가지 구분되는 의미들, 즉 천적, 영적, 자연적 의미들이 있고 이 세 차원을 넘어 가장 높은 곳에 순수하게 신성한 것이 있다. 이곳까지는 인간 총명이 도달할 수 없다.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예배를 위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일반적인 상응을 추적했지만 건축물의 세세한 모형에 대한 상응은 또다른 장에서 살필까 한다. 한 가지 더 거론해 볼 게 있다. 그것은 사색, 또는 심사숙고함과 진리는 폭넓은 차이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 실지 응용하는 측면에서, 사색은 이리 저리 여러 방향을 향하는 반면 이론에 그칠 수 있으나 진리는 한 쪽 방향만을 가지고 실제에서 반드시 끝을 맺는다. 우리를 주님이 계신 안쪽으로,

위쪽으로 인도하고 구속과 구원의 섭리를 꼼꼼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의 상징적 의미들은 우리의 이해성을 계발하고 심정을 개선 시켜 주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거룩한 말씀의 역사적 사건들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명백한 대화체를 이용해 하늘 왕국의 가장 깊은 신비들을 상응을 통해 밝히 알린다. 따라서 상응에 의거 성서를 살피면 하늘 왕국에 관한 우리의 견해는 더욱 확장된다. 유대인의 성전이 주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말씀의 원리에 의거 형성된 인간 마음이 주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라는 것도, 주님이 언제나 그 가운데 계시는 천사들의 천국이라는 것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성의 성전에는 신성이 충만되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된다. 우리는 이런 신성한 선언을 실감하려고 노력해야 하리라. “보라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3).

## 61

### 열왕기상 7장 1-22절

#### 솔로몬의 궁

하느님의 말씀은 신성하고 영적인바 그 안에 담겨 있는 세세한 사항에도 순수하게 종교적인 교훈들로 가득차 있다. 성서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는 생각, 또는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를 중단하면 성서 속의 역사는 글자적 역사라는 죽은 형체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키는 생명 있고 영원한 원리로 일어나게 된다. 물질적 존재라는 덧없는 형체를 옷입은채 내려온 영이 이제 씌어진 말씀 안에 영원한 거처를 두고 있다. 그렇게도 훌륭하다고 입을 모았던 솔로몬의 성전도 깡그리 사라졌고, 장려한 양식을 갖춘 그의 궁전도 존재가 중단된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세상의 모든 미래 세대에 있는 영적 사항을 중시하는 마음들에게 영적인 지혜의 교훈을 계속 가르쳐 줄 것이다. 주님의 육체의 영화로운 성전 안에서 싸워가고 승리해 가는 주님의 교회 사람은 솔로몬의 성전의 장엄한 대형(antitype)을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성결해진 유한한 존재들에 내려오는 영적인 유추까지도 추적해 볼 수 있으리라. 그 이유가 주님은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요, 구원하시는 그분의 지상 과업의 바탕은 정결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성결되려는 이유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결해지도록 하려 해서이다.” 성결케 하는 진리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결말짓 듯 이렇게 대답하신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라진지 오래된 왕국의 역사에서, 없어진 지 오래된 주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참 말씀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솔로몬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되돌아 보면, 우리는 신성한 존재가 그분의 뜻하신 바를 세우시고 순종하는 그분의 자녀를 현존하시는 그분의 성전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해준다. 왕이 자신의 거처로서 지은 궁전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과 친척 관계가 있는 주제들을 둘러 보게끔 해준다. 참으로 이것들 사이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성전은 하느님이 거주하시고 거기서 솔로몬이 예배드리려고 지어졌다. 궁전은 자신과 아내를 위한 거처로 지어졌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신 하느님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바, 성전과 궁전은 모두 똑같은 신성한 인물에 관련되어야 한다. 성전은 그분의 사제적 품성에서의 주님을, 궁전은 그분의 왕권적 품성에서의 주님을 표현했다. 이것은 주님 자신에 응용하여 있게 되는 의미,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주제를 살피게 한다. 이것이 가장 낮은 의미에서 응용되면 주님의 형상인 거듭나는 사람에게 관계되는데 아마 우리에게는 이런 낮은 차원이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보탬이 될는지 모른다.

성전이 세 개의구역으로 나뉘었듯이 솔로몬은 자신의 궁을 셋을 지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유추가 있다. 둘 다 영적 의미에서는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가 거주하는 거듭나진 인간 마음을 표현했다. 그렇다고 둘 다 똑같은 수준에 있는 인간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바는, 세 구역으로 나뉘어진 성전은 주님 안에서의 세 가지 것, 세 천국들, 인간 마음 안에서 이 세 천국에 응답하는 세 가지 등차들, 더불어 말씀 안에 있는 세 가지 등차들, 즉 천적, 영적, 자연적 의미들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세 궁전은 각기 다른 기능 아래 있는 마음, 그래서 각기 다른 원리들을 수용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세 궁전은 지각, 이성, 과학, perception, rational, scientific faculty로 구성되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 표징성의 가장 높은 것은 성전 자체와 더 친밀하게 연결되는바 거룩한 건축물의 일반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생각될는지 모른다.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세 궁전의 묘사에서 상징하는 자연적, 영적 기능과 원리들을 추적해보자. 솔로몬은 자신의 집으로 레바논의 수풀궁을 지었고,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다.

첫 궁전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 묘사가 없고 단지 자신의 것, 자신을 위해서 라는 짧은 설명 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이 궁전이 두말할 것 없이 영적 기능 자체를 표현하도록, 이 기능을 수단으로 마음이 영적인 것, 즉 선함과 진리라는 영적 원리를 지각한다는 것을 표현하도록 채용된 표현 양식이다. 그이유가 솔로몬은 이 나라의 어느 왕 보다도 더욱 조화와 하나됨의 상태에 있는 선과 진리에 관한 원리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레바논의 수풀궁(the house of the forest of Lebanon)은 그 근원을 통해 그것이 표현하는 기능과 원리들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거룩한 장소가 인간 마음 속의 기능과 상태들의 표징물인데, 그 중 레바논은 합리적 기능의 상징물이다. 레바논 숲의 나무들은 진리와 선함에 관한 합리적 지각을 상징한다. 그래서 송백 나무로부터의 재목은 이런 지각을 수단으로 획득된 선을 상징했다. 송백의 이런 상징적인 의미와 일치하도록 그 재목들은 성전 건물의 중간 내지 합당한 자리에서 쓰여져 있다. 돌로 지은 성전은 송백 나무 재목으로 안을 대었고, 이 재목은 금으로 들썩워졌다. 따라서 돌은 성전의 가장 바깥쪽의 재료이고, 금은 가장 안쪽 재료이며 송백의 재목은 그 중간에 있다.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성전 자체는 창조자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 안에 있는 생명의 세 등차, 즉 천적, 영적, 자연적 등차를 표현했던 것 같이 성전의 재료나 구조도 그러한바, 성전의 벽은 돌, 송백 나무, 금의 세 겹으로 지어졌다.

이 궁전은 레바논 숲의 재료로 지었다는 것 외에도 솔로몬은 그가 아내로 맞은 파라오의 딸을 위한 궁전도 지었다. 제 3장 첫 절에서 “솔로몬은 에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자기의 궁과 야훼의 전과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짓기 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두었다” 라고 읽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예언적 차원에서나 공히 말씀에서 특징적으로 눈에 잘 띄는 나라인 에집트의 표징적 품성을 생각해보면 파라오의 딸을 위해 짓는 궁전이 무엇을 표현할 것인지도 단번에 알게 해준다. 그이유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에집트는 과학적이라 불리는 마음의 기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런 에집트의 표징성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에집트를 방문했고, 야곱의 가문도 거기서 체류했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 자신도 유아 시절 그 곳으로 운반되시기도 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에집트는 신성과 영적인 것들에 관한 과학의 시작, 얌의 개시를 표현했다. 아브라함-야곱-주님으로 이어지는 반복된 에집트에서의 체류는 에집트가 표현한 상태 또는 일의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이유가 과학 또는 지식은 인간 마음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참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무지의 상태에서 결과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느님의 모든 준비하심은 인간을 거둬나게 해줌이 그 목적인바 이를 위해 인간 마음에 교훈을 주려는 것 외 더 없다. 또다른 세계를 위해 인간이 준비되도록 할 때만이 인간은 이 세상에 가져와진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다. 인간 각자 주위에 있는 모든 것, 천국에서든, 지상에서든, 씌어진 말씀에서 그에게 밝히 알리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이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인간 영혼은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 육체 안에서 그 존재를 가지게 된다. 이 육체는 내부에 있는 불멸하고 영적인 거주자에게 지식의 큰 도로를 제공하는 것밖에 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연적 지식은 영적 진리의 필수적인 선구자이다. 자연은 계시를 위해 출입구 역할을 한다. 자연과 계시, 지상과 천국이 상호 상응을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유한한 지혜가 상응을 통해 이 얼마라도 알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다는 것 까지 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천국과 지상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형체밖에 더 아니다. 그이유는 둘 다 똑같은 신성한 말씀의 바깥쪽 출생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태초에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수단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이 말씀 없이 만들어졌던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을 창조한 유한한 지혜 속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탁월한 완전을 발휘한다. 말씀이 신성한계시로 말해질 때 말씀은 더 높고 더 직접적인 언어로 자연 자체가 선포한 것을 표현한다. 자연은 생명 또는 불멸의 신비를 밝혀 낼 수 없고, 또한 창조자의 존재를 밝히 알릴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진리들이 계시를 수단으로 알려질 경우 창조물은 계시된 진리를 확증하고 예증해봄으로 환성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계시의 지식은 자연의 지식 안에 그 기초와 시작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우리 존재의 본성과 생명은 거둬나는 삶의 발전을 위해 과학적 요소가 선행되어야 하는게 필수적이다. 우리가 과학을 말할 때, 여기에는 유아가 어머니의 품에서 배우는 것 까지 포함될 정도로 모든 지식을 포함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영적 삶의 실제의 기초가 되는 과학은 영적인 것에 관한 과학 뿐이다. 이 과학을 특별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 에집트이다.

그렇다면 영적 삶을 소개하는 이 지식, 종교적 진리의 기초가 되어 줄 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지식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지식을 사랑함 또는 과학에 애정을 가짐이 솔로몬이 아내로 맞은 파라오의 딸로 표현되어져 있다. 성서만을 참조한다면 에집트 왕의 딸은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들 중 첫 번째였다. 그이유가 영적 삶과 영원한 삶의 수단을 함양하라고 마음을 재촉하는 애정의 첫 번째가 에집트 왕의 딸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 애정이 마음을 천국의 형상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표징적 방법으로

놀랄만하게 가르치고 있다. 사라는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하녀인 에집트 여인 하갈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다. 이스마엘이 출생한 한참 후에야 사라도 아이를 낳았다. 이는 더 높은 영적 삶을 달성하려면 더 낮은 영적 삶을 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브라함의 역사에 있는 이 사건은 솔로몬의 역사에서 상징화된 것과 유사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에집트 출신 하녀는 과학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고 그녀가 낳은 이스마엘은 자연적 수준에서의 합리적 원리, 즉 첫 번째 있게 되는 합리적 원리를 표현했다. 그 반면 사라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그가 낳은 이사악은 진실로 영적인 것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는 합리적 원리, 두 번째로 있게 되는 합리적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솔로몬과 아브라함의 역사에는 유사점이 있다. 유사점이 있다 해도 성경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일은 없다.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는 원리 자체의 출생이 취급되고, 솔로몬의 역사에서는 그 원리에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세 궁전의 건축은 이미 획득했던 원리를 생활의 최말단에 응용함으로써 그 원리가 마음에 고정되어 자리잡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원리들은 먼저 내적 인간 안에서 획득되어지고 그 다음 외적 인간에서 응용되어 확증된다.

참된 삶의 목적, 또는 그 마무리는 하느님의 옥좌이기도 한 천국의 형태로 마음을 건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역사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삶이 발전되어 마지막으로 목표에 이르는 가를 배울 기회를 가진다. 영적 삶에서 지적으로 발전하는데는 크게 세 단계가 있다.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보는 것, know, understand, see 이다. 알고 싶어 하는 애정은 참된 모든 발전의 기초에 놓여 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 것만을 지각할 수 있다. 진리를 지각하는 것이 지혜이다. 지식에 기초를 두지 않는 지혜, 이성에 의해 건축되지 않는 지혜는 없다. 지식의 목적인 지혜를 내다 보면서 지식을 사랑함이 지혜에 대한 초기 사랑이다. 이 사랑은 영적인 모든 발달의 기초에 놓여 있다.

모든 사람은 천국의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지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기능들은 상속된 능력을 질서 있게 발휘함으로써 발달되거나 건축되어진다. 암흑 시대의 세상적이고 신학적인 처세훈은 이러하다. 모르는 것이 현신의 어머니라고.... 이해성은 믿음에 순종하는 것 아래 잘 보관되어야 한다고..... 이런 것들은 인간 마음의 본성 보다는 종교의 속성에 더 잘 어울리게 되어 있다. 인간 본성이든, 종교의 본성이든 모두 영원한 진리의 빛에서

살아 있고 성장하고 강건해진다. 위와 같은 처세훈에 저항함은 어둠이 짝 깔린 상황으로부터, 어둠이 감시하고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오히려 있어져야 하리라.

달빛이 햇빛 같이 되는 때, 해의 빛이 일곱 날의 빛 같이 일곱 겹이 되는 때에는 정신적 기능의 어떤 것을 적법하게 실습하는데 따른 두려움의 원인은 없고 오히려 정신적 기능 모두를 실습하라고 격려하는 가장 큰 이유만이 이렇게 있다. 어린 양이 옥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오랫동안 닫혀져 있던 일곱 봉인된 책을 받아 열었을 때 네 짐승 각각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요한 계시록 5,6장). 참으로 생명의 말씀은 열려졌다. 말씀 속의 내적 의미가 이제는 열려져 놓여 있다. 신비스런 말(horse)들이 달려 나오고 있다. 거룩한 성서를 이해하게 하는 이런 상징물들이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를 수단으로 인간의 영적인 자유에 관한 선언을 회복시키기 위해 파견되고 있다. 상응으로 알려진 이 진리를 보고 싶어 하는 이들은 와서 보도록 초대되고 있다. 우리 앞에 열려진 신성한 말씀을 실제화 할 경우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형상을 이룰 것이다. 종교가 마음에 인상지워 놓은 천국적인 형체는 아름다움이나 선용의 모든 개별적 형체를 저절로 납득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 보고 끝낼 것이 있다. 즉 솔로몬이 지은 세 집은 왕 자신의 집인 레바논의 수풀궁, 파라오의 딸을 위한 집, 그리고 이 두 집과 구별되는 집인 주님의 성전에 관해서이다. 스페덴봄의 요한계시록 설명 제 654항에서 읽는바 “모든 사람은 영적, 합리적, 자연적 마음을 가진 까닭에 솔로몬은 세 집, 즉 영적 마음에 해당되는 하느님의 집, 또는 성전, 합리적 마음에 해당되는 레바논의 수풀궁, 자연적 마음에 해당되는 파라오의 딸을 위한 집을 건축했다.” 이 저자는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세 집 중 하나로서 말하고 있다. 성전을 세 집 중의 하나로서 말하려면 왕 자신의 집에 성전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7:1참조). 그러나 특이한 것은 왕의 집과 성전은 솔로몬의 집이라 불리웠다 해도 그것들을 건축한 세월의 간격을 가지고 분명히 구분지어 놓고 있다. 성전은 7년 동안에 건축되었다 (6:38참조). 그러나 솔로몬의 집의 건축은 13년 걸렸다 (7:1참조). 동시에 이 두 세월이 하나로 합쳐 언급된 곳을 이렇게 더 읽게 된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이십여 년이 걸렸다” (9:10참조).

## 열왕기상 7장 13-51절

### 솔로몬 성전의 집기들, 히람이 만든다

우리는 앞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주님의 육체, 신성한 말씀, 천국, 교회 그리고 거듭나는 마음과 영적으로 유추되는 사항을 살펴 왔다. 주님의 영화된 인성의 성전은 신성한 모형이고 천국과 지상에 있는 진실로 인간된 모든 것의 무한한 근원이다. 따라서 영적, 물질적 우주를 지탱시켜주시는 그분께 의지하노라면 우리는 그분의 창조하시는 지혜와 구원하시는 섭리의 질서 안에 있는 모든 것에서 그분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성전을 주님 자신과 연계된 유추로서 추적하노라면 그 사항들은 우리 마음을 가장 높은 진리에 고정시켜 준다.

솔로몬은 청동을 녹여 높이가 십팔 큐빗되는 두 기둥을 만들고, 이 기둥에 다섯 큐빗되는 기둥 받침(머리)과 바둑판 무늬의 그물 망을 추가했다. 그리고 이 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우고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즈라 불렀다.

이 두 기둥은 성막의 더 영구적인 형체가 성전임이 생각나도록 성전에 추가되었던 것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동안 성막의 두 기둥 같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표현하도록 의도되었을 것으로 추측해왔다. 이 추측은 어떤 법칙이나 영적 유추의 지각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단지 바깥쪽 또는 맹목적인 유사함의 지각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밤의 불 기둥과 낮의 구름 기둥은 솔로몬의 성전 입구를 장식한 두 큰 기둥과 표징적 특성에서 유사함이 있다고 수긍되어 왔다. 어쨌든 성전의 기둥은 자연적 수준이나 불과 구름 기둥은 초자연적이다. 불이 이글거리듯 하는 기둥과 먹구름의 기둥들은 마치 사막에서의 이스라엘 양식 처럼 천국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광야의 이 두 기둥은 그들을 보호해 주고 안내하며 그들의 힘을 지탱시켜 주었는데 마치 한참후 그들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 나라를 건설함으로 누리게 된 방어와 안내와 힘과 똑같다.

솔로몬의 성전이 주님의 신성한 인간성을 표현하는바 그 성전 현관의 두 청동 기둥은 우리 인간성 속의 신성한 자연적 원리를 표현했다. 이런 천국적 신비에 관하여 새 교회의 저서에서 이렇게 지식을 제공받는다. 영원으로부터 주님 안에는 신성한 천적인 것과 신성한

영적인 것이 실제로 있었다. 따라서 신성한 자연적인 것도 잠재적으로 있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신성한 자연적인 것이 실제로 옷입혀져서 인간 어머니로부터 탄생되었다. 육을 입으시기 전, 주님은 참으로 인간이셨다. 그러나 이 때의 그분은 천사들이 자연계에서의 육체를 떠나고 육체와 분리된 인간이듯 인간이셨다. 육을 입으신 후, 주님은 우리가 사람인 것 같은 수준에서 사람이셨다. 우리의 의식세계는 자연계에 존재하나 천사들의 의식세계는 영계에 존재한다.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거듭나는 사랑과 진리를 가져 오면서 우리의 의식세계의 영역을 내려 놓으셔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대상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지상에서 입으시고 영화하신 인간성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심오하면서 중요하기도 한 주제를 좀 더 파악해 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런 위대한 진리는 이스라엘 교회의 표징성에서 보여 주고, 그리고 신성한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졌다. 솔로몬 성전의 두 청동 기둥에 의해 표현된 이 진리는 구,신약 성서 속의 선견자들의 환상 속에서도 표현되었다.

에제키엘 제 1장에서 주님의 섭리가 거룩에 의해 묘사되었는데 이 거룩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다리는 곧고 닦아 놓은 놋쇠 처럼 윤이 났다. 다니엘 제 10장에서 여호와 자신이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그분의 몸은 감람석 같았고 얼굴은 번갯불 처럼 빛났으며 눈은 등불 같았고 팔 다리는 놋쇠 처럼 윤이 났다. 그러나 계시록 제 1장에서 이런 표현은 한층 더 명백하고 충만되어 있다. 영 가운데 있는 요한은 예수를 신성한 사람으로 보는바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 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같이 또는 눈 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다.”

위와 같은 성경의 예에서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원리가 묘사되거나 표현되어져 있다. 이 원리가 특별히 그분의 발로 의미되고 놋쇠의 외관에 대한 표현으로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놋쇠는 자연적 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놋쇠들은 불에 달궈진 듯, 잘 닦아 번질거리는 외관을 하고있었다. 불에 달궈진 외관은 주님 안에 있는 선은 신성한 사랑의 열렬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윤이 나는 외관은 신성한 지혜의 빛으로 희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의 표현적 의미는 그 기둥의 이름에 의해 더 암시되고 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Jachin)이라고, 왼쪽 기둥은 보아즈(Boaz)라고 불렀다. 전자는 안정성, stability, 후자는 강함, strength을 표현하고 있다. 이 이름들은 주님께서 자연적 수준의 인간성을

입으시고 영화하심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정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안정성과 힘은 최말단 안에 존재한다. 그분께서는 첫 원리로서 영원으로부터 계셨으나 최말단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의 권능을 인간 필요성의 가장 자리에 까지 내려다 놓으셨다. 그리하여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의 안정성을 설비해 주셨다. 이것들 중의 첫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셨을 때이다. “모든 권능이 하늘과 땅에 있는 나에게 주어졌다,” 그분께서 언급한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영광, 그리고 세상의 희망들은 이 장엄한 진리에서 힘을 얻을 것이다. 즉 사람의 아들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신성한 권능은 인간 마음의 가장 낮은 애정과 지각에 까지 내려 오되 천국만을 통해서가 아닌, 천사적 직무라는 매체를 통해서가 아닌 주님의 인성, 진실로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려 온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가 천국과 교회의 참 기둥이요 그 결과 우주 자체에서도 참 기둥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느 육체도 구원되어 질 수 없었고, 천국이 지금처럼 완전 무결의 상태에 있어지지도 않았으리라. 주님의 오심이 보편적 과멸을 예방했다. 성전의 기둥들, 천국과 교회의 그분의 인성 속의 성전은 안정함과 경건함을 영원히 간직하리라.

기둥의 이름 뿐만아니라 그 기둥이 세워진 장소 역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 기둥들은 현관에 세워졌는데 이 현관은 성전의 입구였다. 기둥들의 이런 상황에 걸맞게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말하신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 이다. 나를 통해 들어 간다면 그는 들어가고 나가고 좋은 풀밭을 찾게 된다.” 주님의 신성한 자연성이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는 주님의 인성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천국이든, 교회이든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천상 천하의 하느님,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이든 그분의교회이든 입장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분을 알지 못하거나 이름을 불러 예배하지 않는 이들을 무작정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인정함이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 심정 상태가 없으면 입장이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이다. 구세주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어린이들이라 해도 그들은 주님의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죽은 이들은 천국으로 입장되어 졌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주님과 구세주를 인정하여 정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실지로는 그분의 교회나 천국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심정으로 인정함은 천국과 그분의 교회의 존재와 견고성에 필수적인

상태이다.

성전의 놋쇠 기둥 외에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열두 마리 황소 위에 세운 놋쇠로 된 바다 모형(breazen sea)이다. 사제들은 성전에 입장할 때, 또는 제단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때 손을 씻도록 명령되어 있었다. 깨끗케함을 위한 이 용기를 주님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것이 죄로부터 깨끗케하는 진리로서의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데 즈가리야가 이에 대한 예징을 이렇게 말한다. “그 날이 오면 샘이 터져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의 죄와 때를 씻어주리라” (13:1). 놋쇠로 된 바다 모형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한 자연적 원리의 상징물이었다. 이 원리를 수단으로 영적인 불결함으로부터 깨끗케함이 있다. 이 모형이 바다라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바다가 충만한 상태의 권능있는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바다는 놋쇠가 원료인바 선함에 바탕을 둔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천 말의 물을 담는 이 용기는 순수함을 위한 인간의 갱생은 지적 측면과 자발적인 측면의 삶의 양쪽에서 있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바다 모형이 열두 마리 황소 위에 서있는 것은 자연적 마음에 있는 신성한 진리는 황소로 의미되는 모든 선한 자연적 애정들에 의해 지탱되고 거기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바다 모형의 용기 외에도 열 개의 받침대에 열 개의 놋대야(laver)가 있었고 각 놋대야는 물 40말을 담을 수 있었다. 바다 모형과 비슷한 이 놋대야는 자연적 마음에 있는 진리의 그릇들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낮은 질서 속의 그릇, 더 외적인 종류 속의 그릇들을 표현한다. 마음 안에는 다양한 진리의 그릇들이 있다. 다시 말해 진리는 마음의 각기 다른 등차, 예를 들면 감각적 등차, 또는 합리적 등차 등등에서 각기 다르게 지각된다. 감각적 등차는 자연적 마음의 등차 중에서 가장 낮은 등차이고 합리적 등차는 가장 높다. 녹여 부어 만든 바다 모형과 놋대야 모두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진리의 용기들을 나타내고 있다. 놋대야의 경우 감각적 등차 자체 안에 있는 것 같은 가장 낮은 수준의 용기들이다. 그러므로 이 용기에 들어 있는 물은 감각적 납득이라는 최하위 까지 내려온 진리를 나타낸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씻도록 하기 위한 이 특별한 설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연적 또는 유전적인 불결함이 제거되도록 신성한 진리에 의해 순수해짐도 없이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세상 밖으로부터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승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어떤 바람도 육으로부터 영 안으로 건너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은 계속 우리 마음 안으로 흐르고 있다. 그 이유가 우리는 그것들에 둘러 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열두 황소가 네 방위를 응시 보면서 바다 모형 아래 서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순수해짐의 수단, 성전의 낯쇠 바다와 낯대야 같은 수단들이 기독 교회에서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충만함에서 제공되어져 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스스로 거듭남의 낯대야가 되셨기 때문이다. 이 낯대야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천국적 진리의 그릇이 될 때까지, 이 진리가 우리 마음의 바램과 애정들을 순수해지게 하겠다고 하여 채용될 때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낯으로 된 바다 모형을 우리와 관련해 보면 그것은 진리를 수용하는 그릇으로서의 자연적 마음 자체를 표현한다. 물을 담기 위해 녹여 부어 만든 바다 모형의 그릇은 낯쇠로 만들어 졌는데, 이는 선이 진리의 그릇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물이 진리를 상징하나 낯쇠는 선을 상징한다. 낯쇠로 의미된 선은 자연적 선이다. 이 선은 유전적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적든 부모로부터 상속되어지는 선한 자연적 기질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자연적인 경향성은 엄밀히 말해 보면 인간은 아니고 온순한 동물의 경향성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낯쇠 바다 모형을 떠받친 동물이 황소로 표현되어져 있다. 낯쇠 바다 모형으로 표현된 자연적 선함은 영적인 근원을 가지는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선함이다. 우리가 획득한 선함은 유전적 선함 위에 놓이는데 마치 낯쇠 바다가 황소 위에 놓인 것과 같다. 인간 존재는 그의 부모로부터 악 뿐만아니라 선한 기질 까지 상속받는다. 그러나 악은 우리가 획득한 선함의 실제적 기초를 형성하지 않는다. 악과 거저된 것은 선함과 진리를 지지하거나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 미워함이 사랑을, 분노가 자비를 지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낯쇠 바다를 떠받치도록 선택된 짐승은 사나운 호랑이나 표독한 표범 같은게 아니라 온순한 황소였다. 따라서 자연적 수준에 있으면서도 영적 수준에 그 근원을 두는 선을 위한 기초는 사납고 잔인함이 아닌 상냥하고 부드러운 자연적 마음의 기질임을 하느님의 성소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영적인 기질이 자연적인 기질에 접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저것에 접목되려면 접목되는 어린 가지와 원줄기 사이에는 본성상 유사함이 있어야 한다. 잘 계발된 것이 야생적인 것에 접목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이라야 한다. 인간의 생명이 갱신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신성한 농부는 그분 자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갱신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의 나무로부터의 어린 가지를 생명의 나무에 상응되는 우리의 자연적 마음이 아니면 접목하실 수 없다. 그 이유가 모든 선한 자연적 기질은 근원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이기 때문이다. 창조자 하느님이 근원적으로 하셨던 것을 구속자 하느님께서 다시 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거듭남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시어 행복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도록 하신다. 그분께서는 어떤 자연적 선함을 우리 안에서 찾고 그 안에서 우리를 깨끗케 해줄 진리의 물이 담긴 놋쇠 바다를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가 씻고 깨끗해져 그분의 현존 안으로 들어 가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경배하기를 바라신다.

성전의 건축과 연결되는 특이한 상황이 6장 7절에 있다. “성전을 지을 때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 성전 건축에서 연장을 다루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 비록 이것이 윗사람의 명령으로 그러했다 해도 이는 성막 건축에서있었던 것, 특히 제단을 쌓는데 엄격히 금지한 것과 일치되도록 성전 건축에서도 명령되었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성막은 나무로 지었다. 그들이 여행에 나설 때 조립하여 세워두었던 성막은 거두어야 하는바 판자는 조립식으로 되어 성막을 세울 때마다 더 이상의 준비물 없이 완전한 처소로 세워지게 되어 있었다. 어쨌든 제단을 쌓을 경우 어떤 연장의 사용도 엄격히 금지되었었다. 제단을 쌓는 일은 십계명을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흙으로 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만일 돌로 나의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거기에 정을 대면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다” (출애굽기 20:24,25).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주위에 있는 이교도 국가가 하는 짓을 따르지 못하게 예방해주려 의도하신 명령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유를 우리로 감지해보도록 하시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추측 해본다. 설사 우리가 제단에 관련된 법, 성전에 관한 고찰에서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해도 제단이나 성전이 표현한 것에 관한 고찰은 스베덴뵐의 저서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제단, 그리고 성전은 특별한 방법에서 신성한 선함과 신성한 진리에 관한 주님의 표징이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돌은 교리 속의 진리, 종교 속의 진리, 예배 속의 진리들을 의미했다. 자아로부터 파생된 총명은 말씀으로부터 파생된 예배와 교리 속의 진리에 가담 시키거나, 그 결과로 그 진리 안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단을 돌로 쌓을 경우 다듬지 않은 돌 만을 사용하라는 명령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그 이유가 인부가 해놓은 일은 자아 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망치나 정 같은 연장, 일반적으로 쇠붙이들은 최말단 형체에

있는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 진리는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왜곡되어진다. 이런 진리는 말씀의 글자 의미와 동일하다. 주님이 예배되어지는 진리는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취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말씀의 모든 것 안에는 신성한 존재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진리들이 이기심으로부터 취해질 때 이기심의 목적은 지상 최고라는 명예, 누구보다 많이 지상의 것을 소유하려는데 있는바, 결국 그들 안에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을 가져 총체적으로 악이 들어 있다. 그러나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존경하여 그들의 목적을 영원한 삶에 둘 경우 그들 안에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녀 총체적으로 모든 선을 가지게 된다. 진리들이 이기심 또는 자아 총명으로부터 부화되어 나올 때 그들은 근원이 신성한 진리들 위에서 휘두른다. 우리는 자아 총명 속에 있는 것들이 진리라고 말하나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오직 외적 형태 안에서 진리로서 나타날 따름이다. 그 이유가 그것들은 말씀의 글자 의미를 응용함으로 외적 형태 안에서 진리 같이 행세하나 내적 형태 안에서는 거짓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아 총명 그 자체에서 파생되는 것은 생명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 이유가 인간의 이기심은 악 밖에 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예배가 이기심으로부터 거행된다면 이 예배는 새겨진 우상, 녹여 부어 만든 우상에 대한 예배 밖에 더 아닌바 영이 없고 생명이 없다. 그 반대로 말씀으로부터인 것은 신성한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다. 그 자체 살아 있기 때문이다. 말씀의 세세한 모든 사항이 내향적으로는 주님의 왕국을 다루는 영적 의미가 있고 그 의미 내에는 주님 만을 취급하는 신성한 의미가 있다. 이로부터 말씀의 신성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다. 말씀은 신성한 사람 같이 존재하고 있다. 말하자면 글자 의미는 내적 의미를 수단으로 살아 있다. 때로 글자 의미가 내적 의미 때문에 사라지거나 죽은 것 처럼 나타날 경우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적 의미로 인해 그 반대로 사라지지도, 죽지도 않고 오히려 살아 있다. 이러한 심사 숙고로부터 알게 되는바 진실로 신성한 예배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로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리라는 것, 자아에서 파생된 총명에 등지를 튼 것들로부터서는 어느 경우에서도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 표현 “너희가 내 제단에 연장을 대어 쌓으면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다” 란 너희가 신성한 예배에 속한다고 여기는 것을 고안할 경우 그 고안이 말씀으로부터가 아닌 자아 총명으로부터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여서 “건축 기간 동안 쇠로 된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 열왕기상 8장

## 성전 봉헌과 솔로몬의 기도

성전이 하느님께 봉헌되는 예식은 성경에서 장엄한 사건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예식은 신성하도록 디자인된 장엄한 건물을 세우신 위대한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일이었는바 꼭 필요한 절차였으리라.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급들이 이 예식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부유하고 슬기로운 왕이 예식을 주재할 때 전국 각지로부터 모여든 수많은 백성이 성대한 예배에 참석했다. 장엄하고 위압적인 예배이지만 이 예식의 성격 자체는 유대주의였다. 즉 긴 사제의 열이 주님의 궤를 운반하면서 회중의 성막, 성막 안에 있던 거룩한 집기들도 날랐다. 셀수 없이 많은 양과 소가 예식을 위해 죽여졌다. 엄청난 준비와 참석 인원이 동원된 화려하고 준엄한 종교 예식은 지금까지 예정적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하늘의 처방 아래 살았던 유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다. 솔로몬의 훌륭한 연설과 기도는 참으로 평범한 글자 의미에서조차 어떤 큰 진리들을 담고 있고 이 진리들은 어느 한 시대나 처방에 국한된 진리라기 보다 보편적으로 응용되는 진리의 범주에 속해 있다. 하느님의 무한성-그분의 전지, 전능, 편재하심이 명백하고도 강력하게 표현되었다. 죄와 회개 그리고 용서함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신성한 관용과 자비가 참회자에게는 가득 채워짐을 인정하고 있다. 경건한 기쁨으로 찬탄된 솔로몬이기에 이렇게 입을 열 수 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전을 세웠습니다. 영원히 여기에서 사십시오.” 신성의 광대하심에 대한 솔로몬의 올바른 시야가 그로 이렇게 외치게 한다. “그러니 하느님,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자리잡으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이야말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을 통해 그는 죄지움의 가능성 뿐 아니라 타락한 창조물로서의 우리 본성이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죄지움임을 담아내고 있다. 각자 가는 길에 신성한 정의가 그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수 없는 심판에 이런 신뢰를 둔다. “당신 만이 모든 사람의 심정을 낱알이 아십니다.”

이제 장엄한 예식 표현의 글자라는 표면 안에 놓인 진리의 총서들, 영적, 천국적, 실용적

측면들을 살피게 된다면 우리는 이 주제의 새로운 국면을 맞아 우리에게 유익함을 보태리다.

먼저 우리는 성전 자체의 예정적 품성을 상기해보아야 한다. 즉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주님의 육체의 성전의 표징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하신 성전, “내 이름이 거주하는” 성전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진정 외친 것, “주님이 영원히 사시도록 제가 이 전을 세웠습니다” 라고 한 주거지이다. 이 집에는 여호와와 눈이 밤,낮으로 열려 있다. 이 영화로운 성전에서 볼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 볼 수 있는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접근이 가능하고 예배도 가능해졌다. 이런 이유로 이런 극히 중요한 진리, 즉 이스라엘 후손들은 지정된 한 장소, 즉 거룩이 덮고 있는 거룩한 계가 껌껌한 어둠에 거주하시는 집 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에 부합되는게 더 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하느님께 기도하거나 감사를 드릴 때 그의 얼굴이 그분의 이름이 새겨진 집을 향해야 했다. 이런 태도는 그가 자기 땅에서 자유로운 몸이었든, 적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던 언제나 그러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쪽에 있는 다락의 창을 열고 하루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느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신성한 인성이라는 거룩한 성전쪽으로 그의 심정과 지성이 돌러지는 것은 이런 때 일 것이다. 그가 기도하고 감사를 드릴 때, 그가 신성한 자비를 구하거나 신성한 은택을 찬양할 때 등등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도움이 왔던 거룩한 언덕으로 육체의 눈을 돌렸던 것 같이 기독교인은 시련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분에게 마음의 눈을 돌려야 한다.

신성한 도움이 요구되는 주변 여건은 삶의 체험과 상태 만큼이나 다양하다. 이 주제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서술되는바 이를 생각해 보자. 솔로몬의 기도에는 7개의 청원이 있는데 그 중 6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련되고 하나는 그들 사이에 끼여 있는 외국인에 관련되고 있다. 간략히 말하면 첫 청원은 이웃에게 못할 짓을 하였을 경우이고, 둘째는 적에게 패하였을 경우, 셋째는 하늘이 단혀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 넷째는 이 땅에 기근이 들었을 경우, 다섯째는 외국인의 경우, 여섯째는 하느님께서 싸움에 내보낸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경우, 일곱째는 포로로 끌려 갈 때의 경우이다. 신성한 말씀에서 발생한 상황이나 사건들의 시리즈는 설사 영적으로 다른 듯 해도 서로 간에 연결될 때가 많다. 이 기도에서 열거되는 백성의 조건이나 상황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분의 성전에서 하느님께 간곡히

애원하여 신성한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인바 이는 거듭남이 발전하는 동안 성공이 뒤따를 영적 삶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위 간청을 몇 개로 연결해서 어떤 교훈을 끌어 내보려 역지를 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다양한 개인적 상태들은 상황 중 어떤 하나에서도 자신을 강력히 밀어 부칠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가 죄를 보고 참회의 느낌을 가지고 청원을 생각한다 해도 그가 심정이나 이해성, 말이나 일에서 어떤 변화가 없다면 시리즈가 포함되는 영적 생각의 긴 열차는 우리에게 대단히 적은 만족과 조그만 이익만을 제공할 것이다. 본문의 다양한 청원을 심사숙고하면 내향의증거와 응답을 발견하리라고 확신하는바, 이제 7개의 청원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겠다.

1. 첫 청원에서 솔로몬이 말한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못할 짓을 하여 이 전으로 끌려와서 당신의 제단 앞에서, 그런 일을 하였으면 저주받겠다고 맹세하거든, 당신께서 하늘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허물이 없으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출애굽기 22장 10절에있는 율법에관계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어떤 가축이든시간에 지켜 달라고 맡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 갔을 경우에는 말았던 사람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야훼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맡겨 놓은 것이란 내적 인간에 의해 외적 인간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영혼의 영적 삶을 받쳐주고 유지 존속하는 수단으로서 마음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맡겨 놓은 것은 마음으로부터 잃어버리거나 죽어지거나 할는지 모른다. 이는 의도 속의 악으로부터 또는 자신의 결점 속의 악으로부터 결과될 수 있다. 의문을 하느님 앞에 가져다 놓을 때, 또는 신성한 진리의 결정에 복종할 때 진정한 심판이 획득되어진다. 만일 그것이 악한 의도로부터, 따라서 사악함으로부터 진행되었다면 그 악은 밝혀지고 정죄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약점으로부터, 또는 판단의 잘못으로부터 진행되었다면 사악한 것은 아니다. 첫 청원에서 솔로몬의 생각은 둘 사이의 심판, 즉 둘 중의 어느 한 사람이 실제로 이웃에게 못할 짓을 했을 경우 신성한 결정은 이쪽 사람에게는 죄있음을, 저쪽 사람에게는 정의롭다고 판결하는 심판을 더 상상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와같은 신성한 심판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사이를 식별하고 분리함이 가능해지게 한다. 이것은 거듭남에 들어간 마음에서 구원하는 진리의 첫 행동이다. 거듭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영적인 선과 악 사이의 명백한 구분이 없는게 특징이다. 그들은 자기가

사랑하면 선이고, 자신의 목적을 따르면 진리라 부른다. 그 반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악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은 자신의 목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 오로지 신성한 진리만이 우리로 악 자체인 것, 선 자체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만이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자아로부터 오는 악은 자아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은총의 옥좌를 향한 우리의 첫 청원은 영원한 진리의 심판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리하여 이 진리가 자신 속에 있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사이를 식별하여 절단할 수 있게 한다.

2. 비록 영적 삶의 첫 행동이 선과 악을 심판함으로 구별되어 갈라 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생활에서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되기 전 많은 다른 행동들이 요구되고 있다. 악은 비록 우리가 자신 속의 악을 보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는 제거되어 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저항이 성경에서는 전쟁 상태와 비교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두 번째 청원은 적에게 패한 백성에 관계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심정 속의 적과의 첫 싸움에서 우리는 자신 스스로 싸우면서 승리도 미리 확신한다. 그리하여 썩은 것을 치워내기 위해 내적인 것을 강하게 함으로 외적 인간을 강하게 해줄 분이 그분 뿐이심을 망각하는 죄를 짓는다. 따라서 이 첫 싸움의 패배는 우리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놓게 한다. 이 패배는 겸손해지게 하고, 그분께 의지하게 한다. 우리가 자신만으로부터 주님께 돌아서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집에서 주님께 애원하고, 그 다음 그분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신성한 구조자의 지혜와 의지에 복종시킨 결과로서 영적 선함의 어느 수준으로 우리를 가져다 놓음으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는 땅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온다. 종교 생활의 초기 상태는 진리와 선함의 발전에 꼭 따라 다니는 곤경과 위험에 무경험일 뿐이다. 그 이유가 진리와 선함의 원리가 알려지고 이해되어 의지와 이해성의 생명 안으로 입장하여 우리 자신을 만들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이 원리가 그것들에 관한 시험과 시련 없이 내적 삶 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 시험은 솔로몬의 기도의 다음 두 주제에서 묘사되고 있다. 진리와 선은 영혼의 참 생명의 물과 빵이다. 그래서 빵과 물이 없는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향의 영적인 들음이 없어 초래되는 영적 기근이다.

3. 그러므로 솔로몬이 기도한다. “이 백성이 당신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주소서...”

그리고 다시 기도한다.

4. “만일 그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들거나 곡식이 썩정이가 되거나 캄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누리떼가 갇아 먹었을 때, 성읍들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재앙이 내려 온갖 전염병이 번졌을 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음으로부터 누우치고 이 전을 바라보며 팔을 벌리고 간절히 빌거든 당신께서는 자리잡으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이여,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갇아 주십시오. 당신 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낱알이 아십니다.”

하늘이 닫히고, 지상을 새롭게 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때란, 내적 인간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닫혀져 새롭게 하고 열매 있게 해 줄 진리가 바깥쪽 인간에게 흐르지 않을 때이다 이렇게 계속 닫힐 때, 기근 즉 선함의 패배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 이유가 이쪽의 패배가 저쪽의 패배도 생산되게 하기 때문이다. 선이 실패할 때 마음을 삭막하게 하는 수많은 악들이 솟구친다. 비가 오지 않는데 대한 솔로몬의 세 번째 기도는 어떤 다른 나쁜 것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네 번째 기도의 주제인 기근에는 염병이나 작물이 시들거나 흰가루 병균이 돌거나 메뚜기떼가 갇아 먹거나 적에게 포위당하는 나쁜 것들의 긴 대열이 뒤를 잇고 있다. 선함은 영적 삶의 지휘 본부의 참모와 같다. 선함이 영적 삶의 전투에서 패할 때, 닫혀져 있어 막아내야하는 성문은 열려져 있는바 각종 염병이 진입하여 원리를 파괴하고 불사른다. 모든 사람은 각자 심정 속의 재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려면 자신의 죄를 일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까지 알게 될 때 가능해 질 것이다.

5. 위의 체험은 우리에게 선함과 진리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게되어 영적 삶의 필수적 요소들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고 싶다는 바램을 불러 일으킨다. 이 원리들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켜 보겠다는 사람, 추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훈을 받으려는 바램 자체가 “외국인”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그 이유가 주님의 명성 때문에 먼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지혜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을 위한 솔로몬의 다섯 번째 기도는 외국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 드리면 그들의 청을 그대로 들어 주실는 것이다. 이 요청의 목적은 외국인 자신들을 위함 외에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처럼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즉 이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영향이 전체 마음에고루 분산되면 자연적 마음도 영적 마음의 뜻에, 뿐만아니라 주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것이라는 말이다.

6. 솔로몬의 여섯 번째 기도는 두 번째의 경우 같이 전쟁에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경우 백성들은 싸움터에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적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이 선택하신 성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을 지킬 것이라는 기도이다.

일곱 번째 청원 역시 전쟁과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백성들이 죄짓고 주님이 성내시어 적에게 그들을 넘겨 포로 신세에 처한 백성에 관하여서이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관해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간청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주실 뿐 아니라 끌려간 신세에서라도 적의 동정을 사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한참 후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글자대로도 발생되었다. 포로가 됨은 어느 한 상태의 완전한 끝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들이 해방되고 그들의 땅에서 재건설함은 또다른 상태의 시작을 표현한다. 포로됨은 영적 인간이 수행하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격렬한 시험을 표현한다. 이를 통하여 영적 인간은 또다른 상태로 건너 가는바 이 마지막 기도는 인간 마음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그분과 결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모든 가능한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솔로몬의 기도에 있는 백성의 해방은 주님이 그들을 직접 구제하는게 아니라 적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놓아주는 해방이다. 마치 마지막 단계는 적대감 그 자체, 증오심 그 자체를 정복한 것 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들의 참 포로됨이 자유로, 슬픔이 기쁨으로 돌아서고 있다.

솔로몬은 기도를 끝나치자 주님의 제단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양 팔을 뻗고 있던 자세를 고쳐 일어나 이스라엘의 온 무리에게 큰 소리로 복을 빌어 주었다. 이 복의 내용 중 하나는 아마 우리도 열심히 바라는 주제가 되고 있을 것이다. 즉 “우리를 떠나시키 마시고, 우리를 버려 두시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이 당신께로 기울어 있게 하시고, 당신께서 보여주시길 따르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느님은 그분의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우리의 진솔한 바램은 이러해야 하리라. 우리의 심정이 그분께로 기울고 있어야 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 다시말해 그분이 스스로 지상에서 외국인인 되어 있는 동안 걸으셨던 그런 길을 따라 걷고 싶다는 바램이 심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길은 자아 부정의 길, 거룩함의 길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고통받은 것을 수단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분께서는 악마와 싸우시고 목마르셨고 굶주리시기도 했다. 최후에는 자신을 죽일 적들에게 포로가 되는 극한 상황에

까지 자신을 인도해 가셨다. 그분이 포로가 됨은 지상적 삶의 마지막 단계이자 영광스러운 부활의 문 밖에 더 아니었다. 부활을 수단으로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인간성 까지 생명 자체가 되셔서 거듭남으로 그분의 뒤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생명의 저자되셨다.

신성한 이름이 그들 사이에서 거주하시는 성전의 봉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뻐하였다면, 주님께서 악, 즉 그분의 욕을 통해 봉헌하신 그분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더 새롭고 생명 있는 방법을 열어 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유대인들 보다 더 더욱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 64

### 열왕기상 8장 62-66절

#### 솔로몬이 두 번째 제물을 바치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다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를 끝내고 백성을 향한 연설도 마친 뒤,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야훼 앞에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은 야훼께 친교제를 드렸는데 수소 이만 이천 마리, 양 십 이만 마리를 바쳤다.” 이전과 똑같은 방법에서 “야훼의 전 앞뜰 중앙부를 성별하고..솔로몬이 축제를 베풀자 하맛 어귀에서부터 에집트와의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전국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제에 참가하였는데 이 축제는 7일과 7일, 그래서 14일간 계속되었다.” 제물은 이스라엘 교회에서 허락된 예배요 성결되게 하는 예배였다. 솔로몬은 백성들과 연합하여 바친 제물을 통하여 성전 헌당식을 마무리했다. 제물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우리와 예배의 관계와 같다. 이 둘 모두에는 고백과 간청함 감사함이 있고 특별히 가장 높으신 분에 나 자신을 봉헌함이 있다.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가 옮겨져 성전에 자리잡았을 때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야훼의 전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소와 양을 바쳤다. 이는 심정과 지성의 내적 예배 또는 내향의 인간의 예배가 표현되어진 것이다. 이 예배로 들었던 것들은 그 숫자를 셀 수 없어 말해질 수도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 미칠 길 없고, 너무 많아 이루 다 헤아릴 길 없습니다.

세어보면 모래보다 많고 다 세었다 하면 또 있습니다” (138:17,18). “야훼, 나의 하느님,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수많은 놀라운 일, 우리를 향한 수많은 생각, 그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또 알리려 하옵는데, 이루 다 셀 길이 없습니다” (40:5). 내적 예배는 거듭남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셨던 경이로운 일들,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귀중한 생각들이다. 이런 경이로운 일과 생각들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한다. 계약체를 모셔와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 이것은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올려 놓는 것인바 그 자체 가장 거룩한 행동이요 가장 내면에 속하는 예배이다. 이런 경우의 예배자는 우리의 안내를 위해서 그분의 법을 주셨고 뿐만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이분은 주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타애라는 거룩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사랑의 자비좌 (mercy-seat) 위에서 우리를 만나고 교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즉 “사제들이 야훼의 계약체를 성전의 밀실, 지성소 거룩의 날개 아래 마련된 자리에 안치해 놓았다.” 율법의 거룩함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전에 차있었다. 사제들은 그 구름이 너무 짙었으므로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전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성전을 짓도록 임명하신 이유를 백성들에게 설명하였고 헌당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를 생각해보자.

제물 특별히 솔로몬 왕과 그 백성들이 주님께 바친 제물은 셀 수 있는 것들, 외적 인간 속에 있는 예배를 표현했다. 그 이유가 이미 언급한바 있듯이 수를 셈은 영적 의미에서는 양이 아닌 질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이나 상태들은 생각보다는 느낌 쪽에 해당되므로 셀 수 없다 라고 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품질이 알려지고 추산될 수 있으면 생각 속의 주제, 그로부터 허를 거친 것들은 세어질 수 있다. 외적 예배는 내적 예배를 보충하거나 충만되게 한다. 예배도 삶처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즉 바깥쪽에서 이행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반복되는 듯 여겨지는 대목들을 자주 읽는다. 그 이유가 바깥 쪽에서 행동된 것들은 마음의 행동으로서 이전에 행동된 것이 반복된 듯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마음은 모든 바깥쪽 행동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행동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규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는 마음 없이 행동 못하지만 마음은 육체의 동시적인 행동 없이 행동한다. 그러나 예배는 비록 분리된

정신적인 행동이라 생각될지 몰라도 때와 시기가 적절해지면 마음과육체가 병합된 행동으로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예배의 행동을 완성한다. 예배가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 존재할 때 그 예배는 거룩함과 능력을 지니고 존재할 수 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제물을 바쳤는데 그 중에는 친교 제물도 있었다. 이 친교 제물은 자발적인 제물의 범주에 있다. 자발적인 제물은 자유로부터 있는 예배를 표현했다. 자유로부터 있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있는 것이다. 사랑은 예배의 완전함, 완전한 예배인바 율법이 실현된 것, 완성된 것과 같다. 또한 평화는 예배의 가장 높은 목적이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것이다. 예배자와 그 대상자 사이의 일치함이 예배자의 마음에 있게 될 때 그 예배는 평화를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애정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순응되게 할 때, 그리하여 그런 생각과 애정을 부여하신 그분의 섬김에 바쳐질 때 평화는 달성된다. 이것이 참 예배이다. 예배에서 주님께 바쳐진 애정과 생각들은 이스라엘 교회의 경우는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특히 깨끗하고 흠없는 동물을 제단에 바침으로 표현되었다. 솔로몬의 화목 제물은 황소와 양이었다. 소, 돼지 같은 동물은 천적-자연적 애정을 표현하고, 양 같은 동물은 천적-합리적 애정을 표현했다. 성전을 헌당하면서 바쳐진 동물의 많은 숫자는 그들 나름대로 이 장엄한 예식에 대한 그들의 열렬함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된 것임은 의심할바 없다. 그래서 예식의 장엄함은 그들의 상상을 넘어 있는 셈이다. 우선 이는 왕 중의 왕되시는 그분을 표현하고 있다. 왕 중의 왕이 신성이 내재하시는 완전해진 인성의 영화로운 성전을 헌당하고 있다. 이때 영화된 사람(Glorified Man)속의 모든 인간적 애정과 생각이 성화되었고, 이것이 천상천하의 창조자 안에 영원으로부터 존재해 온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제물로 바쳐지고 하나를 이룸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형상과 그 결과로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현존하는 성전과 신비스런 육체되는 구세주 주님의 교회를 헌당하는 표징적인 모습도 담아내주고 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 우리의 거듭나진 인간성을 바치는 것이다. 이 인간성은 성령의 성전으로 지어진 각 개인들이다. 이 성전에 주님의 영은 구속하시는 사랑의 모든 풍요로움으로 내재하신다. 이 상태는 영적 의미에서의 평화이다. 기독교인이 지니는 내향의 평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수단으로 하여 내향의 모든 적을 정복하고 모든 생각과 애정을 주님께 화목되게 함으로 확보된다. 바쳐진 소와 양의 숫자는 주님과 그분을 섬기는데 모든 애정을 바침으로 완성되는 예배도 표현한다. 이만 이천 마리의 소는 바깥쪽 사람 또는 천적-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선함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하고, 십 이만 마리의 양은 안쪽 인간 또는 천적-합리적 마음에 있는 선함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하고 있다.

말씀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떤 큰 규모를 말하기보다는 무한한 숫자를 표현하고 있다. 신성한 의미에서 이 숫자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표현한다. 영적 의미일 경우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그분에 속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선함과 진리의 어떤 것을 표현한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것 안에서만 거주하실 수 있으시다.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 천국적인 씨들이 유아 시기나 어린 시절에 천사나 인간의 손에 의해 뿌려지도록 설비해 놓으시고 있다. 이런 씨의 성장은 처음에는 돌 같은 토양에 뿌려지는 듯 하지만 마음이 개선되어 정직한 심정이라는 옥토가 만들어지면 씨가 사람의 아들에 의해 뿌려지는바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 결실을 갖는다. 모든 사람 각각에게는 자기 안에 천국적 삶의 시작을 있게 하는 어떤 것, 즉 섭리적으로 “남겨 있게 하신 것(remains)”이 있다. 이것은 숫자 “10”로 특별히 의미된다. 더불어 열에 곱해져 나온 숫자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숫자가 곱해짐으로 커졌다 해서 특징지워 주는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드높여 질 뿐이다. 따라서 20은 10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물론 10에 10을 곱한 경우라든가, 10에 100을 곱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생각이 이 숫자들 모두에 응용되고 있다. 차이는 오직 등차에서 있어진다. 10이라는 숫자는 여러 다른 숫자들에 들어 가는데 그 이유는 그 숫자가 원칙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계속 연결되어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상태 안으로 들어 가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거듭남은 남겨 두신 것(remains)의 양에 의해서가 아닌 질에 따라 있어지기 때문이다. 말씀에는 여러 다른 생각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다. 그이유는 인간의 경험에서는 다양한 상태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영적 생명의 본질적 요소는 모든 것에서 똑같다 해도 각각 안에서 차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상태들이 경험을 통과할 때 주제가 그 상태를 표현할 경우 숫자를 열거함으로 그 상태를 표현한다. 예를 들면 6은 노동과 시험의 상태를, 7은 쉼과 평화의 상태를 표현한다. 마치 일하는 6일과 쉼의 안식일 같다. 2는 천국적인 결혼, 또는 선함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한다.

솔로몬이 봉헌식을 거행하고 야훼의 전 앞뜰 중앙부를 성별하고 “주 하느님 앞에서 축제를 베풀자 하맛 어귀에서부터 에집트와의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전국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축제에 참여하였다.” 제물이 주님의 교회 사람과 그분과의 결합을 표현한

한편 축제는 교회 사람 서로서로 간의 결합을 표현했다. 결합의 수단은 주님 사랑과 서로 간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제물과 축제는 모든 율법과 예언이 걸려 있는 두 계명의 다른 형체이다 이렇게 하나되는 축제에 참여한 수많은 백성, 하맛으로부터 에집트의 강에 이르러 있는 백성들의 숫자는 솔로몬의 지배의 폭을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북쪽에 있는 하맛과 남쪽의 에집트는 솔로몬이 통치한 땅의 폭을 가늠하게 하는데 한마디로 그의 지배는 시리아로부터 에집트 까지 펼쳐져 있는 셈이다. 솔로몬의 지배 영역은 과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다. 즉 “너의 경계는 에집트로부터 하맛 어귀 까지 일 것이다” (민수기 34:5-8)라는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것이다. 이 성취는 주님의 교회가 지혜로부터 과학에 이르기 까지 이르는 폭을 표현하였다. 그 이유가 시리아 사람은 동방의 후손이라 불리는 이들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축제는 7일에 7일 즉 14일간 계속되었다 라고 말해지고 있다. 역대기 7장 9절의 경우 “7일간 제단을 봉헌하며 7일간 축제를 올렸다.” 그리고 축제의 제 7일 후 8일째에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 7은 거룩한 숫자이고 7이 두 번 반복된 것은 거룩함의 강조 즉 가장 거룩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8일 째 되는 날은 새로운 상태의 시작인바 8일 째 날은 거룩함의 이전 상태, 즉 거듭나는 삶의 과정에서 획득되어 온 상태들, 사랑의 상태와 이타애의 상태들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여 아뢰게서 당신의 종 다윗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려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 흐뭇하여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 갔다.”

솔로몬이 계획했던대로 성전을 마무리한 후 그에게 격려와 경고의 소리가 내려왔다. “주님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셨던 것 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다. 네가 세운 이 전을 성별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장차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 곳에 두리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은 마치 솔로몬의 두 번째 제물처럼 첫 번째의 확증과 완성이다. 마치 안쪽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 바깥 인간에서 마무리되는 것과 같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살피면 신성한 언어가 신성한 인성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네가 세운 이 전을 성별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장차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 곳에 두리라.” 주님의 성전인 그분의 인성이 그분이 영원히 거하실 장소이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는 거기에서 항구적으로 있으리라. 주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 “네가 네 아버 다윗처럼 충성스런 마음으로 내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일러준 모든 계명을 지켜나가며 내 법과 의식을 따르면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그러나 너나 너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을 것이고, 성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은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한갓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리라.” 솔로몬과 그의 성전이 주님을 표현한다고 설명해 왔는데 어떻게 위 구절을 응용해 볼 수 있을까? 이는 마치 계시록 5장 6절, 주님이 죽여진 어린 양 같다는 말씀이 마치 그분이 인성 속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을 표현한 것 같이 본문에서도 그분을 표현한 것은 절대적 표현이 아닌 관계적 표현임을 알면 가능해진다. 솔로몬에게 내린 격려와 경고의 말씀은 실상 주님의 교회와 그 교인을 향해서이다. 믿음과 노동에 의해 건설되어진 것들은 심정의 성실과 삶의 곧바름으로만 보존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다시말해 경계하고 기도함을 그만두어도 괜찮다는 상태에 도달하는 때는 지상에서 결코 없다는 것을 유념하라는 말이라.

## 65

### 열왕기상 9장 10-14절

#### 가뵐

띠로의 왕 히람은 주님의 전과 왕궁을 짓는 동안 많은 재료와 숙련공을 보내 주었고, 그 대가로 솔로몬은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 이만 섬과 찢 기름 이십 섬을 해마다 보내었다 (5:11). 자연적 인간은 영적 인간에게 재료를 공급한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한편 영적 인간은 믿음과 사랑을 떠받쳐 주는 수단으로서 진리와 선함의 원리를 자연적 인간에게 공급한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건축하는데는 이십 여 년이 걸렸다. (띠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요청한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 재목과 금을 보내 왔다.)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이십 개를 히람 왕에게 떼어 주었다.” 영적 인간은 자연적 인간에게 진리와 선함의 내적이고 필수적인 원리들을 공급할 뿐아니라 그것들에 상응하는 외적이고 교리적인 원리들을 준다. 그리하여 이

교리들 안에 그들의 생명을 구성하는 선함과 진리의 외적인 애정이 있다. 그 이유가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성읍은 이스라엘 소유의 성읍일 뿐 아니라 그 도성은 산업 활동이 왕성한 이스라엘 도성이기 때문이다. 이 도성은 갈릴리에 있었다. 그러나 갈릴리는 아직 이방인적 특성, 즉 열 지파가 강제로 끌려간 후 타 민족이 정복자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후의 이방인적 특성은 아직 없었다. 이 당시 갈릴리는 납달리 지파에게 속해 있었다. 이 지파는 띠로 출신의 기술자인 히람의 어머니가 소속된 지파이다. 납달리는 야곱이 이렇게 묘사했다. “납달리는 풀어 놓은 암사슴, 아양떠는 소리 요란하다” (창세기 49:21). 그래서 시험 후에있는 자연적 애정의 자유를 의미했다. 갈릴리는 이런 자연적 의미도 지닌다. 즉 가나안 지역 중 하나인 이 성읍들은 띠로 왕이 표현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히람은 띠로로부터 와서 솔로몬이 내어 준 성읍을 보았으나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뭐니까?’ 그래서 이날 까지 이 지방은 가불의 땅이라 불리고 있다.” 히람의 방문은 오히려 그에게 실망과 유감의 말만을 늘어 놓게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상상하기도 한다. 띠로 사람들은 해양 민족, 즉 상업 국가 였는바, 갈릴리가 내륙에 위치해서 해안선을 따라 국경을 넓혀 보려 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로 히람이 실망했을 것이라 상상한다. 어쨌든 본문의 대화 자체는 또다른 이유, 그럴 듯 할 만한 이유를 암시하고 있다. 히람은 성읍의 위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성읍 자체에 있는 결함만을 발견한 듯 보인다. 가나안의 성읍들이 솔로몬 시대까지에 이르러서도 띠로가 보기에는 너무나 천박하고 쓸모 없는 성읍으로 보여졌다는 것은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 아마도 그당시 띠로 국가는 아주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잘 번성하고 있었는 것 같다. 비록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만큼 부를 축적했고 이스라엘 국가 역시 예술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해도 부유함이나 세련됨이 띠로 국가에 뒤쳐져 있었을 것 같이 보인다. 띠로의 이런 조건이 그것의 표현적 품성에 응답되고 있다. 성서 역사의 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나 나라들의 표현적 품성은 제멋대로 되어진게 아니라 그들에게 상속되고 발달시켜진 특별한 종류로부터 나온다. 각기 다른 지상의 나라들은 서로를 관련시켜 보건대 이 나라와 저 나라의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는바 인간 마음의 서로 다른 기능과 상응된다.

이런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지적 발달의 규모에서 더 낮은 것들은 더 높은 원리가 수여하는 상급을 받되 선뜻 기뻐하지 않는 경우이다. 우리의 본성에서도 전체 인간, 즉 영혼과 육체의

잘됨을 위한 법과 질서에 덜 호의적인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때로 우리의 자연적인 욕구나 열정은 이성과 신중함에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주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신적 습득물 중의 어떤 것은 정작 마음을 개선해주는 커녕 되려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다. 솔로몬은 “금을 선택하기 보다는 지식을 받겠다”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잠언 8“10). 그럼에도 사도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고린도 전서 8:1). 물론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지식은 이타애가 없는 지식이다. 지금 떠로는 지식을 표현했는데 이 지식은 사도가 위에서 말한 것 까지도 포함될 여지가 있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때로 사람은 지식을 많이 증진시킨 이들, 그러나 그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질 위험에 놓인 이들, 지식을 승화할 품위가 결여된 사람들을 표현했다. 예언서에서 때로는 위와같은 품성을 일반적으로 묘사하는바 그것의 과멸이 그 결과로서 이렇게도 묘사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모든 보석들로 단장했다....너는 슬기롭고 무역 기술이 좋아 재산을 불렸다....네 심정은 네 재산 때문에 으쓱해졌다....네 심정은 네 아름다움 때문에 들떠졌다” (에제키엘 28:13,4,5,17). “칠십 년이 지난 후, 야훼께서 때로를 찾아 오시리라. 그때 때로는 다시 화대를 받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몸을 팔 것이다. 그러나 화대로 낸 돈은 쌓아 두거나 저축하지 아니하고 야훼께 드려 거룩한 돈이 되리라. 그 번 돈은 야훼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넉넉한 음식과 훌륭한 옷감을 장만하는데 쓰이리라” (이사야 23:17,18).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우쭐대게 하는 불결한 지식의 결과에 대한 놀랄만한 묘사를 읽는다. 더불어 지식을 삶의 필수적인 수단을 포획하기 위해 채용함으로써 올바른 사용에 쓰여 정결해짐으로 거룩해지는 지식의 참 가치에 관한 묘사도 함께 읽는다.

지식을 자랑하려드는 경향성, 그 결과 지식이 드높여야 하는 이타애 위에 오히려 지식이 군림하려는 경향성을 생각하면, 왜 때로왕 히람이 선물받은 가나안의 성읍을 둘러보고 반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줄거리의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어쨌든 그의 태도에는 솔로몬에 대한 어떤 혐오나 경멸 같은 것은 없다. 그 이유가 비록 그가 솔로몬에게 실망한 듯 한 말을 뱉었지만 솔로몬에게 금을 선물한 것으로 보아 감정이 상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때로 사람의 품성은 큰 사람(the Grand Man) 안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머큐리(mercury)의 영들의 품성 같다. 이들 역시 천국적 상태이긴 하나 그들은 기억에 상응되고 특히 물질적, 지상의 것으로부터 추상화된 것들의 기억에 상응되고 있다.

가나안의 성읍들은 주님의 교회 속의 교리와 종교 속의 교리를 표현했다. 이것은 성읍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의미이고, 특별한 의미일 경우 교리들이 있는 마음 속의 내면들, 또는 진리들이 선함과 결합된 마음 속의 내면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진리와 선함의원리들은 마치 성읍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지닌 사람들은 하느님의 도성이라고 불린다. 성읍의 의미는 도성의 의미와 비슷하다. 보편적 의미에서 집은 선함을 의미하나, 특별한 의미에서 집은 선함과 진리가 결합된 마음을 의미한다. 집은 가장 작은 형체에서의 성읍이다.

띠로왕 히람은 종교의 생활 보다는 그 지식에 관심이 집중될 뿐 내적인 삶의 유용한 일에 근원을 두지 않는 이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생명 있는 원리들을 생산하거나 자양분을 공급하지 않고, 단지 내향의 원리들이 거처를 발견하는 바깥쪽 형체들을 건축하는 것 만을 도울 뿐이다. 이런 점에서의 그들의 특성과 기능이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 이렇게 기술되고 있다. “시돈아,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라. 바다는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어 아기를 낳지도 않았으며 총각을 기른 일도, 처녀를 키운 일도 없다’” (23:4). 띠로와 시돈은 진리와 선함의 지식 안에 있으나 그 지식이 자신들에게 살아 있는 원리를 낳아주지 못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진리의 애정에 자양분을 먹이지도 못하고, 선함의 애정을 양육하지도 않고 다만 신성하고 영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이다. 영적인 것들에서 좋은 상인이었던, 불법 거래 상인이었던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쓸모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졌다.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 많은 상품을 바다로 실어 나르는 시돈의 무역업자들은 잠잠해 있어라” (이사야 23:2).

성서 비평 같은 학문에 기쁨을 느끼고 직업을 삼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성서 글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진리를 건설하려 노력한다. 이와같은 학자들은 중요한 씬씀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신학자나 설교자를 위해, 교회 전체를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수고한 것과 같다. 그 이유가 말씀의 글자는 천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내포하는 성전, 하느님이 사람들과 함께 현존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성전에서 주님은 말씀의 글자 의미에 대한 더 정확한 지식의 공급과 동시에 총명하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내적 의미를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비록 경건하고 긍정적이다 해도 말씀의 글자 의미에서 멈추는 학자들은 신성한 계시로서 성경이 가르치고저 고안해둔 내면의 주제들에 흥미를 느끼거나 거기서 기쁨을 느껴보지 못할는지 모른다. 오히려 그들은 성서 글자의 내면의 주제들은 가치 없는 듯 여겨

용납 조차 거절할는지 모른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 대상의 대열에 조차 끼지도 못할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성서 내면의 의미들은 “가불”인 셈이다. 성서 내면의 의미가 있는 영역은 그들에게 “가불의 땅”이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위와같은 상태로 계속되는 한 종교 속의 더 높은 목적과 연구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내준 가나안의 성읍들이 지금까지 가불의 땅이라 불리울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자기 마음이 위와같은 부류에 속한 이들이 띠로 사람과 띠로의 왕으로 표현되었다. 이들의 재능은 계시된 종교의 성스러운 원인을 위해 노련한 기능공이 기꺼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나 외적 증거의 확장에만 관심을 쏟는 이들은 띠로가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발표되지 않도록 성서의 내향의 영을 주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과학과 지식은 집의 기초를 놓고 건축하는데 재료를 공급하고 준비도 해준다. 그러나 집을 건축하는 목적은 주님이 거기에 그분의 이름을 새기는 것, 그 안에서 그분이 경배되어야 하는데 있다.

## 66

### 열왕기상 9장 18절

#### 솔로몬의 성읍들-광야의 다말성

제 5장에서 읽는바,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국에 근로 소집령을 내렸다. 소집에 응한 자는 삼만 명이였다...솔로몬은 또 짐나르는 사람 칠만과 돌개는 사람 팔만을 산악 지대에 두었는데 그 외에도 일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고급 관리 삼천 삼백 명이 있었다.” 그리고 제 9장에서 읽는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서 살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일 수 없었으므로 그 땅에 남겨 두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솔로몬은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다...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친위대, 지휘관, 대장, 병거대와 기마대의 지휘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일으킨 모든 공사에 동원된 책임자만 오백 오십 명이나 있었다.” 이런 강제 노역은 고대 시대 때의 경우 통상적인 운명으로 여겼었다. 위와같은 경우 자연적 수준이 영적 수준에

복종하는 것, 더 낮은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을 섬기는 것을 표현했다. 이와 반대로 오래 전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포로가 되어 강제 노역을 하면서 생활한 적이 있었다. 이럴 경우는 질서가 뒤집힌 것, 즉 영적 수준이 포로된 상태, 자연적인 수준을 섬기는 상태를 표현했다. 솔로몬은 주님의 집 외에도 자신의 집인 밀로궁을 짓고, 예루살렘성을 쌓고, 여러 성읍들을 증축했다. 밀로, 그 이름이 표현하듯 성벽인데 다윗에 의해 지어졌다 (사무엘하 5:9). 그러나 솔로몬에 의해 새 건축물로 불려도 될 정도로 확장되었다. 밀로와 예루살렘의 성벽은 도성을 보호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담았고 많은 나라들이 올려보고 참 하느님을 배우도록 주님께 헌당한 집이 들어 서있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방어하는 크고 높은 성벽은 지상적인 성벽이 표징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벽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성벽이 도성을 방어하듯 그 속의 영적 의미를 방어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리들은 주님의 교회에 적의 있는 사람들 내쫓고 친근한 사람들은 들여 보내는바 거룩한 성의 성벽은 사방에 문을 가졌다.

솔로몬은 가나안 지역 내에 여러 개의 성읍을 지었다. 가나안 자체는 주님의 교회 속의 내적인 교리들을 표현했다. 하술은 납달리 지파 영역에, 므기또는 므나세 지파 영역에,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 바알랏은 단 지파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 성읍들은 개별적으로 뿐만아니라 집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참으로 흥미가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다룰 경우 지면이 너무 많이 할애되어야 하는바 한 두 개 정도만을 살펴 보는게 나을 듯 싶다. 하술, 제일 먼저 언급한 성읍이다. 이 이름이 아주 강력함이 있는 곳임을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전에 가나안의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격이었다. 이와 관련이 있는 여호수아서 11장 1-10절을 읽어 보자. “이런 소문들을 듣고 하술 왕 야빈은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악 지대에 있는 왕들, 긴네렛 남쪽 벌판에 있는 왕들, 야산 지대에 있는 왕들과 또 바다쪽으로 도르 언덕에 있는 왕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그들이 전군을 거느리고 출동하니, 그 군대는 바닷가 모래처럼 많았고 기마와 병거 또한 이루 셀 수 없이 많았다...그 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두려워 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쯤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서 박살내리라...’ 여호수아는 그들을 무찔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돌아 오는 길에 하술을 공략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다. 일찌기 하술은 이 여러 왕국의 종주국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수아에 의해 파괴된 가나안 나라들의 우두머리였던 하술을 재건하였다. 즉 “허물 때가 있으면 지을 때가 있다” (전도서 3:3). 솔로몬의 통치는 지을

때에 해당되었다. 선함의 통치는 진리의 권능이 파괴해 버린 곳, 광폭의 거주지였던 곳을 평화의 거주지로 건설하고 있다. 솔로몬은 악한 왕국의 우두머리가 있었던 장소에 새 성읍을 세웠는데 그 곳은 납달리 지파의 영토가 되어 있었다. 이 지파는 시험과 싸움으로 자유로운 상태 안으로, 그리하여 선함과 진리가 결혼하는 상태 안에 있는 이들을 표현한다.

“비망록”에서 여호수아 11장의 하젤성은 다양한 이름들로 표현되어진 로마 종교를 뜻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종교들의 주요한 특징은 지배육인바 가나안의 우두머리격인 하젤이 이를 잘 표현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배육이 종교의 어떤 한 형태로 국한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자신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맞서야 한다. 우리가 이 큰 악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경우 우리는 그 악과 정 반대되는 것을 세울 수 있다. 솔로몬이 재 건축한 가나안의 성읍들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이름이 붙여져 있다. 악은 선이 뒤집혀진 것밖에 더 아니다. 가나안의 악들은 고대 교회의 선함이 뒤집혀진 것이다. 따라서 가나안에 있는 장소들은 고대 교회 이전의 처방으로부터 온 표징적 특성을 가졌다. 애당초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세운게 아니라 무너져 내린 성읍을 재 건설하여 고대 교회의 상징성을 회복시켰을 뿐이다. 하젤은 솔로몬이 세운 성읍들 중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표현한 원리는 가나안 지역이 표현해 놓은 원리 중 첫 번째로 중요했기 때문이다.

게젤은 이렇게 특별히 언급되고 있다. 즉 “에집트의 왕 파라오는 게젤을 쳐들어가 빼앗았을 때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 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파라오 왕은 그의 딸인 공주를 시집보내면서 이 게젤 성을 결혼 선물로 주었다.” 왜 파라오가 솔로몬의 지배권에 있었던 게젤로 쳐올라 왔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해보기가 곤란하고 어떤 설명이 추가되지 않는한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호수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읽는다. “그 때에 게젤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 왔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뺏성을 하나도 살려 두지 않고 모조리 무찔렀다.” 그리고 16장 10절에서 이렇게 읽는다. “게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은채 이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에 섞여 살면서 노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와 게젤 주민들에게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지파 중 몇 지파는 그들에게 할당된 구역의 원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한채 세력이 거의 죽은 그들과 섞여 살아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라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해내지 못한 일을 완성한 셈이었다. 본문의 경우 에브라임 후손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 내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후손을 게젤에서 몰아낸 듯 여기게 하고 있다.

파라오가 케젤로 쳐올라 갈 즈음 에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상상하지 않으면 파라오가 케젤성에 불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던지 기록된 사실에 따라 영적 의미를 찾아 보아야겠다.

케젤, 에브라임 소유의 한 부분일 경우, 그 지파의 표현적 품성의 몫을 받고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주님의 교회의 지적 원리, 또는 새로운 이해성을 표현했다. 마치 그의 형 므나세가 새로운 의지. 자연적 마음 안에서 태어나 존재하는 새로운 의지를 표현한 것과 비등하다. 그러나 므나제와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들의 조상에 적용되지 않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 아버지의 아들이나 에집트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했다. 그 이유가 아버지 요셉이 온이라는 곳의 사제 보디베라의 딸 아세넛과 결혼했는바 그들은 에집트에서 태어나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품성과 본성 안에도 에집트적인 것들이 담겨 있다. 아세넛과 하갈은 모두 에집트 출신이지만 매우 다르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자 아브라함의 첩이지만 아세넛은 사제의 딸이요 정상적인 아내였다. 아세넛은 과학의 애정이 아닌 선의 애정, 그러나 과학적인데 근원을 가진 선, 따라서 과학적 품성을 가진 선을 표현했다. 본문에서 우리는 케젤성이 에집트 어머니의 아들로부터 내려오는 지파, 에브라임의 성읍인데, 에집트왕이 탈취했고 에집트 출신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에게 넘겨졌다. 그 이유가 케젤은 파라오의 딸이 솔로몬에게 가져 온 그의 상속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케젤은 교회 속의 교리, 즉 물질이 아닌 영적인 것에 관한 과학의 지각과 애정에 바탕을 둔 지적 측면에서 건설된 교리를 표현한다. 이런 이유가 케젤은 솔로몬에게 인도될 당시 황폐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즉 “파라오는 성읍에 쳐들어가 불을 지르고 성 안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케젤성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이 재건한 또다른 성읍 하나도 우리의 시선을 받고 지나 가야 할 것 같다. 광야에 있는 다말성은 솔로몬 시대 이후 시리아 사막을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쉼터와 활력을 보강해주는 장소가 되어 과거의 단순한 마을이 아닌 특별히 고상한 성읍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는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팔미리아(Palmyra)로 더 알려져 있다. 두 이름들은 똑같은 의미를 지녔는데 종려나무의 성으로 부르고 있다.

솔로몬이 여행자의 쉼을 위해 사막에 건립한 이 성읍을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의 여정에서 통과했던 성읍 없는 사막과 연결지어 관조해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상태의 변화에 관한 표시와 표상을 꼭 발견하고야 말 것이다. 이사야서 35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메마른 땅과 사막아,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피워라. 아네모네 처럼 활짝 피워라. 기뻐 뛰며 환성을 올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가르멜과 사론 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야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곳에 크고 정결한 길이 흰하게 트여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사람은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서성거리지도 못하리라. 사자가 얼씬도 못하고 맹수가 돌아 다니지 못하는 길, 건짐받은 사람만이 거닐 수 있는 길, 야훼께서 되찾으신 사람이 이 길을 건너 시온 산으로 돌아 오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리라. 그들의 머리 위에선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온 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 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데 없이 스러지리라.” 이사야의 이런 내용들이 사막에 세운 솔로몬의 성읍에 관한 구절로부터 다 이끌어 내질리 만무하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이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즉 시편 기자가 적의 수중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래서 구속하시는 주님께 관해 말하면서 그들이 빈궁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사람 사는 고장으로 가는 길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 잃고 헤매고 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길을 찾아 들게 하시어, 사람 사는 고장에 이르게 하셨다.” 본문의 경우 이제 시편과 같은 상황이 바뀌었다. 여행자와 순례자는 사막에서도 성읍이 제공되어져 있다. 거기서 그들은 시편 기자가 읊은 “주리고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 빠지는” 병고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이 기독인에게도 절실하다. 기독인 역시 광야에서 배회할 수 밖에 없다. 그가 고통으로 어느 수준까지 온전해지고 변성해져 주님의 왕국이 건설될 때 그는 사막에 다말을 지을 수 있어 거기서 그의 영혼이 기쁨과 풍요로움을 향유하도록 보물을 가져오는 이들에게 활력을 충전할 수 있게 하리라. 이때 이스라엘의 달콤한 가수와 똑같이 영감된 기사를 이렇게 지어 부르지 않을까? “야훼께 감사 노래 불러라. 그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시편 107:4,7,5,1).

## 67

### 열왕기상 10장 1-10절 솔로몬의 명성 - 세바의 여왕의 방문

솔로몬의 부와 명예, 특히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타국에까지 널리 퍼졌다. “솔로몬왕은 땅 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 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왕을 찾아 왔다. 찾아 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집기, 금집기, 옷, 갑옷, 향료, 말, 노새 등을 예물로 가져 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 (10:23-25). 솔로몬왕의 부와 지혜는 왕 중의 왕되시는 주님 자신에 관한 것을 표현했다. 더불어 구세주의 최고의 왕권은 단지 그분의 천국에서 같이 지상에서도 최고의 통치자이시더라는 것이나, 그분의 권위 아래 모든 왕들이 통치받고 있다는 것만을 뜻하는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천국에 관련되어 이해되는 것, 각 왕들이 제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은 그분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모든 진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신다는 한 개의 신성한 진리, 그분은 우리의 자비들의 저자요 우리 영혼의 구세주, 즉 그분의 신성한 인성 안에 있는 예수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다는 한 개의 신성한 진리에 종속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왕들 중의 왕이시다. 이 귀중한 진리는 여타 다른 모든 것을 성결케 한다. 따라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실용적으로 드높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부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 솔로몬왕이 어느 왕보다도 더 부유하고 지혜로왔다고 칭찬하는 것은 내적 인간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의 참 질서이다. 이 질서가 건설될 때, 바깥쪽 인간의 원리들이 전체적으로 종속되고 통치하는 권능에게 감사하여, 또는 의무에서 다양한 선물을 가져오게 된다. 지상의 각 처에서 사람들이 신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그의 지혜를 들어 보고자 하여 솔로몬을 찾아 왔다. 이는 자연적 마음 전체가 지혜와 생명의 길로의 가르침과 안내를 받고자 하여 영적 마음으로 고개를 돌리는바 선함과 진리에 관한 다양한 지각과 지식을 가져와 내향의 인간은 지식과 과학에 더 풍부해져 더욱 부유해지는 것을 말한다. 선물로서 은집기, 금집기, 의복, 향료, 말, 노새를 매년 가져왔다. 이는 선함과 진리의 과학물, 그리고 진리와 선함의 지적이고 합리적인 지각들이 그것들을 확증하고 예증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것들을 풍부하게 하고 칭찬하기 위해 응용되는 것을 말한다.

“세바라는 곳에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시험해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여 방문 온 일이 있었다. 이 여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각종 향료와 엄청난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기록은 그 특성상 동양적인 듯 비치고 동양의 꾸며낸 이야기 같은 분위기가 조금 배어난다. 그러나 이 기록은

참 역사이다. 그래서 이 기록에 담긴 진리도 아름답고 교훈적이다. 다시말해 이 기록도 인간의 것이 아닌 신성한 창조 중 일부라는 말이다. 세바는 성경에서 여러번 언급되었지만 그중 어느 곳에서도 세바가 아시아쪽인지, 에집트쪽인지를 결정해볼 만한 단서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어찌됐든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기록된 글자로부터 영적 교훈을 끌어내는 일이다. 아마도 세바의 여왕에 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가장 안전한 기초는 주님의 서술, 즉 그녀를 남쪽의 여왕이라 부르는 대목에 두는 것이다. 이 남쪽은 팔레스틴에 관련해볼 때의 남쪽, 영적 의미에서의 남쪽을 말한다.

기록된 대화체 아래에는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관계되는 심오한 영적 진리들이 놓여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예정적 의미에서 이 사건은 주님 자신과 관련되고 있다. 세바의 여왕이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낙타에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싣고 예루살렘의 솔로몬에게 오는 것은 솔로몬으로 예정화된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신 주님께 더하여진 지혜와 총명을 표현했다. 보다 낮은 수준의 의미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바와 같이 이방인적인 교회와 관련되고 있다. 그 이유가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옛시대 때의 이방인들의 행동과 복음서 당시의 유대인의 행동을 대비하시면서 믿지 않고 모독을 일삼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이다. “심판 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만 듣고도 회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심판 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12:41-42). 이방인인 여왕이 이방인의 교회를 표현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 교회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인 주 구세주에게 애정을 가진 가르쳐질 수 있는 영을 지니고 그분께 청중했다. 솔로몬이 제아무리 화려하게 차려 입었어도 백합을 창조하시고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시며 화려하게 입히시는 무한한 지혜의 그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백합과 그것을 만드신 그분과의 관계는 참으로 안성맞춤이다. 그분은 유약한 인간성이라는 단순한 복장을 차려 입고 결코 인간이 나열해 보일 수 없는 미덕과 덕행으로 장식하시고 결코 인간이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말하시지만 그분의 인간 형체 아래 그 자체 무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영광과 지혜와 부유함을 감추여 있게 하셨다.

세부적 개별적으로 응용해볼 경우 세바의 여왕은 참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영감을 받아 지혜 자체이신 그분께 돌아 서는 것, 창조의 일에 나열되고 반영된

지혜, 섭리와 구속과 구원의 일에서 명백해지는 지혜, 거룩한 성서 안에서 충만되어 있으면서 밝히 알리는 지혜의 사랑을 표현한다. 이런 지혜를 사랑함은 마음의 모든 수준들에 영감되어진다. 이 사랑함은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각처에서 인간 마음을 자극한다. 그 이유가 자연에 관한 지식을 사랑함조차도 모든 사랑의 참 근원으로부터, 모든 지식의 참 저자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는 정확한 상응이 존재한다. 자연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끌어내려는 지식을 소개하고 보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자연과 말씀 모두를 수단으로 표현되고 체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려는 것들은 씌어 있는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국한된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사랑함은 그것의 대상처럼 영적이다. 영적인 이유가 한쪽은 참 근원이고 다른 쪽은 받는 그릇의 수준이라는 차이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자연적인 수준의 마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랑도 영적 수준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똑같이 영적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들은 어떤 수준에서 천국의 지혜를 바라고 추구할 수 있다. 자연적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소개하고 영적인 지식 자체는 참 지혜를 소개하는 수단밖에 더 아닌바 영원한 그분 자신으로부터 영원의 지혜를 획득하는 이들은 자신의 간청을 수락하신 그분께 선물을 가져와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받은 지혜의 몫을 가져와야 한다.

고대 시대 때에 선물을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경함을 보여주고 부탁을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참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은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영적으로 움직여 바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자 그분의 비위를 맞추려는 수단으로 바쳐지는게 아니다. 그 이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호의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묻기도 전에 아시고 주시고 싶어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예물은 감사하는 심정의 넘침으로, 애정의 만족이 그것을 주신 분을 겸허히 인정하고 되돌리고 싶어서, 늘 받기만 하는 신성한 은혜를 그것을 주시는 분께 되돌리고 싶다는 느낌으로 주님께 바쳐진다. 이런 되돌림은 그것의 원 저자와 재 연결되고 더 친밀한 관계를 헌납자에게 가져다 준다.

세바의 여왕의 선물은 의미상으로는 그 본성상으로는 그분의 탄생 때에 경배하고자 방문한 동방의 박사가 바친 것과 흡사하다. 이와같은 예물은 진정한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으로서, 사랑과 믿음의 참 근원이요 그 소유자 되신 분으로서의 주님에게 바치는 사랑과 믿음을 의미한다.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고, 세바의 여왕은 “각종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났다. 향신료(spices)는 예배 자체를 매우 기쁘게 만드는 어떤 것, 즉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감사히 여겨 즐거워 하는 지각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 각자는 표본적인 주님의 교회의 향(incense)이 자비와 기쁨의 원 저자에게 감사히 여기는 심정에 의해 바쳐진 찬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향료와 분향 제단에서 늘 사용되는 향신료는 내면의 진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내면의 진리들은 애정 속의 진리들이 되어 있는바 거룩한 예배에서 만족과 기쁨을 감사히 지각하게 한다.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선물 중에서 향신료는 선함과 진리를 달콤하고 감사히 여기는 지각이다. 그리고 금과 은은 선함과 진리 자체의 원리인바 참 지혜의 원 저자요 그 소유주이신 분께 바쳐지고 있다. 이런 선물을 싣고 온 낙타는 자연적인 마음 속의 과학을 상징화하고 있다. 이 과학 안에서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습득물이 안정되게 씬을 얻는다. 그래서 이 과학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목적을 연결하는 가장 낮은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와 웅장함에서 다른 왕과 차별된다는 것, 뿐아니라 그가 모시는 주님에 대한 소문 까지 들었다. 이는 솔로몬의 대형이 주 예수이심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대목이다. 아마 우리는 예언의 언어에서 “정녕 하느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이스라엘의 하느님, 구세주이시여...”라고 말하듯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분에게 있다. 예수는 여호와의 인물이시요, 이름이며, 여호와의 명백해짐이고, 여호와의 표현과 형체이다. 우리가 예수에게 다가서면 우리는 납득이 불가능한 무한과 영원 자체에 다가서게 되어 납득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목적과 그 결과를 생각해보자. 본문은 그녀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방문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그녀의 목적은 그당시 유행했던 방식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겠다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녀는 수수께끼를 내고 그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나 시험해보는 것이다. 비록 수수께끼는 아닐지라도 주님께 오는 이들도 주님의 대답 솜씨를 기대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참으로 자연적 인간은 계시 자체의 저자나 된 듯 계시의 어떤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과 계시 모두에는 누구도 풀지 못할 것이 많다고, 아마 지혜 자체도 힘들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당시 자연적 인간의 풍조였던 것 같다. 어려우나 정직하고 진지한 질문들 - 그 중 얼마나 많은 사항들이 주님의 지혜가 밝히 알리는 참다운 책에서 풀려 나가는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질문과

어두운 수수께끼들이 하느님의 계시된 지혜가 풀어 내주어 이를 갈망하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지! 이교도 세계의 아주 높은 지능들이 하느님의 신비, 창조, 영혼의 불멸, 인간의 미래 존재에 관해서 풀어 보려고 오랫동안 노력하고 힘써 왔다. 고대 전통의 빛의 도움을 받고, 당대의 계시가 뿌리는 빛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도 이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얼마나 희미한지! 그러나 성경을 소유하고 그것을 믿는 이들은 그 책 안에서 위의 사항에 대한 위대한 진리에 답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하느님의 존재나 인간 영혼에 관해서,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서, 창조물을 다루시는 주님의 지혜와 선함에 관해서 조차 묻지 않는다. 우리가 막상 영적 삶이라는 진짜 업종에 뛰어들면 많은 질문들이 지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튀어 나온다. 이 질문은 신성한 지혜의 결정에 겸허히 복종하겠다고 할 때 만이 해결될 수 있다. 젊은 기독교인의 경우 그가 버터내기에 힘들어서 오는 절망이라든가 잘 극복할 수 없는 지적인 곤란함 같은 것에 부딪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상황은 거의 알지 못한다. 종교 체험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후기 시절이 풀기 힘든 더 곤란한 질문들이 있는바 오히려 하느님과 자아 사이, 이웃 사랑과 세상 사랑 사이를 긋는 더 분명한 구분이 있어진다.

위대한 왕의 지혜에 진솔하게 호소한 결과가 세바의 여왕의 질문의 뒤를 이렇게 잇고 있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을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다.” 여왕 역시 자기 심정에 지녔던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과 교류했다. 심정을 열어 제침은 인생의 진짜 의문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삶의 곤경들, 그에 수반되는 고통들은 인간과 신성한 의지와 지혜 사이의 불일치로부터 본질적으로 발생한다. 신성한 의지와 이해성이 무한하게 느끼고 보듯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도 유한하게나마라도 그렇게 느끼고 본다면, 우리의 의지력이든 지각력에서이든 정신적 다툼은 없을 것이리라. 모든 진리에 대한 더 명백한 지각과 모든 선함을 더 완전하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가져다 놓는 것은 신성한 의지와 지혜에 하모니를 이루는 상태에 더 가까이 접근할 때 뿐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 만으로 그녀가 방문한 목적을 다 채운 것은 아니다. 그녀는 자기 나라에서 그의 지혜와 행동에 관한 소문을 듣기만 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기 눈으로 보았고 자기 귀로 들었다. 이는 직접적인 지식과 간접적인 지식의 차이,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배운 것과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의 차이와 비등하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주님의 영적이고 천국적인 왕국에 존재하는 사랑과 지혜의 경이로움에 관한 것을 타인들로부터 듣는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야만 하고 직접 내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에서는 너무 종종 거리가 경치에 대한 매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으로서 추구한 것들이 잡으려는 우리의 손아귀를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는 설사 우리가 그것들을 획득했다 해도 사용 중에 사라지곤 한다. 그러나 영적이고 영원인 것들은 이론적이 아닌 실용적으로 더 가까이 접근을 시도할 때 더 아름답고 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인즉, 우리가 종교 생활로 주님께 더 가까이 오면 우리는 신성한 속성이 반영된 상태에서 더 가까이 접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이유가 신성한 완전은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신실하게 반영시킬 때만이 우리는 신성의 완전함을 보기 때문이다. 천국의 아름다움에 관한 개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이 왕국의 영화로우들은 참으로 그 본래에 있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이 품어 보려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더욱이 그 나라의 모든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우리의 심정과 이해성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은채, 느끼지 못한채 영원히 남아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장소 차원에서의 천국에 올라 갈 수 있기 전에 먼저 상태 차원에서의 천국에 올라 가야만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행자로서 있는 동안 우리의 심정과 지성에서 천국적인 예루살렘에 올라 간다면 진실로 세바의 여왕의 고백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되는 것이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이 물질계에 살고 있어 물질적 육체의 우둔함 때문에 천국적 상태에 희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해도 이는 체험의 수준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체험은 지식이 약속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실감하게 한다. 이와같은 것이 세바의 여왕의 증언이다. 이와같은 것이 체험을 수단으로 오는 지혜를 자신 안에서 스스로 획득하는 모든 사람의 증언일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듣고 있었읍니다만 과연 사실이군요. 이렇게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직접, 간접적 지식의 모든 예에서 세바의 여왕의 체험은 반복되어진다. 더구나 영적 지식에 관련해서는 더욱 많다. 종교의 진리, 영성에 관한 것을 타인이 묘사하고 선포한 대로 아는 이들은 그 아는 것이 조금밖에, 믿는 것이 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사항들을 독립으로 아는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해진 것들에 관해 적당한 개념을 가질 수 있기 전, 또는 마음에 안착시키기 전, 우리는 그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진 것은 절반밖에 아니라는 것, 실감해보니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소문은 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리라.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가지 더 있다. 만일 우리가 종교에 관한 것들을 지적 또는 이론적으로만 안다면, 이는 간접적인 지식밖에 더 아니어서 믿음 역시 약할 뿐이다. 따라서 종교에 관한 것들이 의지 속의 것들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되어 갈 때만이 진실로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신 안에서 보고 그것들의 힘을 느끼면 그것들의 참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진짜 평가가 있어진다. 간접적이고 지적일 뿐이었던 종교의 지식들이 더 친밀하고 실용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쪽으로 인도할 때 마음은 종교의 참 실재에 열려진다.

영적인 믿음과 영원한 생명의 사항들에 있어서는 실재가 예상을 얼마나 능가하는지 본문을 통해 배워 볼 수 있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세워 놓은 전을 보고는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였다. 세바의 여왕은 왕의 식탁의 음식, 조신들의 배석, 제복을 입은 시종들의 도열, 술을 따르는 시종들, 또 왕이 야훼의 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서 찬탄해 마지 않았다.” 솔로몬 법정의 호화로움, 그의 궁과 성전의 웅장함은 주님의 교회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신 주님의 왕국의 영화를 표현하였다. 주님의 교회, 그 교회 사람에게 관련해 볼 때 왕의 집과 여호와의 집은 진리와 사랑의 원리들을 수용하는 자질 자체들이다. 그 이유가 왕은 진리를 상징하고 여호와는 신성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함과 진리의 원리들이 영혼의 영적 생명을 받쳐 주는바 이것들은 솔로몬의 식탁에 놓인 음식, 술을 따르는 시종장의 포도주들이다. 진리의 지각과 선함의 애정은 솔로몬의 시종들과 조신들이다. 그들의 의복은 거룩한 진리들이고, 이 의복이 그들을 장식해주고 구별짓게 한다. 세바의 여왕의 말문을 막은 여러 가지 본문의 항목 중에서 지혜가 처음 언급되고, 야훼의 전이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혜는 주님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마음 안에서 중간의 것들은 수단이 되고, 이런 것들의 목적은 주님의 전에 오르는 것이다. 종교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오르는 것, 신성한 인성 안에 계신 주님과 결합하려 오르는 것,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집에 오르는 것, 영원히 그분의 현존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바의 여왕의 고백을 실감하리라.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 열왕기상 10장 18절

## 솔로몬의 보좌

솔로몬의 제왕다운 화려함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의 왕권적 영화로움의 표징이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 왕국이다. 이스라엘 군주국의 통치를 구별짓게 하는 부와 화려함은 영적인 부와 웅장함, 선함과 진리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에 관한 예징을 표현하였고 왕의 왕, 주 구세주의 지배 아래 설비되어져 있다. 이런 이유로 말씀에서 솔로몬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종교적인 교훈의 수단들이고, 주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한다. 이 그림자가 천국과 주님의 교회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마치 그것들이 우리 밖에 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안에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왕으로서의 솔로몬은 주님의 제왕적인 권능과 정부를 표현하였다. 주님의 정부와 왕권은 사제적 권능이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실시되는 것과 구별되어 신성한 진리로 실시된다. 성경에서 주님은 사제로서, 왕으로서 많이 언급되는 편이지만, 영적 의미를 찾지 않는 이상 자연적이고 세상적 수준일 경우 그 주제는 환대 받아질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 혼한 생각은 이럴 것이다. 주님의 사제적 직능은 그분의 아버지께 신실한 자들의 예물을 바치고, 자신의 공적을 보아서라도 신실한 자들을 받아 주시라고 변호하시는 측면에 있고, 주님의 왕권적 직능은 아버지의 권위를 수단으로 두 인물로서의 이름으로 영적 업무를 통치하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그 자체 두 인물로 하느님이 계신다는 신조에 그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얘기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 진실된 생각은 이렇하다. 주 예수 인물 한 분 외에는 하느님은 없고, 단지 직능의 차이만 있는 것, 천사와 인간의 각기 다른 상태에 적절하게 통치하시는게 그분의 정부 형태이라는 것이다. 주님의 왕권적 정부는 그분의 신성한 진리의 정부이고, 그분의 사제적 정부는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정부이다. 이런 두 종류의 정부는 주님 안에서 공식적으로 구분되어 있는게 아니라 천국이나 사람들의 상태의 차이에 따라 실시되는 것 뿐이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주님을 표현하는바 주님의 진리의 정부, 또는 진리 자체로서의 주님이 여타 어느 왕국의 보좌도 견주지 못 할 옥좌 즉 솔로몬이 제작한 옥좌로 표현하고 있다. 옥좌는 왕국 또는 정부의 거룩한 상징물이다. 천국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이것이 옥좌의 일반적 의미이다. 다른 의미들, 즉 지배권이나 재판 같은 의미는 모두 일반적 의미 아래 포함되어 있다. 왕국으로서의 천국은 옥좌 없이 서있을 수 없는바, 심판과 공정은 하느님의 옥좌에 주소를 둔다. 솔로몬의 옥좌는 하느님의 옥좌로 불리는 것들을 상징하였다. 즉 그분의 왕국은 주님의 교회와 천국으로 구성되고, 그분의 신성한 진리의 정부는 천국과 지상으로 구성된다.

솔로몬이 인간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 그분께서 세상에서 입으시고 영화하신 인성 안의 주님을 예징하는바, 솔로몬이 만든 옥좌는 주님이 세상에 있으셨을 때 건설된 왕국, 즉 그분이 육으로 오시기 이전에 있어 왔던 왕국 또는 교회들과 구분되는 왕국을 상징하고 있다. 기독 교회 처방이라는 큰 관점 보다는 개인적 응용이라는 차원에서, 각자의 심정에 장착된 옥좌로서 본문의 줄거리를 이끌어 보겠다.

“솔로몬은 상아로 대형 옥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 이 옥좌의 첫 번째 특이한 점은 상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상아는 합리적 진리를 의미한다. 합리적 진리란 합리적으로 보여지고 응용되는 영적 진리이다. 코끼리는 일반적 의미로 볼 때 자연적 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코끼리의 엄니는 그의 힘을 발휘하는 도구인바 이 엄니로 공격과 방어를 한다. 상아는 흰색이고 섬세한 감촉이 좋은 재료로 되어 있는바 자연적 인간의 가장 우수한 진리 즉 합리적 진리를 의미해준다.

상아는 성경의 몇 구절에서 언급되는데 거기서 위와같은 종류의 진리들을 다루고 있다. 우선 10장 22절을 읽어보자. “왕은 다르섯 상선대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해외에서 한번 실어 오는데 삼 년이 걸렸다.” 화려한 부를 자랑하는 띠로를 암시하는 대목인 에제키엘 27장 6, 15절에서, “...바산의 참나무로 노를 만들고, 노젓는 자리를 상아로 만들었다...드단 백성도 너와 무역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상아와 박달나무를 가져왔다.” 띠로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총명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 지식이 배로 의미되고 있다. 이 배의 노는 참나무로 제작하고, 노젓는 자리(bench)는 상아로 꾸몄다. 노는 감각과 관련이 있는 이해성 속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명시하고, 상아는 이성 속의 것들을 명시한다. 상아뿔은 합리적으로 이해한 진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힘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궁전, 집, 그리고 상아 침대를 읽는다. 궁전과 집은 합리적 진리로부터 거둬나졌거나 형성된 마음 자체를 의미하고 이와같은 진리로부터 파생된 교리가 상아 침대로 의미되고 있다. 주님과 그분의 교회가 합일을 이루는 관계를 취급하는 시편 45편 8절에서, “당신의 옷들은 상아궁으로부터의 몰약과 침향과 육계 향기로 향내를 피우고 그림으로써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 상아궁으로부터의 향냄새 나는 옷들이란 합리적 마음으로부터 지각되거나, 또는 이성의 명백한 빛에서 보여짐으로 감사하는 주님으로부터의 진리들이다.

위의 특징적인 열거 속의 진리들은 기독교회의 진리들에서 특출하고, 주님의 두 번째 강림으로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 속의 진리들에서 더욱 특출하다. 그 이유가 기독교 진리의 영광과 능력은 이런 여건, 즉 신성한 권위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신성한 지혜 속에 있기 때문이다. 계시 속의 진리들은 단순히 인정하면 우리는 자연적 또는 외적 수준의 마음에만 들어가므로 그 진리들은 과학과 권위의 문제로서 남아 있지만, 계시 속의 진리를 지각할 경우 이 진리는 합리적 또는 내적 마음으로 들어가므로 빛과 이성의 주체가 된다. 진리의 지각이 없는 이성은 성경의 진리에 속박된 느낌을 일으킬 뿐이다. 진리를 지각할 경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준다는 느낌을 생산한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들이신 그분,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야말로 진정 자유이시다.

진리의 정신적인 지각을 단순한 마음의 작용으로서 생각할 경우, 이 지각이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지각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지각 안에 사랑과 진리의 실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진짜 지각은 존재할 수 없다. 어떻게 이해성이 의지가 반대하고 생활이 잘못 나타내는 진리를 지각할 수 있을 까? 우리가 실용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계시의 어느 구절 속의 진리를 실지로는 보고 있는게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함에 비례해서만이 우리는 그분의 교리가 참되다고, 신성하다고 알고 있다는 말이다.

본문은 위에서 말한 것들에 대한 예증을 표현해 놓고 있다. 그 이유가 옥좌는 상아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한편 큰 옥좌로서, 금을 입혔다 라고도 묘사했기 때문이다. 크다 (greatness)는 선함을 함축하고 있다. 그 이유가 크기(magnitude)와 숫자(number)는 선함과 진리를 명시하기 때문이다. 금 역시 선함 또는 사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큰 옥좌는 주님의 왕국과 정부에 필수적인 것이 선함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옥좌를 덮은 금은 진리가 비탕되어진

선함, 진리로 명백해진 선함, 심정의 선함, 거룩한 생활을 암시하고 있다.

주님의 옥좌, 또는 그분의 정부, 왕국이 거듭나는 마음 안에 장착될 경우 이는 진리로부터 형성되는데 이 진리는 반드시 사랑과 선함에 바탕을 두거나 명백함을 드러내야 한다. 이 진리는 내향의 본질로서 선함을 지녀야 하고 외향의 형체에서도 선함을 지녀야 한다. 신성한 정부가 심정 속의 정부요 행동 속의 정부로 납득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신성한 정부일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과 수단을 선물받았지만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행할 때 뿐이다.

본문이 하나 더 가르치는 게 있다. 즉 이성의 납득에 조화를 이룬 진리를 지각하고 사용함으로 선함 쪽을 가르키는 또 다른 서술이 있다. 옥좌의 꼭대기는 뒤쪽으로 둥굴었다 (the top of throne was round behind). 둥근 형태의 원(circular)은 선함을 말하고, 각(angular)진 형태는 진리를 말한다. 이런 까닭에 옥좌로 올라가는 계단은 진리를 의미한다. 진리와 선함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상관 관계가 있는바 본문도 이렇게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다. “옥좌는 여섯 계단을 가지고 있고, 옥좌의 꼭대기는 뒤쪽으로 둥굴었다.” 옥좌의 크기나 형체가 모두 선함을 명시한다해도 그들 모두가 똑같은 종류와 수준의 선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크기를 수단으로 명시되는 선함은 사랑의 선함, 형체를 수단으로 명시되는 선함은 진리의 선함을 더 뾰족히 명시한다. 진리를 수단으로 선함이 일궈지는데, 이 진리가 옥좌로 올라가기 위한 여섯 계단으로 의미되고 있다. 계단은 진리를 명시한다. 그 이유가 진리를 수단으로 마음은 의지를 자연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또는 지상으로부터 천국으로 들리워지게 하기 때문이다. 야곱의 사다리는 땅으로부터 천국 까지에 닿고 있었다. 이 사다리는 말씀 속의 진리들을 의미했다. 이 진리를 수단으로 하느님께서 천국을 통과하여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인간은 천국을 통해 하느님에게 승강한다. 솔로몬의 옥좌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섯 개 였다. 숫자 여섯은 진리를 의미하는 숫자이고, 동시에 노동이나 시련의 상태를 의미한다. 하느님이 세상을 육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해지고 있고, 인간은 육일 동안 노동해서 칠일 쉼을 예비하도록 명령되었다. 마치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의 작업으로부터 쉬셨던 것과 비슷하다. 주님이 말하신 땀흘리라는 육일은 가르침과 노력의 모든 상태이다. 이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거듭나고 있는 이들을 지휘하신다. 그리하여 거듭남 자체가 쉼의 일곱째 날로 의미되고 있다. 이로부터 천국은 쉼(rest)이라 불리우고, 지상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끝없는 삶을 준비하는바 노동이라 불린다. 그 이유가 천국에 있는 영혼과

지상에 있는 영혼의 비교는 섬과 팜홀림의 비교이기 때문이다. 이 팜홀림은 악과 유혹에 저항하고 기뻐하여 기꺼이 선을 행하는 수준이라기 보다는 의무 차원에서 마지 못해 선을 행함을 함축하고 있다. 천국의 상태에, 천국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악을 정복할 필요성이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향해 타이르신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요한계시록 3:21). 주님과 더불어 그분의 옥좌에 앉는다는 것은 그분의 왕국에 있다는 말이고, 마음 속의 수준 낮은 모든 생각과 애정을 딛고 넘어 시험을 이겨냈다는 말이다. 이 시험의 팜홀림이 창조의 육일에서, 솔로몬의 옥좌의 여섯 계단에서 함축하고 있다. 라오디게이아 교회에게 이르실 때, 그분께서는 자신을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라고 말하셨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창조, 거듭남, 또는 우리 내부의 올바름과 새 심정의 창조가 있다. 숫자 여섯은 진리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시련과 노동의 상태를 명시한다. 그 이유가 진리의 상태는 선의 상태와 비교해보면 팜홀리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진리는 심정과 생활 속에 있는 악들을 발견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 이유가 우리는 법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우리로 악에 저항하고 악을 버리는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다. 그 이유가 악에 관한 지식은 그 악을 제거하도록 자극하는 힘이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만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에 저항하는 힘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수단으로 우리에게 와진다. 힘은 선함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으나 선함은 도구로서 진리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영적인 모든 힘은 진리를 수단으로 우리에게 와지는바 진리가 선함에 바탕을 둘 때 그 진리는 심정과 생활 속의 모든 악을 정복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열 두 사자가 솔로몬의 옥좌의 계단에 서있다. 이는 참 믿음, 즉 사랑에 뿌리를 둔 믿음이 발휘하는 완전하고 압도적인 힘을 상징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말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6).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 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마태복음 17:20). 참된 믿음은 위 구절의 나무와 산으로 의미되는 거짓과 악한 원리들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열왕기상 9장 26-28절, 10장 11,12절

## 솔로몬의 상선대

성경의 역사 부분의 어느 한 단원도 솔로몬의 상선과 그 업적에 관계될 수 있는게 별로 없기에 대한 탐구나 추론 역시 미약한 편인 것 같다. 이 주제와 관계될만한 기록한 원문들을 설명하려고 뭔가를 제시해본다 해도 솔로몬에게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공급한 지역의 위치가 어딘지는 오늘날 까지도 불확실하다. 가능성의 제 1 순위로 인도가 지목될 뿐이다. 그 이유가 거론된 상품의 목록 때문인 듯 싶다. 만일 이 상선대가 지중해 쪽의 항구에서 출항했다면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를 돌아야 하므로 이 항해는 솔로몬 시대의 항법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 한바, 비록 다르사이트 언급되는 지역이 지중해 쪽이라해도 아마 출발 항구는 홍해 쪽이고 그 쪽에서 무역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어쨌든 이런 탐구는 우리가 성서 구절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닌바 더 이상의 상상은 생략할까 한다.

제 10장의 일반적인 목적은 솔로몬이 왕들 중에서 가장 슬기로웠고 부유했다는 것, 지상의 모든 왕이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왔다는 것, 아주 먼 지역의 왕들 까지도 그를 더 부유해지게 만들었다는 것 등등을 보여 주려는 것인 듯 여겨진다. 솔로몬 왕국의 대단한 재산, 솔로몬의 능력의 위대함, 그의 통치권의 범위 등등이 기록한 역사가들에게 큰 관심거리였는 듯 보인다. 때로의 왕과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대단히 칭송하고 우방국으로서 솔로몬의 위대함과 화려함에 일조했을 뿐 아니라 “세계 각 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 왔는데, 저마다 빈손으로 오지않고 은집기, 금집기, 놋, 갑옷, 향료, 말, 노새 등을 매 년마다 그치지 않고 가져왔다.” 이 구절은 영적 이스라엘 왕의 지배와 부, 그리고 그 권능이 솔로몬의 것들로 상징화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들이 솔로몬을 존경했다는 것도 예수에 대한 뛰어난 예정이었지만 이 정도도 그분에게는 그림자 수준의 예정밖에 더 아니다. 천국에서 그러했듯 지상의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서 꿇어야 하고 지상의 모든 혀들이 그분께 고백해야 하리라. 모든 천사가 가장 값진 선물을 드려 경배하는 그분이야말로 지상의 모든 이가 다가 가서 지혜를 듣고

끊임 없는 섬김을 드러야 할 가장 위대한 한 분 참 대상이시다. 이런 그분의 참 속성이 알려진 주님의 참 교회에서 과거 여러 왕들이 솔로몬에게 표했던 경의와 바쳤던 예물이 끊임 없어야 하리라.

솔로몬이 홍해에 띄운 배는 아마도 이스라엘 왕국과 연결지어서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배이었던 것 같다. 그 뒤 수세기 후 예수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띄운 배는 아마 솔로몬의 상선에 비해 훨씬 덜 중요하고 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든 지혜의 부와 지식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을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실어 날랐을 경우 그 배는 훨씬 더 귀중한 배였다. 이 배는 구속과 구원의 모든 축복을 지상의 창조물에게 제한 없이 나누어 주시려 오신 그분을 태웠다. 어찌됐든 위의 두 경우 모두에서 배는 똑같은 의미를 가졌는바 비슷한 영적 교환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성경에서 배는 지식을 상징한다. 그래서 배의 용도 측면에서 보면 유추가 발견되는 것을 상징한다. 지식은 지혜는 아니나 지혜를 담는 그릇이요 마음에 지혜를 실어 나르는 도구이다. 배를 수단으로 상인들은 먼 거리, 매우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자신의 나라의 생산물을 다른 나라의 상품과 교환하여 두 나라 모두 부유하게 한다. 이렇게 배는 지식을 상징한다. 배는 비록 이렇게 얻는 부유함이 참된 부는 아닐지라도 부를 획득하는 매개체이다. 그릇이나 배는 삶의 목적에 따라 응용되어 예상한 목적에 까지 부를 담아 운반한다. 이런 이유로 지식을 수단으로 신성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구속하는 사랑의 경이로움을 잘 생각하고 구속하는 사랑의 혜택을 실감하게 하는 지혜를 얻는바, 이것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큰 바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졌다. 이들은 주님의 일과 그분의 경이로움을 본다고 말해지고 있다. 똑같은 이유에서 거룩한 지식과 교통을 이룬 신비로운 바벨론에 있는 이들이 바벨론의 몰락을 탄식했는바 이렇게 표현하였다. “모든 선장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슬피 울면서 ‘무서운 일이다. 이 큰 도시에 화가 미쳤구나! 항해하는 배의 선주들이 모두 그 도시의 사치 생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들이 다 일시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을 것이다.”

솔로몬이 세운 상선대, 이를 수단으로 그는 아주 먼 지역과도 교류하고 무역을 했는데, 이는 복음서 아래 종교적인 빛과 덕목의 축복을 아주 먼 나라에까지 운반하는 지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될는지 모른다. 또한 주님에 관한 지식은 더욱 더 퍼져서 물이 바다를 덮듯 온 땅을 덮은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대단히 일반적인 견해 외에도 우리는 솔로몬의 배를 제자들의 배처럼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이 배를 타시고 주님께서서

여행하셨고, 이 배에서 가르치셨고, 이 배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이 배는 그분 자신의 신성한 말씀에 관한 지식을 표현하였다. 이 말씀 안에 그분이 현존하시고 이 말씀을 수단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더 접근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선다. 이 말씀으로부터 그분은 삶과 불멸에 관한 위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훈육해 주신다. 그래서 이 교리가 실감되면서 그분께서는 혼동을 일으키는 영혼들에게 평정을 회복시켜 주신다.

솔로몬의 배가 실어다 준 상품 목록들 역시 특이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금과 은은 내적 인간의 선함과 진리, 상아, 원숭이, 공작새는 외적 인간의 선함과 진리를 의미한다. 금과 은은 아주 귀중한 영적 품위들을 상징하여 모든 이가 즉각 그 의미를 인식하도록 예언자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었다. 모든 품위 중에서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귀중한바 이런 사랑의 품위를 금이 가장 보편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솔로몬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주님 사랑을 통치의 원리로 삼고 흠모하는 주님의 왕국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표현되도록 솔로몬의 방패는 두드러 편 금으로 만들었고, 그의 모든 잔도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수풀공의 그의 집의 모든 그릇도 금으로 되었고, 은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맹이 처럼 흔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이 금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표현 양식을 빌려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바, 주님을 사랑함이 심정을 통치하고, 선이 이성의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은이 표현하는 영적 진리는 돌이 표현하는 자연적 진리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이다. 솔로몬의 배가 방문한 나라의 세 가지 자연적 산물 중에서 상아는 합리적 진리를 의미한다. 이 진리는 자연적 인간 또는 외적 인간 속에서 가장 수준 높은 진리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상아로 옥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 이런 특유한 표현의 의도는 금방 눈에 띈다. 그 이유가 재판은 마음의 합리적 능력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 기능은 증거의 무게를 달아 보고 비교하고, 잘,잘못 사이를 식별하고 분리한다. 그리하여 재판은 전체 결말로부터 마무리된다. 그럼에도 재판은 진리만으로부터 형성되고 발표되는게 아니다. 비록 진리만으로도 부족한게 없다해도 진리만으로는 재판상 너무 가혹해진다. 재판은 진리에 의거하되 자비로 부드러워져야 한다. 재판하는 옥좌는 상아로 만들었으되 금으로 덧입혀 있었다. 합리적 능력은 엄격히 생각하면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또는 영적 마음과 자연적 마음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그 중간에 위치를 정하고 있다. 본문에서 열거된 상품에서도 상아는 내적 인간의 선과 진리를 의미하는

금, 은과 외적 인간의 선과 진리를 의미하는 원숭이, 공작새의 중간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이 무리인 듯 여겨질는지 모르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원숭이는 짐승이고 공작새는 새인바 이들은 선과 진리의 원리들, 또는 애정과 생각에 상응한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리라 본다. 자연적 마음에대한 그들의 관련은 동물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단순히 결정되는게 아니라 그 본성과 더불어 그 동물이 열거되는 장소,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 마음은 본성상 동물의 것과 비슷한바 동물은 특히 마음의 자연적 애정과 지각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감안하여 결정된다.

위에 열거된 귀중하고 흔치 않은 상품들을 외국의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여 오기 위해 이루어진 항해는 한번에 삼 년이 걸렸다. 셋으로 된 것(trine)은 상태를 상징한다. 셋은 세 개가 한 쌍이라는 생각을 포함하는 숫자이다. 이 숫자 안에서 모든 상태의 회전이 완성되고 그 목적이 성취되는바, 이 기간은 거듭나는 상태의 완성을 표현하고, 이를 수단으로 마음 속의 가장 높고 낮은 원리, 가장 내면과 가장 외면의 원리들이 연결짓고 하모니를 가져온다.

솔로몬 상선대의 긴 여행에는 히람의 상선대도 합류하고 있었는데, 9장 27절에서 “히람은 자기 수하에 있던 노련한 선원을 보내어 그 상선대에서 솔로몬의 선원들과 함께 일하게 하였다” 고 기록되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 국가는 바다에 익숙하지도, 상업 국가도 아니었지만, 고대 세계 속의 영국 같은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이 발달해 있었다. 왕자들이 상인이었던 띠로는 지중해 연안과 그 너머에 교역하는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띠로가 갖는 이런 상업적인 특성이 성경의 표징적인 특징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이미 살팍듯이 띠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아주 많은 재료를 공급해주었다. 띠로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표현하고 그들의 배 자체가 이를 상징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영적 의미를 위한 것이듯, 솔로몬의 상선대에 합류한 히람의 선원과 배는 마음의 더 높은 능력이 유용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더 낮은 능력의 도움을 받기 조차 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같이 교회에도 선물의 다양함이 있다. 교회의 모든 멤버들은 서로에게 유용할 수 있다. 모든 교회인들이 일반적인 선, 뿐만아니라 상호적인 선을 위해서도 함께 일한다. 비록 그들이 받은 재능의 선물은 다양하지만 한 분 참 영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다. 어떤 교인은 학문적 측면에 알맞고, 어떤 교인은 행동 측면에서, 어떤 교인은 지식을 획득함으로 특이한 기쁨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이 마지막 교인, 지식의 획득에 따라

기쁨을 얻는 교인이 히람이나 띠로 사람일 것이다. 머큐리의 영처럼 그들은 지식만으로 기뻐하고 있다. 아마 어떤 측면에서는 하느님의 제단을 위해 물을 길고 나무를 패는 일을 담당했던 기브온 주민일는지 모른다. 이들은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 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노동한다. 그럼에도 그 노동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혜택을 타인들에게 증여하려는 의도도 없어 보인다. 이런 특성, 그것의 유용한 측면과 위험한 측면이 솔로몬의 역사로부터 본보기화 되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선 유용한 측면일 경우, 히람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이다. 위험한 측면일 경우, 띠로의 자만으로부터 이다. 이를 놓고 예언자들이 혹독하게 질책하고 있다. 띠로 사람과 히람의 위와 같은 특성이 앞 장의 사건에서도 납득된다. 즉 솔로몬이 그의 위대한 일을 마무리했을 때 히람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그에게 가나안의 성읍 20개를 주었다. 그러나 히람은 그 성읍을 둘러보고 반기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뭐니까?’ 그래서 이 날 까지 이 지방은 가불의 땅이라 불리고 있다.” 가나안의 갈릴리의 이 성읍들은 주님의 교회의 교리들을 의미한다. 주님의 교리는 바다를 향해하는 배로 표현되는 지식이라는 것보다 더 실용적인 본성과 내적 측면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역사는 사실만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자기를 도와준 친구, 히람이 성읍을 보고 좋아하길 바랬다고 생각해야겠지만 성서 글자를 통한 영감된 언어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바, 지식만으로 기뻐하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진리, 그리하여 그분에게 직접 인도하는 진리를 두고서는 기쁨을 느끼거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사항들은 절대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 관계적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종교의 내향의 모든 원리를 거절하거나 메스꺼워 하는 지식의 바깥쪽 기쁨을 뜻하는게 아니다. 히람은 비록 유쾌해 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내준 성읍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내향의 진리와 선을 확실히 싫어하고 거절함을 앎을 사랑함의 남용이다. 이럴 경우 지식은 잘난척하게 되는바 이것이 히로의 마지막 결과이다. 그러므로 띠로를 향한 심판은 “띠로 출신의 귀공자들에게 말하라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심정이 들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내가 하느님이다’ 라 말한다. 너의 지혜와 이해력으로 너는 부자가 되었고 금과 은을 네 보물 창고에 쌓았다. 너는 하느님의 동산 에덴에 있으면서 각종 보석이 너희의 덮개였다. 너희는 가득한 지혜를 봉해 놓고 아름다움에서 완전하였다. 너의 심정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들떠 있었다. 너는 너의 빛남 때문에 네 지혜를 썩게 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하신다.

너는 외국인의 손으로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을 맞이하리라.” 띠로는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바 이것들이 띠로의 재산으로 의미되는데 띠로의 저속한 사용은 주님께 거룩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불성실한 자가 장사거리로 만들어버린 지식이 그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신실한 자에게 주어질 때 거룩한 삶을 증진하는 수단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된다. 마치 금과 은과 의복이 에집트 사람으로부터 뜯어내 이스라엘의 아들, 딸에게 입혀지고 귀중한 물품의 얼마는 성막 자체를 장식하는데 바쳐진 것과 같다.

솔로몬의 상전대는 에돔의 땅, 홍해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창설되어 항해를 시작했다고 이미 말한 적이 있다. 배가 건조되고 항해를 시작한 그 장소는 영적 의미에서 언급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의 노예 신세에서 해방되는 역사와 연관되어 유명해진 홍해는 영적 사항에 관한 단순한 지식 또는 과학을 의미한다. 특히 에시온게벨에 의해 뾰족하게 의미되고 있다. 과학으로부터 지식은 파생되어지고, 과학으로부터 마음은 영적 선과 진리의 탐구에 착수한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의 여행이 에집트에서 출발된 것과 같다. 종교적인 여행은 종교적인 과학에서 시작된다. 이런 과학, 종교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자연적 선함에 바탕을 두는바, 솔로몬 해군의 기지가 에돔 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상태는 번영을 약속받는다.

영적 삶을 항해에 비교해 본다면 솔로몬 상전대가 성취한 업적은 영혼의 진보에서 있는 중요한 순환을 표징해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부는 쌓아지는지 배워진다. 우리는 신성한 말씀의 영적 의미가 열려진 지혜의 영역을 더 깊이 들어 가보고, 더 멀리 항해하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하리라.

## 70

### 열왕기상 10장

#### 솔로몬의 군대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그의 군인들은 용감무쌍했는바, 우리는 다윗의 통치 열람에서 용사들의 긴 목록을 읽고 그 중에는 비범한 용기까지 발휘한 용사의 기록도 발견한다 (사무엘하 23장).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었다. 비록 그의 통치 시대 때에는 외국인의 침략으로

어수선했던 적이 없어 군대의 절대적 필요성이 별로인 듯 여겨져 그의 통치 권력의 방어 보다는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들러리 수준 정도로 유지되어 간 듯 보인다. 솔로몬 시대 때에 있었던 군대는 다윗의 시대 때에 이미 있어왔던 군대였다. 솔로몬은 옥좌를 승계받은 뒤 머지 않아 제단을 붙잡고 있는 요압을 처죽인 브니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열왕기상 2:34,35). 요압 대신에 브니야를 군사령관에 앉힌 것은 솔로몬 아래의 왕국은 다윗 왕국보다 표현적 품성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과 일치한다. 즉 요압은 이새의 가문이고 다윗의 조카였는바 그는 옥좌와 가까웠다. 그러나 브니야는 대 사제 여호야다의 아들이였는바 그는 제단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브니야는 사제직으로 표현된 가장 거룩한 품성 속의 선함에서 파생된 진리를 표현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인계 받은 군대 외에도 “병거와 말을 사모오다 보니 병거가 천 사백 대, 마병은 만 이천 명이 되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 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10:26). 말의 숫자가 이 구절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이와 연관이 있는 구절이 있다. 즉 “솔로몬에게는 병거를 끄는 말을 둘 마굿간이 사천 간 있었고 말이 만 이천 마리 있었다” (4:26). 병거대나 마병 같은 군대는 사울이나 다윗 통치 아래에서의 군대 편성에는 없었는바 아마도 솔로몬이 군대 편성에 첨가한 것 같다. 이런 기록은 솔로몬의 통치 때에 나라 살림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증명해준다. 그리고 더 암시하는게 있다. 이런 기록은 다윗 보다 솔로몬의 통치가 더 높은 표현적 특성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말과 병거는 이해성과 교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마병은 총명한 이들, 그들이 이해성을 안내한다. 말과 승마자에관한 의미는 계시록에서 잘 본보기화 되고 있다. 어린 양이 천상천하의 누구도 열고 들여다 볼 수 없었던 일곱 인을 찍어 봉인한 책을 열었을 때 네 말과 승마자가 차례로 나왔다. 이 네 말들은 주님의 교회의 계속되는 시대에서 거룩한 말씀에 관한 이해를 표현했다. 따라서 말의 색깔과 마병의 특성은 주님의 교회의 몇 세대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품질이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인지를 표현해 놓은 것이다. 첫 번째 말, 그 말의 색깔은 흰색이었고 활을 들고 있는 그 승마자는 계속 정복해 갔는바, 이는 주님의 교회의 첫 번째 시대에서의 말씀에 관한 이해성을 표현했다. 이 흰색은 지적 차원에서의 순수함, 잘못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상징하는바, 가장 이른 때의 주님의 교회를 특징화하고 있다. 그 순수함의 결과로 그들은 정복할 수 있다. 마치 사도와 초기 기독교회가 이교도 세계의 반대를 극복했던 것과 같다. 붉은 말과 그 승마자에게는 세상에서 평화를 거두어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아 큰 칼이 주어졌는바, 이는

주님의 교회 자체에 슬픔의 시작을 묘사하고 있다. 즉 의견들이 갈라지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생명인 사랑이 점점 차져간다. 그래서 불화 뿐만 아니라 죽음이 사랑이 평화를 주는 곳, 즉 거룩한 성소를 넘나든다. 검은 말은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이해가 어두워지는 것, 즉 진리의 빛이 있던 곳을 오류의 어둠이 차지하는 것이다. 그 결과 영혼의 영적 생명을 떠받쳤던 선함과 진리의 원리들이 대수롭지 않은 원리로 여기는바, 이것이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에 제공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창백한 말, 마지막으로 출현한 말인데, 주님의 교회의 마지막 시기에 있는 말씀의 이해, 즉 진리의 빛 뿐만 아니라 사랑의 생명이 소멸된 때의 말씀의 이해를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승마자는 죽음이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사분의 일은 칼과 기근과 죽음,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다.

똑같은 주제가 예언자 즈가리아에 의해 똑같은 상징성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네 병거들, 붉고 검고 회고 점박이 말 오히려 힘 센 말들이 늦쇠로 된 두 산 사이에서 출현했는데, 이는 말씀의 이해와 교리를 표현했는데 계시록의 주제와 달리 실패해 가는게 아니라 부상하는 주님의 교회에서의 말씀에 관한 이해와 교리를 표현했다. 그 이유가 즈가리아 시대의 경우,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 건축, 또는 주님의 교회의 회복이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천국으로부터의 네 영들이고, 주님 앞에서 온 지상으로 떠나는 영들이었다. 이 예언의 경우, 흰 말이 뒤를 잇는 검은 말은 북녘 땅으로, 점박이 말은 남녘 땅으로 나가는데, 한편 씩씩한 말들이 온 땅을 순찰하고 있다. 이 예언의 전체는 주님의 오심 즉 그의 이름은 새 싹 (THE BRANCH)에 관련되는게 분명하다. 따라서 병거와 말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복음이 권능과 빛을 가지고 전파됨을 비유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말과 승마자의 영적 의미는 아마 계시록 19장에서 더 확연해질 것이다. 거기서 요한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였다.” 흰 말, 초기 기독교회에서 있어 왔던 말씀의 이해가 여기서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 이유가 주님의 교회의 회복이 새 예루살렘의 하강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복은 초기 기독교회 보다 더 큰 영광과 권능에서 회복되고 있다. 그 이유가 이 백마를

타신 분은 참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시기 위해 무지와 오류와 악과 싸우시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전진하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님의 교회는 지적으로 순수한 상태에서부터서의 떠남이 예보되고 있지 않다. 흰말을 타신 그분의 의복, 즉 말씀의 글자라는 겉옷은 참으로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은 진리들의 피로 물들여져 있다. 그러나 말씀 속의 흰말은 퇴보의 표시 같은 것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다.

성경의 영성과 솔로몬의 표징적인 특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솔로몬왕이 거느린 수많은 말과 마병을 가진 병거대가 무엇임에 틀림없는지가 성경 자체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의 적들과의 자연적인 전쟁이 주님의 교회의 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예징화하고 있다면, 주님의 교회의 무기들은 육체적인게 아닌 영적인 것인바, 병거와 말 역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지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솔로몬의 대형(antitype)으로서 주님에 관련해보면 이 예언은 신성한 존재를 향해 말하는바, 그분은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면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심을 뜻해야만 할 것이다(하박국 3:8,13). 솔로몬이 지은 4000개의 마굿간, 1400대의 병거들, 12000의 마병들은 그것의 풍부함 뿐만아니라 그것들이 표현하는 영적 도구나 매개체들의 품질에 대한 표현이다. 1000으로 세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선함에 바탕을 둔 것, 또는 선함에 근거를 둔 품질을 표현하는바, 숫자 1000은 그것들을 수식하는 다른 요소들을 표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40은 시험, 전투에 관한 어떤 것, 14는 7처럼 거룩한 것, 12는 참된 것 또는 믿음 속의 진리를 암시하는 숫자이다.

솔로몬의 말이나 마병과 연결되되 좋은 측면 같이 여겨지지 않는 두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 영적 상태에 도달된 상태라면 자연적 진리를 수단으로 영적 진리를 확증하고 예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상태가 솔로몬의 왕국과 그의 통치를 수단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말을 불리고 말과 병거를 가져오기 위해 에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허용될 수 있었다. 마음이 종교의 진리에서 건설될 때, 과학에 관한 이해와 교리들은 진리를 위해 방어하는 수단이요 진리임을 확증해준다.

솔로몬의 통치는 재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명해져 있는데 비해 그의 군대는 공격적 전투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단지 방어적 임무만 수행한 듯 보인다. 참으로 그는 전쟁 도구라 해도 방어를 위한 것만을 만든 듯 말해지고 있다. 즉 “솔로몬왕은 금을 입힌 대형 방패를

이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이 들었다” 라고 기록되고 있으나 그가 창이나 칼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다. 영적 전투의 더 높은 상태는 순수하게 방어적이다. 기독교인 진리로부터 선함으로 발전해 가는 한 그는 공격할 뿐아니라 방어도 한다. 영적 싸움의 참 원리는 방어이다. 이것은 자연적 싸움의 참 원리도 된다. 그러나 자기 방어의 원리는 공격적인 작전이 요구될 때도 있다. 참 원리는 영적이든 자연적이든, 결코 전쟁의 빌미를 만들려 한다거나 침략 같은 전쟁에 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적 삶 속의 전쟁에서 영적이고 천적인 인간, 또는 믿음의 사람과 사랑의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 천적 인간의 전투 수행은 영적 인간의 것 보다 품성면에서 더 순수하게 방어적이다. 사랑은 칼 보다는 방패를 더 사용하고, 믿음은 방패 보다 칼을 더 이용한다. 참 믿음의 사람은 실로 사랑의 영향 아래 진리의 칼을 사용한다. 자기들의 칼과 방패에 기름부워진 이스라엘의 용사들이란 영적 인간조차도 사랑의 기름이 부워진 진리의 칼을 소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천적 인간은 자기의 전투 수행이 싸움이라 불리우는 한 사랑 자체로부터 싸운다. 솔로몬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는 사랑의 상징물인 금을 두드려 늘여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지옥의 군대 전체와 싸우셨을 때조차 그분이 공격당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그분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백성의 적들과 치고 박지 않으셨다. 그분은 신실한 자의 마음 안에서 도래하신다. 그들의 싸움이 무엇이든 이것은 그들 자신의 자아로부터 임이 분명하다. 신실한 자에 대한 약속은 이러하다. “그분의 진리가 너희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라” (시편 91:4). 그분의 진리는 형체이고 그분의 사랑은 실체이다. 그것은 금을 두드려 펴서 만든 큰 방패와 작은 방패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교전 상태일 뿐아니라 순례자 상태이기도 하다. 이를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깃발 아래에서 뿐아니라 솔로몬의 깃발 아래서도 싸워야만 한다. 모든 싸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참 지도자시고 우리 앞에서 가시발 길을 걸으시고 선한 싸움을 하시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이 각자의 상태에 따라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분 자신과 그분의 섭리해주심은 언제나 동일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영접하는 양과 질에 의거 모든 사람 각자에게 나타나신다. 사랑 보다는 진리를 더 많이 받는 이들은 그분을 전쟁의 참 사람으로서 본다. 진리 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이들은 그분을 평화의 사람으로서 본다. 가상적 진리 또는 진짜 진리로부터 싸우는 이들은 사울 또는 다윗 같은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 그분께서는 사랑과 지혜의 왕국, 정의와 평화의 왕국으로의 길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이끌어주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이끄시되 자아와 세상, 육과의 싸움을 통하게 하시면서도 한편 그분은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선으로 풍부해져 자기들의 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상태와 영 안에서 이끄시기를 바라시고 있다.

## 71

### 열왕기상 11장 1-13절

####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집착은 일찌기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으로부터 므나세왕이 주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운 사건 (열왕기하 21)까지에 이르러 명백해지는 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주제를 부정적인 견해에서 본다면 이 주제는 그들 사이에 건설된 종교가 무효력했다는 증거라고 우리로 생각해보도록 할는지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널리 퍼진 우상 숭배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도 들어 있다는 것은 어찌면 그리 놀랄 일은 못될는지 모른다. 솔로몬, 그는 지혜의 선물을 바랬고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그것을 받았다. 그는 성전을 짓고 헌당하여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게 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모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만된 심정 또는 영의 쓰라림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했다. 그런 그가 참 하느님의 예배로부터 추락하여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모압의 우상 그모스의 신당과 암몬의 우상 몰록의 신당을 지었다.” 그가 이렇게 한 까닭은 단순하게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단지 인간 의지 안에는 악이 있어 그 악과 같은 성질의 오류에로 마음이 기울게 한다는 원리가 설명의 단초는 제공할 수 있다. 솔로몬이 하느님의 이름을 극도로 찬양하던 예배에서 떠나도록 설정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 그는 부패한 주변 국가로부터 수많은 외국 아내와 결혼했다. 그가 늙자 그의 아내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그의 심정을 뒤틀어 놓았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가 나이 들어 기력이 쇠약해진 탓도 아닌 것 같고, 외국 출신 아내들의 영향력이 커서 통곡할 변절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애당초부터 솔로몬의 마음 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씨앗 같은 것이 서서히

자라고 있어 그로 하여금 끝내 주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를 자행하게 만들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없다. 어쨌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의 딸들을 취했다는 사실은 그가 그녀들의 종교적 예배에 기대고 있었다는 것, 적어도 모세의 법이 명령한 사항에 그의 마음이 느슨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약 성서의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그 사건이 가르치는 도덕성을 끌어내는 것은 유용한 일이다. 한편 그 역사물이 운반해 주고져 하는 다른 교훈들도 있다. 이런 저런 성서의 주변 여건은 신성하고 영적인 진리들의 표본이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그것들은 세상의 구세주, 주님과 관련되고, 종속적인 의미에서 그것들은 인간의 거듭남에 관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간 심정의 부패 또는 인간 이해성의 우둔함에 관해 말하는 이런 사건이 모든 것에서 완전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비로우신 구속자에 관한 사건이나 일을 표현하도록 고용되고 있다는 점은 아마도 특이한 듯, 또는 성서의 본래 취지에 불일치한 듯 여겨질는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성서 글자의 의미는 영적 의미와 다르거나 때로는 아주 반대될 경우도 있다. 즉 자비 자체이신 그분이 화를 내셨다는 경우, 선 자체이신 분이 악을 행하신다고 말해질 경우, 빛 자체이신 분이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선포되는 경우, 바뀔 수 없는 분인데 뉘우쳤다고 말해지는 경우 등등이다. 솔로몬은 본문의 경우를 포함해서 다른 경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표현하고 있다. 솔로몬이 여러 나라로부터 수많은 후궁을 맞아들이고, 늙어서는 그들의 미신적인 예배에 참석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일반적 진리는 인간 구속의 보편성과 보편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똑같은 진리가 계시록의 요한의 환상에서 표현되었다 (제7장). 요한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나와 이마에 도장을 받은 십사 만 사 천 명 외에도 “아무도 그 수효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보았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서 흰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옥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이와 똑같은 주제에서 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는 두루마리를 받아 든 어린 양 앞에 엎드렸고 이렇게 새 노래를 불렀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를 수단으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구해주셨습니다.” 인간 구속의 보편성, 나라나 언어가 다를지언정 모든 사람이 구원될 가능성은 구약 성서에서 표현되고 신약 성서에서 밝히 알려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위대한 진리 중의 하나이다.

“솔로몬왕은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파라오왕의 딸 뿐아니라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외국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아훼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시고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외국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외국 남자를 남편으로 삼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꺾어 그들의 신에게 너희를 유인해 가겠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외국 여인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솔로몬이 외국 여인을 취한 여섯 나라 중 셋은 히브리와 이스라엘 국가의 선조인 에벨로부터 직계적, 방계적으로 이어져 왔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제요 이사악의 아들이었다. 나머지 세 국가인 에집트, 시돈, 헷족을 살펴보면 성경의 훨씬 앞 쪽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이 세 부족들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으로부터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창세기 10장 6, 15절을 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었고...가나안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은 시돈이었고, 헷이...있었다.” 미스라임은 에집트, 헷은 헷족, 시돈은 시돈족에 해당된다. 엄밀히 말해보면 역사는 에벨의 시대까지는 시작된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더 엄격히 구분하면 에벨 자신도 아마 역사적 인물은 아니다. 성경의 대화체에서 역사가 에벨과 함께 시작된다면 그가 변천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상상해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듯 싶다. 에벨의 역사에서, 에벨의 직계 후손의 한 부분에서 신화 시대가 실제 시대와 혼합되고 있다. 에벨이 등장한 시대는 글자적이기 보다는 풍유적이다. 즉 “에벨은 삼십 사 세 되던 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 사백 삼십 년 동안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창세기 10:17) 라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맞아들인 후궁들의 나라에 해당되는 여러 다른 국가를 성경이 추적할 때 이 국가의 역사가 반드시 역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아주 먼 시대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또는 고대 국가의 조상이 누구였는지 우리로 알게 하려고 영감에 의해 씌어진게 아니라 종교적 개선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 씌어져 있는 것이다. 거룩한 역사는 더 높은 의미를 위한 골격, 더 높은 교훈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일 뿐이다. 이 골격이 어떤 형체인든, 또는 역사적 사실로 건축되어 있든, 글자적 기록이라는 마른 뼈는 신성한 지혜를 수단으로 모아지고 정렬되어 살과 가죽으로 덮혀지고, 숨을 넣어 살아 있어 큰 군대를 이루고, 이를 수단으로 만군의 주께서는 인간 심정 속의

악, 세상의 악과 싸우신다.

솔로몬의 외국 출신 후궁들의 출신 국가들을 성경의 근원에까지 거슬러 추적하는 목적은 그런 사실로부터 의미를 뽑아내고 싶어서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근원은 노아, 히브리, 이스라엘로 거슬러 추적해야 할 것 같다. 노아와 에벨 시대까지는 고대 교회를 의미하고, 에벨에서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히브리 교회를 표현하고, 아브라함에서 주님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고대 교회 (Ancient Church)는 천적 교회인 태고 교회(Most Ancient Church)와 구별되는 영적 교회였다. 천적 교회의 기본적인 품위 (grace)는 주님을 사랑함이고, 영적 교회의 기본적인 품위는 이웃을 사랑함이다. 한편 표현적 교회의 기본적인 품위는 단순히 순종함이다. 이를 더 간단히 표현해보자면 천적 수준의 원리는 사랑(love), 영적 수준의 원리는 이타애(charity), 자연적 수준의 원리는 일(work)이다.

주님께서 영적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모든 사람은 태고 교회가 끝난 이후에 존재한 품성 속에 포함되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 교회는 천적 교회와 구별하고자하는 영적 교회이지, 누구나 얼핏 생각하기 십상인 자연계의 교회와 구별되는 영의 교회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솔로몬과 그의 후계자에 반기를 들어 르호보암 아래 열 지파가 떨어져 나와 영구히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 대목에서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 알아야 할 것은 영적 교회가 솔로몬이 사랑한 많은 외국 여인들로 의미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구원하시는 영적 교회 사람은 노아에서 개시된 처방 아래 살았던 이들이었다. 사실 노아와 관련된 사항들, 즉 홍수, 방주, 또는 한 가족 만이 이전 세계로부터 구원되었다는 것 등등을 성경 글자대로를 실제 역사로 고집한다면 이해되어지지 않으나 이 사항들을 상응의 언어로 주님의 교회의 영의 상태, 인류의 영의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자연계의 형상들을 수단으로 묘사해서 그 속에 영적 의미를 지니게 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온 땅을 덮어 가장 높은 산 까지 덮은 홍수는 온 교회에 퍼진 거짓 신앙, 왜곡된 신조라는 홍수가 온 땅으로 의미된 온 교회의 가장 높은 원리 까지, 즉 하느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라는 원리까지 뒤덮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방주에 들어 간 것 외의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이 홍수로 멸해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수단으로 아껴두신 것을 제외한 모든 영적, 자연적 선함의 소멸을 묘사한 것이다.

홍수 후에 개시된 고대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잔존했다. 사실 고대 교회에는 노아

교회 말고도 히브리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더 있으나 이 두 교회는 고대 교회가 더 연장된 것일 뿐이다. 스페넨봄의 저서에서 히브리 교회는 두 번째 고대 교회이지만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로서 말하지 않고 단지 교회의 유사물이라고 자주 말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노아 교회는 영적 교회였고, 히브리 교회는 표현적 교회였고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의 유사물이었다. 이는 홍수로부터 육을 입으시는 때 까지 존재해 오면서 계속적으로 교회의 수준이 하강하고 있는 것밖에 더 아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소유한 생명력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자기들을 존재하게 한 이전의 교회 처방으로부터 상속받아진 것이다. 그러므로 포괄적 의미에서 모든 것이 영적 교회라는 명칭 아래 포함되어 있었다.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와 첩들이 고대 교회를 구성했던 이들이 분가되어 이룬 여러 다른 나라들로부터 취해진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오시어 구하시려 하신 영적 교회의 명칭 아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이 나라들은 참으로 그들 자체가 썩어 있는 후손들이었다. 즉 그들은 참 하느님으로부터 돌아 서서 거짓 하느님, 병어리 우상들을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와 그 백성들에게는 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구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많은 외국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주제를 기독교 처방 아래 있는 이방인의 나라에 관련시켜 보면 이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결과될 수 있는지 배운다. 성경을 모르는 국가들은 주님께서 직접 밝힌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께 인도되어 질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종교적 지식으로 획득된 선을 수단으로 주님께로 이끌려 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이방인 국가들은 이해성과 생각을 수단으로 주님께로 이끌려 질 수 없으나 의지와 애정에 의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의지 속의 애정이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마치 이해성 속의 생각이 남자로 표현되는 것과 같다. 그 이유가 두 성(sex) 중에서 남성은 생각 쪽에서 더 큰 능력을, 여성은 애정 쪽에서 더 강한 것으로 정신적으로 구별짓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주 단순한 듯 싶은 대목에도 깊은 생각을 포함하는바, 이런 성의 구별은 구,신약을 망라해서 성경 역사 속의 남자와 여자로 기록된 모든 것의 근간이 된다. 주님의 제자들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어떻게 잘 구별되는지 모른다.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지닌 애정의 강함과 부드러움으로 해서 베드로나 토마, 요한과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모른다. 이런 여성적 마음의 특성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여인으로 꾸준히 표현되고 있고, 특히 주님의 신부요 아내로 불리고 있다. 솔로몬이 사랑한 대상은 여러 나라 사이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다. 주님의 교회가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했다는 생각 때문에 깜짝 놀랄 필요는 없다. 그 이유가 성실한 종교는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체계가 엄격하게 볼 때 영적이지 않을는지 몰라도 종교적 원리는 영적이다. 종교적인 선함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주님의 교회가 있다. 선함에 대한 애정이 존재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그들이 믿는 것이 특이하다 해도 “만인의 구세주”이신 그분에게 협력하고 있는 셈이다. 하느님과 결함이 결과되게 하는 두 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선함과 진리, 사랑과 믿음이다. 이 요소 사이에 상호성과 협력함이 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결함은 없다. 하느님은 모든 선한 일의 운영자이시고 모든 선한 선물의 수여자 되신다. 하느님은 사랑과 선함을 수단으로 운영하시고, 인간은 진리와 믿음을 수단으로 그분께 협력한다. 주님은 사랑을 수단으로 그분께로 당기시고, 인간은 믿음을 수단으로 주님께 나아온다. 이를 이 두 대목에서 이렇게 상응의 언어로 가르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 복음 6:44).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 복음 14:6). 아버지는 신성한 사랑이고 아들은 신성한 진리이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것은 사랑이다. 한편 우리를 사랑으로 가져다 놓는 것은 진리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모든 이들을 사랑을 수단으로 그분께로 이끌어 내시나, 오직 그분의 진리를 받고 믿어 그분에게 의식적으로, 실제로 오는 이들만을 이끌어 내신다. 이 신앙자들은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과 기독교 생활의 의무를 알 수 있게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전방위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내질 뿐 아니라 널리 퍼져 있는 하느님의 진리에 의해서도 인도된다. 만일 구원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지식에만 절대적으로 의존된다면 하느님은 지상의 모든 국가들에 그분의 진리를 충분히 가져다 놓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함 또는 사랑이 종교의 첫째가는 요소인바 사랑은 구원의 제일가는 품위이므로 비록 순수성이 각기 다른 수준일지라도 종교의 모든 형체 아래서도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충족되어 있는 셈이다. 선함과 하느님의 지혜는 진리를 주는 것과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 사이에 비록 지상의 나라나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수준이나 정도에서 동등하다. 그들을 만드신 분, 그들의 구세주되시는 분이야말로 그들에게 무엇이 최선이 될 것인가를 가장 잘 아신다. 그분의 은유하신 자비는 그분의 일에 고루 스며 있어 어느 영혼도 구원의 수단 없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다. 바깥쪽 수단들이 제아무리 제한되고 불완전하다 해도 보일 수 없는 신성한 영향과 운행은 언제나 현존한다. 실사 보일 수 없는 그분의 권능이 이 세상에서

마음이 고운 이교도 백성들을 그분의 진리로 이끌지 못했다 해도 저 세상에서는 기필코 그분의 진리로 이끌어 내주신다. 진실된 모든 사랑은 진리를 바라고 있다. 이 바람은 이 세상에서 성취 못한다면 저 세상에서는그들 심정이 어디에 존재하든 만족되고야 말리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사랑에 빠진 외국 여인들은 진리로 이끌려 질 것이다. 참으로 솔로몬은 여인들이 끌어내야 할 진리요 그녀들을 끌어 당기는 사랑이기도 하다. 욕을 만든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진리는과거 옷입지 않은 신성이 인간들의 유약함, 불완전함 때문에 속박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영화하신 인성 안에서 이 진리는 모든 인간 마음 안으로, 모든 인간의 종교들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 예수 안의 여호와, 그리스도 안의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욕을 입으시기 전 보다 더 큰 능력으로 각기 다른 믿음과 예배의 형체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은 솔로몬이 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에 빠졌을 뿐아니라 그녀들의 신에게 절했다는 대목에 대한 거리가 먼 수준에서의 의미이다.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도렛을 섬겼고 암몬인들의 우상 말콤을 숭배하였다.....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모압의 우상 그모스의 신당과 암몬의 우상 몰록의 신당을 지었다. 솔로몬은 외국인 왕비들이 하지는대로 왕비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 까지 드렸다.” 아스도렛은 달이고, 그모스는 해이고, 말콤은 몰록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우상들은 이교도 신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을 대표하는 듯 여겨진다. 해와 달의 숭배는 우상 중에서 가장 나쁜 것에 속하고 있다. 그 우상들은 하느님의 인물됨 (personality of God)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을 표현한다. 인간의 형체를 지닌 우상 중에서도 인간 희생의 피와 부모의 눈물로 덧칠해지는 혐오스러운 몰록은 가장 역겨운 우상이었다. 이런 상황이라 해도 구원은 가능하다. 기독교의 빛 아래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된 종교적 느낌의 어떤 것이 위와 같은 예배 형체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는 상상해보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또는 참되고 사랑이신 하느님의 영이 피보기를 즐기는 예식을 집전하는 심정 안으로 어떻게 유입될 수 있을까를 추측해보는 것은 더 더욱 혼동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이 자기의 아들을 바치도록 믿음의 조상을 시험하시는 대목을 여전히 읽고 있다 (창세기 21장). 만일 아브라함이 이런 우상 숭배에 젖어 있지 않았다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 바치는 시험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기괴한 헌신의 행동 속에도 구원을 위한 요소는 들어 있다. 헌신자들은 하느님이 가혹할 만큼 대단한 제물을 요구하시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느낌에 폭력을

휘두르고도 정당하다고 여긴다.

이교도 국가의 종교, 우상을 예배하는 것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솔로몬의 아내와 첩의 숫자로 더 표현하고 있다. 그는 칠백 명의 아내와 삼백 명의 첩을 두었다. 말씀 어디에서이든 숫자 일곱은 거룩한 것을 표현한다. 칠백 명의 아내는 참된 거룩함의 어떤 것이 있는 종교적인 애정들이다. 거룩한 느낌은 종교의 잘못된 견해와 연결된채로 마음에 존재할는지 모른다. 그리고 예배의 타락된 형체 안으로 들어갈는지 모른다. 여기에도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다. 즉 심정으로부터 예배하는 이들과 지성으로부터 예배하는 이들, 또는 사랑으로부터 예배하는 이들과 믿음으로부터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 주님의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넘어서 까지에서도 이들 사이에는구분되는게 있다. 이 구분은 성별에 의해 크게 본보기화 되고 있다. 여인과 더불어 종교는 심정 쪽에 더 가깝고, 남자와 더불어 종교는 지성 쪽에 더 가깝다. 그런다고 심정이 지성과 서로 뉘을 나누지 않는 종교는 실제로 없다. 오히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단지 등급을 나누어 본다면 심정 속의 종교가 제일 가고, 지성 쪽은 두 번째 된다는 말일 뿐이다. 어떤 이의 경우 종교는 그의 지성을 통하여 심정에 도달되고, 또 어떤 이의 경우 종교는 심정을 통해 지성에 도달된다. 심정의 종교가 성경 속의 아내들이고, 지성의 종교가 성경의 첩들이다. 둘 다 구원받는 종교이나 주님과 그의 연결은 더 가깝다와 덜 가깝다의 차이 뿐이다. 그들은 관계적으로 볼 때 천적이고 영적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두 왕국, 즉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을 구성함으로 구별된다. 그렇게 해서 가장 낮은 천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천국에 이르기 까지 분포되어 존재하게 된다. 신성은 가장 작은 것에서나 가장 큰 것에서나, 큰 사람 안에서나 각 개인 안에서나 똑같다. 이런 구별은 하느님 자신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것의 형상일 뿐이다.

## 72

### 열왕기상 11장 14-27절

#### 솔로몬의 적들

비록 솔로몬의 통치가 평화로운 통치 였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평화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단지 다윗의 시대 처럼 내,외부에서의 반란, 다른 나라와의 큰 전쟁 같은 것이 없었을 뿐이다. 심각한 피해를 줄 수는 없다 해도 적극성을 띤 적들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내려 누르는 힘이 약해지기만 하면 곧 터져나올 듯 대기 중인 적들은 사방에 있었다. 솔로몬이 외국 여인의 꾀에 넘어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이후 주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시고 나라를 쪼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에 바로 이어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시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게 하였다....하느님은 또 엘리야달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게 하였다. 그는 자기의 임금인 소바 왕 하디데젤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이다...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에 속한 스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도 또한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였다.” 솔로몬 왕국 주변의 부족들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휘저어서라고 기록되지만 모든 부족에 해당된다고는 상상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르손은 솔로몬 시대 내내 적이 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행동으로 드러내는 모든 악은 먼저 마음 안에서 경향성(inclination)으로 존재하고 있다. 솔로몬이 늙자 노출 시킨 악은 그의 초기 삶에서 그의 마음 안에 잠재된 것으로서 지니고 있었다. 노령은 초기 삶으로 되돌아 가려는 자연적 자극이 있어지는 때이다. 정력이 왕성한 성년 시기 동안 잠재된 경향성은 이성의 힘이나 흥미의 주장에 밀려 억눌려 있을 뿐 종교의 원리에 의해 거둬나지 않고 있었다면 차후 정신적 육체적 정력이 쇠하여 짐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악들이 성나게 되어 바깥쪽으로 돌출하고야 만다. 악의 현존은 그것이 행동 선상에 있는 경향성으로 내재하고 있는 결국 휘저어져 압박된 상태에서 풀려나 반기를 드는 기회를 주게 된다. 만일 그것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적들은 교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 성경에서 찾아 이해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을 몰아내도록 명령받았을 때, 이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가 있었다. “만일 그 땅에서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박힌 비늘이 되어 너희가 살아 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민수기 33:55). 말씀의 역사적 부분에서, 특히 판관기나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읽는다. 즉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서는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 적들을 일으키셨고, 그 백성들이 역경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그들을 구해주시고저 판관을 들어 세우셨다. 본문의 경우 이와 반대이다. 왕의 죄에 대한 결과는 한 가지 뿐이었다. 즉 “너희 마음이 이러하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러둔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쫓개어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의 아버 다윗을 보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너의 아들의 대에 가서 이 나라를 쪼개리라. 그러나 이 나라를 쪼개어 다 내주지는 않고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지정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도록 휘저은 적들은 과거 관관 시대 때와 비슷하게 솔로몬이 지은 죄 속의 악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좋은 의미일 경우 에돔은 주님의 인간적 본질, 힘, 또는 자연적 마음의 선을 의미한다. 반대 의미일 경우, 에돔은 모든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아 사랑에 근원을 두는 자연적 인간을 의미한다. 시리아, 좋은 의미일 경우,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이들, 그래서 슬기롭다고 불리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 의미일 경우 위의 지식을 뒤집는 이들 그리하여 우상적인 목적에 응용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돔과 시리아는 의지와 이해성과 관련이 있다. 이 두 왕국이 이스라엘과 적이 될 경우 특히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 경우 그들은 영적 마음에 반기를 드는 자연적 마음의 의지와 이해성을 표현한다.

본문에는 솔로몬의 두 적들에 관한 기록이 있다. 하닷은 에돔의 왕족이었다. 그에 관한 특별한 기록을 읽어 보자. “다윗이 에돔을 쳐들어 갔을 때 군 사령관 요압을 시켜 전사자를 물어 주게 했는데,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전부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은 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육 개월간 에돔에 주둔하면서 모든 에돔 남자를 죽였었다. 그러나 하닷은 부왕을 섬기던 신하 몇 사람과 함께 에집트로 망명하였다. 그 때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 모든 남자가 살육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생존자가 있어 피신했다. 다윗의 살육 을 피한 이 고독한 어린 아이가 솔로몬 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있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등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르치는 영적 교훈은 글자적 역사로부터 발생할지 모를 자연적 생각과 동떨어져 있을런지 모른다. 이러하다. 악이 뿌리채 뽑혀질 때 조차 만일 그 씨가 남는다면 악은 반드시 이전의 힘을 지니고 튀어나오고 때로 이전 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닷이 에집트에 갔을 때 “에집트의 왕 파라오는 그에게 집을 주고 음식을 대어 주었다. 그리고 농토도 주었다. 파라오는 하닷이 마음에 들어 자기의 처, 다비니스 왕비의 동생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하닷이 에집트의 왕비의 동생과 결혼한 것은 솔로몬이 에집트 왕의 딸과 결혼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하닷은 솔로몬의 옆구리의

가시로서 세력을 키우게 되었다. 즉 자연적 의지가 영적 의지와 반대되어 있는데 각각은 어느 편도 좋아하고 지지할 수 있는 과학의 애정과 결합되어 있다. “하닷은 다윗 왕이 별세하고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에집트에서 듣고는 파라오 왕에게 조국으로 돌아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파라오는 선뜻 허락하지 않고 ‘무엇이 부족하여 나와 함께 있기를 마다하고 고국으로 가려느냐?’ 하고 물었다. 하닷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발 저를 보내 주십시오’ 하고 재차 간청하였다.” 하닷은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목적을 파라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옥좌를 다시 세울 요령이었다. 과거 다윗은 예돗 지역에서 공물을 바치도록 했고, 거기에 수비대를 배치해 놓았다. 따라서 하닷은 강력한 다윗 왕이 죽고 유명한 장군이 죽은 지금 이스라엘의 명예를 부수기를 바랬을 것이다. 하닷의 이 목적은 그의 생각대로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25장을 읽어보면 그는 솔로몬에게 골치 아픈 존재였음은 틀림없다.

솔로몬의 다른 적으로서는 르손이 있는데 그는 과거 다윗이 정복한 왕과 연관이 있었다. 하닷과 르손은 사무엘하 8장에 함께 기록되고 있다. 르손은 하닷과 달리 왕족은 아니었다. 그는 소바 왕 하다데젤의 심복이었는데 전쟁 중에 왕을 버리고 도망쳤고, 후에 사람들을 모아 두목이 된 다음 다마스쿠스의 왕이 되어 있었다. 다윗 시대 때에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을 도우러 왔으나 패배했는데, 그 때 다윗은 시리아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거기에 주둔군을 두어 다윗의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 다윗이 정복해서 주둔군을 배치했던 이 나라들이 또 다른 지도자 솔로몬 왕 시대 때에는 봉기하려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실 그들의 시도는 솔로몬 왕국을 뒤엎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 이상은 외부로부터의 사건들이나 내부에서도 또 다른 적이 봉기하고 있었다. 즉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영구히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공을 세운 격이 되었다. 이 대목에 관해서는 본 장에서 세세하게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본 장을 보면 왕국의 쪼개짐이 이스라엘 왕국 자체 내에 뿌리가 있고 도구 역시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솔로몬 왕국이 쪼개지는 결과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공격 때문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교훈적인 대목이 될 것 같다. 참으로 모든 시험은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악에 바탕을 둔다. 시험되기 전에 욕망이 있었기 마련이다. 즉 자신의 욕망과 유혹에 이끌려 질 때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를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악령은 내부에 있는 악과 연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참된 원리에 머무르겠다고 다짐한다면 시험은 오직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적이 우리 집 속에 있을 때 그 위험도는 한층 커진다. 시험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이 우리 심정의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 바램으로부터 일 때, 우리의 이해성과 취미가 같은 성질의 거짓으로부터 일 때, 비록 우리가 시험을 어느 정도까지는 눈치를 챌다 해도 악령은 우리의 친구가 된 채 우리 자신 속에서 파멸의 도구를 찾아내 지니고 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그가 지녔던 가장 큰 애로는 자기 백성들의 불만과 자기 자녀들 간의 싸움이었다. 주님께 앞서 출현한 선구자들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아버지의 심정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심정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 즉 내향의 하모니가 일을 창조하는 것, 개인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원리 차원에서, 평화의 왕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차원에서였다. 내부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력해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없고, 때로는 선을 증진하는 도구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악의 출현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 준다.

## 73

### 열왕기상 11장 42,43절

#### 솔로몬의 죽음과 매장

오랫동안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여겨 왔으나 솔로몬 시대 이후 또 다른 사람의 작품일 수 있다고 믿어지는 전도서에서, 슬기롭고 저명했던 왕, 솔로몬에게 꼭 맞아 떨어지는 교훈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이 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으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하듯, 한 두 개의 어리석은 행동이 지혜와 영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망하게 한다” (전도서 10:1). 어리석은 행위는 제아무리 지상적 조건이 특출할 때 조차에서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이라는 조건만 가지고도 설사 자신을 남 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을 때 조차에서도 실패의 예를 진열하는 경우가 많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한

예증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다. 유대인의 첫 대 사제 아론은 그의 의무가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인데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웠다. 모세는 므리바의 샘물에서 화를 참지 못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 가지 못했다. 신약 성서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정식으로 부정했다. 주님께서 가장 예뻐했다는 요한은 주님을 거절하는 이들을 살라 버리도록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오기를 원했다. 솔로몬의 실패는 비록 그의 과거 업적, 즉 주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의 경건함과 종교적 고백과는 불일치되었지만 그의 자연적인 차원의 부패된 과는 꼭 들어 맞고 있다. 규모에서 크든 작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이런 실패는 이런 위대한 진리, 즉 참 포도나무에 접목된 이들이라 해도, 그들이 새 생명을 받고 새 열매를 맺고 있다 해도 그의 낡은 본성, 부패된 이기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실패 없는 구세주의 자비의 권능에 의해서만 크나 큰 악과 깊은 지옥에 떨어짐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하고 거룩하신 그분께만 의지하려 노력할 것, 불순종하려드는 자신에 대한 심오한 부끄러움을 언제나 느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솔로몬의 죽음도 그의 일생의 한 부분인바 이를 주님과 기독교 제자와 관련하여 생각해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양 쪽에 관련해 볼 때 솔로몬의 결점은 실제적인 악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의 흠은 죄를 범하게 하는 시험을 표현한다. 만일 그의 흠이 실제적인 악, 즉 죄를 내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완전 인간의 모든 행동 전부가 다 포함될 수 있다. 그 이유가 어떤 인간도 죄짓지 않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표징적 의미에서 솔로몬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을 표현해야 한다거나 그분의 부활 등등 까지를 표현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표현적인 품성에서 죽음은 주님의 영화됨, 우리의 거듭남의 진보되는 일에 따른 어떤 변화인 바, 죽음은 완성을 향한 계속적인 등차를 수단으로 수행되는 것일 뿐이다. 어쨌든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 이유가 육체에 대한 죽음은 영혼에 대한 부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 보다는 그분의 승천을 표현하고 있다. 그분은 일어나시기 위해 죽으셨고, 승강하시기 위해 일어나셨다. 그분의 영화하심은 출생부터 천국에의 입장 까지 이르는 우리 거듭남의 모형이셨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죽음과 부활과 승강을 가지고 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영들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신약 성서에 있는 황천(HADES)은 일어난 영들이 영원한 세계에로의 첫 입장에서 그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거기서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되면 의로운 자는 천국에로 승강되어 주님과 영원히 있다. 영화하심이 요구된 예수는 인간 거듭남에 요구되는 모든

상태들을 통과하여야만 했다. 그분의 부활은 영들의 세계에서 일어났다. 사십 일 후 그분은 천국으로 승강하셨다. 참으로 그분은 몇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자연계의 눈과 귀로는 그분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들의 자연계의 감각은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감각으로 그분을 느꼈다. 이 감각들은 물질적인 몸이 한쪽으로 놓여질 때 과거 자연계의 감각이 자연계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듯 똑같이 과거 주님께서 언제나 말하시고 행동하셨던 것과 일치되는 가운데 상응되도록 제자들을 베다니에로 인도하셨다. 그 곳은 주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일으키신 곳이다. 이 기적은 주님의 교회를 새로이 일으키시는 것을 표현했다. 이 기적 주변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타는 천적, 영적 애정을 표현했고 라자로의 형제들은 죽은 상태에서부터 회복시키는 진리를 표현했다. 제자들이 그들의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승강을 바라 보았을 때 사실상 그들은 영계에 현존한 셈이었다. 지상과 천국 사이에 있는 중간 세계인 영계로부터 주님은 실제로 승강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승강하셨다는 말은 또한 땅 아래의 세계에 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로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모든 천국들 너머로 승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9,10). 이 사도는 처음으로 더 낮은 지상에 내려가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무엇을 뜻하고자 이 말을 했을까? 그분이 내려가셨다는 지상의 더 낮은 부분은 무엇인가? 혹자는 그 말이 우리가 거주하는 지상의 더 깊은 부분을 뜻한다고,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모든 천국 너머 뿐 아니라 지상의 깊은 부분 까지 글자대로 내려가셨음을 뜻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와같은 무의미한 것을 사도가 가르쳤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부활 후 주님께서 내려 가셨다는 지상의 더 낮은 부분은 영들의 세계에서 더 낮은 부분이고 이것이 더 낮은 땅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 곳은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까지, 그리고 그분이 구속과 인성의 영화하시는 일을 완성하시어 속박된 상태에 있는 것들을 해방시키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으로 모든 천국들 위로 승강하실 때 의로운 영들을 천국으로 데려간 곳, 또는 사람을 떠난 영들이 보존되어 왔던 곳이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이라 부른 더 낮은 땅, 그리고 그가 감옥 안에 보존된 이들을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 불렀는데, 그래서 아주 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켜 주목을 받았던 그의 말은 아래와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로 가서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 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 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 가서서 하느님의 오른 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당신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베드로전서 3:18-22). 위 구절은 주석자들에게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간 상태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에게는 어렵게 나타나야만 하는 구절이다. 주님의 새 교회의 교리 속의 진리에 대해서는 가치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대목이다.

주님께서 영적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모든 사람은 노아의 시대, 또는 고대 교회의 시작 이후 살아 왔던 이들의 특질 또는 영적 특성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거론해본 바 있다. 타락 후 죄인을 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기독교인의 신조이다. 그러나 살다가 죽은지 오래 오래 될 때 까지 결과되지 않았던 구속에 의해 어떻게 구원될까?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정의로운 자라고 간주할 수 있었을까? 믿음은 정의의 선구자였다. 욕을 입으시기 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욕을 입으신 후 그리스도의 정의에 의해 완전해졌다. 아무도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될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이 영화하실 때 까지 아무도 거듭날 수 없었다. 그분은 잠자던 이들의 첫 열매, 모든 창조물의 첫 출생,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었다. 성경의 선포가 포함한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진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저자이시다는 것, 그 이유는 그분이 인류가 타락하여 빠진 영적 죽음의 잠으로부터 영적 세계를 깨우는 시작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저 한 생명을 받도록 준비시켰다. 주 예수는 타락한 인간성이 다시 태어난 피조물의 첫 번째 되신 분이셨다. 이런 새로운 시작을 수단으로 인간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심이 있기 전 살았던 진실한 자들이 과거에 지은 그들의 죄의 용서를 구속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는지는 위 문단에서 이미 말했다. 주님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시고, 그분이 세상에서 수행하신 구속과 영화하심의 일로 해서 그분은 전에는 완전하게

결과할 수 없었던 거듭남의 일을 그들 안에서 완성하실 때 까지 그들은 중간 상태의 영역, 희망의 감옥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방을 기다렸던 노아의 시대로부터 살았던 이들은 영적 차원이었다. 주님의 강림 때에 영들의 세계에서 거행된 심판은 고대 교회, 또는 고대 교회 처방의 때로부터 살았던 이들에게 있어졌다. 비록 히브리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서로간에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들은 고대 교회의 연장에 불과했고 그들 안에는 고대 교회로부터 파생한 것 외에는 영적 생명력은 없었다. 그들은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때가 찰 때까지 영적 교회의 존재가 연장되기 위해 존재했을 뿐이다.

솔로몬의 통치가 주님의 영화하시는 과정, 즉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선으로 만드시는데 있어진 과정을 더 특유하게 표현했는 한편, 그분의 부활과 승천하심 사이에서 거행된 영계에서의 주님의 일을 표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새 교회의 저술을 제외하면 두 큰 사건 즉 부활 후 승천까지의 40일 동안 주님이 어디에 계셨으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한 만족할만한 견해를 접하지 못한다. 구속자가 영계에서 위대한 일을 수행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비추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더구나 노아 시대 이래 자라난 밀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추수에 관한 생각은 더더욱 없는 듯 하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사람과 분리되어야 하듯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여행하여 요르단을 통과해 가나안에 진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선한 자들은 지상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완성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즉 시편 기자의 이런 예언적인 말들이 그들 안에서 완성됨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느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다” (시편 68:18).

솔로몬의 죽음은 다윗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을 표현하는데 비해 주님의 승천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역사 자체로부터 더 드러나진다. 다윗 처럼 솔로몬도 40년간 다스렸다. 두 왕이 주님을 예징하는바, 그들의 40년 통치는 주님이 광야에 계셨을 때의 40일, 부활과 승천 사이에 놓인 40일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주님이 광야에 계셨던 때의 40일은 세상에서의 그분의 시험의 기간을 표현했다. 그 이유가 광야는 시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40은 그것이 40일 이든 40년 이든 시험의 기간을 표현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40일도 시험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주님의 시험이 아니고 영들의 세계에서 구속됨의 시험이었다.

“솔로몬은 사십 년 간의 통치를 마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런 아름다운 문구는 구,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육적 수준에서만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하지만, 기독인에게는 아름다운 영적 진리를 표현해주고 있다. 기독인은 이 문구를 읽을 때 죽음을 생명의 문으로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죽음은 당사자를 자연적 친족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실한 자들의 집단에도 소개하게 된다. 영적 의미에서의 죽음과 매장은 저 세계에서 단순한 부활, 즉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활만을 뜻하는게 아니라, 영적 생명의 새로운 상태, 즉 영적인 사랑과 믿음의 상태로 부활함을 뜻한다. 이 부활은 신실한 자들에게는 특별하다. 이것은 죄라는 죽음으로부터 정의라는 생명으로 부활함을 말한다. 사악한 자의 경우 그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매장이 거절되기도 한다. 그리고 죽음과 무덤 자체는 인간 존재의 완전한 끝을 함축하는 것처럼 자주 말해져 왔다. 그러나 본문의 구절 같이 죽은 자가 조상에 돌아가 합류되었다고 말해질 경우 거듭남이 달성하는 특별한 상태가 그 구절에 함축되어 있다. 그 이유가 아버지라는 단어는 선함의 원리를 표현하고, 아들은 진리의 원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존재 자신에 관련해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신성한 선함과 진리밖에 더 의미되는게 없다. 주님께서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 간다고 선포하셨을 때 이는 신성한 진리로서의 그분이 신성한 선함으로부터 왔다는 것, 또는 신성한 지혜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거듭남과 영화하심의 일이 결과된 후 그분은 신성한 선함 또는 진리로 돌아가셨다. 즉 그분은 세상에 계셨기 전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되돌아 가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이 육이 되고 영화하신 것으로 되돌아 가셨다. 가장 높은 표징적 의미에서 본문은 주님의 영화하신 인성에서 아버지에게 되돌아 가셨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되돌아 감은 세상에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신 후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선으로 만드시어 아주 친밀한 하나됨을 표현한 것이다.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선으로 만드심은 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로운 자의 영들과 더불어 40일간 현존하심과 연결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기독인과 관련하여 이 언어는 상응하는 일의 표현인 것이다. 거듭나는 자는 그들이 진리의 상태에서부터 선함의 상태로 건너 갈 때, 또는 지혜의 상태에서부터 사랑의 상태로, 또는 믿음의 상태에서부터 이타애의 상태로 건너 갈 때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 가는 셈이다. 이와 같은 상태의 변화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돌아 가신다는 표현의 형상밖에 더아니다. 그이유가 신실한 자들이 달성할 수 있는 생명의 상태는 주님께서 그분 스스로 결과하셨던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 역시 살아 있는 것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인성을 지상적 상태에서부터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상적 상태에서부터 들어 올려지길 바라는 모든 사람을 그분에게로 끌어 올려 주실 수 있다. 그분께서 그분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께로 승강할 수 있다. 그분께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사랑 자체가 되셨는바 우리도 사랑의 상태로 올려질 수 있다.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을 뿐 아니라 “그의 선왕 다윗의 성에 안장되었다.” 다윗은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을 표현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경우 그는 아버지로서 말해지고 있다. “선왕 다윗”, 즉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신성한 선으로부터 파생된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거듭나는 자와 더불어 진리는 두 가지 다른 상태에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 거듭나는 자는 거듭남의 두 일반적 단계에서 소유하게되는 두 종류의 진리가 있다. 선함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있고, 선함으로부터 파생되는 진리가 있다. 거듭나는 삶의 첫 일반적 단계에서 기독교인은 선함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이 지식을 수단으로 그는 선함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그의 첫 번째 진리는 진리 안에 선함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다. 그의 첫 믿음은 그 안에 사랑을 가진게 아니다. 그이유는 그가 아직은 선함과 사랑을 쟁취하려고 애쓰는 단계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함과 사랑의 수준에 도달될 때 그의 진리와 믿음의 특성은 바뀐다. 그의 진리는 선함과 하나되고, 그의 믿음은 사랑과 하나된다. 이로부터 그의 진리는 더 이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려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고 진리를 수단으로 선의 목적을 작업해갈 뿐이다. 믿음 역시 사랑을 쟁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을 수단으로 믿음이, 믿음을 수단으로 사랑이 사랑의 목적을 작업해 간다. 이와 같은 것이 거듭난 자의 진리요 믿음인바, 이는 거듭나고 있는 사랑의 것들과는 아주 다르다. 이런 새로운 상태의 생명으로의 진입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안장되었음에서 영적으로 의미되고 있다. 이 도성은 시온이었다. 도성으로서의 시온은 최고로 높은 진리, 즉 선함에 바탕을 둔 진리,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선함을 표현하고 있다. “선왕 다윗의 성”이란 신성한 선 자체의 신성한 진리로부터 파생된 주님의 교회의 진리이다. 거듭나는 자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위대한 왕의 죽음과 매장은 영혼이 천국적 사랑과 진리의 생명으로 새로이 출생함을 표징적으로 의미심장하게 지적해 놓고 있다. 이는 숭고한 일을 완성하는 것, 이는 주님의 신성한 일의 시작과 끝인 것, 인간 영혼의 거듭남과 구원의 시작과 끝이다.

## 열왕기상 11장 29-35절

### 예견된 열 지파의 반역

우리의 작업은 솔로몬 통치의 끝과 함께 마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첫 세 왕의 표징적 역사의 완성된 관점에 필요한 설명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첫 세 왕의 통치가 표현했던 주님의 위대한 일은 그분의 부활, 또는 그분의 승천에서 조차 완성되지 않았고, 성령 강림절에 사도들에게 그분의 영을 쏟아 부으시는 가운데 완성되고 있다. 이리하여 그분의 신성한 일의 회전은 완성되었다. 즉 그분의 영의 확산과 더불어 완성된 것이다. 예수께서 지금 완전히 영화하셨기 때문에 충만함가운데 그분의 영의 유포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수단으로 사도들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수여 되었고, 주님의 교회는 지상에서 실제적으로 개시되었다. 세 왕의 통치가 솔로몬에서 끝난게 아니라 두 왕국으로 지파가 갈라지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발표하셨던 일이다.

지파가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 것, 비록 이것이 솔로몬의 죄와 르호보암의 우둔함에서 직접 비롯되었다 해도 이는 이전에 하나로 존재했던 주님의 천국이 두 왕국으로 분리되는 사건을 표징하였다. 만일 인간과 지상적 예징(type)과 신성과 천국적 대형(antitype) 사이의 다름이 아니라면 위의 사건 역시 불일치가 있는 듯 여겨질 것이다. 솔로몬의 죄의 결과인 국가적 재난은 주님의 정의의 결과인 천국적 이익이다. 그럼에도 이런 불균형은 켄치레일 뿐이다. 이 사건이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직능 측면이라는 일반적 진리 외에도 사제와 예언자 그리고 왕은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표현한다는 특별한 진리도 있다. 그들은 주님 자신의 참된 예징이었다. 아론이 제단에서 의식을 집전했을 때, 그는 주님을 표현했다.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는 그분의 백성을 표현하였다. 호세아가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질책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위협했을 때 그는 주님을 표현했고, 그가 창녀인 아내를 데리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주님의 교회를 표현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과 맞섰을 때 그는 주님을 표현했고, 그가 백성의 수를 세었을 때 그는 주님의 교회를 표현했다. 주님이 그분을 표현한 사제나 예언자 또는 왕들과 다른 점은 그분께는 악이 없다는 것, 그분의 입에서는 어떤 간교함도 없으셨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주님이 그분의 교회를 표현하실 수 없었다. 비록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백성을 표현하지 않았다

해도 그분이 고통받으신 모든 것에서는 그분의 교회를 표현하실 수 있었다. 어떤 예언자가 그들 사이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상태를 백성의 상태에 대한 표시로 단순히 상징적 행동을 하도록 명령받았듯이 주님께서도 그분이 행하셨고 고통받으셨던 것들의 일부에서는 그 당시 형성되어져 온 주님의 교회의 상태를 백성에게 표시로서 보여 주셨다. 주님은 말씀이셨다. 유대인이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저지른 모든 것, 즉 그분께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고통받은 모든 것은 유대적인 주님의 교회가 말씀에 저지른 것을 표현했다. 그분의 고통들은 주님의 교회의 상태에 대한 표시였다.

열 지파의 반역,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두 왕국으로 영구히 갈라짐에 있는 예징과 대형 사이의 불균형은 꺾의 차원일 뿐이다. 하나의 천국이 두 개의 구분되는 천국으로 나뉘는 비록 신성한 배열, 그리고 구속과 영화하심이라는 주님의 일의 결과일지라도 아직은 그 자체 불완전함이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의 변경된 조건의 결과는 신성한 선함과 지혜에 의해 또 다른 타락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방할 목적으로 생산되어 졌다.

인간의 마음은 두 개의 큰 능력(faculty)으로 구성된다. 이는 인간 본성에 필수인 의지와 이해성이다. 이 능력 덕택에 인간은 자유와 합리성을 소유하고 있다. 이를 수단으로 인간은 본능과 욕구로부터 행동하는 창조된 모든 동물과 구별된다. 이 능력 덕택에 인간은 창조를 수단으로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가 하느님은 신성한 의지와 이해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 안의 이 능력들은 능력이 아닌 힘(power)이다. 하느님 안에서 의지는 무한한 사랑이고, 이해성은 무한한 지혜이다. 인간 안에서 의지는 그분의 사랑의 유한한 분량을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창조된 유한한 수용 능력이고, 이해성은 하느님으로부터 유한한 분량의 그분의 지혜를 받는 수용 능력이다. 이리하여 인간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사랑하는 능력을, 그분의 지혜로부터 슬기롭게 추론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지닌다.

그러나 인간은 의지와 이해성을 소유한 덕택에 하느님의 형상만을 지닌게 아니라 의지와 이해성이 하나됨으로 분리 안된 한 마음을 형성하고 있다. 하느님은 그분의 신성한 의지와 이해성, 또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느님이신게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이해성, 또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완전하게 하나되어 언제나 행동되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지혜 속에 있고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사랑 속에 있다. 따라서 그분의 사랑은 지혜의 사랑이고 그분의 지혜는 사랑의 지혜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지혜롭게 행동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지혜는 사랑스러움 외 달리는 행동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랑은

신성한 속성에서 실재(Esse)이고 지혜는 실체(Existere)이다.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랑은 지혜의 부모이고 지혜는 사랑의 산물이다. 그래서 사랑은 지혜 안에 있고 지혜는 사랑 안에 있다. 사랑은 영원하신 아버지, 지혜는 영원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의인화(personified)하여 표현해 놓은 것을 희미한 수준이요 물질주의적에 가까운 신학들이 아예 어떤 한 인물(person)로서 바꾸어 놓았다. 이리하여 그들의 신조 안에서 아버지라는 인물, 아들이라는 또 다른 인물, 성령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라 하면서 한편으로 세 인물이 한 분 하느님이라고 말한다. 각각의 세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란 말인가!

하느님의 창조된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의 의지와 이해성이 하나로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의 본성에서 그의 의지는 실재(esse)이고 그의 이해성은 실체(existere)이다. 또는 그의 뜻함은 생각함의 부모이고 생각함은 뜻함의 산물이다. 인간은 뜻함 없이 생각함이 있을 수 없고 그가 생각함도 없이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다. 그가 정직한 상태에 있는한, 또는 그가 본시 창조된 질서의 상태에 있는한 그의 마음은 하모니의 상태에서 하느님의 마음과 화합되어 행동한다. 그가 선한 것을 계속 뜻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는 참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의지 안의 선한 애정은 동시에 이해성에서 참된 생각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요 조건이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하느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것이다. 그의 생명나무로서 하느님을 사랑함이 들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들, 땅 위 기는 것들이라는 보다 낮은 애정과 욕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나무 외에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도 자랐다. 반대편에 있는 것의 잠재적 존재는 인간의 실제적 존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영적인 것과 불멸의 영혼, 물질적인 것과 멸해질 육체는 한 존재 안에서 서로 반대편에 있다. 하느님과 자아, 천국과 세상, 물질과 영, 감각과 이성, 필멸과 불멸은 생각하고 지각력 있는 인간에 관련해서이지 창조자 하느님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 이러한 정반대되는 것들이 생명의 나무와 선,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이다. 창조된 사람은 지각하는 능력과 선택하는 능력을 가졌다. 합리성은 지각하는 능력이고, 자유는 선택하는 힘이다. 인간은 그의 첫 창조 상태로부터, 자신의 최선의 상태에서 자아를 사랑함과 하느님을 사랑함, 세상을 사랑함과 천국을 사랑함, 육체를 사랑함과 영혼을 사랑함, 필멸을 사랑함과 불멸을 사랑함은 자신의 목적 차원에서 서로 반대편에 서있으나 인간은 반드시 그들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슬기로운 선택은 그에게 만족과 기쁨의 폭넓은 범위를 주고 있다. 그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지식의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되고 만져도 안된다. 그 이유는 “먹을 경우 그는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된 이득과 선함의 기쁨, 그리고 신성한 명령을 위반함에 대한 경고 등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는 하느님의 의지를 압도하고 있다. 인간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위협된 죽음이 그 위반자에 드리우고 그로부터 모든 사람에게도 드리우고 있다. 성경은 표현적인 상응에 의거 어떻게 이것이 거행되었나를 밝히 알게 하고 있다. 인간이 지닌 감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동물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을 압도 한다. 뱀의 독이 피 안으로 들어 갔고, 이것이 육의 생명 또는 혼이다. 따라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머리를 짓부술 때까지 어떤 치료약도 죄가 가지고 오는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타락이 결과되어진 모양새와 그 조건이 표현한 관점은 일치되고 있는바 우리는 인간 본성의 조직, 즉 근원적으로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왔고,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형성된 인간 본성의 구조를 말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인간이 창조된 질서의 상태 안에서 의지는 마음의 최고 기능이었고 이해성은 의지의 영향 아래 동시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므로 악이 소개됨에서 의지가 먼저 피어졌고, 이해성은 설득 당하는 영향력에 노출된 셈이었다. 뱀이 이브를 피었고 이브는 아담을 설득했다. 유혹의 첫 순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는데, 유혹자는 만일 자기가 여자를 수중에 넣으면 남자도 당연히 손에 넣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해성과 의지를 표현하고 상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자는 여자보다 더 지성적이고,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애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계시의 거룩한 상징성을 수단으로 우리는 인간 본성의 근원적인 조건에 일치하는 가운데 어떻게 인류가 생명과 빛의 길로부터 어둠과 죽음의 길로 근원적으로 피어졌는지를 교훈받게 된다.

이제 인류는 자기 조절의 힘이 없는 채로 악의 진로에 들어 서 있다. 이해성이 의지에 종속하는바, 인간은 의지의 상태를 되짚어 볼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의지의 품성을 식별해보는 지식도 없다. 따라서 의지의 상태를 판단할 수도 없고, 의지의 조건을 교정할 수도 없다. 의지가 선함을 사랑하고 이해성이 진리의 벼으로 있었을 때 같이 지금 의지는 악을 사랑하고 이해성은 잘못된 어둠에 있다. 소원함은 진실로 생각의 아버지이다. 애당초 인간은 느꼈던 대로 생각했고 기울어지는 쪽을 믿었다. 인간은자기 의지에 반대되는 쪽으로 확신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해성은 의지를 반영했을 뿐인바 의지의 형상 외에는 더 다른 것은 없었다.

인류가 위의 조건을 계속 견지했다면 인류는 필시 멀해질 때까지 아래쪽만을 치달으면서도

점검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처음 건설된 주님의 교회의 처방 시대 동안 계속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담이라 부른 원시적 특성으로부터, 즉 첫 교회, 또는 태고 교회 동안은 어떤 구조적 변화가 결과될 수 없었다.

인류의 구원, 보존의 가능성을 만들도록 요구된 변화는 첫 처방이 끝에 다다랐을 때 급기야 또다른 처방이 그 뒤를 이어야만 할 때 결과되었다. 첫 처방의 끝장이 홍수로 묘사되었고, 아껴둔 것들의 보존, 이로부터 새로운 처방이 개시되었는데 이것이 방주를 수단으로 구원된 노아의 가족으로 묘사되었다. 홍수나 방주는 글자대로 납득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와같은 홍수는 발생되지 않았고, 이와같은 방주도 건축되어 물 위를 떠다니지 않았고, 방주가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의 보존도 가능치 않았다. 무지의 시대에서는 성서의 창조나 홍수 같은 것들에 관한 대화체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수단으로 지극히 단순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신성하게 영감된 말씀은 모든 시대를 위해 존재하는바 단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준에서, 슬기로운 자에게는 지혜로운 수준에서 이해되어진다. 과학적, 세상적 지혜만이 신성한 지식에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불칼을 지닌 거룩이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들에 맞서 생명 나무로의 길을 지키고 있다. 신성한 지식에의 문은 겸허한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 가운데서 입장을 허락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들에게만 열려진다. 특히 이들은 글자 속을 관통하고, 소생된 그의 영은 주님의 모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거룩한 기록의 영 안에서 이 기록은 마치 온 땅을 집어 삼켜 인간과 동물적 생명의 흔적 까지도 싹 쓸어간 대 홍수가 있었던 듯 여겨진다. 그러나 이 역사는 물의 홍수가 아닌 주님의 교회에 확 퍼져 나가 영적 생명의 호흡을 막히게 하고, 자비로운 섭리가 이런 일반적인 파괴로부터 아껴두신 것을 제외하고는 다 질식시킨 거짓의 홍수였다. 그러나 아껴둔 이 사람도 사실 멸해진 사람들과 같은 근원적인 조건, 즉 이해성이 의지의 영향 하에 완전하게 있었고, 의지는 이해성까지 부패시킬 정도로 심하게 타락되었고, 이해성은 의지가 기우는 쪽으로만 찬성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나은 상태로 회복이 가능했을까? 인류의 개혁을 설비하는 유일한 길, 그들이 새로운 처방 아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심정 상태를 아는 힘, 심정의 상태를 교정하고 개선해 갈 목적으로 지식을 고용하는 힘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적으로 이해성을 의지로부

터 분리시키셨다. 의지의 지배를 받는 조건에서 이해성을 이탈시킴으로 이해성에게 의지의 상태를 꼼꼼히 되짚어 볼 수 있고, 찬찬히 들여다 보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판결할 수 있어 의지의 상태를 교훈하고 계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 기능의 열림이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기 위해, 마른 땅이 들어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간의 생각을 상징하는 날개 달린 특사를 내보내고져 방주의 창문을 여는 것에서 의미되고 있다. 올리브 가지를 물고 온 비둘기는 사고의 날개를 펴서 마음의 상태와 조건을 탐사하는 새로운 지적인 힘의 실시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해성이 의지에 복종하는 대신 마치 의지가 이해성에 종속되었는 듯 보여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비둘기가 곤경의 홍수 위를 날고 있는 모습 같이 이해성은 의지 위로 들어 올려지고, 인간 마음에, 인류에게 평화를 들려주고, 희망을 불어 넣는 올리브 가지를 꺾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마음의 두 기능(능력), 의지와 이해성은 인간 마음의 두 왕국이라 불리운다. 선은 의지를 규율하는 힘이고, 진리는 이해성을 규율하는 힘이다. 근원적으로 이 두 기능은 하나로 함께 행동되었는바, 한 왕국밖에 더 아니었다. 이 두 기능은 다윗과 솔로몬 아래 하나된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같았다. 이 기능들의 분리는 마음의 두 왕국으로 분리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솔로몬의 아들의 통치 아래 있는 유다 왕국과 열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두 왕국으로 표현되고 있다.

인간 마음의 두 기능들이 근원적으로 하나된 조건은 천사들의 천국의 근원적인 구성의 원인이 되어 있다. 즉 주님이 육 안에 오시기 전, 천사들의 천국은 한 왕국만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의지와 이해성 사이의 분리가 만들어짐은 육을 입으신 때에 두 왕국으로 천국이 나누어짐의 원인을 생산했다. 이것이 열 지파의 반역에 의해 표현된 큰 사건이다. 이로부터 영구적인 존재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두 분리된 왕국으로 전진하고 있다. 마음의 본질되는 두 기능의 분리는 본 장의 역사적 사건의 유추에서 명확히 보여진다. 지파들에 관련해서 악은 반역과 분리의 원인이었다. 유다 지파가 열 지파로부터 반역한게 아니라 열 지파가 유다 지파로부터 떨어져 나가 왕국을 세운 것이다. 인간 마음 안에서도 이와 똑같다. 악은 분리의 원인이다. 의지가 이해성에 반역하는게 아니다. 이해성이 의지로부터 떨어져 나가 새로운 왕국이 되고, 독립된 힘을 발휘한다. 이 유추는 천국에 관련해서도 완전히 같은데 이에 관한 설명은 다른 장에서 있어진다.

## 열왕기상 12장

## 유다와 이스라엘의 두 왕국

하느님께서 휘저어 솔로몬 왕에 맞서게 손을 들어준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분리가 표현한 영적인 분리의 기초가 놓인 원리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바 그의 역사를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11장으로 되돌아 가본다.

여로보암에 관해 우리가 배운 첫 사실은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이다. 요셉의 둘째 아들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므나쎄 지파가 마음의 자발적 부분을 표현한데 비해 지적 부분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요셉의 두 아들은 두 왕국으로 결국 나뉘는 유다와 열 지파 사이에 있는 특징적 차이점과 함께 이스라엘 온 가문으로 표현되는 것의 축소판(epitome)이었다. 에브라임이 마음의 지적 기능을 표현했듯, 그는 또한 과정의 문제로서 영적 원리 자체를 표현했다. 여로보암의 아버지 쪽의 이름도 이에 부합되고 있다. 느밧이 뜻하는 것은 찾는 것, 관심인데 이것은 지적 시야를 표현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그녀의 이름은 스루아였다. 과부란 선함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바라는 자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과부된 어머니는 나병 환자(Leper)라는 이름도 달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가 표현한 선함은 악과 혼합된 것, 어느 정도 까지 모독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 참으로 이런 것들은 고대 교회, 또는 영적 교회를 구성한 이들의 지성의 뿌리였고 이는 영적 천국 자체의 뿌리도 되고 있다. 영적 차원과 더불어 근원적인 의지는 부패되고 이것은 결코 갱생되지 않는다. 마치 하느님의 모양에 따른 천적 차원이 잃어진 것과 같다. 영적 차원과 함께 새로운 의지는 마음의 지적 부분에서 형성되어진다. 진리를 수단으로 형성되는바, 이 의지는 선함으로부터의 의지라기 보다는 진리로부터의 의지이다. 다시 태어난 이들과 함께 있는 이 새로운 의지는 옛 의지를 종속시키고 마음의 실제적 힘을 잡고 근원적 기능을 경질시킨다. 그럼에도 옛 의지는 완전하게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부패된 의지를 느낀다. 때로 이 부패된 의지는 하느님의 자녀 조차도 통곡의 원인이 될 경우도 있다. 이 나병적인 의지는 바울로 하여금 그가 선을 행할 때 악이 자기와 함께 현존했음을 선포하게 했다. 그래서 그는 영의 쓰라림에서 이렇게 외친다. “누가 이 사망의 육체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종속되지 않는 힘, 종속될 수 없는 육적인 마음이다. 비록 이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과 함께 회복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 해도 종속될 수 있다. 이 사실의 모두에서 똑같은 사도가 실험적인 증거를 낳고 있다. 다투는 두 법칙에 관해 말한 후 이렇게 소리친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로마서 7:24,25).

여로보암은 힘센 용사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짓고 다윗의 성을 보수할 때 그는 왕의 마음에 들어 요셉 지파의 부역 총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밀로궁은 시온산의 요새였다. 그 성은 애당초 다윗이 지었다 (사무엘하 5:9). 요셉 가문의 임무는 “왕 솔로몬이 자신이 산 집, 그리고 밀로궁, 주님의 전, 예루살렘의 성곽을 보수하기 위한” 것임은 의심할바 없다 (9:15). 다윗성의 터진 곳을 수리하게된 여로보암은 결코 수리될 수 없는 다윗의 왕국의 깨어짐에 도구가 되었다. 어쨌든 솔로몬, 여로보암, 요셉 가문 모두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한 가지 불필요하고 일치 안되는 것은 왕국이 둘로 깨지는 것일게다. 그러나 솔로몬과 그의 신하는 이 쪼개짐을 위해 제각기 다른 길에서 준비하고 있던 참이다.

솔로몬 왕에 맞서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 준 원인은 비록 그로하여금 솔로몬 생전에는 적대적 행동을 금했다 해도 포부의 동기는 가슴에 담고 있었을 것이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말쑥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서 단 들이 있게 되자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열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열 조각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들어라. 내가 솔로몬의 손 안에 있는 이 나라를 찢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리라.’” 이 표시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국에 관련된 것임은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인 왕국이 나뉘에 관련되어 지니는 이 구절의 상징성은 쉽게 파악되지 않을 것이다. 겹옷은 진리의 상징물이다. 그 이유가 겹옷이 몸을 감싸듯 선을 감싸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아론의 겹옷을 준비하는데 아주 세세한 지침이 내려졌기도 하다. 아론의 겹옷은 주님의 영적 왕국을 표현했다. 이 표징성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빛을 겹옷같이 두르셨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가 그분이 입으신 겹옷은 그분의 신성과 선함을 덮고 있는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뉠 수 있거나 여러 조각으로 찢어질 수 있는게 진리이다. 선함은 하나이나 진리는 선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해진다. 설사 진리가 나뉘지 않는다 해도 수정, 변경, 가감되면서 선과 연결된다. 제아무리 인간에 의해 다양한 진리들이 받아들여져도 모든 이가 선함에 의해 작동된다면 모든 이는 하나이다. 비록 교회가 교리 측면에서 다양해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선함과 사랑 측면에서는 하나일는지 모른다. 천적 천국과 영적 천국이 진리 측면에서는 구분되지만 사랑 측면에서는 합일되어 있다. 주님의 교회는 진리와 교리 측면에서는 나뉘어 있지만, 영 안에서는 하나일는지 모른다. 비록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졌지만 서로는 평화로이 살 수 있는 것과 같다. 천국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타애를 수단으로 하나되어 있다.

첫 주님의 교회의 끝과 두 번째 주님의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의지와 이해성이라는 인간의 두 기능 사이에 결과된 분리는 천국이 구분되는 두 왕국으로 나뉘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천국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상태와 형체로부터 천국 자체의 형태와 상태를 갖는다. 거듭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천국이다. 천국은 가장 큰 거듭난 사람이다. 의지와 이해성의 기능들이 한 인물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하나되어 있다면 큰 사람 안에서의 그들의 표징성도 분리된 존재로 있을 수 없다. 인간 마음이 하나로만 있다면 거듭난 인간 마음으로 구성되는 천국도 하나이다. 인간 마음이 나뉘게 되자 천국 역시 그에 상응되는 나뉘어 실행되었다. 두 왕국으로 천국의 나뉘어 욱을 입으시는 때까지 거행될 수 없었다. 고대 교회가 영계에서 마지막 심판에 의해 완전한 끝을 맞이할 때 까지 천국은 나뉘어 있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 언급하신 대목이 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있다. 지금 이 세상의 왕들이 내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말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 같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탄은 영계에서 출몰하고 천국에 반대하는 저 세계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그들은 천국에 승강되기 앞서 준비를 위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중간 상태에서 주님이 일어나시고 높은 곳에 승강하실 때 까지 보존되고 있었다. 사탄이 떨어졌다는 천국은 가상의 천국, 즉 지상의 주님의 교회에 있던 불성실한 자와 거짓된 자들이 영계에서 자신들을 위해 형성된 천국이고 이 안으로 욱을 떠난 모든 영들이 처음 입장한다. 홍수 시대로부터, 그리고 노아 시대 또는 고대 교회가 개시된 때로부터 중간 상태에 보존된 신실한 자들이 영적 천국 또는 두 번째 천국 즉 영적 왕국이라 말할 수 있는 천국을 이루었다.

그러나 두 번째 천국 즉 영적 왕국은 영들의 세계에서 보존되었던 이들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천적인 주님의 교회였던 태고 교회에 속했던 이들로 형성된 천국, 근원적으로는

이 천국 만이 천국을 구성했었는데, 아직도 천적 왕국을 구성하며 영적 왕국과 구분되어 있다.

비록 근원적으로 한 천국, 한 왕국밖에 없는게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지금 보편적 천국을 구성하는 두 왕국과 세 천국에 관한 모든 필수 요소를 가졌다. 큰 사람(The Grand Man)은 위와 같은 점에서 하나의 개인적인 사람이다. 그의 첫 창조로부터 인간은 정신적으로 의지와 이해성 그리고 행동으로 구성되었다. 홍수 때에 인간 마음의 조건에 있어진 변화를 수단으로 마음에 더해지거나 빠져 나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똑같은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달라진 것은 세 기능 서로에 관계된 형편이 달라진 것이다. 그들은 분리된 개별성을 획득했다. 이는 독립된 존재는 아니고 분리된 존재일 뿐이다. 마음은 이중적인 의식 세계 같은 것을 획득했다. 즉 생각함과 뜻함이 따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큰 사람 역시 근원적으로 보면 의지, 이해성, 행동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것들은 세 천국과 두 왕국의 요소들이다. 천적 천국은 큰 사람의 의지에, 영적 천국은 이해성에, 가장 바깥 천국은 행동에 속해 있다. 근원적으로 모든 이것들은 하나로 합일되어 있다. 마치 이것들은 한 개인의 행동이, 구분된 의식이 없고, 구분된 행동도 없는 듯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천국이 두 왕국을 형성했을 때 이 천국은 고대 교회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했던 이들로 이루어진 두 번째 천국으로부터 형성된게 아니라 아담적 교회 시대 동안 이 세상에 살았던 이들로부터 형성된 천적 천국 자체가 나뉘므로 형성되었다. 천적 천국은 내적, 외적 측면이 필수적으로 있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실 때 그것이 상태의 변화와 조건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영화하심으로 그분의 인성을 천상 천하에 있는 모든 질서의 큰 원형(Archetype)으로 만드셨는데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 본성 안에서 만드신 것에 상응되도록 천국 안에서도 유기적인 변화를 만드셨다. 주님의 인성은 신성한 천적, 신성한 영적, 신성한 자연적 등차에 계신다. 그분 안의 이것들은 세 천국들, 즉 천적, 영적, 자연적 천국의 원형이다. 그러면서 이 세 천국들은 두 왕국을 구성하고 있다. 천적, 영적 천국들이 두 왕국을 형성한다. 그이유가 가장 낮은 천국, 즉 자연적 천국은 그 자체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지 않으나 천적, 영적 왕국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바깥 천국은 두 종류의 천사들, 즉 천적-자연적, 영적-자연적 천사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천적-자연적 천사들은 천적 천국의 바깥들, 영적-자연적 천사들은 영적 천국의 바깥을 형성하고 있다.

이미 말한바 같이 천국은 하나의 천국,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되 그 안에 세 천국들의

요소가, 한 왕국 안에는 두 왕국의 요소가 들어 있다. 천적 왕국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영적 왕국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데 영들의 세계에 있는 이들 안에서 뿐 아니라 천국 안에 있는 이들의 부분 안에서도 그렇게 존재한다. 각 천국들 안에 있는 것 같이 한 천국도 내적, 외적 측면으로 구성되고 있다. 내적 측면은 천적인 것, 외적 측면은 영적인 것이다. 내적 측면은 주님을 사랑함이고 외적 측면은 이웃을 사랑함이다. 주님을 사랑함은 천적인 원리이고 이웃을 사랑함은 영적인 원리이다. 주님이 영화하신 결과로 거행된 천국들의 배열에서 천적 천국의 외적 측면은 퇴조해져 결국 영적 천국의 핵심이 되었다. 여기에 영들의 세계로부터 승강된 이들이 추가되었다. 이 모두가 함께 두 번째 천국과 영적 왕국을 형성했다. 그러므로 천적 천국의 외곽을 형성했던 이들이 지금은 영적 천국의 내부가 되었다. 그 이유가 천적 천국의 바깥에 해당되는 이웃을 사랑함이 영적 천국에서는 안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천국이 서로 구분되고, 두 왕국을 이루고 형성하면서도 그들은 이웃 사랑을 수단으로 합일되어 있다. 어쨌든 이들 안에 두 왕국이 존재하듯 이웃다운 사랑의 특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비록 이것과 저것이 동질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똑같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천적 천국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은 상호 간의 사랑이고 영적 천국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은 이타애이다. 상호 간의 사랑은 마치 형제 자매 사이에 있는 사랑 같고, 이타애는 친구나 연고자들 사이에 있는 사랑과 비슷하다. 즉 혈족과 동족 사이의 차이점 같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애정들은 비록 서로는 차이가 있다 해도 서로서로에 부응되고, 두 천국과 왕국을 함께 연합하는 수단이다. 천국이 두 왕국으로 구분됨, 그들 사이에 있어 연결해주는 고리는 과거 천국 자체를 표현한 가나안으로 진입한 후의 열두 지파의 나뉘에서 표현되고 예증될는지 모른다. 아홉 지파는 가나안 땅에 그들의 상속분을 할당 받았고 두 지파는 요르단 강 저쪽 길르앗 지방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의 경우, 그들 중 반 지파는 가나안에, 또 반 지파는 길르앗에 정착했다. 이 지파는 므나쎄 지파였는데, 그 지파는 천국에 있는 두 왕국이 연합되고 함께하는 수단이 되는 원리를 표현했다.

한 천국이 두 왕국으로 나뉘는 즈가리야의 예언, 즉 주님의 오심과 구속과 심판이라는 그분의 일에 관련되는 예언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그 때 야훼께서 싸움이 터질 때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셨듯이 출동하시리라. 그 날, 그가 예루살렘을 동편에서 마주 보고 있는 올리브 산에 우뚝 서시면, 올리브 산이 갈라져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물러나 큰 골짜기가 동서로 뻗을 것이다” (14:3,4). 그리고 더 이어지는 예언이다.

“빛이 청명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을 것이다. 밤도 낮도 아닌 야훼 홀로 오시는 그 날 저녁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물이 터져 나와 반은 이전의 바다로, 반은 뒤쪽의 바다로, 여름과 겨울에 흘러 가리라. 야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그 날에 온 세상에는 한 분 주님만 계시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일 것이다”(14:6-9). 이 문단에서 저녁 때란 심판이 거행되는 주님의 교회의 마지막 때이다. 그 이유가 그 때에는 악한 자에게는 저녁 때이지만 선한 자에게는 빛이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이 구절의 세부 사항들에 포함되어 의미되는 영적 의미로부터 나타난다. 여러 나라에 맞서 싸우러 앞장 서서어 나가시는 여호와와는 악한 자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한다. 앞장 서시고 싸운다란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고, 여러 나라란 악들이다. 이것이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결과된다는 것은 주님의 발이 올리브 산 위에 있으셨으므로 의미된다. 그 이유가 올리브 산이 주님과 관련될 경우 이는 신성한 사랑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쪽은 신성한 선함을 의미한다. 올리브 산의 한 가운데가 갈라져 반 쪽은 동쪽을 향하고, 바다를 향해 움직여 그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게 된다는 것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로부터 선한 자를 분리하심을 뜻한다. 그 이유가 이미 언급했듯, 올리브산은 신성한 사랑, 동쪽은 신성한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다는 악 가운데있는 이들을 뜻하기 때문이다. 산의 절반, 절반이 남쪽을 향해, 북쪽을 향해 움직임은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분리함을 의미한다. 위 설명에서 산이 쪼개짐이 선한 자로부터 악한 자를 분리함을 뜻한다고 말해지는데, 이것이 심판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 의미 안에는 심판으로 결과되는 또 다른 분리도 있다. 이렇게 읽어지기 때문이다. “올리브 산은 사랑과 이타애의 선의 측면에서의 천국을 표현했고, 이 대목에서 취급되는 주제는 주님과 그분의 오심에 관한 것이다. 즉 올리브 산은 사랑과 이타애의 선, 이것들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하는바 주님의 교회도 의미하고 있다. 주님의 교회가 유대 국가로부터 퇴조되어 이방인들 사이에서 건설된다는 것이 산이 동쪽, 서쪽을 향해, 남쪽, 북쪽을 향해 쪼개짐으로 의미되고 있다.” 이는 주님의 교회, 천국에 적용될 때의 의미인바, 그 안에서 결과되어진 분리를 수단으로 두 왕국으로 나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나뉜은 이해성을 통치하는 의지가 계속 부패해져 급기야 “인간 심정의 생각 속의 모든 궁리는 계속 악할 뿐”일 때 마음의 두 기능 사이에 기적적으로 결과된 나뉜이었다 (창세기 6:5).

한 왕국이 둘로 분리된 한편, 한 천국은 셋으로 나뉘었다. 이 세 천국은 과거 주님의 교회를

향한 세 처방, 즉 태고 교회, 고대 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영계에서 천적, 영적, 자연적 천국을 형성하고 있다. 지상에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 세 처방은 종교적 삶에서 내려가고 있는 세 가지 인간의 상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천국은 두 왕국만을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기능은 두 가지, 즉 의지와 이해성, 마치 육체의 두 큰 기관, 즉 심장과 폐가 있듯, 영적 생명의 원리의 두 가지, 즉 선함과 진리, 또는 사랑과 믿음이 있듯 두 가지뿐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세 번째 것도 있다. 즉 행동, 또는 종교에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 두 기능이 병합될 경우의 결과로 있는 사용(use)이다. 이는 최말단 형태이다. 행동 또는 일이라는 이 최말단은 이스라엘 교회 처방인데 앞서 두 교회 처방에서 이미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이라는 처방에는 이전의 두 처방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담고 있을 뿐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교회는 내용상으로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만 빌려 단순히 표현된 것일 뿐이다. 이스라엘 처방이 지닌 큰 덕목, 즉 두드러진 특징은 순종, 즉 법이나 의식에 담긴 의미나 목적을 지각함도 없이 단순히, 무조건 순종하는 것리다. 따라서 세 천국에서 가장 높은 천국은 사랑이고, 둘째는 이타애, 마지막은 순종이다. 이 세 천국이 인간 본성의 세 요소, 영적 생명의 세 등차로부터 생산되어 왔는바, 이 세 요소는 지상에서의 방랑 생활 동안 인간 영혼의 그릇이요 영원한 거처가 되고 있다. 주님이 육을 입으신 때에 수행하신 일 중의 하나였던 위와 같은 천국의 배열은 과거의 결과였고 미래의 인류의 상태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 상태에 신성한 선함과 지혜가 압축되어 있다.

열 지파가 반역하고 여로보암 아래 두 번째 왕국이 건설되자 솔로몬의 왕위 계승자 르호보암은 “유다 가문과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렸다. 그는 정병 십팔 만을 뽑아 이스라엘 가문을 무찌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국권을 되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는데 야훼의 말씀이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내렸다. ‘유다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집안과 그 밖의 다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야훼가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나의 뜻이니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가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 가거라.’”

첫 번째 본래의 모습을 보전했다라면 주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천국 역시 교회나 마찬가지로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타락은 예견되었고 그 치료약 역시 준비되어 있었다. 하느님이 육 안에서 드러내심은 신성한 사랑이 본래의 모습을 이탈한 인간의 조건에 준 대답이었다. 신성한 선함과 자비의 이런 기적적인 행동의 모든 결과는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설비하는 수단이었다. 주님께서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인간을 뒤따르시면서 인간의 상태나 필요성에 그분의 처방이 맞추어지고 천국 역시 변경된 조건으로 그 자체 건설되었다. 인간의 기울어짐과 그 회복을 설비한 수단들이 이미 기울어 버린 인간의 상태에서부터 더 높은 상태로 승강하게 할지의 여부는 여기서 논해져야 할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어쨌든 희망 있는 대답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인류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와도 비슷하다. 개인적 인간 뿐만아니라 집합적 인간도 각기 유아기, 소년기, 성년기를 가지고 있다. 참으로 타락된 자의 유아기와 타락하지 않은 자의 유아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둘 다 순진으로 자기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초기 인간의 순진은 현재의 인간의 경우 같이 무지의 순진은 아니었다. 본래 지혜는 순진에 새겨졌다. 마치 본능이 동물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과 같다. 지금 지혜는 인간에게 상속되는게 아니고 습득해야 한다. 인간은 무지한채 태어나서 모든 것을 배워야한다. 그는 지식을 획득해야 하고 이 지식을 발판으로 총명을 획득하고, 이 총명을 발판으로 지혜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인간은 초기의 인간이 끝난 곳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초기의 지혜는 지금 달성 가능한 지혜와 달랐다. 초기 인간과 더불어 지혜는 지식을 응용한게 아니었다. 우리에게 지식이란 것이 있듯 초기 인간에게는 지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지각은 사물의 표면에 그치는 품질 만을 파악한게 아니라 내면의 본성과 영적 의미를 관통했다. 그의 과학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천국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는 지상적인 것들의 과학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가 달성이 가능한 습득물의 공통된 기초를 형성한다.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는 기초는 본래의 것 보다 더 높은 구조물을 지을 수 있을까? 가능하리라 본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육을 입으심도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큰 사건이 거행되고 그분의 인간성이 영화되어 천국의 태양에 새로운 광휘가 더하여졌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해 하셔 왔다. 각자가 지상에서 거듭남을 어느 수준에서 달성하든 그를 위한 저택이 주님의 신성한 지혜로 예비되어 있다.